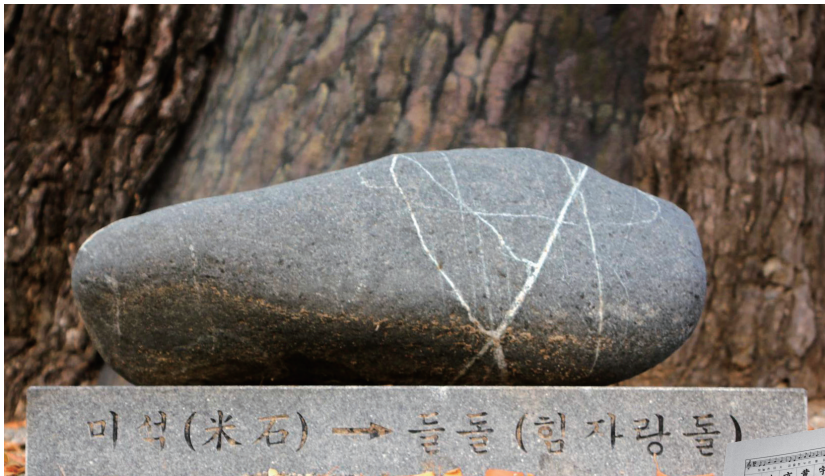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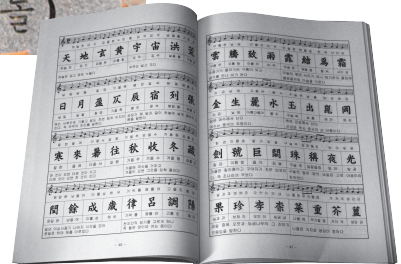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조사 연구 정형호 · 이하얀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 제1권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조사·연구책임자 정형호

연구보조원 이하얀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

1-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 경기문화재단, 정형호·이하얀, 2018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조사·연구책임자 정형호 (중앙대학교)

연구보조원 이하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인쇄·제본 프린트킹

발행 201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11772

전화 031-876-5843

ISBN 979-11-86929-32-2 (단품)

ISBN 979-11-86929-31-5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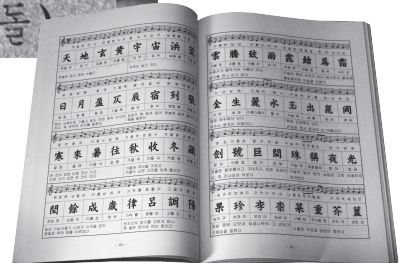
=====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조사연구 정형호 · 이하얀



일러두기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총3가지 주제별로 발간되었다.

학술조사는 사)한국민속학회/ 경기민속학회에서 수행하였으며
일생의례(강정원) / 세시와 놀이(정형호) / 생업(이기태)을 대상으로 하고
각자 책임조사를 맡았다.

면담은 2018년 6월~12월에 경기북부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8. 12. 11.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민속' 이라는 주제로
〈제2회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였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차례

목 차

1장. 조사 개관	9
2장. 지역별 생애사와 세시 및 놀이의 실제	11
1. 가평군	23
가.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24
나.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6
다.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74
2. 고양시	109
가.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110
나.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피마을	139
3. 구리시	159
가. 구리시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	160
4. 남양주시	173
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174
나.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187
5. 동두천시	195
가.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196
나.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219
6. 양주시	237
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238
나.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68

목 차

7. 연천군	285
가.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286
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310
8. 의정부시	335
가.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336
나.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349
9. 파주시	359
가.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360
나. 파주시 법원읍 웅담2리	368
다.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381
라.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404
10. 포천시	423
가.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424
나.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뫼이마을	443
3장. 지역별 생애사와 세시 및 놀이에 나타난 특징	463
(1) 조사 대상 마을의 특징	464
(2) 생애사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	467
(3) 세시풍속의 전반적 특징	469
(4) 놀이의 전반적 특징	473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1 장

조
사
개
관

1장. 조사 개관

(1) 조사 내용은 대상 마을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세시풍속과 놀이가 중심이다. 대체로 각 시군마다 평균 2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시군당 목차는 마을 개관, 토박이의 삶, 세시풍속, 놀이의 순서로 했다.
- 조사대상 지역 : 전체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 가운데 8개 시와 2개 군이다. 8개 시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이며, 2개 군은 가평군, 연천군이다.
- 조사한 마을 : 이번에 세시 및 놀이팀이 조사한 마을은 10개 시군 중에 22개 마을이며, 전체 제보자는 55명이고, 시군의 배열은 가나다 순서로 했다. 조사 마을과 조사인원은 아래와 같다.

1. 가평군(10명) : ①조종면 신하리, ②가평읍 금대리, ③가평읍 승안2리
2. 고양시(5명) : ①덕양구 강매1리, ②일산서구 구산동 거구피마을
3. 구리시(4명) : ①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
4. 남양주시(5명) : ①조안면 시우리, ②와부읍 월문4리
5. 동두천시(3명) : ①지행동 사당골, ②상봉암동 봉동마을
6. 양주시(4명) : ①광적면 석우리, ②백석읍 방성리
7. 연천군(3명) : ①미산면 유촌2리, ②왕징면 무등리
8. 의정부시(7명) : ①용현동 만가대마을, ②녹양동 버들개마을
9. 파주시(8명) : ①광탄면 용미2리, ②법원읍 웅담2리, ③법원읍 직천리,

④적성면 자장리

10. 포천시(6명) : ①일동면 길명2리, ②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 마을선정 기준 : 자연부락, 집성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다른 팀 (일생의례팀, 생업팀)의 조사마을과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사전 조정을 했다. 간혹 겹치는 경우는 제보자를 달리했다.
- 다양성 확보 : 한 시군에서 다양한 성격의 마을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 따라서 반촌과 상민촌을 구분하고, 농촌, 산촌, 강촌 등도 두루 포함시키려고 했다. 다만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거나, 군부대 주둔지로서 상당수가 개발되었거나, 공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평군 조사 지역의 경우, 신하리는 농촌, 승안리는 산촌, 금대리는 강촌의 성격을 지닌다. 파주시의 경우, 자장리는 휴전선 접경 지역에 농촌 및 강촌마을, 웅담2리는 군부대 주위, 파주시 직천리와 남양주시 시우리는 산촌, 용미2리는 서울시립공동묘지 입구마을이란 특징을 지닌다.
- 구술능력과 협조 : 대체로 제보자들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다만 1인의 여성 제보자가 동의성 작성을 거부해, 제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소수를 제외하고 구술능력은 대체로 좋은 편이었으나 개인차는 있었다.

(2) 조사일정과 조사자

- 조사자 : 정형호(책임연구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이하얀(연구원,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표 2〉 조사일정과 제보자 목록

	일시	지역	마을 특징	제보자	조사자	조사 횟수
1	2018. 7.19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양주농악 전승지	황상복(남, 1938년생)		1차 조사
2차	7.24	연천문화원	고향은 유촌2리	이준용(남, 1953년생, 연천문화원장)	공동	사전 조사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함열 남궁씨집성촌(11대)	남궁묵(남, 1946년생)	공동	1차 조사
3차	8.15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양주농악 전승지	황상복(남, 1938년생)	분리(정)	2차 조사
				김순희(남, 1938년생, 황상복 부인)	분리(이)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함열 남궁씨집성촌(11대)	남궁묵(남, 1946년생)	공동	2차 조사
4차	8.17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무대안	양주소놀이굿 전승지	최승덕(남, 1931년생)	분리(정)	2인 분리 조사
				김재원(여, 1931년생, 최승덕 부인)	분리(이)	
5차	8.28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공주 이씨 집성촌(12대)	이완수(남, 1937년생)	공동	1차조 사
6차	8.29				공동	2차조 사
7차	9.10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청주 양씨 집성촌(13대), 청송 십씨 일부	양재호(남, 1945년생, 노인회장)	공동	3인 분리 합동 조사
				김기용(남, 1942년생)	분리(정)	
				이용숙(여, 1943년생, 김기용 부인)	분리(이)	
8차	9.11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툰곳 이)	문화 류씨 집성촌(8대)	류건영(남, 1928년생)	분리(정)	3인 분리 조사
				윤의리(여, 1934년생)	분리(이)	
				조난호(여, 1930년생, 류건영 부인)	분리(이)	
9차	9.18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신목마을	연안 김씨 집성촌(9대)	김종일(남, 1933년생)	분리(정)	3인 분리 조사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김성섭(여, 1937년생, 김종일 여동생)	분리(이)	
10차	10.15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보성 선씨 집성촌(16대), 전주	선영수(남, 1939년생)	공동	1차 조사,
				선호옥(남, 1936년생)	공동	

			(5대) 일부			2인분 리조 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포	안산 피씨 집성촌(350~400년)	피상곤(남, 1939년생)		1차 조사
11차	10.16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경로당 방문해 제보자 사전 섭외 및 면담 약속				
		가평군 가평읍 부읍장 장동석, 가평북중 교사 강호철(향토사연구가) 면담				
12차	10.22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보성 선씨 집성촌(16대), 전주 이씨(4대) 일부	이윤식(남, 1940년생) 선호육(남, 1936년생)	공동 공동	2차 합동 조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포	안산 피씨 집성촌(350 ~400년)	피상곤(남, 1939년생)	공동	2차 조사
13차	10.23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비룡대마을	인동 장씨 집성촌(17대)	장석만(남, 1952년생) 윤성모(여, 1937년생) 김옥예(여, 1943년생)	분리(정) 분리(이)	2인 합동 조사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산촌, 연인산 입구	하길용(남, 1931년생) 김장춘(남, 1929년생) 이해춘(남, 1939년생) 이길순(여, 1936년생) 김성태(남, 1952년생)	분리(정) 분리(이)	3인 합동 조사 2인 합동 조사
14차	2018. 11.5	파주시 광탄면 용미3리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인근 마을	이종협(남, 1947년생) 김태춘(남, 1943년생, 시청 직원)	공동	2인 합동 조사
		파주시 법원읍 웅담2리	버들뚝 의령 남씨 집성촌(18대), 군부대 접경	남찬우(남, 1938년생, 노인회장) 강월순(여, 1936년생)	분리(정) 분리(이)	2인 별도 조사
15차	11.12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휴전선 접경 마을	장형설(남, 1936년생)	공동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마지저수지 아랫마을	유동필(남, 1938년생) 김태화(남, 1944년생) 곽옥희(여, 1941년생, 유동필 부인)	분리(정) 분리(이)	3인 별도 조사
16차	11.14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경주 최씨 집성촌(13대)	최경수(남, 1928년생) 유태진(남, 1939년생) 엄기선(남, 1952 년생)	단독(정)	3인 합동, 별도 조사
17차	11.19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마을	고령 박씨 집성촌(470년), 동두천 민요 전승지	이경훈(남, 1949년생, 노인회장)	단독(정)	

18	11.20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인근 미군부대	김기용(남, 1934년생)	(정)	사전 조사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광주 이씨 일부(12대), 운길산 뒤의 산촌 지역	이석운(남, 1938년생)	단독(정)	2인 별도 조사
				윤영섭(남, 1967년생, 이장)		
19차	11.26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인근 미군부대, 수락산 아래	이수옥(남, 1945년생)	단독(정)	4인 합동 조사
				김종오(남, 1943년생)		
				김기문(남, 1944년생)		
				김기용(남, 1934년생)		
20 차	11.27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마을	동두천민요, 백중놀이 전승마을	안정훈(남, 1942년생)	단독(정)	2인 합동, 별도 조사
				이경훈(남, 1949년생)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봉암동은 수정 최씨 집성촌	정병순(여, 1930년생, 친정 양원리)	단독(정)	
21차	11.28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김해 김씨 집성촌(9대)	김동수(남, 1930년생)	단독(정)	2인 별도 조사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촌, 운길산 뒤	류재풍(남, 1940년생)	단독(정)	
22 차	2019. 1.9	구리시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	구리 장자못과 백교 저수지 사이 마을, 각성마을	홍천만(남, 1924년생)	단독(정)	4인 합동 조사
				박광용(남, 1952년생)		
				김용태(남, 1952년생)		
				강영종(남, 1939년생)		

(3) 조사방식

- 조사내용과 질문방식 : 마을 유래와 개관, 제보자 간이 생애사, 민속놀이, 세시풍속의 순서로 질문했다. 세시놀리와 세시풍속은 서로 넘나들며 질문했으며, 이어 비세시놀리로 확대했다.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하되, 제보자의 생업과 경험 등에 따라 질문 방식을 달리했다.
- 조사팀 편성 : 제보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2인의 조사자가 함께 마을에 가서 함께 공동조사를 했으며, 부부이거나 여성이 있으면 2인의 조사자가

대상을 분리해서 조사했다. 이 때에는 조사대상에 따라 남성은 남성세시와 놀이, 생업, 마을역사, 동제를 중심으로, 여성은 여성세시와 놀이, 음식, 혼례로 구분해서 집중 질문했다.

- 조사방식 :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마을을 달리해서 조사했다. 제보자의 구연능력을 고려해 한번에 2-3시간 정도 조사했으며, 필요에 따라 오전, 오후에 걸쳐 연속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재조사 방식 : 시군당 2개 마을을 집중 조사하고, 대체로 두 번의 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했다. 한번 방문해서 부부를 조사하거나, 남녀가 같이 확보되면 2인의 조사자가 분리조사하고, 1회 조사로 마무리했다. 만약 제보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마을이나 제보자를 물색했다.
- 조사과정 : 모두 22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다. 직접 조사가 아니고, 사전 방문, 조사자 물색을 위한 사전조사가 4회 실시되었으며, 제보자의 건강이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중간에 면담이 중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남양주시 시우리는 여성 제보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남성 위주로 조사를 했으며, 50대 젊은 이장도 포함되었다. 파주시 용미3리 김태춘은 토박이가 아니고 마을 거주기간도 짧지만, 용미리시립묘지 관리자로 근무하고 퇴직 후 이곳에 정착하고 있으며, 시립묘지 관련 지식이 해박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4) 제보자와 주요 특징

- 제보자 선정 : 3대 이상 거주자를 원칙으로 했으며, 가능하면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70-60대도 선정했다.
- 남녀 비율 : 남녀 비율을 맞추려고 시도했으나, 전체 55인 중에 남성 41인, 여성 14인이 조사되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마을(21곳) 및 제보자 선정 방식

① 면(읍)사무소 소개(7곳, 지도와 기존자료 사전 검토) : 포천시 길명2리, 포천시 기지1리, 고양시 거구포, 가평군 신하리, 가평군 승안리, 파주시 웅담2리, 파주시 직천리

② 문화원 소개(4곳) : 연천군 유촌2리(자료), 동두천시 사당골, 의정부시 버들개마을,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

③ 지도 확인 후 직접 방문(7곳) : 고양시 강매1리, 가평군 금대리, 파주시 자장리, 파주시 용미2리, 남양주시 시우리, 동두천시 봉동마을, 의정부시 만가대마을

④ 기존 제보자의 소개(3곳) : 양주시 방성리, 연천군 무등리, 남양주시 월문4리

⑤ 개인적 연고(1곳) : 양주시 석우리

전체 22개 마을 중에 지역별 마을수를 보면, 양주시 2개 마을, 연천군 2개 마을, 포천시 2개 마을, 고양시 2개 마을, 가평군 3개 마을, 파주시 4개 마을, 의정부시 2개 마을, 동두천시 2개 마을, 남양주시 2개 마을, 구리시 1개 마을이다. 대부분 2개 마을이 조사되었지만, 가평군은 3개 마을, 파주시는 4개 마을이고, 구리시는 1개 마을을 조사했다.

지역별 조사 인원과 남녀 분포를 보면, 양주시 4명(남녀 2:2), 연천군 3명(3:0), 포천군 6명(3:3), 고양시 4명(4:0), 가평군 4명(6:4), 파주시 8명(6:2), 의정부시 7명(7:0), 동두천시 3명(2:1), 남양주시 5명(4:1), 구리시 4명(4:0)이다.

전체 성별을 따져보면, 남성은 41명, 여성은 14명이다. 따라서 75%가 남성이고, 25%가 여성으로 남성에 치우쳐 있다. 나이별(만 나이)로 보면, 90대가 3명, 80대가 25명, 70대가 20명, 60대 6명, 50대 1명이다. 따라서 80~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3〉 제보자 관련 추가적 정보 목록

지역	제보자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거주기간	특이사항
		남	1938년생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대, 평해 황씨	양주농악 상쇠, 소리꾼
	김순희	여	1938년생		69년	황상복의 부인,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고향
	최승덕	남	1931년생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무태안	14대, 해주 최씨	송서율창, 한학, 소리꾼
	김재원	여	1931년생		68년	최승덕의 부인, 인천

						고향
	이준용	남	1953년생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유촌리 성장	연천문화원장, 미산면 유촌1리 출생
	남궁목	남	1946년생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11대, 함열 남궁씨	전 노인회장
	이완수	남	1937년생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12대, 공주 이씨	무등리는 공주 이씨 집성촌
포천	양재호	남	1945년생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13대, 청주 양씨	노인회장, 중간 외지 거주
	김기용	남	1942년생		5대, 김해 김씨	길명2리는 청주 양씨 집성촌
	이용숙	여	1943년생		55년	김기용의 부인,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고향
	류건영	남	1928년생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틀못이)	8대, 문화 류씨	틀못이는 문화유씨 집성촌, 전쟁 중 8식구 사망
	윤의리	여	1934년생		63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고향
	조난호	여	1930년생		67년	류건영 부인, 의정부시 송산 미락동 고향
고양	선영수	남	1939년생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16대, 보성 선씨	강매1리는 보성 선씨 집성촌, 이씨 일부 거주
	선호옥	남	1936년생			흔레 사진 촬영
	이윤식	남	1940년생		5대, 전주 이씨	전 이장, 영화
	피상곤	남	1939년생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뫼	350~400년, 안산 피씨	거구뫼는 안산 피씨 집성촌
가평	김종일	남	1933년생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신목마을	9대, 연안 김씨	
	김성섭	여	1937년생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마일리 거주)		김종일의 여동생, 친정 방문
	장석만	남	1952년생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비룡대마을	17대, 인동 장씨	인동 장씨 집성촌, 한지 제작마을
	윤성모	여	1937년생		70년	가평군 북면 목동리 고향
	김옥예	여	1943년생		56년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고향
	하길용	남	1931년생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조옥동)	4대	승안 2리는 연인산 입구
	김장춘	남	1929년생	(점말)	3대	
	이해춘	남	1939년생		6대	현 노인회장
	이길순	여	1936년생		65년	가평읍 승안2리 점말
	김성태	남	1952년생		토박이	
파주	이종협	남	1947년생	파주시 광탄면 용미3리	4대	
	김태춘	남	1943년생		16년(전	전 용미리 시립공원

					관리인)	관리자, 전남 장흥 고향
	남찬우	남	1938년생	파주시 법원읍 응답2리	18대, 의령 남씨	노인회장, 마을 앞 군부대
	강월순	여	1941년생		56년	파주시 법원읍 응답2리 고향
	장형섭	남	1936년생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6대, 인동 장씨	노인회장, 인동 장씨
	유동필	남	1938년생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5대, 창원 유씨	손재주 뛰어남
	김태화	남	1944년생		8대, 안동 김씨	안동 김씨
	곽옥희	여	1941년생		56년	유동필의 부인,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고향
	최경수	남	1928년생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13대, 경주 최씨	전 노인회장
	유태진	남	1939년생		73년	버들개농요보존회 부회장
	엄기선	남	1952년생		2대	초기 구술
	이수옥	남	1945년생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고산동 4대	인근 고산동 출신(만가대 67년 거주)
	김종오	남	1943년생		4대, 김해 김씨	씨
	김기문	남	1944년생		4대,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종친회장
	김기용	남	1934년생		4대, 김해 김씨	
동두천	이경훈	남	1949년생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5대, 전주 이씨	노인회장, 부친과 숙부(작고)가 동두천민요 핵심전승자
	안정훈	남	1942년생		2대	
	정병순	여	1930년생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71년, 경주 정씨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경주 정씨 집성촌) 출생
남양주	이석윤	남	1938년생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12대, 광주 이씨	전 노인회장
	오효정	여	1946년생		52년	이석윤의 부인
	윤영섭	남	1967년생		3대	시우리 이장

		남	1940년생		3대, 문화 류씨	마을 학교 퇴직, 교회 장로
	김동수	남	1930년생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9대, 김해 김씨	
	홍천만	남	1924년생	구리시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	4대, 남양 홍씨	인근 토막리 출생, 한다리 70년 거주
	박광용	남	1952년생		토박이	
	김용태	남	1952년생		4대, 김해 김씨	전 통장
	강영종	남	1929년생		4대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2장

놀이
의
실제
지역
별
생애
사와
세시
및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가평균

1.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은 1개 읍(가평읍), 5개 면(설악면·청평면·상면·북면·조종면), 126개리 57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기도 동북부의 관문으로 북한강을 끼고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¹⁾

이번 가평군의 조사대상 마을은 조종면 신하리 신목마을과 가평읍 금대리 비룡대, 가평읍 승안2리의 3곳이다. 세 마을은 제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신하리 신목마을은 농촌 마을, 금대리 비룡대는 강촌 마을, 승안2리는 연인산 아래의 산촌 마을이다.

가.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1) 신하리 마을개관

조종면(朝宗面)은 원래 독립된 현으로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당시에는 삼천현 또는 복사매라 불렸으며, 신라시대에 준천이라 바뀌면서 가평군의 감무를 받아왔다. 조종이라는 이름은 고려 현종 당시에 붙여졌으며 이때부터 조종현이라 불렸다. 1871년 조종면의 방리는 현리, 영양촌, 석사촌, 내곡, 내세곡, 외세곡, 신상리, 신중리, 중판미리, 정수동, 행랑촌, 구이목, 하판미리, 마일, 신하리, 망동, 하대리, 다복촌, 상대리 등 19동이 있었고, 전체 624호로 전한다. 현재는 현리(縣里), 신상리(新上里), 운악리(雲岳里), 상판리(上板里), 신하리(新下里), 마일리(馬日里), 대보리의 7개의 법정리와 17개의 행정리, 20개의 자연마을에 총 10,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가평군의 서북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산과 고찰이 많고 보병사단이 주둔한 군사도시로 알려져 있다.²⁾

조종면 신하리는 조종면 현리 동쪽에 있다. 조종내(朝宗川)를 건너 넓은 들녘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은 자연마을이 신복(新福), 간촌(間村), 이문

1) 가평군청(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10.28)

2) 조종면사무소>마을의 역사/유래, 일반현황(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10.28)

안(里門內)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곳 들녘은 예전 개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갈대, 억새, 버들 등으로 온통 뒤덮여 새버들·새버덩이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 새버덩을 윗새버덩이 아래새버덩으로 불리다가 1896년 행정명 개편에 따라 새버덩의 새는 새신(新)자로 쓰고 위아래를 위상(上), 아래 하(下)로 쓰게 되었다.³⁾



〈그림 1〉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신하리 김종일(남, 1933년생)에 의하면, 이 마을은 신목, 간촌, 이문으로 나뉜다. 신목마을은 농촌 지역으로 연안 김씨, 간촌은 각성, 이문은 전씨 마을이다. 연안 김씨는 신목에 약 20호 정도 사는데, 그들의 시조는 양평의 강하면 왕창리로 그곳에 25대조 묘소가 있다. 9대조 김극남(金克男)이 인조 시기에 반란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을 온 것에 유래한다. 신목이란 이름은 마을에 수백년 된 방수나무에 유래하지만, 나무는 고사되었다. 이곳은 조종천을 끼고 있으며, “순풍이 없다”(흉년과 풍년이 없다)고

3) 조종면사무소>마을의 역사/유래>신하리(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10. 28)

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두레와 품앗이가 활성화되었으며, 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신목마을은 연안 김씨 집성촌으로 타성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폐쇄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신목마을은 예전에는 타성이 드물었다. 연안 김씨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조씨와 오씨가 살았다.

이 마을에서 보는 흙으로 쌓고 나무와 돌로 보충을 했다. 나중에 용수로로 시멘트로 만들었다. 음력 6-7월에 장마가 오면 보를 수리했는데, 이때 나오지 않는 사람은 품값을 쳐서 견게 된다.

이 동네에는 현재 상여가 ‘화채집’ (상여집)에 보관되어 전승하고 있다.

나무 상여로 쭉이 슬은 정도이지만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상여를 보관하는 곳을 ‘화채’라고 한다. 예전에 상여 선소리를 잘 하는 김종환이란 분이 있었다. 그리고 구술자 김종일의 형님이 소리를 잘 했는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곳에서는 논매는 소리로 수심가를 불렀으며, 상여소리나 회다지 소리로 회심곡과 십장가도 부른다. 이 마을에는 청정지역이라 우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 신하리 토박이의 삶

김종일(남, 1933년생)은 연안 김씨로 조종면 신하리 신목마을에서 9대에 걸쳐 살고 있다. 조사 당시 86세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는 일찍이 서당 공부를 해서 한문을 깨우쳤다. 동네 샘말 서당에서 천자문부터 계몽편, 동문선습, 명심보감, 통감2권까지 공부를 했다. 전쟁으로 집이 불타면서 예전 공부하던 책도 모두 타버렸다. 그는 전쟁 때에 미군 노무자부대에서 포탄을 운반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다. 한편 토종 곡식의 씨앗을 중요시하여,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토종 파 종자를 60여 년간 보존하고 있다.



〈그림 2〉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마을 김종일 부부

김종일은 조종국민학교 22회 졸업생으로 해방 직후에 6학년을 졸업했다. 그는 4학년 때에 해방이 되었으며, 해방 전 교장인 일본인 나까무라였는데, 당시 운동장에 고구마를 심는 일을 시켰던 기억을 갖고 있다.

6.25 전쟁 때에 이 마을에는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 중에도 마을 일을 계속할 정도였으나, 이들이 후퇴할 때에 행패가 심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집이 불에 탔으며, 1.4후퇴 때에는 대전까지 피난을 갔다.

전쟁 당시 그는 대한청년단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미 2사단 17연대의 노무자부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격포 실탄을 짚어지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여주를 거쳐 용문산 아래로 옮겼다가 다시 양평 국수리로 후퇴를 하다가, 여주서 해산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대전에 가서 정식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고 안 받아줘서 되돌아왔다. 당시 모든 이동은 도보였으며, 대부분 밥을 얻어먹으며 이동했다.

김종일은 이 마을에서 4-5년간 노인회장을 했으며, 올해에 회장직을 내놓았다. 신하리는 신북과 이문의 노인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남자가 10여명으로 적은 편이며, 여자노인회도 같이 활동한다. 그리고 간촌은 별도

의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는 3남매이며, 여동생이 1명 있다. 그는 피난을 갔다와서 전쟁 중에 바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가평군 상면 원응리 출신이다. 결혼식을 올릴 때에 운동화를 신고 혼례를 치른 기억이 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이 가장 노릇을 했으며, 현재 사는 집은 26-27살 때에 지었다.

그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 가서 한문을 2년간 배웠다. 형님이 노래를 배우라고 했지만, 샘말서당에 다니며, 천자문, 계몽편, 동문선습, 명심보감 등을 배웠고, 통감 2권째를 1년간 배우가다 고등공민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지 전쟁이 나서 배우던 책이 다 불에 탔다.

가평 지역은 산골마을이 많지만 이곳은 비교적 논이 넓은 지역이다. 김종일의 논은 2000평 정도이며, 밭은 채마밭을 합쳐 5000평 정도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산벚나무를 많이 따 먹고 광란이 나서 고생한 적이 있다. 산에 3-4명이 같이 갔는데, 본인만 광란이 났다. 이때 집에 있는 꿀을 떠 먹으니 신기하게도 금방 낳았다. 이곳에는 약초가 많이 나지 않는다. 송이나 산삼은 없으며, 그는 예전에 인삼을 심은 적은 있다. 새가 삼씨를 먹고 똥을 싸서 낳은 것이 산삼으로 알고 있으며, 몇 해 동안 삼을 캔 적이 있다.

김성섭(여, 1937년생)은 김종일의 여동생으로 이곳 신하리가 고향이다. 19세 때에 중매를 통해, 마일리로 시집을 갔다. 그녀는 조사 당일 오빠부부네 집에 놀러왔다가 조사에 참여했다

김성섭이 시집가기 전 신하리에는 40~50호 정도가 거주했다. 신목마을, 샘말, 이문안의 3개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업은 주로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논보다는 밭이 많았고 밭 가운데는 화전도 있었다. 마을의 논농사는 대부분 홍씨, 박씨, 정씨의 세 성씨가 지었다. 이들 세 성씨 외에는 모두 각성반이로 이들의 생활은 어려운 편이었다. 김성섭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현리의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몇 달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처음 10월 피난은 가평읍 상면으로 갔으며, 2차 동짓달 피난은 충북 음성까지 갔다. 피난은 모두 걸어서 이동했으며, 음성에서는 두 달간 살다가 고향인 가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전쟁 직후에 혼인을

했다. 장정순(여, 1935년생)은 김성섭의 올캐로, 상면에서 18세 때 시집을 왔다.

김성섭의 시댁은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이다. 초례 끝나고 가마를 타고 이동했으며, 신행 때에 오빠가 함께 동행했다. 한복을 입고, 혼례복은 ‘화채독’이라고 부르는 곳에 마을 공동 사용의 족두리, 사모관대가 있어 빌려 입었다. 대례상에는 과일, 부침개, 암수탉, 술이 있었다.

고모가 중매했어.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가까우니까는. 우리 사는 데는 현리 쪽에 광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극도 하고 꾸며가지고 그런 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구경하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보기는 봤지.

그냥 동네서 하는 거니까 동네사람은 같이 썼지. 사모관대, 족두리 이런 거. 나도 그거 빌려 쓰고 집에서 결혼식하고. 거기 뭐 과일, 부침개 그런 거 놓고 닭도 산거 붙잡고 날리고. 수탉, 암탉 한 마리씩 잡고 날리는 거야.

시댁에서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만동서와 함께 살았고, 현재 슬하에 딸 셋, 아들 셋 6남매를 두고 있다.

(3) 신하리의 세시풍속

(가) 김종일이 구술한 세시풍속

신하리 신목마을에서 김종일이 구술한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의 햇불 달맞이, 햇불싸움, 윷놀이대회, 연날리기, 단오 그네뛰기, 6월 말(양력) 초벌매기 두레와 품앗이, 6-7월 보수리, 7월 참외서리, 말복 시기 천렵, 7월 백중 씨름대회, 겨울 새잡기, 눈싸움 등이다. 특이한 세시로 조종천 천렵, 겨울철 새청아 이용한 새잡기 등이 있다. 김종일(남, 1933년생)이 구술한 신하리 신목마을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월대보름에 햇불을 만들어 달님에게 기원을 했다. 다복을 껴서 엮어서 화를 만들며, 3살부터 10대 초반까지 나이 수대로 묶는다. 달이 뜨면 화에 불을 붙여서 자기 소원을 빈다. 이때 화를 3-4번 흔들며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한다. 부녀자들은 아이들 머리 위로 햇불을 돌리는데, 불뚝이 떨어질까봐

아이 머리에 치마를 뒤집어 씌우고 돌렸다.

정월 대보름날에 햇불 만드는 것도 했죠. 다복 꺾어다가 꿰다 만들었죠. 길이는 대중 없어요. 나이 별로다 묶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제일 길게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11살 돼서도 해요. 애들 서너 살 되면 불장난 하면 불로 영 온다고, 부모네가 저 행주치마를 씌워놓고선 그 위다 휘 돌리고 그랬죠. 정월 대보름은 달이 떠나 되니까, 여기서 저 앞에 햇불 들고 논에서들 많이 나왔죠. 달이 뜨면 불을 붙여요. 불은 성냥으로 붙였죠. 아이들도 나오고, 젊은이들도 나오고, 부인네들도 애들 데리고 나와서 불장난 하고, 불 위험하다고 조심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달을 향해서 절을 하는게, 자기 소원 빌려고 그러는 거지. 절은 한 서너 번 해요. 그 때 난 명절에 놀기 좋아서 뛰어댕기기만 했지. 그런 판 대처럼, 여기서도 부녀자들이 아이들 위에 햇불을 머리 위에 올려 빙빙 돌렸어요. 서너 살 이상 되는 애들한테는 햇불을 켜서 그렇게 했죠. 혹시 불뚱이 떨어질까봐 치마를 이렇게 씌워놓고 휘두르면서 했죠. 화를 서너 번 돌리면서 소원을 빌죠. 부녀자분들은 소원을 집에 달이 없게 해달라고 주로 하죠. 애들이 조금 크면 안하고 직접 하지. 그 전에는 토종비결이라고 봤잖어. 거기에 길흉 판단이 나오면 망한 사람은 커서도 그 화를 하고 그러지.

이 마을에는 농악이 크게 성행하지 않았으며, 상모도 돌리지 않았다. 예전에 정월대보름 직전에는 마을 농악대가 각 집의 마당에서 농악을 치며, 쌀을 걷고 술을 대접받기도 했다

김종일은 전쟁 이전 시기에 논을 맬 때에는 장구에 맞춰 선소리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15세 쯤으로 18세에 전쟁이 났으니 대략 1947년쯤 된다. 1950년에는 집에서 김매기 초벌 맬 때에 육이오가 일어났다.

이 마을에는 두레(‘드레’라 발음)라는 것이 있었다. 품앗이 형태로서 김종일은 군대에 갔다 와서 24-25살 경에 참여해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선소리꾼이 소리를 맥이면 다같이 따라하는데, 주로 선소리로 양산도, 수심가, 회심곡, 화채도가 등의 소리를 했다. 본인도 소리를 좀 하는 편이며, 형님이 두레에는 많이 참여했다.

7월에 강남콩을 심는다. 김종일은 25살 때부터 토종콩과 토종파 종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는 한국 종자가 순종이라 생각하며, 고유의 콩 종자를 지켰다. 외지의 문화원이나 기술센타에 가서 토종 콩 종자 보급을 했으며, 올 8월에는 부인네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종자를 보급했다. 또한 그는 토종 파 종자를 25살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60년 가까이 파 종자를 이어오고 있다. 요즘 심는 홑파는 혼합종으로 겨울에 얼어 죽는 경

우가 많다. 그런데 전통 토종 파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여름에 초복~말복 사이에 30여명이 천렵을 간 적이 있다. 남녀가 같이 조종천 개울로 가서 고추를 따서 밀 부치기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개울에서는 반도로 날피래미, 껍지, 동자개, 빠가사리 등을 잡았다. 더울 때에는 남자들은 목욕을 하며, 여자들은 주먹을 씻을 것을 준비한다. 전은 파와 고추를 넣은 밀가루전이 보통이다. 지금은 이곳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넷가 가서 고기 잡는 건 했어요. 천렵이라고. 농사 다 지어놓고 하는데, 초복 때 할 적도 있고 중복 때 할 적도 있고 말복 때 할 적도 있고. 그 때는 남자여자 할 거 없이 동네에서들 다 나서죠. 밀 부치기도 해먹고, 고추 따다 놓고, 제각각들 먹을 거들 가지고 나와서 개울로 가져가서. 고기들을 많이 잡으면 매운탕도 끓여먹고 그랬죠. 개울은 조정천이라고 나가면 있어요. 한강으로 흘러들죠. 어우~ 거기 물고기도 많이 잡혔죠. 여긴 옛날에 날피래미 같은 거, 껍지, 동자개, 빠가사리 그런 여러 가지. 잡고기죠. 주로 반도로 잡았지. 반도가 양쪽에 나무에다가 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였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때엔 더울 때니까, 그냥 빨개 벗고 들어가서 했죠.

잡는 건 남자들이 했고, 먹을 건 여자들이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동네가 다 가는 거지. 집 비운다고 안 가는 사람 있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밀 부친다는 게 전 부친다는 거여. 전이 내 기억으론 그 때에 주로 밀가루로. 파 좀 넣고, 고추도 두들겨 넣고 이렇게. 천렵 이 거 없어진 지 오래여. 지금도 심심하면 천렵 간다고 하고 놀고 오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하는 건 없어졌어. 몇 십년 됐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내가 한 이 동네에 30년 정도 살았나. 지금은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천렵 간다 하면 사다 먹죠. 그냥 개울에 가서 앉아 먹는 맛이지.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은 연중 이루어지지만 특히 가을철에는 겨울을 대비해 집중적으로 땔감을 했으며, 장에 내다 팔아서 수입을 얻기도 했다. 주위 산에 나무가 많은 편이며, 나무를 해서 2킬로쯤 떨어진 현리장에 가서 땔감으로 팔았다. 나무를 등짐으로 지고 새벽에 집을 나가 아침 7시쯤에 나무단을 팔고서 돌아온다. 김종일은 나무장사를 해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나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의 권유로 퇴비 만드는 일을 했다. 당시 면에서 나무하지 말고 퇴비하라고 심한 간섭이 있었다. 김종일은 젊어서 나무장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았다.

예전엔 산에서 나무 많이 하고 다녔죠. 나는 나무 장사해서 먹고 살았는데요. 현리 장에 가서 팔았죠. 현리장이 한 2킬로 될까, 5리도 안 돼. 그래서 나무장사 했지. 낮에 해뒀다가 새벽에 집을 나가지. 나무 장사 할 때에는, 너무 일찍 나가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한 7시. 그 때 나가야지. 지는 건 등짐으로 지고 나가지.

나무 없을 때에는 퇴비 안 만들고 그 거 한다고, 먼 직원이 막 지랄을 하고 나와라 가라 하고. 왜 산림쪽인 땔나무 해다 파느냐고. 점점 지나면서 산림이라고, 동에서 나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무 해뒀 놓고선 퇴비 안 되면, 나와라 불러서 시말서 써라 그랬죠. 그 땐 공무원이 세도가 당당했죠.

그 땐 시골에서 돈 버는 건 나무 장사였으니까. 평상시엔 돈 만지기 힘들었죠. 나는 학교 땀길 적에는 땔나무 안 했어요. 학교 졸업 맞고서, 열여섯 살인가, 열일곱 살에 집에서 농사일하고 땔나무하고 그랬죠. 그러다 열여덟 살에 6.25가 나고. 형님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형님이 나무일을 하고 나는 학교 땀겼죠.

겨울철에 새잡기를 하는데, 새청하를 만들어서 잡았다. 니은 자 나무에 등글게 노끈을 연결하고, 조이삭을 매달아서 이걸 먹기 위해 다가온 새가 목이 걸리게 만든다. 참새는 약아서 잘 안 잡히고, 산에 사는 족새가 많이 잡혔다. 겨울철 초가집 지붕 밑에 광솔불을 거꾸로 들이밀어서 잡기도 했다. 잡은 새는 화룻불에 구어 먹는데, 작아서 먹을 것이 별로 없지만 맛은 좋았다. 옛말에 참새가 소 등에 앉아서 “네 고기 열점이 내 고기 한 점만 하나냐?”라는 말이 전할 정도로 새고기 맛은 좋다.

새 잡는 건 새청하를 만들어서 잡았어요. 새총 말고, ‘ㄴ’자로 된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다 돌려매요. 쌀이나 뭘을 요렇게 휘어서 두 가닥을 해놓고, 한 두어 바퀴 돌리면 한 가닥을 부때기를 해놓고 하나는 내가 손 위를 요렇게 잡아당겨서 끈을 해서 해놓고, 새가 오는 데에 여기 조이삭을 매달아 놓으면, 그걸 따먹으려고 하면 동여맨 게 탁 트여지면서 새가 모가지가 꼭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고걸 줍는 거지.

새는 많이 잡아먹었죠. 참새가 아니라 산새. 족새라고 그러거든요. 고걸 많이 걸리지. 요놈의 참새는 요만치 약아서 잘 안 쳐요. 이제 눈 많이 왔을 적에, 논두렁에 가서 확실히 놓는 게 거긴 새들이 먹을 게 많아. 거기다 갔다 청하를 놓으면 잡아먹고 그랬어.

여기는 두렁(도랑)이 없어서 미꾸라지가 없어. 초가집 처마 밑에도 새 잡았죠. 새가 겨울에는 초가집 지붕에 새의 굴이 요만큼 있어. 그 땐 광솔불을 뿌려 땀기다가. 광솔불이라고 해서 잘게 쪼개 가지고서 불을 붙여서, 처마 속의 밑으로 살살 돌아 감다 보면 굴이 있어. 거기다 불을 얼른 거꾸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땅으로. 그러면 글로 솔을 넣으면, 어떤 때에는 허탕을 치고 어떤 때에는 새를 잡고 그랬지.

그리 잡은 새는 화룻불에 구워 먹었지. 새 껍데기는 구우면 다 타지. 그냥 걸을 살살 굴리면서 불에다가 구워 먹는 거지. 화룻불 위에서. 그 새가 먹을 게 많이 없어. 참새가 소 등에 앉아서 “네 고기 열점이 내 고기 한 점만 하나냐”라고. 그 말이지. 참새가 맛은 있어요. 도시에 포장마차에 참새 파는 게, 진짜 참새가 아니라 병아리라고 그런 적도 있

어. 참새가 귀하거든. 요즘엔 제비도 안 와요. 우리집에 제비집 있던 것들도 다 뜯어 내 버렸어요.

(나) 김성섭과 장정순이 구술한 세시풍속

정월의 차례 음식으로는 떡만두국을 준비하고, 차례상에 녹두전, 북어포, 육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산적, 어적으로 조기를 올린다. 두부도 부쳐서 준비하는데 두부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정월에는 엿을 고는데, 주로 쌀, 수수, 옥수수로 엿을 만들고, 조청을 만들어 과줄다식에 사용했다. 과줄다식의 재료는 주로 송화가루, 쌀가루, 깨가루 등이다.

정월에는 초하루부터 초닷새 안으로 계속해서 세배를 다닌다. 세배에 대한 답례로 어린이들에게 대개 과줄다식이나 쌀산자 등의 먹을거리를 주었다. 다식에는 송화다식, 쌀다식, 깨다식이 있었다. 당시 세배돈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떡국을 끓여 대접하고, 따뜻하게 데운 술과 함께 차례상에 올렸던 부치기, 두부부침 등을 안주로 냈다.

정월차례 별거 있어? 촌에 없는데 그냥 떡이나 하고, 전이나 부치고, 고기 사다 적이나 하고. 떡국 끓이고 만두도 했죠. 국물은 저 빠다구로 내지. 장은 없고 현리에 쪼그만 구멍가게 있었어. 거기서 사와야지 포 같은 거 뭐. 두부도 집에서 하겠다. 다 집에서 하고. 적은 소고기, 돼지고기, 또 북어 어적. 조기 찢지.

정월에 세배도 많이 다녔지. 초하루부터 초닷새 안에는 계속 와. 초삼일까지는 노인네들 있는 집은 아주 떡국 끓여내고 술들 데워내고 하느라 아주 혼들 났지. 안주는 부치기 그런 거 두부 부치기. 세배돈은 지금 같이 돈이 있으니 돈을 주나? 그저 과줄다식, 산자 같은 거 그런 거. 쌀 튀겨서 산자를 집에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세배를 몇 번씩 온다고 그거 먹을라고. 다식은 송화다식, 쌀다식, 깨다식. 송화가루 많은 사람은 많이 하지만 산에 가서 송화 따다가 가루내서. 조청해서 만들지. 꿀은 여기 안 했어.

정월에는 새 옷을 지어 입는데, 옷은 광목, 명주로 지어 입었다. 또 토정비결을 보기도 했는데 오빠인 김성섭이 잘 보았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해 먹는데, 김성섭은 14일에 오곡밥을 해먹었다. 찹쌀, 멍쌀, 수수, 좁쌀, 콩, 팥 등을 섞어 밥을 짓고 취, 고사리, 무, 콩나물을 무쳐 나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보름날 당일에는 ‘섬만두’를 빚어먹는다. 돼지고기, 숙주, 김치, 두부를 소로 넣어 조그맣게 송편 크기로 빚은 만두를 섬만두라고 하며, 이것으로 만둣국을 끓인다. 보름날은 만둣국과 함께

쌀밥, 고기반찬, 김구이로 상을 차려 잘 먹는다. 특히 정월에는 집에서 만둣국을 많이 끓여 동네 사람을 대접하는데, 집마다 돌아가며 대접한다.

여기는 오곡밥은 14일날 해 먹고 보름날은 섬만두라고 만둣국 끓여 먹어요. 농사 잘 되라고 하는 만두. 섬만두. 그전에 쌀이 귀했는데 쌀밥하고 그냥. 고기반찬에 김에 잘 해 먹었죠. 14일날 오곡밥 해가지고 이웃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고기, 숙주나물, 김치, 두부 그렇지 뭐. 조그맣게 만들어. 한입에 쏙쏙 들어가게. 정월달이면 한 집에서 만두를 잔뜩 끓여가지고 웬 동네사람 다 불러가지고 나눠 먹고. 오늘은 이집에서 해먹고 내일은 저 집에서 해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먹었어요. 정월달엔 그냥 아무 날이나 보름 안에.

부럼도 깨무는데 잣, 밤, 땅콩으로 한다. 잣은 집집마다 잣나무가 한그루씩 있었으나, 북면이나 상면과 같이 잣 농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정월보름에는 화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다. 쭈대나 수수단, 대마대를 꺾어 만들었고 꼬나풀(대마껍질을 벗긴 것)로 나이대로 묶었다. 한편 김성섭은 화는 친정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는데, 대개 보름 전에 산에 가서 다복을 끓여 와서 만들거나, ‘저름’이라고 하는 삼대 껍데기와 수수깥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들 재료로 대를 만들고 나면 짚으로 나이 수만큼 맨다. 자기 나이에 해당하는 마디가 탈 때까지 계속 화를 붙들고 흔들었다. 마을에서 달맞이 하는 곳에 미리 모닥불을 피 두어서, 집에서 만든 화를 가지고 가서 불을 붙였다. 화를 들고 달이 뜨면 달을 향해 “달님 절합니다”하고 소원을 빈다. 달맞이는 어른까지 화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

화. 다복이라고 끓여서 이제 보름 전에 비어다가 매어 놓지. 산에 가면 많았어. 삼대 그거 껍데기 벗긴 저름이라고 그거랑 수수깥도 넣고 하고. 나이수대로 매야 그걸 화라고 해. 매는 거는 짚으로 매. 아빠가 맨들어 주지. 애들 수만큼 집집마다 만드는데. 달 빨리 보이는데서 하지. 나는 집에서 했어. 다 탈 때까지 “달님 절합니다. 달님 절합니다” 하고 이렇게 흔드는 거지. 그리고 또 집에 할머니나 이렇게 노인분 계시면 이렇게 잡귀를 다 이렇게 한다고 행주치마 씌워놓고 이렇게 머리위에다 이렇게 돌리고 이랬어요. 나도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아주 명주옷은 지금 실크지. 그건 집에서 해입는 사람은 좀 있는 집이었어. 그래서 나를 그걸로 치마 저고리를 노란 거랑 빨간 거를 물을 들어 가지고 해줬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주 재 떨어 질까봐 조마조마했어. 불이

떨어져서 그 좋은 거 탈까봐.

삼재가 든 사람은 이날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개울에 던진다. 액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한지 창호지에 밥을 조금 넣고 짜서 개울에 버린다. 지금으로 치면 ‘방생’ 같은 것이다. 그의 조부가 창호지에 ‘해동조선국’ ‘생년월일’을 써서 아이들 숫자만큼 만들었다. 따로 부르는 말은 없었고 이것을 “액풀이한다”고 한다.

귀신날은 “귀신대가리 깨뜨린다”고 하면서 널을 높게 뛰었다. 밤에 신발을 방안에 감추고 대문에는 체를 걸어두었다. 체 사이에 바늘을 하나 넣어 두면 귀신이 바늘을 가지고 체 구멍을 밤새도록 세느라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음력 2월에는 장을 담근다. 손이 없는 날이나 또는 말날로 날을 잡아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갔다. 고춧가루 조금 넣은 약고추장을 ‘막장’이라 하며, 찹쌀로 담그는 장을 ‘약고추장’이라 한다. 찹쌀고추장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거나 집안 행사 때만 사용했다.

음력 3월 말에는 나물이 많이 나온다. 취나물, 잔대썩, 삼주, 고사리, 고비, 미역취가 많았다. 보통 시집가기 전의 처녀들이 2~3명씩 조를 이루어 나물을 뜯으러 다녔다.

장은 2월에도 담그고 정월에도 담그고 늦으면 3월까지도 담가. 우린 주로 2월에. 뭐 말날이 좋고 그믐날. 스무날 이렇게 했지. 손 없는 날 잡아서 우린 그렇게 했지. 달력보고 스무날이고 뭐 했지. 간장, 된장, 고추장 그렇게 했지. 막장 또 손님 올 때 먹는다고 찹쌀고추장 조그만 항아리로 하나 담그고. 막장은 고춧가루 좀 넣고 약 고치장이라고. 찹쌀고추장은 쪄고만 항아리로 하나 담그고. 우린 고추장 보리밥해서 넣었어 질금 안 하고. 약고추장은 찹쌀밥으로 하고. 찹쌀떡으로도 하고.

산으로 나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취나물, 잔대썩, 삼주, 고사리, 고비, 미역취 그거지 뭐. 나물 풀 다 퍼져야 나물도 나니까 음력 3월 말쯤. 여기 늦게 까지 추워서. 시간 있는 대로 혼자가기 저기하니까 둘씩 셋씩 저기 모여서. 여럿이 가니까 그냥 하는 대로 했지 뭐 누구한테 배워. 열남은살 넘어서 쪼꼬매서부터 시집가지 전까지 했지.

음력 4월에는 목화를 심어 가을에 추수하는데, 집집마다 목화밭이 있었다. 삼베 농사도 많이 지어 마을 여성들은 모두 길쌈을 했다. 삼은 3~4월 심어, 처서 지나서 여름에 베고 화집에 삶는다. 삼을 삶는 것은 마을 공동으

로 한다. 묵화는 봄~가을로 하고, 누에도 봄누에와 가을누에를 쳤다. 누에는 매봉산에서 산뽕을 따다 먹였다.

광목, 민영 묵화 심어가지고 그제 많았지. 명주는 있는 집이나 하지. 밭에 그제 심어 씨 아로다가 씨 빼서 솜 트는 기계나 있었지. 그때는 활로다 이렇게 틀어서 솜 만들고. 마을이 품앗이도 하고 그랬지. 삼베도 있지, 명주도 했지, 민영도 했지. 삼베는 집에서 해가지고 현리 가서도 팔고 마을에서 짚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에도 사서 쓰고 그랬지. 밤에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삼 삼고 그랬어. 삼은 여름에 벼서(베서) 찌서 뱃겨가지고 삼베하는 거지. 삼 삼는 거는 산에다가 만들었어. 물 퍼다 부어야지.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하는 거야. 고치도 실 빼서 옷 해 입지. 그것도 좀 사는 사람이나 하지 못사는 사람은 할 줄 몰랐어. 뽕나무 심고 없으면 산뽕도 따다 맥이고 그랬어. 여기 산뽕 많이 났어. 저기 매봉산 같은데 뽕나무 많이 심었어.

농사의 시작은 음력 3월이다. 땅이 녹으면 소로 논, 밭을 갈아엎는다. 소가 없는 집에서는 이웃 소를 빌렸는데 이때 소와 사람의 품은 1:2로 했다. 농사일의 시작은 벼씨를 담그는 것인데, 대개 일주일 정도 담가 짝을 띄운 뒤, 한달 가량 못자리에서 키운다. 마을 언덕 아래에 보가 있어 논이 못자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보를 막았다. 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영좌’라고 하며, 보통 ‘상사람’이 담당했고 그에게 ‘봣소임’이라는 명목으로 가을에 수확 후에 벼 1말씩을 거둬 주었다. 농사는 보를 막은 물로 짓고, 생활용수는 마을 별로 공동 우물을 파서 사용했다.

농사에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 산골에서 물이 내려와서. 보 있지. 같이 쓰는 거 언덕아래라고 있었어. 논농사 짓는 사람끼리 같이 개울물 막고. 못자리 할 때 같이 막지. 논 있는 사람만 쓰지. 가물면 순서로 한 집씩 순서를 정하지. 논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또 봣소임이라고 또 가을에 물 봐주는 사람이 있지. 벼 한 말씩 주고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타작해서 벼 한 말씩.

벼농사를 지었으나 쌀의 소출이 많지 않아 주식은 잡곡이었다. 그래서 밭작물은 주로 잡곡을 심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은 식용으로 소량 재배했다. 콩, 조, 팥, 녹두를 많이 심었고, 좁쌀과 콩을 주로 먹었다. 밭김매기는 5월에 초벌을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 맨다.

논은 5월 20일경에 모를 내기 시작해 망종 넘어서까지도 낸다. 이 마을에

서 모내기에는 20명 정도가 모였다. 여자들은 밥, 반찬 등을 준비하느라 하루종일 분주했다. 반찬은 여름이라 주로 김치짬지, 물김치, 고등어, 두부, 콩나물 등을 준비했다. 김성섭은 참은 국수나 콩을 삶아 쌀을 넣고 끓인 콩죽을 내놓았으며, 점심 한 끼는 쌀밥을 먹었다. 이때 보리쌀을 가마솥 한켠에 같이 앉혔다가 남자들은 쌀밥을 주고, 여자들은 보리밥을 먹었다. 점심 이후 저녁참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콩죽을 쑤어 먹었다.

반찬 이것저것 다하지. 김치짬지하고 잘해야 고등어나 하고 두부, 콩나물 하고 그런거지. 도급이라고 자기들끼리 도급 말아 오는 사람은 밤에까지 하고.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아침에 조반 먹고 시작하고. 품앗이 하면 그냥 조반 먹고 만나 거기 가서 참하고 점심만 먹고. 오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는 아침나절 참, 저녁 참 그거야. 참도 국수도 하고 콩죽도 쑤고 콩 삶아서 갈아가지고 쌀 넣고 죽 끓이는 거지 뭐. 점심은 밥하고. 콩죽에는 쌀이지 잡곡 안 하고. 모내고 그러는 날은 쌀밥 줘야지. 보리밥은 한쪽에 같이 앉혀가지고 집에서는 그거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 주고. 그냥 와서 부엌일 와서 같이 도와주고.

모내기와 마찬가지로 김매기와 길쌈에도 품앗이가 있었다. 품앗이는 품을 파는 경우, 품값으로 벼 혹은 돈을 주었다. 삼베 길쌈은 닻새가 가장 고운 것이지만, 보통 녀새가 많다. 삼베 풀은 귀리로 쑤었는데 마을에서는 귀리를 재배하지 않아 하판리의 버리울이라는 마을에서 쌀과 귀리를 1:1로 바퀴와 길쌈을 했다.

길쌈 한 거 집에서 옷하고 남는 거는 팔아도 먹고. 현리서도 팔고 마을에서도 못 짜는 사람한테 팔고. 닻새가 제일 고운거야. 비싸서 잘못 싸기도 하지만 허기도 힘드니까, 녀새가 많지. 나도 삼이나 삼지, 짜는 건 못해. 풀은 귀리로 했어. 여긴 안 심으니까 저기 하판리 가서 쌀로다가 귀리로 바꿔왔어. 그래야 바디도 사뿐사뿐하고 다른 거는 끈적끈적하다고 해서. 맛바꿨지. 1대1로. 하판리 버리울이라는데 가서.

마을 안에서 부업으로 소, 돼지를 키웠으며, 콩깍지, 조싹, 짚으로 쇠죽을 쑤어 먹었다. 쇠죽을 쑤고 소를 먹이는 일은 집안에서 남녀 구분이 없었다. 한 집에서 다 먹이기 어려울 때는 없는 집에 소나 돼지를 1년 먹이도록 주고 이득을 반으로 나눴다.

5월에는 여자 아이들은 봉숭아물을 들였다. 대개 시집가기 전까지 한다. 꽃

을 따서 사기그릇에 백반과 함께 뺑아서 손톱에 올리고 피마주 옆으로 감싼 뒤, 민영실로 묶는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약쭉을 뜯으며, 배 아플 때 삶은 약쭉물을 마시면 낫는다. 아침 이슬 내리기 전에 남자, 여자 모두 약쭉을 뜯으러 간다. 또 취를 뜯어서 수리취떡을 해먹기도 한다. 수리취는 걸은 파랗고 뒤집으면 하얀 솜털이 나 있는데, 이것을 따다가 삶아서 떡반죽과 함께 쳐서 인절미를 만든다. 다 된 떡에 콩고물을 묻혀 완성하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었다.

봉숭아 피면 5월쯤 물도 들었지. 음력 5월. 난 오빠만 돌이야. 막내딸이라 곱게 자랐어. 할머니가 들여줬어. 피마주 잎사귀로 묶어. 민영실로 매서. 시집가기 전까지 했지. 시집가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난 안 했어.

단오날 아침에 약쭉도 뜯고, 나도 땡기긴 땡겼어. 남자도 뜯고 여자도 뜯고. 말렸다가 여름에 약이 있어, 뭐 있어? 배 아프다 그러면 그거 삶아주고 그랬지.

수리취떡도 해 먹고. 취는 산에서 해오고. 떡 해 먹는 취가 따로 있어. 거죽은 이렇게 파랗고 안은 이렇게 하얀 저기 솜털 같은 게 있고. 삶아가지고 떡하는 데 같이 넣고 치지. 그냥 지금 인절미처럼 잘라서 콩고물 묻혀서 이웃사람들 같이 나눠도 먹고.

7월 칠석에는 밀떡, 밀부치기를 해서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밀부치기는 밀가루 반죽에 호박이나 김치를 넣어 부친다. 밀떡은 기름냄새 맡으라고 논에 두고 농사가 잘 되라고 기원을 한다. 그의 부친은 화전밥과 조밭에도 밀떡을 갖다놓았는데, 마을에서 밭이 멀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또 7월에 벌초를 마무리 한다.

복날 특히, 초복과 중복에는 천렵을 간다. 칼국수, 빈대떡을 준비하고 개를 잡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았다. 중복이 지나면 배추, 무, 총각무 등의 김장거리를 심는다.

음력 8월에는 남자들이 풀을 베느라 한참 바빴다. 일제 때는 면에서 퇴비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했다. 밭에 퇴비를 주고, 논에는 모내기 직전에 갈을 꺾어 넣어 이를 퇴비로 삼았는데, 논이 많은 집은 풀을 사기도 했다. 하루 종일 갈을 꺾고, 풀을 깎으면, 품값으로 벼 1말씩을 주었다.

북면 쪽에 화전 많았어. 승안리 북면 이런데 화전만 해먹고 살았지. 나무는 아무 때나 가을에 많이 하지. 화목⁴⁾ 때니까 많이 해야지. 품앗이해서도 하고 품 사서도 하고. 아

무 산이나 가지. 호수가 많았으면 산에 나무가 없었어. 다 벗었어. 여름에는 풀 많은데 가서 베 낚다가 말르면 그거 가져다 떼고. 잡풀.

추석에는 송편 차례를 지낸다. 김성섭은 송편을 1말 정도 준비했고, 흰 송편과 쪽 송편 2종류를 빚었다. 송편소로는 팔, 콩, 깨를 사용했다. 햅쌀이 없으면 시장에서 사서 밥을 지었으며, 과일로는 배와 사과 껍감을 올렸다. 양력 9월부터는 본격적인 추수에 들어간다. 추수가 끝난 후에 겨울까지 마을에는 모곡장사가 들어와서 쌀, 콩, 팔, 수수 등을 사가서 서울로 판매했다. 마을의 단골 만신이 있어 타작을 마치면 벼 1말, 여름에는 보리 1말을 받아갔다. 김성섭이 사는 조종면 신산리 샘말에서도 단골 만신이 있어, 타작 후에 벼와 보리를 받아 갔다.

가을에는 박도 수확했다. 마을에서는 박을 많이 키웠으며, 여러 바가지를 만드는데, 특히 들에 참을 내갈 때 바가지를 그릇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박 속은 먹지 않고 버렸으며, 속을 파서 박김치를 담는 박이 따로 있었다.

바가지도 많이 해서 그걸로 바가지 쓰고 그랬지. 여기도 점심박이라고 해. 무거워서 참 내갈 때 거기에 담아갔지. 박 속은 버렸지 뭐. 박속은 내버리지. 그냥 박 다 굳은 다음에 쪼개가지고 속 파내서 삶아가지고, 박김치도 괜찮아. 그 먹는 속 먹는 건 따로 있어. 우리 바가지 심는 건 못 먹는 거야. 그건 바가지 굳기 전에 꺾데기 까서 속 파내고 그걸로 만들어 먹는 거야. 난 한다 소리만 들었지 먹어보지는 않았어. 여기서 그런 거 할 줄 몰랐어.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마을 남자들의 가장 큰 일은 나무를 하는 것이다. 화목은 “삼시 세끼 밥 해먹고, 방에 불을 때고” 하려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개 품앗이로 나무를 했다. 남자들의 또 다른 부업은 짚으로 이엉을 엮고 가마니를 짜는 것이었다. 당시 집이 모두 초가집이라 가을에 벼를 털고 나서는 지붕을 엮는 것이 마을뿐 아니라 집집마다 중요한 일이었다. 대개 품앗이로 하거나 일부 품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가마니는 공출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짜야 했다.

음력 10월에는 고사를 지낸다. 수확한 햅쌀로 시루떡을 해서 마루, 부엌,

4) 화목은 땔나무를 말함.

뒤꼐, 방, 대문 턱, 장독대 등에 두고, 나중에 이웃들과 나눠먹었다. 김성섭의 집은 터주항아리가 있어 햅쌀이 나오면 항아리의 묵은 쌀과 바꿔주었다. 항아리에는 쌀만 넣었으며, 묵은 쌀은 떡을 해서 식구들끼리 먹었다. 옥수수로는 찌먹거나 엿과 술을 하는데 썼다.

10월 고사는 농사지어서 먼저 쌀 떠냈다가 그걸로 떡 해가지고, 떡은 마루, 부엌, 뒤꼐, 방에도 놓고 그렇지. 대문턱에 놔. 장독대로 놓고, 거둬서 식구들 먹고, 집안에 둔 거는 식구들 먹고 이웃들 나눠주고. 있었지 터주항아리. 짚으로 위에 엮고 뒤꼐에 햅쌀 나오면 넣고, 묵은 쌀은 식구들 떡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건 식구들끼리만 먹는 거야. 쌀만 넣어. 햅거 다 넣는 거 아니야. 절구에도 찼고 발 방아도 찼고 같이 마을 사람들 쓰는 저 아랫말 2개나 있었어. 옥수수는 찌서도 먹고, 타가지고 엿도 과먹고 술도 해 먹고. 여기서 밥은 안 해 먹었어.

음력 10월 이후 여성들의 주요 생업은 김장과 메주 쑈기이다. 김장으로 배추김치, 찐무, 동치미, 찐지를 담근다. 김치는 고춧가루를 쓰고 찐무는 소금만 사용해 절인다. 찐지는 지금과 같은 배추김치를 말하고, 김치는 물을 넣어 국물이 있는 형태를 말한다. 김치에 쓰는 젓갈은 친정에서는 새우젓만을 사용했고, 시집 와서는 멸치액젓도 사용했다. 김장철에 맞춰서 인천에서부터 마을로 젓갈 장사가 들어왔으며, 여름철에도 간혹 왔다. 김치 풀은 찹쌀풀을 쭈어 넣었다. 집안 남자들은 집에서 재배한 콩이나 팥을 직접 서울로 지고 가서 소금과 바꿔왔다. 콩보다는 팥이 더 돈이 되는 작물이었다.

10월 말의 메주 쑈기는 여성들의 일 년 마지막 집안 행사이다. 김성섭은 콩 한 가마 정도를 쑈었다. 집에는 메주틀이 있어 반나절 정도 삶은 콩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꾸덕해질 때까지 방에서 말렸다가 짚으로 달아맨다. 짚은 남자들이 켜 새끼를 사용했다. 메주는 일단 방에서 널어 말린 뒤에 새끼로 잘 엮어서 처마에 달았다. 이듬해 봄까지 잘 말렸다가 정월 지나서 장을 담는다. 동지에는 팔죽을 쭈어 먹는데, 찹쌀로 만든 작은 웅심이를 여러 개 넣었다.

메주는 10월에 쑈고 김장 끝나고 메주가 맨 마지막이지. 음력 10월중에 아무 때나 쑤. 콩은 한 가마니도 더 했어. 지금은 그렇게 안하지만. 옛날엔 반찬이 장, 김치지 뭐 그러니까 저만한 독으로 하나씩 담그고 고추장도 고춧가루도 얼마 없는데 지금 막장보다도

더 허영게 그래도 여름내 그거 다 먹었어. 메주 툄도 있었어. 짬으로 얹어서 매고 그건 남자들이 거들지 그 많은 거를. 방에다 걸어 뜨듯한 불 때는 방에다가 거는 거야.

12월에는 정월명절에 사용할 술을 담는다. 술은 약주, 막걸리가 전부였지만, 그나마 형편에 여유가 있는 집에서만 담가 먹을 수 있었다. 술과 감주, 고추장을 담기 위해 집에서 누룩과 질금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 누룩은 여름에 밀을 갈아먹고 남은 것으로, 질금은 가을에 보리를 갈아먹고 남은 것을 말려서 쓴다. 예전에는 밀주 조사가 자주 나왔다.

술도 미리 담그지 12월에 담가서 정월에 쓰고. 제사 지낼 때는 약주술 쓰고 평소에는 막걸리 먹고. 아유 나 그전에 술조사가 왔는데, 누룩을 해서 이렇게 자루에 담아 났는데 아 시집 가서지. 술조사가 왔다그래. 우리 집 아저씨가 이장을 보는데 이장곡 받는게 그때는 그냥 옥수수, 콩, 팥 죄다 그래. 그래서 그거 쌓아놓은 푸대 있는데다가 (누룩)을 같이 났는데 술조사가 와가지고 이걸 뭐고뭐고 그러는데 아 이제 그 누룩을 이제 짬을 차려가 댔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봐요?’ 먼저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이 댔어요’ 그래 아유 들키면 큰일 날 뻔 했어. 벌금 내는데.

누룩은 인제 여름에 밀 갈아먹고 고운 거는 채로 쳐서 국수도 해먹고 이러다가 그 찌꺼기 이리다가 누룩을 만들지. 질금이랑 비슷하지. 누룩은 술 하는 약이고 질금은 식혜 하는 감주하는 거구. 질금은 가을에. 보리로. 짝 티워가지고 말려서 갈아서.

(4) 신하리의 놀이

김종일이 구술한 신하리 신목마을의 놀이로는 햇불싸움, 연날리기, 윷놀이와 윷놀이대회, 그네뛰기, 팽이치기, 자치기, 참외서리, 눈싸움, 낫 던져 꽃혀먹기, 곤지리(고누)가 조사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제기차기, 못치기, 엿치기를 해본 적은 없다고 한다.

특징적인 놀이를 보면, 신목마을의 햇불싸움은 다복가지를 써서 이웃 샘말과 싸웠으나 심하지는 않고, 주로 소리만 질렀다. 그리고 돌싸움은 하지 않았다. 신목마을에서는 65년 전쯤에 우물밭 곤지리를 했지만, 지금도 노인끼리 가끔 이 놀이를 하고 있다. 김성섭과 장정순이 구술한 놀이로는 정초 윷놀이와 널뛰기, 단오의 그네뛰기, 운동회 줄다리기, 겨울철 썰매타기 등이다.

(가) 김종일이 구술한 놀이

예전에 자치기를 많이 했다. 긴 막대기로 작은 것을 띄우고 공중에서 쳐서 멀리 보낸다. 이때 상대방이 작은 것을 잡으면 지게 된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따라 긴 자로 거리를 재서 승부를 결정한다. 작은 것을 땅에 세워서 치기, 자기 손으로 쥐고 치기, 작은 것과 긴 것을 한 손으로 놓고 던져 치기, 땅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치기 등이 있다. 주로 어릴 때 에 놀았으며, 자식 때에 와서 노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치기 많이 했죠. 막대기, 아무 막대기나 가지고 하는 거지. 처음 애들은 둥그란 거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지고 했는데, 나중 애들은 그걸 각을 재 가지고 먼저 했죠. 긴 걸로 딱 쳐서 공중에 뜨면 다시 딱 쳐내는 거죠. 구멍을 파서 이렇게 세워놓고. 침에는 그냥 기다란 거 가지고 버티는 걸로 했죠. 그러다 상대방이 먼저 잡으면 죽는 거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걸 이렇게 한 가닥으로 세워서 치고, 세 번째는 한손으로 짊 치고, 네 번째는 또 요렇게 세워놓고 치고. 자세히 말하면, 두 번째는 작은 걸 손으로 쥐고 한 손으로 긴 거로 내치고, 세 번째는 작은 거 긴 거 둘 다 한 손으로 쥐어서 탁 치고, 네 번째가 땅에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한 번 툭 치고. 어렸을 때 제가 하던 놀인데, 자식들은 이런 자치기 같은 거 안 했어요.

햇불싸움은 정월대보름에 주로 아랫동네 샘말하고 많이 했다. 한번 해보자며 미리 약속하고 다복가지 햇불을 던지며 싸웠다. 햇불 들고 몰려가서 상대방을 겁주기 정도이며, 심하게 햇불을 던지며 싸우지는 않았다. 이곳에는 돌싸움이나, 줄다리기, 제기차기는 없었다. 줄다리기는 학교에서만 본 적이 있다.

여기선 이웃동네랑 불가지고 싸우진 않았어. 햇싸움을 했죠. 다복가지로 햇불 만든 걸 가지고서 치고 박고 하는 거죠. 소원 빌고 나면, 이웃 동네하고 ‘한 번 해보자’ 하면 하는 거지. 여기는 윗동네라 밑 동네하고 했어요. 밑엔 샘말 마을이지. 거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하고는 뭐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대결은 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햇싸움은 별로 안 했어요. 내가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장난도 심하게 안 해요. 밤에 주로 하나까. 다른 동네에선 햇불가지고 와아아 몰려가지고 겁주면 도망가고, 또 저 쪽에서 밑면 그 쪽에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심하게 안 해요. 그 때만 해도 여기는 장터거리기 때문에, 집집이 땔나무를 좁게 켜놔야요. 불똥 날라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여긴 초가집 탄 적은 없어요. 여긴 정월대보름에 돌 던지고 줄 당기고 하는 건 없었

어요. 두레 싸움도 없었고요. 여긴 제기차기는 안했어요. 동네에서 하는 건 못 보고, 학교에서 하는 건 봤어요.

낫을 던져서 꽃혀 먹는 놀이도 했다. 특히 꿀⁵⁾을 베어다 놓고 3-4발자국 떨어져서 낫을 던져 꽃힌 사람이 상대방 꿀을 따먹기를 했다. 나무단 따먹기나 갈퀴던지기는 하지 않았다.

백중 시기에는 현리에서 송아지를 걸고 씨름대회가 있었다. 더운 시기라 주로 저녁에 개최하며, 김종일이 국민학교 시절에 씨름판이 벌어졌다. 1등 상품은 송아지, 2등은 광목을 주었다. 주로 개인전으로 붙어서 이긴 사람끼리 다시 붙는 방식이다. 경기도 씨름대회에 뽑히면 도 대항 전국씨름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그네는 동네의 마을회관 뒷산 언덕에 있는 방수나무에 매서 탔다. 새끼줄을 단단히 매서 만들었으며, 주로 여자들이 타지만, 간혹 남자들도 그네를 뛴다. 어느 남자가 산에서 그네를 뛰는데, 손을 놓고 줄을 타다가 굴러 떨어졌다. 이때 허리를 크게 다쳐 평생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 일도 있었다.

곤지리는 돌이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려서 노는 놀이로 줄곤지리와 호박곤지리를 많이 했다. 작은 돌이나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서로 양쪽 집에서 한 칸씩 움직이며 논다. 호박곤지리는 처음에 양편에 3개씩 놓고 시작한다. 말을 번갈아 한 칸씩 움직이다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편이 지게 된다. 호박곤지리는 가운데 둥근 원에 양쪽에 서로 평행하게 만들며, 줄곤지리는 직사각형 안에 다시 2개의 작은 사각형을 그려 서로 십자와 대각선으로 연결한다. 호박곤지리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놀이 방식은 같다. 노인이 된 요즘에도 노인들끼리 가끔 곤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가 같이 했으며, 놀이가 어렵지 않아 20살 이전에 많이 놀았다. 다른 지방에서는 ‘고누’, ‘곤지’라고도 한다.

웃놀이는 집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 웃놀이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집안에서는 여자들끼리 모여앉아 말판을 만들어서 윷을 많이 놀았다. 요즘에도 노인들끼리 윷을 가끔 놀기도 한다. 처사대회는 한 해는 동네에서 주관하고, 또 다른 한 해는 노인회에서 주관한다. 상품을 내

5)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을 말함.

거는데, 주로 농기구로 약 뿌리는 기계, 호미, 팽이 등을 주었으며, 전자제품으로 밭솔, 냄비 등도 주었다.

딱지는 신문지나 헌 공책을 접어서 만들었다. 대개 뒤집어 먹는 방식이다. 본인은 놀이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놀이를 자주 하지 않았다. 연은 정초에 주로 논두렁에서 날렸다. 김종일 본인은 연을 잘 못 만들어서 할아버지께서 대신 만들어 주었다. 정월대보름에는 연을 일부러 날려 보내는데, 액을 떠나보낸다고 한다.

팽이치기는 주로 겨울에 많이 했으며, 팽이는 잣나무 웅이를 이용해 만들었다. 붉은색의 웅이 부분이 팽이채가 잘 먹혀서 팽이가 잘 돈다. 잘 도는 팽이는 ‘웅’ 소리를 내며 운다고 한다. 팽이채로는 질긴 닥나무껍질로 만들어야 팽이가 잘 돈다. 팽이는 주로 땅에서 했지만 겨울에는 얼음판 위에서도 많이 했다. 눈싸움은 겨울철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끼리 한 적이 있다.

여름철에 참외서리와 닭서리를 한 적이 있다. 7월에 친구들과 어울려 서리를 하는데, 어른들은 닭서리한 것을 알면서도 심하게 야단치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시치미를 뚝 떼며 서리한 것을 잡아 뺏다. 참외서리를 하다가 들키면 참외를 던지며 도망간 적도 있다.

서리 해본 적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야. 우리 밤에들 모여서 놀다가 출출하고 심심하면, 어디 모일까 그리고 닭서리 해다 먹고. 7월에 오면 참외 서리도 가서 해오고.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진짜로. 닭은 해다 그냥 저 위 시컨대 있는 집에서 가서 해 먹고. 닭은 젊은 놈이 해먹는 줄 알아요. 애들이.

우리도 이 방에다가 사람 하나, 동네 결방살이 하는 두 내외 가진 사람을 뒀는데, “아니 이 녀석이 우리 거를 잡아다 먹었구나.” 그리고 모른 체 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해먹은 게 분명한데.” 누구 애가 왔지 않았냐 하니까 “아유. 우리가 뭘 해먹어요.” 안 해먹었다는데 뭘 어떻게. 어떤 심한 사람은 땀기면서 닭을 잊어버리면, 화장실을 가서 뒤져. 그 때는 구식 화장실이니까 터를 파묻어 놓거든. 그리고 ‘닭서리 했다 돈을 물어라’ 그러죠. 동네에선 그런 건 없었어요.

(나) 김성섭과 장정순이 구술한 놀이

정월에는 윷놀이를 했고, 마을단위로 척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여자들은 정월에 널뛰기를 한다. 김성섭은 친정어머니가 시집을 때, 외가인 상면 행현리에서 가져온 널판이 있어 그것으로 널을 뛰었다. 널뛰기는 정월 15일

지나서는 놀지 않는다.

차례 지내고 율놀이 하고, 척사대회라고 하지.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하고. 던져서 모 많이 나오는 게 이기는 거지. 말 놓는 거. 널뛰고 마을에서 같이 뛰지. 널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 와서 하고 그랬지. 15일 지나도록 아무 때나 하지. 저녁에도 놀러가서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했지. 널판은 우리 어머니가 상면 사셨는데 거기서 쓰던 거래. 근데 여기 널이 없으니까 그걸 가져왔어 썼어. 나 중에 가져왔어. 시집올 때는 아니고. 상면 행현리.

김성섭은 어린 시절 겨울에는 오빠들이 썰매타는 것을 뒤에서 쫓아다녔다. 당시 썰매는 소나무로 만들고, 밑에 굵은 철사로 날을 2개 단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끼리는 공기놀이를 했는데, 돌 5개를 주워 2~3명씩 편을 갈라 놀았다.

논에다 물 대서 얼구면 스케이트 타고 그랬지. 나는 작은 오라버니가 썰매 쫑무니에 달고 따라 땡겼지. 산에서 소나무 해다가 날 2개 달린 거. 작은 오라버니가 그거 타면 난 쫑무니에서 따라서 뛰어가고 그랬지 뭐. 팽이치고. 난 돌맹이 주워서 공기나 했지. 그건 돌이도 하고 셋이도 하고. 손등에 많이 올리면 이기는 거. 건드리면 지는 거. 나 공기 잘 했어. 고무줄은 큰 다음에나 했지. 그 전에는 없었어.

단오 때에는 그네를 탔다. 앞산 큰 나무에 그네를 매어 남녀 구분없이 모두 탔다. 단오 지나고 나면 낮으로 그네 줄을 끊어서 태워 버렸다.

현리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는 8월 여름이나 10월 가을 중에 연 1회 운동회가 열렸는데, 그때 줄다리기를 했다.

현리에 학교 있는데 나도 일본 정치 때 2학년까지 다니고 그 이후로 다니지도 못했어. 걸어서 20분이면 갔어. 학교는. 줄다리기 있지. 가을에 시집가지 전에도 있었어. 학교 운동회 때 많이 했어. 이쪽 마을은 다 현리로 학교 다녔어. 8월에 안 하면 10월에 하고 1년에 한 번했어. 운동회.

나.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1) 금대리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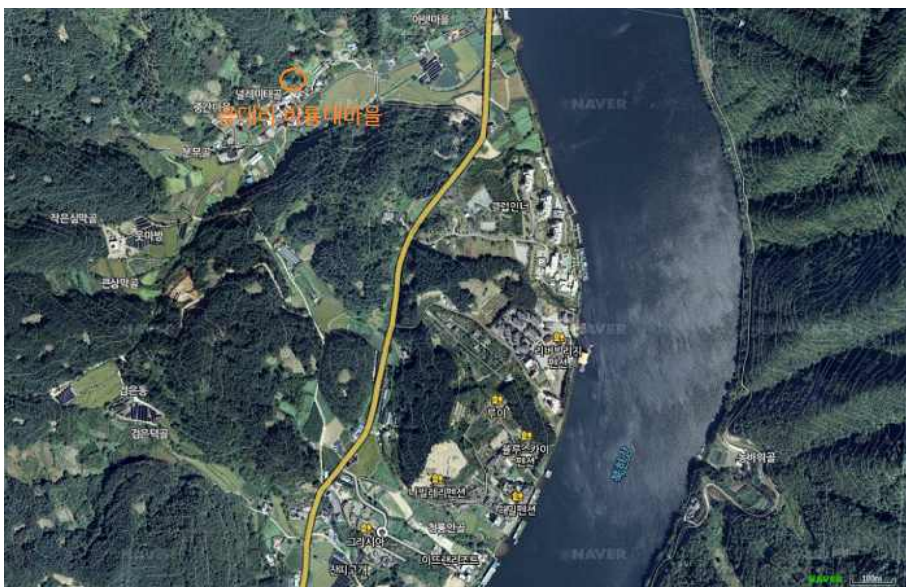
가평읍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 춘천시와 인접해 있고 춘천시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군청소재지이자 가평군의 행정 중심지로서 향교(鄕校)와 경찰서·교육청·농협 등의 기관이 모두 가평읍에 소재한다. 현재의 가평읍은 14개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가 있고, 3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며, 총면적 145.㎢에 주민은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⁶⁾

금대리의 금대(金垓)라는 말은 쇠터의 한문식 이름이다. 이 지역은 청평댐을 막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금(沙金)이 많이 채취되어 이로부터 지명이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금대리 마을주민의 조사에 의하면, 가평읍 금대리 비룡대는 가평읍내 남쪽으로, 마을 뒤에 물안산을 끼고, 앞에 북한강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인근에 관광지화 된 남이섬이 위치하고 있다. 인동 장씨가 17대에 걸쳐 살아온 반촌으로, 예전에 한지를 집집마다 제작했다. 따라서 동네 주위와 인근에 많은 닳나무가 서식하는 곳이다. 그리고 산뽕이 많아 양잠도 이루어졌다. 이곳 장씨들은 강 건너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집집마다 규모 차이는 있어도 한지를 제작했기에, 비교적 부유했다. 인동 장씨는 가평 읍내 인구의 30%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집안이다.

6) 가평읍사무소>마을의 역사/유래(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10.28)

7) 가평읍사무소>마을의 역사/유래>금대리(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 10.28)



〈그림 3〉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세부도



〈그림 4〉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마을 전경

금대리는 인동 장씨가 17대에 걸쳐 약 500년 이상을 거주한 마을이다. 인동 장씨의 사당이 있으며, 매년 10월 1일에 시제를 지낸다. 금대리는 비룡대, 원당리, 잔디고개의 셋으로 나뉜다. 가운데 중심이 되는 비룡대마을에 60호 정도, 초입의 원당리에 5호, 마을회관이 있는 강가의 잔디(잔띠)고개에 12-15호 정도 있다. 지금 잔디(잔띠)고개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160호 이상의 큰 마을이 되었다. 잔띠고개 바로 옆에 쇠터마을이 있다.

1960년대만 해도 이곳은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었다. 비룡대 마을회관 터는 예전에 겨울에 한지를 만드는 종이 뜨는 공장 자리이다. 일제시대에 제지공장이 있던 자리로 함석집 형태였으나, 근래 마을회관인 카네이션하우스로 바뀌었다. 장성만이 국민학교 졸업 이전인 12살 때까지 한지를 만드는 제지공장이 있던 자리이다.

금대리는 장씨가 70% 정도 살았으며, 그들이 계속 이장을 맡았다. 장씨 조상의 산소가 이곳에 있으며, 정씨와 용씨가 일부 거주했다. 장씨들은 집안이 엄격해서 결혼할 때에 함을 절대 지지 않았으며, 또한 개도 잡지 못했다. 80대의 타성 노인들은 어린 장씨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도 못했다. 이 마을의 땅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까지 장씨들의 땅이 많았다. 강 건너 지역에도 장씨들의 땅이 있었다. 청평댐과 양수발전소가 생기면서 이곳 땅이 많이 수용되었지만, 아직도 인근에 장씨들의 땅이 있다. 옛 어른들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한강이 도랑 수준이었는데, 댐과 발전소가 생기면서 물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기 옛날에 금대리 전체 가구 수가, 80가구 정도 됐죠. 부락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다 금대리로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는 비룡대, 여기서 배 타는 곳으로 1km 정도 가면 강가에 팬션 쪽 있는 데가 저쪽에 초입에는 원당리에요. 그렇게 불렀었죠. 저쪽에 마을회관 쯤에 있는 데는 잔디고개. 지금은 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 하나죠. 아, 여기 잔디고개에 외지사람이 와서 사는 게 한 100세대가 넘는 거 같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160세대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거의 다 외부사람이라고 봐야죠. 원래 살았던 원주민은 골짜기에 있고요. 원주민이 한 열두집 정도 돼요. 예전에 비룡대가 제일 컸죠. 한 60호 정도 살았었어요. 원당리는 다섯 집 정도 있었고, 잔디고개는 열댓 집 정도 있었어요.

여기가 한 60년대에는 이 쪽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그 때 당시에 일본놈들이 있을 때, 이 터에 일본 애들이 종이 뜨는 공장을 지었어요. 그 걸 제지공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마을회관 자리가 한 때 제지공장 터였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

이 한지를 뒀어요. 여기서 한지를 근고 종이를 해서 한지를 뒀죠. 다른 동네에선 안 하고 여기서만 해서 부자 마을이라고 했던 거죠. 시골에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 놀지도 않았어요. 그 때 내가 한 열 다섯살 정도까지 제지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느 하루에 비바람이 불어서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종이 말리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 때 거기서 사람이 열 다섯명 정도 일을 했는데, 바로 넘어가면서 뛰어나가다가 나무 기둥인 보에 머리를 쳐가지고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때 그 사람이 노총각이었어요. 인동 장씨. 종이 말리는 사람들은, 그 건조기가 튼튼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살고, 그 때 비바람에 집이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죠. 집이 함석집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함석을 자기가 뚫고 나오곤 했어요. 어렸을 때 그 걸 제가 목격했죠. 그 때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12살에 했거든요. 입학은 7살에 했죠.

예전에 여기 금대리는 이장을 인동 장씨가 거의 다 봤어요. 다른 성씨는 정씨하고, 용씨가 있었고 그래요. 그 때 마을에 한 70%라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 용씨하고 정씨도 오래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 선조 산소가 마을에 있어요. 옛날에 인동 장씨들이 잘 살았고, 그 용씨하고 정씨분들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양반 상놈 계급 나눌 시절에는 인동 장씨들이 양반이었고 그랬는데, 인동 장씨는 함을 못 지게 했어요. 개도 못 잡았어요. 저쪽 너머에서 용씨, 정씨분들이 잡아주고, 그 함도 그 노인네들이 지고 갔어요. 제가 이장을 봤을 때에도, 그 때 노인네들이 80대 되신 분들이 반말을 안 했어요.

이전에 농사를 주로 짓고, 한지는 안 했다가, 일제시대 때 제지공장 만들면서 한지 만드는 걸 시작했어요. 농사랑 같이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원도 있잖아요, 다이 동네 지역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 가평 건너 보이는 땅에 거의 50%가 금대리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인동 장씨들이 사는 터였고, 여기에 땅도 조금 있지만 주로 저 너머에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팔았죠. 지금 저 아래 사람들은 그 땅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이 댐 때문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거기가 도랑이었으니까. 양수발전소가 생기면서 물을 한번 쭉 빼고, 청평댐을 지으면서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거죠.

인동 장씨 집성촌이기에 마을 어른들은 예절 교육에 힘을 썼다. 어른들은 거친 놀이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상말을 하면 야단을 쳤다. 이곳 비룡대와 인근 쇠터마을은 학교를 같이 다녔다. 두 마을은 같은 금대리이지만, 아이들끼리는 사이가 썩 좋지 못했다. 쇠터를 거쳐야 학교를 가는데, 쇠터 아이들이 비룡대 아이들을 때리고 구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쇠터 사이에 돌싸움이나 햇불싸움 같은 것은 없었다.

이 마을에 전기는 최규하(1979-1980 재임) 대통령 시절에 들어왔다. 따라서 1980년 전후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1960년 초의 품삯 일당은 쌀 3뒷박(3kg)이었으며, 돈으로 1800원이었다. 본인은 1965년쯤에 3000원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국민학교 졸업 후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산의 풀 깎

는 일, 산에서 땀감용 나무 자르는 일을 했으며, 산에 나무를 심는 일도 했다. 당시 산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일을 하다가 벌에 자주 쏘이기도 했다.

이곳은 한강을 끼고 있으며, 배를 부리는 뱃사공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뱃사공에게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쌀 1말을 주었다. 처음에 용씨가 뱃사공을 하다가 나중에는 김씨로 바뀌었다. 장씨들은 강 건너에 집안의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자주 이용했다.

이곳에서 학교는 한강 인근 가평읍 북장리에 있는 북장포국민학교를 다녔으며, 이 마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다. 옛날에 남면 소재지였으며, 장석만 본인은 25회 졸업생이다. 강원대 장노순(경영학) 교수가 이 마을 출신이다. 어린 시절에 북장포국민학교로 가는 길은 마을 뒤쪽의 토끼길로 걸어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국민학교는 금대리를 포함해서 산유리, 북장리, 강원도인 관천리 등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다. 1982년도에 금대리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나중에 금대국민학교가 생겼다. 인근 달전리⁸⁾에서 인근 10개리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탔는데, 그곳 마을 청년들이 텃새가 심했다.

(2) 금대리 토박이의 삶

(가) 장석만의 생애사

장석만(남, 1952년생)은 인동 장씨로 금대리 비룡대에서 17대에 걸쳐 살고 있다. 부친이 분자전⁹⁾을 숙부에게 양보해, 그의 집안은 어릴 적에는 가난했으나, 부자간에 노력을 해서 땅을 구입했다. 그래서 부친이 노력을 해서 땅 700평을 구입했으며, 본인이 1000평을 구입했으며, 이후에 또 땅을 사서 농토를 늘렸다. 그는 1988년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마을 이장을 하면서 버스를 내고 포장을 해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으며, 군에서 1천만원의 지원금을 끌어들이고, 방법대 순찰대를 조직해 순찰대장 일을 했다.

8) 자라섬 옆의 강변 포구로, 현재 가평역 인근임.

9) 분자전은 자식에게 논을 분배하는 것을 말함.



〈그림 5〉 금대리 장성만 제보자(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현재 66세의 젊은 나이지만, 농사일에 해박하며 1960년대 일당까지 기억한다. 당시 일당은 쌀 3되(1800원), 1965년 품삯이 300원임이다.

장성만은 1980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현장에 노무자로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 다행히 6개월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큰 고생을 하지는 않았다. 그 대가로 소를 사고 땅을 구입했다. 막내 첫돌 시기에 돌아왔는데, 다시 가려고 하자 부인이 극력 반대를 해서 다시 해외 현장을 가질 못했다.

그의 부인은 청평면 보성리가 고향이다. 이곳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강가로 걸어서는 3시간 거리이다. 결혼은 당시 친구들이 구식으로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는 처가의 제안으로 가평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는 젊어서 집에서 직접 한지를 제작하고, 본인도 참여해서 한지 제작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

(나) 윤성모, 김옥예의 생애사

윤성모(여, 1937년생)는 21세 되던 해 정월에 북면 ‘미역골’ (미역고개)마을에서 친척 어른의 중매로 가평읍 금대리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인동 장씨로 금대리 토박이였다.

혼례는 북면에서 지냈다. 대례상에는 배, 사과, 정한수, 산닭 두 마리가 있었다. 그녀는 혼례복으로 노랑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었다. 치마, 저고리는 시집에서 혼사 이야기가 오간 뒤, 1년 지나서 보내준 옷감으로 직접 지어 입었다. 사모관대와 족두리는 마을에서 빌렸다. 잔치는 하루 했으며 국수잔치를 했다. 정월에 버스를 타고 달전리에서 내려 두껍게 얼음이 언 호수위를 제무시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그리고 다시 가마를 옮겨 타고 마을로 들어왔다.

대례상에 산 닭 불러다가 양쪽에 붙들고 앉았고. 그랬지. 한복은 노란저고리에 빨간 치마 입었지. 빨간 치마는 여기 시집에서 옷감이 와요. 그걸로 해 입어. 일년 전에 보낸 걸. 족두리는 마을에 있었어. 잔치는 하루 했지 뭐. 국수잔치지 뭐. 국수장국 끓여서. 짐차 타고 나와서 저 달전리 와서 가마타고. 가마에 요강 넣고. 스케트 타고 얼음위로 왔어.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아주 여긴 얼음이 이렇게 얼어서. 저 스케이트 끄는 거 있잖아? 사람들이 끌었지. 집을 이 강으로 통나무 이런 걸 강으로 (얼어서) 싣고 땡겼는데. (윤성모)

제무시 트럭은 강 건너 산에서 낙엽송을 실어 날랐는데, 춘천에서 출발해 가평을 거쳐 이곳에 와서 벌목한 나무들을 운송했다. 주로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벌목을 했기 때문에, 얼음 위로 트럭이 다녔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금대 1리, 2리로 나뉘지 않았으며, 비령대와 쇠터의 두 개 마을로 구성되었다. 이들 두 개 마을이 현재 각각 1리와 2리이다.

김옥예(여, 1943년생)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가 고향이다. 가평 금대리에 거주하던 이모부의 중매로 19세 되던 해 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금대리에서 태어난 인동 장씨 토박이이다. 그녀는 8월 초에 시집을 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가마를 타고 들어왔다. 시집왔을 당시 금대리에는 6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두 논농사를 짓는 가구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금대리는 인동 장씨 집성촌이었는데, 가마는 장씨

아닌 각성 사람들이 들었다.

가평읍까지 도락꾸차 타고서는 그러고는 강물에 배 타고 들어왔지. 8월 스무 옛세날. 음력 8월. 배 타고 내려서 가마 타고 또 들어왔지. 여기서 건너갔다 건너오는 거 차는 없었어. 찾길이 없는 걸. 그러니까 배타고 땡겼지. 배 샀은 여기 건너갔다 건너오는 거 그전에 여기 가을 곡물 한말씩 줬어. 가을에 걸보리지. 배 가진 사람은 탄 데서 들어오지. 배를 인제 노 젓는 배. 뱃사공이 따로 있나 아무나 타서 젓는 거지. 배 한 너덧 타고 적은 거는. 큰 거는 열댓도 타고, 큰 소 싣고 다니는 나룻배도 있고, 배 많았어. 그래서 (시집을 때)그 길로 못 왔지. 그래서 배로오고 뚝탄선으로 오고, 썰매 타고 얼음으로 오고 그랬지. (김옥예)

가마는 그전에 여기 성 나쁜 사람들이. 장씨 아니야. 장씨 아닌 집들은 아주 못 살았지. 한 두서너 집 됐었나. 정씨. 임씨. 남의 논 저것도 살고, 땅이 없어. 품 팔아서. (김옥예)

혼인잔치에는 부치기와 떡, 국수를 대접했다. 국수는 국물이 있는 형태로 맹물에 소금이나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국수를 말아 냈다.

김옥예는 시집와서 일 년 뒤에 첫 아이를 낳았다. 마을에 산파는 없었으며 가족들이 아이를 받았고, 산모는 미역국에 이밥을 먹었다. 보통 3일 정도는 이밥을 먹을 수 있었다. 미역은 가평장에서 구입했으며, 미역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는 무국을 끓여 먹었다. 미역국은 다른 부재료 없이 미역만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끓였다. 아이 낳고 금줄은 대문 앞에 일주일 간 거는데, 딸을 낳으면 솔가지 하나를 걸고, 아들을 낳으면 고추와 숯을 3개씩 달았다.

태몽 꿈꾸면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면 그만이지. 여긴 없어. 이 동네는 산파 없어. 미역국 이지 뭐. 미역은 가평이지. 가평장에서 사오지. 아주 없는 사람은 무국이나 끓여먹지 뭐. 쌀도 없이 살았다는데 뭐. 그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데. 미역국도 미역만 넣고 간장 넣고 끓이지. 고기도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못 넣었지. 이밥주지. 무슨 일주일이나 먹어. 3일이나 먹지. 그것도 뭐 배불리 먹나. 금줄은 여자는 아무것도 없지. 솔가지 하나 꽂고. 금줄도 안 하고 솔가지만 이렇게 대문 틀에다 꽂아놔. 양쪽에다가 꽂아놔 간단하게. 아들 낳으면 금줄해서 고추 3개, 숯 3개 이렇게 하고. 일주일 걸지. (김옥예)

마을은 종이공장으로 돈을 벌었다. 현재 마을 경로당인 카네이션 하우스 자리가 예전에 종이공장이었다. 20년 전에 공장을 폐쇄하고 경로당을 지었다. 이 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창호지를 만들었다. 종이는 정월 초

부터 만들기 시작해, 농사 시작하면 틈틈이 짬을 내어 일을 했다. 종이는 외부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하고, 종이장사가 마을로 들어와 가져가기도 했다.

여기 종이 많이 했지. 우리도 많이 해서 팔고 그랬지. 이 자리(카네이션 하우스)가 종이 공장이야. 없어진지 한 20년 되지. 시집왔을 때도 이미 종이공장 있었어. 시집오기 전부터도 있었대. 종이 공장 있을 때는 그때 살만했어. 여기 종이 말리는 건조실도 있고. 닥나무 먼데 동네에서 사다가하고 그랬어요. 잘되는 동네에서. 남자들이 살며 땀기며 배로 다다 실어 와서 그렇게 했어. 대개 가을에 들어와. 정월달에도 하고 동지 달도 되고 종이 뜨는 사람들은 아무 때고 하더라고. 근데 허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랬어. (김옥예)

우리 할아버지는 종이 뜨고 그 얇다란 걸 종일 뜨면 이만해요. 하루 종일 떠야 돼. 밝으면 물 퍼다 놓고 조반 먹기 시작하기 전부터 떠요. 그러니 죄 골병이 들어 먼저들 가셨잖아. 일을 너무해서. 고생 지겹게 했지 뭐. 여자들은 그거 닥 빨아다가 저 그거 빨아다가 곤죽 했지 뭐. 닥도 그것도 찌가지고 뺏겨가지고 굵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가서 건져가지고 이런 걸 방에다 놓고 껌데기를 또 하얗게 굵어요. 그걸 또 잣물로 삶아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렇게 했지. 칼로 벗겨. 굵는 칼이 있어. 그걸로 붙들고 ‘득득득득’ 굵어 그럼 하얗게 나오지. 여기 가마가 큰 게 있었어. 이 방만한 큰 게 있었어. 시간 많이 걸리지. 오래 걸리지. 정월 초순부터 시작한다구. 농사지으면서 하는 거야. 부업으로. 농사짓기 전에 시작하지. 그리고 농사지으면서 틈날 시간에 또 허지. 동지 달에도 해. 일 년에 몇 번 해. 한 달 전에 나오지 종이는. 그거 또 사는 데가 있어. 장사가 있어 종이장사. 마을로 들어와. 가져다가도 팔고. 종이 장사가 와. 물어보지 장사가 들어오냐. 가져다 한번 팔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들 들어와. 그게 진짜 창호지야. (윤성모)

(3) 금대리의 세시풍속

장성만(남, 1952년생)이 구술한 금대리 비룡대의 세시로는 정월대보름 연 날려보내기, 봄철 닥나무껍질 양잿물을 넣고 삶기, 딱풀(한지 제작용) 파종, 5월 20일~초복 사이 모내기, 6월 보름 마지막 모내기, 망종(양력 6.6 즈음) 산뽕 따기, 추석 마을 노래자랑, 9월 닥나무 운반, 가을 딱풀 수확, 10월 1일 인동 장씨 시제, 겨울철 닥나무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 벗기고 말리기, 한지 뜨기, 겨울철 토끼잡이와 사냥하기 등이다. 금대리 비룡대의 특이한 세시로는 한지 뜨기와 추석날 동네 무반주 노래자랑이 다.

윤성모(여, 1937년생)가 구술한 주요 세시를 보면, 정월에는 떡국차례를 지

낸다. 방아로 쌀을 찧어서 체로 쳐서 곱게 가루를 만들고 직접 떡매를 쳐서 떡을 빻는다. 보통 쌀 1말 정도로 떡을 했다. 나물은 봄철에 캐서 삶아서 시장에 내다팔았다. 나물은 취, 참나물, 고사리가 많았다. 정월에는 세배를 다니며, 손님에게 술을 대접했다. 직접 담근 술과 명절에 쓴 음식으로 안주를 냈다.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짓는데, 대개 찹쌀, 팥, 콩, 좁쌀, 수수 등을 섞어 밥을 짓는다. 나물은 고사리, 취, 콩나물로 무친다. 대보름에는 밤, 호두, 땅콩을 깨뜨리는데 이를 ‘부시럼’이라 하며, 귀밝이술도 마신다. 나물은 봄철 4월 초파일부터 캐서 삶았다가 나중에 판매했다. 봄철 나물은 취, 참나물, 고사리가 많이 났다. 7월 칠석에는 밀떡을 하얗게 부쳐서 집안이 잘 되라고 집안 곳곳에 두고 제사를 지냈다. 논에도 갖다놓아 뉘새를 맡고 벼가 잘 여물라고 기원했으며, 이후에는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김옥예(여, 1943년생)가 구술한 세시를 보면, 정월에는 한과를 직접 만든다. 과즙을 만드는데 밀가루로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장에서 도넛가루를 사서 만들었다. 반죽을 튀겨서 조청을 발라 겉에 쌀튀밥을 붙인다. 다식도 만드는데, 잣이 흔해 송화 다식을 주로 만들었으며, 흑임자 다식도 만들었다. 조청을 섞어 다식틀에 넣어 찍어낸다. 술은 1~2말 정도를 담는데 맑은 술로 쌀을 찧서 누룩을 섞어 빻는다. 주식은 보리밥, 국수와 범벅, 밀가루 빵 등이다. 좁쌀과 밀을 방아 찧어서 체를 쳐서 국수나 범벅을 만들어 먹었다. 범벅은 감자, 강낭콩, 밀가루, 물, 소금을 섞어서 찧서 만든다. 소당떡은 밀가루를 물에 개서 부쳐 먹는 것으로 밀떡과 같다. 보리로는 보리밥을 해 먹으며, 밀가루로는 소다를 넣고 개어서 팔과 소금을 넣고 찧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 여기에 보리쌀 막걸리를 섞어서 빵을 만들기도 했다.

(가) 장성만이 구술한 세시풍속과 한지 제작

① 금대리의 한지 제작

금대리에서는 겨울철에 한지를 만드는 동네이다. 일제시대에 마을회관 자리에 제지공장이 있었다. 장성만이 국민학교 졸업 이전인 12살까지 제지공장이 있었다. 당시 각 가정마다 한지를 제작했는데, 인근 가평 지역 산에 닥

나무를 많이 심었다. 닥나무를 인근 지역에서 오는데, 강 건너 강원도 관천리, 박암리 등에서 많이 들어왔다.

한지 뜨는 걸 전부터 다 봤어요. 그 건 집집마다 했다고 봐야 돼요. 닥나무를 심고, 또 닥나무가 우리 지역 거 가지고, 해서 강원도 관천리라던지 강원도 박암리. 그러니까 가평군 일대를 전부 다 가서 갖다가 얼마 종이 갖다 주고. 닥나무가 우리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거의 자연으로 자란 걸 가져온 거죠. 종이를 갖다 주고 닥나무를 가져오죠. 서로 바퀴오는 거죠. 금대리만 종이를 했지요..

금대리는 거의 닥나무밭이죠. 지금은 없어요. 조그만 데, 밭둑 같은 데엔 있는데, 지금은 한지를 안 하니까. 그 없는 게 닥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으니까. 지금은 자연산 나오는 데, 그게 한번 깎으면 그 이듬 해에도 잘 살아요.

10월부터 닥나무 밑동을 잘라 나룻배로 운반하고, 이것을 길이 2-5cm 정도로 다시 잘라 가마솥에 넣고 찐다. 닥나무에 흠집이 있으면 나중에 종이가 검은 색이 된다. 그래서 매끈하게 자란 티 없는 좋은 닥나무를 고른다.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다. 겨울철 웅덩이에 담갔다가 저녁에 꺼낸 후에 얼음에 언 것을 제거해야 한다.

닥나무를 밑동을 잘라서 가져와서, 여기서 또 찌요. 큰 가마에 찌면 꺼끌만 벗기는 거예요. 꺼끌 벗겨서 겨울에 담귀 가지고 허물을 하나 또 벗기는 거야 하얗게. 벨 때는 밑동을 바짝 해가지고 베요. 닥나무는 10월서부터 벤다고 봐야죠. 그 걸 자기가 벨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베어서, 그 사람들이 베어 놓으면 겨울에 가지고 와서 삶아요. 운반은 마을에 나룻배라고 있어요. 그 걸로 하죠. 목도는 안 해요. 나무가 직경이 한 3cm부터 5cm 정도 되니까. 보통 3cm에 딱 맞아요. 그럼 그 거 갖다가 가마솥에 삶는 거죠. 삶을 때 토막이 아니고 기다랗게. 한 2m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 3m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가마솥에 넣고, 솥 위에 가서 휘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잘 휘어져요.

당년에 자란 것만 자르니까. 묵은 건 안 돼요. 티도 생기고, 웅이도 생겨서 벗기는데 엄청 어려워요. 이게 헛수로 받는 거예요. 묵은 건 안 구부러지고, 티도 많이 생겨요. 흠집이 난 닥나무는, 벗기면 점박이예요. 그럼 종이 떼면 종이가 꺼먼 종이 있잖아요. 그 거 삶는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깨끗한 걸 좋아하지. 까만 티가 생기니까. 벌레가 굵은 표시가 나니까. 좋은 나무는 1년 동안 하고 풀 같은 게 안 감기고, 매끈하게 자란 게 최고죠.

이어 칼로 닥나무의 껍질을 벗기는데, 닥칼은 대장장이에게 맡겨서 제작한다. 닥나무를 판에 놓고 닥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한다. 흰색칼이 되면 줄을 매고 햇빛에 말린다. 이런 작업을 밤늦게까지 반복해서 했다. 따라서 겨

울철이 가장 바쁘며, 한지는 주로 겨울철 작업이다. 그리고 1주일 정도 바짝 말려서 90%의 물기를 제거한다. 이어 50근씩 여러 다발로 묶어 놓는다. 이것은 집 옆에 비를 안 맞게 30kg씩 쌓아 놓는다.

우리가 겨울에 냇가에 웅덩이를 막아놓고 담궈요. 겨울에 웅덩이는 얼거든요. 그 나무를 담궈다가 저녁에 꺼내면, 그게 어니까 껍질이 잘 벗겨져요. 한 번 얼었던 거를 제거를 한다 했을 때, 안 얼은 거랑 비교했을 때 그 게 하루에 한 그루 벗긴다 하면, 언 거는 두세 그루도 벗겨요. 겨울이니까 놀러 못 가요. 매일 칼로 벗겨야 되니까. 이 마율은 놀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껍질 벗기고, 그리고 칼로 까만 허물을 벗기는 거예요. 원래 닥 나무에 까만 허물이 있어서, 벗겨서 하얗게 만드는 거죠.

칼은 가서 맞춰와야 돼요. 닥칼이라고, 옛날에 대장장이 하는 사람한테 맞춰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맞춰주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안한 지가 꽤 돼서. 사진이... 그건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카메라가 있겠어요, 찍을게. 요새야 휴대폰으로 찍고 하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글썄, 누구네 집엔 있을려나. 아까 전화한 집은, 그 가공을 제일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아. 그게, 말하자면 통일쌀이 나오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70년대죠. 조선통일 쌀 그 거 나오면서, 좀 밥 먹고 사니까 이 일이 힘들어서 안한 것 같아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을 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닥칼이 날카롭지 않아요. 작아요. 대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다 판이 있어가지고, 잡아 당기고 짜락하고 그렇죠. 아유,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껍질 벗기는 거는 부엌에서 불 때면서 하니까. 많이 했죠.

벗긴 건 줄을 메고 햇빛에 말려요. 다~ 겨울에 하는 거예요. 남 일 안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농한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딴 동네에는 놀음이나 가마니정도 짜니까. 겨울에 어르신들 보면, 밤 12시까지 해요. 방 안에도 놓고선 하는 거라. 눈 떨어질 때도 하시고, 뭇나무 하다가 눈 오면 그걸 하시고, 놀지를 앉았다는 거죠. 말리는 건 바짝 말려야 돼요. 거의 90% 수분은 없어야 된다고 봐야죠.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말려야 돼요. 비 오면 얼른 걷어 들이고. 그거 길이가 아까 말했던 데로, 한 2m 되는 거죠. 그 나무껍질을 까면 속의 색이 하얗죠. 결국 색이 하얀 게 그거예요. 말리면 상태가 하얗죠. 그걸 여러 다발을 묶어다가. 한 50근, 30킬로쯤 정도씩 크게 묶어서 헛간에 쌓아놓는 거죠. 눈 비 안 맞게. 옛날엔 창고가 어디 있어요? 그저 집 옆에 뭇로 칭칭 감아서 비 안 맞게 쌓아놓는 거죠.

봄철에 가마솥에 양젓물을 넣고 5-6시간 삶는다. 이때 오랜 시간 삶기 때 문이 뭇감이 많이 필요하며, 늦가을에 미리 뭇감을 해다 놓는다. 노란 색깔이 나면 ‘비다’ 기계에 닥나무를 틀어서 풀리게 한다. 둥근 쇠로 잡아 돌리면 다 풀어지게 된다. 모두 풀어지면 깨끗한 물로 씻는다. 3평 통 위에 풀어서 닥줄에서 맨발로 밟으면서 뺀다. 발로 계속 밟으면 진득하게 된다. 이어 딱풀(풀뿌리로 끈적거림)로 적당히 밟아 보자기로 짜낸다.

그 다음에 가마에 삶아야 되요. 양젓물이라는 게 있어요. 양젓물을 넣고, 그걸 푹푹 삶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삶으면, 또 옛날에 기계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박리질을 했어요. 삶는 건 푹푹 끓여야 되니까, 하루에 가마에다 한번 삶는 걸 두 개 넣고 하면 대역섯 시간 삶는 거예요. 나무 엄청 들어가는 거죠. 산에 나무 하러 가는 것도 일이죠. 그래도 옛날엔 다 산이니까, 나무야 많죠. 다 산인데요. 양젓물로 삶고 나면 색깔이 누래요. 노랗죠.

‘비다’라고 기계가 있어요. ‘비다’가 닥나무를 틀어서 푸는 거예요. 닥나무를 오래 삶으면 다 풀어져요. 그냥 종이 풀어놓은 것처럼 풀려요. 기계로 다 푸는 거예요. 기계가 옛날엔 조금 발동기로 피대로 씌워서, 새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 걸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풀려요. 그게 노랗잖아요. 그걸 통 하나에 풀 만큼 사람이 몰에다 빨아요. 노란 걸 하얗게 만들어야 되니까, 깨끗한 몰에다가 풀어요. 보자기를 한 쪽에 놓고, 나무들을 시리면 물이 푹푹 데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얘져요. 하얘질 때까지 풀어줘요. 양젓물을 쓰는 건, 안 쓰면 기계에 안 풀어져요. 말하자면 아주 푹 삶아지게 하는 거죠. 옛날에 양젓물은, 비누 없고 그럴 때 세탁하는 데서 아줌네들이 삶는데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좀 나죠.

양젓물이 독하죠. 사람이 먹으면 죽죠. 그 걸 떠서 개우장에 버리면, 묵처럼 우겨져요. 양젓물이 썩던걸 식으면, 묵처럼 되요. 그래도 그 게 나쁜 게 아닌가 봐요. 미꾸라지가 살더라고요. 요 아래서 양젓물 막 버리면, 겨울에 또 심심하면 미꾸라지 잡으러 갈 때 미꾸라지가 엄청 커요. 미꾸라지가 생명력이 강해요. 겨울에 논두렁에서도 저렇게 자라고.

한지를 떠서 넣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한지를 뜨면 300장을 뜰 수 있다. 좌우로 반복해서 15-20번을 움직이며 종이를 뜨는데 여기에 기술도 필요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한다. 뜨는 송판은 폭 70-80cm, 길이 1m 20cm 정도이다. 이것을 똑같이 간격을 잘 맞춰서 300장씩 쌓아 놓고 물이 빠지도록 위에 돌을 얹는다. 5일 정도 뜨고 물 빼는 기계에 한꺼번에 넣고 물을 뺀다. 그리고 건조기에 1장씩 붙이는데, 잘못 붙이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하얗게 씻고서, 그 걸 세 칸 되는 통이 있어요. 그걸 미리 만들어 놓아요. 거기다가 종이를 뜨는 건데, 그걸 또 풀어야죠. 거기다가 닥풀이라고 있어요. 푸는 동안에 닥풀을 막 빨아야 되요. 빨면 그 물이 걸땀해요. 그 거를 짜서 넣어야 되요. 다시 만들어서 그 걸 밟아서 진하게 나오는 거를 거기다 붓는 거죠. 걸땀에 코 찢득찢득하게 진하게 나와야죠. 그게 역할이, 그거를 안 나오면 종이가 한꺼번에 발에 다 올라와요. 한번 하면 종이가 두꺼워 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면, 종이를 많이 떠야 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종이가 반질반질하고 좋아요.

그래서 밟는 것도 적당히 밟아야 되요. 많이 밟아서 진하다 그러면, 거기다 물을 타요. 그리고 보자기에다가 물을 짜는 거죠. 적당히 넣으면 종이도 좋고, 너무 많이 넣으면 종이 두껍게 뜰래야 떠지질 않아요. 떠서 적당히 넣는 것도 기술이죠. 뜰 때에는 발로 뜨죠. 암만 많이 띄워도 그 닥풀이라는 걸 많이 넣으면, 종이가 잘 안 응쳐요. 밑으로 다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하면, 한번만 해도 두껍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종이 값어치가 떨어지죠. 닥풀이라는 게 풀의 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닥풀이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발에 물이 잘 안 빠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안 넣으면, 종이를 한 번을 해도 종이가 엄청 두껍게 되지.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 종이가 안 응쳐요. 그러니 이 종이가 좋은 거죠.

닥풀이라는 것도 별도로 심어야 돼요. 닥풀, 그 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캐는 거예요. 자라나면 곧고 한 뼘씩 크죠. 그게 땅으로 앉는 거거든요. 가을까지 자라면 한 20cm 정도 까지 되요. 여기서 뿌리를 쓰고, 잎사귀 있는 대로, 발로 막 밟는 거예요. 뿌리를 집어 놓고 밟는 거죠. 짓이기고 그러지 않고, 발로 밟아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뜨는 것까지 다 했죠. 하루에 한 300장 정도 떴어요. 300장 뜨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요. 뜨는 걸 한 번 띄워선 안 되요. 내가 봤을 때 최소한 한 열 다섯 번 정도 뜰래야 되요. 이렇게 한 번 뜨고 물 빠진 다음에 또 요쪽에 한 번 뜨고, 열 다섯 번을 좌우로 뜨는 거죠. 그 닥풀이라는 걸 넣으면, 종이가 많이 안하면 종이가 많이 얇아요. 약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열다섯 번이지만, 많이 두껍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십 번까지 해야 되요. 그럼 하루 종일 해도 300장도 못해요. 시간 많이 걸리죠. 뜨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 뜨고, 물 빠지면 또 한 두 번을 해요. 그래야 잘 빠지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왕복 한번 하고 물을 빼고 또 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열다섯 번. 그렇게 해서 요런 놓는 데다가 실 하나 놓고, 거기다 또 붙여놓고. 실 놓는 판이 있죠. 그 거는 송판을 전부 다 짜서 하죠. 송판 폭이 70~80cm, 길이는 폭보단 50자는 더 크니까 1m 좀 넘죠. 근데 이걸 높이가 그렇게 힘들어요. 300장을 하는데, 이게 똑바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걸 놓는 게 힘들어요. 발을 들어서 똑같이 맞춰 놓아야 되니까. 송판 하나에다가 송판을 하루 종일 위에 쌓아 놓는 거예요. 닥풀이라는 게, 이 종이랑 저 종이랑은 안 붙어요. 300장 하면 높이가 한 30~40cm밖에 안 되죠. 요게 똑바로 명함을 쌓듯이 쌓는 거예요.

물이 잔뜩 먹었잖아요. 거기다 얹어 놓고 위에 발판 같은 거 얹어 놓고 돌을 많이 얹어 놓아요. 물 빠지게. 그러면 30cm 정도 되었던 게, 10cm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게 저녁에 했다가 아침에 되죠. 다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종이 뜸기 위해서 또 옮기는 거죠. 그래서 5일 쯤 다음에. 물 빼는 전담 기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한꺼번에 놓고서 한번에 물을 억수로 빼는 거죠. 가져가서 한 장씩 건조기에 붙이는 거죠. 건조기 하나에 여섯 장을 붙여요. 옛날에 여기 아가씨들이 붙였어요. 하루에 샅 주고, 한 쪽에 세 장 붙인데 한명씩 해서 두 명. 띄는 사람 두 명. 야나네들이 잘 붙여요. 붙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고 거 잘못 붙이면, 이게 종이가 물이라서 막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걸 아주 편하게 붙인단 말이지. 아무나 못 붙이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기술이 부족하면 파지가 많이 나오게 된다. 생산된 한지는 도매업자가 가져가는데, 보통 100장~1000장씩 가져간

다. 달전리 배터로 운반해서 배를 이용해 도시로 싣고 갔다. 주원료인 닥나무 확보가 쉽지 않은데, 부유한 집에서는 여러 곳에 돈을 주고 사전에 여러 지역을 확보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한지를 생산하지 않는다. 가평의 북면에서 한 사람이 한지를 생산한다는 말을 들었다.

일손이 엄청 들어요. 또 남자 하나는 종이 한 장씩 요만한 나무 단단한 게 있어요. 줄을 싹 해가지고 나무에 딱 붙게 해요. 요거 한 바퀴 돌려서 붙이는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싹 가지고 와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옛날 거를 사진 찍어 놓았으면 좋은 건데, 그걸 알았겠어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 거랑 같은 거죠. 다른 원주나 전주나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마 가평 북면에 어디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야길 들었거든요. 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지금 하는 거는 닥풀이라는 게 없고, 화학품을 쓴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얗게 물로 빨았는데, 화학 약품을 넣으면 하얗게 된다고 이야길 들었거든요. 종이 뜨는 기술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손으로 꼭 떼야 되요. 지금은 기계화가 됐으니까 다르게 할 진 몰라도, 아직은 손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이 파는 건, 옛날에 시골에다 팔았어요. 종이도 소매업자가 있어요. 그 마을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백 장씩 가져가요. 백 장 아니면 천 장. 중간업자가 있었어요. 옛날엔 문창호지 전부 다 팔랐잖아요. 가져가는 건 배가 다녔으니까 배로 갔죠. 배로 해서 남섬 쪽에 달전리라고 있어요. 달전리가 배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콩 팔러 간다, 그럼 장사가 아주 쭉~ 있어요. 거기다가 파는 거예요. 쌀도 글로 다 갔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파는 진 모르죠. 이쪽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팔았으니까. 파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주변에 술집 있죠.

거기서 도매상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계약직인 것 같아. 그니까 여기서 종이 사가서 국제시 먹는다고 봐야죠. 장사꾼이니까. 장당 얼마씩인진 기억 안 나요. 내가 볼 때엔 지금 돈 생각하면 싸죠. 종이가 천장이면은, 천 장씩 파는 사람한테 팔았던 말이에요. 그 때 그게 상당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항상 돈이 돌았죠. 옛날에 보면, 인근 마을에서 우리가 살아서 커서도 사람들이 ‘거기 부잣 동네인데 뭘’ 이러니까. 뭐가 부자냐고. 거기 분들이 ‘겨울에 놀지 않고 일하는 동네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진짜 여기 안 놀았어요.

일 할 때에는 힘들었죠. 내가 요 종이 만든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좀 커서 종이를 떼으니까. 제가 뜨는 게, 사람들이 못 뜬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기로 떼어. 그 거 품삯이 비쌌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못 뜨시고 그레가지고 ‘에씨’ 그러면서 내가 뜬다고 그래서 떼거든요. 근데 내가 뜨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파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떼서 잘 놓아야 종이가 반듯하게 나오고 반질반질하게 나오는데, 기술자가 하도 시도부리고 제가 오기로 ‘뜨겠다’라고 부려서 떼거든요. 기술자가 장씨라고, 이 동네 사람인데 먹고 살기 힘들니까 더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또 봉축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니까 품삯이 엄청 적으니까 거의 부부가 떼어요.

② 장성만이 구술한 금대리의 세시풍속

금대리 비룡대마을의 농악이 없었지만, 쇠터마을에서 농악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인동 장씨가 주로 사는 비룡대마을에서는 농악을 상놈이 하는 것이라 하여 어른들이 못하게 했다. 따라서 비룡대는 농악이 원래 없었다. 마을회관이 있는 쇠터쪽 마을이 농악을 잘 했으며, 역사도 오래 되었다. 예전에 운동회를 하거나 읍내 행사를 할 때에는 쇠터마을이 이 지역을 대표해서 농악으로 나갔으며, 인근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쇠터농악이 금대리 농악의 대표로 활동했으며, 마을 행사를 하면 쇠터 농악팀이 와서 비룡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놀이판을 이끌었다. 그곳은 60대 남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농악을 쳤다.

여기는 두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농악은 했었죠. 금대리는 아니고 비룡대쪽에서. 그 것도 우리 동네 사람들인 어르신들이, “농악은 양반이 하는 게 아니고 상놈들이 하는 거다.”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 쇠터 쪽에 아랫사람들이 해서, 가평대회에서 우승도 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아랫동네였는데, 어유. 거기 아주 굉장했죠. 지금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진 몰라도, 몇 년 전까지 아주 농악 잘 했어요. 오래 됐고요.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읍내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한다고 봐야죠. 초청해서 가는 거니까. 정월대보름날 쯤이었나? 그 사람들이 팽과리 들고 마을에 한 바퀴 돌던 게 있었어요. 일 년에 한 두 번은 도는 걸 봤어요. 그냥 두들기고 놀면서 마을 뺨 돌죠. 농악 정말 잘 했어요. 상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지금 거기 애들도 하라고 하면 잘 할 거예요. 대회 나갈 때 깃발을 ‘금대리 농악’으로 나갔어요. 금대리 대표니까. 그런데 이 동네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 마을은 회관 쪽에 가 있어요. 학교갈 때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육십대분들은 할 거예요. 거기 여자들이 주로 해요. 여자들이 꼬꼬보자 쓰고 춤추고. 요 근래 치는 건, 초등학교 행사에 그 사람들이 나간 것 같아요.

모내기는 양력 5월 20일-초복(7월 중순)¹⁰⁾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로 했다. 이곳에서 모는 주로 양력 5월 25일경에 심으며, 늦으면 6월 6일 망종 때까지 가며, 최대 6월 15일에는 모를 심어야 한다. 벼를 못 심으면 메밀을 심었으며, 이것도 못 심으면 논을 묵히는 수밖에 없다. 이곳은 예전에 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천수답이 많은 편이다. 장성만은 예전에 이장을

10) 초복은 하지(6월 22일 전후) 지난 뒤에 첫번째 경일(庚日)로 대개 양력 7월 11일부터-19일 사이.

5년간 맡았는데, 이 동네 농수로를 정비하고, 7단 양수기를 도입했다. 금대리는 논농사로 벼를, 밭농사로 보리, 콩, 밀을 재배했다.

망종(양력 6월 6일경) 시기에 산뽕을 따러 강 건너에 많이 다녔다. 예전에 이 동네에는 누에를 많이 쳤다. 강을 건너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지역으로 그곳에 산뽕이 많이 있었다.

금대리에서는 추석에 노래자랑을 했다. 마을청년들이 주도하고 마을회관앞에 무대를 설치했다. 표를 사야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은 남녀 구분이 없다. 인근 가평 지역에서 노래자랑에 참가하러 많이 오는데, 가끔 동네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이장과 새마을회장이 심사를 맡아 채점을 한다. 사회는 마을 청년이 맡았으며, 마이크는 가평의 전파사에서 빌려왔다. 그리고 반주 악기는 따로 없이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다. 1등은 대개 패종시계를 주는데, 항상 금대리 주민이 타갔다. 인근 선유리, 복장리, 이화리에도 이런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역시 1등상은 자기 동네 주민이다.

추석 때에는 노래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건 마을에서 하는 건데, 표 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장사가 돼요. 마을 단체에서 하는 건데, 마을회관, 거기서 무대 만들어 놓고 마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채점해서 1등 하면 상 주고 그랬어요. 그 문화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것도 하면 가평 사람들도 오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 때 싸움도 많이 했죠. 이걸 하루에 다 해요. 추석 때 하는 거니까. 사회도 마을 사람이 봐요. 그런데 사회라는 게 뭐 봤겠어요? 인사나 시키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는 기타 치는 정도는 했다고 하는 데, 여긴 없어요. 그냥 무반주지. 무대도 옆에 하지 않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단만 만들어 두죠. 그래도 마이크는 있었어요. 가평 전파사에서 빌려서요. 그게 옛날에는 많이 유행 됐어요. 탄 데서 하면 탄 데 구경 가고. 그 때에도 표도 돈 주고 샀죠. 여자는 잘 안 했죠. 외지사람이 거의 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1등은 탄 동네 사람 안 줘요. 우리가 못해도 1등은 줘요. 1등의 상금이 50%예요. 상은 대부분 시계로 많이 했죠. 그래서 1등은 탄 데에 절대 안 줘. 다른 동네가도 똑같아요. 시내는 아니더라도, 여기 금대리나 선유리, 복장리 이화리, 이런 데 가면, 1등은 무조건 자기 마을 사람이예요. 그래서 ‘왜 1등은 너희냐’ 그리고 싸움도 나고.

(나) 윤성모, 김옥예 구슬의 세시풍속

정월에는 떡국차례를 지낸다. 방아로 쌀을 찼 다음에, 첩로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떡메를 쳐서 떡을 빻는다. 보통 쌀 1말 정도 떡을 했다. 마을에

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로 밟는 발방아가 3~4개 정도 있었다. 밀농사도 지었기 때문에 밀도 빵아 만두피를 만들어 떡만둣국을 끓여서 올렸다. 가평장에 방앗간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장에 가서 빵아왔다. 그 후에는 마을 아래에 방앗간이 생기면서 발방아는 쓰지 않고 기계로만 빵았다. 만두속은 주로 무, 김치, 마늘, 파 등을 넣는다. 두부를 만들어 넣기도 했으며, 고기는 간혹 넣을 때가 있었다.

정월 만두 빚어서 떡 해서 넣고 해서 끓여서 먹지. 소고기 사다가 폭 과 가지고. 새덕적에서부터 그랬지. 그전서부터 여태 내려왔어. 떡은 가평 가서 맨들어와. 예전에는 발방아에다 찢어가지고 쳐가지고 맨들었지. 발방아 여 두 개. 같이 쓰는 거야. 만두 속에 야 김치하고 마늘 파 넣고 그랬지 뭐. (김옥예)

정월에 떡국이랑 만두. 그전에 처서 했잖아. 떡두. 쌀두 다 방아 찢어서. 마을에 방아가 서너 개 있지. 발로 이렇게 하는 거. 그 전에 어려우니 쌀 한말하면 그걸로 저거 했지 뭐. 밀두 다 농사짓지. 밀도 맷돌에 다 갈지. 속은 두부나 넣지 뭐 해. 다시마 하나 넣고 배추 찌개 넣고 그렇게 부치기 하지. 조기 있지. 복어포두. 고기는 지금이나 하지. 나물은 그전에는 무나물만 했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하지. (윤의리)

차례상에는 탕과 전을 올렸는데, 탕은 무국을 준비했고, 전은 맷돌에 갈아 직접 만든 두부를 부치고 누름적을 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내는데 쓰지는 못하고, 데쳐서 누름적에 가늘게 찢어 올려 모양을 내고 제사상에 올린다. 누름적은 녹두를 갈아 배추김치를 길게 올려 만들었다. 육적은 없었고, 어적으로 조기는 준비했다. 복어포를 마련하고, 나물은 고사리와 숙주 두 종류를 올렸다. 정월에는 한과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과줄을 만드는데 처음엔 밀가루로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장에서 도넛가루를 사서 만들었다. 반죽을 튀겨서 조청을 발라 곁에 쌀튀밥을 붙인다. 다식도 만들었는데, 잣이 흔해 송화다식을 주로 했으며, 흑임자다식도 만들었다. 가루에 조청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다식틀에 넣어 찍어낸다.

정월에는 술을 만들기 위해 쌀 1말~2말 정도를 담갔다. 술은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두고 담갔다. 쌀을 담갔다 찌서 직접 만든 누룩을 넣고 시장에서 좁쌀처럼 생긴 술약(이스트)을 사서 넣었다. 누룩은 밀을 추수하고 빵아서 만든다. 또 식혜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

다식도 해요. 과줄 그런 거 과줄도. 밀가루로 도나스가루 사서 했는데 시방은 안 해. 송화다식 했는데. 소나무 많았어. 제사에 까만 다식만 냈어. 나는 흑임자. 근데 가루에 조청만 들어가. 다식 틀 맨드는 틀 있어.

술도 담그고 그래 옛날에는 정월에. 한말 하는 사람도 있고 두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맑은 술 뜨고. 쌀을 시루에 찌가지고 물 넣고 누룩 넣고 삭히지. 한 나흘가면 돼. 술은 정월에 쓰고. 힘든 일 하고 그러면 여느 때도 해먹고 그랬어. 요즘엔 죄 사먹어. (김옥예)

제사 한 보름 앞두고. 쌀을 담궜다 찌가지고 누룩하고 약 부어서 했지. 시루에 찌가지고. 누룩은 그전에 밀일 있으니까 만들어 찌지. 술약은 사야지. 시장에서 좁쌀처럼 생긴 거. 시장은 가평이지 뭐. 걸어댔잖아. 시방은 길이 좋아졌지. 예전에는 요만한 길로 이렇게 이고 땀졌어. 5일 7일 20일 가평장 세 번 열어. 여기서 30리돼. 그걸 걸어댔잖아. 하루 다갔어. (윤성모)

명절 때 장은 가평장으로 다녔고, 장날은 5일, 7일, 20일이다. 30리 거리를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는 장에 한번 다녀오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김옥예는 가평장의 옷감 장사에게 정월에는 새 옷을 사거나, 내복을 사 입었다. 정월에는 세배를 다닌다. 당시 세뱃돈은 없었고, 어른들에게 술과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 혹은 명절을 맞아 준비해둔 음식들을 안주로 대접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하고, 묵은 나물을 곁들여 먹는다. 찹쌀, 팥, 콩, 좁쌀, 수수 등을 섞어 밥을 짓고, 나물은 고사리, 취, 콩나물을 준비한다. 보름날에는 밤, 호두, 땅콩을 깨뜨리는데 이를 ‘부시럼’이라 하고, 귀밝이술을 마시기도 한다.

또 달맞이를 한다. 산에서 마른 쭉을 뜯어다가 짚으로 묶어서 자녀들 수만큼 화를 만든다. 대개 엄마가 만들어 주었다. 달맞이는 집 마당에서 하거나 마을 야산에서 하는데, 달이 떠올라올 때 화에 불을 붙여 달을 향해 기원을 한다.

화 만들어주지, 애들. 뺨얌 뜯어다 하지. 뺨얌. 그 뭐야 쭉 있잖아? 쭉. 그거 산에서 뜯은 거. 묶는 건 짚으로 묶지. 나이만큼. 엄마가 만들어줘. 우린 오남매라 다섯 개. 집에서 하고, 밭에서도 하고, 달 저기 올라올 때 불 붙여서 미리 밖에 불을 해놓지. 그냥 달 보고 태우는 거야. 다 탈 때까지. (윤성모)

정월부터 음력 2월 사이에는 장을 담근다. 3월까지 담그는데, 소날, 말날, 토끼날 중에서 손이 없는 날을 택하며, 특히 말날에 많이 담근다. 간장을

가장 많이 담갔고, 된장, 고추장을 적게 담갔다. 간장은 계란을 띄워 농도를 맞춘 소금물에 메주에 부어 담근다. 1달 정도 담가두었다가 건진 뒤 끓여서 간장을 만든다.

고추장도 담그는데 많이 담지는 못했다. 된장과 막장 모두 담는데, 된장은 간장을 뽑은 것으로 만들고, 막장은 간장을 뽑지 않은 메주에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다. 흔히 알고 있는 찹쌀 넣은 고추장은 약고추장, 찹쌀고추장이라고 한다. 고추장은 보리쌀로 질금 곧, ‘엿물’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것을 사용해 만든다. 엿물로는 식혜를 만들고 수정과를 만들 때도 사용한다. 마을에서는 수정과보다는 주로 식혜를 담갔다.

장은 정월에도 담그고 2월에도 담그고 3월까지만 담그면 돼. 날짜는 그냥 간장은 메주 넣은 지 한달 만에 건진다고. 소금물에 겨란 띄워보면 겨란 올라 뜨면 담그지 찐지 싱거운지. 고추장은 그냥 보리 넣어서 담그고, 손 없는 날 대개 말날, 소날 이렇게 하지. 말날 대개 많이 담지. 여기도 막장 해. 왜 안 해. 많이 해. 강원도는 그 간장 메주 건너서 막장을 하지. 여기는 막장 그냥 고춧가루 넣고 메주로만 하고. 고추장은 못 담갔지 뭐. 고추 많이 안나니. 막장에는 보리쌀 삶아 섞어하고. 질금은 고추장 할 적에. 질금으로 하고 가루고추장 담글 적에는 찹쌀 빵아다가 엿물해서 엿물. 식해도 엿물 넣고 해야 돼. 정월에 시방도 맨들지 식혜. 제사되면. (김옥예)

음력 4월 초파일 전후로 나물을 채취했다. 친정에서는 취, 참나물, 고사리가 흔했지만, 이곳 금대리는 나물이 귀한 편이다. 혼자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나물을 뜯으러 다녔는데, 대개 마을 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이 같이 다녔다.

마을의 생업은 농업이었다. 당시 논은 모두 천수답으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비가 안 와서 모를 내지 못하는 해는 그냥 묵혔다. 이 마을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같이 지었으나 벼 수확이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식은 좁쌀, 밀과 같은 잡곡이며, 밭작물인 팔과 콩을 많이 지어, 이것을 가평장에 내다팔아 쌀과 바꾸기도 했다.

밀은 방아를 찧고 체로 쳐서 국수나 범벅, 소당떡을 만들어 먹었다. 범벅은 감자, 강낭콩, 밀가루, 물, 소금을 섞어서 찌 먹는 것이다. 소당떡은 밀가루를 물에 개서 부쳐 먹는 것으로 밀떡과 같다. 또 밀가루에 소다를 넣고 개어서, 거기에 팔과 소금을 넣고 찌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보리는 보리밥을

해 먹거나 막걸리를 담갔다.

논농사, 밭 많았지. 여긴 화전은 안했어. 밭은 콩, 팥 제일 많이 심었지. 예전에는 그걸로 팔아서 쌀 바꿔먹었어. 마을로 장사가 들어와. 물이 없어서 쌀이 많진 않아. 집집마다 논은 다 있었는데. 품앗이 많이 했지. 모내고 할 때. 봄에 여자들도 일 많이 하지 모심고 할 때. (윤성모)

보리, 좁쌀, 밀 그런 거지. 밀 해서 밀 빵아다가 국수도 해먹고, 범벅도 해먹고. 또 밀로 수당떡 해먹고. 부치기 수당떡. 밀을 밭에다 심어서 빵아서 그렇게 해먹지. 가루 물에다 개가지고 그렇게 해먹지 뭐. 부치기. 이거랑 밀떡이랑 똑같은 거야. 범벅은 감자 넣고 강낭콩 조금 까 넣고, 밀가루 넣고 물 넣고 버무려서 찌는 게 범벅이지 뭐야. 소금도 조금 들어가고. 여름에 보리하면 보리밥 해먹고. 밀 하면 밀 빵아다가 빵도 해먹고. 여러 가지 소다 넣고서는 개가지고 찌서 먹고. 빵 속에는 팥. 빨간 팥. 옛날에 무슨 설탕이 있어. 소금 넣고 해먹었지. 막걸리도 하지. 보리쌀로 보리막걸리. (김옥예)

농사는 한식부터 시작한다. 이때 범씨를 담그고 밭에 감자, 고구마를 심는다. 수확한 감자는 밭에 넣어 먹거나, 썩혔다가 가루를 내서 감자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 볶아서 밥반찬이나 도시락 반찬으로도 많이 먹었다.

논농사는 모내기 때와 김매기 때에 품앗이로 했다. 모내기 품앗이는 7~8집 정도씩 했다. 모내기 때는 제누리, 점심, 저녁 제누리 세끼를 대접한다. 제누리는 국수, 점심은 밥, 저녁 제누리는 술로 내간다. 국수는 시장에서 산 호면에 파를 넣은 간장 국물로 만든다.

모내는 때 밥 해가고. 나도 며칠은 땡겼지. 품앗이 얼마 안 돼. 한 일곱 여덟 집 그렇게 땡까. 농악, 두레 이런 거 없었어. 다 이 동네에서 품 팔러 오고도 했어. (김옥예) 제누리 점심 저녁 제누리 그렇게 나가. 제누리는 국수, 점심엔 밥. 저녁 제누리는 술 그거지 뭐. 호면 사다가 많이 사다 먹었어. 국물 간장 넣어서 끓여가지고 국수 삶아서 파나 있으면 좀 넣는거지 뭐. 고명은 무슨. (윤성모)

마을에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은 머슴을 둔다. 머슴은 1년 내내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하며 대개 충각이었다. 새경은 머슴이 일년에 받는 쌀과 돈을 말한다.

윤성모와 김옥예가 시집왔을 때는 길쌈이 많았다. 당시에는 모든 집이 삼베 농사를 했다. 세간을 새로 나간 집 이외에는 집집마다 베틀을 가지고 있었다. 베를 짜서 여름철 옷을 해 입었으며,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는 없었다.

시집왔을 때는 길쌈 많이 했어. 집집이 다했지 그때는. 없어진지 몇 십년 됐어. 한참됐어. 베틀은 큰집은 제각기 다 있었지. 세간 나간 집들은 없어도 큰집들은 다 있었어. 나 시집와서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와서 만동서네 살았어. 거기 있었어. 시집와서 배웠지. 처녀 때는 몰랐지. 다 품앗이로 해. 공동으로 삼 삼고, 뭐 그랬지. 팔긴 뭐. 다 해 입었지. 옷 팔진 않았지. 여름 옷. (윤성모)

여자아이들이나 처녀들은 4~5월에 봉숭아물을 들이기도 했다. 봉숭아 꽃잎을 따서 소금을 넣고 찼는다. 이것을 손톱 위에 올리고, 비닐봉지로 감싼 다음에 명주실로 감아 3~4시간쯤 되면 물이 든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취떡을 해먹었다. 취를 뜯어다 삶아서 찹쌀을 쳐서 떡을 한다. 떡을 만드는 취는 떡취라고 하는데, 잎이 큰 것과 작은 것의 두 종류가 있지만, 맛과 향은 같다.

단오에는 약쭈를 뜯는다. 약쭈는 먹는 쭈과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새벽 일찍 약쭈를 뜯어서 새끼로 엮은 다음에 처마에 매달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쭈은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으면 끓여서 몸을 씻는데 썼다. 6월에는 본격적으로 김매기를 한다. 김매기도 품앗이를 조직하여 작업한다. 7월 칠석에는 밀떡을 한다. 밀을 갈아서 하얗게 부쳐서 대청과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아침이나 저녁에 놓고 ‘집안 잘 되라’고 기원을 한다. 또 논에 가져다 놓는데, ‘기름 냄새를 맡고 벼가 잘 여물라’고 기원을 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단오에 약쭈 비고 그랬어. 산에 가면 많았는데. 지금은 약을 하두 뿌려대서 없어졌어. 먹는 쭈 있고 약쭈가 따로 있어. 단오 때 5월 5일 날 새벽같이 비어와야 해. 엮어서 새끼로 달아매. 말려. 애기 낳고 떡 감고 그래. 끓여가지고 폭 삶아가지고 그 물로 씻어 산모가. 그래서 그게 약쭈가 되는 거야. (김옥예)

칠월 칠석에 떡 해먹어. 밀떡. 가루 부치는 거 해먹지. 시간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 없어. 그러니까 밀 빵아다가 밀 떨어져 바삭 말려 빵아다가 그거 그냥 댕돌에 갈고 그랬어. 술에 뚜껑 그거 가져다가 기름 두르고 이렇게 부쳐서. 이렇게 집안에 놓는 데가 있어. 하얗게 그냥. 다른 거 안 넣고. 그리고 노나 먹지. 동네 사람들이랑. 집집마다 다 허지. 옛날엔. (윤성모)

칠석에 밀떡은 잘 되라고. 집안 잘 되라고. 시집오니까 논에도 가서 부치고 하드라고. 그전에 그렇게 하던데 벼 잘 여물으라고. 예전에 구식은 많아. (김옥예)

밀과 보리는 6~7월에 거둔다. 그리고 10월에 벼를 벤 다음에 밀, 보리를 함께 파종한다. 김매기할 때는 이미 여물어 있다. 방아는 마을 아래쪽의 60년 된 방앗간에서 짰었다.

8월 추석에는 송편차레를 지낸다. 송편은 색깔을 쓰지 않고 흰 송편 한 가지만 준비하며, 속에는 거피한 팥, 팥콩을 사용한다. 팥 거피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알밤을 넣기도 한다. 탕은 토란은 없었기 때문에 토란국 대신에 무국을 올린다.

음력 10월에는 고사를 지냈다. 시루떡을 해서 집안의 마부(마구간), 부엌, 대문에 갓다놓았다. 소를 키우면 외양간에도 갓다 놓았다. 마을의 단골무당은 아픈 집에 와서 굿을 하고는 가을 추수 후에 쌀이나 돈으로 받아간다.

10월 이후 여성들의 중요한 일은 김장과 메주쑤기는 일이다. 먼저, 김장을 하고 이어 메주를 쑤다. 김장은 모두 농사지은 것으로 담근다. 젓갈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금, 파, 마늘, 고춧가루만으로 담갔다. 그나마 고춧가루도 조금밖에 넣지 못한다. 김장 종류는 배추김치, 무, 깍두기, 동치미 등이다. 젓갈은 나중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젓갈장사가 김장철인 가을철과 여름철인 7월에 마을에 들어왔다.

이 시기에 남성들은 화목(땃감)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당시에는 모든 난방과 음식조리, 소죽 끓이는 일을 화목으로 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했다. 따라서 남자들은 매일 나무를 하러 멀리까지 다녔다.

김장을 다 마치면 메주도 직접 빻는다. 콩 5말 정도를 삶았으며 메주덩이는 25개 정도를 만든다. 한나절 삶은 콩을 방아에 찧어서 모양을 빻는데, 메주틀이 있어 거기에 찍어냈다. 방에다 두고 대강 말린 뒤, 새끼를 꼬아 처마에 달아 걸어서 띄운다. 잘 띄운 메주는 정월에 거두어 장을 담근다. 동지에는 팔죽을 끓이며, 찹쌀로 웅심이를 작게 빻어 넣는다.

배추 뭐 다 심어서 먹었지. 배추 퍼지는 거 그런 거 했지. 그전에 젓갈이 어딴어? . 소금 넣고 파, 마늘 넣고 그렇게 했지. 젓갈은 지금이나 넣지. 새우젓도 이 근래지 뭐. 고춧가루도 없었어. 시방 고춧가루 많이 넣지. 그전에는 죄금 따서 발방아에다 찧어서 죄금 넣고 해먹었지. 색깔 허연 거. 그래도 그때 게 맛있었지. 지금은 맛없어. 깍두기 하

고, 동치미.

김장 다 하고 메주. 콩도 다 심지. 메주 우린 식구 많아서 많이 했어. 식구대로 쏘니까. 한 땀말 했어. 한 스물 땀개 나와. 그렇게 나와. 한나절은 삶아야 돼 콩은. 방아에다 찼어야지 발 방아에. 혼자해 메주는. 찼어가지고 이렇게 디터가지고 누룩마냥 이렇게 빻어가지고 메주를 있었어. 남자들이 만들어줬어. 방에다 띄워야지. 겨우내 매달아두지. 가을에 매달아두면 정월달엔 다 띄어. 해 매달았다가 정월달에 띄어. (윤성모)

(4) 금대리의 놀이

장성만이 구술한 금대리 비룡대마을의 놀이는 자치기. 깡통차기놀이, 술래잡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말타기(학교), 농악, 딱지치기, 다마치기(구슬치기), 깡통돌리기, 씨름대회, 팔씨름대회, 화투 등이다. 그가 구술한 놀이의 특징을 보면, 이 마을은 양반동네라 두레농악이 없었으며, 돌싸움이 나 햇불싸움도 없었다. 그리고 연을 날리되 연싸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월대보름에 깡통을 돌리고 던지는 정도의 놀이는 있었다. 농악은 비룡대는 없고, 강변쪽 쇠터마을의 농악이 강했다. 이곳의 제기차기를 보면, 비닐로 만들어 놀았는데, 썰렁이라 해서 바닥 안 대고 차기, 양발차기, 발 놓고 차기 등을 해서 합계로 승부를 냈다. 다마(구슬)치기놀이는 손 튕겨 맞히기, 네 구멍 차례로 넣기, 훌쩍 먹기 등이 있었다. 윤성모와 김옥예가 구술한 놀이로는 널뛰기, 그네뛰기, 운동회, 공기놀이 정도이다

(가) 장성만이 구술한 놀이

자치기는 겨울철에 많이 했다. 4명씩 편을 나누며, 작은 자는 메뚜기라 해서 10cm 정도이며, 긴 자는 70cm 정도이다. 처음에 땅에 길쭉한 구멍을 뚫어 메뚜기를 가로로 놓고, 긴 자로 떠서 날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몇 자 인지를 재서 승부를 내는데, 나무는 단단한 싸리나무를 사용해야 잘 튀어 올라왔다.

옛날에 우리 놀 때 자치기를 주로 했어요. 겨울철에 자치기하는 데, 자치기는 편짜서 하는 거니까 인원은 제한이 없죠. 보통 한 팀에 네 명 정도로 여덟 명 해요. 자치기는 땅에다가 구멍을 파서 자 하나를 그 밑에 두고, 다른 긴 자로 밑으로 쳐내며 떠요. 그 친 걸 몇 자 갔나 재는 거예요. 그 자가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긴 건 떠미는 걸로 써요. 해서 (받으면_ 지는 거고. 긴 건 길이가 80cm정도 됐어요. 작은 건 경사지게 깎

아야 되고요. 그 조그만 걸 ‘메뚜기’라고 했죠. 그 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찌리나무로 주로 했죠. 왜냐면, 찌리나무가 단단한 게 나무로 딱 쳐도 쪼개지지도 않았어요. 망가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찌리나무가 잘 올라와요. 쳄을 때 잘 튀는 거죠. 뜨는 걸 때리는 거니까. 여기도 시골이니까, 어렸을 때 이 자치기하고 깡통을 찌그러 가지고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랬죠.

깡통놀이와 술래잡기는 많이 했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아이들이 ‘깡통놀이를 하자’고 하면 10여명이 모여서 우선 장끼를 해서 술래 1명을 정한다. 그리고 깡통 안에 돌맹이를 넣고 깡통을 찌그러뜨린다. 둥글게 원을 그리고 가운데에 깡통을 놓는다. 그리고 술래를 중심으로 술래잡기를 한다. 술래는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며, 숨었던 아이가 술래보다 먼저 달려와서 깡통을 발로 차면 다시 술래가 된다. 이 놀이는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하다.

술래잡기는 깡통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깡통놀이와 술래잡기의 차이는 깡통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마을에서 깡통놀이나 술래잡기는 남녀가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전에 여자들이 남자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으며, 남자들은 여자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면 몰래 다가가서 칼로 고무줄을 자르는 장난을 자주 했다.

그 깡통을 여기 안에다 돌맹이 넣고 오므린단 말이에요. 그럼 깡통이 흔들릴 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놀이하면 술래가 찾으러 다니잖아요. 한 10명이 게임한다고 하면, 8명을 찾았으면 두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술래가 두 명을 찾지 못하고 거기 있는 깡통을 딱 차면, 여덟 명이 다 살아서 도망가는 거지. 술래가 보통 한 명이고, 인원 제한이 없어. 이 걸 깡통놀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짱깨보(가위바위보)해서 술래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결국은 깡통 쓰는 술래잡기죠. 깡통은 동그랗게 해놓고 한복판에 놔 두지. 요 옆에 사람은 맨날 울었어요. 저 위에 사람들을 개를 아주 얹보고, 매번 짜고 술래만 만들어 놓아서 울고 가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었고요. 근데 이거하고 틀린 게, 술래인 자기도 오는 거 보고 와서 깡통을 찰 수 있어. 그러고 빨리 뛰어와서 술래든 아니든, 깡통 먼저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지. ‘무궁화 꽃이’는 깡통 없이 했지. 깡통차기를 안 하고 하는 건 그냥 술래잡기고. 보통 노는 게 남자여자 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닐 때만 해도, 여기는 여자들이 안 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이 앞에 못 갔어요. 앞에 가서 남자들이 방구 편다고 뒤로 오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앞을 못 갔어요. 남자들 오면 뒤로 술술 피했으니까. 남자들이 하도 짓궂게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 고무줄 하는 거 칼로 딱 자르고 그랬죠.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요.

제기차기는 엽전과 비닐봉지로 만들었다. 장성만은 금대리에서 1960년대에 제기를 만들었는데, 칼로 엽전에 구멍을 뚫고, 파란 비닐봉지를 찢어서 만들었다. 이 마을에서 많이 생산되는 닥종이로 제기를 만들지는 않았다. 차는 방식은 바닥에 대지않고 안쪽으로 차기, 양발로 차기, 발 놓고 차기(발 디디고 차기)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하며, 합계를 내서 승부를 가렸다. 장성만 본인은 잘 해야 20개 정도 밖에 차지 못했으나, 잘 차는 아이는 100개 이상을 차는 경우도 있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썰랭이’라고 하며 보통 잘 하는 아이들은 50개 이상을 찬다.

제기차기 많이 했죠. 제기는 직접 만들었죠. 옛날에 비닐을 칼로 잘라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엽전 그 동그란 구멍 뚫어진 걸로 많이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 때 비닐이 구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파란 비닐로 오려가지고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했으니까, 1960년대죠. 제가 64년도에 졸업 했는데. 그 때 도시에선 비닐우산 같은 거 있었죠. 그래도 부자 애들만 우산 쓰고 다녔지, 우린 우산 못 쓰고 다녔죠. 제기를 닥종이로 만든 기억은 없어요. 거의 비닐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비닐이 펄럭펄럭하고 잘 차져요. 제기찰 때에는 오른쪽인 안 쪽으로 치죠. 거의 바닥 쪽으로 치는 애들이 많이 친다고 봐야죠. 양발차기는 안 쪽으로 하는 거니까. 제기를 찰 때, 처음에는 바닥에 발 대지 않고 차고, 그 찬 다음에 떨어지면 양발 차고, 세 번째는 한 발을 땅 디디고 한 번 차고 그랬어요. 합쳐서 많이 찬 사람이 1등을 정하는 거죠. 저는 얼마 못했어요. 한 20개도 못 차봤죠.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애는 100개 이상씩 차는 애도 있었는데요. 잘 차는 사람은 발 안 딛고 차는 걸 잘 해요. 첫 번째죠. ‘썰랭이’라고 하는데, 50개 이상씩 차니까. 두 번째는 양발 발 놓고 차기. 제기차기는 계절에 관계 없어요.

척사대회는 정월대보름에 마을에서 열렸다. 1등 상품으로 송아지를 걸었으며, 청년회에서 주관하여 1주일 동안 계속했다. 표를 사서 2명이 서로 붙어서 이기면 계속 올라가고, 지면 바로 떨어지게 된다. 당시 송아지값이 5천 원 정도인데 표 값은 50원 정도로 싼 편이 아니었다. 인근 마을에서 척사대회에 참석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 마을에서 십여 명이 공동 주관하며, 수입이 괜찮았다. 한 마을이 계속 하지 않고 매년 돌아가면서 여는데, 정초 척사대회를 하는 마을이 많이 있었다.

윷놀이는 애들이 좀 했고, 어른들이 하는 게 척사대회라고 있죠. 송아지 걸고 이 마을에서 했죠. 정월 대보름날부터. 이걸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엔 해요. 주관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데요. 내가 보니까, 맨 처음에 표를 떼서 하는 사람을 이기면

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면 빠지구, 이기면 쪽 올라가고 해서 1등 한 사람이 송아지 가져가요. 아까 요 조그만 아주머니 위쪽에 사는 형님이 송아지 탔어요. 참가하려면 돈을 내고 뛰어야죠. 표를 사서 두 명을 이기면 올라가는 거야. 돈을 내는 건 맨 처음만 내는 거고. 떨어지면 표가 모여야 되는 거야. 그 표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떨어지면 망가지는 거죠. 떨어지면 다시 표 사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회전에서 하는 건 표 사서 할 수 있는데, 2회전부터는 표 사서 할 수 없어요. 이 근방에서 척사대회 하러 많이 오죠. 옛날식 도박이지, 놀음. 송아지 타러 많이 오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값은 또 비쌌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산다고 봐야죠. 그때 척사대회할 때 송아지 값이 5천원 정도 했어요. 그 표는 50원 정도 했다고 봐야죠. 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표값이 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마을에서 한 10사람이 주관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하는 마을이 많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안 하지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디든 가서 하는 거예요. 매년 하지 않으니까요.

다마(구슬)치기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했다. 다마는 유리다마이며, 안에 색 깔이 있었으며, 주로 문방구에서 구입했다. 놀이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으로 다마를 튕겨서 상대의 다마를 맞히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땅에 구멍을 4개 뚫어서 차례대로 들어가면 상대의 다마를 따먹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홀짝을 맞추면 따먹는 방식도 있었다.

연날리기는 정초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많이 했다. 연은 정월보름에 귀신을 쫓고 액을 막는다고 해서 태워서 날려보냈다. 따라서 정월보름 이후에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 연은 보통 꼬리가 3개 달린 방패연을 날렸다. 이 마을에서 연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누가 더 높이 나느냐로 시합을 하는 정도이며, 실이 약해 높이 날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말타기는 장성만이 국민학교 다니던 시기(1960년대 초중반)에 많이 했다. 그리고 흰 공책으로 딱지를 접었으며, 주로 넘겨먹기를 많이 했다. 강통돌리기는 정월대보름에 했다. 강통을 돌리다가 논에 집어 던지기도 했으며, 뒷동산을 불태우는 일도 있었다. 주로 남자아이들이 어릴 적에 강통돌리며 놀았다. 씨름대회는 장터가 아닌 가평읍내의 군청 근처에서 판이 벌어졌다. 그리고 팔씨름대회도 함께 열렸다.

화투는 어른들이 놀았는데, 주로 고스톱과 짓고땡이다. 청년회에서 야경을 돌았는데, 산에서 노름하는 사람들을 말리다가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흠을 뿌리고 심하게 저항해서 가평경찰서에 잡혀간 일도 있다.

토끼잡이는 겨울철에 한다. 하루 3마리까지 잡았는데, 주로 올무로 잡았다. 눈이 오면 눈길에 토끼의 발자국이 생기는데, 그 자리에 올무를 설치한다. 보통 토끼는 대부분 정도 한 길로만 다니며, 가던 길로 항상 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3~5명이 어울려 토끼잡으러 가는데, 주로 토끼를 모는 일을 한다. 토끼를 잡으면 무를 넣고 도리탕을 끓여서 술안주로 했다. 여기서는 고양이 토끼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

(나) 윤성모, 김옥예가 구술한 놀이

마을에서는 정월에 윷놀이를 하고 처녀들은 널뛰기를 하며 논다. 단오에는 그네를 뛰는데, 미리 남자들이 큰 나무에 그네를 매어준다. 이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두 그네를 뛰었다.

마을에서 10리 정도 거리에 금대리 분교가 있었다. 운동회가 1년에 한번 가을에 열렸는데, 운동회날은 마을 잔치였다. 부녀자들은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함께 달리기도 했다. 운동회날은 이밥(쌀밥)에 반찬은 시장에서 김을 사다 구워주기도 했다. 평소 도시락 반찬은 김치, 무채, 무채장아찌이며, 돈이 좀 있는 집은 계란을 부쳐서 싸주었다.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했다. 겨울에는 얼음 위로 트럭이 다녀 썰매는 많이 타지 못했고, 또 댐을 막으면서 얼음이 잘 얼지 않게 되었다.

여긴 썰매 타는 건 없었어. 저 강이 옛날엔 이렇게 얼어서 제무시(트럭) 차가 다녔는데.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 그 전에는 저걸 안 막았어. 댐을 안 막았잖아. 댐 막으면서 땅이 없어지면서, 나간 집들도 많아. (윤성모)

다.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1) 승안2리 마을개관



〈그림 6〉 승안2리 마을회관과 경노당

승안리는 가평읍이 관할하는 14개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 163개 반 가운데 하나이다. 구한말까지만 해도 승안산(升安山)라 불렸으며, 승안리 마을 전체가 산으로 이어져 있어 승안산의 명칭을 따라 마을 지명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승안2리는 연인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위의 산쪽에서는 과거 땔나무용 산판과 화전을 일구고, 숯가마를 굽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서울로 우마차를 이용해 숯가마와 땔나무를 운반하기도 했다. 연인산 위쪽의 ‘전폐’라는 곳은 고원 형태의 평평한 곳이 있는데, 과거 아홉마지기 동네라 불리었다. 따라서 승안2리는 지금 동네 이름을 아홉마지기 동네로 불리고 있다. 1960년

11) 가평읍사무소>마을의 역사/유래>승안리(www.gapyeong.go.kr 접속일 2018.10. 28)

대에 화전촌은 전부 철거되어, 당시 외지에서 온 화전민들은 대부분 흩어졌다. 한편 승안리 아래쪽의 접말은 옹기마을로 몇 가구가 예전에 옹기를 구었다.

승안리 중에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조옥동(조록절)이며, 위로 소내미, 중산리, 도토지, 물안곡(꼭대기쪽 마을), 굴아오, 에리비터, 칼봉 육립만, 점폐 등이며, 아래로는 신촌과 접말이 있었다. 승안리는 예전에 100여가구 정도였는데, 산판 작업을 할 때에는 한때 300-400호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주로 콩을 많이 재배해 주위에 콩밭이 많았다. 연인산 방향 위쪽의 점폐에는 이씨가, 점폐 아래 도토리에는 최씨가 몇 대에 걸쳐 살았다. 이곳에는 나물과 더덕, 잣이 많이 나는 곳이다.

이곳 조옥동은 가장 큰 마을로 학교도 있었으며, 대체로 생활이 부유한 편이었다. 이 마을은 영좌가 두레와 장례 등을 주관하며, 밑에 계장이 있고, 소임은 실무를 맡았다.

학교는 전쟁 이후에 가평국민학교 승안 분교가 생겼으며, 내곡 분교도 생겼다. 조옥동에는 예전에 청기와 집도 있었다. 이곳은 30호 정도로 10집 정도가 논농사를 지었으며, 이외에 밭농사로 콩, 팥, 보리, 밀을 재배했다. 따라서 이곳은 쌀이 귀한 편이었다.

하길용(남, 1931년생)은 한때 60가마까지 수확할 정도로 이곳에서는 여유로운 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루 품삯이 보리 1말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 승안리의 가구가 많았죠. 지금 한 백여 가구 되었죠. 어림잡아 백이십 가구 돼요. 옛날엔 삼사백 호 되었었어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살았었어요. 골짜기로 해서. 그서 골짜기마다 마을 명칭이 좀 달랐었어요. 여기는 조옥동, 그 위로 올라가서 소내미가 있지, 그 다음 올라가서 중산리 있지, 물안골 있지, 굴아호 있지, 에리비터 있지. 그리고 점폐 있지, 도토지, 칼봉, 육립반, 점폐 있지. 도토지가 두 번째로 위 꼭대기 마을 이름이고요, 점폐가 제일 꼭대기예요. 지금 연인산이라고 하는데. 여긴 그 때 단일부락이 많았어요. 이런 저런 곳에서 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엔 화전을 해먹다 보니까. 점폐에서 이기찬이라고 도토지에 그 사람하고 여기서 몇 대를 살았는데요. 화전 해먹고 콩밭 심어놓은 것을 몇 대를 놓았어요. 도토지의 양반 하나 있는데, 최봉운이야. 점폐 사는 사람이 이기성이고. 그 사람들이 몇 대를 살았어. 그리고 부자야. 약초 같은 건 없어. 화전을 하는데. 나물 종류는 많았죠. 나물, 더덕 이런 거 캐먹고 살았죠. 잣도 많았고. 요 밑에는 신촌이 있어요. 사변 후에 사람들이 새로 지

은 마을을 신촌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조옥동이 제일 컸지. 학교도 있고, 하씨촌이었지. 하씨가 사람도 많고, 부자도 제일 많아. 잘 사는 사람들 저기 모여서 살았어요. 조옥동에 있던 학교는 승안분교. 사변 이후에 생겼다 폐교 됐어요. 화전민들 있을 때, 내북동에 내북분교도 있었어요. 조옥동에선 농사를 많이 지었죠. 농사는 콩, 팥 이런 거 주로 하고. 계속 조옥동에서 살았으니까. 신촌이 1반이지, 우리 집째(김장춘)가 2반 점말. 점말이 웅기쟁이예요. 점말에서 웅기를 많이 구웠거든요. 조옥동이 옛날에는 조록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거기 좀 어두운 민박집 있는 데에, 옛날에 그 자리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면 청피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록절이라고 그랬지요.

여기는 논농사 짓는 사람은 몇 집에 불과하고, 한 30집 정도 짓고. 밭에서 콩, 팥 심고 그랬어. 그리고 보리, 밀. 그 전에 우리가 보리는 60가구 정도 했었어. 승안리에서 제일 보리를 많이 내놓은 거야. 밭이 많아서. 일꾼 셋이서 열심히 하였지. 다 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개 한 마리 사서 쥘서 잡아먹었지. 그 때 품삯이 하루 종일 일해야 보리 한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보리 한 말을 줬죠.

전(김장춘) 9살부터 지계를 지고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면에 난 가보질 못했어. 옛날에 걸보리 한 말이면 쌀 서너 되 정도 줬어. 서면에 감자 사러 네 사람 갔어. 북면 위로 걸어서, 읍면에서 쌀 가지고 산등성이를 넘어와서. 그 땐 이북이 와서 쌀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서면을 감자 사러 갔는데, 몇 말 사왔는지도 모르겠어. 아우, 거기 가니까 감자알을 창고에다가 산처럼 쌓은 거야. 그래서 서면이 품삯이 엄청났다는 거야.

마을 위쪽의 국유지에서는 예전에 땔나무 채취를 위한 산판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있었으며, 숯가마도 있었다. 따라서 산판과 숯가마 작업을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와이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나무를 아래로 끌어내렸으며, 산판에서 나온 장작은 마차를 이용해 서울로 운반했다. 하길용의 부친도 마차를 끌었으며, 12km 연인산 계곡을 올라가며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움막을 지어 살았으며,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어서 콩, 팥, 조 등을 심었다. 화전 지역은 낙엽이 많고 불을 질러서 재가 거름이 되면서 곡식이 매우 잘 되었다. 수확한 콩은 소의 먹이로 사용되었다. 강원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주로 화천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 승안리 마을 사람 일부가 산판일에 참여했다. 초기 작업 도구는 도끼였으며, 이후에 톱을 사용했다.

이곳의 장작은 우마차에 싣고 서울로 가는데, 중간에 마석의 마방에서 묵었다. 서울의 경동시장에 도착해서 중간 상인에게 넘겼는데, 보통 왕복에

4-5일 정도 걸렸다. 화전민들은 산판일을 하고, 화전을 일구며, 숯가마도 하고, 소도 사육하면서 일부는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나갔다.

화전하던 사람들이 왜 화전민이 됐냐하면, 산이 이 위서부터 전부 국유지래요. 국유지. 그 걸 일제히 상판하기로 했어요. 나무 베서 장작 팔고, 숯가마 굽고, 이 걸 하게 됐어요. 이러니까는 먹고 살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거야. 산판하러. 산판이라는 게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패서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장작 패서 못 지고 내려오니깐, 와잇줄 매서 도르래로 해서 바로 내렸어. 산에 와잇줄을 매가지고, 쇠를 판짜에다가 놓아서 내렸어요.

그 때엔 차가 없어서, 마차로다가 서울로 운반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길용)가 마차를 끄셨거든. 서울로 운반할 때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여 들어와서 이 계곡에 12킬로예요. 직선으로. 그 계곡 전체를 다 메운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점점 쫓아 올라 갔어요. 원래 올라가 살던 사람들이 있지만, 화전민들이 거기 쫓아와 놓고선 거기다 움막을 지었어요. 움막을 짓고, 나무 베어 먹었으니까, 산이 나무도 많고 불 막 지를 때거든. 화전해 놓고 살아야겠다 그러고선 불을 전부 지르고 화전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주로 콩하고 팥하고 조를 심었죠.

거기 화전한 데가 불을 질러 남은 재가 비료가 되면서 곡식이 아주 잘 자라죠. 그래가지고 콩팥을 심으니까, 무지하게 했어요. 여기서 차로다가 수십 차가 나가요. 이거 나가고, 콩은 팔지 않고 소를 먹어요. 조그맣게 망으로 짓고, 계속 불어 살이 찌면, 소장수들에게 소 팔고. 이래가지고 여기 사람들 중 일부는 부자가 돼서 나갔어요. 탄 데 가서 땅 사고 그랬어요. 결국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화전이 목적이 아니라, 산판 하려고 왔다가 여기에 눌러앉은 거야. 산판은 일제 때고. 그 때 우리가 밥장사를 요 세명이서 했어. 아무튼 6.25 전이야.

나무는 배로는 안 실었어. 우마차. 그것도 일제 때야. 해방 되고서도 그랬나?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서울까지 우마차로 가려면, 마석 가서 자고 그러면 한 4일 정도 가야 돼요. 자고로 나무는 다 장작이죠. 파는 건 서울에 경동으로 많이 갔어요. 경동에서 우리가 팔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팔고 그랬죠. 중간에 넘기는 거죠.

이곳 산판 지역의 숯가마는 마을 주민도 참여했다. 하길용은 부친이 숯가마를 했는데, 그는 숯가마용 참나무를 도끼로 3번 찍어 넘기는 것을 보았다. 산판에는 도끼를 사용해야 나무에 공기가 잘 통해서 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래에 도끼가 아닌 전기톱으로 간벌을 하다가 나무를 잘못 잘라 사람이 나무에 깔려 죽은 경우도 있었다. 산판에서는 소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만들며, 참나무는 숯가마용으로 사용되었다.

화전민은 1960년대에 전부 철수했다. 땔나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판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지로 나갔으며, 일부 사람만 남아 있다. 당시 밥장사를 한 90세 노인이 아직 생존해 있다. 화전민들은 땅을

파서 구들을 놓고, 위에 나무를 사각으로 엮대서 지붕을 했으며, 벽은 진흙을 발라서 하루만에 움막을 지었다. 그런데 움막집은 의외로 따뜻했다.

떨나무는 혼자 작업하기도 하지만, 여럿이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지역의 남자들은 학교에 못간 사람들이 많았으며, 따라서 어린 나이에 일찍이 지게질을 했다. 당시 산에서 노는 특별한 놀이는 지게작대기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정도이다. 민요는 노래가락, 창부타령, 어랑타령, 청춘가 정도를 노래책을 보고 배웠다.

이 마을에서는 한때 누에를 친 적이 있다. 안골 화전민촌에는 산뽕이 많아 한 나절 만에 한 대접을 따기도 했다. 당시 뽕을 찾아 산을 헤매기도 했다.

예전에 마을 주민들은 못 살아도 의리는 있었다. 장례를 지내는 집에는 쌀을 건어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전에는 쌀이 없어 콩죽을 쑤어 먹고 장례를 치른 적도 있다. 장례는 3일장이 아니고 대체로 5일장을 지냈다. 술을 담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길용(남, 1931년생)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7일장을 지냈다. 나무관을 짜고, 술을 담그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당시 상제는 7일 동안에 세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장례를 치르는 7일 동안에 그의 집은 부유한 편이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먹였다. 당시 동네 상여는 16-24명이 뗏다. 상여는 20여년 전까지 사용하다가 없어졌으며, 지금은 농협에서 꽃상여를 사다가 사용한다. 당시 동네 부조는 술로 했다.

예전 사람들이 못 살아도 의리는 좋았어요. 누가 해를 보잖아요, 각 집집마다 나무 가지고 이음 엮어가지고 하나씩 가져와서 그 날로 집을 지어 줘요. 또 없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호당 사람 한 뒷박씩 가져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장사를 지내줘요. 옛날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죽으면 면에서 다 해주지. 여튼 의리는 참 좋았어요.

상가집에 갈 때 부조를, 막간에 술이나 한 통씩 집에서 해서. 장사를 5일 장사를 지내. 3일장 말고.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은 3일장 지내고,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5일장을 지냈어요. 술이 없어서 5일장을 많이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상은 7일장을 지냈거든. 7일장을 지내는데, 그 동안에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켜가지고 관 짜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집에서 술 해놓고 고여. 그 담에, 장손들 7일장을 했는데 상주는 세수를 안 하네. 아주 머리에 머릿니가 뒤석뒤석 하더라고. 7일간 머리를 안 감고서 세수를 안 하니까. 관 짜고 술 담그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3일장이고, 없

는 사람은 5일장이야. 7일장 하는 건 상주들이 힘들죠. 그만큼 7일장 지내면 동네사람들 집 안에 와서 다 먹고 사는 거야. 7일장은 오는 동네 사람들 다 먹여야 돼요. 그러니 밥좀 먹는 사람이 7일장 지내지, 없는 사람은 못 해요. 5일장도 좀 드문드문 했고요. 그러니 부유하니까, 막걸리 먹으면서 상을 지내는 그 날로 술을 해 뒀요. 그러니 술을 5일로 먹고 땡기니까 5일장이 많았지, 대번 없는 사람은 3일장이고. 7일장 지내는 사람은 부자집이고. 보통 5일장이면 부러울만 하죠.

동네에 상여가 많았죠. 그 건 대중이 없어요. 매기에 따라서니까. 보통 16명에서 24명. 그 걸 궁정이라고 그러지. 24명이 제일 큰 거고, 그 답에 16명이죠. /(김장춘)일제 때,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콩죽을 쑤어 먹고 장사를 치뤘어. 상여를 여덟 명이 이고 왔어. 8명이 매고 (공동묘지)에 가서 했어요. 왜놈들 보급 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사니까 상여가 없어요. 그러니 보통 매기를 해야지. 8명이지만 막 지고 갔었지.(김장춘)
상여 소리 하는 분들이 동네에 다 있었죠. 점점 상여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여기 상여도 없었는데, 지금 꽃상여를 농협에 가서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차로 나가니까. 상여 안한 지가 한 20년 훨씬 넘었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상여는 다 없어졌어.

이 마을에는 장례 관련 계로 초상계가 있었다. 계원인 동네 남자들은 초상이 나면 묘자리를 파는 일, 상여 메는 일, 회를 잡고 회다지를 하는 일 등을 나누어서 했다. 만약 나오지 못하면 벌금으로 콩 1말을 냈다. 예전에 장례는 보통 5일장이나 3일장을 했으며, 부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다. 상여가 개울에 도착하거나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상여가 가지 않는데, 이때에 만상제와 식구들이 돈을 낸다. 그리고 하관한 후에 회다지할 때에도 식구들이 돈을 내는데, 이렇게 모든 돈은 나중에 동네돈으로 사용된다.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인심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1/3 이상이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른 곳에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예전에는 이장 도장을 찍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은 술을 갖고 이장 집이나 마을회관에 인사를 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동네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한편 이 마을은 ‘이세’라고 해서 퇴거를 할 때에는 돈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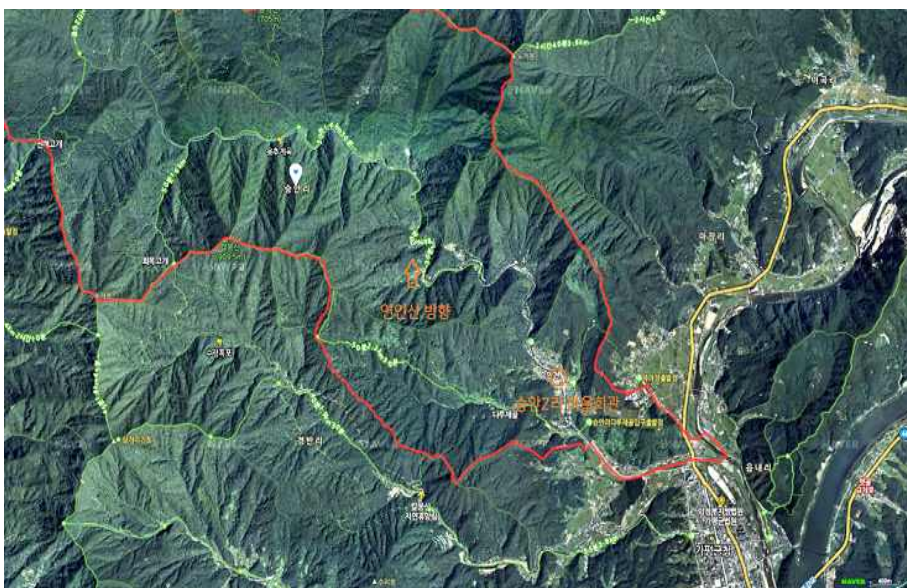
동네에서 영좌는 제일 큰 어른으로 유지급이 하며, 논매기나 장례가 있으면 지시를 한다. 영좌 밑에 계장이 있으며, 그 밑에 소임은 직접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래 이장 이전에는 구장이 있었으며, 나중에 반장이 되었다. 하길용(남, 1931년생)은 동네에서 20년간 계장을 했다.

승안2리 동네 이름을 아홉마지기 동네라고 부른다. 동네 가장 위쪽에 ‘전

폐'가 있는데, 약 12km 정도이다. 그쪽 연인산 등성이 위에 9말의 논을 수
확하는 매우 평평한 곳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이곳은 밤나무,
벗나무가 많이 있으며, 물이 매우 좋다. 이곳도 행정 구역상 승안2리에 속
한다.



〈그림 7〉 가평군 가평읍 송안2리 세부도



〈그림 8〉 가평군 가평읍 송안2리 전경

(2) 승안2리 토박이의 삶



〈그림 9〉 승안2리 김장춘, 하길용, 이해춘

승안2리에서는 하길용, 김장춘, 이해춘, 이길순, 김성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길용(남, 1931년생)은 4대에 걸쳐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가평중학교 3학년 때에 학도병이 되어 강원도 평해에서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벽동군 포로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포로교환으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김장춘(남, 1929년생)은 90세의 고령으로, 승안2리 점말 출신이다. 그의 집에서는 예전에 가마를 갖추고 웅기를 구었다. 웅기를 굽는데 필요한 진흙은 당시 10리 거리의 가평읍 대곡리에서 지게와 우마차로 운반해 왔다. 이 흙으로 각종 떡시루, 어른 물동이, 아이들 물동이를 만들었다. 이 웅기를 부친이 직접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팔았다. 그는 군대 갔다 온 후에 2년간 나무

장사를 했으며, 이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한편 이해춘(남, 1939년생)은 이 마을에 6대에 걸쳐 거주하며,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하길용(남, 1931년생)은 6.25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 포로로 잡혔다. 그는 해방 이듬해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평중학원 3년 과정을 다니다가, 20살 되던 해에 6.25가 일어났다. 피난을 1951년 1월 1일에 진천으로 걸어서 갔다. 그곳에서 안남미 배급을 받으며 잠을 자다가 한국군에 차출을 당했다.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고 양평 미 24사단의 노무자부대에 들어갔다. 당시 M1으로 완전무장을 했으며, 영어를 좀 했다. 용문산 전투에도 참전했으며, 가평의 상색에 주로 주둔을 했다. 집이 가까워 땀감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으로 행했다. 부대에서는 매일 담배 1갑과 초콜렛과 껌이 배급 나와, 이것을 모아갖고 집에 갔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가요. 6.25가 났는데, 학도병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는데 뭘. 가평에 우리 졸업 말을 댔 중학교가 없었어요. 있는 사람은 춘천이나 서울로 가고, 없는 사람은 집에서 지냈어요. 8.15 해방 전 때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해방된 이듬 해 하고 집에서 3년 정도 놀았어요. 노는 데 가평이 중학원이 생겨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 정도 다니다가 6.25가 난 거예요. 3년 졸업을 못하고. 중학원은 3년 과정해서 졸업이에요. 졸업 전 그 50년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 때 같은 학생들은 같이 안 가고 뿔뿔이 모였어요. 여기서 인민군들에게 수복돼가지고 와가지고, 학도병들이 몽쳐가지고 인민군들 뺏은 총가지고 다니고. 그 때 학생들은 총이 없었으니까. 그 총이 딱콩총이라고 그랬죠. 한발씩 나가는거, 총 다섯 발 들어가요. 따발총은 70발씩 연발로 나가는 거고요. 개내들이 총 쏠 적에 ‘딱콩’하면 ‘타라라락-’ 하고 장단을 맞춰서 싸. 학도병들이 훈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1.4 후퇴 때가 됐어요. 중공군이 2차 공세 때 나온 거예요. 52년도 1월 1일 기해가지고. 그러가지고 여기서도 피난 나가게 됐어요. 충청북도 진천까지 피난을 갔죠. 피난을 나가는 건 걸어서 나간 거지. 가다가 먹을 것도 다 떨어졌지. 진천까지 나가서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는 데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국군이 와가지고선 젊은이들을 차출해 가. 가자고. 그러니까 쫓아갔더니 창고에서 쌀가마를 옮겨 놓는 거야. 그거 사흘 동안 일을 하고서, 와보니 가족이 없어졌어. 그거 어떡해. 혼자서 슬슬 기어 들어가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굶고 그러면서 양평까지 왔어. 양평에 미 24사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 모집해가지고 늙은 사람은 노무자로 보내고, 나는 젊으니까 직속 와서 학교에서 영어좀 배웠으니까 육부터 할줄 알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하면서 외국인 부대에다가 배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엠원 소총 당기는 거하고 쏘는 거’ 요것만 알려주고선 완전무장 시키는 거야. 철모까지 군화까지 입혀서. 미군 부대에 편입이 된 거죠. 용문산은 미국전차선 있는데, 웬만하면 안 죽어요. 왜

냐하면 산골에서 총소리가 난다 하면, 비행기포 불러가지고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폭격하고 싸우니까.

산속에서 있다가 가평읍 근처까지 왔어요.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데, 왔으니까 집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완전무장하고 총 올리고 집에 왔어. 가족이 있어야지. 그 땐 도망가도 그만이에요. 호적도 군번도 없는 군대생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미군놈들 주둔하면 밤에 불 잘 놓아. 나무 가지러 간다고 미국 놈들에게 이야기 해놓고 말하고 나온 거야. 집안 식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들어올 집이 있어. 그러고 군인이 왔으니까 냅다 도망을 가는거야.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이 박준영이야. “하길 용이! 하길용이!” 소리 지르니까 “아유 자네가 왔어?” 그 때엔 담배도 귀했어. 내가 가서 ‘담배와 이런 거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나무 한두번 썩 지고 가실래요?’ 이러니까 그러겠데. 난 그 때 담배 안 피었을 때거든. 매일 담배 한 갑하고 초콜렛도 껌도 나와. 한 보따리 건네주었어. 그리고 도망을 와서 집에 왔더니, 잘 데 있나 먹을 게 있나. 식구들도 없고 집도 폭격에 맞아 불타고 완전히. 그러니까 도로 부대를 갔어요.

부대를 가서 저 현리와 상판리를 가쳐, 포천으로 들어갔어. 포천으로 들어갔을 때가 중공군 2차 공세 때야. 용문산까지 올 적에. 그래가지고 후퇴하다가 상판리에 있다가, 신산리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 때 보급이 완전히 끊어진 거야. 군데 가만히 보니까, 푹푹한 사람들 있지. 그 통역단이고 푹푹한 사람들은 이미 전부 벌써 어디로 가버린 거야. 후퇴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상면서 마석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능선이 있잖아, 거기 맨 앞에 위험지대가 있거든. 250m정도 되다보니까. 능선 밑에 나와 미국 사수하고, 부사수하고 셋이서 그거 장총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나는 보초를 초저녁에 서고, 새벽에 서요. 또 나이가 어리다고 밤중엔 저기 가서 서고.

부대는 현리와 상판리, 종촌로 옮겨 다니다가 중국군(중공군)의 2차 공세에 부닥쳤다. 나중에 현리 신산리에 주둔하다가, 4월 중순 새벽에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중국군에 포위가 되었다. 당시 사수가 사망해서 부사수인 그가 사수를 대신하다가 붙잡혔다. 당시 33인이 포로가 되었는데, 모두 미군이었으며, 한국인은 본인 한 사람이었다.

강원도 평해에서 한국군 포로 몇 천명과 함께 있다가, 한달을 걸어서 압동강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압록강 상류 초산 아래의 벽동군의 강가 포로수용소에서 3년간을 포로로 있었다. 당시 수용소는 일자집 형태로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휴전협정에 의한 포로 교환으로 가까스로 돌아왔다. 당시 도망자들은 바로 총살을 당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찬양하면 역시 인민재판을 통해 바로 총살을 당했다. 겨울철에 매우 추웠으며, 아궁이에서 연손을 죄었으며, 낮이 없이 맨손으로 포위나무를 꺾어 땀감으로 썼다. 당시 중공군은 여자들을 건들지 않았으며, 비교적 신사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후

퇴하는 중에 가평읍내에서 60명이 한꺼번에 처형되어 화장될 정도로 나중에는 인명피해가 컸다.

그 때가 4월 중순이니까. 추울 때거든. 중공군 신호탄이 터지고선 빗발같이 오는 거야. 굴러가서 보니 눈 먼 장님이야. 보지 않고 앞에 아침 5시인데 침침한데 뭐하나. 그냥 쏘고 있는데, 사수 한 놈이 총격을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부사수 데리고 쏘야 되는데, 부사수 한 놈이 없어. 나는 싸울 줄 알았고. 내가 능선 아래에 있는데, 그 위에서 쏘려니까 중공군이 고지를 점령한 거야. 그랬더니만 중공군 여러 명이 우릴 둘러 싸더라고. 손들라고. 이미 포위당한 거죠. 사수는 죽고, 부사수가 멋들어지게 손 들길래 나도 번쩍 들었지. 그러고 여기 있는 수류탄이고 뭐고 다 뺏더니만 끌고 가는 거야. 그럴 때 딱 등이 뒹어, 하얗게. 그 때에 아군포 아군 비행기가 쏴아בות는데, 더 죽겠더라고. 여기 도 쿵하고 저기도 쿵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거쳐 어느 골짜기로 가니까, 한 곳에 서른 세명에 한국 사람은 하나야. 나머진 미군이고. 거기서 아픈 사람은 빨리 치료해주는 거야. 나중에 아프다 한니까, 이 새끼가 치료는 안 하고 등 속을 수색을 해. 왜 그러냐 했더니 기적이다 이거지. 네 방이나 나왔어요. 두 방이 나갔는데, 그 때 입은 게 10월의 잠바, 작업복, 목도리, 메리아스, 난닝구. 이렇게 입었는데 메리아스하고 난닝구 땀어. 그 때가 통통 부운 거야. 화약 때문에. 그니까 이 놈들이 등 쪽을 찢으면서 치료 하더라고. 그러고서 끌려가는데,

뭐 먹을게 있나. 빈집에 가서 콩이 있으면 콩이나 삶아서 먹고. 어떤 때 그 것도 없으면, 중공군 놈들 야외 식량이라고 있어요. 중국 말로는 초면가루, 전대라고. 수수, 보리. 우리 말론 거의 미숫가루죠. 그 거를 나무통에다가 한 숟갈 넣어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한 번 주는 거야. 그거 점심으로 먹고, 저녁 때 또 한 번 먹고.

낮에는 산꼭대기에서 먹고 자고, 밤에는 가고. 강원도 평강을 갔어. 한국인 포로가 몇 천명 돼. 거기서 핏대 서고 무지하게 싸우고 죽을 때거든. 나는 이제 한국인 포로에 처넣고 미국인들은 다른 데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압록강까지 한 달은 걸어갔어. 압록강을 가서 그 놈들 나룻배가 있더라고. 나룻배 태워가지고서 압록강 상류로 올라가서 초산 밑에 벽동이라고 있어요. 그 강가에다가 내려놓더라고. 그러고 수용소로 갔어. 포로수용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전부 일자 집이야. 거기 가서 3년 있다가 나왔어요. 휴전하고 포로 교환 때 나온 거죠. 힘들었죠. 거기서 도망간다 뭐하다 이런 놈들은 인민재판이라고, 우리들 전부 모여서 “이 놈은 어떻게 도망갈려고 그랬다. 김일성은 모욕을, 이승만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 이라고 한 놈이 그런다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한 놈이 또 그래요. 그럼 박수 안 칠 수가 없잖아? 어수선한 소리가 나온더라고. 다 “옳소” 그러면 앞에서 죽여. 앞에서 총살시켜. 그런 걸 몇 번 보고. 말 잘 못하면 총살이야. 개내들은 인정사정이 없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게다가 거기 벽동 겨울에 얼마나 추운 데요.

근데 그 시장 일대 양쪽으로 일자집이 쭉욱 있고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아궁이 땀감하러 다녔어요. 불 땀라고. 포로병들은 데리고 가면, 낮은 무기가 돼서 안 되니까. 맨손으로 가 가지고선 중공군이 산을 포위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무를 꺾는 거야. 꺾어다가 그걸 때고 그랬어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거기서 자살도 아무나 못해요. 어쩌다 죽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공군은 여기 와서 여자라는 걸 건들지 않아.

일절! 그래도 한국군은 여기 와서 여자 추려서 데리고 가면, 그 여자는 개네들한테 가는 거야. 한국군이 정말 못 돼먹었어. 중공군들이 양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여자하고 같이 자도, 건들지 않아. 한 집에서 자도, 여자 한 쪽으로 몰아놓고 여자 일절 안 건들어. 그 중공군들 중에서 연변 조선인들도 있는데, 주로 우리 통역관리인으로 나왔어.

가평에서 화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번은 한 60명씩 화장을 했어. 장작을 밑에 쌓아두고, 여기서 열 다섯명, 열 다섯명, 열 닷명, 열 두명. 장작 다 쌓아놓고 화장을 하는데, 60명을 해버린 거였지.(하길용)

김장춘(남, 1929년생)은 9살에 지계를 지기 시작했으며, 가평군 북면까지 걸어다녔다. 젊은 시절에 점말에서 살 때에 부친이 웅기를 구었다. 당시 점말에서 5-6가구가 가마를 가지고 웅기를 구어서, 점말은 웅기말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웅기만 굽고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다.

흙은 옛날 가평읍내 기차역 뒤편의 대곡리에서 진흙을 채취했다. 굴을 뚫고 4m 정도 파 내려가서 삼태기로 흙을 퍼 올렸다. 이 흙을 약 4km 거리를 지계와 우마차로 운반해 왔다. 그는 9살의 어린 시절에 부친을 따라서 가평 각지를 다니며 웅기를 팔았다. 당시 읍내의 마장골에도 독을 굽는 곳이 있었다.

점말에서 주로 질그릇을 구었는데, 떡시루, 물동이 등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쓰는 작은 물동이인 ‘반구리’도 만들었다. 물레를 돌리는데, 발로 차면서 작업을 했으며, 물레통은 가로 40-50cm, 세로 20cm 정도였다. 물레를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마가 안에 넣고 불을 땀다. 초저녁부터 밤새 불을 때서 다음날 낮 2시 경에 가마에서 꺼낸다. 가마에 불을 때기 위해서는 땀감이 많이 필요했다. 다행히 이곳은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무는 흔한 편이었다. 나무를 집에서 쓰지만, 일부는 장에 내다 팔았다. 전날 미리 나무를 해서 다음날 새벽에 별을 보면서 지계에 지고 장에 가서 팔았다. 김장춘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 2년간 나무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웅기 굽는 곳이 없어요. 옛날에 웅기하는 데가 여러 집 있었는데, 한 대여섯 집 정도 됐어요. 웅기가마 해 놓고 팔러 다녔어요. 가마도 있었죠. 흙이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평읍에 역전 뒤에서 흙을 퍼왔어요. 거기가 웅기용 흙으로 좋다고 해서. 옛날 기차역, 지금은 대곡리일 거야. 그 흙은 지계로 져가기도 하고, 마차로다 실어 나르기도 했지. 삼손 아버지가 지계질을 잘 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10리 정도 돼요. 4킬로. 그

런데 일일이 지게로 저 내렸죠. 우린 직접 지게질은 안 했어요. 제 아버지가 옹기를 직접 구웠죠. 그러가지고 그 당시에 새끼에다 묶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사변동안엔 그릇이 없었잖아요. 양은 그릇이니 플라스틱이니 나오기 전이니까. 내가 90인데, 그 시절이 아홉 살 적이라 물동이도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파는 건 가 평균 전체로 팔러 다녔죠. 강원도 마장골 뱅길이 여기저기 다 댕기는 거야. 그 당시에 여기에 옹기 굽는 데는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큰 독을 굽는 데는 읍내에 있고. 그 질그릇은 독같진 않거든요.

옹기 굽는 거. 흙을 펴 때, 깊이가 한 4m는 내려와야 그 흙을 퍼내요. 파다가 파올려서 굴을 뚫어요. 굴을 파서 상자보다 올리면, 받아서 잡고 나오는데. 지금은 발전이 돼서 기계로 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땐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했고. 삼손 아버지가 지게질 잘 한다고, 그 거를 엄청 좋아 했거든. 삼손 아버지하고, 순들 아버지도 있는데 그 걸 주로 삼손 아버지가 했어.

옹기 만들 때 여러 가지 만드는데, 주로 시루도 만들고, 물동이도 만들고 그랬어. 옛날엔 물동이가 많이 필요했으니까. 물 길는 데 쓰고, 주방에서도 쓰고. 지금이야 수도에서 퍼다 먹으니까. 예전엔 개울물에서 우물 나르는데 물동이나 항아리를 여자들이 이고 다녔어. 그 땐 동네마다 우물이 다 하나였어. 그 항아리가 큰 거는 물동이고, 조그만 거도 만들고 그랬는데 ‘반구리’라고 그래요. 반구리는 애들이 들고 댕겼죠. 그 걸로 애들이 물 길어 오고.

물레라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 발로 차서 돌리는 거예요. 그 물레를 돌려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물레통이 그리 크지 않고 요만 한데, 거기 밑에 말뚝을 박아둔 걸 차서 돌리는 거죠. 그 물레통이 나무를 짜서 만든 거예요. 진흙틀을 말려서 그 걸 가마에 요렇게 놓아 쌓아서, 불을 때서 굽는 거야. 텔레비전에 보면 독 큰~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하고 똑같이 굽는 거죠. 그 거하고 방식이 거의 똑 같아요.

가마 안에서 불을 나무로, 한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낮에 두시까지 때요. 그 게 산골짜기라서 그러는 게, 산골짜기엔 나무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야. 나무야 흔하니까. 그 들어올 때만 해도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 다음 인구가 대번 늘어나는 바람에 적어졌지. 우리가 나무 장사를 했는데. 용안이, 순들이, 나. 이렇게 셋이서 나무를 지고 가는데, 시간은 있고 지게는 없으니까, 그 지고 나무를 팔러 나가는 거야. 아유.(김장춘)

이길순(여, 1941년생)은 승안2리 오목동(우무동)이 고향이다. 같은 승안2리에서 21세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스스로도 “나는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커가지고 여기서 시집왔지. 이제 여기서 죽을 판이야.”라고 말한다. 그녀는 승안리에서 혼인을 해서 점말로 이주해 거주하다가 골프장 개발과 함께 30년 전에 조옥동으로 이사했다. 혼례때 대례상에는 대추, 밤, 용떡, 팔이 올라갔으며, 살아 있는 암수 한 쌍을 날렸다. 대례를 마치고 큰 트럭을 타고 길이 새로 난 곳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서 마을까지는 가마를 타고 왔으며, 가마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을 해주었다. 시댁에 도착해 처음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솔뚜껑을 놓아서 손잡

이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 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마을 이웃들과 친척들이 방에 들어와 신부구경을 했다. 이때 가족은 불화가 생긴다고, 특히 시누올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어오지 않았다.

김성태(남, 1952년생)는 승안2리 조옥동에서 “태어나 몇 대로 살”고 있다. 잔치로는 시댁에 도착해서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다. 당시에는 결혼 부주를 돈으로 하지 않고 국수로 했다. 국수는 형편에 따라 묶음 단위로 가져왔다. 혼인하고 1년이 지나면 ‘근친엿’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린다. 대개 1년~3년 안에 엿을 만들어 돌린다. 그리고 동기들에게는 버선을 지어 선물한다.

우리 결혼할 때는 족두리 쓰고 왔지. 드레스 이런 게 없었지. 대례상에 뭐 대추, 밤 주섬주섬 있는거 해 놓고. 닭을 양쪽에다 붙잡고서 용떡도 했어. 흰떡을 이렇게 용 모양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눈깔을 팔으로 팔눈깔을 박고. 그리고 닭을 수탉 하나 암탉 하나 붙잡고서 대례 끝나면 ‘휘이’하고 날려. 대례하고 바로 시댁으로 왔지. 가마타고 땡겼지. 가마는 저기 가마 매는 서족들. 좀 얇을 사람들. 구하는 거지. 우리 동네 없으면 이웃 가서 구하고. 함도 다 지고 땡기고. 예전에는 샌님, 아씨 다 그렇게 불렀어. 가마 밖에서 알려줘. 올라가면 엮어져라 내려가면 자빠져라 밖에서 올라갑시다. 내려갑시다. 얘기해줘. 그리고 방에다가 엮어다가 이렇게 두면 다들 쪽 와서 구경해. 신부는 쳐다보지도 못해. 고개 이래 숙이고. 집에 들어올 때 여기 식구들은 안 보드라고. 먼저 보면 썸을 한데. 시누올케 싸운다고. 그리고 들어올 때 소당 밟고 들어오지. 솔뚜껑.

잔치는 잘 해야 하루 하지. 대례지내고 와서 시댁 와서 여기서 하는 거지 잔치, 국수하는거지. 잔치국수. 국수 한 뭉탱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두 뭉탱이 있고. 그게 부주야. 지금은 돈 주지만. 많이 가져오면 셋도 가져오고. 근친 엿도 요만한 거 두 쪼가리씩 시집갔다가 근친이라고 일 년 만에 오잖아? 그 전에 일 년 만에 삼 년 만에 이렇게 오잖아. 그럼 그전에는 떡도 안 해가지고 땡겼어 없는 사람들은 엿만 과가지고 땡겼어. 그게 모잘라서 엿가락도 요만하게씩. 버선을 또 이렇게 해서 동기간에 돌려야지. (이길순)

승안1리와 2리는 본래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30년 전에 분리되었다. 현재 1리는 마을 회관 앞의 다리 아래쪽이고, 2리는 위쪽이다. 주민은 승안 2리가 더 많다. 분리 전에 승안리에는 약 300호 가량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었다. 승안리 내에 자연부락이 많았다. 이들 각각의 자연부락명을 보면, 점말(음오동, 30호), 신촌, 조옥동(3반, 30호 가량), 양아터(35호) 등이다. 이 가운데 양아터는 화전민 마을로 산림녹화사업과 함께 35호 전체가 보상을 받고 이주했는데, 집터당 천만씩 보상을 해 주었다.

승안2리 아홉마지기 마을. 여기 마을이름이 조옥동이라고 해요. 승안 1리는 요 아래 다리 밑에. 승안 2리 마을 많죠. 자연부락이 2리로 된지 한 30년 됐어요. 승안 1리가 2리로 나뉘진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난데. 그전에 한 300호 됐었어. 아홉마지기 마을은 그 안에 농사했던 데가 엄청 커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어떻게 아홉마지기가 됐는지. 거기가 옛날에 가톨릭이 피신했던데래요. 전해 내려오기는 거기에 두 내외가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좁씨를 아홉말을 뿌렸대요. 실제로 아홉말까지는 안 되겠지만 전설이겠지. 그만큼 넓었다는. 넓긴 엄청 넓어, 저기 들어가면.

화전민 나가기 전에는 다 거기서 해먹었으니까. 박정희때 거기서 다 해먹고 살았지.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내보내니까. 간첩할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 산골짜구는 다 내보냈지. 그때 20만원씩 줘서 다 내보냈지. 한 30호 넘어서 양아터까지 해서 거기 10집 됐으니 한 35호 넘었지. 보상받고 내려온 거야. 보상이래야 집터 하나씩 돈 천만원씩 해주고, 땅 있던 사람은 땅을 팔았으니 돈이 좀 있었고. 우리마냥 땅이 없는 사람은 보상비만 천만원씩 받았어요. 이전비만.

당시 마을 주민들은 밭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물과 약초를 채취해 판매했다. 그리고 숲을 굽거나 산판하는 곳에서 품을 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논은 마을 아래에 있었으며, 마을에는 주로 화전밭이었다.

농사지. 예전엔 다 화전. 논도 좀 있고. 여기 살던 사람도 저기 위에 살던 사람도 논을 조금 사면 나가서 해 먹었지. 그래서 거기 살아도요 논을 하면 다 등짐으로 저다가 먹었어요. 아홉마지기 거긴 논이 없어. 화전만 해먹었지. 거긴 산이야 산이. 논이라는 건 없어. 논이라고 해야 왕골다랭이라고. 그게 이렇게 편평한데 비 고이고 물 안 빠지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논으로 조금 심었지. 논배미래야 커봐야 요만했어. 마을 사람들은 화전 일귀가지고 두태심어가지고. 숯가마 하고. (김성태)

마을에는 산판이 많았는데, 나무를 끌어내리는 일이 마을 주민들의 겨울 부업이었다. 산판은 대개 산주가 목상에게 산의 일부를 팔면, 목상이 함께 작업을 하는 산판꾼들을 모아서 마을로 데리고 들어왔다. 마을 남자들 중에 산판일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드물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부업으로 했던 일은 낙엽송을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이었다. 건축자재로 낙엽송을 쓰면서, 목재의 수요가 많아 자연히 산판도 활발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겨울 부업이 되었다. 산판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마을 일부 주민들이 산판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다. 주로 식당을 하거나, 하숙을 치는 일이었다.

나무해서 가평읍에 팔았지. 산판 그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아스바리라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족장목, 낙엽송이라고 스물 너자 길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다 인제 큰 건물 짓는 거지. 그거해서 서울로 가지. 목상 인제 우린 목상이 시켜서 일을 하고. 목상은 외지인이 들어오는 거지. 산주인은 외지 사람이 많고. 목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일꾼들. 마을 사람들 중에도 필요하면 쓰고. (김성태)

나도 아스바리 끌어봤는데 큰골서 나무 할 적에 나도 아스바리 끌고 내려왔어요. 그거 대가리에다가 못박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서 내려왔어요. 그걸 뭐야 내가 3개를 끌어내려서 저고리 하나 해 입었어. 우리 여자들이 많이 했어. 남자들도 같이. 한 개 끌어오는데 얼마. 스물 너자 하나 끌어오는데 얼마 이렇게. 노란저고리 하나 해 입었어. 아스바리가 뭐냐면. 지금 건축들 하면 이렇게 다 디디고 밟고 올라가잖아. 그게 아스바리야. 그전에 그게 쇠가 없으니까 그걸 베다가 했어. 집을 지려면 일단 그게 있어야 하니까. 지금으로 한 40년 넘었지. 50년 됐지. 내가 30대 적에 끌어봤으니까. 겨울에 하지. 부업으로 많이 했지. 나무가 물이 올랐을 적엔 아스바리를 안비니까 겨울에 많이 했지. (이길순)

베어 내리고 해서 하산해서 실어갈려면 일 년도 하고 그저. 산 몇 정한다 하면 인부들은 며칠씩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인제 하우스 짓고. 날이 춥지 않으면 겨울에는 방 얻어가지고 자고. 마을 사람 중에 방 남는 사람이. 함바집에서 밥 얻어먹고 술도 팔고 막걸리 팔고. 골짜구니마다 다 있었어. 안 해먹은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전엔 벌거숭이가 많았었지. (김성태)

또 낙엽송 외에 참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참나무로 숯을 구워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숯공장(숯무지)는 산에서 돌과 진흙으로 만들었으며 매우 힘들었다. 김성태는 어린 시절 학교 다녀와서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숯가마에서 숯을 지고 내려오는 일을 도왔다.

숯공장은 참나무만 쓰니까 벌목이랑은 상관없이. 그 외지 사람이 와서도 하고 동네 사람도 하고. 농사 있는 사람도 겨울에는 벌이로다가. 돈벌이가 없으니까. 숯가마 하나 박을라면 아이구, 어마어마하지. 그 숯가마를 그걸 할라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쌓고 진흙을 파다가 그걸 짝 발라. 그리고 그걸 한없이 두드려 패. 반질반질할 때까지. 다지는 거지. 여기다 인제 참나무를 가져다 넣어. 불을 타면 그게 인제 흙이 유지하고 있는 거야. 쇠도 없고. 굴뚝을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비를 맞으면 그게 눌러 앉을까봐 근심을 하지. 그럼 이제 흙이 익는 거지. 아주 짝 막아야지.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숯은 파는 데는 많았어. (김성태)

이후에 화전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완료된 후에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묘목을 나누어주었다. 묘목은 세 가지 종류 중에 선택해서 심었는데

유일하게 수확이 있는 것이 잣나무이기 때문에 당시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때부터 마을에서는 부업으로 잣을 수확하게 되었다.



〈그림 10〉 가평군 송안2리, 이길순, 김성태 외

이곳의 잣은 일제 때부터 이미 일부 심기 시작했다. 산림조합은 40~50년 전부터 있었고 백잣 8kg에 6만원을 받았다. 이후 잣 집이 생겨 껍질을 깬 백자를 판매했는데, 특히 북면 이곡리에 잣집이 많았다. 최근에는 뱃잣이 1되(1kg 이상)에 3만 5천원~6만 5천원까지 한다. 잣을 털고 난 솔방울은 예전에는 잣집에서 땀감으로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거름으로도 사용된다.

잣은 수확 나는 게, 일제 때 심은 거는 한 30년. 박통 때 심은 거는 한 20년 됐어. 수확 난 게. 심어서 옛날에는 다 손으로 깎지. 지금은 공장으로 보내면 다 기계로 털어. 기계에 집어넣으면 잣알이 다 나와. 왜정 때 심은 거는 잘 나오면 한가마니도 나와 크게 커서. (김성태)

잣집이 있어. 걸썩데기까지 백잣 나오면 잣알만 나오면. 산림조합에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다 사갔어. 개인이 한 지도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 아니지 50년 잘 됐네. 백잣 지금 한 되 박 1키로가 좀 넘지. 그게 6만 5천원인데, 올랐어. 전

에는 3만원, 3만 오천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김 거는 한 포대에 한 말에 6만원 준다 드라고. 이곳리에 잣공장이랑 잣집이 많아. 솔방울은 어디 가는 데가 있어. 잣집에서 그 거 화목 땔 때는 썼는데, 지금은 비료로 나간데. 지금은 난로 연료로도 쓰고. (이길순)

(3) 승안2리의 세시풍속

하길용(남, 1931년), 김장춘(남, 1929년생), 이해춘(남, 1939년생)이 구술한 승안2리 세시로는, 1월 14일 부녀자들이 바가지에 밥 넣어 개울에 띄우며 건강 기원하기, 정월대보름 해로 달님 기원, 햇불싸움, 윷놀이와 척사대회, 부럼 깨기, 귀신날 콩 볶아 먹기, 더위팔기, 나무 9짐과 밥 9그릇하기, 단오 그네뛰기, 6~7월 논매기와 두레, 여름 돌다리 보수, 보 공동보수, 백중 가평읍내 씨름대회, 가을 지붕이기 등이다.

이곳의 특이한 세시로는 정초에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반을 했고, 정월 보름 전날인 14일에 부녀자들이 밥을 바가지에 넣고 개울물에 띄우면서 몸이 건강하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용왕제 유사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여름철에 떠 내려간 길을 닦고, 돌다리를 놓으며, 보에 나무 섶과 돌과 흙을 채우며 보수를 했다. 한편 두레 공동 작업 때에는 30여명이 징, 팽과리, 장구, 북을 치고, 호적을 불면서 논으로 이동했으며, 깃대를 꽂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길순(여, 1936년생)과 김성태(남, 1952년생)가 구술한 주요 세시를 보면, 설날 차례상, 명절 술 담그기, 정월대보름 달맞이와 달떡, 액막이 밥 개울 버리기, 1월 16일 귀신날, 베짜기 길쌈, 입하 밭갈기, 봄철 산나물과 약초 채취, 모내기과 품앗이, 보 수리, 논매기, 보리 타작, 밭작물 파종과 관리, 칠석 밀떡, 추석 올벼, 상달 고사, 늦가을 나무하기, 김장과 메주 쪼기 등이다.

(가) 하길용, 김장춘, 이해춘이 구술한 세시풍속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햇불로 불을 밝히고 달님에게 기원을 했다. 삼베를 짜는 대마를 벗겨서 조릅대로 나이만큼 묶었다. 어린 아이들은 대개 어른들이 만들어 주며, 한 살짜리부터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주로 집 근처의 채마밭이나 논두렁에서 달맞이를 했다. 달이 떠오르면 햇불에 불을 붙이고,

“달님, 달님 절합니다”하면서 무병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햇불을 위아래로 흔들며 달에게 빌었다. 주로 5-6살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했다.

이웃 동네와 햇불로 패싸움을 한 적은 없다. 다른 동네에서는 햇불을 밝히면서, 이웃 동네끼리 햇불을 던지면서 패싸움을 하고, 햇불에 유리를 박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1월 14일은 ‘여름날’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면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거라’고 말하면서 더위를 판다.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면서 이런 장난을 했다. 근래에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날은 나무9짐을 하고, 밥 9그릇을 먹는 날이다.

이날 밥을 물에 띄우고 다리를 수리한다. 1월 14일에 부녀자들이 허수아비를 만들에 물에 밥을 얹어 띄운다. 밥을 창호지에 싸서 바가지 안에 넣고, 개울가에 가서 띄워 보낸다. 아이들이 무병장수하고, 물조심하라고하는 풍습이다. 이곳에는 계곡이 깊고 물이 많아서 이런 풍습이 유일하게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돌다리가 떠내려가며, 동네에서는 해마다 다리를 수리한다. 추석이 다가오면 길을 닦고, 다리를 수리하거나 새로 놓는다.

그 애들 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밥도 싸가지고 가서 거기 띄우는 게 있어요. 그 거는 여름날 하죠. 1월 14일을 ‘여름날’이라고 했어요. 그 건 집안 어른들이 하는데, 그중에 대개 다 여자들이 하죠. 그런데 그걸 올려서 1년에 무병장수를 하라고 애들한테 위해서. 문창호지를 오려서 밥을 싸가지고, 바가지에다 담아서 거기 물에다가 띄우더라고. 개울에 주로 띄우고. 그 전엔 물에다가 막 버렸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 이걸 물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만 하나 봐요, 인근에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여긴 워낙 계곡물이 많으니까, 비만 많이 오면 말도 못해요. 물이 다리까지 닿으니까. 비가 많이 내렸다 하면 산에도 못 올라가요. 날이 좋아야 가지. 그래서 옛날에 마을 공동으로 해서 큰 돌다리를 두었었죠. 여름이면 돌다리가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매년 추석 밑에 가서 추석 쉼라고, 동네 사람들 전부 나와가지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죠. 없어진지 얼마 안 돼요. 다리를 딱 놓고 그러니 없어지지. 옛날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같았어요. 부역이다 하면, 하나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고.

정월대보름에 부럼을 깨는데, 부럼은 볶은 콩이나 밤을 깨물었다. 이곳에서

1월 16일이 귀신날이다. 이날 콩을 볶아 먹는데, 밤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체에 바늘을 걸어서 문 앞에 두고, 문을 걸어잠그고 잠을 잔다.

정초에 고사반이라 해서 잘 사는 집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쌀과 돈을 걷었다. 대부분의 집에 다녔으며, 술과 떡을 대접받고, 쌀과 돈을 걷어 동네기금으로 사용했다. 이곳 동네의 부자는 몇 섬지기를 할 정도로 부유했다. 정월보름까지 며칠간 고사반을 했으며, 당시 윗대의 어른들이 주도했다. 김장춘(남, 1929년생)이 25살 적에 농악의 두레가 있었고 이후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정초 고사반은 대략 195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도 농사 저도요, 신나게 했어요. 농악을 해 가지고서. 논매러 가면 논매는 데다가 농기를 쫓고 낚다 노는 걸로 했어요. 그러고 놀다 취하고 일하다 보면, 호미가 빠지는 것도 모르고 호미자루로만 가지고 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논매러 갈 때는 여럿이서 갔어요. 논매기할 때, 처음에 매는 건 애눈. 애눈매기. 두 번째는 두벌. 두벌매기. 세 번까진 잘 안 하지. 주로 두 번 매고, 세 번 하는 건 피사리를 했죠.

옛날에는 신나게 살았어요. 없이 살아도. 아침에는 앞에서 징하고 팽과리 치면서 나와가지고, 논두렁 위에다가 깃대 꽂고 일을 하고, 악기를 치며 시내를 돌아다녔어. 옛날 읍내 살던 사람들이 신나게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따라 가곤 했는데, 30명이고 40명이고 거의 다 나와 따라갔어. 금년 잔치도 다 나오지.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논매기할 때 소리는 특별히 없었고, 그저 흥나서 부르는 노래하는 거죠. 논매기할 때 악기는 징하고, 팽과리 있고, 호적이 있고, 장구하고 북도 다 가져갔어요. 범구도 이리저리 치고 호적 불고 하면서, 일 맞춰 하는 거예요.

정초에 집집마다 잘 사는 집에 가서, 농사일도 해주면 돈을 받고 하는 걸 고사반이라고 했어요. 두레라고도 하죠. 잘 사는 집에 가서 해야, 농사일도 해줘서 돈을 받지. 못 사는 집은 그 게 안 되니까. 그 고사반 받는 집에서는 보통 떡을 해 받고, 쌀도 내 주죠. 돈도 내는 부자집도 있고요. 그 부자라면 몇 섬지기를 했으니까.

그 때 고사반 할 때 걷은 쌀과 돈은 동네기금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있는 집은, 술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쌀도 내놓고 그러지. 떡도 해서 한 시루 갖다 놓고, 그 게 하루만에 안 되고, 보름정도 가지. 정월 보름까지. 여기 집은 고사반 안 해주고서, 우리 집 해주기는 뭇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많이 해주지. 없는 사람은 낚두고. 떡이나 해두고. 고사반을 정월 한 달 정도 하죠. 정월에서 보름까지. 보름까지는 이 집에서 떡국 끓이면, 이 집에 가서 먹고 동네 또 돌아서 먹고 그러죠. 떡국 끓이기도 하고, 돈도 내는 사람 있고, 다 다르니까 돌죠. 저희 때에는 그런 게 적었어요. 아마 우리 윗대 어른분들이 주로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스물다섯 살쯤까지 농악하고, 두레하고 그랬다가 전부 없어졌어요.

봄철 보릿고개에는 장래쌀을 얻어 연명했다. 봄철에 식량이 떨어지면 장래쌀을 얻어먹었는데, 가을에 장래쌀을 갇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보통 7월에 장래쌀을 1가마 얻으면, 5개월 뒤에 타작을 하고 1가마 반을 갇아야 한다. 당시 품을 팔면 하루에 논일은 벼 1말, 밭일은 보리 1말을 받았다.

논매리 갈 때에는 농기를 들고 농약을 치며 일하러 갔다. 논매기는 애논매기, 두벌매기의 2번이 보통이고, 3벌은 피사리 정도로 한다. 두레에 30-40명이 참여해서 신나게 일을 했다. 술을 먹으며 일을 해서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할 때에는 징, 팽과리, 장구, 북 등의 악기를 쳤으며, 논두렁에 깃대를 꽂고 호적을 붙여서 일을 했다. 동네 사람 3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법구를 치고 창부타령을 불렀다.

여름철 보의 수리는 공동작업으로 했다. 나무 섶으로 막고, 돌로 누르며, 흙을 섞어서 쌓는다. 쌓은 흙은 비가 오면 무너지기 때문에 보를 다시 수리해야 한다. 보 주위의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보를 수리하러 오라고 알리면 그들이 나와서 수리를 한다.

지붕은 추수 후에 새로 인다. 벧짚을 이엉으로 엮어서 지붕에 올리는데, 품앗이로 하지만 울력¹²⁾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울력으로 할 때는 대개 저녁이나 밤에 작업을 한다.

(나) 이길순, 김성태가 구술한 세시풍속

정월에는 떡국차례를 지내는데 떡만두국을 준비한다. 떡은 3~4말 정도를 찢어 찰떡을 만들었다. 차례상에는 과줄(한과), 복어(부자집), 밤, 대추, 술을 준비해 올린다. 명절 시장은 주로 10리 떨어진 가평장(5.10일)에서 보았다. 길은 현재의 도로와 같으며, 과거에는 신작로가 아닌 1차선이었다.

만둣국하지. 떡 좀 넣고 만둣국하지. 그래도 명절 때는 찰떡하고 쫄쫄떡 하고 흰떡하고 서말 너말 해서 이렇게 두고 먹었지. 그래도 인심이 좋았던 게 이집도 서말하고 저집도

12) 길흉사가 있거나 일손이 모자라서 가사가 밀려 있는 집을 위해 마을사람들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협동 관행이다. 울력은 협동 노동방식이기는 하지만 무보수의 노동력 봉사라는 점에서 노동의 교환방식인 두레나 품앗이, 고지 등과 다르다.(이영진, 「울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2, 587쪽.)

달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담아놔. 그러면 밖에다 두면 쉬지도 않아요 정월이 추우니까 팥팥 얼어서. 그럼 저집 가서 떡 구워서 먹고, 인심이 좋았어. 차례상에는 부치기하고 과줄 맨들고 집에서 밤, 대추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예전에 제사상에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잘 해야 있는 집에서 고기 좀 몇 조각 썰어 놓고, 북어 갖다 놓고, 조기는 그전에 부잣집이나 올렸지. 요만한 거라도 아주 정성을 해서 올렸지. (이길순)

가평장이 제일 커. 한 10리 되요. 마차길이 있었지. 소가 끌고 다니는 마차. 길 좁고 비포장. 지금은 2차선이지만 지금은 1차선이지. (김성태)

술은 집에서 각자 담갔다. 쌀은 없었기 때문에 잡곡을 쓰거나 옥수수로 엿을 고아 옥수수술을 만들었다. 이를 엿술이라고 하며, 짜고 난 찌꺼기는 소를 주었다. 설날 손님들에게 술과 차례상의 안주로 대접했다. 제사와 명절 손님접대를 위해 술을 담갔기 때문에 질금과 누룩도 항상 만들어 두었다.

술 담갔지. 쌀은 없었고 잡곡, 그저 옥수수. 옥수수술이 지금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아주 밍그스름해. 엿 고는 것처럼 짜가지고 그걸 가마솥에다가 밍그스름하게 푹푹 데려요. 그렇게 해다가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그게 엿술이 되지. 그래서 그럼 그건 취하면 깨지도 않아. 엿술은 옥수수를 맷돌로 타개요. 물에다가 담가서 옥수수를 푹 불리면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같지. 그전에는 그걸 불려서 맷돌에다 곱게 갈아. 그럼 그거에다 질금(질금)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한켠에 두고 그답에 그걸 가져다가 한번 끓이면 말갭게 삭잖아. 그럼 그걸 짜가지고 그걸 국물을 푹푹 끓여 빨강도록, 그럼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그게 술이 되는 거야. 그럼 색이 노르스름하지.

질금이랑 누룩도 맨들지. 질금은 이렇게 싹 띄워서 누룩은 밀 이렇게 갈아서 반죽해서 팍팍 밟아서 뜨듯한 방에다 뽕양게 띄우는 거야. 그때는 다 만들어 먹었지. 옥수수 찌꺼기는 버려야 돼. 쌀밥은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누룩이랑 버무려놔. 그걸 인제 보재기에 싸가지고 그걸 엿물에다 넣어놔. 그럼 그렇게 잘 돼. 쌀 넣으면 더 좋지. 쌀이 없으니까 이 동네는 그냥 누룩만해서. 한 일주일이면 완성돼 방이 뜨듯하면. (이길순)

정월 대보름에는 쌀, 찹쌀, 팥, 콩, 좁쌀의 5가지 곡식으로 오곡밥을 해 먹는다. 종류별로 묵은 나물을 곁들이는데, 주로 취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이 많았으며, 콩나물도 길러서 먹었다.

또, 화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다. 화는 산에서 마른 쭉대, 수수단, 대마대대로 만들며, 짚이나 대마껍질을 나이 수대로 묶는다. 마을에서 달맞이 하는 곳은 미리 모닥불을 피 두어서 집에서 만든 화를 가지고 가서 불을 붙였다. 자기 나이에 해당하는 마디가 탈 때까지 계속해서 화를 앞뒤로 흔들며 달을 향해 소원을 빈다. 승안리에서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달맞

이를 했다. 달맞이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 달떡을 구워먹었다. 정월에 떡을 할 때에 둥근 달떡도 만들어서 얼려 놓는다. 그래서 정월보름에 달맞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화로불 석쇠에 올려서 구워먹는다.

이렇게 화 매 가지고 ‘달님 절 받으시오. 올 일 년 그저 탈 없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화는 쑥대, 수수단 또 그전에 대마를 여기 많이 심었거든. 대마대도 쓰고, 나이대로 묶어. 그냥 짚으로도 묶고 대마 껍질. 짚으로도 묶고. 농사 없어도 그거 묶을 정도는 있었어. 화는 어른도 다해. 그해 운 좋아지라고. 높은데 빨리 달이 보이는데. 모닥불 같은걸 이렇게 퍼놔서 서로 불 데려가지고 절하고 그러지. 요 마디가 내 나이 마디가 다 탈 때까지 해야지.

달떡을 해요. 정월에 떡을 할 때 달떡을 해서 맨 밑바닥에다 얼려놔다가 달 보고 들어와서 그거 구워먹어. 달모양으로 이렇게 뚱그랴게 만들어. 화로 불에, 석쇠에다 이렇게 구워먹지. 지금은 떡을 기계에 해서 떡을 구우면 이렇게 다 흘르지만 그전에는 쳐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주 구우면 맛있었어. (이길순)

정월 대보름에는 몇몇 액막이 습속이 있었다. 하나는 삼재가 든 사람이 있으면,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개울에 던지거나 또는 액풀이를 한다고 한지 창호지에 밥을 조금 싸서 개울에 버리는 일이었다. 김성태도 할아버지가 창호지에 ‘해동조선국’ 쓰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집안의 아이들 숫자만큼 만들어 개울에 띄워 보냈다. 이를 따로 부르는 말은 없었고 그저 액풀이한다고 말한다.

정월 보름에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형이지 인형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밥 한술 해서 올려다가 집새기 하나 삼아서 개울에다가 던져. 액을 댄다고. 밥도 이렇게 해가지고. 개울에 던져. 애 이름 써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창호지에다가 해동조선국 쓰고 생년월일 이름 써가지고 밥 한술 해가지고 개울에다 던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서 물에다 띄워줬어. 바가지에다 담아서 이렇게 개울에 들고 가. 애들 숫자만큼. (김성태)

1월 16일 귀신날은 “귀신대加里 깨뜨린다”고 하면서 널을 높게 뛰었다. 밤에 신발을 방안에 감추고 대문에는 체를 걸어두었다. 체 사이에는 바늘을 하나 넣어 두어 귀신이 밤새도록 바늘을 가지고 체 구멍을 세도록 했다. 농사의 시작은 입하이다. 양력 3월 말에서 4월에 소 두 마리로 밭을 갈고, 파종을 한다. 없는 집은 빌려서 갈았는데 소 한번 쓰는데 품 세 개로 값

다. 처음 밭을 갈기 전에 여자들이 소의 목을 주물러 주는 풍습이 있었다.

농사 처음 시작하는 게 입하 때 밭 갈지. 3월말 경에, 양력. 채소 재배해야 돼. 밭은 소로 갈지. 겨리로 갈지. 여긴 겨리 써야지. 집집마다 다 있지 않고. 다 있어도 밭가는 소는 다 있진 않았지. 송아지는 다 땀지만 겨리소는 매는 사람이 매. 품은 세 개. 하루 소가져다 쓰면 사람이 가서 품 세 개 해줘야 돼. 농사 전에 삼짖날인가 여자들이 소 매기 전에 여기 목에 주물러 주는 게 있어. 소 여기 뭐 생긴다고. 가서 이렇게 꼭꼭 주물러 줘. 마디가 생기지 말라고. (이길순)

소는 농사짓는데 꼭 필요하며, 부업으로 ‘장려소’를 먹이기도 했다. 소가 많은 집에서 소 먹일 여력이 없거나, 또는 형편이 어려운데 소를 키우고 싶은 경우에 장려소를 많이 했다. 승안리에서 장려소는 송아지 3년을 먹여 새끼를 낳으면 먹인 집에 송아지를 주고 큰 소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또 송아지 한 마리를 사주면 한 집에서 먹이고 자란 뒤에 팔아서 이문을 반으로 나누기도 했다. 가평에 규모가 큰 우시장이 있었고, 흥정을 붙이는 ‘대흥수’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년 전에 우시장이 춘천, 마석으로 나가면서 사라졌다.

음력 2월 그믐부터 4월 말까지 마을의 여자들은 약 한달 동안 부업으로 산나물과 약초를 뜯었다. 뜯은 것은 전부 서울의 경동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길순은 30대부터 50대까지 이 일을 했으며, 김성태의 어머니도 산나물을 뜯어서 장에 내다 팔았다. 이 일을 남자들이 거들기도 했다. 마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은 두릅이 가장 많았고, 고사리, 취나물도 흔했다. 고사리의 경우는 봄부터 여름까지 채취했다. 나물의 판매가격은 1관 4kg을 기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른데, 두릅이 가장 좋았다. 이길순이 40대 일 때 두릅 1관에 14,000원까지 받은 적이 있다. 약초로는 천남생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1근에 300원할 때 50근까지 팔아보았다.

대개 이틀을 채취하고 3일째 되는 날 서울에 가서 생나물을 판매했다. 이때 가평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루에 기차는 7~8회 정도 있었고, 새벽 4시에 첫차가 다녔다. 초기에는 성동역을 거쳐 경동시장으로 갔으나, 성동역이 없어지면서 청량리역에서 내려 경동시장으로 갔다. 1960년대 말 경동시장에는 역에서 시장의 상회까지 나물이나 약초집을 운반해주는 지게꾼

들이 있었다. 당시 지게 값이 300원, 화장실 이용료가 30원이었다. 이길순은 그 지게 값이 아까워 역에서부터 13관 52kg나 되는 약초를 직접 머리에 이고 상점에 가서 팔았는데, 매우 힘들었다.

두릅, 고사리, 취나물 뭐 아주 산나물이라 하는 건 많았었지. 경동시장에서 나물도 사고 약재도 사고 다 샀어요. 그래도 두릅, 고사리가 돈이 되니까 그것만 빼가지고 갔지. 뜯은 채로 가져가는 거지. 생으로 가져가서 관으로 매기지. 그때 관에 1만 4천원씩 받았으니까. 내가 40대 50대 그때 땡겼으니까. 30대서부터. 약재도 많았었고. 약재를 우리는 영감, 마누라 천남생이를 캐면 50근 까지도 캐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장갑도 없어서 씻을라치면 손이 가려워서 죽겠지. 그래서 그 이튿날 여기 광천산 밑에 약재가게 그래도 거길 가면 그게 1근에 300원씩인데 그래도 그때 그게 벌이가 됐었어. 그럼 이틀 따가지고 사흘째는 해가지고 이고가면 가장 많이 이고 갔을 적에가 십삼관 그걸 이고 갔어. 내가 한관에 4키로. 그걸 이고 가서는 그걸 지게꾼을 줄려면 그 돈 3백원이 아까워서 그걸 내가 경동시장에서 이고 상회 가서 미어치고 드러누웠잖아. 그랬더니 상회에서 벌컥 드러누웠더니 “아유 아줌마 아줌마 내가 지게꾼 돈 줄게. 시켜가지고 와.” 그러드라고. 지게꾼이 청량리역에서 경동시장 올라가는데 3백원이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3십 원이고. 경동시장 3십원 받았어요. (이길순)

성동역에서 경동시장까지 성동역은 가깝고 청량리 역은 멀었어. 그러니 청량리역에서 올라가지. 가평역에서 처음에는 성동으로 땡겼는데 성동역이 없어졌어요 우리 할 적엔 그러니 청량리 역엘 가서 청량리에서 경동시장으로 이고 올라가는 거야. 가평역에서 기차타고. 시간 뵈라고. 첫차가 새벽 4시였어. 그래도 하루에 한 7~8회 땡겼을 거야. 나도 엄마 그 나물 실어주느라 지게 지고 많이 뛰었었지. (김성태)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산나물 채취는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라졌다. 이 무렵에는 마을에서 대마도 파종했다. 특히 옷을 해 입기 위해 대마를 많이 길렀고, 마을 단위로 길쌈도 했다. 삼은 음력 7월 처서 지나서 수확한 뒤에 그 자리에 바로 배추를 심는다. 삼베를 짜서 가족의 옷으로 해 입었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개 삼베의 4새는 일하러 갈 때 입는 옷이며, 7새는 외출복으로 만들어 입었다. 풀은 귀리풀로 했는데 메밀풀은 날이 꺾으면 끈끈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리를 별도로 재배했다.

삼베 해서 다 입고 살았어. 삼을 적에는 각자하고 땡 적에 사람 얻어서 하고 짤 적에는 각자하고. 또 삼포집이라고 공동해요. 그 찌는 거. 이집해 저 집해 삼단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다 같이 찌는 거지. 부락마다 다 있었어. 찌는 게. 그거 베고 배추심어. 삼베고 배추심어. 처서 지나서. 이 집 열달 저 집 닷단 이렇게 찌가지고 죽죽 뱉기

지. 밤새도록 있다가 밤에 물을 쥐가지고 그 이튿날 각각 가져다가 뺏기는 거야. 그리고는 쪽 넣었다가 이제 거둬다가 겨울에 삼지. 입기 바뻐. 외지에 팔 거 없어. 곱게 삼아야 해. 일곱새까지 삼았어. 녀새 삼베는 일하러 갈 때 입는 거고, 일곱 새 삼베는 외출할 때 입는 거고. 삼베풀은 귀리라고 있어. 귀리풀이 제일 매끈매끈하고 좋았어. 귀리도 심었어. 비싸서 그렇지 제일 매끈해. 메밀풀은 짜고 나면 날이 저기하면 끈적끈적해. (이길순)

음력 5월 망종 무렵부터 약 보름간 모내기를 했다. 이른 벼를 심었고 벼 품종은 육오, 팔달, 진흥 이후에 통일벼가 나왔다. 마을 안에는 논이 많지 않았다. 1마지기 150평을 기준으로, 대개 6~8마지기 정도이며, 많은 집은 15마지기를 지었다. 모내기는 품앗이로 했으며, 대개 7가구 정도가 모였다. 못날은 모를 먼저 키우는 집부터 했다. 모를 내고 나면 마을에서 4km 정도 거리에 있는 보에서 토랑을 내서 논까지 물을 댔다. ‘봇관감’을 두어 봇물을 관리했다. 가을에 추수한 후에는 논마지기를 따져서 벼를 몇 말씩 그에게 수고비로 주었다. 이를 ‘팻물 댄다’고 한다.

모는 망종까지 내. 넘어도 그냥 내. 망종 지난다음에도 보름 까지는 내. 하지까지도 내서 하지중모라고 하는데 모내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벼가 뻗어. 벼가 나이는 먹었고 가져다 꽃았으니까 심으니까 뻗어. 조생종 심지. 이른 벼. 육오라 그랬지. 전에는. 팔달 심고, 진흥은 나중에. 물은 보가 이 개울에서 저 아래 논까지 다 내려가니까. 이 보가 4키로 넘게 내려가요. 이 봇도랑은 5키로는 돼. 보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봇관감’이라고 있었어. 그건 인제 정해줘서 가을에 인제 수고비를 주지. 벼로 주다가 나중에 돈으로 줬어. 벼 한말씩 줬을 걸. 마지기 따라서. 또 봇관감이 친한 집에 물을 더 대주고 하면 그걸 들키면 또 싸움이 나고. 그런 거 많았었어. (이길순)

모를 내는 날은 동네잔치로 여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각 마을마다 식사를 내는 횟수가 달랐는데, 신촌의 경우에는 조반을 포함해서 4끼를 대접했고, 조옥동에서는 제누리 점심 저녁까지 3끼를 냈다. 이길순은 밥, 두부, 더덕을 자주 올렸고 모를 내는 날 만큼은 꼭 이밥(쌀밥)을 대접했다. 마을 위쪽으로는 모두 산이고, 논은 마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해서 논까지 이고 내려가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밥은 제누리,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하지. 모 낼 때는 네 번 하는 데도 있어. 조반까

지. 우린 조반은 안 먹었어. 제누리 점심이고 다 밥이지. 예전에는 못 사먹던 고기도 좀 사고, 더덕해서 볶고, 밥을 해서 이고 나가면 논까지 4키로는 돼요. 그래서 이고 나가 는 걸 사람 얻어가지고 내가고 또 얼른 와가지고 또 내가고. 아이고, 그릇이나 또 적어 요. 그전에는 사기그릇도 이고 다녔어. 나중에 플라스틱 생겨서...(이길순)

논김은 두벌까지만 매고 세벌까지 매는 경우는 없다. 초벌은 호미로 긁어서 매는데 모를 내고 약 15~20일이면 초벌매기가 시작된다. 절기로는 6월이 다. 두벌은 풀이 나오는 대로 매는데, 이때는 손으로 훑치는 방식이고, 7월 말이면 끝난다.

그러나 논에서 나는 수확이 많지는 않았고, 농사의 대부분은 밭농사였다. 산판꾼들이 벌목하고 나간 자리에 화전을 일구어 잡곡을 많이 심었으며, 주식 역시 잡곡이었다.

음력 5월 그믐에는 보리를 수확해 타작하며, 이것이 끝나면 밀을 타작한다. 타작은 마을 남자들이 품앗이로 했다. 절구통을 놓혀 태질을 한 뒤에 미처 떨어지지 않은 것은 도리깨질을 해서 한번 더 털어낸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보리쌀, 옥수수밥, 조밥, 밀가루 범벅이 주식이었다. 보리에 감자를 섞어서 밥을 지었다. 옥수수밥은 맷돌에 타서 밥을 지었으며,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옥수수를 맷돌에 타는 것이 여자들의 일이었다.

밭작물로는 옥수수, 두태, 좁쌀, 콩을 심었으며 두태가 값이 좋아 가장 많이 심었다. 마을에 모곡장사(곡식장사꾼)가 들어와서 팔, 좁쌀, 콩, 옥수수를 입쌀로 바꿨다. 모곡장사꾼은 이렇게 모은 잡곡을 서울로 실어갔다. 값은 팔이 가장 좋았으며, 대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콩은 2~3말을 더 주어야 했고, 옥수수는 반값이었다.

논이라고 해야 왕골다랭이라고. 그게 이렇게 편평한데 비 고이고 물 안 빠지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논으로 조금 심었지. 논배미래야 커봐야 요만했어. 마을 사람들은 화전 일구어가지고 두태 심어가지고. (김성태)

밭작물 중에 두태, 콩, 팔, 옥수수 그밖에 쌀 그렇지 뭐. 쌀은 뭐 구경도 못했어. 보리쌀. 보리밥. 옥수수 밥. 해먹고 맨날. 조밥. 밀 해서 밀가루 범벅. 보리쌀은 여름에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보리가 영글기 전에 가서 비어. 그래서 그걸 볶아서 해먹어. 옥수수밥은 맷돌에 주루룩 타가지고, 지금은 껍질이나 까지 껍질도 안 까고 모가지에 그냥 막 찢러. 지금 막 색깔은 저거지만 거의 사료 옥수수라 봐야 돼. 지금처럼 찢지지가 않아. 밥을 하며 이렇게 후루루. 보리쌀하고 섞어서 옥수수만은 안 뭉쳐져.

두태가 모곡장사가 들어와서 모아갔지. 입쌀하고 좁쌀하고 바꿨어. 그런데 그 좁쌀을 어서 물쳐가지고 불은걸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갖다놔더니 죄 썩었어. 지금 같으면 반쯤이나 하지. 아유. 모곡장사 마을에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너집 정도 있었어. 뭐 서로 사가려고 하지 뭐. 그래서 서울 가서 파는 거야. 팔이 좀 비쌌고. 팔은 쌀이랑 대립을 해가지고 바꿨어. 콩은 두말인가 서말인가 더 줬어. 두태 값이 그때는 좋았어. 옥수수논 반값이고. 쌀이 많지 않지. 논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논해서 먹고. 우리는 그때 우리 논이 없었거든. 그래서 두태 콩팔을 해서 물물교환을 해서 바꿔서 먹고. (이길순)

김매기까지 마치면 칠월칠석에는 밀떡을 한다. 애호박을 썰어서 올리는데, 논에 ‘기름 냄새 맡으라고’ 갖다놓고 기원을 한다. 이길순의 부친은 화전발과 조발에도 갖다놓고 농사가 잘 되길 빌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논이 마을에서 멀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밀떡 하지. 칠석에는 그냥 호박 애기호박 썰어 넣고 부치기 해서. 논이 머니까 애들한테 논에다 갖다놓고 뜯어먹고 오라고 하면 아유 안가겠데. 거길 걸어갔다 올라니. 밀떡해서 ‘칠석할머니 그저 벼 잘 여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콩도 잘 여물게 해주십시오. 칠석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위쪽으로는 다 산이니까 논은 다 밑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멀지. 우리 친정아버지는 화전할 때 조발에다가도 가져다 놓으시더라고. 밀가루를 풀어서 소당(솔뚜껑)하고 지고가. 그리고 가서 돌에다 소당을 걸고 부쳐서 거다 놓고 가지고 오셔. (이길순)

음력 8월 15일 추석에는 먼저 익은 올벼를 베어다가 ‘바심’을 한다. 마을마다 호수에 따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밭 방아가 있었는데, 윗말에 2개, 조옥동에 3~4개, 점말에 1개가 있었다. 이렇게 직접 찼은 햅쌀로 밥을 하고, 송편을 빚어 차례를 지냈다. 흰 송편 한 가지를 준비하고, 송편 소로는 밤, 콩, 거피한 팥을 넣었다. 음력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옥수수 따고, 팥 뽑고, 콩 뽑고, 조 비고. 팥이 제일 먼저야. 팥 다음에 보리’의 순으로 해 나간다.

10월 상달에는 고사떡을 해서 마굿간, 부엌, 대청에 놓고 집안의 신께 집안이 잘 되라고 빈다. 대청에는 시루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는 한 조각씩 잘라서 놓는다. 고사를 지내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또 어떤 집에는 바가지로 만든 터주항아리가 있어 안을 햅쌀로 새로 바꿔주었으나, 이길순의 집에는 터주가 없었다.

10월 상달이라고 고사떡들 해먹지. 고사떡들을 해서 예전에는 마굿간에까지 갖다 놓드라. 대문턱에 장독간에 또 마루에 부엌에. 먼저 놓는 건 저기 마루에 대청에 먼저 시루 채 갖다 놓고. 버리는데 그걸 어린애들 주는 사람 있드라고, 나 어렸을 때. 집에만 안 들이면 된다고. 근데 어릴 적에 그걸 누가 주는데 싫드라고. 그럼 저 집에 고사지냈데. 그럼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지냈으니까. 가지고 땡기면서 갖다 줘. 터주항아리는 없었어. 여기는 요만한 바가지로 하드라고. 근데 우린 없었어. 지석(제석)이라고 하데. 농사 먼저 지으면 거기다 넣어놓고. (이길순)

10월부터 12월까지 남자들의 주요한 일은 나무를 하는 것이다. 당시 화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 나무를 해서 나뭇간에 쌓아놓고, 남은 겨울을 놀면서 편하게 지냈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다. 마을에서는 가마니는 ‘왜정 때 공출가마니’만 짚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짚으로는 새끼만 꼬아 두었다가 나무를 묶거나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 무렵 여성들의 주요 작업은 김장과 메주를 담는 일이다. 먼저 김장을 하고 마지막에 메주를 쑼었다. 이길순은 김치를 소금만으로 담갔다. 그나마 소금도 일제 때는 귀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해방되고 나서부터 소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김장김치의 양념으로는 마늘, 파, 고춧가루 정도만 넣었으며, 새우젓은 귀했기 때문에 넣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새우젓을 일제시대에는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팔았고,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출신 여자가 새우젓을 이고 다니며 팔았다.

김치는 소금으로만 하고 그때는 그냥 승덩승덩 찢어서 막 버무려서 한독씩 했지. 그때 무슨 거름이 있어? 그냥 이렇게 배추도 새파란 거를 뽑아다가. 소금이 해방되고는 안 비쌌어. 왜정 때만 소금 못 썼지. 김장, 우리는 젓갈 먹을 줄 몰랐어. 지금처럼 그렇게 젓갈 몰랐어요. 새우젓 파는 사람 다녔는데 그걸 김치에다 넣을 줄은 몰랐지. 넣은 줄 알았어도, 또 아까워서 못 넣고. 지고 땡겼지, 통에다가. 지금으로 한 40년 전, 50년 전? 경상도 사투리 쓰는 여자 만날 이고 땡겼지. 왜정 때는 통지게로 지고 땡겼어. (이길순)

메주는 식구 수에 따라 콩 3~5말 정도를 쑼었다. 아침 일찍 만나절 정도 방아를 찧는다. 메주틀이 있었는데 이를 ‘모말’이라 불렀다. 동지에는 팔죽

을 끓이는데, 수수나 찹쌀로 응심을 만들어 넣는다. 마루에 그릇째 떠 놓고, 대문에 뿌리면서 “액운 막아달라”고 빌었다.

그전에 나만 먹을 만큼 췌어. 그래도 그때는 장만 먹고 사니 많이 했지. 한 서너말. 너 댕말. (방아는) 우리 동네는 두 개 있었고, 조옥동에는 3개인가 있었어. 콩은 아침 일찍 해서 종일 삶아. 방아에 가서 쪼어오지. 그리고 메주들이 있었어. ‘모말’이라고 하는. 동지날 팔죽 쑤지. 응심이 해 넣고. 찹쌀 수수로 했었는데, 지금은 수수가 드물으니까. 수수로 했지 많이. 그릇에 팔죽도 이렇게 떠서 놓고. 대문에도 이렇게 뿌리더라고. ‘액운 다 막아달라’고 ‘좋은 거는 들어오고 나쁜 거는 다 물러가라’고. 난 뿌려보지는 않았어.

(4) 승안2리의 놀이

승안2리의 하길용, 김장춘, 이해춘이 구술한 놀이로는 자치기, 농악, 햇불싸움, 골패, 화투, 제기차기, 찜빔, 다마(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그네뛰기, 고누, 공기놀이, 땅 뺏어먹기, 씨름, 윷놀이, 지게장단노래 등이 있다. 이길순과 김성태가 구술한 놀이로는 윷놀이, 척사대회, 널뛰기, 그네뛰기, 운동회(수건돌리기, 줄다리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이다.

승안2리 놀이의 특징을 보면, 햇불싸움이 강해서 이웃 동네인 승안3리와 패싸움을 벌인 적도 있다. 한편 백중날에 가평 읍내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척사대회는 동네 유지급인 영좌와 계장 등이 주관해서 송아지를 상품으로 내걸고 열렸다

(가) 하길용, 김장춘, 이해춘이 구술한 놀이

골패는 직접 하지 않았고, 윷대 어른들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가로 2-3cm, 세로 15cm 정도의 두꺼운 꺾대기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창호지를 붙이고,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구부러진 그림 모양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대개 놀이는 5-6명, 또는 7-8명이 놀았다. 40개 정도의 긴 목의 패를 잡아서 놀며, 놀이 방식이 화투의 ‘짓고땡’과 유사하다. 일제시대에 이 마을에는 화투가 없었다.

제기는 엽전에 창호지를 이용해 만들었다. 제기는 3가지 방식으로 찼는데, 외발차기, 양발차기가 있으며, 외발차기는 다시 발 땅에 대고 들어 차기, 발

들고 연속 차기가 있다. 이곳에는 닥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불을 때서 무를 때까지 삶아서 창호지로 만든다. 동네사람들이 같이 만들었다.

찜뽕놀이라는 공놀이를 일제시대에 한 적이 있다.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면서 고무가 들어와서, 이때 나눠준 공으로 찜뽕놀이를 했다. 1인당 1개씩 주먹만한 고무공을 나눠주었는데, 고무의 질은 썩 좋지 못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잘 터졌다. 찜뽕은 찜뽕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공을 치고, 달리는 놀이로 야구와 비슷하다. 자기가 공을 위로 던지고 자기가 직접 치는 방식이다. 3번에 걸쳐 치지 못하거나, 날아간 공을 상대가 받으면 아웃이 된다. 인원은 5-10명씩 했으며, 보통 ‘찜뽕하자’고 말을 한다.

다마(구슬)치기는 내 다마를 손으로 던지거나 굴려서 상대의 다마를 맞추는 방식이다. 주머니에 다마를 갖고 다니며 주로 어릴 때에 놀았다. 또한 상대가 다마를 한 움큼 쥐고 있으며, 내가 상대의 흘짜를 맞추면 다마를 따먹는 방식도 있다.

그림이 그려진 딱지는 돈을 주고 샀다. 일제시대에는 그림에 사무라이가 칼과 활을 든 그림이 있었으며, 이것을 오래 갖고 놀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딱지를 놓고 땅에 붙으면 쳐서 넘겨 먹는 방식이 있다. 종이로 접는 딱지로 넘겨먹기를 했다.

그네는 주로 단오 때에 탔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네를 탔으며, 동네 밤나무에 그네를 매달았다.(하길용) 동네의 나쁜 사람들이 칼침으로 반쯤 잘라 놓아 줄이 끊어진 적도 있다.(김장춘)

자치기도 많이 하고 놀았다. 이 놀이를 하다가 날아가는 자에 눈을 맞은 적도 있다. 쏜지는 90-80세 먹은 노인들이 예전에 한 적이 있다. 놀이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땅 뺏어먹기놀이는 땅바닥에 둥근 원을 그리고 한쪽에서부터 돌을 튕겨서 들어가면 한 뺏의 땅을 베어 먹는 방식이다. 공기놀이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는데, 어릴 적에는 남녀 아이들이 같이 공기놀이를 했다.

척사대회는 동네에서, 씨름대회는 읍내에서 열렸다. 정월대보름에 동네에서 송아지를 걸고 척사대회를 한 적이 있다. 동네 유지급인 계장들이 척사대회를 주관한다. 백중 때에 가평 읍내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나) 이길순, 김성태가 구술한 놀이

정월에는 마을 단위로는 척사대회를 연다. 이길순은 예전에 남편이 척사대회에 참가해서 1등으로 광목 한 통을 탄 적이 있다. 이때 얼마씩 참가비를 내며, 주최측이 장사 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정초에 마을에서 윷을 놀 때는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놀았으며, 여자들은 방안에서 ‘새끼윷놀이’를 했다. 새끼윷놀이는 손에 윷가락 4개 중 몇 개를 감추고 상대로 하여금 손에 쥐고 있는 윷가락의 숫자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정월의 대표적인 여성들의 놀이는 널뛰기이다. 널은 산판에서 쓰는 삼각형의 톱인 ‘놋구’를 잘라서 만들었다. 여자아이들은 치마저고리 입고 땡기를 늘어뜨리며 뛰었으며, 보름이 지나면 어른들이 뛰지 못하게 했다.

척사대회 마을에서 리 단위로 할 때는 가서 우리 영감이 광목 한 통 타 왔다는 거 아니야. 제일 일등상이 광목 한 통이야. 대개 인제 장삿속이야. 한번 할 때 얼마씩 내야 돼.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상품 주고 하는 거야. 윷놀이를 남자들은 나가서 했는데 여자들은 방에서 둘러앉아서 요만하게 포대기 하나 깔고 윷 요만하게 깎아 가지고 새끼윷이라고 돌아가면서, 이기고 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 몇 개 두 개. 이렇게 윷가락이 4개니까 그걸 손에 감추고 손에 몇 개 쥐고 있는지 맞추는 거야. 잘 맞추면 지는 거고 못 맞추게 하면 이기는 거구.

정월에 밥만 먹으면 널뛰러 갔지.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 놋구라는 거 알아? 산판 키는 톱을 가져다가 이렇게 넓은 삼각형으로 생긴 톱을 그걸 놋구라고 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할아버지들이 켜가지고 그걸 톱이라 안 하고 놋구라고 해. 그다음에 널판을 그렇게 만들어졌어. 빨간 치마 노란저고리 입고 밥만 먹으면 널들 뛰었지. 땡기들 이렇게 늘어 뜨려가지고 널을 뛰면 이렇게 모가지에 착착 감기고, 보름까지만 뛰어. 보름 지나면 어른들이 못 뛰게 했다고. (이길순)

단오에는 큰 밤나무에 그네를 매고 뛰었다. 3명이 짚을 짜서 만든 굵은 동아줄로 그네를 땀다. 대개 단오 3~4일 전에 매고, 단오 일주일 뒤에 줄이 낡으면 낮으로 끊어 태운다.

10월에는 승안분교에서 운동회를 한다. 승안분교는 4학년까지 있었지만, 한 집에 학생이 3~4명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운동회에서는 수건돌리기, 줄다리기 등을 했다. 이길순은 어릴 적에는 일본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놀이를 했다.

승안분교. 4학년까지. 학생 많을 때 한 40명 됐어. 우리 애들도 서이 여길 다녔어. 한집에 서이, 너이는 보통 땡겼어. 한집에 많이들 낳아가지고, 운동회 있었어. 대개 10월 달에. 마을잔치로 엄마 아버지들이 가서 손뼉치고 같이 수건돌리기도 해주고, 학교 다닐 때는 고무줄 많이 했어. “뽀아 뽀아 일본 놈의 대가리 나쁜 대가리.” ‘센세이 센세이 칠판을 두들기며 울고 있어요.” 왜정 때 학교 다닐 때 일본 놈이 미워서 그렇게 한 거야. 둘이 이렇게 고무줄 끼고 양쪽에 서서 혼자 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마을에 같이 살지는 않고 들어와서 죄 숲이랑 뺏어가고, 유기그릇 뺏어가고, 우리 애기들도 “저기 일본놈 온다” 그러면 울다가 딱 그쳤어. (이길순)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고양시

2.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高陽市)는 3개 구(덕양구(德陽區), 일산서구(一山西區), 일산동구(一山東區)) 39개 동¹³⁾ 975통 6,06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남동으로 서울과 접하고 있으며, 북동으로 양주시, 북서로 파주시, 남서로는 한강을 끼고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 끝은 덕양구 효자동, 서쪽 끝은 일산서구 구산동, 남쪽 끝은 덕양구 덕은동, 북쪽 끝은 덕양구 벽제동이다.¹⁴⁾ 이번 조사는 덕양구 강매리 강매동 매화정, 일산서구 송산15통 구산동 거구피마을의 2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가.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1) 강매1리 마을개관

덕양구는 고양시의 3개 구 가운데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시의 동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165,539㎢로 고양시 전체의 61.9%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67.9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47.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19개 행정동 32개 법정동 454통 2,759반을 관할한다.¹⁵⁾ 강매동(江梅洞)은 덕양구의 19개 행정동 중 하나인 행신2동의 2개 법정동(행신동, 강매동) 가운데 하나이다. 강매동은 행신동의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의 앞으로는 경부고속전철의 차량기지가 건설되었으며 뒤편에는 봉대산과 창릉천이 있다. 크게 매화정, 은행정, 강고산 마을이 있다. 대부분이 논·밭농사를 지으며 아파트는 전혀 없고 단독주택만이 있는 곳이다. 강고산 마을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있다. 강매라는 이름은 이곳에 있는 마을 강고산 마을의 ‘강’자와 매화정 마을의

13) 덕양구에 19개동, 일산서구에 9개동, 일산동구에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고양시청 <http://www.goyang.go.kr/>)

14) 고양시청 (www.goyang.go.kr 접속일 2018.10.21)

15) 덕양구청 (www.goyang.go.kr 접속일 2018.10.21)

‘매’자를 따 붙인 이름이다. 매화정에는 매화나무가 많이 심겨진 매화정 정자에서 그리고 강고산은 강의 입구에 있는 오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¹⁶⁾



〈그림 1〉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의 매화정과 강매2리의 강고산

현지조사에 의하면,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매화정마을은 보성 선씨가 16대에 걸쳐 사는 집성촌이다. 이곳은 강매역과 고속전철 기지창에서 한강 쪽으로 위치한 곳으로, 미개발되어 마치 도시 속 섬과 같은 곳이다. 윗마을인 매화정과 아랫마을인 강고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마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강매리라는 동네 명칭이 만들어졌다. 일제 강점기에 수리조합이 생기고, 수로 정비가 잘 되어, 드넓은 벌판에서 대규모 논농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또한 해방 직후에 수색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왔다. 대규모 논농사로 인해 두레가 활성화된 곳이며, 특히 모내기에는 전라도

16) 『고양시사』 제3권 마을과 민속,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83~85쪽.

강진 여자들이 집단적인 품앗이를 했다. 한편 아랫마을인 강고산에는 한 강 셋강 하구에 돌다리가 있는데, 2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돌다리는 파주, 일산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사용되었다. 주민들은 과거 일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서울 부자가 놓아준 다리로 알고 있다.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개천을 건너가려면 항상 옷이 젖었다고 한다. 강변에 조참봉(개인 벼슬 하사) 주막이 있었는데 웅어회로 유명했다. 강고산에서는 예전에 씨름대회도 열렸다.

우리 동네 여기가 웃말. 매화정. 아래가 강고산. 아랫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동네가 이장을. 동네가 크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동네가 뭐든지 우선적으로 했었는데 강매는 강자를 먼저 붙였던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서는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부르기 좋게. 매강리는 이상하잖아. (선영수)

옛날 할아버지들 말로는 독 막기 전에 동네 안으로 물이 흘렀데요. 동산 있잖우? 거기가 밑에가 다 모래바닥인데 저 아랫동네 신평리 사람들이 서울을 땡길라면 그리 걸어다녔데. 그래서 강고산 동네는 쪼꼬망더라도 텃새를 많이 했는데 길을 다니니까. 그래서 강고산 사람들이 주최를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씨름들을 거기서 한데. 그래서 우리 부락 사람들도 서울을 갈려면 거기가 서울 가는 길이었었어. 그 돌다리 쪼그만 게 있는데, 그걸 못 건너면 서울을 못 갔어. 지금은 길이 많지만 그때는 이쪽 파주 쪽에서 서울 갈려면 오직 그 길밖에 없었어. 우리 동네보다 강고산이 더 유명해. 외부에서는. 모래내라는 데 가좌 그쪽을 통해서 신촌으로 나가지. 여기서 거기가 한 30리 될거야. 신촌까지 30리. (이윤식)

과거 개천에는 ‘웅어’가 많았다. 갈대 ‘위’에 물고기 ‘어’를 써서 본래 ‘위어’이나 주민들은 웅어라고 부른다. 붕어보다 길고 살치처럼 생긴 생선으로 부여 금강, 행주에서 많이 잡힌다. 남자 손바닥 크기 정도로 길이는 15~20cm가량이다. 봄부터 7월 장마까지 계속 잡을 수 있다. 기름이 많아 국을 끓이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회를 쳐서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는다. 이것은 배로 ‘축호’라는 그물을 쳐서 잡았다. 2~3시간 정도 그물을 치고, 그물에 걸린 웅어를 털어서 잡았다.

주민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강고산 돌다리 아래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고관에게 주막 주인이 위어(웅어)회와 술을 대접했는데 위어의 맛을 본 고관이 주막 주인에게 참봉이라는 벼슬을 내려 마을에서는 그 웅어집을 ‘조참봉 댁’이라 불렀다고 한

다.

주막집. 그 집 그대로예요. 웅어에 조참봉이라고 있는데, ‘위어’라고 하는데 갈대 ‘위’자 ‘위어’. 그거를 여기서는 ‘우어’라고 해요. 그게 이렇게 붕어보다는 길쭉하고 살치같이 생겼어. 사람이 반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게 봄 한철만 났다가 칠월 장마가 오고하면 다 바다로 내려가는데. 술집이 거기 있었는데 서울에서 고관들이 내려와서 거기 술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술을 먹었는데 거기 우어가 있으니까 우어랑 해서 술을 먹는데 하도 맛있으니까 그 술집보고 너 참봉 벼슬이나 해라. 그래서 참봉 벼슬을 준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참봉댁 참봉댁 한 거지. 좁아 이렇게 한 20센치 되지. 지금도 잡히는데 허가가 있어야 잡는데 그게 이북이 가까운지라. 허가를 안내줘서 못 잡지. (선영수)

웅어 외에도 행주산성 쪽에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까치복, 황복이 많이 잡혔다. 근처의 마을 여성들이 손질된 복을 다라¹⁷⁾에 싣고 강매마을로 들어와 판매했다.

강고산마을의 돌다리는 한강과 샛강 입구에 위치하며 250년 정도 되었는데, 6.25 때에 폭격으로 파손되었다. 그래서 마을 남성들은 1958년 무렵에 다리 복원을 위한 부역을 다녔던 기억이 있다. 모래를 나르거나 시멘트를 보강하고 지게질과 삽질 정도의 잔일을 주민이 했다.

(2) 강매1리 토박이의 삶

선영수(남, 1939년)와 선호육(남, 1936년생)은 강매1리의 보성 선씨 집안의 16대손으로, 강매리 윗마을인 매화정에 거주하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1950년대 중반에 10대 후반의 나이로 두레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마을에 대규모 보성 선씨 사당이 있으며, 봄가을로 춘추제를 지내는데 마을 선씨들이 주도한다. 선호육의 집에 가서 과거 결혼과정과 결혼식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 한편 이윤식(남, 1940년생)은 전주 이씨로 강매리에 4대째 거주자하고 있으며, 과거 이장을 하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강매도당굿을 주관했다.

17) 둥글거나 네모진 큰 통을 말함.

마을의 대성은 선씨이다. 보성 선씨 집성촌으로 16대조 ‘선형’이 입향조이다. ‘선거이’ 장군은 권율 장군의 부사관으로 인근 행주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권율은 장군이 아닌 행주목사이므로, 선씨들은 선거이 장군의 공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한다. 마을에는 오충사라는 선씨 5대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선씨들은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4월과 10월에 춘추제를 지낸다. 날짜는 종중회장이 정하는데, 보성, 강릉, 부산 등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종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요일로 정한다. 춘추제에는 종중회장과 고양군수, 경찰서장 등이 제관역을 맡는다. 초기에는 행주서원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주관하고 있다. 본래 마을로 제사가 옮겨오기 전에는 강릉에서 매년 2월 22일에 한번 지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매화정 ‘큰집’으로 옮겨왔다. 선씨는 보성 선씨 한 개 성으로 모두 친척이며, 강릉 선씨도 이곳에서 갈라져 갔기 때문에 매화정을 큰집이라 여긴다.

전주 이씨는 선씨보다 늦게 마을로 들어왔다. 전주이씨 덕천군, 임원군이 먼저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었다. 마을 구성은 예전에 90호 가운데 80%가 선씨, 20%가 이씨였으며, 현재 선씨는 40가구, 이씨는 6가구 가량 거주한다. 최근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



〈그림 2〉 강매1리 선호옥 제보자(자택)



〈그림 3〉 선호옥 혼례(1957년)



〈그림 4〉 선호육의 혼례의 신랑(1957년 수지면 임의리 신부집)



〈그림 5〉 선호육의 혼례 때의 신부(1957년 수지면 임의리 신부집)



〈그림 6〉 선호옥 혼례 때의 평복 부부(1957년)



〈그림 7〉 선호육의 군대시절



〈그림 8〉 강매1리 마을 뒷산의 보성 선씨 선영



〈그림 9〉 강매1리 보성 선씨 사당인 오충사(불천위 제사)

선영수(남, 1939년생)는 6.25 때에 12살이었으며, 경기도 안산으로 한달 정도 피난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에 돌아오니 30가구가 폭격에 불타서 헛간이나 빈집에서 지내며 고생을 했다. 당시 김치국에 쌀 조금 넣고 끓인 김치죽을 하도 먹어서 그후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옛날에 내가 살던 얘기 하면 6.25때 피난을 갔다 왔는데. 내가 열두 살에 6.25를 만났으니까. 피난은 경기도 안산이라고 갔어. 갔다 왔는데 이 동네에 그 많던 집이 한 30채가 폭격에 탔어요. 살려는 집이 없으니까 빈집이나 헛간을 빌려 살다가. 집을 짓는다고 쌀 3가마 밖에 없었어. 식구는 7~8식구인데 그때 그래서 밥을 해 먹을라는데 먹을 거는 김치죽 밖에 없어요. 김장하면 김치 있죠. 김치를 그걸 넣고 쌀을 조금 넣고 끓이면 쌀이 퍼져서 죽이 돼가지고 반찬도 없이 그걸 퍼먹으면, 그게 김치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김치죽이야. 그때 동지달 피난이라고 그게 1.4후퇴야. 6.25때는 안 나가고 그때 나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서 정월이 됐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야. 양식을 소 마차에 싣고 가서 다 떨어졌으니까. (선영수)

선호육(남, 1936년생)은 1945년 해방 전에 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나서 학교를 중단했다가 수복 후에 행주국민학교에 재입학했다.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행주국민학교 동창이며, 윗대 선배들은 능곡의 지도국민학교에 다녔다. 지도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기차길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행주국민학교와 지도국민학교로 나뉘었다. 선호육은 온 가족이 외음의 병에 전염되면서 동년배보다 학교에 늦게 입학해 졸업이 늦어졌다. 당시에는 결혼하고 다니는 학생도 있을 정도였다. 동년배는 모두 행주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다. 이후 서울 종로의 대동상고에 진학해 졸업했다.

마을에서 90호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일제 때 행주양수장이 있고 수리조합이 생겨 농사에 혜택을 보았다. 그리고 강매리는 변전소가 수색에 있어 해방 직후에 전기가 들어왔다. 인근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마을 중의 하나이다.

수로는 행주양수장 지금도 있어요. 저 일산, 파주까지 내려가거든요. 저 일산 신도시까지 쭉. 왜정 때부터 여기 수리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로서는 가장 빨리 전기 불을 켜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야. 행주 전선 그 가까운 밑에서 저기 그 한전 전선 그 뭐라 그래 변전소. 수색에 변전소가 바로 여기로 지나가니까 해방되고 바로 직후에 들어왔을

걸 아마. 상당히 빨리 들어왔어요. (선영수)

이 마을의 논은 38만평 정도였으나, 1991년부터 아파트가 생기고, 고속전철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절반에 가까운 18만평이 수용되었다. 당시 보상을 평당 20만원씩 받았는데, 이곳 농지가 본래 그린벨트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보상액이 적은 편이었다.

기지창이 건설되고 농토가 줄어들면서 농사가 줄었고 논밭 농사의 비중도 달라졌다. 밭농사는 이전에는 집의 텃밭을 가꾸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밭농사가 주가 되었다. 벼는 1년에 한번 지어 소득이 얼마 되지 않지만, 밭농사는 본인이 하우스를 지어 한 해에 여러 차례 작물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고속전철 기지창으로 땅이 반 이상이 들어가고, 농사지를 것도 좋지 않고 하니까 외부로 나가야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경부고속도로 KTX 강매지구예다가 농지에 기지창을 얹혀서 땅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같으면 땅이 보상을 많이 받지만 그때는 보상 20만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택지로 잡히면 지금 200만원은 가는데. 여기다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근데 그린벨트도 농지를 그린벨트로 묶어 놔가지고.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팽창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랬겠죠 뭐.

다 본업이 농사였죠. 논이 제일 많았을 때 38만평이 기지창 들어간 게, 이 동네 들어간 것만 한 18만평. 반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남은걸 지금 밭농사 하는 거고. 기지창 들어온 게 90년도 91년도에 아파트 생기고 나서 여기니까. 92, 3년도 돼서 들어갔을 거야. 90년대까지는 계속 논농사를 지었죠. 근데 기지창으로 들어가면서 농사가 줄고. 그전에는 다 담피작이었어요. 논 쌀 생산하는. 이제 서울이 가까우니까 소득이 쌀보다 야채로 들어가는 게 높으니까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야채농사로 바꿨죠. 소득이 높으니까. 일년에 부지런한 사람은 일곱 번을 농사를 지으니까. 벼는 가을에 한번 수확하지만.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소득이 높으니까. 예전에는 밭농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 집 틈새 사이에 있는 그거 텃밭이지. (선영수)

(3) 강매1리의 세시풍속

강매1리의 세시풍속은 정초 널뛰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햇불로 달 기원, 기싸움, 오곡밥 흙쳐 먹기, 널뛰기, 한식 산소 손질, 봄철 웅어잡이, 4월 보성선씨 시제, 단오 그네뛰기, 5월 모내기 후 손 씻는 날, 6월 논매기 두레 활

성화, 7월 초 논매기 끝나고 호미걸이, 광복절 지도면 마을대항 체육대회(씨름, 축구), 여름 참외서리, 10월 도당굿, 보성 선씨 시제. 가을 제기차기 시합, 겨울 팽이치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세시음식으로 산나물, 명아주나물, 취나물, 더덕순, 옻, 두부, 갈래떡, 두릅, 황새냉이, 고비, 달래 등을 조사했다.

특징적인 세시풍속을 보면, 강매1리의 도당굿은 10월 상달에 날을 받아 도당터의 큰 향나무 앞에서 무당굿으로 진행되었다. 향돌리 단골무당이 와서 초저녁부터 이튿날까지 2일간 굿을 했는데, 1990년 초에 소멸되었다. 이후 도당터의 향나무는 25-30년 전에 외지인이 몰래 와서 베어 갔다. 인근에 있던 내곡리도당굿(능곡 인근), 아래동네의 강고산도당굿은 더 일찍 소멸되었다. 선영수, 선호육, 이윤식 등이 구술한 강매1리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월에는 옻, 두부, 산자, 갈납¹⁸⁾ 등을 직접 만들었다. 산자는 강냉이를 튀겨 조청에 버무려서 만들었다. 설날에는 세배를 다닌다. 몇 해 전까지 다녔으나 세뱃돈이 부담이 되면서 서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떡, 옻 등을 해서 세배 온 손님들을 대접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해서 먹는다. 일부 지역에서 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 몰래 밥을 훔쳐다 먹는 풍습이 있는 것과 달리 매화정에서는 가까운 친척끼리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이날 마을에서는 윷놀이를 한다. 또 14일 해뜨기 전에 친구끼리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면서 더위팔기를 한다. 부럼도 쫓았는데, 잣, 호두, 밤을 사용했다. 이곳에는 밤나무가 많은 편이며, 부럼을 깨면 1년 내 부스럼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귀밝이술로 아이들에게 술 한잔씩 먹였다. 술은 명절 때 집집마다 담갔다.

정월 대보름에는 농악을 치기도 했는데, 동네의 잘 사는 집 마당에서 농악을 치고 놀면 술상을 봐주기도 한다.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한다. 화를 만들어 나이 수대로 짚으로 묶고, 산이나 벌판에서 달이 떠오를 때 모닥불에 불일 붙이고 달을 향해 소원을 빈다. 이것을 ‘달님 대려’라고 한다. 어린 아

18) 돼지고기를 넣어서 부친 둥근 전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부모들이 해를 만들어주고 직접 산에 데리고 가서 가르쳐준다. 당시 마을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풍수, 농사점을 보기도 했다. 마을 동북쪽의 삼각산 방향에 달이 뜨면, 위치에 따라서 올해 물이 많거나, 적은 것을 점을 친다.

열나흘날 그거 조반 전에 아침 일찍에 가서 친구네 가서 이렇게 불르잖아요. 그럼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하는 거지. 부럼도 깨고, 잣, 호두, 밤 그런 거지. 밤나무 있어요. 부시럼 깨버리라고. 옛날엔 부시럼이 많으니까. 그거 깨버리면 부시럼 없이 일 년 깨끗하게 잘 지낸다고. 그리고 저 귀밝은술이라고 해서 아침에 조반 일찍 허고 한 잔씩 먹죠. (선호육)

달님대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짚을 이렇게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걸 짚으로 묶어요. 자기 나이만큼. 열 살이면 열 개를 묶으구 열다섯 살이면 열다섯 개를 묶으고. 이제 저 산에 올라가요. 아니면 벌판에든지. 그래서 자기 눈에 달이 보일 때 그때 불을 여기 이렇게 한 군데 모닥불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불 대가지고 ‘달님 대려’ ‘달님 대려’ 하면서 절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보름 행사는 그거예요. 어른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고.

달뜨는 동산이라고 있어요. 동쪽으로 거기 올라가서 어딜 쳐다보나면 삼각산 거기로 달 뜨는 걸 이렇게 보고는 풍수. 올해는 물이 많다 적다. 농사꾼은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올해는 물이 적겠다” “아, 올해는 물이 넉넉하겠다”를 그걸 판단을 해요. 해마다 그걸 올라가서 체크를 하니까. (선영수)

3~4월에는 무릇을 고아서 먹는데, 여기에 수수깡 속을 까서 넣기도 했다. 무릇은 여자들이 산에서 많이 캐왔다. 한편 소나무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가져다 가루를 만들어, 송기떡, 달개를 만들어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

음력 4월에는 산에서 나물을 뜯어서 서울의 신촌장에 가서 팔았다. 마을 주변 산에서는 명아주, 삼나물, 취, 더덕순, 고비, 황새냉이썩 등을 많이 채취했다. 새벽에 화정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신촌장에 갔다. 또 깨를 심어서 깻잎을 내다 팔기도 했다.

무릇도 썰어서 먹고. 무릇은 3~4월에 캐서 꼬트머리가 뚱그란데 그걸 말려가지고 고아먹는 거지. 그거 할 때 썩도 해다가 넣고 수수깡 속을 까서 넣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단물이 들어 가가지고 어린애들은 그거 좋아했었어요. 무릇은 주로 여자들이 캐오는데 남자들도 캐오기도 하고 그 당시엔 여자들이 많이 했지. 그 전에는 산에 맨 저기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어. 그게 땔나무를 하고 산이 뿔그스름해야 나오는 건가봐. 지금은

죄 없어졌어. 그게. (이윤식)

송기라고 소나무 껍질 까가지고 그것도 있잖아. 그걸 나무 속껍데기를 씹어 먹어도 들척지근한 게 나오는 거 그 맛에 그거 씹어 먹었지. 그게 물렁물렁해서. 소나무 이렇게 순 자라는 거 꺾어서 겉껍질 까서 속껍질 나오면 그걸 무릇 고는데 넣어서 섞어서 그거 뜯어 먹고. 그리고 그 당시는 배고픈 시절이라 소나무를 잘라다가 껍질 벗겨 가지고 그 물을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걸 송기 먹는다고 했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변비 생겨서 변을 못 봐요. 근데 소나무 그 병이 와서 다 없어졌어. (선영수)

산나물 많이 했죠. 여기도 했지만 먼대로 땡기면 삶아서 서울이 가까우니 서울에 해다 팔고 용돈을 많이 썼지 여기. 명아주. 주로 많이 하는 게 취. 취나물하고 더덕순도 있고 고비인가 하고. 그건 고급나물이고 벌에서 황새냉이 싹이 나오면 그걸 막 뜯어다가 삶아서 걸에다가 산나물을 이렇게 섞워서 그걸 갖다가 파는 거야. 산나물은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서울에 신촌에 갔다가 팔았지. 염천교 있는데. 그전에는 다 신촌으로 다녔어. 수색도 시골이었구. 여기랑 비슷했어요. 여긴 교통이 망해가지고 새벽에 화전으로 싣고 가는 거야. 버스 타러. (이윤식)

한식에는 조상산소를 돌본다. 겨울 동안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떼가 들뜬 자리에 흙을 덧붙여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것을 ‘땃밥준다’고 한다. 조상 산소에 과일, 오징어 등을 준비해 술 한 잔씩 올리며, 한식차례를 지낸다. 보통 아침 식사 후 10시 정도에 산소로 이동한다.

한식 때는 주로 조상 산소를 손을 보죠. 땃밥 준다고 해서. 떼가 죽은 게 있으면 또 사다가 다시 입히고 해서 그 땃밥 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얼음이 얼면 이게 잔디가 들뜨죠. 그걸 땃밥준다고 해서 흙을 부어주면 그게 이제 떼가 범벅이 돼서 다시 눌러주면 땅에 붙는다고 해서 땃밥준다고 하죠. 그냥 약주 한잔씩 부어놓고 안주는 간단하게 과일 아니면 오징어 한 마리씩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조반 식사하고 이렇게 9시 즈음 돼서 가서 손보는 거죠. 때 없어요 그건. (선호육)

음력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논에 물을 담아두고, 이어 소로 갈아엎는다. 당시 소를 하루 빌리면 3일치 품삯으로 갚았으며, 나중에는 2일치로 줄었다. 남자가 17-18살 정도 되면 ‘모쟁이’ 노릇을 하며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모쟁이는 모를 지게에 지고 운반해 와서, 모 심는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모내기 전에 물 넣지. 4월 15일이나 20일 경에는 논에 물 넘길 거야. 그리고 이제 소로 갈아야지. 근데 소도 다 있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사는 집에만 있지. 그럼 이제 없는 집은 사람이 가서 일해 주면 사람이 이를 가서 일해 주면 소 하루 쓰는 거야. 처음에는

삼일하다가. (선호육)

열일곱 열여덟. 그 밑에는 모쟁이라고 있어요. 모를 찌 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모를 막 심으면 모춤을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데 꺼를 가져다가 적은데 가져다 놔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또 모를 지계를 가지고 가서 저오고 하는 거를 모쟁이라고 그래요. 그 노릇을 그때부터 열일곱 여덟 살부터 했어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은 마흔 넷, 다섯 한 오십 세까지 했죠. (선영수)

6.25 직후에는 마장동까지 가서 소를 사왔다. 광화문을 지나 청계천 끝쪽 독으로 나가면 마장동 우시장과 도살장이 있었다. 우시장은 일찍 열기 때문에 새벽에 어둡침침할 때 출발하며, 소를 사거나 팔고 마을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이 20마지기 곧 4천 평 정도이다. 여기서는 1마지기를 200평 기준으로 한다. 보통 5~6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수답, 다랭이논은 수리조합 물을 대서 모를 냈으며, 수리조합에는 별도로 물세를 냈다. 마을의 논은 모두 수리안전답이어서 농업용수는 큰 문제가 없었다.

두레는 양력 4월 못자리 할 때 조직했다. 노동력이 있는 집은 모두 두레패에 들었으며, 30명 가량으로 이루어졌다. 마을 두레패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농기가 하나 있었으며, 농기 꼭대기에는 장끼(수팽)의 꼬랑지(꼬리)털을 달았다. 악기는 북, 장구, 호적, 팽과리, 태징이 있었다. 선영수는 1939년생으로 1950년대 17~18세 때 두레패에 처음 들어갔으며, 대개 45~50세까지 참여했다.

두레 있었죠. 일단 두레 들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두레패라고 있어요. 거기 든 사람은 대부분 노동력 있는 사람이 들어서. 그전에 어려서 생각하면 한 30명. 한 패가. 그리고 농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나 들고, 지금 말하는 사물놀이 북, 장구, 호적, 태징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서 나 20살 채 못 돼서 그걸 쫓아다녔는데. 조금 일하다가 말았어. 6.25 전까지 그걸 했거든요. 한 열 일곱 여덟. 우리 큰형님이 53년도에 군대에 가셨어요. 그래 집에서 그 위에 나보다 세 살 위인 형님이 둘째 형님이 나이가 그때가 돼서 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선영수)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창포를 삶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다.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를 감았다. 또 단오 날 오전에는 약쑥을 뜯어서, 말리

는데, 이것은 설사와 배탈에 사용한다. 약쭉보다는 익모초(육모초)가 더 효과가 좋았는데, 이것은 음력 6~7월에 뜯는다. 잎이 많이 있을 때에 약이 되고, 씨 꼬투리가 지기 시작하면 늦는다. 따라서 양력 10월 중순의 서리 맞기 전까지는 뜯을 수 있다. 이렇게 뜯은 익모초는 고아서 환을 먹들며, 소화제와 지사제로 썼다.

창포 많았죠. 많으니까 그게 남자들도 머리 감았죠. 그네도 땀쭉. 마을에 청년들이 남구를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5~60년 전일 거야. 해마다는 아니고 단오놀이도, 약쭉은 하는 가정은 하지. 그걸 뜯어서 말려뒀다가. 그걸 사약으로 많이 쓰죠. 설사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전에는 약이 없으니까. 쓴 거. 속병이 나면 쓴 거를 먹잖아요. 육모초도 약이 더 좋지. 익모초가 비어서 말려서 매달아 놔다가 서리오기 전에. 지금쯤 10월 중순. 익모초는 늦게 비면 씨가 앉어요. 그래서 그건 일찍 비어요. 이파리가 촘촘하게 많이 있을 때 그때 해야 그게 약이 되지. 씨 꼬투리가 돼서 지금은 들해. 소화되는 거 하고, 설사에 그게 좋아요. (선호육)

모는 양력 6월 25일 경에 낸다. ‘하지중모’라 하고, 하지 지나면 ‘마냥모’라 한다. 대개 하지 전에 심는다. 모심는 날은 모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일기에 따라 결정된다. 모내기는 15일 정도했으며 3~4가구 가 품앗이로 모를 냈다.

모는 한 서너 뭇집은 모를 내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집 가서 해주면 또 와서 내일을 해주니까. 두레로다가는 안 하고. 모는 많이 내는 사람이 날을 잡으면 조금 내는 사람은 그날 못 잡지.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들 하고 난 다음에 잡고 그렇게 되는 거지. 서로 눈치봐 가면서 하지. 모 내는 거는 기한은 없어요. 가물면 물이 있어야 하니까. 늦게 내면 벼 알이 들 때 그때도 모를 뽑아서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수확이 없지. 일기에 달려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하지. (선호육)
하지를 기준으로 하지 지나면 마냥모라고 하고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내지. 지금은 하지 안에 다 내.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천수답 같은데도 나중에는 수리조합에서 물 끌어다 빨리 내라고 또 독려를 해요. 그래서 물 때문에 그렇게 묵혀보거나 하지는 않았어. (선영수)

한번 모를 내는데 15명 정도가 품값받는 일꾼이었다. 품앗이는 품값을 돈으로 지불했으며, 논 주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지불한다. 품값은 일년 단위로 정하며, 당일 받기도 하고, 며칠 늦을 때도 있다. 모심는 날에 새벽 5~6시에 모내는 집으로 모인다. 아침, 점심을 밥으로 먹고, 중간에 참이 나

오는데 보통 1번 나오고 2번까지 나올 때도 있다.

매화정에서 모내기가 끝나면 품일꾼들은 다른 마을로 옮겼다. 모는 빨리 내야 수확이 좋아서 절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품을 사서 모를 내기도 했다. 논에 가면 기를 쪼고 악기를 한곳에 두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는 것에 맞추어 일을 했다. 농악은 1채, 2채, 3채 길거리 장단 등을 때에 따라 쳤으며, 모내는 소리가 따로 있었다.

모내기가 끝나면 ‘손 씻는 날’이라고 하여 하루 놀았다. 이때는 대개 보리가 익을 때쯤인 양력 5~6월 하지 무렵으로, 날을 잡아 강가에서 민물조개를 잡아 음식을 해먹으며 놀았다. 한강에 조개가 많았는데, 많이 잡을 경우에는 한 말까지도 잡았다. 이것을 삶아 먹거나 칼국수에 넣어 먹었다.

농기 그 대 끝예다가. 썰 꼬랑지 털 같은 거. 수썰 장끼. 그게 아주 털이 보기가 좋거든요. 그거 또 위에다가 딱 쪼고. 악기 무슨 뭐 일채, 이채, 삼채 치는 음악이 길거리는 걸어가면서 치는 길거리 장단이란 게 있고. 음악 거기에 맞춰서 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치고 종료할 때는 어떻게 치고 종류가 많이 있죠. 논에 가면 깃발을 쪼아놓고 악기를 한 대 모아 놓고 그리고 일 하죠. 소리는 선소리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선소리를 주면 이제 따라서 하고 그랬는데. (선영수)

그리고 한강에 민물조개. 그게 한번 비 오고 나면 모래가 이쪽으로 쌓이면 강에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한말썩을 잡았어요. 바지락 같이 생긴 거, 민물조개. 그럼 그걸 물 끓여가지고 삶으면 물이 뽀얀 물이 나와요 구수하게 그게 인제 칼국수를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5월 6월쯤에 모 다 내놓고 나서 그 때가 알이 통통해요. (이윤식)

김매기는 모내는 순서에 따라 하며 모를 심은 지, 20일 정도 뒤에 시작한다. 김매기는 두레로 하며 이 때에 김매는 소리를 했다. 7월 15일 경에 김매기를 하는데, 애벌은 호미로 흙을 파고, 두벌은 손으로 흙치며 땅속에 파묻는다. 못자리는 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못자리 바닥을 세 번까지 때는 경우도 있다.

새참은 인제 점심 때, 아침 김매고 할 때, 아침새참 있었는데 모낼 때도 있었어. 아침새참. 점심새참 다 있었어. 식사는 그 주인집에서 다 하고. 그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입에다 물고서 바로 또 들어가서 일하는 거야. 집결 장소는 어느 집 논이고. 지금 학생들 나가는 거보다 조금 일찍 나가지. 그날 그 집으로 다 가는 거야. (선호옥)

논매기 두레 때 동네 간에 기싸움이 있었다. 깃대를 쓰러뜨리면 이기는데, 이때 진 편의 깃봉을 뽑아간다. 강매리의 기싸움은 주로 성동, 잣골(잣골), 행주 내1동과 했다.

여기도 기싸움이라고 있었어요. 동네와 동네 사이에 기싸움이라고. 기싸움은 크고 작은 동네가 있잖아요. 여긴 잣골 잣골. 저기 행주. 행주산성 있는데 행주 내1동. 우리가 상대거리로 한 동네는 거기 었어요. 동네가 좀 크니까. 그 깃대를 가서 기로 쓰러뜨리며 이기는 거. 힘자랑 하는 거지. 장사가 기수하지. 기끼리 부닥쳐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깃봉을 뽑아 가지. 그건 무슨 때에 하는 게 아니고 논에 갈라면 서로 왔다갔다하면 마주치잖아요. 이쪽 사람이 저기 가서도 농사 짓고 저기 사람이 여기 와서도 농사 짓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면 “니가 비켜라” 하며. 논매기 할 때. (선영수)

7월 대보름에 호미씻이가 있다. 김매기는 대개 초복 즈음에 두벌, 말복에 세벌이 끝난다. 김매기가 모두 끝나면 ‘호미걸이’라고 하루 날을 잡아 놀았다. 나무 그늘 밑에 술을 걸고 개를 잡아서 된장을 풀어 끓인 후에 술을 마신다.

여름에는 천렵을 하는데, 주로 산너머 창릉천에서 고기를 잡았다. 살치, 날치, 창교 등이 잡히는데, 창교는 7~8cm로 남자 손바닥만 했다. 이것은 가을까지 잡을 수 있으나, 대개 여름에 농사 끝나고 한가할 때에 많이 잡았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로 잡았으며 송사리, 미꾸라지는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아이들은 여름에는 참외서리도 했다. 주인이 원두막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만약 붙잡혀도 꾸지람만 듣고 말았다. 대개 저녁 먹고 밤 10~11시쯤에 서리를 했다. 참외밭은 아랫마을인 강고산 아래쪽에 있었다. 이윤식은 4~5살 연상인 17~18세 형들과 함께 서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저녁 먹고 나왔더니 참외서리 가재.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안 가르쳐 주고 나만 따라오래. 그러더니 강고산 밑에 밭에 참외를 심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팬히 가슴만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뭐 그거 참외 몇 개 들어 두 개 따서 들고, 와서 깨뜨리면 안 익은 건 뭐 시큼하고 텅텅하고 그거 내비고 단것만 먹는데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그 사람은 일 년 농사지은 건데, 걱정이드라고. 아버지한테도 얘길 못하고. 끔끔 앓고 있었어. (이윤식)

이 무렵 소풍을 해 오는 것도 남자 아이들의 일이었다. 소풍을 배리 가면 한강에서 돛을 단 풍선배와 통통거리는 뚝딱배가 마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이 배들은 인천 강화에서 새우젓과 해산물을 싣고 오는 배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뱃바닥 좀 보자”고 소리지르게 시켰다. 이 말은 배가 전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뱃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다.

어렸을 때 배들 많이 봤죠. 풍선배 돛달고, 인천에서 해물 있죠. 마포 여기가 포구였어요. 그 다음엔 또 통통통 다니는 뚝딱이라고 하죠 그것도 많이 다니고, 그때 그래서 내가 소 맥이러 풀 비려 가면 그때는 강이 이렇게 제방 밑에서 100m 안 되게 가까웠어요. 연락선이 글로 지나가고 그러면 “뱃바닥 좀 보자” 그러고, 어른들이 시켜요. (이윤식)

마을제사는 가을 추수가 끝난 10월 상달 그믐에 한다. 도당굿인데, 마을 앞 동산에 도당터가 있었다. 향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당할머니, 다른 하나는 사당할아버지라 불렀다. 나무 앞에 흙으로 다져서 제단을 만들었으며, 제사를 지낼 때는 주변에 말뚝을 세우고 명석을 쳐서 둘러놓았다. 1년에 한번 날을 잡아서 무당들이 와서 굿을 했다.

날은 무당들이 잡으며, 제물은 집집마다 얼마씩 건었다. 집안 사정에 따라 부자인 경우 쌀 1말, 없는 집은 몇 되씩 추렴했다. 마을 주민들은 “동네 고사 지낸다” 혹은 “도당굿 한다”고 말했다. 실제 어른들은 부정 탄다고 생각하여 도당굿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꺼렸다. 제물은 대개 아이가 없고, 식구가 적은 집에서 맡았다. 마을의 어른들이 해마다 정했다.

무당은 수색 구름다리 아래의 향동리에서 왔으며, 마을 어른들은 ‘산골무당’이라고 불렀다. 굿은 이튿날에 걸쳐 했으며, 초저녁에 시작해서 이튿날 낮까지 밤을 새서 굿을 했다. 한 거리부터 열두 거리를 해야 끝이 났다. 제물로 소머리를 준비했으며, 대주 밥그릇이라 해서 쌀을 담고 숟가락에 실을 감아서 위에 놓았다. 굿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90년대 초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당나무인 향나무 고목도 외지 사람이 몰래 잘라갔다. 인근 용주골, 내곡리에서는 굿할 때에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다. 내곡리는 능곡 지나

서 있는 마을이다.

마을 제사라는 건 도당터라고 향나무가 두 그루. 사당할머니 사당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그게 큰 게 있었어요 아릅드리가 두 개가. 그냥 앞동산에. 그것을 일 년에 한 번씩 고사떡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무당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 잘 되라고 굿을 한 거지. 도당굿을 한 거지. 대개 가을 추수 다 하고 10월 그믐께쯤. 상달이라 그래서. 날은 무당들이 잡았죠. 언제 날짜가 좋다 정하면 여기 노인데들이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그랬죠. (선호육)

근데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집을 애들도 없고 먼저 음식 해놔서 애들이 먼저 집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놔서 그 좀 조출하고 그런 집이 정해서 그런 집에서 했어요. 그게 계속하다가 한 90년대 초에 없어졌을 거야. 무당을 목돈을 주죠. 집에서 거뒀어요. 마을 어른들이 이집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얼마얼마 했지. 쌀로 주로 많이 받았지. 많이 내는 집은 부자라는 사람은 한 말씩 내고. 어려운 사람은 몇 되씩 하고. 그걸 동네 고사지낸다고 하죠. 도당굿한다.

그 앞동산에 향나무 앞에서 했는데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는 거기서 오줌도 못 누게 했거든 벌 받는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그걸 팔라갔어. 팔라가는 놈이 있어. 행신동 택지개발 들어오고 나서니까 20년 30년 됐지. 밤중에 팔라갔어. (이윤식)

강고산에도 도당굿이 있었으나 매화정마을보다 먼저 없어졌다. 그 마을은 규모는 작았으며, 굿하는 날에 항상 동네 깡패들이 와서 횡방을 놓았다.

겨울철 남자들의 주요 생업은 나무하는 일이다. 취사와 난방 뿐 아니라 소죽을 쑤는데 땔감이 많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모두 화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땔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이곳은 산이 적고 평지가 많아서 멀리 가서 나무를 하기도 했다. 대개는 혼자 다녔으며 멀리 갈 때는 백제면까지 가서 나무를 해오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5~6일 걸려서 나무를 해서 우마차에 싣고 돌아왔다. 이때에는 우마차에 새끼, 쌀 등을 싣고 가서 며칠간 있으면서 나무를 했다. 실제 나무보다는 낙엽을 긁어 ‘등을 쳐서’ 돌아왔다. 보통 5~6일 정도면 20~30동 정도를 해올 수 있었다.

나무가 귀해 진달래 뿌리를 말려서 땔감으로 쓰기도 했다. 마을 앞산이나 뒷산에서 낙엽을 긁을 경우에는 망태기에 담아왔다. 당시 마을의 산에는 낙엽과 나무가 많지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 이 지역의 나무를 벌목해서 팔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집에서 땔감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수, 콩, 보리 등의 곡초짚이었다.

6.25 나고 나서, 마을에서는 겨울에 아현시장까지 땔감을 팔러 다니기도 했

다. 강고산에서 모래내까지 가서, 다시 가좌를 지나 신촌까지 약 30리 정도 되었다. 새벽 3시에 출발하면 오전 7시 전에 아현시장에 도착했다. 나무 등짐을 팔거나, 무, 배추 등을 소 마차에 싣고 가서 팔기도 했다. 우마차는 90호 가운데 두세집 정도밖에 없었다. 소가 있어도 마차는 없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등짐이었다. 대개는 명절 전에 팔아서 돈을 마련해 동태 20마리 1쾌를 사왔다.

벽제면인데 거기로 우마차를 끌고 가서 나무를 해왔지. 거기 친척이니까 아는 집이 있으니까 쌀을 가지고 가서 밥 좀 해달라고 하고 나무라고 해야 뭐 좋은 장작나무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낙엽, 낙엽을 긁어서 동을 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묶어. 그래서 그걸 마차에 실어오는 거지 장작을 해서 실어오는 게 아니야. 보통 짚으로 끈 새끼 있지 그걸로 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멍석 같은 거를 대고 헤쳐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말아서 동을 한 20~30동을 해오면. (선영수)

낭구는 혼자 주로 많이 덩기죠. 이 뒷산에서 주로 낭구를 하는 건데 각자 인제 지정을 하고 거기를 가는 거지. 먼 거리 갈 때는 같이 가고, 여긴 뭇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왜 정시대 때 나무 큰 것들은 전부 서울에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지고 나무가 없어졌나 해요. 이 동네 산을 많이 사용하고, 낭구가 부족하면 갈밭이 있었어요. 이 너머 가면 거기서 비어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떼고, 아유 그전에는 나무도 없어가지고 진달래꽃 뿌래기 있죠? 그것도 캐다가 말려서 떼고 그랬는데. 그리고 당시만 해도 밭곡식이라는 게 콩 아니면 수수 또 보리라고 짚이라고 있었는데, 곡초 짚을 많이 땀 거예요. 벌판에 있는 짚단. 동산에 뭐 낭구가 없었어요. 그런 거 땀 거지 지금처럼 낭구가 많다면 걱정이 없지. 60년대 입산금지하면서 낭구를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탄이 들어왔죠. 사서 떼고.

내가 기억이 나요 그 길로 아현시장으로 낭구해다 팔고. 어른들은 등짐을 두 개를 지고 나는 하나를 이렇게 지고. 부락에 이 부락에 이제 명절 닥치면 돈이 없고 하나까. 고기라도 한 근 사다가 조상을 모신다고 그렇게 등짐을 뭘 해도 갖다 팔아야 돈이잖아. 그래 가지고 동태도 이제 한 쾌라고 하지, 20마리 그걸 사다가 지게에다 미고 오고. 낭구 아님 쌀인데 쌀은 뭐 팔 뭐가 없으니까 낭구해다 팔고 그때가 한 6.25 나고 나서야. 순 등짐이지 리어카도 없었어. 우마차도 있는 집이나 있지. 이 큰 부락에 우마차도 두 집? 두 세집 있을까? 소두 있어도 우마치 있는 집도 많지가 않았다고. 마차가 비싸잖아요. (선호육)

화목은 1970년대 산림녹화사업과 연탄이 들어오면서 점차 없어졌다. 연탄은 수색에 공장은 있었으며, 부녀회를 통해 마을 전체 연탄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 사용했다.

한편 초가지붕은 겨울 농한기에 짜서 이듬해 2~3월에 엮었다. 이엉을 엮려면 30~40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녁 먹고 톱툰이 하루 7~10동 씩 엮어

둔다. 이영 엮는 것은 대개 형제들이 도와주며,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쌀 한 말을 주고 엮게 했다. 일제 때 가마니 공출이 있었는데, 가구당 얼마씩 배당을 했다. 장단에서 피난 나온 집이 5~6호 있었는데, 이들이 가마니 짜는 품을 팔았다.

지붕 이었는데 품앗이 아니고 기술 있는 사람을 사다가, 돈을 얼마든지, 아마 쌀루다 줬을 거야. 한말인가 얼마를 주고, 그게 겨우내 이영 엮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보통 한 3~40개 해놔야 해요 그래야 지붕을 하지. 며칠 엮어야 돼. 그게 재주에 따라서 하루에 7~8개 엮는 사람도 있고 10개 엮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 사면 돈이 드니까 자기가 매일 엮어서 형제들이 와서 가끔. 동네 사람 기술자가 있었죠. 품삯이. 보통일보다 값을 조금 더 주지. 겨울철에 이영을 엮어서 2, 3월쯤에 지붕을. (선호육)

가마니는 공출 왜정 때 많이 했지. 우리 때도 했어요. 한집에 몇 개씩 배정을 해줬어. 가져다 내면 돈 받았어. 근데 그걸 배당을 못 채우니까 사람을 사다가 자기네 사랑방에 서도 하고, 하루 쉼일 하는 사람도 있고 했어요. 장단서 피난 나온 분들이 잘했어. 많이 살았는데 다들 돌아가고, 이리 피난을 나와서. 한 대여섯 가구 멈춰서 살았어. (선영수)

(4) 강매1리의 놀이

강매1리에서 조사된 놀이로는 기싸움, 농악, 율놀이, 연날리기, 자치기, 수제 스के이트 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기나리(투전), 찹찌이(골패), 화투, 씨름, 축구 등이다.

특징적인 민속놀이로, 강매 1리에서는 인근 행주1동 잣골과 정월대보름에 기싸움을 했으며, 이것은 서로 상대 농기의 깃봉을 빼앗는 방식이다. 한편 이곳에서는 투전을 ‘기나리’라 했으며, 1-10까지 숫자그림 40장을 가지고 4-5명이 놀았다. 그리고 골패는 ‘찹찌이’라 해서, 1-10 까지 구멍 뚫린 숫자패를 각자 5장씩 갖고 하는 놀이로, 숫자를 손의 느낌으로 알아 찻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놀이는 80세 전후의 제보자들이 직접 하지는 못했고, 약 50-60년 전에 윗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았다. 한편 수제 스के이트화를 만들어 겨울철에 얼음 위에서 스কে이트를 타기도 했다. 한편 농악은 10여 살 윗대 선배들이 잘 쳤으나 이들이 나이 들면서 1990년대에 소멸되었다. 선영수, 선호육, 이윤식이 구술한 강매1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정월 명절에 여자들은 널을 뛰었다. 본래 집안 안마당에서 하던 것을 바깥마당으로 옮겼다. 널판은 너비도 넓고 길이도 길어 남자들도 널을 뛰기도 했다. 율놀이는 겨울철 내내 한다. 면단위로 하는 척사대회는 외부사람도 와서 참가했다. 면 단위로 할 때는 상품으로 송아지를 걸었으며, 동네에서 할 때는 삼이나 농기구등을 걸었다. 척사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를 한판에 얼마씩 냈는데, 주최측에서는 그 수익으로 상품을 구입했다.

남자아이들은 팽이치기, 연날리기, 깡통치기를 했으며, 다마(구슬)로 다마치기와 야마를 했다. 다마치기는 내 구슬을 발로 차서 상대방 구슬을 맞추거나, 손으로 던져서 상대 구슬을 맞춰서 일정한 원을 넘어가면 따먹는 방식이다. 야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슬을 손에 쥐고 상대가 구슬의 숫자를 훌쩍으로 맞추면 따먹는 방식이다. 1~3까지로 그대로 치고, 4는 다시 1이 되는 방식으로, 최대 수가 3이다.

율놀이는 겨울 한철 많이 하죠. 정월대보름뿐 아니라. 상품 걸어놓고 해요. 척사대회 송아지도 사다 놓고, 적어도 면단위 정도 범위가 넓고. 동네에서 할 적에는 삼이나 곡팽이나 이렇게 농구 같은 거를 상품으로 걸고 한 거지. (선영수)

겨울철에는 연 날리는 거 있잖아. 그 다마 있잖아 구슬, 구슬. 팽이치기도 하고. 다마 이렇게 봐 놓고 이렇게 손으로 탁 던져서 치면. 그것도 노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바닥에 이렇게 원 응 그려놓고 나가면. 발로다가도 이렇게 차서 굴리는거지 이렇게. 아 어려우니까 장난이죠. 손으로 보다 발로 다마치기를 많이 했던 거 같아. 그걸 요렇게 맞추고 하면 그게 재미있었어요. (선호육)

야마라고 하는 거. 그 훌쩍 맞추면 하나씩 내놓고. 몇 개 쥐고 있느냐. 너더댓 개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또 셋 넘으면 네 개도 하나로 치거든요. 세 개를 기본으로 해놓고. 일이삼으로 하는 거지. 하나를 쥐고 있어서 하나면 맞추고, 둘 쥐고 둘이면 맞추고, 셋 쥐고 셋이면 맞추는데, 만약에 네 개를 쥐고 있다 그럼 그걸 하나로 한다고. 세 개가 기본이니까 세 개를 제하고 하나 남는 거로. (선영수)

팽이는 뒷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낮으로 깎았다. 팽이채는 질긴 형겅으로 쳤으며, 팽이 아래 쇠구슬을 박으면 잘 돌아갔다. 팽이. 위에는 크레용으로 보기 좋게 색깔을 칠하기도 했다. 노는 방식은 팽이를 서로 부딪쳐서 죽지 않고 오래 가는 팽이가 이기는 것으로, 이것을 ‘올린다’고 한다.

팽이 우리가 손수 맨들어서 했어요. 깎아서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를 비어다 했죠. 낮으로 이렇게 깎죠. 길면 뺄뺄해서 힘들어요.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눈대중

으로다. 나무만으로는 이게 안도니까 그전에 이 다마라고 있어요. 쇠구슬. 그걸 베아령 마냥 그걸 박아요. 그럼 그게 여간 잘 돌지 않아. 팽이채라는 건 형질을 이렇게 나뭇대 기에다 하면. 그걸로 때려. 맞을수록 잘 도는 게 팽이야. 형질 질긴 거. (선호육)
그게 막 치다가 인제 부딪혀야 되거든. 그럼 그걸 ‘올린다’ 그러지. 그럼 ‘올리자’ 그래 가지고 딱 한번 부딪히고 나서 안 쓰러지는 팽이가 이기는 거야. 오래도록 도니까. 나중에 위에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위에서 보면 보기가 좋죠. (이윤식)

연은 방패연이며, 앞머리에 태극 무늬를 그렸다. 연살은 대나무가 귀해서 갈퀴대를 뽑아서 만들고, 창호지를 붙였다. 연감개(얼레)는 사각형으로 2개 만들어, 엇갈려 교차하고, 가운데 조릿대를 끼운다. 연을 본인이 만들지만, 연감개는 대개 어른들이 만들어주었다.

연싸움은 줄을 당겼다, 풀었다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줄을 길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연줄에 사금파리를 입히기도 했다. 사금파리를 뺏아서 체로 친 다음에 밥풀에 짓이겨 연줄에 바른다. 상대 연을 끊으면 그것을 주워 와서 다시 연결해서 날리기도 했다. 대개 10월 말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해서, 정월 보름에는 액막이라 해서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은 각자 그때는 저 창호지도 구하기 힘들고 대나무도 힘들고 집에 대나무가 없으면 남의 집에 가요. 갈퀴라고 있잖아. 나뭇잎 모으는 그거 하나 빼가지고 만들고 그랬죠. 그때는 철부지 때니까. 부대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걸 뒤집어쓰고 다녔어요. 그러니 무슨 비닐우산이 있어. (선호육)

연감개라고 그러죠. 얼레라는 거는 후에 책자로 나온 거고.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연감개, 실을 감는다 이거지. 네 개를 십자로 나뭇대기로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가운데다 구멍을 뚫고, 조릿대 같은 거 그걸 질러 넣어가지고 하면, 조금 길게 잡아서 다 동그란 낭구로 있는 사람은 저 쇠로다 철사같은 거로다 하고. 가지각색이죠. (선영수)

그때 실도 귀했죠. 방패연이라고 하죠. 네모 반듯한 거. 가운데 구멍 뚫리고 태극도 이렇게 앞에 머리에다가 그렸죠. 연싸움도 했죠. 그거 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게 연싸움을 하면 실이 부족하면 끊어져 나가요. 이게 실을 풀어줘야. 그걸 인제 사금파리를 뺏아가지고 사기그릇 같은 거. 거기다 밥을 이제 짓궂어가지고 사금파리를 체로 쳐 가지고 섞어서 그걸 실에다가 묻히는 거야. 실에다 묻히면 이게 이제 꺾꺾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싸움이 붙으면 끊어져 나가고 그러죠. 그래 실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게 실을 풀어주면 높이 뜨잖아요. 그럼 바람에 더 빨리 나가지. 동화산이라고 동네 거기 연이 산 밑에 떨어져요. 그럼 하루는 그걸 주우러 두 시간도 가고 그랬어. 주워가지고 또 이어가지고 연 날리고 그랬죠. (선호육)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는데, 눈을 막아 물을 대서 얼음판을 만들었다. 가 스케토는 비싸서 직접 만들었는데, 널빤지를 잘라 신발 크기에 맞게 앞쪽과 양 옆에 못을 박고 바닥에는 철사를 잘라서 두 줄로 댔다. 신발은 끈으로 양쪽에서 동여맸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숨바지가 물에 젖으면 눈에 불을 피워서 말렸는데, 옷은 안 마르고 바지가 탄 적도 있다.

딱지는 공부하던 책을 접어서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접어서 만들었다. 상대 딱지를 뒤집으며 따먹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딱지는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또 자치기도 많이 했다. 큰 것은 ‘애미’, 작은 것은 ‘새끼’라고 한다. 새끼로 애미를 떠서 나가는 것을 상대방에서 바로 잡으면 죽는다. 보통 한쪽에 3~4명씩 편을 먹고 논다. 규칙은 노는 아이들이 직접 정하는데, 가령 50자를 나가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20자 미만은 무효가 된다고 정한다. 새끼가 떨어진 자리는 뜬 자리부터 애미로 길이를 쟁다.

딱지치기도 했죠. 접은 거가지고 했지. 그때 종이도 구했잖아요. 신문지도 그때는 구하기 힘들어서 자기 공부하던 책 있잖아요. 그거 찢어다가 다 배운 거. 그거 딱지 쳐가지고 뒤집어지면. (선호욱) 그 전에는 삼각형으로 접는 게 있어요. 삼각형 딱지 그것도 재산이라고 그거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지. (선영수)

자치기. 큰 거는 애미고 작은 거는 새끼죠. 직접 잘라다가. 옛날 놀이감은 다 맨들었죠. 흙에다 놓고 툭 치면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때리면 멀리 나가면 이기는 거지 뭐. 상대방은 받지. 바로 받으면 죽지.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바꾸는 거지. 야구 마냥 똑같애. 그런 나가면 애미로 재는 거지. 그제 몇 자 나가냐. 20자 미만이면 무효, 50자면 죽은 사람 살리고, 규칙을 정해가지고, 한 서너댓 명씩 모여서, 이제 내가 치면 상대방은 나가서 새끼를 잡아요. 탁 튀어나가는걸. (이윤식)

단오에는 부락에서 나무를 세워서 그네를 땀다. 5~60년대 한번 있었고 해마다 그네를 매지는 않았단다. 청년들이 그네를 땀는데, 적당한 나무가 없을 때는 나무를 베어다가 동산에 박고 그네를 매기도 했다.

가을에 농협에서 제기시합을 하는데, 동네별로 영농회가 조직되어 서로 시합을 벌였다. 이윤식은 200개까지 차서 먼 전체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8월 15일에는 광복절 기념행사로 체육대회를 했다. 지도국민학교 운동장에

서 모여, 각 마을별로 씨름, 뽀빠기, 축구시합을 해서 큰 송아지를 상품으로 걸었다. 이 행사에는 지도면에 속한 26개 리가 모두 모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였으며 잔치였다. 이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부녀회에서는 주로 음식을 준비하고 밥 심부름을 했다. 당시 동네마다 농악이 다 있었기 때문에, 농기대를 들고 농악을 치면서 걸어서 1시간을 갔다.

씨름은 8.15 광복절 행사에서. 지도면 자연부락들 모여서. 지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송아지 걸어놓는 거는 잘 못 봤어요. 큰 송아지 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기 때문에. (선영수)

우리 저기할 때는 풍성한 부락은 저 돼지도 잡아서 그게 인제 마을 잔치하는 거야. 점심 먹고 술이고 뭐고 먹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루 행사하는 거야. 응원도하고 집집마다 다 나왔어요. 지도면이 다 나오지. 각 리 대항을 하면 26개리인데 그게 다 모였어요. 부녀회에서는 밥 심부름하고. 나가면 또 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안 하면 여간해서 만나기가 힘들니까. 그날은 다 노니까. 그때 되면 광복절이니까 일 다 끝나요. 동네마다 또 농악이 다 있었어요. 나가는데 한 나절이야. 여기서 걸어가면 지도면 한 시간도 더 걸려요. 지도면이면 신평동 화정동까지, 매곡까지 다예요. (선호옥)

강매리도 20년 전까지 이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이후 시들해지면서 마을의 농악도 없어졌다. 농악은 1930년대생들이 주로 쳤으며, 잘했다. 마을의 농기대와 농기 모두 별판에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비가 새면서 모두 썩었다. 한편 이웃 강고산마을에서는 예전에 마을 주최로 씨름대회도 열렸다.

마을에서 화투는 대개 초상이 난 경우에 많이 놀았다. 밤을 새면서 화투를 치는데, 이때 외지에서 돈 벌러 오는 전문꾼들이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자꾸 잃기만 하자, 송아지를 팔아서 판돈을 대기도 했다. 화투로 문제가 발생하자, 마을에서 2000년 무렵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놀이로 시작을 하지만, 돈이 오가면서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골패는 지금부터 50~60년대 전에 사라졌다. 현재 제보자들은 윗대 어른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되는 골패를 얹어놓고 하나씩 집어낸다. 골패에는 구멍을 뚫어 숫자를 표시했는데, 구멍이 1~10까지 있었다. 전문적으로 노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훑어서 구멍의 숫자를 알아

맞히기도 했다. 골패는 총 40개이다. 노는 방식은 짓구멍과 비슷한데 이를 ‘찍찍이’라 했다. 찍은 땡과 마찬가지로 뜻이다.

예전 사람들은 ‘기나리’를 많이 했다. 기나리는 창호지를 길게 잘라 1부터 10까지 숫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4~5명이 편을 먹는다. 총 40장으로 노는데, 길이는 20cm, 폭은 2cm 정도이다. 한 사람 앞에 5장씩 돌아가며 숫자를 맞히는 방식이다. 노는 방식은 도리짓구멍과 비슷하다. 같은 숫자는 땡, 제일 높은 것이 장땡, 끝발은 가보가 제일 높다.

골패는 이렇게 상 놓고 하는 거고. 골패는 이렇게 쪼그만데 흠이 뚫어져서 상에 올려놓고 하는 거고. 일이삼사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손가락 한 매듭 만해요. 하얀 건데 그걸 얹어놓고 상에다 쪽 올려놓고 하나씩 집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찍찍이라고. 그것도 한 마흔 몇 개 될 거야. 그걸 집어가지고 비벼보면 구멍 뚫려서 금방 알아. 예전에 어른들 하는 거 이거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찍이 땡이나 마찬가지로. 기나리. 창호지에 써서 다섯 장씩 투전. 여기서는 기나리라고 했죠. 거기 1,2,3,4를 써요. 10까지. 근데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좁아가지고 길어요. 길이는 한 20센치. 폭은 한 2센치. 그걸로 맨들어서. 네다섯명이서. 전체 한 40장 되죠. 짓구멍이나 마찬가지로. 숫자를 맞추는 거죠. 같은 숫자 나오면 땡이고. 장땡이라는 게 제일 이죠. 끝발은 가보가 높고. (이윤식)

(1) 거구뒀마을 개관



〈그림 10〉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뒀마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미는 안산 피씨가 약 350-400년 살았던 피씨 집성촌으로, 한강변 너른 들판에 대규모 논농사를 짓던 부유한 마을이다. 예전 모내기 때에는 전북 부안의 여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품앗이를 하고 돌아갔다.

일산서구는 고양시의 서쪽에 위치한다. 2005년 5월 16일 일산구 일산동을 가로 지르는 고봉로를 기준으로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분구되었다. 행정 구역은 9개의 행정동과 8개의 법정동, 219통, 1,447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산서구의 면적은 42.56km²로, 고양시 전체 면적(267.41 km²)의 16%를 차지하고 있다.¹⁹⁾

구산동은 일산서구의 9개 행정동 중 하나인 송산동의 3개 법정동(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가운데 하나이다. 지리적으로는 가좌동 서쪽과 서북쪽에 위치하며, 고양시의 서쪽 끝에 해당한다. 이 중 한강 방향으로의 넓은 벌판이 있으며, 파주시 교하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고, 장월평천이 흐르고 있다. 구산동의 지명유래는 옛 추산4리 마을에 있는 산 모양이 거북이와 닮은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옛 구산 1리와 4리에 있는 산이 거북이 꼬리를 닮았고, 구산 3리에 있는 산이 거북이 머리를 닮아 전체적으로 마을 모양이 거북이 형상과 유사하다는 설이 있다. 한편 일제시대 '거북 구(龜)'자가 일인들에 의해 '아홉 구(九)'자로 변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구산(龜山)과 장산(獐山)이 있다. 구산은 거그뵈(거구뵈)라고도 불리는데 파주시 교하면 심악산과 접경하고 있는 산의 형태가 거북모양을 하고 있어 '구산'이라고 부른다. 장산은 일명 노루뵈라고도 불리우며 거북바위가 물을 등지고 넓은 들판을 대면하고 있는 산의 형태가 노루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마을에 거그뵈, 노루뵈, 새태말, 메뿌리, 새지, 탁굴, 장월, 향정 등이 있다.²⁰⁾

피상곤(1939년생)에 의하면, 마을 이름은 마을 뒤를 두르고 있는 거북산을 따라 구산동이라 한다. 본래 일산서구 구산동 15통이었으나 한개 마을이 없어져서 현재 14통이다. 구산동은 거북뵈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구뵈라 부른다. 거구뵈는 인근에서 부자동네로 유명했는데, 구산동에서 행주산성까지 펼쳐진 넓은 들판의 상당부분이 마을의 논이었다. 마을은 일산에서 논이 가장 많은 마을 중 하나이다.

19) 일산서구청 (www.goyang.go.kr 접속일 2018.10.21)

20) 『고양시사』 제3권 마을과 민속,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132~133쪽.

마을의 주요 성씨는 피씨와 이씨이다. 마을에 들어온 순서는 설씨, 임씨, 이씨, 피씨인데, 현재는 이씨와 피씨 두 개 성씨만 남았다. 피씨는 350-400년 거주했지만, 현재 다 외지로 나가고, 2~3가구만 남아 있다. 이씨는 7가구, 황씨와 김씨가 각 1가구씩 거주한다.

거구뵈예요 거구뵈. 이 마을예요 뒤에 산이 있었는데 거북산이었어요. 그 주인들이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창고를 다 지었죠.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피씨하고, 이씨만 살았었어요. 처음 오신 할아버지가 한 350년 거진 400년 될 거예요. 저 수막산에 선조들이 다 있으니까. 수막산 9번지에 있어요. 우리 선산. 예전에 마을에 가구 수가 단일 부락인데 한 45가구가 되었어요. 지금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늘었죠. 피씨가 이씨보다 한 2~3가구 더 많았을 거. 그 당시에는 황씨 한집, 김씨 한집 있었어요.

(2) 거구뵈마을 토박이의 삶



〈그림 11〉 피상곤 제보자의 모습(자택)

피상곤(1939년생)은 안산 피씨로, 피씨들은 구산동 거구뵈에서 약

350-400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일산의 넓은 들판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대농 집안으로, 각종 농사와 혼례, 놀이 등을 상세히 구술했다. 1960년대 혼례 때에 이미 금반지, 팔찌, 시계, 목걸이를 해갈 정도로 이 마을은 여유롭게 살았다. 그는 대례 치를 때 신부집에서 돛자리 위에 콩을 뿌려 신랑을 넘어뜨리고, 삼태기로 재를 뒤집어 썬웠으며, 신부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문밖으로 나가는 풍습 등을 구술했다.



〈그림 12〉 피상곤 부부의 칠순 잔치



〈그림 13〉 피상곤거구미 피상곤 아들딸의 어린 시절

피상곤은 입향조가 350~400년 전에 들어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선산은 9번지 수막산에 있다. 농사는 1만평 가량 지었으며, 현재는 6천 평을 짓고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밭 일부를 외부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사 역시 대부분 비닐하우스 농사로 바꾸었는데, 비닐하우스는 1년에 한번 지어 먹는 벼농사와 달리 1년에 몇 번씩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이 좋은 편이다.

그는 28세에 결혼했는데, 당시는 주로 20~21세에 결혼하고, 늦어야 25세에 결혼하던 시기라 매우 늦은 편이었다. 여자들은 20~21세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을 안에는 민며느리를 둔 집도 있었다. 피상곤의 부인은 경주 이씨로, 파주 문발리가 고향이다. 사촌동생이 문발 숯고개에 거주하고 있었고, 6촌 형수가 탄현 호수공원 근처에 살았으며, 중매로 만나게 되었다. 피상곤이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데 사촌형이 선보러 가자고 해서 급하게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인사를 드렸다. 처의 큰어머니, 할머니, 처남, 처 이렇게 4명이 와 있었다. 1963년 8월에 선을 보고, 9월 초에 여자 쪽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드리러 가니 집이 사망집으로 켜으며, 사촌 처남이 농주를 많이 먹어서 꽤 취했다. 당시 남자 쪽에서는 큰어머니, 어머니, 육촌 형수, 본인 이렇게 4명이 갔다. 그리고 그 해 11월 23일에 혼례식을 했다.

스물다섯이면 아주 노총각이라고 했어. 내가 남자치고 늦은 편이죠. 남자들은 보통 스무 살, 스물 한살이면 결혼 했으니까. 여자들은 더 어렸죠. 파주 문발리라고 경주이씨예요. 중매는 우리 육촌 형수인데. 탄현동 사는데 그 사촌 동생이 문발리 살아요. 그래서 우리 육촌 형수랑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중매된 거예요. 아니 벼를 비는데 한창 벼를 비는데. 우리 사촌형이 너 선보러 왔는데 가보라고 벼 비다 말고. 처 큰 어머이. 그 집 안 할머니 네 사람이 왔어요. 그래 벼 비다 말고 씻고 절했지.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언제 보러 오라더라고 문발리로. 8월 달에 와서 보고 9월 초순에 문발리로 가서 보고 1963년 11월 23일에 결혼했으니까. 맘에 들었는데 갔더니 우리 집은 옛날 집은 죄그맣거든요. 근데 문발리 갔더니 처갓집은 이렇게 사망집 무척 커요.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사촌 처남을 하나 나랑 술을 같이 마시고. 우리 어머이, 큰어머이, 육촌 형수 이렇게 갔는데 나하고 넷이 가서 집사람 만나고 온 거지.

처가는 거구피에서 15리 정도로 택시를 타고 갔으며, 신부도 택시를 타고

이 마을로 들어왔다. 구식 혼례를 치렀는데, 신부집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식을 올렸다. 신랑, 신부 모두 혼례복은 동네에서 빌렸다. 신부는 한복과 두루마기에 사모관대와 족두리를, 신랑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함도 신랑이 직접 매고 갔다. 당시 쌀 1가마니가 2천원이었는데, 양복 한 벌이 2천원이었다. 두루마기는 쌀 몇 가마 하던 시절이었다.

혼례 치를 때에 서로 맞절을 3번씩 한 것으로 기억한다. 한편 피상곤은 신부를 위해 금반지, 금팔찌, 시계, 목걸이까지 잘 해가서 당시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신부 동네에서는 동갑인 사촌 처남이 미라 잘 말을 해서 신랑다루기를 심하게 껴지는 않았다. 당시 함을 지는 끈으로 발목을 묶고 발바닥을 맞았으나, 거꾸로 매달리지는 않았다. 대례를 치르기 전에 “사당 지사 지내러 오라”는 연락을 듣고 가면 도중에 재거름질을 당한다. 그러나 피상곤은 당시 수막초등학교 교감의 팔짱을 끼고 가서 재를 피할 수 있었다. 대신 돗자리 밑에 콩을 깔아놓아서 절을 할 때 미끄러지기는 했다.

여기서 한 20리 못 되고 15리 될 거예요. 그때 택시 타고 갔죠. 신부도 그 택시하나 가지고 타고오고, 구식혼례 했죠. 마당에 문발리에 천막 쳐 놓고 서로 인제 맞절하고, 옷은 한복이랑 두루마기 입고, 사모관대 그건 이 동네서 있어서 빌려서. 그걸 가지고 가죠. 인제, 신부도 인제 족두리 그쪽 동네에서. 함은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직접 가져갔죠. 금반지니, 뭐 시계니, 목걸이니. 아주 잘 해가지고 갔으니까요. 소문 났었으니까. 그때 쌀 한가마니가 2천원 양복 한 벌 맞추는데도 2천원. 두루마기 맞추는 데도 몇가마 뒀을 거예요.

신부 동네에서 사촌 처남이 나랑 동갑인데 말리는 거지. 그 함지고간 끈. 그걸로 다리 얹어매지. 그래서 장난하는 거지. 발바닥 때리고, 지내기 전에 재뿌리죠. 장개 가는 날 가면 이 대기실 옆집에 처갓집 옆에 대기실에 있지. 그럼 기별이 와요. 사당지사 지내게 오라고. 그럼 가는 길에 재거름질을 하는 거지. 재를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근데 그 마을에 수막초등학교 교감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팔짱끼고 가는데 그러니 나한테 재를 씌울 수 있어요? 못 씌우지. 근데 절하는데 그 돗자리 위에 콩을 깔아 뒀드라고 콩을 왜 까냐면 그거 밟고 미끄러지라고 장난하는 거지.

신랑집에서는 대례를 치루고 신부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일하던 식구들은 모두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 색시가 방에 들어오고 나면 그 때에 바로 들어온다. 현재 피상곤 내외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가족 사진

은 1960년대에 오토바이 기사가 마을로 들어와서 찍은 것이다.

(3) 거구뢰마을의 세시풍속

구산동 거구뢰의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 돌싸움, 불싸움, 햇불로 달님 기원, 귀신 쫓기, 5월 15-29일 모내기와 전복 부안 여자들 원정 모내기 작업, 5월 말 피 파종(모 못 심을 경우), 6월 기우제(수막산), 6-7월 논매기와 두레, 여름 천렵, 8월 말-9월초 게잡이, 8월 넷째주 벌초, 9월 말-10월 초 피 수확(모 대신 작물), 10월 안산 피씨 시제(양력 11월 첫주), 10월 19일 호미로 벌초 등이다.

거구뢰의 특징적 세시로는, 안산 피씨는 매년 8월 넷째 주에 종원이 모여 집단 벌초를 한다. 당일 10여대 제초기로 벌초를 하고, 종친회장인 피상곤은 닭도리탕 30마리를 준비해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종원들을 대접한다. 그리고 논매기 두레 때의 선소리는 북과 쌍호적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한편 가을 참게잡이는 1970-80년 초에 농약을 많이 쓰면서 사라졌다. 피상곤(남, 1939년생)이 구술한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월에는 떡국 차례를 지낸다. 차례 상에는 소고기 산적, 조기, 북어포, 나물로는 도라지, 고비, 숙주를 올린다. 명절 장은 일산장에서 보았으며, 5일 장으로 3일과 8일이다. 일산장까지 거리는 마을에서 8km정도였다. 떡도 일산에 있는 방앗간에서 쌀을 뺏아 집에서 만들었다. 정월에는 술을 담그는데, 누룩은 일산 장에서 한 장에 4~5천원 하는 것을 사서 담갔다. 쌀 1말 기준으로 물 반 바게쓰(양동이)에 술이 빨리 익게 하기 위해 발효제로서 '좁쌀약'을 넣는다.

술을 집에서 담그면, 세무서에서 밀주 검사를 피해야 한다. 대개 마을로 검사원이 들어오면 서로 연락을 해서 미리 알려주었다. 술독을 정미소나 방앗간의 왕겨 사이에 파묻거나, 급할 때는 지계에 술독을 걸머지고 벌판으로 나가 서 있기도 했다.

음력 3월에는 농사일을 처음 시작한다. 논보다 밭농사를 먼저 시작한다. 마을은 논이 대부분이라 밭이 많지 않았으며, 팔, 콩 등은 논두렁에 심는 경

우가 많았다.

4월 초파일 경에 마을 여자들은 나물을 뜯는다. 주로 수막산에서 나물을 했으며 취, 잔대 등이 많았다. 초파일 무렵에는 스님들이 마을로 들어와 쌀을 시주받기도 했다. 절에 다니지 않아도 스님이 대문 앞에 오면, 조금씩이라도 시주를 한다. 최근에는 부녀회와 노인회에서 양력 4월에 꽃구경을 간다.

5월 단오에 처녀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는 따로 재배하지는 않았으며 논두렁에 나는 것을 삶아서 머리를 감았다. 이날 식전에 남녀 가리지 않고 약쑥을 캐러 간다. 약쑥을 짚으로 엮어 말려두었다가 배가 아프면 그것을 삶아서 마셨다.

논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음력 5월 말경의 모내기부터이다. 이 마을에서 논농사 15마지기는 적은 편에 속하며, 1마지기는 200평이다. 이곳에서는 논농사만으로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쳤다. 1960년대 초에 경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마을에서는 논 12,000평을 짓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경운기를 구입했다. 1999년에 경운기는 소 1마리 값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농기구가 등장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모든 농사를 소로 지었다.

마을은 본래 봇물로 농사를 지었다. 보는 비가 와야 물이 찻는데 때때로 한강에서 찌물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곳은 1~5매까지, 사리 7~8매 때에 찌물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와 개울에서 먼 사람은 모를 내지 못했다.

예전에는 가끔 기우제를 지냈다. 사람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지냈는데, 주로 수막산에서 지냈다. 수리조합은 김포와 강매에는 일제 때 들어온 것에 비해 거구되는 다소 늦게 1960년대에 들어왔다. 마을에서는 농지 기준으로 1마지기에 벼 수확양에 따라 수리조합에 1-3가마씩 냈다. 이때부터 물이 풍부해 농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었다.

옛날에 다 농사지었죠. 순 논으로 갖다가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랬지. 다른 거 안 짓고. 근데 지금 논농사 지어야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쌀 가지고 애들 학교. 있는 집은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그랬죠. 경운기는 내가 언제 샀냐면 99년도에 샀거든요. 늦게 샀죠. 경운기가 그게 예전에는 소 한마리 값이에요. 경운기는 60년대 초에 나왔죠. 마을에는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이두표라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샀죠. 그 집은 좀 부자죠. 논 한 1만 2천평 지었어요. 한마지기 200평이죠. 그래도 이 동네 사는 분들은 다

논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지기라도 다 제 논.

수리조합 전에는 천수답이지. 보 있어봐야 비가 와야 물이 차지. 개울에 발동기 개울 옆에 논은 발동기들 많이 해서 물을 대고. 발동기가 무척 많죠. 왜정 때는 부잣집들은 발동기 있었고, 60년대 많았죠. 많이들 샀죠. 피대쓰는 거. 근데 개울에 한강물이 들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짚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럼 짚물은 안 푸죠. 짚물 푸면 모가 죄 죽으니까. 맛을 봐야죠. 물이 아주 새까매펬. 물이 짚물은. 물이 한때 두때 새매 다섯 매 이렇게 물이 있으면 사리에는 일고, 여덟 매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짚물이 올라오지.

기우제 지냈는데 노인네들 12시 넘어서 인가 소리 안 나는데 가서 기우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수막산 거기서들. 근데 비 안 오더라고요. 수리조합 들어와서는 이제 물 쓰는 걸로 벼. 한마지기에 벼 7~8가마 나온다면 마지기에 대해서 벼를 다 했지. 몇 말이 아니라 벼를 킬로로다가 이렇게 해서 냈죠. 60kg가 한 가마니까.

모를 먼저 내는 집은 대개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이었다. 모내기에는 마을 여자들도 함께 참가했다. 대개 집안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를 나눠 논일을 했고, 밥을 하는 사람도 별도로 나눴다. 밥은 하루 4번 나가는데, 6~7시에 아침을 먹고, 10시에 샛밥을 먹으며, 12시에 술을 먹고, 2시에 밥을 먹으며, 저녁 전에 새참을 먹는다. 두 끼니 때는 밥으로, 두 간식 때는 술이 나온다.

하지중모, 망종까지 모를 냈으며 만약 이때까지도 못 내는 경우에는 건과를 했다. 6.25때 4년 흉년이 들어서 조와 피를 심었다. 피는 김매기 때 뽑아내는 돌피와는 다른 먹은 피 종류이다. 피는 5월 말경에 심으며, 수확한 피를 껍데기째 갈아서 피죽을 끓여 먹었는데 먹기가 힘들었다. 흉년에는 주로 피죽을 먹었고, 쌀을 좀 넣으면 그나마 먹기가 나았다. 피의 수확은 벼 베는 시기인 9월말에서 10월 초에 한다. 피는 익으면 빨강게 가지색을 띤다.

50년대는 6.25 났잖아. 그때는 4년 흉년이 들었어 여기가. 4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논에 조두 심고요. 먹는 피가 또 있어요. 먹는 피 심고. 개울 가까운 사람들이나 모를 내지. 하지까지가 그때는 중모야. 하지 지나서 망종만 해도 내요. 망종 지나고 나면 건과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일기에 따라서 하니까 안 날 때도 있어. 그래서 피를 많이 먹었지. 피죽. 피를 껍데기를 갈아요. 땃돌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죽 해서 먹는 거지. 까칠까칠하죠. 쌀을 좀 넣으면 그나마 나운데 피만 넣고 하면 씹을 것도 없어 혹 마시면 그만이에요. 피는 5월 말경에 뿌릴 거예요. 그것도 벼 베는데 9월말이나 10월초에 비어요. 가지색 빨그스름해요. 익으면.

논매기는 모내기 한 뒤 15~20일 지나서 시작한다. 세벌을 매는데, 초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매기는 손으로 흙친다. 세벌은 삼동매기라 하며, 서서 뽑는다. 두벌 때는 여자들도 김매기를 한다. 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노인들이 갓난아이를 논으로 데려와 젖을 먹이게 하고 데려가곤 했다. 논매기 때는 두레를 조직한다. 두레 1패는 10여 명씩, 14~15명으로 조직했다. 두레놀이에는 농기 든 사람, 소고치는 사람, 춤추는 사람까지 있었다. 두레 작업 때에 북을 치고 상호적을 불면서 소리를 매졌다.

두벌 때는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이 또 다 또 그걸 매요. 초벌은 남자들이하고 두벌은 여자들이 다 그걸 흙쳐내고 다 맨 손으로 하고. 세벌은 삼동이라 하죠 서서 땡기면서 피하고 이렇게 골라서 뽑는 거. 그럼 애들은 이제 오전 10시 되면 집에서 노인들이 젖 물리러 데리고 와요 그럼 젖 물리고 또 일하고 그리고 또 한 4시쯤 와서 또 젖 물리고 가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애들도 참 배가 고팠겠지.

두레 있었죠. 호미로 논매는 그 두레죠. 두레는 그게 상세 부세 징 북 장구 호적 한 일곱 사람이 두레 한패예요. 소고 그 치는 사람이 한 열댓은 됐죠. 요 동네만 하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그게. 나도 군대제대하고 나서 약기 좀 쳤었죠. 원래 6.25전에 있었는데 전쟁 나고 없어지고 다시 생긴 거죠. 중단됐다가. 63년에 제대하니까. 징쳤어요. 징.

농기싸움도 있었는데, 주로 파주의 탑골동네와 고양 향정의 구산1리가 기싸움을 자주 했다. 피상곤은 7~8세에 기싸움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삼으로 깃대를 찍어 두 동강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두레는 동네마다 조직되어 있었으나, 6.25 때부터 중단되었다. 초벌과 두벌 모두 두레를 하며, 일을 하러 갈 때 기를 쫓고 북과 징을 치면서 소리를 했다.

기싸움, 애들 때 봤죠. 여기 파주에 탑골 동네라고 있어요. 우리 웃동네 향정이라고 구산 1리. 그 둘이 기싸움을 하면 그 대를 삼으로 찍어가지고 동강을 내더라고요. 삼으로 그 농깃대를 찍어가지고 동강이 다 나드라고요. 애들 적이죠. 일고 여덟살 쯤에. 구경이 대단했죠. 갈 때 치고 가고, 기를 쫓아놓고 일을 하다가, 셋밥 나오면 셋밥 먹고 또 치고 놀다가, 또 논 매고 그렇게 한 거죠. 소리매기는 사람도 있었고. 북 치면서 소리주고. 그런 분들 다 돌아갔죠. 초벌, 두벌 다 했어요. 재미있었죠. 힘들어도 그걸 치면 힘든 건 모르잖아. 흥이 또 나고.

김매기 때도 밥과 술이 참으로 나오며 술은 대부분 막걸리 농주를 준비한

다. 안주는 소허파를 삶아서 한 두 점씩 젓가락에 끼워준다. 점심은 12시에 들어와서 먹고, 2시간 낮잠을 잔 뒤, 2시에 다시 나간다. ‘새밥’이라고 부르는 새참을 먹고, 3~4시경에 한 번 더 차고 논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소리를 하고 악기를 친다.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놀면, 논주인 집에서 술을 내온다.

농토가 넓고 농사일이 많았기 때문에 송산 외 향정, 파주, 고양 등 타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김을 매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했으며, 품값은 일당으로 돈을 주었다.

점심은 12시면 들어와서 점심 먹어요.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낮잠 자요. 그리고 두시에 나가요 인제. 새참은 인제 두시에 나가잖아요. 그럼 새참은 인제 오후 3시나 4시 안에 또 나와요. 밥을 내오죠. 술하고. 또 매고 나면 그 사이에 또 술 내오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매다가 인제 해 넘어가면 들어오죠. 그때는 주로 막걸리죠. 농주. 고기도 소허파 같은 거 삶아서 젓가락에다 하나 끼워 주는 거예요. 그거 술안주라고. 일산 시장가서 사오죠. 한 8키로 되요. 거리는. 올적에 인제 저녁에 그때도 치고서 들어오죠. 저녁 먹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놀죠. 저녁 먹고 나면 그 논을 맨 집에서 앉아서 놀면 또 주죠. 술이랑 먹으라고.

옛날에는 모내고 나면 20일 지나면 호미로 김을 매요. 그럼 사람이 부족하죠. 여긴 논이 많으니까 동네사람으로 부족해요. 그럼 타동 사람들을 송산동 아니야. 그럼 여기보다 먼저 끝나는 동네에서 이쪽에 거기서 사람 데려다가 하고 그랬죠. 양력 5월 10일부터 모내기 시작하면 말이면 끝나잖아요. 모를 내면 한 20일 25일 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농기계가 생기니까. 품삯은 이제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돈으로 다 줬죠.

음력 7월 백중에 두레패가 백중놀이를 했다. 돈이 있는 동네에서 두레가 조직되는데, 노루뵈, 거구뵈의 두레가 대표적이었다. 송산동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수막산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논다. 그리고 한강 제방을 돌아서 마을로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김매기까지 마치고 나면 퇴비를 많이 했다. 풀을 베다가 소똥을 섞어서 재운다. 이곳에서 닭똥은 독해서 벼가 말라죽기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전에 풀 한 짐을 올리는데, 소 먹이고 퇴비하려면 풀이 많이 필요했지만, 마을에서 풀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음력 7월은 돼야 한가해요. 백중되면 백중놀이들을 두레패가 같이 해요. 그때쯤 놀죠.

백중날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가하죠. 여기는 산에 가서 가까운 수막산 가서 이제 놀거나. 그냥 동네 한번 도는 거죠. 어느 동네 가서 술 먹고 이러는 거죠. 거구뵈에서 노루뵈 갔다가 이제 뵈미, 대화동인데 뵈개, 추산, 움송굴, 탑굴 이렇게 돌아서 우리 마을 들어오면 하루가 다 가죠. 두레뵈가 다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있는 동네나 하지. 뵈개가 제일 컸어요 거기가 5개 부락이 모여 있으니까.

퇴비도 많이 했죠. 풀 비어다가 이제 농사지으면 집집마다 소 기르니까 소뵈이랑 섞어서 재는 거죠. 닭뵈은 논에다 넣으니까 독해서 다 죽어요. 벼가 거의 죽어요. 너무 비료기가 켜서. 밭에는 많이 쓰는데. 퇴비풀은 7월에 김매고 나면 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독려하죠. 조반 전에 풀 한짐 비어다가 재 놓고. 틈만 있으면 가서 풀 하는 거죠. 근데 풀도 없어요 소 맥이고 퇴비하고 하나니까.

마을 농사는 모두 이른 벼를 심었으며, 품종은 은방벼, 팔달, 오금도, 은방조 등이다. 은방벼는 먼저 익지만, 참새 떼들이 모여 피해가 심해 그 이후로 심지 않았다. 새가 오면 강통을 두드려서 새를 쫓고, 또 동아줄을 후려쳐서 쫓기도 했다.

옛날에는 벼가 은방이 있고 또 은방벼, 또 팔달, 오금도 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추석 전에 이른 벼가 새떼가 어떻게 쪼는지요. 은방조라고 그게 제일 일렀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수확은 어렵다고 봐야죠. 차례는 묵은 벼가지고, 새는 그냥 강통 같은 거 두드리죠. 그때 뿐이에요. 금방 또 오죠. 그 벼가 제일 일르니까 인근에 아무것도 안 익었는데 거기만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지.

이른 벼를 심었지만, 추석에 햅곡식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는 묵은 벼로 차례를 지냈다. 양력 8월말에서 9월 초에 벼가 패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참게들이 많았다. 참게는 딱지가 5~6살 먹은 아이의 손등만한 크기였다. 벼꽃이 떨어지면 이것을 주워 먹으려고 게들이 올라왔다가 물이 마르면 게가 강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 무렵에 참게잡이를 많이 했다. 참게는 게막을 쳐서 잡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원두막처럼 뽕죽하게 세우고 이영을 엮어서 두른다.

게막은 뽕쑥대를 엮어 밭을 짜서 친다. 원두막 안에서 석유등잔을 켜고 밤새 잡았다. 이렇게 잡은 게는 간장에 젖을 담거나 소금을 넣고 삶는다. 게는 살이 잘 빠져서 먹기가 좋았으며, 꽃게보다 크기가 작았다. 꽃게장은 진해서 밥에 없어 먹으면 맛이 좋았다. 또 많이 잡을 경우에는 일산장에 내다 팔거나 장사들이 들어오면 판매한다. 1970~80년대 제초제를 쓰면서 게들이

사라졌다. 현재 농약은 송포농협에서 드론으로 살포해준다.

참게가 무척 많았죠. 그전 양력으로다가 8월 말경. 한 8월 23일경 되면 벼꽃이 패거든요. 그럼 참게들이 무척 올라와요. 참게 크죠. 딱지가 이 애들 다섯여섯 먹은 애들 손 두께 만할 거예요. 그게 눈에 있다가 벼가 패잖아요 그럼 벼꽃이 떨어지거든. 그럼 그걸 주워 먹으려고 올라와요. 그럼 물도 마르잖아요. 그럼 이제 게가 강으로 죄 내려가요. 내려갈 때 게막을 치잖아요. 그럼 잡아가지고 망태에다 담아요.

움막을 원두막처럼 이렇게 비 안 맞게 그 사람이 안에 앉아서 밤새 잡는 거지. 불은 석유에 등잔밖에 더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대여섯개 이영을 엮어서 대면 원두막이 되는 거지. 게는 잡아서 팔죠. 장사꾼이 오는 사람 있고 내다 팔기도 하고, 일산 장에. 그게 값이 괜찮은 거예요. 첫 담그죠. 장에다가. 또 조금 넣고 삶아요. 그럼 그게 살이 아주 쫄쫄 잘 빠져요. 그렇게 찌셔도 먹고, 장이 아주 호도 빛이 나오 그렇게 진한. 그거에다 간장에 이렇게 담그면 아주 맛있죠. 게막은 뽕쭉대라고 있어요. 그걸 밭을 이렇게 엮지. 농약 때문에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눈에 호미로 이렇게 김매다가도 많이 잡았어요.

9월~10월에는 추수를 한다. 추수를 하고 벼를 타작을 할 때도, 타동네 사람들의 품을 사서 일을 했다. 파주 법원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다.

1970년대까지 음력 10월에는 산제사를 지냈다. 시제산에서 10월 15일 경에 산치성을 드렸다. 마을 제사는 중단된 지 30년 정도 되었다. 강매리에서는 제물로 소머리를 쓰지만, 송산동 덕이 5리 가랴미에서는 돼지 2마리를 잡아 산치성을 올린다. 제주가 축을 읽으며, 해마다 바꾸지 않고 같은 사람이 맡아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 지내기 3~4일 전에 산에 향아리를 묻고 술을 담는다.

제사 당일 소나무에 소머리, 묵어1괘, 대추, 밤 1대씩, 떡 시루를 가지고 마을 남자만 5~6명이 밤 11시쯤 산에 올라 산치성을 올리고 자정에 내려온다. 제주 집에서 음복 후 이튿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한잔씩 한다.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집집마다 쌀 5홉씩을 건어서 이 돈으로 장을 본다. 제사 때 집집마다 올린 소지는 한 번에 모아서 태운다.

마을 제사는 우리 동네 산제사가 꼭 있었어요. 10월 달에. 70년까지 지냈는데. 여기 시제산이 있어요. 산치성이지. 지금도 소나무는 하나 있어요. 제단 같은 건 없고. 소머리 하나, 묵어 하나, 대추 한 되, 밤 한 되, 떡 한 시루. 시루떡. 제주있고 축 읽는 사람 하나 있고. 해마다 지냈는데 우연히 안 지내게 되었어요. 바꾸지 않죠. 하던 사람이 하죠. 내가 꼭 그걸 했으니까.

내일 모레 지낸다고 하면 이제 산에 가서 술을 해요. 찬 데서도 이렇게 막걸리가 되요. 10월 한 보름께해요. 터줏가리 해서 담그고 짬으로 엮어서. 산치성 그 아래다가. 항아리에 묻어서 술 담그고 그 위에다가 짬으로 엮어서 터줏가리 해 놓죠. 사흘정도 하면 대충 익어요. 제주가 다 하고. 장보는 것도. 장은 동네가 다 하나씩 집집마다 이렇게 쌀을 얼마씩 다 걷어요.

그 걷은 거 가지고 소머리하나 사고 북어 사고 밤 한 되, 대추 한 되. 백지를 다 하나씩 집집마다 걷어서 소지 올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태우죠. 여자들은 못 오고 남자들만 한 5명 6명 모여서 가죠. 시간은 한 11시 정도나 저녁에 가서 드리고 내려오면 집에 와서 제주 집에 모여서 술 한 잔씩 먹고 헤어지죠. 금줄은 안 했는데 제주 그 집에는 드나들지 못해요. 그 이튿날은 동네 사람 다 와서 술 한잔씩 마시고.

겨울에는 화목을 하는 것이 일이었으나, 이 마을은 농사가 많아 땀감으로 짬보다는 화목을 더 많이 사용했다.

(4) 거구뢰마을의 놀이와 여가

구산동 거구뢰에서 조사된 놀이는 기싸움, 돌싸움, 불싸움, 깡통돌리기, 투전, 골패, 화투, 자치기, 제기차기, 술래잡기, 장기, 장기, 그네뛰기, 널뛰기 등이다. 거구뢰에서 특징적인 놀이로는 두레 논매는 시기에 인근 향정1리(구산1리)의 탑굴과 큰 농기로 기싸움을 했다. 이때 삼으로 농기를 때려 두동강을 내고, 깃봉을 뽑으며 매우 격렬하게 놀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에도 거구뢰와 인근 탑굴마을과 돌싸움과 불싸움을 했다. 한편 이 마을은 곤지라는 놀이는 하지 않았으며, 투전과 골패는 노름이라 해서 피씨집안에서는 금지했다.

정월 보름에는 쥐불놀이, 불싸움, 돌싸움을 했다. 거구뢰에서는 주로 윗동네 향정과 돌싸움을 했다. 건너 마을인 노루되는 파주 살남리 궁말이라는 곳과 주로 싸움을 벌였다. 거구뢰에서는 대개 10~15세 가량의 남자아이들이 윗동네의 골밭에서 주로 향정과 싸움이 벌어졌다. 돌을 맞고 돌아오면 어른들이 쫓으로 문질러 주기도 했다. 싸움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너 혼난다. 너 죽인다” 하면서 쫓고 쫓으며 벌어진다.

그리고 깡통에 불을 넣어 휘두르기도 했다. 6.25 전쟁 전에는 짬단을 묶어서 햇불싸움을 했으며, 전쟁 이후에 깡통이 많이 생겨 깡통으로 싸웠다. 깡

통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작은 나무조각을 넣고 불을 붙여 돌리다가 상대편에게 던졌다. 어떤 때는 어른들이 뒤에서 애들을 부추키며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돌싸움은 애들 때는 하죠. 애들 때 했죠. 대보름 꼭 아니더라도. 웃동네하고 우리하고 돌팔매를 하는 거죠. 향정동네. 정월 보름에는 쥐불. 불싸움들 하고. 스무 살 넘어서는 안 하고. 열댓살 정도. 골밭이라고 큰 밭이 있었어요. 그 동네 애들하고 우리 동네 애들하고 돌매질 하는 거죠. 침에 이제 장난하다가 한명이 약하면 점점 애들 좀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쌈하면 애들 자꾸 모여들잖아요. 맛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맞죠. 멀리 떨어져서 하니까. “너 죽인다, 죽인다” 하면서 “너 혼단다” 이러면서 던지는 거죠. 돌 던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쫓겨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많이 모일 때는 한 열 명 이상 정도는 모였을 거예요. 머리 터지면 놀다가 어른들이 깨진데 쭉 같은 거 이런 거 문질러 주고 그러죠.

불싸움은 논두렁에 불을 놔서 그제 건너 동네로 들어가죠. 깡통에 구멍 뚫어 가지고 돌리면 그제 이제 불이 살아나잖아요? 깡통은 6.25나고 나서 생겼지 그 전에는 없었죠. 그전에는 헛불로 그저 짚단 묶어가지고. 그제 이제 깡통을 던지면 이웃동네에. 동네끼리는 안 하고 저 건너 동네에 노루뿔 그리고 파주에 궁말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그렇게 쌈을 하고. 여기는 다 송포국민학교. 다 선후배인데 뭐 밤에 잘 안보이잖아요. 대보름부터 시작하죠. 며칠 동안 하죠. 재밌잖아요. 애들 때 좀 재밌어요. 불가지고, 동네 걸음마 하는 애들까지 다 모이죠. 그럼 한 20명 정도 모여서. 여자들은 안 끼고.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스무 살 넘어서는 안 하니까 열일곱 여덟정도.

거구뵈를 비롯하여 인근마을 아이들은 모두 송포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돌싸움이나 불싸움을 할 때는 학교와 관계없이 사는 마을을 기준으로 편을 나눴다.

돌싸움은 낮에, 헛불싸움은 밤에 논다. 대보름날 시작해서 정월 한 달을 이런 놀이를 놀았다. 걸음마 걸을 줄 아는 아이들은 다 모일 정도였으며 대개 15~20명 정도는 항상 모였다. 20세가 넘으면 하지 않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17~8세였다.

또 겨울에는 연을 날린다.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만들었는데, 가오리연은 꼬리를 긴 것으로 수수깡 하나로 쉽게 만들며, 잘 뜬다. 그러나 장대연은 살 5개가 필요했으며, 머리살이 가장 중요하다. 마을에서는 대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남의 집 갈퀴살 2~3개를 뽐아다가 창호지를 발라 만들었다. 창호지 1장이면 연 2~3개를 만들 수 있다. 갈퀴살을 뽐아서 창칼로 납작하게 밀

고, 십자로 연결한 뒤 살이 뒤집히지 않게 당기줄을 묶는다.

연의 줄은 총 3개다. 창호지를 바른 뒤, 물을 한번 뿜어 화롯불에 말리면서 팽팽하게 한다. 다 만들고 난 뒤, 검은 색 띠를 연 양쪽 아래 모서리에 한 뼘 정도씩 달아서 밧을 내기도 한다. 연감개는 아이들이 만들기 어려워 노인들이 만들어 주었다. 5~6명씩 앉아서 누가 높이 뜨나 시합을 하며 놀았다,

연은 애들 때 놀게 있어요. 연 맨들어 띄우고 전보산대 뭐 아무것도 걸릴게 없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살이 이렇게 5개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살이 무거우면 안 가요. 그럼 잘 깎아야 해요. 납작하게 얇게. 이렇게 칼로다. 잘 이렇게 휘고. 대나무는 갈퀴 남의 집 갈퀴가서 몇 개 뿜아가지고. 한 개 가지고 안 되요. 천상 그제 두 개 한 세 개는 가져야 해요. 그땐 대가 귀하잖아요.

방패연이죠.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제 이제 찰지잖아. 그럼 살을 거기다 이렇게 묻히면 그걸 이제 연에다 붙이고. 위에 하나 이렇게 휘어서 가로로 있고 두 개 엑스로 그리고 하나 더 가로로 지르고 아래 하나 가로로. 살에 맞게 창호지를 자르죠. 창호지 하나면 세 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물을 머금고 확 뿜어요 그럼 젖잖아요. 그럼 이걸 화로불에 말리면 아주 팽팽하게 되지. 가운데 구멍 뚫고. 가운데는 살 뒤집히지 말라고 실로 이렇게 묶죠. 그림은 지금이나 그리고 옛날에는 꼬랑지에다가 검은 물감 해가지고 양쪽 끝에 달고.

길이는 짧게 한 뼘 정도. 누구 연이 잘 뜨나 쪽 앉아서 띄우죠. 연감개는 노인네들만 들어주는 걸로 하죠. 보통 네 개 여섯 개짜리도 있어요. 부모들이 다 맨들어 주고. 우리 애들은 개구리연. 가운데 수수깥 하나 해가지고 꼬랑지 길고 그거 만들기 쉽죠.

이 밖에 남자아이들의 놀이로 제기차기가 있다. 엽전을 구해, ‘인천지’라 부르는 잘 찢어지는 종이를 엽전의 구멍 사이로 통과한 뒤, 가늘게 찢어서 만들었다. 3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찼다.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차는 방식이었으며 양발차기는 해보지 않았다. 팽이치기, 자치기는 국민학교 때 겨울철에 많이 놀았으며, 자치기는 100이 넘으면 상대에게 군밤을 주었다.

여름에는 천렵을 했다. 한강이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수문웅덩이 연못이 있어 그곳에서 수영을 했다. 또 강에 붕어새끼가 많아 주전자에 담아서 가져왔다. 가져온 물고기는 크기가 손바닥 정도로 고추장을 넣고 매운탕으로 끓여먹었다. 흙내가 났지만 대가리를 떼면 그나마 먹기에 괜찮았다.

여름에는 한강 가기 전에 여기 큰 연못이하나 있었어요. 우리들은 거기서 그냥. 수문웅덩이라고. 연못인데 커서 웅덩이라 그랬어요. 수영도 하고 붕어새끼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주전자 이렇게 가져다 담아요.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 사람 발자국에 붕어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잡아서 주전자에 담아요. 가져와서 인제 매운탕을 해먹거나 고추 좀 따 넣고 졸여먹고.

음력 7월경에 김매기를 마치면 남자아이들은 꼴을 베러 다녔다. 오후에 장기를 두다가 5시~5시 반이 되면 소 먹일 꼴을 베러 간다. 장기는 어른들이 놀던 것이며, 아이들은 동갑내기들끼리 두면서 배웠다. 피상곤은 장기 가는 길 정도만 알고 있다. 이외에 술래잡기도 했는데, 남녀가 따로 놀았으며, 공기놀이는 1~2명의 남녀아이들이 함께 놀았다.

5월 단오 때는 피상곤 윗대에서는 저녁에 씨름대회를 했다. 그네(‘건너’ 발음)는 어릴 때 구경만 했으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뛰었다. 정초부터 정월까지는 널뛰기를 했다. 남녀 모두 널을 뛰었으며, 남녀가 따로 놀았다. 또, 전쟁 후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정월에 마을단위로 척사대회를 열었다. 향정에 척사대회가 많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마을 단위로 비료 20포대, 10포대씩을 상품으로 걸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두레를 쳤으며, 파주 삼다리 양조장에서 소주를 2~4병씩 준비했다. 정월 보름을 전후로 많이 놀았으며, 2월까지 노는 경우도 있다. 척사대회에 참가하려면 표를 사야 했으며, 이 돈으로 상품을 준비했다.

웃놀이 대회 있었죠. 척사대회 정월달에도 하고 정월 지나고 2월 달에도 하고. 날 잡아서. 이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부근 사람들 다 모이죠. 상품은 비료 한 스무포 비료 구하니까. 1등은 스무포 2등은 열포 이렇게. 삼등은 송아지. 비료가 더 비쌌으니까. 60년도 초지요. 50년도 후반. 상품은 동네에서 주최죠. 이장이 아니고 개인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전쟁 후에. 58년도 59년도.

상품은 웃을 놀려면 입회금을 내야하니까. 그 돈 가지고. 인제 웃을 놀라면 한판에 천원이면 천원, 오천원이면 오천원, 그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그럼 진 사람은 표를 또 사가지고. 놀고. 향정에서 많이 했어요. 이 동네가 아니고 이 윗동네. 두레 또 치죠. 시작할 때 치고, 또 동네마다 치면서 다니지. 사람 모을라고.

남자 어른들은 정월에 화투를 치며 놀았다. 동네에서 투전이나 골패를 하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은 땅을 모두 팔아먹고 거지가 되는 겨웁도 있었다. 이 동네에서 화투는 나이롱 뽕치기를 주로 했다. 화투를 쳐서 1등 안

내고, 2-3등은 닭 한 마리를 볶아서 국수에 말아먹으며 놀았다. 주로 피상
곶이 30대 때에 겨울철 농한기에 사랑방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화투를 치
며 놀았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구리시

3. 구리시

가. 구리시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

(1) 한다리마을 개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橋門洞)은 구리시의 중부에 위치하며, 망우리 고개 아래에 있다. 조선 시대 양주목 구지면의 일부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문동(里門洞)과 백교리(白橋里) 전부, 인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백교의 '교'자와 이문의 '문'자를 본떠서 교문리(橋門里)라 한 데서 유래한다. 1986년 시 승격으로 교문동이 되었다. 1995년에는 교문1·2동으로 분동되었다. 이문동은 아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 동쪽 골짜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리(里)를 표시하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문은 본래 동네 어구를 가로막아 낸 커다란 문을 뜻하는데, 도적을 막고 마을 앞에 방책과 출입문을 갖추어 밤에는 통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 백교리는 아치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교', '일교', '대교'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말의 '크다'라는 의미로 '한다리'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흰다리'로 발음된 것이 백교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이씨세보』에 한다리가 '대교(大橋)'로 표기되어 있다. 교문초등학교·교문중학교·백교저수지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²¹⁾

한다리마을은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두 줄기의 산자락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은 큰 다리가 있어서 유래된 마을 이름이며, 원래는 외다리였는데, 내시촌에 가마를 들이기 위해 큰다리가 놓여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지도에는 한교(漢橋), 규장각의 고문서에는 대교(大橋), 일교(一橋)로 표기되어 있다. 원 지명은 한다리인데, 일제 강점기에 발음이 흰다리로 바뀌고, 그 말이 다시 백교(白橋)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입구에는 1997년 12월에 구리시에서 세운 마을 유래비가 서 있다.²²⁾

21) 『한국지명유래집』, 교문동(橋門洞), 국토지리정보원, 2008.12.

2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리시 한다리마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다리저수지는 아차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골짜기의 물을 막아 만들어진 것으로 주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저수지가 있는 마을의 본래 이름이 한다리마을이어서 한다리저수지로 불려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한다리마을이 흰다리를 의미하는 백교(白橋) 마을로 불리면서 이 저수지는 백교저수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다리저수지는 구리시 교문동 일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45년에 건립되었으며, 제방의 폭은 높이 4m, 길이 41m에 이른다.²³⁾

지역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교문1동의 백교리 지역은 마을회관이 있는 한다리마을이 예전에 100여 가구이며, ‘흰달’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위의 정각사가 있는 지역은 셋다리마을로 대략 50가구 정도였다. 그리고 셋다리 위쪽에 이문한 역시 100여 가구가 되는 큰 마을이었다. 한다리마을이 이 지역의 중심이었다. 돌로 된 다리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 노인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 한강 흘러가는 냇가에 다리가 있어, 어른들이 개울을 건너 주기는 했다.

인근 토평 쪽에는 본말, 토막리, 돌섬 등의 마을이 있었다. 김용태(남, 1952년생)에 의하면, 한강이 개발되면서 1970년 쯤에 토평의 윗마을인 토막리 전체와 아랫마을인 돌섬 일부 마을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흰달마을 위의 저수지 쪽(5반 지역)으로 집단 이주했다. 당시 토막마을은 약 16가구 정도였는데, 김용태는 외가가 토막리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

한다리마을은 예전에 강씨가 10여 가구였으며, 여러 김씨(김해 김씨, 안동 김씨 등)가 뒤섞여 살았으며, 방씨도 일부 살았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을은 집성촌은 아니고, 각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한다리마을 인근 토막리에 살았던 홍천만(남, 1924년생)은 부친이 배를 부렸다. 이곳 배가 용산과 뚝섬으로 드나들었으며, 주로 쌀과 땔감을 실어날랐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부친을 따라 용산과 뚝섬까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다. 짐을 부리면 그곳에서 업자들이 인수해서 말마차로 서울 시내로 운반

2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리시 한다리저수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했다. 이곳의 배가 강원도 산골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나, 팔당댐이 생기면서 배가 상류로 올라가질 못하게 되었다.

일년에 두 번 세 번 물이 들어. 토막에서 우리가 배를 부렸다고. 그때 배로 한강으로 실어 나르는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배가 갓잡우. 배로 갔다고, 우리 어른신네들은 강원도 산골까지 다 갔다는데, 그게 배 못 올라간 게, 팔당댐하고 그 위로 배가 못 올라갔지. 차가 없으니까 모두 배로 나갔어요. 용산, 독섬 이런 곳이 모두 배 대놓고 생활물품이 다 그리 나갔지. 그게 식량, 쌀, 또 낭구(나무), 땔감, 그게 업자들이 하는 거지. 용산이나 독섬에 가면 옛날에는 말마차가 잘 끌었어. 그놈이 실어다가 서울 시내에 전부 그거로다가 생활한 거야. 야채는 시골서 헐 마음도 없었어. 쌀하고 나무하고지. 나무를 많이 했지요. 왕십리까지 가고 그랬어요./ 낭구를 베고, 다 배로 실어날랐지. 강원도 어디인지는 우리 모르지. 우리 윗대 어른들이 했지. 우리 아버지가 배를 그렇게 부렸어. 나무로 배를 만들었지요. 나룻배식으로. (홍천만)

이 마을에서는 농사지을 때에 마을 뒤 백교저수지의 물을 사용했다. 이 저수지는 일제시대에 이미 만들었으며 산에 물을 저장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물은 풍족하지 못했으며, 부족한 편이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있는 한강물은 지대가 낮아서 끌어올려 사용하지는 못했다. 예전에는 벼농사 이외에 조, 보리, 밀 농사를 지었다. 나중에는 야채를 많이 심어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생활은 어려운 편이었다.

홍천만(남, 1924년생, 토평 토막리 출생)은 인근 장자못과 관련된 전설에 대해 구술을 했다. 그가 예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 장자못에 못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같은 집에 살았다. 중이 이 집에 와서 시주를 위해 표주박을 내밀자, 시아버지가 소똥을 퍼다 부었다. 며느리가 놀라서 다시 다른 박에다 쌀을 시주하고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었다. 그러자 스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윗내의 광나루 쪽에서 천둥번개가 치자, 장독대에 뚜껑을 덮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산모퉁이의 서낭당에 여자 머리 형상의 돌이 있다고 한다. 읍내에서는 이곳에 장고사를 지낸 적이 있다. 장자못이 명주 1타래 들어가는 깊은 물이라고 했는데, 호수공원이 되고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면 바닥이 보이고, 샘은 없었다.

장자못은 이 앞에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장자못이 있었어요. 우리도 몰르고, 여기 내려

온 거예요. 우리 모친이 100세 넘어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거기 장자못이다라고 들으며 살아왔소. 물이 괴서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는 않았어요.(강영중) 근데, 장자못이 명주 한 타래 다 들어가도 바닥이 안 닿는다고 그렇게 깊었다는데, 여기 공사할 때에 거기 우리 밭이여, 물을 짹 빼고 났더니 바닥이 짹 말랐어. 거기 샘 나는 데도 없어. 그 안으로 자동차가 막 다니며 호수공원을 맨들었는데,(홍천만)

소똥 얘기 있지요. 소똥 잘 몰라요 난.(홍천만) 스님이 동냥을 하러 동네에 갔더니, 부잣집인데, 며느리가 쌀을 퍼다 줄랬더니, 시아버지가 뭐 쌀을 주냐고, 소똥을 퍼나 주었다나봐. 저 아저씨가 잘 아시는데.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들었지. 전설이래.(박광용)

그래 그 장자가 살던 그 집터라고 해서 장자못이래. 옛날 부자 장자라고 하잖아? 그 집터래. 장자못이. 그 우리도 그런 거 전설은 들었어요. 기와장이 나왔고, 옛날에, 중이 시주하라고 왔데. 오니까 그집 시아버지가 그렇게 못 되었다네. 아니 시주하라고 표주박을 내 밀지 않우? 그럼 표주박에다 시아버님이 쑥 뺏어서 소똥을 퍼다주더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걸 보고 아이구, 이게 웬일이냐구 그러며 그것을 뺏어다 쌀을 시주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스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러드래. 그래서 스님이 업고 이 우미네 광나루 쪽으로 가는데, 그냥 별안간 천둥 번개를 치고 우르렁 거리고 하늘이 야단이 드래. 그래 업혀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아이구 장독 안 덮었네. 그러고 뒤돌아보았데. 그랬더니 모가지가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설 이야기야. 그래서 우미네 그 산모퉁이에 서낭이 있어. 서낭이 그 여자 대가리래. 거기 돌로 이렇게 해 놔어. 거기 장고사도 지내고 그랬지. 서낭을 없애지는 못했지.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지. 그건 전설 얘기야.(홍천만)

인근 한강변 토막리에서는 특별히 포구나 접안시설이 없이 장마등에 배를 댔다. 겨울에는 배를 땅 위로 끌어올려서 봄에 다시 물 위에 띄웠다. 겨울에 배를 그냥 두면 한강에 얼음이 얼어서 운행도 못할뿐더러 배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 토막리에는 영월에서 온 뗏목이 머무르면서 서울의 업자에게 넘기는 곳이었다. 이 뗏목의 목재는 뿔감이나 건축 목재로 사용되었다. 뗏목은 물의 수량은 많은 여름철에 주로 왔으며, 이 나무는 물을 머금고 진이 다 빠져서 좋은 목재감이었다. 영월의 뗏목꾼들은 토막리 강가에 뗏목을 대놓고 서울의 업자와 직접 흥정을 했다. 흥정이 끝나면 업자들은 이 뗏목을 다시 뚝섬이나 용산으로 끌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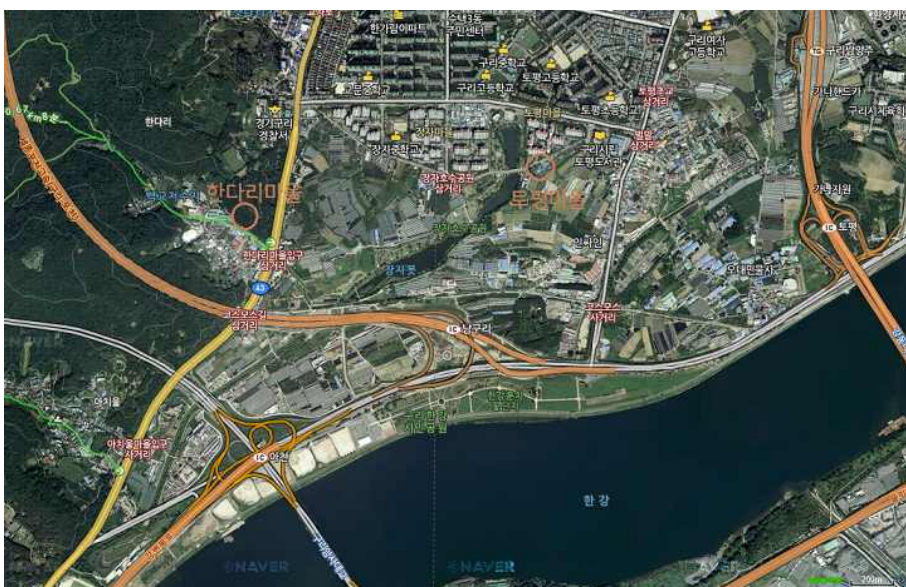
특히 배 대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장마등이라고 강 옆에 대는 거야. 겨울에는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겨울에는 얼어붙으면 나무니까 쪼개지니까. 그래 놓고 봄새 되면 물에다 또 띄우는 거지. 영월에서 뗏목이 이리로 내려와요. 뗏목이 많이 내려왔지요. 서울 시내에서 그 뿔감이나 목재나 이것이 전부, 육이오 전이지요. 뗏목이 남구 중에 최고예요. 산에서 내려온 나무는 나오며 터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뗏목으로 내려오는 건 몇 달을 물 위에 떠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 진이 다 빠져가지고 무슨 공사하던지 탈이 안 나

요. 목재가 최고지. 그래서 그 뗏목으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비가 와여 오지 뭐.

요 토막리가 중개업소지. 뗏목이 거기까지 있어요. 거기다 대 놓고 있어요. 그럼 서울 업자들이 인제 살러 오는 거야. 중개업을 할려고. 그러면 그걸 사면은 여기서는 서울 시내 가는 게 교통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뗏목을 용산이나 뚝섬까정 끌고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로 옮기는 거지.(홍천만, 강영종)



〈그림 1〉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 세부도



〈그림 2〉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 전경

(2) 한다리마을 토박이의 삶

한다리 마을의 주요 조사대상자는 홍천만(1924년생, 토막리 4대, 한다리마을 70여년 거주), 박광용(남, 1952년생), 김용태(남, 1952년생, 4대, 전 통장), 강영종(남, 1929년생, 4대) 등이다.

가장 고령자인 홍천만은 남양 홍씨로, 이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토막리 출생이다. 아들이 현재 71살인데, 토막리에서 출생해서, 돌잔치는 이 마을로 옮겨 와서 지냈다. 따라서 홍천만은 한다리마을에서 약 70년 정도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증조부 때에 토막리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4대에 걸쳐 살았다. 할머니께서 아들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으며, 쌍둥이 부친은 큰집에서 따로 살았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재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모께서 3살 때에 세상을 떠나며 많은 고생을 했다.

그는 18살 되던 해에 일본의 도야마강의 제철소 광산에 가서 근무를 해서 해방이 되던 22살에 되돌아왔다. 징용은 아니며,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 따라서 대략 1941부터 1945년 사이로 여겨진다. 그가 있던 제철소 광산은 혼슈 북쪽의 아오모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해도 바로 아래 지역이다. 나중에 징병 통지가 나와 2차 신체검사까지 받았고, 갑종 예비 영장까지 나왔는데, 생일이 늦어 징병은 피할 수가 있었다.

(3) 한다리마을의 세시풍속

한다리마을에서는 정초에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쌀을 추렴했다. 강영종(남, 1939년생)은 13-14살 시절로 기억하며, 전쟁 직전이라고 한 점에서 1940년대 후반으로 여겨진다. 대개 여유있게 사는 집을 골라 4-5가구 정도만 다녔으며, 그 집에서는 쌀을 내고 술을 대접했다. 집마다 다니며 논다는 표현을 하는 점에서 추렴보다는 정초에 각 가정의 복을 빌면서 한바탕 노는 형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월대보름에 달님에게 짚으로 화를 만들어 소원을 빌었다. 달을 향해 화를 위아래로 흔들며 각자 소원을 빌었다. 1980-90대에는 짚으로 만들었으나, 60대 후반은 강통을 돌렸다. 이 동네에는 두레는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김

매기는 전쟁 이후 시기에는 품을 사서 댔다.

한다리마을은 예전에 홍수의 피해가 자주 있었다. 7-8월 장마가 가장 무서웠으며, 인근 토평 쪽의 토막리를 비롯해 이 주위에는 한강이 범람하면서 여러 번 홍수의 큰 피해가 있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넘쳐 한다리마을 앞의 논밭은 물론 마을앞까지 물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현재 두레마을 있는 윗까지 피신을 했으며, 토막마을 사람들도 이곳으로 피신을 했다. 이곳에 제방을 쌓고, 이어 팔당댐(1973년 완공)이 생기면서 홍수의 피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댐이 생기고 나서도 댐의 수문을 모두 열면 이 마을 앞이 물로 가득 찼다. 인근 토막마을, 본말, 수니피 앞 수택동, 장자못 호수 이런 곳이 모두 물에 잠긴 적도 있다.

홍천만(남, 1924년생)에 의하면 비가 올 적에 그물을 이용해 한강에서 고기를 잡았다. 주로 잉어와 송어가 많이 잡혔다. 겨울철에는 얼음 위에 구멍을 뚫어서 삼봉낙시를 했다. 이 방식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가 줄을 건들면 잡아채서 잡는 방식이다. 본인은 낙시에 취미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강영종은 15살 적에 이곳 새울에서 참게를 잡은 적이 있다. 참게 막을 만들어 한강에서 올라오는 게를 잡았다.

한다리마을의 대동고사는 음력 10월 1일에 고정되어 지내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예전에 마을 입구에 있던 수백년 된 향나무 앞에서 마을을 지키는 할머니, 할아버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1975년쯤 도로가 나면서 나무를 옮길 수가 없어서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이곳은 도로가 두 번에 걸쳐 새로 닦여졌는데, 1970년대 중반에 한 번 닦고, 1980년대에 방위선이 설정되면서 다시 직선으로 도로가 생겼다. 고사의 비용은 현재 마을기금으로 하지만, 이전에는 마을 이장(구장)이 3-4일 전에 걷었다. 1인의 제주는 주로 마을 어른 중에 깨끗한 분 중에 선정한다. 제주는 목욕재계하고 살생을 금했으며, 특별히 외출을 삼갔다. 그리고 나무로 된 기러기 형태의 솟대를 할머니, 할아버지신 앞 양쪽에 2개를 각각 세웠다. 이 기러기는 반장이 깎거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세웠다. 고사를 지내는 날은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온다.

대동고사의 제물로는 육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물로는 북어, 시루떡, 삼

색과일(대추, 배, 사과, 감) 등을 준비한다. 따라서 제물은 대체로 간단하다. 소지는 동네 일부 유지만 하고, 지금도 동네소지를 올리며, 축문은 별도로 없다.

제사의 주관은 예전에는 제주 1인을 뽑아서 맡겼으나, 요즘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대신한다. 고사 10일 전쯤에 방송을 해서 마을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미리 주민에게 알린다. 제주 집에는 창호지, 솔가지 등을 끼워 금줄을 만들어 걸었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 마을 대동고사 이외에 산신을 위한 산제사는 없다.

토평의 토막리에서도 70여년 전까지 마을 단위로 대동고사가 있었다. 그리고 토평의 본말에는 본말 중심으로 본말도당굿이 있었다. 여기에는 상달에 날을 잡아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다. 이 마을 주민 중에서 본말도당굿에 간적도 있다.

겨울철에 한강이 얼면, 곳곳에 구멍을 뚫어 그물을 놓고, 물고기를 잡았다. 대나무를 얼음 속에 넣어 휘저으면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다. 예전에는 한강이 자주 얼었다. 특히 6.25 전쟁 때에는 한강이 얼어서 소와 사람이 마음대로 건너다닐 정도였다. 당시 광나루 밑의 강이 고여 있어서 겨울철에는 얼음이 단단히 얼었다. 그런데 한강 개발을 하면서 모래와 자갈을 파서 강이 일직선이 되면서 물이 잘 흘러가지 않게 되자, 얼음이 잘 얼지 않게 되었다.(홍천만)

이 마을에는 겨울철에 땅을 파고 움을 만들어 겨우내 마을공동 휴식과 작업공간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가을에 추수한 이후인 양력 11월 경에 만든다. 대체로 마을 고사 이전의 시기이다. 그리고 양력 3월에 해체해서 그 땅에 밭농사를 짓는다.

움의 깊이는 사람 배꼽 정도이다. 앉을 경우에 등을 기댔 정도의 높이이다. 그리고 넓이는 꽤 넓은 편인데, 대체로 폭 7-8m, 길이 15-16m 정도로 웬만한 큰 방보다 더 크다. 주민이 동원되어 2일에 걸쳐 땅을 파고, 지붕은 서까래를 엮은 다음 위에 이엉을 얹어 덮는다. 이 서까래는 철거한 다음에 보관했다가 이듬 해에 다시 사용한다. 벽은 흙 위에 이엉과 서까래를 대서 만들며, 바닥은 가마니와 짚을 깐다. 움은 겨울철에 난로를 때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훈훈하다.

이곳은 노는 장소이면서 작업장의 역할을 한다. 노인들이 장기를 두거나, 장구를 배우고, 새끼를 꼬거나 공석(거적)을 만들기도 한다. 박광용(남, 1952년생)은 이곳에서 제비장단을 배우기도 했다. 오미는 남자들의 전용 공간이며, 1968-1968년부터 만들지 않게 되었다. 대체로 마을회관이 생기면서 소멸된 것으로 여겨진다.

옴이라고 가을에 땅을 파요. 그 속에 서까래를 걸어서, 이엉을 엮어서 흙을 덮어서 곁에 다 이엉 엮어서 땅속에서 겨울을 지내요. 안 추었어요. 명석도 치고, 새끼 꼬고, 가을에 탈곡 다 하고요, 추수 끝내고 열기 전에 다 만들지요. 양력으로 11월달 될 거예요. 우리는(김용태) 양력으로 계산이 빠르지요. 마을고사 이전에 다 하지요. 고사는 음력으로 지내고, 땅은 배꼽만큼 파요. 들어가 앉아서 기대면 등에 기댈 정도지요. 마을회관 이 정도는 돼요. 아니 이것보다 넓지. 공석들을 뒷목에다 2개 놓았으니. 공석들은 거적 짠 거라고. 도로변에 이런 거 나이롱 끈으로 요만하게 찼잖아요. 겨울에는 땅 녹혀서 야채 심을려고 그거 하지요. 양력으로 이쯤에 땅을 녹일려고 만들지요. 구정 지나면 씨앗이 들어가고, 삼사월이면 그제 나와요. 야채가, 조선배추지. 길이가 십오륙미터, 폭은 이것보다 넓어요. 한 칠팔미터 정도 되지요. 그거 파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협조를 잘 하지요. 파는 걸 이틀을 해요. 그때만 해도 단합이 잘 되었지요. 철거는 구정 쉬고 한 삼월달 쯤에 했지요. 거기다 야채라도, 곡식이라도 심어 먹으려니까 3월에 헐지요. 지붕은 이엉으로 엮고, 서까래라고 거기다 흙을 치고, 거기다 이엉을 엮으니까, 출입이 안치요. 이만큼 컸지요. 예전에는 나무가 좋아가지고 서까래는 해마다 다시 쓰지요. 비가 와도 썩지 않게 하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았지요. 짚 깔고, 시방같으면 먼지 난다고 하지만, 거기서 잠도 잤어요. 그렇게 따뜻했어요. 난로 같은 건 안 땀어요. 땅속이라 따뜻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송장도 겨울에 썩지, 여름에 안 썩는다고. 겨울에 썩는 거지, 여름에 안 썩어요.

노인네들이 심심하면 장기도 두시고, 여러 가지죠. 장구 같은 것도 치시고, 제비장단도 쳤어요. (1924)옴이라는 곳은 노는 장소도 되지만 작업장이라고, 그 새끼 꼬고, 여기는 가마니는 별로 안 쳤어요. 공석이라 거. 공석은 거적 친다는 거.

거기는 남자 전용이에요. 여자들은 안 와요. 여자들은 어디 남자들에게 말을 한 마디 붙여요? 어디 말대꾸나 해요? 젊은 사람들은 가지도 못 했어요.

옴이 없어진지가, 그제 68-69년대에 없어졌을 거예요. 개화가 되어 마을회관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이젠 없어진 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을회관 생기면서 그제 없어진 거예요.(핵심 제보자 김용태, 홍천만, 박광용)

(4) 한다리마을의 놀이

그네는 단오 때에 뛰었다. 박광용(남, 1952년생)에 의하면 단오 때에 그네를 매기 위해 몰래 벌말에 가서 나무를 베어 훔쳐온 적도 있다고 한다. 마

을에 그네를 메고 주로 여자들이 났다.

썰매는 주로 앉아서 타는 썰매이다. 굽은 철사를 이용해 밑에 날을 만들었으며, 못을 이용해 꼬챙이를 만들었다. 여름철에는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살다시피 했으며, 수영으로 강을 건너기도 했다.

씨름은 어린 시절에 강 건너 한강 백사장에서 아이들끼리 한 적이 있다. 토막마을에서는 여름철에 강 건너로 수영을 가서 바위자리(암사동) 아이들하고 장난으로 한강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한 적이 있다. 특별히 단오라는 시기에 한 것은 아니다.

연은 정월대보름까지 날렸으며, 이후에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주로 꼬리연을 만들어 날렸으며, 60대 후반 세대는 연줄에 사기가루와 밥을 섞어 입혀서 연싸움을 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남양주시

4. 남양주시

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1) 시우리 마을개관

남양주시는 조안면 시우리와 와부읍 월문 4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우리는 마을 앞으로 시우천이 흐르는 운길산 뒤의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자연마을은 동간, 내치 등이 있다. 이 마을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갑자기 비가 오면 시위(큰물)가 잘 나므로 시우골, 시우동이라 하였다고 하며, 구한말에는 시우터라고도 불렀다. 동간은 신라의 마의태자가 금강산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쉬어간 곳이라 하여 시우터라 불려오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동간이 되었다. 내치는 조선시대에 내시를 많이 키워 궁에 들였다 하여 내치부락이라 부르던 곳으로, 행정개편 때 내치가 되었다.²⁴⁾

주민에 의하면, 시우리는 조선 후기부터 1970년대까지 누에치기가 성행한 마을로, 앞 산 자락에 뽕나무가 많았으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 양잠을 적극 권장했다고 한다.

1970년대 마을에 축사가 생기며 누에를 키울 수 없게 되었는데, 소똥과 누에에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동네 위쪽의 평풍바위는 마의태자가 금강산에 가다가 쉬어가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활시위터가 있었다. 한편 마을에는 1940년대까지 은퇴한 내시 2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석윤(남, 1938년)에 의하면, 시우리에는 예전에 100여호가 살았으며, 그 중에 어릴 적에는 광주 이씨가 10여호 쯤 살았다. 이곳은 옛날에 시울터라고 했다.

시우리 이장 윤영섭(남, 1967년생)에 의하면, 시우리는 현재 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약 20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시우리 1-4반까지는 원주민이 살고, 5반은 외지인들이 살고 있다. 노인정이 있는 아랫말은 1-2반이고, 윗말은 4반이며, 이장의 가게가 있는 곳은 샘말로 3반이다. 그리고 월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마을은 5반으로 머치(내치)동네라

24) 「시우리」, 『두산백과』

고 한다. 그 동네는 내시가 살던 곳으로, 내시 교육 기관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5반의 머치는 와부읍에 속해 있다. 머치는 나중에 내치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네는 한강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

류재풍(남, 1940년생)에 의하면, 이곳은 개울을 경계로 해서 남쪽은 광주군 초부면이었으며, 북쪽은 양평군에 접해 있다. 가운데 마을을 동간부락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에 우의정을 지낸 문화 유씨 유량²⁵⁾ 선생의 묘소가 있다. 그리고 이장 집 뒤에는 예전 활시위터가 있던 곳이다. 궁중에서 사람이 오면, 덕소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곳에서 활을 쏘고, 월문2리 다리골에서 식사를 하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 내시가 살았던 마을이다. 마을 뒤에는 마의태자가 금강산을 가다가 지나갔다는 평풍(병풍)바위가 있다. 이 마을에서 월문리로 넘어가는 곳의 언덕 쪽에 있으며, 마의태자가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다산 살던 곳이 8내지 10킬로 되지요. 거기다 다산의 생가이고, 거기 묘 있지요. 옛날에 여기 내시가 있었거든. 우리 어려서도 여기 내시가 있었어요. 활시위터, 여기가 개울이거든요. 개울을 기준으로 이쪽은 광주군 초부면이고, 마을 이름이 광명부락. 요 동산 뒤에가 활터요. 이장집 뒤쪽이죠. 이 산이 활터이죠. 지금 흔적은 없고, 다 개인 땅으로 넘어갔고. 예전에는 중턱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죠. 활터는 궁중에서 마제 정약용 묘소 있는 곳까지 말을 타고 오고, 여기에 와서 활을 쏘고, 월문 가서 식사하고, 덕소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죠. 궁중에서 내시들하고, 임금도 가끔 지나가고. 월문 2리가 다리골이라는 있는데, 궁중에 있던 홍판서가 거기가 고향이요. 거기에서 우측에 글개울이라고 있어요. 달이 지도록 글을 읽었다는 곳이야. 선비들이 있던 곳으로 원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토박이들이 좀 살고 있지요. 저기 보이는 산, 개울 건너편이 양평군이야. 요기가 양주군이 여기까지 뻗었어요. 여기 가운데가 교회 있는 곳 기준으로 사이 간자를 써 가지고 동간부락이야. 이게 아래 위가 갈라졌었지.

중간에 올라가시다 보면, 평풍바위가 있어. 마의태자가 금강산을 가다가 이곳을 지나갔어, 가다가 여기서 쉬어갔다고 해서. 임금과 태자가 있으니까 평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위가 평풍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평풍바위에요. 지금도 바위가 있어요. 여기 월문리 넘어가는 중간에 있지요. 정원주택 가기 전에 언덕에 있지요. (류재풍)

25) 유량(柳亮, 1355-1416)은 고려 공민왕부터 조선 태종 시기의 문신으로, 고려시대에 호조□이조판서를, 조선시대에 중추원 부사, 우의정을 지냈다.

이장 윤영섭에 의하면 이 마을은 논농사를 주로 짓는다. 계단식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었으며, 물이 부족해 주민간에 물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계단논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이 마을은 고랭지이기 때문에 배추와 감자가 많이 나며, 절임배추가 유명하고, 고랭지 감자로 알려져 있다.(윤영섭)

이 마을의 예전 농사는 개천에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렸다. 양수기 이전에는 개천에 비닐 호스로 연결했다. 아주 옛날에는 보포랑이 있어서, 계곡 물을 보포랑으로 연결해서 끌어 내렸다고 한다. 운길산 개울 이쪽편에는 고래산 개울물로 농사를 지었다. 예전에는 물이 좀 부족한 편이었다. 이곳에서 밭농사는 주로 조, 깨, 콩 등을 재배했으며, 산촌이고 계단식 다랭이논이라 논매기 두레는 없었다.(이석운)

현재 마을 앞산 아래 부분은 예전에 뽕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이곳은 누에를 길렀던 마을로, 이로 인해 비교적 부유한 마을이었다. 누에는 봄가을에 걸쳐 28일 정도밖에 못 기르며, 조선 후기부터 1970년대까지 길렀다. 28일 누에를 기르면 송아지 1마리 값이 나왔다.

여기 남구 빈 데 포함해서 저기 저 골짜구니가 전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가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뽕나무를 배양하라고 해서 여기 뽕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에 200칸이 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지명이 양신환이야. 여기 담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지. 지금 산 밑에 흔적이 좀 있어요. 여기가 동평화폐(상평통보인듯) 동전을 누에 길러가지고 구루마로 실어왔다는 곳이야. 월문리로 해서 잠실로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동평화폐 사각 구멍 뚫어진 것. 꾸러미에 실어왔다는 곳이야.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누에를 길러서 풍복했지요. 옛날에는 누에 기르는 기간이 28일이면 송아지 한 마리 살 정도는 될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길러서 1970년대까지 길렀어요. 소똥 냄새가 나면 누에가 안 돼. 똥새가 안 돼요. 잠실이 누에 기르는 곳이죠.

누에가 바쁜 기간이 19일에서 27-28일이 최고 바쁘지. 누에가 녀잠을 자거든요. 석잠을 잘 때까지 불이 나지. 식구들이 다 불어서 일을 하고. 우리도 많이 길렀지. 우리도 녀잠까지 길렀어. 봄철 5월 20일에서부터 6월 20일까지죠. 또 가을에 찬바람 불 적에, 음력으로 칠월 말부터 팔월 20일까지 하지요. 초가을이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안 되고, 겨울에는 춥고, 뽕나무 이파리가 없잖아. 지금 산으로 뽕이 다 있어요. 저 골짜기 가면 백년 된 게 있어요. 지금은 청양 가니까 있던데, 산에서 기르더라고. 누에가 당뇨에 좋지요. (류재풍)

류재풍에 의하면, 소목장이 생기면서 소똥에 의해 누에치기가 어렵게 되었다. 누에는 냄새에 매우 민감해서 소똥냄새로 인해 누에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누에와 소똥은 상극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0년대에 전기가 들어왔다. 이석운은 노인회의 일을 하면서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힘을 많이 썼다. 그는 53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약 40여년 전에 앞장서서 마을에 전기를 끌어들었다. 업자에게 맡겨서 마을 자부담으로 전기를 끌어왔는데, 본인은 당시 15만원, 당시 노인회장은 30만원의 큰 돈을 냈다. 당시 12만원이면 땅 4천평을 살 수 있었는데, 15만원이면 땅 5천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는 최하 2만원 이상의 돈을 내서 전기를 끌어들었다. 따라서 이곳은 오지 산골이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전기를 사용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예전에 5일장을 주위 3곳으로 다녔다. 양수리장은 20리 거리이고, 덕소장은 30리이며, 마석장은 20리이다. 양수리장은 1일, 6일이고, 마석장은 3일, 8일이었다. 이 중에 덕소장은 일찍이 사라졌으며, 현재 마석장만이 유지되고 있다.

이곳은 비교적 산촌이기 때문에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다 파는 일이었다. 이석운(남, 1938년생)이 20-30대에 땔나무를 리어커에 싣고 양수리장에 가서 팔면 280-300원을 받았다. 당시 나무는 주로 운길산과 고래산에서 했으며, 이곳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무는 흔한 편이었다. 한편 이곳은 소도 귀해서 일부 부유한 집에만 소를 키웠다.

류재풍(남, 1940년생)은 어린 시절에 이 마을에 내시 2가구가 살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은퇴한 내시로,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 서 키우면서 글공부를 시켰다.

내시가 살던 곳은 하우스 뒤에 거기 한 채가 있었고, 이곳에 한 채가 있었고, 두 채가 있어요. 궁중에서 나이 먹어 은퇴한 분들이 온 거야. 자식은 양자를 들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내시 집안과 더러 교류를 하시더라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류재풍)

(2) 시우리 토박이의 삶

이석운(남, 1938년생)은 81세로 시우리에서 12대에 걸쳐 살고 있다. 전 노 인회장이고 호의적이나, 몸이 불편해 오래 구슬을 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 마을에 일찍이 전기를 끌어들였고, 1970년대에 마을에서 처음으로 육우를 키워 우유를 생산해서 납품을 시작했다. 농사와 소를 키우며 많은 일을 해서 고생을 했으나 이로 인해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게 되었다. 이석운은 1969년부터 시우리에서 소목장을 처음 시작했다. 육우인 젖소를 28년간 길렀으며, 많을 때에는 20두까지 길렀다. 처음 이석운이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는 마을의 47가구에서 소를 기를 정도로 마을에 널리 퍼졌다. 젖소에서 짠 우유는 이곳에서 80리 떨어진 금남리로 납품을 했다. 처음에 자전거로 배달을 하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우유차가 직접 집에 와서 가져가 기도 했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은 교문리에 사는 둘째 형님의 권유에 의해서다.

육우를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산에 가서 풀을 베어야 한다. 그날 풀을 베어서 소에게 먹이게 된다. 새벽에 산으로 가며, 주로 산 아래 쪽 풀이 연하기 때문에 그곳의 풀을 베는 다. 그리고 밭을 사서 옥수수를 심어 소에게 먹이는데,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을 한다. 또한 유채나 호밀을 재배해서 소에게 먹이기도 했다. ‘연세레지’라고 해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안에 소 먹일 것을 조금에 절여서 보관한다. 대개 7월 말부터 이것을 준비한다. 이것을 ‘소감치’라고 하며, 소의 겨울철 식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료도 사서 먹이기도 했다.

소의 분비물은 옥수수밭의 거름으로 사용했다. 매일 소축사를 청소해 소의 분비물인 똥오줌을 치워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사 바닥은 콘크리 트로 해서, 매일 청소하기 좋게 만든다.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또한 우사는 보온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우유는 한 마리당 1말, 곧 20리터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는 더 잘 먹여서 30리터의 우유가 나오다고 한다. 새벽 4시 반부터 6-7시 사이에 우유차가 와서 수거한 우유를 금남리로 운반해 간다. 예전에 송천리와 시우리 등에서 우유를 많이 생산했다. 1달에 두 번 보통 10-15일 사이에 현찰로 우유값을 계산한다.

한편 집안에서 기르는 소는 보통 1마리 정도이며, 밭을 가는 데에 사용했으며, 이곳에서는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쌍겨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석운은 예전에 축사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몸을 혹사해서 현재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10남매 중에 넷째로서, 농사를 지어 40kg, 100가마의 농사를 지었으며, 소를 기르는 축사를 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지금은 시우리 동네에서 오직 두 가구에서 소목장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 일을 힘들어서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마을은 육이오 때에 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전쟁 당시 이석운은 당시에 경기도 광주로 피난을 갔다. 그의 집은 폭격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아래 집은 폭격을 당했다. 그는 52년 전에 결혼을 했다. 부인 오효정(여, 1946년생)은 현재 73살로, 호남지방에서 21살에 시집을 와서 52년째 살고 있다.

류재풍(남, 1940년생)은 현재 79세로, 이곳 시우리에서 3대째 살고 있다. 학교에 행정직으로 평생 근무했으며, 현재 마을교회의 장로로 있다. 마을의 유래와 옛 민속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일하는 바쁜 와중에 만나 오래 면담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량 선생의 21대 손으로, 마을의 사당과 묘소를 관리하기도 한다.

윤영섭(남, 1967년생)은 현재 시우리 마을 이장이며, 마을 입구에서 흑염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부녀자들이 구술을 거절해, 대신 다른 토박이 남성들을 소개해 주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반딧불축제와 후대의 놀이에 대해 일부 구술을 했다.



〈그림 3〉 시우리 운영섭 이장 집의 김장 모습

(3) 시우리의 세시풍속

시우리의 세시는 정월대보름 더위팔기, 부럼깨기, 쥐불놀이, 햇불싸움, 옷놀이와 척사대회, 햇불로 달맞이 기원, 5-6월 봄누에치기, 단오의 그네뛰기와 창포 머리 감기, 7-8월 가을 누에치기, 8월 1일 산제사, 8월 말- 9월 초의 반딧불이 축제, 10월 시제 등이다. 시우리의 특이한 세시로 봄철과 가을철 누에치기이며, 마을 주위에 산뽕이 많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부터 197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권유로 양잠이 성행했다고 한다. 이 석운, 류재풍, 운영섭이 구술한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월대보름에는 화를 만들어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 화는 주로 짚으로 만들었으며, 나이에 맞게 감았다. 달이 떠오르면 달님에게 비는데, 각자 소원하는 것을 빌게 된다. 아이들이 주로 했으며, 어른들도 아이를 같이 달맞이를 했다. 깡통을 돌리는 것은 나중에 나왔다. 벧짚은 이곳에서 흔한 편이

었다.(이석운) 대보름 풍속으로 ‘내 더위 사가라’고 소리치는 더위팔기가 있었으며, 호두와 잣을 까서 부럼을 깨물었다. 이곳 마을 뒤에는 일제시대 잣을 수확했으며, 잣나무가 많은 편이다.(류재풍)

이 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 봄누에, 가을누에를 키웠다. 보통 누에는 19일에서 28일 정도 기른다. 늦잠을 자는데, 보통 3잠, 4잠을 잔다. 그는 누에를 4장까지 쳐 보았는데, 누에는 식구들이 모두 동원될 정도로 신경이 많이 가는 일이다. 봄누에는 음력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치며, 가을누에는 음력 7월말부터 8월 20일 사이에 친다. 누에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무더울 때에는 누에를 칠 수가 없다. 뽕잎은 주로 산뽕이며, 이 마을에는 100년 넘는 산뽕나무도 있었다. 식구들이 뽕잎을 따러 산에 다녔다. 누에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류재풍)

산제사는 해마다 8월 1일에 지낸다. 예전에는 소를 잡았으며, 가구당 일정하게 돈을 나누어 소값을 받았다. 그래서 한 집에 소고기 3-4근을 일정하게 배분했다. 산제사에는 소머리와 소족만을 삶아서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를 잡지 않고 소머리와 족발을 사다가 대신 쓴다. 다음 날에 ‘중부닭음’이라 해서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길청소를 하고 풀을 깎는 일을 한 후에 다같이 식사를 한다. 깎은 풀은 예전에는 퇴비로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버린다.

제관은 1인을 선임하며, 산에 올라가서 산제사를 주관한다. 제관은 나이와 생기복덕을 따져서 미리 뽑으며, 제물을 준비한다. 제관의 집은 금줄을 쳐서 부정을 타지 않게 하며, 제관은 살생을 하거나 함부로 외출을 해서도 안된다. 특히 외부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이 기간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산제당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움막이 따로 있다. 예전에는 초가로 지었는데, 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며, 바닥을 고르고 평시에 제기를 보관한다.

산신에게 술을 올리고 나서, 축문을 읽고 소각을 한 다음에 동네 소지를 한다. 산제사를 지내고 어두우면 초저녁에 바로 내려온다. 다음날 아침에 길을 닦고, 점심을 같이 먹는다. 예전에 고기는 소를 잡는 날에 분배했으며,

소의 내장은 주민들 식사 음식으로 사용했다.(이석운)

산제사는 계속 해요. 날씨는 팔월 초하루 변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소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소머리하고 족발하고 사용하지요. 예전에는 소값을 가구당 얼마씩 받아 소한마리 값을 다 건지요. 똑같이 나누는데 한 집당 5근도 정도, 아마 3-4근씩 나누었을 거예요. 예전에 소머리하고 족발만을 사용했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소머리하고 족발은 삶아서 쓰고, 내장은 그 다음날 길 닦으면서 쓰지요. 길 풀 난 거 닦고, ‘중부담음’이라고 동네 사람이 전부 나와서 길 옆의 풀을 깎아요. 예전에는 풀을 퇴비로 쓰고, 퇴비를 쌓아놔요. 지금은 그냥 버려요. 산제사를 지내는 제관을 한 사람 선임하지요. 산에 올라서 그 양반이 제사를 주관하고, 소 잡고 제물 준비하는 것은 예전에는 별도로 뽑았는데, 지금은 이장이 다 한다. 나이와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아요. 부정타면 안 되는데, 주로 살상 못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동네 들어온 사람은 못 나가죠. 제관 집에는 금줄을 치지요.

산제당은 움막 집을 지었어요. 안에 아무 것도 없고, 제기는 보관 안 해요. 제사 지내는 공간이지요. 산제사 지낼 바닥만 조금 골라 놓았지요. 예전에는 초가였는데, 지금은 슬레트로 바뀌었지요. 이곳을 산제당이라고 하죠. 제사 산제사 지낸다고 하지요. 중간에 중단은 안 했어요. 소를 잡다가 안 잡는데, 안 지내는 안 했어요. 전쟁 중에도 계속 지냈고, 세상없어도 그거는 지내지요. 제관이 축을 읽어요. 그 당시 불태우니까 축문은 없어요. 공부한 사람이 축문을 쓰지요.

소지는 동네 소지만 올리고 집집마다 소지는 안 올려요. 어두우면 올라가서 초저녁에 지내고 바로 내려와요. 산제사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길 닦고, 점심을 같이 먹지요. 예전에 소 잡을 땐 고기는 그냥 잡은 날 바로 나누어 주죠. 내장을 갖고 이튿날 동네에서 같이 먹지요.(이석운)

산제당은 이장집 앞 길 건너 낮은 산의 위에 위치한다. 윤영섭 이장이 말한 산제사는 최근의 양상이다. 7시쯤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관은 일주일 전부터 살생을 하지 못하며, 깨끗이 목욕하고, 부인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음식은 이장 집에서 장만하며, 소머리를 준비한다. 이장이 국민학교 시절인 1970년 중후반까지는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이후로는 소머리로 대신한다.

제물은 마을 돈으로 구입하며, 동네사람들은 소고기를 필요에 따라 몇 근씩 구입한다. 산제사는 계속 이어오다가 7년 전쯤에 중단되었다가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있어 17년 전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 산제사에는 여자들이나 총각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 요즘은 제관 이외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등 7-8인 정도 산에 올라간다.(윤영섭) 이석운에 의하면 산제사는 중단된 적이 없으며, 전쟁 중에도 산제사는 빠뜨리지 않고 꼭 지냈다. 그런데

윤영섭 이장은 중단되었다가 7년 전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시우리에서는 늦여름에 반딧불이축제를 열고 있으며, 이장이 주관한다. 처음에 YMCA에서 주최하여 4-5회 정도 하였으며, 이후로 마을의 시우리영농조합 자체로 3회째 열고 있다. 따라서 이 축제를 시작한 것은 대략 10년 전 쯤이다. 어느 해는 반딧불이 없거나, 또는 비가 와서 중단한 적도 있다. 이곳은 운길산과 예봉산 뒤쪽의 청정지역이다. 운길산 쪽의 새재골 등산로가 반딧불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다. 남양주시에서 한번 지원을 해 주었으나, 대부분 자체 조합 돈으로 축제를 연다. 현재 마을 영농조합원은 11명이며, 모두 농사를 짓고 있다. 조합원은 62-52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이장이 가장 젊은 편이다.

반딧불이 축제는 8월 말부터 9월 초에 열린다. 반딧불이 나오는 것을 봐서 날짜를 정한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너무 덥거나, 비 오는 날이면 반딧불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보름이 끼면 너무 밝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을 끼는데, 금요일로 하거나 아니며, 토요일을 잡기도 한다. 첫날 오후 3시부터 서예, 투호던지기, 도자기체험 등을 하고 저녁 7-8시경부터 반딧불 탐사에 나선다. 시우리 5반에 외부에서 살다 온 도예가가 있어 이 분 주도로 아이들이 도자기체험을 한다.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뱀의 위협에 대비해 보험까지 미리 든다. 올해는 그 시기가 너무 무더워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작년에는 하루 500명이 참가해 2일간 행사에 참여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이고 부모도 동행한다. 많은 인원을 받고 싶지만, 수용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코스는 1팀은 시우리 1-2반쪽 산으로, 2팀은 시우리 4반 쪽 산으로 올라간다.(윤영섭)

이석윤은 예전에도 반딧불이 있었다고 한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저녁에 반딧불을 볼 수 있었으며, 직접 잡은 적은 없었다. 이곳은 공장이 없지만, 근래에는 일부 오염이 되어서 자연 상태의 반딧불을 쉽게 볼 수가 없다. 추석 때에는 올벼를 심어 일찍 추수를 할 수 있다. 올벼는 다른 벼보다 밥맛이 좋은 편이다.(이석윤)

(4) 시우리의 놀이

시우리의 민속놀이로는 자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햇불싸움, 쥐불놀이, 그네뛰기, 간첩잡기놀이 등이 있다. 특징적인 놀이를 보면, 이곳에서 윷은 무거운 참나무 대신 던지는 소리가 경쾌한 싸리나무로 만들었다. 제기는 창호지로 만들었으며, 인근에 닥나무가 많았다. 이석윤, 류재풍, 윤영섭이 구술한 시우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정월보름날 밤에 아이들은 집마다 몰래 다니면서 밥과 반찬을 걷어 들인다. 모은 밥은 나중에 모아서 다같이 비벼 먹었다. 집에서 어르신들이 알아서 미리 부엌에 준비해 놓았으며, 알아서 주는 집도 있다. 밥은 오곡밥이며, 여러 가지 나물도 같이 준비한다. 이 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런 풍속이 전해졌다.(윤영섭) 기존 기록이나 조사보고서에서는 이것을 백가반이라고 한다.

윷은 참나무로 주로 만들었다. 참나무는 무게가 나가며, 던지는 힘이 있다. 그리고 싸리나무로 만들면 가볍고 소리가 크게 난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보름에 척사대회를 열고 있다. 지금도 정월보름에 청년회 주최로 척사대회를 열고 있다.(류재풍, 윤영섭) 연은 정초에 날렸으나 본인은 잘 날리는 재주가 없어 즐기지는 않았다.(이석윤)

햇불싸움은 정월대보름에 이 마을의 동간부락과 이웃 광명부락 사이에 벌어졌다. 햇불을 가지고 서로 던지기도 했으며, 나중에 쥐불놀이라고 강통에 불을 붙여 돌렸다. 이 마을에서 돌싸움은 없었다.(류재풍) 비교적 젊은 윤영섭(1967년생)은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하고, 강통은 돌렸지만, 돌싸움이나 햇불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햇불싸움은 1950년대에 이루어지다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기는 창호지를 찢어서 만들었는데, 이곳에는 닥나무가 많은 편이라 창호지를 흔했다. 마을의 닥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양평 서정면 정배리(유명산 쪽)로 팔았는데, 당시 닥나무껍데기 1근을 한지 3장과 서로 맞바꾸었다.(류재풍)

단오 때에는 그네를 탔으며,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류재풍) 그런

데 후세대인 이장 윤영섭은 창포로 머리 감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가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미 이 시기에는 단오의 그네뛰기나 창포로 머리 감는 풍습은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간첩잡기놀이는 윤영섭 이장이 어린 시절에 뒷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 놀이이다. 남자 아이들끼리 편을 나누어 긴 나무를 총이라 여기고, 서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간첩잡기 놀이를 했다. 따라서 대략 1970년대 후반쯤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 마을에는 연날리기, 쥐불놀이,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있었으며, 예전에 마을에서 화투도 쳤으나 본인은 좋아하지 않았다. 한편 이 마을에서는 농악은 없었다.(윤영섭)

나.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1) 월문4리 마을개관

월문4리는 말등바위, 응달말, 대리굴, 주막거리, 원터(그린벨트 해제로 개발)로 구성된 마을이다. 예전에 약 100가구가 살았으며, 그 중에 김해 김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버들 유씨가 살았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논농사는 적었으며, 딸감을 채취해서 우마차나 지게로 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탬다.

월문4리는 크게 5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응달말은 마을회관 건너편 동네로 현재 김동수(남, 1930년생)가 거주하는 동네이다. 둘째, 말바위는 말등바위라고도 한다. 마을 위쪽에 있는데, 길을 뚫느라 마을이 없어졌으며, 다리 건너 외딴집이 있는 곳이다. 셋째, 대리굴은 아래쪽 마을이며, 넷째, 주막거리는 과거 위쪽의 주막이 있던 곳이다. 다섯째, 원터는 마석 쪽의 수루내미 고개 넘어가는 곳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현재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응달말은 김해 김씨 마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이고, 버들 유씨도 일부 살았는데, 지금은 김해 김씨가 3가구만 남아 있다.

옛날에는 말등바위, 지금은 월문 4리라고 하지. 예전에 여기 말바위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뚫느라고 다 없어졌지. 그 다리 건너 외딴집 있는 데가 말바위, 말처럼 생겼는데, 도로 내느라고 다 깨뜨려버렸지. 여기는 응달말. 저 아래는 대리굴. 옛날에는 이 위에는 주막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어. 주막이 있었지. 그 위에 수루내미 고개 넘어가는 데는 원터라고 했어. 그리 넘어가면 마석. 옛날에는 이리 쪽 올라가며 집이 있었으니, 큰 마을이 없었어. 가구 수 다 합쳐봐야 많지 않지. 저 2리라는 데는 그린벨트 안 되어 거긴 개발이 되었어요. 집이 많이 들어섰어. 옛날에는 다 합쳐봐야 100가구나 되었어. 그 중에 큰 데는 없고 다 비슷비슷해. 여기 뒤에 고속도로가 새로 굴 뚫어서 마석 쪽으로 넘어가면 저리 그리 났어요. 김해 김씨이에요. 이제 구십되어 가요. 1930년생. 9대에 살았어요. 여기 김씨네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산 데예요. 김씨네가 반도 넘었지요. 김씨네 유씨네가 제일 많았어요. 버들 유씨. 여기 김씨네도 3집만 남았어요.

월문 4리는 대체로 산촌의 형태를 지녀 논농사는 그리 많이 짓지 않았다. 비가 안 오면 모를 심지 못하는 천수답이 많았다. 뒤늦게 초복 때에 모를 심으면 소출이 크게 떨어지며, 모를 못 심을 경우에는 메물(메밀)을 심었

다. 한편 밭농사로는 콩과 팥을 많이 재배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땀감은 흔한 편이었다. 따라서 산에서 나무를 해서 이것을 장에 갖다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은 4바퀴가 있는 우마차에 땀나무를 싣고 민벌이나 가재울로 가서 팔았다. 땀나무는 주위의 갑산과 상사들과 가마굴에서 많이 했다. 나무는 하루에 시장에 팔 나무 2짐을 하고, 집에서 땀 나무 1짐을 해서 모두 3짐을 했다. 그런데 집의 땀나무 하러 산에 늦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짐 밖에 하지 못했다. 이곳의 남자들은 10살이 지나면 지게질을 하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으며, 평생 지게를 지며 살았다.

월문리에는 일본인이 개발한 탄광이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 중에 3사람이 이곳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탄광사고가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망했고, 두 사람은 살았다.

(2) 월문4리 토박이의 삶

김동수(남, 1930년생)는 89세의 고령으로, 월문 4리에서 9대에 걸쳐 살고 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며, 10살부터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다. 젊은 시절에는 산에 가서 땀감을 채취하고, 말 먹이인 마초를 채취해 이를 말려서 시장에 내다팔았다.

김동수는 6.25 전쟁 때에는 북한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을 뒤의 산골짜기 바위 밑에 숨으며 지냈다. 전쟁 터지던 날에 모를 심다가 의정부 쪽에서 총소리가 나서 중단했으며, 그 당시 20살이었다.



〈그림 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전경



〈그림 5〉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세부도

(3) 월문4리의 세시풍속

월문 4리의 세시로는 양력 1월 1일 콩볶아 먹는 날, 정월대보름 백가반, 달맞이, 햇불로 달에 기원, 1월 16일 귀신답날, 6월 모내기, 초복때 늦모내기, 7월 마초 베어 말리기 등이다. 특이한 세시로, 일본 설날인 양력 1월 1일에 일본을 미워해서 일부러 콩을 볶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름에 말 먹이로 마초를 베어다가 말려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시기까지 했다. 김동수(남, 1930년생)가 구술한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마초에 좋은 풀은 아들맥이, 억새, 모낭풀 등이며, 일제시대에 엄하게 검사해서 수매했으며, 잡풀은 마초로 쓰지 못한다. 마초를 1-2일 바싹 말려서 지게에 지고 10리 거리의 구 덕소시장에 가서 팔았다. 예전에 이곳의 풀이 좋은 편으로, 사람들이 땀감으로 나무를 많이 베면서 오히려 풀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김동수(남, 1930년생)가 구술한 월문4리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양력 설날은 일제시대에는 ‘왜놈 설날’ 라 해서 콩을 볶아서 먹었다. 당시 일본사람들이 양력설을 지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양력설을 쇠었지만, 대부분 음력설을 쇠었다. 그래서 양력설에는 일본이 싫어서 일부러 콩을 볶아서 먹었다. 일제시대에는 공출을 많이 해서 몰래 뒷간의 재 속에 숨겨놓으면, 잣더미를 쭈셔가지고 이것까지 찾아서 공출해 갔다. 그 때는 고생을 많이 하고 매우 힘든 시기였다.

콩 볶는 거는 왜놈 설날에 콩 볶아 먹었어. 양력 1월 1일. 콩은 검은 콩이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차례 지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데, 차례 안 지냈어. 마을에서는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안 지내는 사람도 있고. 왜 검정콩 먹는지, 일본 서구사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정 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농사지으면 공출로 다 뺏어가고. 저 있으면 어디, 옛날에는 뒷간 아냐. 재 속에 물어놓으며 죄 쭈셔 놓고 다 깨내놓고 그래요. 산골자기 벗가마 지고 갔다가 감추고 별짓 다했어요. 공출로 다 가져갔어요. 농사 해 봐야 먹을 것이 없어.(김동수)

정월 열나흘날에는 오곡밥을 먹었다. 쌀, 수수, 콩, 팥, 밤 등을 넣어 밥을

짓는다. 이 때에 나물로 고사리, 고비, 취, 등글레썩, 산초썩 등을 무쳐 먹었다. 열나흘날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저녁에는 부뚜막에 음식을 놔두어 아이들이 밤에 와서 가져가게 했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달맞이를 한다. 강변에서 팽대를 꺾어다가 사람처럼 만들었으며, 짚으로 나이 수대로 묶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이고 화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달님에게 절하는데, “달님한테 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 불을 붙인 화는 금방 타 없어진다. 정월대보름날 아침에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고, “내 더위 사가라”고 말한다.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장난으로 했다. 이 마을에서는 1월 16일을 귀신닭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문 밖에 채나 열거이를 걸어놓으면 귀신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의 모심기는 음력 6월 초이다.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품앗이를 했으며, 대략 15명 정도 참여했다. 모를 심은 20일 후에 애벌매기를 하는데, 마을에서 농약과 농기는 없었다. 인근 원터골은 농약과 농기가 있었는데, 이 마을은 80호 정도 되는 큰 마을이다.

논을 맬 때에 논매기소리를 했다. 애벌 맬 때에는 호미로 맬으며, 두벌 맬 때에는 손으로 흙쳤다. 그리고 10여일 후에 세벌을 매는데, 주로 손으로 피를 뽑는 정도이다. 예전에 논을 맬 때에 논매기소리를 매기기도 했다.

복놀이는 중북에서 말북 사이에 했다. 하루 날을 잡아서 개울에 가서 노는데, 대개 마을 뒤 골짜기로 복놀이를 갔다. 대개 10여명이 가며, 술을 사오고, 고기와 밥을 해먹으며 하루를 쉰다. 복날에는 개를 잡는 집도 있다.

7월 초에는 말(馬)먹이인 마초를 베어 말려서 시장에 내다팔았다. 김동수는 일제시대부터 육이오 전까지 이 일을 했다. 좋은 풀은 아들묵이, 역새, 모냥풀 등이며, 잡풀은 좋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마초를 팔 때에는 엄격한 검사를 거쳤다. 마초를 베면 1-2일 정도 잘 말린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장에 내다 파는데, 이곳에서 한강가의 구 덕소장까지는 10리가 넘었다. 이곳에서 모은 풀은 배에 싣고 간다. 예전에 월문리 지역은 인근에 나무를 많이 베서 비교적 풀이 잘 자랐으며, 품질이 좋은 편이었다.

여름에는 농사 좀 짓고, 칠월쯤 되면 마초, 말의 풀이라고. 육이오 이전에는 일본 사람 말 먹인다고 사가고, 야중에는 여기 인제. 농사라고 지으면 벼농사 모 심고, 두벌 다 하고 끝나면 마초 그거를 비어다가 말려서 파는 거예요. 왜정 때는 덕소, 구덕소 저기 강께 거기다가 팔아요. 배가 거리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배가 싣고 갔어. 구덕소 강 옆에.

말먹이는 좋은 풀이요. 아들멕이, 억새, 모냥풀, 좋은 풀만 깎아다가 말려요. 잡풀은 안 돼요. 안ㅇ 받아요. 옛날 왜정 때는 엄청 까다로웠어요. 여긴 지게질로 늪였어요. 저기 덕소 지게 지고 가면 십리가 넘어요. 구덕소는 굴다리 넘어 가요.

마초는 바짝 말려야 되어야 돼요. 바삭바삭하게 말려요. 하루 이틀 정도 말려요.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다 풀이예요. 나무가 없으니 풀이 잘 되었지요. 나무가 많으면 다 삭아가지고 풀이 없지요. 나물, 고사리 같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다 삭아 없어지고. 고사 고비, 취, 둥글레썩, 산초썩 그 여러 가지이요. 무척 많아요.

(4) 월문4리의 놀이

월문 4리의 놀이로는 구술자가 연로해서 윷놀이, 헛불놀이, 백중 씨름대회만 간단히 조사되었다.

단오 때에는 뒷동산 큰 나무에 그네를 매서 탔다. 주로 동네의 처녀들이 그네를 탔으며, 이날 창포로 머리도 감았다. 당시 처녀들은 땡기를 매고 다녔다. 백중날에는 덕소장의 넓은 공터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김동수(남, 1930년생)는 해당 되기 전인 15살 적에 씨름대회를 구경을 한 기억이 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동두천시

5. 동두천시

가.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1) 사당골 마을개관

동두천시 지행동은 지행역 동남쪽에 위치한다. 지행동이란 이름은 과거 닥채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부락이라 하여 '종이골'이라 불리다가 '조골'로 부르게 되었다. 일제시대는 공동작업반 조직인 '진흥회' 명칭을 당시 구장이 '화성진흥회'라 하여 '화성부락(和成)'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종이골'의 종이 '지(紙)'자와 이웃 부락인 '행단(杏壇)'부락의 은행나무 '행(杏)'자를 따서 지행리(紙杏里)라 불리다가, 1981년 7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지행동(紙杏洞)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에는 무수동(無水洞), 어유소 장군 전설이 있는 행단마을(사당골), 산고리로 구분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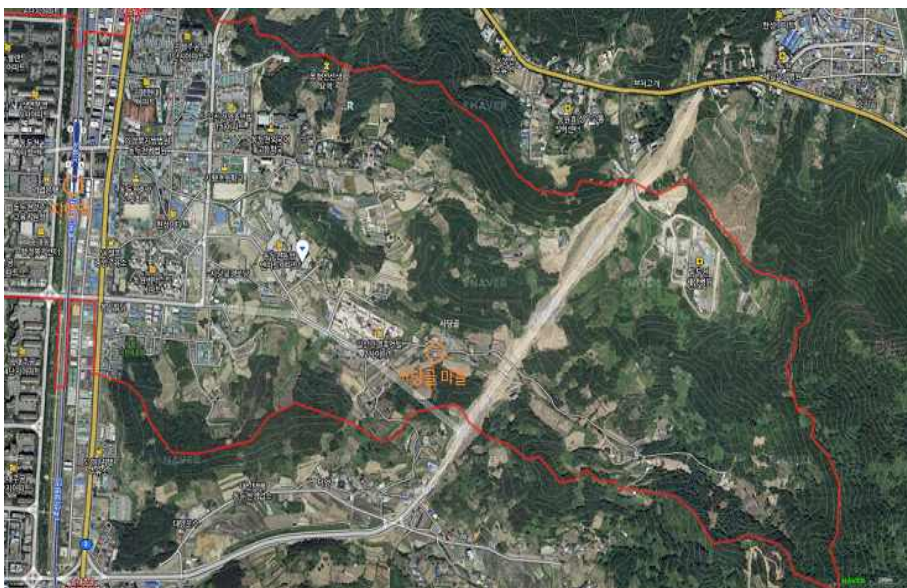
주민에 의하면, 사당골 마을은 과거 100여 호가 살았으며, 고령 박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수로 정비가 잘 되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보리, 조와 콩 등의 밭농사도 재배했다, 따라서 동네에는 두레가 활성화되었으며, 농악과 농요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고, 최근까지 농악 중심의 백중놀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년 10월에 마을의 천년 묵은 은행나무 앞에서 행단제가 열린다. 이 나무는 숫나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열리지 않으며, 근래 옆에 암나무를 새로 심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영향으로 인근에는 개미와 모기가 없다고 말한다. 은행나무 옆에 연못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서 백중놀이가 이루어졌다. 이곳은 과거 제보자들이 어린 시절에 목욕을 하던 곳이기도 한데, 작년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연못을 전부 메우면서 사라졌다.

26) 동두천시 법정동명유래, www.ddc.go.kr.



〈그림 1〉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세부도



〈그림 2〉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전경



〈그림 3〉 사당골 은행나무 고목의 주민들(1973년)



〈그림 4〉 사당골 은행나무 고목의 마을주민(1973년)



〈그림 5〉 사당골 은행나무와 아파트

이 마을은 농악이 성행하고, 동두천 민요를 전승하며, 최근까지 백중놀이를 계속하고 있다. 마을 주변의 땅은 1950년대에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부대에 수용되었는데, 근래 미군 철수로 인해 50년 만에 원래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로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이 마을도 곧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군부대 주위에는 서울사람을 비롯해 타지인이 와서 장사를 했으며, 이 마을과 인근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출퇴근을 하며, 빨래하는 하우스보이, 막사 경비원, 홀이나 식당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더 좋았다고 말한다. 그 당시는 주민 사이에 전해 오는 말로 “몇 천평 농사 지어도 수확 후 장값이 모자란다”는 말이 전할 정도로 농사 수익이 별로 없던 시대였다.

이 마을은 모내기철에 전라도에서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했으며,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 일을 했다. 알선자가 역에서 인계를 받아 데려와서, 자기 집에 묵게 한다. 그리고 필요한 마을에 가서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이 중매 역할을 해서 이 마을에는 전라도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 5가구가 있었다.

마을 은행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경기-동두천-7)로 지정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22m에 이른다. 나무 앞에 2012년에 세운 사당골 수호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면에 “마을산천을 변해도 마을 미풍이 계승되고, 화목한 이웃과 평안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당골 주민 합배, 임진년 시월 초하루”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사당골의 유래’가 뒷면에 적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당골 마을의 은행나무는 마을을 지켜 주었다는 천년의 전설이 있어 현재도 마을 수호목으로 숭상하고 있으나 문헌상 세거기록은 1150년에 온양 방씨가 거주하였으며, 고려 의종시 상서령 벼슬을 한 방휘진이 1177년에 이 마을에 묻히고 이후에 사당이 건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당골이라 한 것은 1420년대에는 평해 황씨, 1430년대에는 충주 어씨가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사당이 있는 마을이라 사당골이라 하였다 한다. 평해 황씨는 18대를 이어 온 가장 오래된 성씨이며 충주 어씨는 이조 성종시(1477년) 병조 판서에 오른 어유소 장군의 출생지(1434년)이다. 1650년대에는 고령 박씨가 거주하면서 제일 많은 세대가 형성되어 사당골의 대표적 성씨였다. 1740년대에는 고령 박씨의 인맥으로 전주 이씨 주부공계, 1790년대에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영산군파, 1920년

대부터는 여산 송씨, 청송 심씨, 광주 이씨, 죽산 안씨, 김해 김씨가 거주하면서 마을의 분포가 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옷마을, 못개마을, 응달마을, 양지마을, 무수구미로 나뉘어 졌다. 사당은 양지마을에 있었으며, 1920년(일정시)에는 사당골을 행단부락이라 하였다. 1963년부터는 양주군 동두천읍 지행2리였으며, 1981년 7월 1일부터 동두천시 내행동 5통이고 126세대 주민수가 제일 많았으며, 현재는 불현동 23통이고 46세대 외에 아파트 3개 단지가 조성되었다. 마을이 영원하고 계속 번창하기를 빌면서 주민이 정성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2012년 11월 14일 사당골 마을회-

위의 내용에 의하면 사당골은 온양 방씨 → 평해 황씨 → 충주 어씨 → 고령 박씨로 점차 마을 주류 세력이 바뀌어 갔다. 이 마을의 토박이인 고령 박씨가 1650년대에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약 470년전간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비석에 있는 고문과 회장단, 운영위원 등의 핵심 인물을 보면, 전체 11인 중에 5인이 박씨이며, 이씨가 4인, 기타 황씨와 송씨이다. 한편 36인의 회원을 보면, 18인이 박씨이며, 이씨가 10인, 김씨와 황씨가 2인, 기타 안씨, 심씨, 유씨, 정씨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성씨 분포로 보아 사당골은 예전에 고령 박씨 마을이고, 박씨가 절반 이상 거주했다는 말을 실제 확인할 수 있다.

비문에 나오는 어유소(1434-1468, 魚有沼) 장군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이시애의 난을 진압해 공신이 되었으며,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의 건주위(建州衛) 공격에서 큰 공을 세웠다. 주로 북방 야인을 수차례 정벌해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절도사, 순찰사를 거쳐 병조판서, 우찬성 등을 역임했다. 명나라 정벌에 반대해 회군을 하여 탄핵을 받아 유배를 당하다가, 경기도 영평(永平)의 활터에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으며, 그곳에 어유소 장군 사당이 있다. 어유소의 부친인 어득해(? -1471)도 뛰어난 무신으로 영월로 유배되는 단종을 호위했으며, 북방 야인 정벌에 공이 있고, 활쏘기에 능해 세조를 모시고 시사(侍射)를 한 인물이다.²⁷⁾ 어유소 장군이 세상을 떠난 영평은 경기도 포천 지역의 옛 지명으로, 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지역을 말한다. 사당이 있는 광암동은 사당골에 근접해 있다.

27) 「어유소」, 『두산백과사전』,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1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림 6〉 사당골 유래 관련 비문(은행나무 앞)

마을 노인회장인 이경훈(남, 1949년생)에 의하면, 이 마을은 전쟁 이후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마을 위쪽의 땅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10년전 쯤에 미군이 후방으로 철수하면서 땅을 원래 주인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미군에 수용될 당시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지금은 원래 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시지가로 되팔기로 되어 있다. 옛 주인이 50-60년 만에 자기 땅을 되찾는 셈이 된다. 한편 이곳은 논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보(수로)는 이미 일제시대부터 잘 만들어져 있어서 물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한편 밭농사도 많이 했는데, 보리를 밭에 심어 재배했으며, 조와 콩 등도 재배했다.

근래 동두천문화원의 보조로 다양한 생활 공예품을 만들었다. 처음에 종이에 니스칠을 해서 딱딱한 종이끈을 사용해 만들다가 나중에 나이롱끈으로 바꾸었다. 10여년 전 쯤에 마을회관에서 시작했는데, 바구니 한개 만드는데, 대략 2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안정훈에 의하면, 예전에는 짚으로는 멍석, 둥그미, 뗏방석, 파리(겉은 왕골,

속은 짚)를 만들었고, 7월에 싸리나무를 베어서 채반, 광주리, 쌀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버드나무로 짚을 까부르는 킨을 만드는데, 버드나무는 봄에 싹이 나며, 7-8월에 껍데기를 까서 만들었다. 한편 나이롱 끈으로 검치독, 멧방석 뚜껑, 향아리 뚜껑도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1973년 5월 20일에 모든 가구가 송아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적이 있다. 일본에 있는 교포가 돈 300만원을 회사해서 마을 가구마다 모두 8만원씩을 주고 송아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사진에 ‘8만원 대부’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송아지값을 갚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을회관에 있는 앨범에는 당시 우시장에서 찍은 사진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동네 주민들이 은행나무 앞에서 단체로 찍은 흑백사진도 있다.

(2) 사당골 토박이의 삶



〈그림 7〉 사당골 이경훈 노인회장

(남, 1949년생)은 사당골에서 5대에 걸쳐 살고 있으며,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전주 이씨로 고조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 따라서 현재 5대

에 걸쳐 이곳에 살고 있다. 고조부 이전에는 전곡리에서 살았다고 하며, 지금 이 마을에 전주 이씨는 4-5가구 정도만 남아 있다.

부친인 이채빈(1988년 사망)은 마을 두레의 뛰어난 선소리꾼이었으며, 작은아버지 이채혁(2017년 사망)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5호로 지정된 동두천민요(동두네 옛소리)의 보유자로서, 김매는 소리, 모내는 소리, 상여소리, 달고지소리 등에 뛰어났다. 이경훈 본인은 학교 공부하느라 부친과 숙부의 소리와 농악을 배우지는 못 했다고 한다.

안정훈(남, 1942년생)은 사당골에서 2대째 살고 있다. 윗대 조상이 양주를 거쳐 포천에 살다가, 부친이 이곳 사당골에 들어왔다. 마을의 세시풍속, 행단제, 민속놀이, 박의 재배와 활용, 생업, 보릿고개, 마을총회 등에 대해 많은 구술을 해 주었다. 이 마을은 예전에 ‘백뎨’(백미)라 해서 장례나 혼례와 같은 큰일이 있으면, 하루 전날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쌀 한 되박 썩을 모아 쌀 1가마를 만들어 전달하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이곳은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웃 사람을 초대해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 우애가 좋고 단결이 잘 되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없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백뎨’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걸 백뎨게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어려우니까, 큰일이 나면 집집마다 한 되박씩 걷어서 큰일 치르는 집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것이 장례하고 혼사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걷으면 한 가마니가 돼요. 여기서는 백뎨라고 하는데, 그 전날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요. 옛날부터 이것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내일 큰일이면 오늘 회의를 해서 쌀을 한되박씩 걷지요. 도가집에서 쌀을 걷도 그곳에서 전부 가져가는 거지요. 이장집이 대개 도장집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구장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서는 고령 박씨가 반이 넘게 살았지요 (안정훈)

농악은 이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 민요보존회를 중심으로 농악과 민요가 전승되고 있으며, 동두천민요는 동두천시 제 1호 지정에 이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5호로 지정되었다. 이경훈의 숙부인 이채혁이 보유자로 실질적으로 보존회를 이끌어 왔으나,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채혁은 사당골이 고향이며, 농요와 상여소리에 뛰어났다. 그는 동두천 시내에서 장사를 하면서 소리를 전승했으며, 상여가 나가면 상여 선소리도 도맡았다.

이경훈이 어릴 적에는 부친 이채빈이 두레의 선소리를 했으며, 껍쇠도 쳤는

데, 1988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뒤를 이어 이채빈의 7살 아래 동생인 이채혁이 상여 선소리를 했으며, 1998년쯤에 민요보존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민요를 전승하기 시작했다. 이채빈이 주도해서 여수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2등상을 받았으며, 후에 금상까지 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동두천의 원래 이름은 동두네로서, 이곳 민요를 동두네민요라고도 하며, 사당골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현재 민요보존회는 40-50명 정도 참여하며, 전수조교인 김순희가 회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두레소리는 모내는 소리가 있고, 김매는 소리는 애벌 매는 소리, 두벌 매는 소리, 세벌 매는 소리가 있다. 그리고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도 전승된다. 이곳에서 초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땀다.

이 마을에서 예전에 땀감은 가랑잎을 갈퀴로 긁어 지게에 지고 1km 이상을 운반했다.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많이 했으며, 4km 떨어진 광암리, 걸산리 쪽에 가서 나무를 한 적도 있다.

현재 노인회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11시 경에 노인정에 모여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 이 동네에 104세 된 할머니가 있어 마을에서 100세 생신잔치를 해 드린 적이 있다.

(3) 사당골의 세시풍속

사당골마을에서 조사된 세시풍속의 주요 내용은 설날 세배, 세배돈, 차례, 성묘, 차례음식(떡국, 다식), 복조리, (1.14) 신발 숨김. 밥 9그릇, 나무 9짐 하는 날. 정월대보름(1.15) 돌팔매싸움), 기싸움, 달맞이, 햇불(참깨단) 달님 기원, 더위팔기, 새벽 새쫓음, 부럼깨기, 귀밝이술, 콩 볶아 먹는 날(잡귀 예방), 1-3월 장 담기, 3월 논에 소똥 거름주기, 한식(4.6즈음) 차례, 초파일 이후 모내기, 5월 중순(음 4.15) 풀깎아 논 거름주기. 4-5월 보릿고개에 수수푸랭이 먹거나 보리장래쌀 얻기, 단오(5.5) 그네와 창포 머리 감기, 백중(7.15) 들들들기, 백중놀이, 호미씻이, 여름 익모초 먹기, 7월 싸리 베서 쌀조리 만들기, 7-8월 버드나무 꺾데기 까서 키 만들기, 입추-서리시기 박 수확, 10월1일(음) 행단제, 10월 추수 후 이영 엮어 초가집 이기와 겨울땀감 준비하기, 11월초 김장하기, 11월 말 메주 쭈기, 연말 마을회의, 연말에 방안 메주 띄우기, 선달 그믐날 떡메치기, 잠 안 자기, 묵은 세배



〈그림 8〉 사당골 마을 행단제 현수막(2018.11.8 행사)



〈그림 9〉 사당골 송아지 단체 구입(1973년 5월 18일)

이경훈(남, 1949년생)과 안정훈(남, 1942년생)이 구술한 지행동 사당골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설날에는 집안 어른들뿐만 아니라, 동네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세배를 다닌 적도 있다. 그리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했다. 세배돈은 예전에는 없었으며, 다만 어른들이 세배 오는 아이들에게 다식이나 밤, 약과, 과일, 콩엿 등을 나누어 주었다. 1960년대부터 세배돈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 10원짜리 동전, 또는 1원짜리 동전을 아이들에게 주기 시작했다.(안정훈)

설날 떡국을 끓이기 위해 선달 그믐날에는 하루 종일 떡메를 쳤다. 떡메가 동네에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자집부터 돌려가며 번갈아가며 떡메를 쳤다. 이때 떡메 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대신 번갈아가며 쳐 주었다. 보통 가정에서는 3말 정도의 떡을 만들었으며, 노인이 있어 세배꾼들이 많이 오는 부자집에서는 5말의 떡을 했다.

떡국은 복어를 삶은 국물에 끓였다. 그리고 부자집에서는 떡 위에 계란말이와 파를 썰어서 꾸미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는 미역이나 멸치도 귀한 시절이라, 명절 때에도 고기를 구경하기는 어려웠다. 1960년대 이후에는 명절 때에 부자집에서 돼지를 잡았다.

설날에 세배하러 동네 전체 노인네들 찾아뵙는 거지요. 하루 종일 찾아뵙다가 막걸리도 한잔 하고, 말씀도 듣도, 또 찾아뵙다가 하다보며, 이틀도 갈 수도 있고, 제사할 때에도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었지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먹고살기 힘들 때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지요. 제사 때에 절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산소가 가까우면은 묵은세배라고, 그믐날 가서 세배를 해요. 그리고 초하루날에 가서 세배도 하고.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는 하지 않고 산소에 가서만 묵은세배를 했지요.

설날이 되면 여기서 떡을 하지요. 가래떡, 떡메을 치고, 집집마다 떡메가 있지는 않았지요,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덩기며 쳐주지요. 종일 떡메를 치고 저녁때까지 떡메를 치고, 그믐날만 아니고 그 전날도 하루종일 떡메를 치지요. 떡은 예전에 잘해야 서말 치지요. 부자집은 세배꾼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닷말 치지요.

세배를 가면은 집에서 맨든 거, 다식, 감, 과일 같은 거, 지금 같으면 약과 같은 거, 콩

옛도주고, 옛도 고잖아요? 애들에게 이런 걸 나누어 주지요. 세배돈이라는 것이 나중에 생겼지요. 육이오 지나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생겼을 거예요. 그때 십원짜리 동전을 주고, 육이오 지나고 일원짜리가 쪼그만한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육십년대에 조금 살아가는 게 나아지니까 췌지요.

떡국의 국물은 대개 북어 삶아서 냈지요. 미역도 귀했지요. 멸치도 귀했어요. 북어 삶아서 꾸미 있잖아요? 떡국 위에 놓는 거. 계란말이 같은 거 하고, 파를 찢어서 떡국 위에 몇 점 놓아요. 꾸미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집이나 계란하고, 그것도 내 닭이나 기르고 하는 집에서 했지요. 고기 넣는 건 생각도 못했지요. 명절 때 육십년대 지나고 돼지를 잡았지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내들이 잡아서 먹었지, 뭐.(안정훈)

정월 14일에는 나물밥을 훑쳐먹고, 나무 9짐을 하는 날이다. 이날 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건어서 비벼 먹었다. 이에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한다. 이 날은 “밥 9그릇을 먹고, 나무 9짐을 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이경훈은 이것을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만은 양껏 먹으라는 뜻도 있다고 말한다. 이날 먹는 나물로는 시레기나물, 산나물로 취나물과 고사리, 그리고 집에서 기른 콩나물, 또한 숙주나물, 무나물 등을 고추장과 섞어서 비벼 먹는다. 한편 이 날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신발을 모두 안에 들여놓고 잔다.

오곡밥 훑쳐다 먹고, 열나흔날에 해서 보름날에 밥을 먹는 거지요. 열나흔날 밤에 집집마다 다니며 건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하지요. 보름날은 그걸 해서 밥을 아홉 그릇을 먹고, 나무를 아홉 짐을 하고, 밥 많이 먹고 나무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밥을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날은 실컷 먹으라는 거지요.

옛날에는 밥을 양껏 먹지 못했지요. 그날은 나물로는 저기 시래기 나물, 산에서 산나물 해 온 거, 그거 취, 고사리. 또 콩나물도 기르고, 숙주나물도 기르고, 무나물도 있고, 정월 대보름 날에 비벼서 먹고, 이게 최고지요.(안정훈)

정월대보름에 사당골의 산 너머 동네인 안골과 돌팔매싸움을 한 적이 있다. 이경훈 본인도 이 놀이에 참가한 한 적이 있다. 이날 달맞이를 하기 위해 조짚이나 솔가지로 기둥을 세우고, 돌레에 짚을 이어 둥글게 달집을 만들었다. 20년 전까지 이어졌으며, 당시 3-4m 정도의 높이였다. 그는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며, 달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절을 한 기억이 있으며, 제물을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 20년 전

까지 이경훈의 숙부가 주도했으며, 15년 전부터 동두천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풍습은 아니다. (이경훈)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위해 개인 햇불을 만들었다. 참깨단으로 화를 만들고 나이 수대로 묶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다. 달이 떠오르면 집 앞에 나가서 화에 불을 붙이고 달을 향해 흔들면서 소원을 비는데, 대개 공부 잘 하고, 아프지 말라고 빌었다. 전쟁 이후에는 깡통을 가지고 쥐불놀이를 했다. 개인 햇불은 이경훈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했다. (이경훈)

한편 정월대보름에는 더위를 팔고, 부럼을 깨며, 귀밝이술을 먹었다. 보름날 아침에 친구를 만나면 ‘아무개야’ 라고 친구 이름을 부르며, 얼떨결에 대답을 한다. 그러면 “내 더위 사가라”고 말을 하며 더위를 판다. 한편 이날 부럼도 깬다. 새벽에 일어나서 부럼으로 밤, 호두, 땅콩 등을 입으로 깨뜨려서 먹지는 않고 버린다. 왜 이렇게 하는 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날 아침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술도 조금 먹인다. (안정훈)

이경훈 노인회장은 귀가 밝아지거나, 귀 먹지 말라, 또는 귓병에 걸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3월 쯤 보리가 나오면, 보리밭에 재거름을 준다. 재를 뿌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 작물이 자라는 게 다르다. 소똥은 겨울에 받아 두었다가 봄철 3월 쯤에 논에 거름으로 주었으며, 닭은 많이 기르지 않기 때문에, 닭똥은 거름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식 때에는 조상 묘소에 가서 차례를 지냈다. 제사음식은 집안 제사와 같으며, 술과 전을 준비하고, 끝난 다음에 음복을 했다. 남자들만 갔으며, 아이들도 데리고 갔다. (안정훈)

단오에는 여자들이 그네를 뛰고,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는 동네 근처의 연못이나 집 주위에 잘 자란다. 예전에 창포는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자 아이들이 이 물로 머리를 감았으며, 쪽진 여자 어른들도 머리를 감았다. 남자 아이들은 대개 가위나 가리방으로 머리를 깎아서 뽕뽕머리가 많았다. (안정훈)

금초는 일년에 단오와 추석 전에 두 번 실시한다. 단오 때에 풀을 한번 깎아서 논에 거름으로 주고, 추석 전에 또 한번 금초를 한다. 집안에서 낱자를 잡아 조상 묘소에 다같이 가서 금초를 한다. (안정훈)

사당골의 모내기는 초파일의 지니고 대개 음력 4월 15일쯤에 했으며, 양력 5월 중순경이다. 이곳의 모내기 철에는 전라도에서 여자들이 품앗이를 와서 일을 했다. 이 마을에는 5명 정도 배당이 되었다. 이 중에는 부녀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처녀도 섞여 있었다. 이들을 일을 잘 했으며, 심지어 지게질도 잘 했다. 이들은 알선한 사람의 집 사랑방에 기거하며 일을 했다. 듣기에는 전라도 지역 역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이곳 인근 마을의 여기저기에 나누어 배치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모내기를 한 다음에 전라도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내기를 했다. 그 중에 일부 참한 처녀는 중매로 이곳에 시집을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 동네에도 5명의 총각이 전라도 처녀와 혼인을 했다. 1960년대의 1일 품삯은 약 300원으로 보리쌀 3-4되에 해당된다.

모내기 때면 전라도에서 여자들이 왔지요. 어디 인지는 모르지요. 주로 여자들이 많지요. 단체로 오는데, 여기에 몇명씩 오고, 또 다른 데도 오고 그랬지요. 아, 일은 최고로 잘하지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지게질을 못하냐. 뭐. 그 사람들 못 당해요. 여기 와서 모 내고 자기 동네에 가서 모 내고, 전라도 사람들은 못 당해요. 이리로 시집오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래서 자손들이 외갓집도 몰라요. 여기에 어린 나이에 와서 자리잡아서, 저희 엄마가 열댓살되어 왔으니. 누가 중매해 주지요. 거기도 평야가 많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잖아? 그러게 이런 말이 있잖아. 전라도에서 너댓살만 되면은 큰집으로 보내고, 나중에 큰집의 손가락을 가지고 온다잖아? 이 사람들이 오면 알선을 해 준 집에 사랑방 같은 데 같이 지내고, 참하면 여기서 중매해서 시집 장가가고.

이 동네에서도 한 몇집 되지요. 처녀가 오는 거예요. 부녀자들도 오지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많지요. 중매해 주는 사람은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고, 여기 사람들이 중매를 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전라도에서 여기 오려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역에서 데리고 오고, 여기서 가서 전라도 역에서 인계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역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오고, 이곳에서도 여기 몇 명, 포천에 몇 명, 그렇게 노파 주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잘 살아요. 생활력이 강해서, 일 잘 하고 그래서, 다들 잘 살아요.(안정훈)

사당골은 농악이 센 곳이다. 주로 백중놀이와 추석, 김매기 두레, 정초 걸립 때에 농악을 쳤다. 정초의 농악 걸립은 이경훈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본 적이 있는데, 대략 195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된다. 이곳 농악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두레 농기가 있었으며, 깃발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써 있었다. 두레 작업 때에는 일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올 때에 농악을 쳤다.

수십명이 두레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마을 전체의 김매기를 해 주었다. 농악은 백중놀이와 추석에도 쳤다. 다만 두레 때에 이웃 동네와 기싸움을 한 적은 없다.(이경훈)

백중 시기에 호미씻이를 한다. 이것은 농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동네에서 별도로 음식을 준비했다. 두레놀이를 하는데, 호미씻이라고 한다. 근래에는 현 노인정 앞길에서 놀았으며, 동두천문화원이 중심이 되었다. 백중놀이는 최근 소요산 단풍제에서 놀이를 한다. 예전에는 사당골을 중심으로 민요 회원 중심으로 농악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근래에는 농악이 분리되어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이경훈) 백중날은 은행나무 앞에서 들돌들기 시합도 했다. 이 돌은 무거워서 예전부터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들돌에는 청나라의 침입을 막은 어유소 장군 관련 설화가 전한다.(이경훈) 지금도 은행나무 앞에는 들돌들기를 하던 돌이 전시되어 있다. 이 들돌은 지금 한쪽이 약간 깨졌지만, 무거워서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지금 주민 중에 이 돌을 드는 사람이 없으며, 예전에도 드는 사람이 드물었다.(안정훈)



〈그림 10〉 백중날 사용된 들돌(은행나무 앞)

여름철에 더위를 먹어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없을 때에는 익모초 생즙을 내서 먹는다. 예전에 익모초는 집 근처에 심었다.

여름철에는 천년 은행나무 그늘이 시원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모여 쉬었다. 이 나무 주위는 바람골이라 해서 다른 곳마다 더 시원해 여름날 밤에 노인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은행나무 인근에는 개미와 모기가 없는데, 주민들은 이 나무의 은행이 독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이 나무는 솟나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열리지 않는다. 10년쯤 전에 옆에 은행 암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에는 은행이 열린다.

은행나무 앞에 큰 연못이 있어서 농사철에 이 물을 끌어다 썼으며, 아이들은 여름철에 이곳에서 목욕을 했다. 그 앞에 개울이 흐르는데, 작년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연못을 메워버렸다. 당시 아파트를 짓고 연못을 메우면서 동네에서 말이 많았다. (안정훈)

10월 초에는 은행나무 앞에서 행단제를 올린다. 마을의 천년된 은행나무 앞에서 매년 10월 초하루에 지내는데, 올해는 11월 8일에 행사를 했다. 노인회장이 초헌을 하고, 시장이 아헌을 하며, 문화원장이 종헌을 한다. 비용은 시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찬조를 한다. 100여호 가운데, 약 30호 정도가 참여한다.

12월 말 쯤에 마을회의를 해서 다음 해 행사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운다. 예전에는 통돼지를 잡아서 행사를 치뤘다. 2004년부터 동두천시에서 지원하며 마을행사에서 시의 행사로 확대가 되었다.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으며, 각종 제가와 향로 등의 일체가 다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술도 담아서 썼으며, 삼색과일, 포, 적, 돼지머리 등을 제물로 쓴다. 그동안에 한번도 중단이 된 적은 없다. 은행나무 앞에 있는 마을수호비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제물에 필요한 음식은 인근 시장을 이용하는데, 노인회장 이경훈이 어린 시절에는 송내리 시장을 이용했으며, 후에는 제일시장, 자유시장, 큰 규모의 공설시장 등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행단제라고 하지요. 옛날부터. 은행나무에 고사지내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했지요. 우리가 듣기로는 고사 지낼 적에 날을 잡아요. 여기 학자분들이 좋은 날을. 그러다가 10월 초하루로 해서 못을 박아논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주일 전부터 나가지

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도가집에서 전부 음식을 다 해요. 술도 준비하고, 돼지도 잡고, 떡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도가집에서 식구들이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밤 1시에 지내요. 조용할 적에. 옛날 기제사 지내는 것처럼 밤에 지내요. 동네 사람 다 가지요. 부정한 사람만 못 가고. 그러고 상을 당한 사람은 3년 안에 못 가요. 상을 다 나가야 가지, 그 안에는 못 가요. 부정하다고. 근처에는 은행나무와 관련되는 향교는 없었어요.(이경훈)

가을 추수 때에 논 마지기당 수확을 마대로 가늠한다. 논농사의 마대를 보면, 예전에는 1마지기에 1가마가 나오기 어려웠다. 마대라는 것은 한 마지기에 한 가마 나오는 것을 말한다.(안정훈)

가을에는 봄에 심은 박을 수확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박은 변소지붕에 주로 심는데, 안채 지붕에 심으면 그늘이 져서 비가 와도 물이 잘 안 빠지고, 또한 무게에 의해 지붕이 쉽게 썩게 된다. 슬래트 지붕은 박이 열어도 여름에 열을 많이 받아서 시들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짚으로 따리를 틀어서 박 위에 올려놓으며 열을 덜 받아서 시들지 않는다.

예전에 바가지는 밥바가지, 된박, 조롱박, 뒷박 등의 여러 쓰임으로 사용되었다. 밥바가지는 모내기나 논매기 같은 들일을 할 때에 밥과 아욱국을 담은 것으로 사용한다. 된박은 위에 구멍을 뚫어 매달아서 안에 작은 씨앗을 넣어 보관한다. 이렇게 놓으면 공기가 잘 통하며, 또한 바가지에 굳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쏘아지지 않는다. 조롱박은 항아리에서 사용하는데, 간장항아리에서 간장종지로 쓰거나, 아니면 물항아리에서 물바가지로 쓴다. 그리고 뒷박은 쌀항아리나 쌀독에서 쌀을 재는 데 사용한다. 바가지가 오래 되어 깨지면 실로 꼬매서 쓰기도 한다. 10년 정도 오래 쓰면 겉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안은 쌀겨가 묻어서 색이 허옇게 된다. 바가지는 1970년대에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지붕에 박을 길렀죠. 그런 거, 지붕은 화장실 그런데, 변소 있는데다 심지, 안채에다가 심으면 지붕이 쉬 썩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지붕같은 데다가 심는데. 그 조그만 하나까 잘 올라가고. 안채에다가 하면은 그늘이 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잘 안 빠지 않아요. 그래 쉬 썩지요. 슬래트 지붕도 박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날이 뜨거우면은 시들어 버려요. 태양이 많이 쬘니까. 슬래트에도 올리기 올리는데, 그럴 적에는 밑에 따리처럼 해 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하지요. 이렇게 두아리 트는 식으로 거기다 박을 올리면 열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따리는 짚으로 만들지요. 플라스틱이 생기면서 바가지가 사

라졌지요. 70년대에 와서 그랬지.

옛날에 그걸로다가 들에 나가면 바가지에다가 밥을 퍼서, 바가지 밥이지. 들에 나가 가지고, 거기다 밥을 푸고, 반찬은 빙 둘러 앉아서 먹고, 모내고, 논매고 할 때지요. 아육국 주로 끓여서 먹고. 된박 해 가지고, 똑같은 데 위에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매달아 놓은 거지. 거기다가 조그만 씨앗 같은 거 넣고. 그거 매달아 놓은 것을 된박이라고 해. 위를 뚫어서 매달아 놓으니까 쏟아지지 않고, 위를 덮지는 않지요.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조롱박은 간장종지라고 해, 간장박가지, 간장 항아리에서 똑 떠서. 이것은 조롱박으로 써요. 물 증기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바가지 하고 뒷박을 해요. 쌀뒷박, 쌀항아리에 넣고 조석 때만 되면, 몇 식구면 몇 되 떠서 한다, 이런 게 있지요. 그게 오래 되면 반질반질해요. 노르스름하고. 또 깨지면 그걸 꼬매, 실로 꼬매지요. 실이나 철사같은 걸로 꼬매. 십년 그렇게 되면 그 안은 쌀겨가 묻어서 허애요. 다섯 식구면 두 번 정도 뜨면 되겠다. 알지 그건, 박가지 되박.(안정훈)

음력 10월 추수가 끝나면 겨울철 땀감으로 쓰기 위해 남자들은 산에 나무하러 간다. 주로 은행나무 뒷산인 칠봉산을 자주 올라갔으며, 보통 하루에 3짐씩을 해가지고 내려온다. 왕방산은 거리가 멀어서 하루 1짐만을 해오며, 무거워서 많이 해 오기도 어렵다. 대개 아침 6시 경에 지게 지고 산에 가면 저녁 5시에 내려온다.

음력 10월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초가집을 새로 인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적당한 날을 잡아 지붕을 새로 인다. 이것도 보통 3-4짐씩 서로 품앗이를 한다.

양력 11월 초에 김장을 담근다. 김장은 반양식이라 해서 겨우내 먹는 주요 음식이다. 대개 4-5개 정도의 김치를 담는다. 동치미, 찐무김치, 깍두기, 맛김치, 포기김치 등을 담는다. 따라서 김칫독도 여러 개 묻는다. 젓갈이 귀하기 때문에 새우젓 정도만 김치에 넣는다. 이경훈 노인회장은 옛날에는 10식구나 되었으며, 김치는 150포기 정도를 담갔다. 김치냉장고가 나오면서 김칫독을 묻는 풍습이 사라졌다.(안정훈)

사당골에서는 양력 11월 말 경에 메주를 쑈다. 조사 시기가 2018년 11월 27인데 이 시기가 메주를 쑈는 시기라고 한다. 콩을 5-6말 정도 가마솥에 넣고 3-4시간 정도 푹 삶은 다음에 절구에 넣고 찼는다. 그리고 식은 다음에 메주를 만드는데, 보통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하루 정도 방에 짚을 깔고 놓는다.

선달에는 메주를 띄운다. 짚 있는 방바닥에 하루를 둔 다음에 메주를 방안

에 매달아서 띄운다. 음력 선달 그믐날에 메주를 떼어서 다시 방바닥의 따뜻한 곳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는다. 음력 1월부터 3월 사이에 말날을 받아 장을 담는다. 메주를 뺀고 채로 쳐서 장을 담는다. 된장과 간장을 담으며, 고추장도 같은 시기에 담는다.

메주는 한 일곱여덟 식구에는 한 대여섯말 쭉지요. 쭈는 시기는 요즘이지요. 양력으로 한 11월 말쯤이 되지요. 한 서너 시간을 과서, 쏜 것을 절구에다 찧지요. 그러고 방에다 짚 깔고, 방에 넣어 놔두었다가 꾸덕꾸덕하면 방안에 매다는 거지요. 방안에는 하루 정도 놔두지요. 그리고는 방안에 매달아요. 전라도 쪽에는 추녀 끝에다 매다는데, 여기서는 방안에다가 매달아요. 꾸덕꾸덕해지면, 그래가지고 방이 훈훈해지면 이게 뜨잖아요. 그러면 음력 선달 그믐날이 되면은 이것을 떼어요. 매달았던 것을. 그리고 이것을 바닥에다가 따뜻한데에 이불같은 것으로 꼭 싸두었다가 삼월에다가 장을 담아요. 삼월이나 일월 사이에 장을 담아요. 날을 잡는데, 주로 말날에 담아요. 말날이 좋다고 해요. 된장, 간장을 담는데. 된장을 해서 간장을 담지요. 메주를 뺀아서, 가루로 해서, 채로 쳐가지고 해서 담지요. 대개 된장 담을 때에 고추장도 담지요.(안정훈)

늦가을에는 겨울 동안 소에게 먹일 여물을 미리 준비한다. 여물로는 조짚대(나루대), 짚, 콩깍지 등을 작두로 찢어서 섞어 만든다. 미리 여물을 준비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철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소죽을 쑤어 소에게 준다. 겨울철에는 아침 일찍 소에게 따뜻한 소죽을 쑤줘야 소도 든든하다. 나루대, 콩깍지를 전부 준비하고 짚도 미리 찢어놓는다. 그래서 추수가 지난 다음에는 사람 먹을 김장을 준비하고, 소가 먹을 여물도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남자들은 땀감으로 쓰기 위해 수시로 지계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왔다. 추수한 짚은 지붕이기에다 부족하기 때문에 땀감으로 쓸 생각은 전혀 못했다.

선달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습관이 있다. 한편 그믐날에는 복조리 장사들이 복조리를 팔러 다닌다. 대문 앞이나 위에 놓아두면, 이것을 정월 초하루날에 대문 안으로 들여와서 방문 위에 걸어놓는다. 나중에 복조리 장사가 오면 돈을 지불한다. 한편 이 날은 묵은 세배를 했으며, 이튿날 설날에는 새해 세배를 했다.(안정훈)

(4) 사당골의 놀이

사당골마을의 놀이를 보면, 농악, 들돌들기, 돌팔매싸움, 기싸움(농기), 사방 치기, 비석치기, 끈질(고누), 그네뛰기, 백중놀이, 엇치기, 화투, 윷놀이, 척 사대회가 있다. 특징적인 놀이를 보면, 사당골은 농악이 활발하게 전승되었으며, 정초 농악 걸립은 1950년 중후반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백중 때에 농악대가 중심이 되어 백중놀이를 이어오고 있으며, 아울러 마을 남성들 중심으로 들돌 들기의 습속이 있었다. 또한 사당골은 인근 산 넘어 안골과 정월 대보름에 기싸움과 돌팔매싸움을 했다. 이경훈(남, 1949년생)과 안정훈(남, 1942년생)이 구술한 사당골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자치기는 몇 자를 먹기로 미리 정하고, 편을 나누어 노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놀았다. 땅에 구멍을 뚫고 작은 자를 가로로 놓고 긴 자로 떠서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쳐서 멀리 보낸다. 그리고 떨어진 자리까지의 거리를 긴 자로 재서 몇 자인지를 확인한다.

구슬치기는 땅에 구녕(구멍)을 1-3개 정도 뚫어서 구멍에 차례로 넣으며 노는 방식이 있고, 또한 일정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구슬을 맞춰서 먹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놀았다.

썰매는 사당골에서 비행기 썰매를 주로 탔다. 이것은 일반 썰매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며, 바닥에 날이 양쪽에 있는 썰매와 달리 가운데에 하나의 날이 있는 썰매를 말한다. 다리를 나란히 해서 서서 타며, 따라서 꼬챙이도 긴 편이다. 이것은 앉아서 타는 일반 썰매보다 빠르다. 사당골 은행나무 옆의 연못에서 썰매를 많이 탔는데, 최근 이곳을 메우고 아파트를 지어서 연못이 사라졌다.(이경훈)

연은 주로 방패연이 많으며, 대나무갈퀴의 대가치를 잘라서 만들었다. 대나무가 없을 경우에는 싸리나무를 쪼개서 만들기도 했다. 이경훈은 형님이 연을 잘 만들었다. 연을 날리기 위해 실을 감았던 열레는 낫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 나무를 4각 형태로 만들어 두 개를 엮대어 만들었다. 제기는 엽전에 창호지를 싸서 만들었다. 한 발로 차기, 땅짚고 차기, 양발로 차는 방식이 있다.(이경훈)

비석치기는 일정한 거리에 돌을 세우고 발로 차서 상대의 돌을 쓰러뜨리는

방식이다. 머리 위에 이고 움직이면서 떨어뜨려 맞추거나, 무릎이나 발등에 놓고 가서 쓰러뜨리는 방식도 있었다. 이것이 비석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며, 이 놀이를 여자들이 많이 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사방치기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놀았다. 발로 돌을 밀면서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엇치기는 긴 흰 엇의 가운데를 꺾어서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구멍의 크기를 서로 쟁다. 구멍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 형태이다. 화투는 정월달에 주로 치는데, 다른 마을처럼 노름으로 치지는 않았다. 주로 민화투를 치다가 6.25 전쟁 이후에 육백을 치기 시작했다.

윷놀이와 척사대회는 주로 정초에 놀았다. 윷은 싸리나무를 주로 사용했으며, 던질 때에 떨어지면서 “쨍 ‘하고 나는 소리가 좋다. 그리고 오래 쓰면 반질반질 윤이 난다. 예전에는 1등에게 낚화루를 상품으로 준 적도 있다. 노인들이 자주 윷을 놀며, 지금도 청년회 주관으로 정월대보름에 척사대회를 연다. 한편 사당골에는 못치기, 투전과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안정훈)

나.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1) 봉동마을 개관

정병순(여, 1930년생)은 이 마을에 시집을 와서 71년째 살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봉동마을은 결혼 초기에는 사여위(사야위)라고 했으며, 이후에 봉동마을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상봉암이라고 한다. 예전에 60-7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상봉암과 하봉암으로 나뉘지며, 상봉암은 ‘윗따여기’, 하봉암은 ‘아래따여기’라고 불렸다. 이 마을은 수성 최씨가 반 이상 거주하는 최씨 집성촌이다. 그리고 정병순의 친정 집안인 전주 이씨가 4대에 걸쳐 일부 살고 있다.

정병순의 친정인 머령이(멀원리)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이며, 그 마을은 경주 정씨 집성촌이다. 정씨 집안은 전곡, 연천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정병순의 집안 할아버지가 이곳에 벼슬로 부임을 해서 정착하면서 후손이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머령이(양원리)는 봉동마을에서 뒤의 마차산(588m) 고개를 넘으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다. 양원리에는 정씨와 왕씨가 절반씩 살았으며, 정씨와 동서지간인 서씨와 이씨(공주 이씨)도 후에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경주 정씨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림 11〉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세부도



〈그림 12〉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전경

(2) 봉동마을 토박이의 삶

(여, 1930년생)은 경주 정씨로 10리 거리의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머령이, 멀원리) 출생이다. 친정 동네는 경주 정씨 마을로 전곡, 연천에 땅이 많았던 양반 지주 집안이다. 친정의 부친은 학자로서 땅과 쌀을 팔아 만주독립군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 그러나 두 오빠들이 1940-50년대에 잇달아 사망하고, 부친도 1960년대에 사망하면서 독립운동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과거 집안에 고서가 많았으나 전쟁 중에 집이 불타면서 책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그림 13〉 봉동마을 정병순 제보자의 최근 모습

그녀는 10남매의 넷째 딸로 유복하게 자랐다. 전쟁 전 해인 1949년 4월 10일(음력)에 19살의 나이로 동두천 봉동마을의 전주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혼인 당시 몸종을 거느리고 왔으나, 시댁이 가난해서 도로 돌려보냈다.

처녀 시절 엄한 집안 규율로 바깥출입을 못 했으며, 오히려 시집을 와서 대문 밖 출입이 자유롭게 되었다. 집안에게 부친에게 천자문을 배웠으나, 문밖 출입을 못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 가족 몰래 전곡의 소학교 시험을 봐서 1주일을 다니다가 들켜서 학교 공부를 포기한 일도 있다. 그녀가 전주 이씨 집안에 시집을 와 보니 시댁은 몰락한 농사꾼 집안이었다. 그녀는 이곳 봉동 마을에 시집을 와서 71년째 살고 있다.

그녀는 학습의욕이 높고, 수학능력도 뛰어나며, 기억력이 매우 좋다. 따라서 8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혼례, 장례 방식과 동상계(시신에 예단 들이는 것), 각종 차례음식, 술 담그기, 베짜기 등을 소상히 구술했다. 동상계는 장례 때 시신에 예단 들이는 것으로 ‘죽은 동상계’라 하며, 혼례 때 신부에게 주는 예단은 ‘산 동상계’라 한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상가에 불려다니면서 수의와 상복 짓기를 도맡아서 했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전쟁 중에 사망하면서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우울증을 앓아 집안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시어머니 몫까지 집안일을 도맡았다. 그녀는 동두천 지역이 전쟁 중에 격전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많이 목격했다.

그녀는 살고 있는 봉동마을에서 친정인 고개 너머의 양원리는 10리 정도에 불과하다. 친정은 행정구역상 동두천은 아니고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이며, 이곳은 예전에 ‘머령이’(멸원리)라고도 했다. 이곳은 전곡으로 독립되어 있다가, 다시 파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연천군이 되었다. 멸원리는 옛날에 양주 관아 소속이었는데, 양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정병순의 친정아버지는 쌀과 땅을 팔아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뒷돈을 대 주었다. 부친은 1960년쯤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큰오빠는 일제시대에 징병에 끌려가서 귀환 후에 사망했다. 그리고 둘째 오빠는 군대에 가서 사망했으며, 장조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립운동 관련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면장이 친정에 오면 부친을 극적이 대했으며, 집에서는 술을 잘 대접해 보낸 기억이 있다. 정씨

집안에서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주변 김씨네 딸이 끌려가서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친정은 엄청 보고 무서웠지. 옛날 우리 친정어른이, 어렸을 때 맨날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 많이 가셨지. 독립운동 돈 준다고, 돈 주머니 싸들고 땡겼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없어. 아무 본전도 없어. 집안에 돈만 다 갔다 왔지. 땅 팔아 가지고 가고, 소 팔아 가지고 가고, 그렇게 땡기셨어요. 번창도 없어. 배워서 뭘 해야지 그냥. 집안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다. 큰아들부터도... 독립 유공자 안 됐어요. 안 했죠, 그 때 할 줄 모르지 뭘 알아야지.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제 6.25 나고 그 이후에 돌아갔지. 한 1960년쯤? 그 땐 신청도 안 받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거 내막도 잘 모르지. 친정에 누가 있어요.

큰 오빠가 징병으로 일본 군인 갔다 와서 일본서 바로 죽고, 둘째 오빠도 군인으로 뽑혀갔다가 거기서 해방 때니까 와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고. 자꾸 다 죽어버리니까 뭐 있어, 누가 알아요. 조카들 어린 것들 큰 애들도 15살, 장가 가가지고 16살 아들 그제 좀 자라서 아들 형제 놔놓고 환갑도 안 돼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지금 둘째가 하나 있는데, 저기 산다는데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뭐가 나와. 다 죽어버리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친정아버지가 일본 순사에게 들키지도 않고, 되래 면장 붙은 사람한테는 대우를 많이 받으셨어. 왜냐면 점잖았고, 또 옛날에 손님들이 오면 술을 잘 대접해서 보내버리니까. 그러니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럿이 그 때 열아홉살 먹고 스무살 먹고 스물두살 먹은 시색시들이 집에 우글우글했어도, 처녀 뽑아가는 게 없었잖아요. 못 뽑아갔지. 그 때 다른 곳에선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우리 주변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시댁은 몰락한 집안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서울의 안암동에 살다가 시증조 할아버지께서 홀아버가 되어 아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시댁의 조상 묘소는 초성리 미라골에 있다. 땅이 많았으나 후대에 거의 다 팔아서 집안이 쇠락했다. 다만 아들 3형제를 두어 이들의 자손만은 번성했다. 그녀는 10남매의 넷째 딸로 태어났으며, 아들까지 치면 다섯째이다. 10남매 중에 아들이 넷이고, 딸이 여섯이며, 현재 본인과 막내만 살아 있다. 원래 출생은 1930년 1월 4일인데, 1월 생일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한달을 늦추어 2월 4일로 출생신고를 했다.

정병순은 19살에 이곳 봉동마을에 혼인을 와서 71년째 살고 있다.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혼례를 치렀으며, 친정 집안이 엄격해서 시집을 오기 전에 대문 밖에 나간 적이 없다. 중매는 친정 아버지와 시댁의 작은 시아버지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두 분이 만나 혼인을 결정했다. 신랑은 전주 이씨로

왕손의 자손이었다.

초례를 친정에서 치르는데, 초례상에는 삼색과일, 콩과 팥, 암수 한쌍의 닭이 있었다. 그리고 청실과 홍실이 있었으며, 신랑이 가져온 기러기도 상 위에 올려 놓았다. 신랑은 가마를 타고 초례를 치르러 왔다. 초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얼굴을 미리 본 적이 없으며, 초례 치르는 날도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다. 초례 3일 지나서 사당차례를 하고, 조상 제사를 올린 후에 옷을 벗어놓고 나갈 때에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초례 치른 3일 후에 신랑 얼굴을 제대로 본 셈이다.

초례 치른 후에 하루 밤을 지내고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왔다. 올 때에 시종인 한남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루 밤을 자고 시댁의 형편이 좋지 않아 쌀 3말, 광목을 주고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혼례복은 동네에 구비되어 있었다. 신랑의 관복이나 신부의 활옷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친정에는 집안에 활옷이 있어 그 옷을 입고 초례를 치렀으며, 나중에 시종인 한남이가 그 옷을 도로 가져갔다. 신랑은 마을에 있는 관복을 빌려입고 와서 혼례를 치렀다.

그 때에는 친정에서 초례 치르고, 혼례 올리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죠. 3일 넘게 해서 왔는데. 한남일 데리고 왔죠. 올 때 가마 타고 왔죠. 가마 타고 오는데 난 시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정에선 나를 시종으로 해서 보냈는데, 시댁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럴 힘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도로 쌀 서말과 광목 해서 도로 보냈어요. 그때 시종은 친정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건데, 시집보내면서...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이 열아홉 살 먹고 바깥을 안 내다 보고 자랐는데. 근데, 시집에서 시아버지가 그냥 집안이 그렇다는데. 그리 보내고. 내가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였죠.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초례상은 잘 몰라요. 삼색 놓고, 양쪽에 콩, 팥 퍼놓고. 닭 갖다놓고. 닭은 암탉. 그렇게 붙들고 양쪽에 청실 홍실 내려가지고 기러기 놓고. 신랑이 기러기 들고 와서는 뒤집어서 했죠. 신랑은 가마 타고 왔어요. 그 때에는 나귀가 없어. 신랑 얼굴도 못 쳐다봤죠. 초례 치를 때 와서 삼 일 지나고. 또 한님이 와서 잤잖아.

첫 날 저녁은 그랬죠. 시종이 같이 자고, 시종을 하고 3일날 사당 차례를 또 해야지. 조상님한테 절 다 제사 지내고, 사당 차례를 하고, 그 때에는 옷 벗어놓고 상을 나갈 적에 그 때 쳐다봤죠. 그니까 3일이 지나서 얼굴을 봤죠. 그것도 똑똑히 못 봤어. 초례 치르는 동안에는 족두리 쓰고, 큰 당귀대 의복 하고 있는데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혼례복은 동네서 있죠.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활옷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집안에 활옷이 있었어. 색색 빛나는 활옷이. 할머니들이 해놓았어. 돌아가시면 입고 가라고. 명지 땀은 데다 해가지고 색동을 해서 활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갈 때 입고 갔다 오

고, 그리고 우리는 친정에서 그거를 입고 대례 했어요. 위에다 입지 않고. 그래서 한님이 가져갔죠. 신랑은 전복을 여기서 입고 오고, 관복을 있으니까 관복을 자기네 동네에서 갖고 땡겨 와서 입고. 난 빌려 입지를 않았어. 여기가 부자 집안인데, 친정에 다른 세 채 집 해서, 대문이 셋이야. 여기는 상문, 중문, 하문 저 바깥에 있고. 그랬었지. 대문 하나에 작은 하인 있지. 또 대문 하나 열면 큰 하인이 살고. 안채는 주인이 살고 그렇게 살았죠. 집 안에서 고을 수령을 했었죠. 안채가 열 두칸이래요. 사랑채가 있고, 문간방이 있고. 시댁은 집이 작죠. 창문도 작고, 마당도 적고 그렇지. 여기는 양반집이라고 보낸 거지.

친정집은 대문이 상문, 중문, 하문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가 12칸이며, 사랑채와 문간채가 별도로 있었다. 그런데 시댁은 집과 마당이 작았다. 신랑은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²⁸⁾의 후손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10월에 시제를 지낸다. 시댁은 6대조 때에 이곳에 들어왔으며, 남편은 둘째 장손이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육이오 때에 5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당시 52세의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였다. 그래서 정병순은 해방 후에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당한 적은 없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까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다. 한편 그녀도 전쟁 때에 3번의 피난을 갔는데, 전라도, 천안, 동면으로 각각 피난을 갔다.

그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했다. 어린 시절에 친정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좀 배웠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딸에게는 사당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집안 몰래 전곡에 있는 소학교 시험을 보았다. 당시는 소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 변소에 간다고 말을 하고 몰래 빠져 나갔는데, 1주일을 다니고 월사금을 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만두었다. 당시 15살 위의 오빠에게 들켜서 혼이 났다.

부친은 학자로서, 집안에 옛날 책이 많았다. 그 고서는 전부 육이오 때에 집이 폭격에 의해 불타면서 함께 타버렸다. 이 지역은 전쟁 중에 격전지였기 때문에 참혹한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 송장이 수북히 쌓여 있었으며, 밤에는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가며 점령하던 곳이다.

28) 광평대군(1425-1444)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전주 이씨 중에 후손은 번창했다.

친정에서 천자문 배우다가 말았지. 그렇게 뱃뱃서 쪽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 먹었지 뭘.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저길 하다가 난리가 나고, 여자들은 서당도 못 보냈죠. 바깥 구경도 못했어. 소학교도 안 보내고. 일본 점령 때 내가 몰래 가서 시험을 쳐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니깐 어떻게 난리법석을 치는지, 매만 지대 맞고선 못 갔죠. 소학교도 시험 쳤죠. 동네 애들이 가길래 몰래 끼어서, 할머니가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배 아파 변소 간다.’ 그러고선 가 가지고 저 전곡으로 가서 시험 봐서. 시험 치르는 놈은 떨어지고, 엉뚱하게 나는 시험에 들었지 뭐야.

그러니 한 일주일 이따 책값이 나왔어. 야단났지 집안에서 법석. 아침마다 저녁에 똥마렵다고 병들었다고 그랬더니 그짓말 했다고, 야단을 확 쳐버렸지. 그래서 못 갔죠. 우리 오빠가 하도 무서워서. 아버지보다 오빠가 더 야단을 하고. 오빠가 나보다 한 열댓 살 위였죠. 어떻게 무서운지. 아버지는 학자니까 일을 안 하시고, 오빠가 일을 하니깐. 자기가 일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그런 거 다 돈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랬지.

친정에 책이야 많죠. 친정아버진 책상물림인데 아주 선빈데, 선비로 늙으시는 건데, 일은 몰라 아주. 6.25때 다 탔죠. 어디서 일선인데. 우리 집에도 족보가 다락에 이렇게 있던 건데, 다 타버렸지. 거기는 포격을 안 했으니까, 여긴 포격을 12번씩 했는데. 우리 친정도 훌쩍 타고, 시집도 훌쩍 타고. 여긴 족보가 큰 집이라고 두 개 찢을 때도 있었어요. 다 타고 하나 없어요. 여기가 격전지라서. 가평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지, 남쪽 부산에서도 나왔지,

여기가 아주 싸움터야. 여기 싸움터인데 뭐가 있어요. 송장만 수두룩 하더라. 그 때 생각하기도 싫죠. 나서면 그냥 집은 다 타기도 하고, 더러 있는 데다가 포장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 자고 나오면, 벌써 밤이 후두두둑 했다 하고 나오면 저기도 송장천국 송장천국 송장천국...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말도 말아요. 밤이면은 시켜면 놈 싹 들어오면서, “네가 이북군이여? 국군이여?”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놈 저놈 똑같이 생겼는데. 그 때는 그냥 맘 독하게 먹어서, 죽은 목숨도 막 나가는 거죠.

그녀는 5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둘에 딸이 셋이다. 태몽은 애가 생길 때에 꿈을 꾸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다만 꿈이 안 좋으면 아이의 장래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여긴다.

정병순은 봉동마을에 시집을 와서 동네의 수의와 상복은 도맡아서 지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불러가서 하루 종일 수의와 상제(상주)의 옷을 만들었다. 바느질을 잘 했으며, 하도 많이 해서 손이 부은 적도 있다. 그리고 평생 베를 짚며 살았다.

수의는 말도 하지 말아요. 여기 누가 죽었다면 불러가는 거야. 수의말러. 난 옛날에 동상계 거정 땔어요. 난 베도 잘 짜고, 바느질도 잘 했어요. 그 마름메질은 초상났다 하면 아무개 엄마 불러 와. 어휴. 그 것도 큰 걱정이고. 장삿집에 가서 족족 베 끊어다 놓으

면, 족족 재서 똑똑 잘라서 수의 말려서 다 바느질감 해주고, 상제단 말라주고 중단이 말라주고. 하루 종일 가서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부어요.

동상계는 시신에 예단 들이는 것으로 이것을 ‘죽은 동상계;라 하며, 신부에게 들이는 예단은 ’산 동상계‘라 한다. 따라서 채단은 산 동상계와 장례 때의 죽은 동상계로 나뉜다. 이것은 죽어서 청실, 홍실로 예단을 들이는 것이다. 상제에게 “시신 앞 예단 들여라” 라고 말하면 동상계를 들인다. 그리고 위에 영정을 놓고 상제가 삼으로 흙을 떠서 덮는다. 혼백을 접고 동상계를 매면 장례가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동상계는 지금은 하지 않는다. 동상계는 친정 부친이 처녀 시절에 염하는 것과 함께 직접 가르쳐 주었다. 이곳에 시집을 와서 장례에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동상계를 해 주었다.

계들을 안 하고. 그냥 산재가 났다 하면, 옛날에 누가 해 상표를 누가 해요. 안하지들. 초상집들 갈려고도 안하지. 그럼 부녀들이 해달라는데 어떻게, 가지. 웬만한 집은 동상계 못 땀잖아. 그럼 거기서 오는 식으로 동상계 땀어버렸지. 근데 지금 동상계 잊어 버렸어. 그게 죽어서 청실홍실이야. 살아서 결혼할 때 청실홍실 이어진 게, 죽어서 청실홍실 해 가는 거야. 예단 대 지는 거. 예단이 동상계예요. 그래서 상제가 여기다 놓고 갔다, 송장 드러놓고 ‘예단 드러라.’ 그러면 가져가다 이렇게 신체에다 놓잖아요. 놓고선 흙을 덮잖아.

송장을 갖다가 땅 속에 넣고, 홍대로 덮잖아. 그럼 상제가 와서 ‘예단 드러요.’ 그러면 그 걸 여기다가 놓고 갔다가, 넣고 엽전 한 장을 갖다 덮고, 그걸 흙을 상제들이 한 삼씩 뜨고 엮어놓아야 탄 사람들이 흙을 덮잖아. 그게 먼저 들어가는 게 동상계여. 근데 지금 그거 하는 놈이 어딴지. 하나도 없어. 옛날에나 그 법이지, 지금 없어요.

장례 때 가는 거, 채단을 묶어가는 건 산동상계. 죽어서 예단 드리는건 죽은동상계. 지금 청실홍실을 채단 가져갈 때 가져가잖아요. 함속 갈 적에 색실이 오잖아. 빨간 천 하나 천, 노란 천, 올 적에 색실이 와. 그게 예단실이야. 청실홍실을 빨간 채단에는 남색실을 감고, 남색 천에는 빨간 실을 감아서 함을 놓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혼사실을 놓고 그럴 때 넣을 적에 그 실이야.

산동상계는 채단을 이렇게 놓고 그 실로다 톱 해서 거기다 톱 둘을 탁 해서 딱 하면 딱 매서 잡아 때려 놓으면 함문을 열고 한 가닥 빼면 주르륵 풀려서 싹 풀려 채단이 나오는데, 죽은 동상계는 이 놈을 잡아서 옮겨매고 고놈을 잡아서 옮겨매. 안 풀여져지게 매는 거지. 혼백 접고 동상계 매면 끝이야.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해. 하나도 안 하지.

동상계는 여자들이 보기 힘들지. 난 그저 우리 친정아버지가 가르쳤죠. 이렇게 신체를 만들어 놓고, 미음 할 적에 옷 입히는 거, 미음하는 거, 어느 가닥부터 잡아뜨리는 거, 수색 얻는 거. 그거 다 가르쳤죠. 딸들마다 다 가르쳤어요. 시집오면. 내가 시집와서 많이 했잖아. 이집 저집 해준 게 있으니까.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집은 내가 많이 갔어요.

내가 그거 만들고 수의 마르고, 그거 해서 다 들여보내 주지. 입어보라고. 수의 말라서 수의 꿔매가지고 거기다가 들여보내주면 거서 위험할 제 다 하잖아요.

한편 동네에서 잔치 때에 편을 할 때에는 백편, 징편, 팔편을 만들었다. 떡을 시루에 엮히고 우끼, 파, 꽃송편 등을 만들었다. 주악은 송편처럼 만들어서 떡을 발라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것이다. 대개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을 섞어 만든 일종의 색떡이다. 이것을 나중에 기름에 살짝 튀겨냈다.

음식도 진짜 나만 하는 거 내가 다 했죠. 동네 큰일은 나 편을 얹힌다고. 그 전엔 방앗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편들을 짓잖아요, 그 환갑 잘 차려먹는 집에는, 백편치지. 팔편치지. 징편 치지. 편도 몇 가지야. 그렇게 짜면 그거 다 내가 얹혀놓지. 시루 안쳐주고 찌서 해놓고. 상 대는 것도 방식이 있잖아. 떡 개는 것도. 우끼도 해야지 주악도 해야지. 편을 개서 상을 받을려면 편을 이렇게 개고 옷기 덮지, 주악 올리지. 그 것도 다 꽃송편을 하잖아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악을 짝 이쁘게 해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주악이라는 게 송편처럼 하는데, 빨간 반죽하고 노란 반죽하고 파란 반죽하고 물감을 각각 지저. 물감 반죽을 따로 해놓았다가, 송편 빚을 때 세 개를 조금씩 떼서 꼭꼭 주물러서 파가지고 송편을 만들면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그렇게 색떡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에다 살짝 튀겨가지고, 옷기를 편을 이렇게 괴고 옷기를 다 돌려 덮고 거기다가 주악을 꽃처럼 올려요. 그렇게 괴면 보기가 이쁘죠. 그렇게들도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 몰라 지금은. 귀찮으니까 안 할려고. 이 정도 딱 아는 거죠. 누가 돌아가서 상 퍼들어 왔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지. 갖다가 얹혀놓으면 종일 가서 지르면 아주 무지 아프죠.

(3) 봉동마을의 세시풍속

봉동마을의 세시로는 설날 음식, 때때웃, 널뛰기, 단오 그네뛰기와 창포물 머리 감기, 상추물로 얼굴 분 바르기, 여름철 삼 삼기, 가을에 삼베웃 짓기, 추석 송편, 늦가을 메주 쪼기, 동짓달과 선달의 엿 만들기, 술 담기(도방주, 약주술, 막걸리), 두부와 만두 빚기, 겨울철 종지놀이 등이 조사되었다. 봉동마을의 세시로 주목할 것은 설날 차례와 음식 준비로 엿만들기, 술빚기, 두부와 만두 만들기, 설빔과 옷 만들기, 단오 아침에 상추물에 분을 개어서 얼굴 바르기 등이다. 정병순(여, 1930년생)이 구술한 시택인 봉동마을과 친정인 양원리의 세시

풍속은 다음과 같다.

설날에 차례를 지낼 때에 과거 친정에서는 떡을 3말을 했다. 동짓달부터 설날 음식을 차례로 준비하는데, 엿을 고고, 술을 담그며, 두부와 만두 등을 하나씩 만들었다.

명절에는 엿을 고는데, 수수를 벗겨 밥에 찌서 곤다. 다식물을 끓여 검정 깨다식을 졸여 섞으며, 멸건 것은 다식을 하고 약과를 만든다. 수수로 편충을 만드는데, 편충은 떡을 찌어먹는 조청이다. 제사 지낼 때에는 편충 대신 꿀이나 설탕을 쓰기도 한다. 친정에서는 벌을 20여통 길러서 꿀이 흔했으며 떡을 찌어 먹을 때에 사용했다.

그 전에 쌀을 서 말씩 했죠. 집안에 다 와서 만들고, 그러고 떡국 끓여서 차례하고, 떡국들 먹고 동네 사람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떡국 제사만 지내고 저들만 다 먹고 말아요. 그 음식들을 내가 직접 했죠. 장손집은 장손집대로 따로 하고, 여긴 둘째 장손이니깐 둘째 장손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죠. 집안에 당숙이고 종조고 다 왔어요. 음식 만드느라 혼났어요. 옛날엔 동짓달 때부터 엿고지, 술 해놓고, 두부 해놓고, 만두 하고, 그거 하느라 한 달을 계속 해야 돼. 말도 말아요. 그렇게 늘어버렸죠.

엿은 수수 벗겨가지고 수수 하얗게 벗겨서 직접 담갔다가, 그 걸로 밥을 해서 엿을 새겨가지고 그걸 찌서 엿을 고잖아요. 첨엔 한참 끓이다 다식물 좀 거르고 간 다음에 다식물 퍼지. 다식물 좀더 넣고 더 졸여. 깨다식물 더 퍼지. 쌀 다신 물. 그 조금 멸건건 약과 하고, 고 담에 약과 할 때 바르는 데에 퍼놓아서 편충 쓸 거 제사에 편충 딱해 놓으니깐, 인절미지, 편충 항아리에 퍼 놓아야지. 수수 서 말 과서 그걸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서 말을 해서 엿을 만들어서 손님들 대접할 거 해야지. 그걸 말을 다 어떻게 해요.

편충은 옛날에 떡을 찌어먹는 거. 지금은 설탕을 많이 찌어먹지. 예전엔 그런 거 없으니까, 조청을 젓가락으로 찌어서 감아서 잡수고 그게 편충이라는 거여. 결국은 조청이지. 이름을 짓길 편충이라고. 제사 지낼 때도 떡을 놓으면 편충을 놓아라 그러지. 그래서 종지예다가 조청을 떠서 상에다 놓아. 그게 편충이라고 그랬어. 벌을 많이 하는 집은 편충에 꿀을 넣고, 벌을 많이 못하는 집은 조청을 넣죠. 제사에도, 우리 친정은 벌을 많이 하니까, 벌통을 뒤에다가 한 20통씩 놓아서, 꿀을 일 년에 한번 떠가지고 이런 항아리로 담아놓고 그냥 퍼 나르는데. 여기는 이런 저런 것도 없고.

술은 친정에서 약주술, 도방주, 막걸리 3가지 종류를 담았다. 상대에 따라 달리 내놓는데, 약주술은 깔끔한 손님에게, 도방주는 보통 손님에게, 막걸리는 일꾼들에게 내놓는다. 도방주는 좁쌀, 수수, 쌀을 찼어 채로 쳐서 떡을

한다. 그리고 쌀 1말에 누룩 1말을 섞어 찹쌀로 찌서 술을 걸러낸다. 하얗게 떠서 보름 정도 지나면 도방주가 된다. 쌀이 동동 뜬다고 해서 동동주라고도 한다.

술은 담근 얘기를 하면 한이 없죠. 술은 한 가지가 아냐. 도방주도 있고 약주술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세 가지를 해야 돼. 막걸리는 일하는 일꾼들은 막 퍼다놓고 먹는 막걸리 해주고, 깔끔한 손님 오면 약주술을 내가야 하고, 그냥 보통 손님은 도방주라는 술 내요. 지금 그걸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도방주는 좁쌀, 수수 빵아 막 두드려 담갔다가 가서 봐서 떡을 찌요. 슬슬 내려 굵은 채로 큰 시루다가 떡을 찌서 쏟아서 놓았다가, 그게 쌀이 한 말이면 누룩도 한 말을 넣어. 그렇게 해서 버무려서 이제 항아리를 큰 독에다가 넣어두었다가, 갠 다음에 찹쌀을 담갔다가 찌요. 찹쌀을 찌서 그 술을 거르고선, 독에다가 한 독씩 걸러서 몇 독을 걸러놓고 쌀을 두서너 말 어치 찌서 넣어. 거기다가 쌀누룩을 해.

쌀누룩을 가루로 넣어놓은 걸 밀가루로 누룩을 해가지고, 하얗게 띄워서 그걸 빵아서 같이 섞어서 막간에 거른 데다가 다 넣어요. 넣어서 꼭 덮어서 붓을 해서 놔둬. 그럼 그게 다 괴지. 괴면은 쌀을 하얗게 동동 뜨고, 안 괴면 다 가라앉아. 그러면 막 퍼다 먹어. 막 퍼다가 대접을 해. 그 쌀로 한 게 동동주고. 약주술은 하얀 쌀 누룩으로 해요. 쌀누룩으로 해서 띄었다가 쌀을 빵아서 떡을 찌서 하고. 도방주가 동동주야.

쌀을 빵아서 찌서 또 부실러서 쌀가루에다가 버무려. 밀가루 누룩을 해서 떼서 버무려서 넣었다가 다 쉰 다음에 걸러요. 걸러서 이제 뽕얀 술을 항아리에 담고 찹쌀을 찌가지고 거기다가 쌀가루 누룩을 해서 다 비벼가지고서 하얀 술에다가 덩뎅덩뎅 담가서 가만히 놔둬. 그게 다 쉰 다음에 용수를 박아요. 용수가 이런 체 얹었는데, 용수를 메가지고 거기 밑에다 조그만 돌을 넣어서 가만히 담가놔. 술독에다가 그러면 하얀 술을 가만히 가운데로 동동 뜨면 가운데로 용수로 해서 떠다가 대접을 하지요.

약주술은 쌀을 빵아 쌀가루를 밀가루 누룩으로 섞어서 발효를 시킨다. 항아리의 찹쌀을 쌀가루 누룩으로 비벼 용수(채로 엮은 것)로 치고 돌에 담가 놓는다. 그러면 20일 정도 띄우면, 하얗게 술이 뜨는데, 맛이 좋다. 술을 몇 달에 걸쳐 띄우는 경우도 있다. 막걸리는 4~5일에 걸쳐 막 걸러낸 것으로 앞의 것과 비슷하다. 술은 친정에서 배웠으며, 시댁 친구들은 술을 제대로 담그지 못했다.

약주술. 그거는 진짜 맛있죠. 약주술은 많이 담그죠. 몇 달. 한 20일 전부터 하고. 했다 담갔다 또 했다 그러니까. 도방주 통은 한 보름이면 먹고. 막걸리는 한 4일~5일이면 막 걸러 먹고. 막걸리는 막 걸러서 막 먹는 거야. 일꾼들은 배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막걸리도 그냥 쌀로 만든 거예요. 떡으로 해서 걸러서. 지금 집안에 일일이 거르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걸러놓고 쌀 찌서 거기다 늘 항아리에 넣고 뿌영게 막 퍼다 먹는 게 막걸

리아. 전부터 내 손으로 해왔으니까 다 기억하지. 집안에 술이 안 떨어지죠. 친정에서 했지. 여기 시댁에서는 할 줄도 몰랐어. 내가 늙어도 시집와서 많이 했지. 내가 다 배워서 열아홉에 시집와서 이 집에 할 줄 모르는 거. 내가 해서 손님 대접했죠.

설에는 아이들에게 때때옷을 입히는데, 주로 여자 아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힌다. 호장저고리라 해서 노란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힌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연분홍 옥색 저고리에 바지를, 남색조끼를 해 입힌다.

예전에 친정이나 시댁에서 물레질을 하고 베를 짜는 것을 일년 내내 쉬지 않았다. 그리고 삼을 삶아서 명주실로 식구들 옷을 해 입혔다. 겨울에는 명주로 새 옷을 해 입히고, 여름에는 삼베로 옷을 해 입힌다. 밤에 삼을 삼고 바느질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설날에 때때옷은 색동저고리도 있고, 회장저고리라고, 여기다가 요렇게 노랑저고리에다 빨간 배를 받아. 빨간 옷고름 달고. 그렇게 해서 해 입히고. 여자아이들 거쥌. 남자애들은 연분홍저고리 아니면 옥색저고리에 남색바지 해 입혔어. 남색조끼에다가 이렇게 색으로 해 입히고. 그 전엔 집에서 바느질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예전에 물레 많이 돌렸죠. 베도 많이 짰는데. 물레질도 하고, 베도 짜고, 삼도 사고, 명지실도 키고 그랬죠. 시댁에 와서도 많이 하고, 친정에서도 많이 하고. 베 짜는 건 계절이 따로 없죠. 1년 내내 명주도 짜고 삼베도 짜고 그러니까.

인제 겨울 명절엔 명지 해 가지고 고치 쳐서 명지 짜서 새 옷들 해 입히고, 여름에는 삼베를 해 가지고 삼베 짜서 삼베옷을 한번 해 입히고. 옛날엔 옷은 여자들 손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죠. 쉴 틈이 없고 잘 새도 없죠. 밤에 삼 삼고, 물레질 해야 되고, 꼬매길 해야지, 바느질 해야지, 잘 시간이 없었어.

단오 때에 친정에서는 뒷곶의 아름드리 큰 배나무에 그네를 땀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그네를 뛰었다. 집안이 매우 엄해서 처녀는 문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창포로 머리를 감았던 기억도 있다. 이날 아침에 이슬이 맺힌 상추의 물을 그릇으로 받아서 분과 함께 개어서 얼굴에 바른다. 그러면 마른 버짐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

단오날 그네 뛰었죠. 단오날 그네 뛰는 게, 우리 친정에 뒤 끝에 큰 배나무 있는데, 배나무에다가 뒤의 끝에다 매놓고선 바깥을 못 나가게 했잖아. 큰 묵은 배가 있는데 배나무가 커요. 뒤뜰에. 거기다 그네를 메. 거기서 뛰라고 하지. 바깥에 단오에 남자들 뛰는데 어디가 뛰어? 기집애가 바깥엘 어딜 나가요 라면서. 그렇게 무섭게 자랐죠. 창포에 머리 감고, 상추물 떠다가 화장하고 그랬지. 상추 썬 먹는 그걸 이슬을 떨어다가 분을

개서 얼굴에 발랐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른 버짐 안 온다 해서. 창포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잘 내린다고 그리 감았고. 상추물 이슬이 축 내리면 거기다가 잎사귀를 툭툭 치면 물이 떨어지지. 그게 얼마나 나온다고. 단옷날이면 모두 발라라 그랬지.

추석에 송편은 1말 반 정도를 했으며, 쌀을 뺏아서 속에 콩과 팥을 넣어 밤새도록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때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다 빚어서 아침 7시까지 송편을 찌내던 일도 있다. 송편 속에 지금은 콩과 팥 이외에 깨와 밤도 넣는다.

(4) 봉동마을의 놀이

상봉암동 봉동마을의 놀이로는 종지놀이(춘향이놀이), 꼭두각시놀이, 공기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종경도놀이가 1차 조사되었다. 정병순은 친정인 양원리에서 종지놀이를 했으며, 신혼 초기에 봉동마을에서도 이 놀이를 본 적이 있다. 종지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일명 춘향이놀이라고 한다. 한편 그녀가 본 꼭두각시놀음은 작은 형제로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얼굴에 연지 곤지를 찍고, 눈을 가리고 갖고 놀았다. 어른들은 이 놀이를 매우 싫어해서 하는 것을 보면 야단을 쳤다. 한편 종경도놀이를 했으며, 처녀 시절 외출을 못 해서 집마당에서 널뛰기와 그네를 뛰었다. 정병순(여, 1930년생)이 구술한 놀이는 다음과 같다.

종지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춘향이놀이라고 한다. 정병순은 친정인 양원리에서 종지놀이를 했으며, 시댁인 봉동마을에도 이 놀이를 본 적이 있다. 겨울철에 처녀들이 방안에 앉아 술래를 정해서 노는 미혼여성의 집단놀이 형태이다. 처녀 여러 명이 “종지놀이하자”며 우선 가위바위보(짱깨뽀)로 술래를 정한다. 술래를 가운데 앉히고 이불을 덮고 방안에 빙 둘러 앉는다. 그리고 앉은 사람들 몸 뒤로 종지를 두드리며 보이지 않게 돌리면서 술래에게 종지를 찾으라고 한다. 술래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지만 이미 종지는 다른 곳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건을 사용해서 수건돌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술래가 종지를 못 찾으면 춘향을 내려야 하는데, 술래는 “춘향아, 춘향아! 2.8청춘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

월초파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일등은 노래에 맞추어 박수를 친다. 종지는 구루무(동동구루무) 뚜껑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병순은 이 놀이를 치녀 시절인 해방 이전에 놀다가, 시댁에서도 해방 이후에 노는 것을 보았다.

춘향이 노래 부른 적 있죠. 나이는 18세, 생일은 4월 초파일 그 거.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말았지. 치녀 때, 저기 요 곡 이서방네 딸 뗏이 거기 살았어요. 그 이서방네가 우리 증조할머니 친정 조카 손주딸들인데 그것들이 와. 오면 그것들이 종지놀이 하자. 그럼 이렇게 뽕 둘러앉으면서 허지. 붙들고 하나 놓고, “춘향아 춘향아 나이는 18세~” 절절 대다 싶으면 뭐 흔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마주 대고, “춘향아 춘향아, 이팔청춘 성춘향아, 나이는 18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그래가면서. 겨울에 심심하니까 방안에 이불 덮고 앉아서 꽤 웃잖아. 애들 이거 하니깐 그걸 하는 거야. 종지를 똑똑 두드리면서 종지 찾아라. 못 찾으면 가운데다 앉혀놓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춘향이 내려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종지는 요만한 구루무 뚜껑 같은 거. 종지를 뒤로 돌리지. 돌려서 땡땡 셋이나 넷이 앉으면 이렇게 수건 돌리듯이 ‘획획’ 하면 ‘여깁다~’ 그러면 또 인제 획 가서 똑똑하고 여길 가지 말고 여길 앞을 딱 돌아서 잡는데, 똑똑 소리 난데 가면 벌써 일로 왔잖아. 그렇게 못 찾으면 춘향이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들 놀고 그랬지 뭐. 옛날에 어딜 나가? 뛰 어 땡기길 뭐해? 남의 집을 가? 집안에 식구만 앉아 놓는 거야.

춘향이 노래, 이 동네 나 시집와서 하는 거도 봤죠. 그거 최서방네 딸들이, 몇 놈이 와서 그걸 하더라고. 내가 열아홉 살, 스무 살 그 때 쯤이야. 해방 되고 나서 이듬해 열여덟에 시집 온 거죠. 인제 술래가 있죠. 짱겜짱겜 해가지고선 못 찾으면 술래가 있으면 술래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종지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딱딱, 또 여기서 똑똑. 그러면 돌아가. 그럼 그걸 짐작해서 열린 쥐모양으로 가서 딱 잡아야 되는데, 소리 나는데 가면 벌써 절로 돌아갔잖아. 그걸 못 찾으면 그 노래를 또 해야 돼. 박수치면서 “춘향아~, 춘향아~” 노래했죠. 일어나선 안 했죠. 조용히 앉아서 ‘깁깁깁’ 웃고 그랬죠. 서 있는 건 다른 데서 강강수월래를 했겠죠.

꼭두각시놀음은 작은 형겜으로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얼굴에 연지 곤지 찍고, 눈을 가리고 놀았다. 어른들은 이 놀이를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

꼭두각시 노는 건 따로 있잖아요. 꼭두각시는 연지곤지 찍어가지고선 대가리를 뭐 씌워 가져가는데, 그런 거 하면 어른들이 야단을 해서 못 해요. 인형을 만들어 놓죠. 사람을 인형을 만들어 놔야, 여기다가. 인형은 꺼먼 형겜 갱여다가 돌리고, 눈을 가리고, 여긴 흰 옷을 너털너털 입히고, 그걸 놀리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른이 야단을 쳐요. 지지배 소리가 바깥에 나간다고 온 난리죠. 옛날에 여자가 어떻게 ‘하하’ 대고 웃어요. 요즘같이 ‘하하하’ 웃으면 큰일 나요. 중간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웃지. 옛날엔 양반 저렇게 웃었다간 혼났죠. 그러니 그 꼭두각시는 남들이 하는 걸 본 거죠.

정초에는 집안 마당에 널을 준비해서 널뛰기를 했다. 그리고 줄을 매어 널뛰는 사람이 줄을 잡고 뛰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정병순은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널뛰기나 그네뛰기는 여자들이 바깥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놀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는 시집가기 전에는 대문 밖을 나서지 못했는데, 시집와서 농사지으며 대문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말한다. 공기놀이는 공기돌 5-10개를 가지고 놀았다. 주로 작은 돌 10개로 공기를 놀았던 기억이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찌리가지로 윷을 만든다. 여름철에 찌리나무를 베어 반으로 잘라 윷을 만든다. 윷놀이는 정월에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주로 놀았다. 그리고 바둑돌과 같은 주사위를 던져서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벼슬이 올라가는 종경도놀이, 또는 전국을 유람하며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승경도놀이가 아닌가 여겨진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양주시

6.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1개 읍(백석읍), 4개 면(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 6개 동(양주1동·양주2동·회천1동·회천2동·회천3동·회천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이번 조사는 백석읍 방성리 무태안(혹은 못태안)과 광적면 석우리 신사래에서 실시되었다.

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 석우리 마을개관

광적면(廣積面)은 양주시 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도락산(道樂山)(441m), 서쪽은 노고산(老姑山)(400m), 남쪽은 노아산(老兒山)(335m)에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 산악 지형이며 강화천 상류변의 가납리를 중심으로 좁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광적면의 땅 이름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는 넓은 들판에서 유래하였다.³⁰⁾

현재 가납리·광석리·우고리·비암리·효촌리·덕도리·석우리의 7개 법정리와 16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으로 면적은 48.44㎢이며, 2016년 6월의 인구는 총 5,330세대에 11,790명(남자 6,345명, 여자 5,44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³¹⁾

조사가 이루어진 석우리(石隅里)는 광적면에 속하는 법정리이다. 대한 제국 시기까지 석적면 삼패하리·이패하리·삼패상리 일부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들 지역을 통합하여 석우리라 부르게 되었다. 석우1리와 석우2리의 2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귀신골, 끝돌모루, 돌모루, 박다리, 밤가시, 벌말, 섬말(도촌, 島村), 송촌말(松村洞)), 신사래(紳士來), 윗말, 풀무골(야동, 冶洞)) 등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양주시 광적면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은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서쪽은 우고리, 남쪽은 광석리, 북쪽은 덕도리와 접한다. 대부분 평야

29) 양주시청(www.yangju.go.kr 접속일 2018.8.23)

30) 디지털양주문화대전(www.yanju.grandculture.net 접속일 2018.8.23)

31) 양주시청(www.yangju.go.kr 최종접속일 2018.8.23)

지대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석우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과 석우리에서 만난다. 석우천과 신천 주변에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얇은 구릉지 주변으로 약간의 공장 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2010년 12월 31일 통계에 따르면, 총 1,089가구에 2,475명(남자 1,333명, 여자 1,14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³²⁾ 황상복(남, 1938년생)의 구술에 의하면, 광적면 석우리는 양주농악이 전승되는 마을이다. 예전에 석우리는 100여 가구, 섬말은 40가구 정도 살았다. 논농사가 활성화되고, 섬말에서 김매기 두레에는 40명의 두레패가 복을 올리며 집단적인 작업을 했다.

특히 백중 즈음에 가남면 가래비 장터에서 1주일간 농악패끼리 치열한 농악 경연도 있었다. 호미씻이로서 칠석 즈음의 마당걸이는 두레 끝나고 잘사는 집에 가서 놀았다. 하루 동안 보리술을 마시고, 수제비죽, 콩나물과 빈대떡을 먹었다. 이때 악기를 두드리고, 소리를 하며, 춤을 추면서 놀았다.

(2) 석우리 토박이의 삶

황상복(남, 1938년생)은 평해 황씨로 석우리 신사래에서 3대째 살아오고 있다. 양주농악의 상쇠로서, 팽과리와 장구에 뛰어나며, 지역 민요도 우수하다. 부친은 농사꾼이었으며, 본인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젊은 시절에 한때 배추 중간도매를 하며, 차떼기로 용산시장, 왕십리시장에 내다팔아서 많은 돈을 번 적도 있다.

32) 앞의 각주와 동일.



〈그림 1〉 황상복 젊은 시절(양주농악 상쇠)



〈그림 2〉 황상복의 장구 시연



〈그림 3〉 황상복의 젊은 시절



〈그림 4〉 황상복의 모친



〈그림 5〉 근래 국립묘지에서 확인한 황상복의 형님 묘소

황상복은 3남 1녀의 4남매 중 둘째이다. 그의 형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전사했으며, 현재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그의 누이는 일제시대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서둘러 혼인을 치렀다. 그런데 신랑집에서는 부잣집처럼 보이려고 섬에 왕겨를 넣어 집 대문 밖에 쌓아둔 것에 속아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했다.

예전에는 광적면의 마을마다 두레가 있었다. 덕도리의 자연부락 보매기에 한 패, 광성리에 한 패가 있었고, 석우리에만 자연부락마다 두레가 있어 총 3패로 가장 많았다. 두레패는 한 패에 40명 정도고 이루어졌다. 두레패마다 큰 농기 하나씩 있었고, 영기는 없었다. 농기에는 ‘농자천하 지대본’이라 쓰고, 마을 이름을 썼다. 현재 양주농악보존회는 1914년 6월(음력)에 만든 농기가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 박달동이라 쓰여 있다.



〈그림 6〉 황상복의 평과리 연습(양주농악 상쇠)



〈그림 7〉 양주농악 1914년 농기

황상복은 어릴 때부터 농악을 좋아했다. 6~7세 때부터 마을의 또래친구들이 모여서 농기를 밭에 꽂고서 깡통과 냄비뚜껑을 두드리며 노래부르며 두레농악 흥내를 내며 놀았다. 이 농기는 창호지와 마을 산에서 주운 낙엽송가지로 만들었다.

황상복의 형은 섬말 농악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나 6.25때 전사했다. 이후 황상복은 17세 되던 1955년부터 자연스레 섬말 농악에 참여하게 되었다.

광적면 소재지인 가남리에는 농악은 없어지만, 그곳 가래비 장터에서는 음력 7월 백중에 인근 마을 두레패들이 모여 일주일간 농악놀이를 벌였다. 일주일 동안 악기를 치며, 보리밥과 검은 수제비, 보리술을 먹으며 공연을 했다. 검은 수제비는 보리를 맷돌에 갈아 반죽을 해서 만든 것이다. 황상복도 17~8세 무렵에 섬말 농악 소속으로 가래비 장터의 농악놀이에 부쇠로 참가했다. 당시 섬말농악의 상대는 백석농악이었다. 일주일 공연 후 상을 주는데, 상품으로는 송아지 1마리에 소줏고리 항아리에 소주를 가득 담아 판매하는 ‘다라소주’가 주어졌다. 그에 따르면, 당시 공연 결과는 섬말 농악의 승리였으나, 백석농악이 “본바닥이니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여 우승을 놓쳤다.

이렇듯 1950년대 후반부터 이곳 마을두레패는 주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농기가 꽃혀있는 마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만약 마을을 거쳐 갈 경우에는 복을 3번 울려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내가 6~7살에 우리 동네 애들 밑에 애들을 데리고 한 7~8명 데리고 기를 맨들어서 오려가지고 그리고 산에 가면 낙엽송 꺾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파가지고 내가 오야봉 노릇을 허구, 그걸(기) 밭에다 꽂아 놓구.

나 어렸을 때 씬도 많이 했다고. 같은 동네도 팽과리를 치면 여기 이렇게 농기가 있으면 맘대로 못 들어가. 제비를 치다가 거기 농기가 이렇게 있으면 복을 세 번 울려야 돼요. 탄탄탄. 그건 들어가도 좋으냐야. 그럼 거기서 일하다가 들어와도 좋다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황상복)

섬말과 신사래 사이에 농기싸움이 특히 심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동네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섬말에는 장사가 많아 긴 장대를 손바닥에 놓고 춤을

출 정도였다. 섬말 농악의 농기는 남쪽에서 구한 대나무 장대에 베 형깎을 걸어 만들었다. 이후 농기는 황상복의 아버지가 큰아들(황상복의 형)에게 전해주었으며, 6.25전쟁 때 항아리에 숨겨두어 전쟁 후에도 보존할 수 있었다. 현재는 황상복이 마을의 양주농악 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황상복은 강원도 양구의 2사단에서 복무하다가 죽공리와 월목리 입구에 위치한 사단사령부에서 3년간 복무 후 제대했다. 처음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소리를 하는데, 몇 천 명 중에서 1등을 했다. 밤이 되자 조교들이 ‘스페아통’에 든 기름통과 찌리개피를 가져와서 장구를 가르쳐달라 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중령이나 소령이 황상복을 불러서 소리를 청해 들곤 했다. 훈련소 퇴소 후, 의정부에서 대기하다가 300~400명 중에 뽑혀서 2사단 사령부에 배치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195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 3년 상을 치렀다. 동네사람이 다 모여, 상여소리를 하고 호적을 불고, 요령과 북을 쳤다. 상여소리는 빠른 가락은 상좌가 뛰어야 할 정도였으며, 행상이 나갈 때 장난이 심한 편이었다. 그는 상여소리를 잘해 마을에서는 황상복이 없으면 장사를 못 지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상여소리는 상놈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이날 부른 상여소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상여소리 -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간다 간다 나는 떠나간다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가마술에 폭 삶은 개가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어경콩 짓걸랑 오시려나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
 (이거 하고는 조금 빠른거)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이걸 할 때 호적 불고 북을 팡팡 두들겨 빨리 가는 거야)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네 상여가 있었다. 총 24명이 메는 것으로 쌍겹으로 양쪽에 12명씩 들었으며, 어깨에 광목줄을 댔다. 상여는 마을의 대목수가 산에서 낙엽송을 베어서 직접 제작했다.

예전 상여에는 연꽃, 사자 등의 장식을 했으며, 새끼를 꼬아서 봉투를 끼울 수 있도록 했다. 새끼는 꼬는 방향은 제한이 없었지만, 상주들이 쓰는 굴판에 사용하는 새끼는 왼새끼로 꼬았다. 상어나갈 때에 모은 돈은 모두 동네 자금으로 들어갔다.

상여 행렬은 명정과 만장기, 공포, 삼베 3~4개가 앞서 나가고, 그 뒤에 상여 앞뒤로 행상소리가 배치되었다. ‘딸랭이’라 부르는 요령을 치는 사람과 북치는 사람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상여 위에 올라갔다. 북은 큰 장사에만 있었다. 마을 상여는 6.25 이후 불에 탔고, 1990년대부터 꽃상여가 나왔다. 만약 마을의 젊은 두레 회원이 죽으면 ‘죽은무지’를 해 주었다. 회원들이 모두 마을 회관에 모여서 촛불을 켜고 밤새 머리에 쓰는 고깔을 만들었다. 그리고 팽과리, 북, 장구, 제금을 치고, 호적을 불며 행장을 했다. 회원들이 묘자리를 파고 회다지 소리를 했는데, 겨울에 묘자리를 팔 때는 언 땅을 왕겨를 부어놓고 불을 질러 땅을 녹였다.

동네마다 상여는 있는데 그걸 불을 다 놔버렸어. 동네 상여는 많이 매면 24명. 쌍겹이야 그게 쌍겹. 그걸 광목을 또 매야 해. 12명씩. 그리고 또 옛날 상여는 낙엽송으로 해서 무겁잖아. 인근에 대목수 있었어. 그 사람이 맨들었어.

상여 제일 앞에는 명정에 글씨 써서 하는 거. 공포라고 베, 이렇게 몇 개. 서너 몇 개. 죽은 무지할 때는 악기가 앞에 나가요. 앞에서 악기 치고 나가면서 뒤에서 행상소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행상은 상여 위에 올라가. 잠깐씩 계속은 안 올라가도. 북치는 사람도 올라가고. 근데 큰 장사에만 해줘. 아무나 악기 치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동네에서 밤새도록 물감을 들여서 꽃을 만들잖아요. 촛불 켜 놓고 밤에. 고깔. 머리에 쓰는 거만. 상여에 꾸미는 건 우리 옛날엔 꽃상여가 없어요. 그건 남쪽 끼지요. 그걸 맨들어서 쓰고선 행상을 매고 팽과리 치면서 나가는 거야. 장구, 북, 제금 이것만 쳐요. 이걸 죽은무지라 그래. 젊은 사람 죽어 불쌍하다고. 호적 불고.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결혼해도 옛날에는 애들은 행상 안 해 주잖아. 옛날엔 장가들어야 해줘요. 우리 농악 했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열성당원이 죽으면 이걸 해줬다니까. 그게 죽은 무지야.

예를 들어 오늘 돌아가면 내일 모레 삼일 장사면 왕겨를 갔다가 불을 놔야 해. 팔려면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곡괭이로 파고 이걸 광정을 판다고 해. 그리고 흥대라고 그 위에 뚜껑 덮는 거. 그거 예전에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있잖아. 가는 거. 그거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다 까서 짝 열을 맞춰 놓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짝이 맞으면 안

돼. 11개면 11개. 21개면 21개. 그 위에 명정 덮는 사람은 덮고. 그리고 이제 회대하는 거야. (황상복)

회대는 5번, 3번을 하는데 돈이 많이 나오면 소리를 길게 한다. 3마디를 먼저 매기면, 광중에서 소리를 받는다. 순서는 긴소리, 달구질, 회심곡, 공그림, 산타령, 달구질 순으로 한다. 달구질은 오래 매기면 1시간 이상도 한다. 황상복씨는 산타령을 마을의 흥대영씨로부터 배웠다. 흥씨는 아들이 일찍 죽어 황상복에게 가사를 직접 적어주면서 가르쳐주었다.

세번을 해야 받아, 옛날 법이 그렇데. 그럼 어떻게 하나면. “군방네” 이거 한번 했잖우. “군방 군방 군방네” 이걸 젊은 사람이 있을 때는 반말을 해야 하잖아. “이쪽저쪽 좌우 쪽 군방네” 그러면 이제 광중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거야, 이렇게. “오호”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매겨요. 군방네 부름은 다름 아니고 옛날 노인 하시던 회대 한번 하자구 불렀대. 그럼 그때 상주가 많이 우는 거야. 긴소리야. “나무라도 고목이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오는구네” 그럼 그쪽에서 받는 거야. “에헤 에헤리야 달고”

물이라도 건수지면 놀던 고기도 아니 오는구나.

에헤 에헤리야 달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우리 일생이 불쌍하구려

에헤 에헤리야 달고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 마래

에헤 에헤리야 달고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 인생 한번가면 다시 오기는 만무로구려. (이렇게 하고)

가마술에 끓는 개가 커경경 짓걸랑 오시려네. (이게 매기는 거고)

부뚜막에 심은 화초가 꽃이 피면 오시려네.

(이게 처량하잖아. 부뚜막에 심은 화초가 무슨 꽃을 퍼? 가마술에 끓는 개가 어떻게 커경경 짓어? 이때 상주들이 많이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달고 하는 거야. 긴소리 하면서. 그것도 세 마디를 해야 해. 그 긴소리 하고나서는 달고질을 해야 돼.)

에헤여라 달고 에헤여라 달고

얼싸 좋구나 우리 동간 에헤여라 달고

한발두뼀 달고대를 에헤여라 달고

섬섬옥수를 부여를 잡고 에헤여라 달고

허 남 말등 찌지를 말고 에헤여라 달고

창포밭에 금붕어 놀듯 에헤여라 달고

달고 소리를 잘하면은 에헤여라 달고

막걸리 삼잔이 상급일세 에헤여라 달고

달고 소리를 잘 못하면은 에헤여라 달고

냉수 삼잔 벌이로구나 에헤여라 달고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에헤여라 달고
 사람 밖에 또 있느냐 에헤여라 달고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 네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을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왔느냐.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지전 뼈를 빌고
 어머니전 살을 빌고 칠성님전 명을 받아
 석 달 만에 피가 생겨 여섯 달에 육신이 생겨
 열 달 만에 태어나니 우리 부모 날 길을 적에
 사랑에 겨워하시는 말씀 은자동아 복자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나 금을 주면 너를 사나
 우리 부모 날 길을 적에 음식이라고 맛을 보면
 쓰디쓴 건 어머니가 잡수시고 다디단건 아기를 먹여
 은자동아 복자동아 (이게 회심곡인데 한이 없지)
 아침나절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삼삼하고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구나.
 인삼녹용 약을 쓴 들 약 덕인들 입을소냐?
 판수 불려 곳을 한들 곳 덕인들 입을소냐?
 상탕에 목욕하고 중탕에 수족 씻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발원허고.

- 달고질 산타령 -

(나는 소리가 많으니까 긴소리는 똑같이 하고 두 번째는 달고질 할 때 산타령으로 매긴다고)

함경도 백두산은 에헤여라 달고
 두만강에 둘러있고 에헤여라 달고
 평안도로 내려가니 강산도 제일이요 경계도 아름답구나
 연관정과 부벽루는 대동강이 둘러있고 영명사가 더욱 좋다.
 관봉이 초조한데 모란봉이 돌러를 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서해바다가 돌러를 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동해바다가 돌러를 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돌러를 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금강이 돌러를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이 돌러를 있고
 경기도로 올라를 오니 무악산 내린 줄기에 경복궁 대궐을 지었구나.
 인왕산이 백호가 되고 왕십리가 청룡이요.
 용산 삼개는 한강수가 돌러를 있고
 삼각산 내린 줄기에 제일 명당이 여기로구나.
 청룡백호 잘되었으니 백자천손날거로다.
 문장성이 비치었으니 문장도 날거로다.

효자봉이 비치었으니 효자충신 날거로다
 노인성이 비치었으니 장상불사 험거로다
 노적봉이 비치었으니 억만장자도 날거로다. (그리고)
 에헤 에헤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야 에야 에헤야 에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왜 돌아갔소 한백년 못다 사시고 왜 돌아갔소
 에헤 에헤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야 에야 에헤야 에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닭아 닭아 우지를 마라,
 네가 올면 날이 샌다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는 것은 싫지 않으나 앞 못 보는 우리 부친
 뉘개 전하고 입당수 가나
 에헤 에헤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야 에야 에헤야 에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노들강변 비둘기 한쌍 부러진 죽지를
 자리잘잘 끌며 검은콩 하나를 입에다 물구
 암늬이 물어 수늬을 주고 수늬이 물어 암늬을 줄 때
 암늬 수늬 으르는 소리 늬은 과부 한숨 새고
 소년 과부는 외로와 밤 붓집 쥘다. (그리고 끝물에 또 저게 들어가야 해)
 어러러리 어러리로다 (어러리야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받자나)
 어러러리 어러리로다
 앞집에 처녀 뒷집에 총각
 어러러리 어러리로다
 앞집에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 목을 매러 가네.
 여보게 총각 목을 매지를 말고 나 시집간 데로 모심 살리오세.(그리고 휘모리에)
 얼렐렐 상사디아 얼렐렐 상사디아
 새가 새가 날아든다 웬간 잡새가 날아든다.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말 잘하는 앵무새냐
 높이 뜬 거는 종달새새 얹이 뜬거는 굴뚝새새.
 우야 호를. (이거 하고 끝나는 거야)

- 산타령 -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에 둘러있고
 평안도로 내려가니 강산도 제일이요 경계도 아름답다.
 연관정과 부벽루는 대동강이 둘러있고 영명사가 더욱 좋다
 관봉이 초조한데 모란봉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서해바다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동해바다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금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로 올라오니 무악산 내린줄기 시방
 그 대궐 경복궁 대궐을 지었구나.
 인왕산이 백호되고 왕십리가 청룡이요.
 인왕산 있잖아요 서울에 왕십리가 청룡이요.

용산 삼개는 한강수가 둘러있고
삼각산 내린 줄기 제일 명당이 여기로구나.
청룡백호 잘되었으니 백자천손날거로다.

황상복(남, 1938년생)은 22세에 동갑인 김순희와 혼인을 했다. 김순희는 김해 김씨로 백석을 연곡리 개네미가 고향이다. 김순희의 이종사촌 오빠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다. 황상복은 초례 치르는 날에 처음 신부의 얼굴을 봤다.

초례는 백석을 연곡리에서 치렀으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김순희가 시집을 왔을 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뒤였다. 이에 김순희는 2년간 만동서와 함께 상식을 올렸다. 상청을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 담뱃대를 올려놓고 담뱃불을 붙여드렸으며, 상식으로는 죽과 보리밥을 올렸다. 평소에는 상식만 올리지만, 초하루와 보름에는 곡을 하고 상식을 올렸다.

황상복은 1978년도부터 15년간 배추 도매로 돈을 벌었다. 중간도매상으로 일했는데, 당시 광적면에는 여름 배추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이를 전국의 배추 장사들에게 중개했다. 황상복은 수완이 좋아 중개상으로 자리 잡았고,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많이 거래할 때는 광적에서 여름 배추가 트럭 천대씩을 싣고 나가기도 했다. 광적면 뿐 아니라 강원도 철원 대광리, 신방리 등 전국을 다니면서 배추와 무를 흥정했고, 이런 흥정만으로 몇 백씩 벌 때도 있었다.

중개한 배추는 모두 서울의 용산 시장으로 유통되었으며, 나중에는 가락시장, 왕십리 등의 상회로도 나갔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배추장사도 한번 직접 해봤다. 직접 배추를 싣고 전라도 팔천리로 가져가서 팔았다. 8톤짜리 트럭을 빌려 배추를 가득 싣고 갔더니 전라도는 서울, 경기권과 달리 차떼기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길르잖아 여기 배추 집집마다. 그럼 가서 흥정을 하는 거야. 흥정하면 내가 착실하고 거짓부렁 안 하니까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고 내 말만 듣는 거야. 그래서 몇 억씩 팔기고 가. 갔더니 거기는 배추를 차떼기로 안 넘기고 50개씩 밤새 쌓아 놔야해. 그리고 깡을 부르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와서 (그 이후에는) 몰라서 그만뒀어.”(황상복)

배추 증개로 돈을 많이 벌어 노름도 했지만 또 땅을 많이 사서, 논농사만 8천 평까지 지었으며, 당시 마을에서 가장 많은 농사를 지었다.

양주농악에는 현재 회원이 6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꾸준히 출석하는 회원은 30명 정도가 된다.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2~5시까지 모여서 연습을 한다. 황상복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달 나오는 지원비를 혼자 쓰지 않고 모아서 회원들 연습 끝난 후에 회식비용으로 사용한다. 그는 지역의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농악을 가르쳤으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석우리의 세시풍속

황상복이 구술한 석우리의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 달맞이와 햇불 기원, 햇불싸움과 돌싸움, 윷놀이, 농악 걸립과 고사덕담, 1월16일 귀신날, 한식 음식, 초파일 불공, 4월 봉숭아 물들이기, 단오놀이, 6월의 섬말 김매기 두레와 농악, 칠석의 호미씻이와 마당걸이, 백중(7.15)의 농악경연, 여름 천렵, 여름 참외서리, 복날 풍습, 가을 운동회, 추석 전 벌초, 추석 차례와 음식, 10월 시제, 이영 엮기, 김장하기, 동지 팔죽, 겨울 가마니 짜기, 윤달 풍습 등이다. 특징적인 세시로, 석우리 섬말 김매기 두레, 칠석 때의 호미씻이, 백중의 마당걸이, 백중 가래비장터 농악대회 등이다.

김순희(여, 1938년생) 구술의 주요 세시를 보면, 음력 2월의 나이떡, 간장 된장 담기, 3-4월에는 비암리에서 나물 뜯기, 음력 9~10월의 수수와 팥콩을 넣은 ‘수수푸래기’ 죽 끓여 먹기, 수수에 팥을 넣은 ‘도가니떡’이 있다. 남자들의 화목 부업, 10월 상달 집안 고사, 메주와 김장 담기 등이다. 정월의 널뛰기, 4월의 봉숭아 물들이기, 단오 그네뛰기 등이다.

김재원(여, 1931년생) 구술의 주요 세시 내용은 정월 떡국과 떡만두국, 정초 세배, 설날 술 대접, 대보름 오흥밥과 나물 종류, 품앗이, 벼수확, 추석 송편과 차례음식, 상달 고사와 사제, 메주쭈기와 김장이다. 황상복(남, 1938년생)과 김순희(여, 1938년생) 부부가 구술한 석우리 세시풍속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떡국으로 차례를 준비한다. 쌀 2말로 가래떡을 준비해 떡국을 끓인다. 명절 장은 면소재지의 가래비 장에서 보았으며, 장날은 4일과 9일이었다.

차례는 계속 지냈지. 여긴 간단하게 무나물, 숙주나물 그런 거 쓰고, 물김치 쓰고. 탕은 이제 주로 속에다가 무 넣고, 그 다음에 고기 없고, 그 다음에 북어 없고 그렇게 해서 쓰고. 다시마도 넣고. 적은 그냥 소고기 적으로 쓰고, 돼지고기 쓰는 집도 있고. 생선은 조기만 놔. 조기. 포는 북어포. 그렇게 지내지. 사과 내놓고. 간단하게 해요. 전도 부쳤지. 저기 누름적, 녹두 누름적. 우리 만동서 성할 적에는 주로 중국산 팔로로다가 사서 부쳐어. 거기다가 인제 파 넣고, 거기다가 또 다시마 찌꺼 넣고. 다시마 불러서 누름적 기럭지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넣고. 실고추 조금 뿌리고. 한 여남은 조각 해 놓고. 전은 또 돼지고기 다진 거 동그랑땡 고거 해서 이렇게 부쳐놓고. 물김치는 그때 따라서 미리 한 2~3일 앞두고 담그고. 여기는 주로인제 나박김치라 하는데 고춧가루 조금 넣고. 어떤 사람은 동치미도 이렇게 맑강게 해서, 깨끗하게 담가놓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 술은 옛날에만 담갔지. 우리 어릴 적에 그때만 담가 했지. 다 사서 쓰지.(황상복)

보름 안에 어른들이 있는 집에 세배를 다녔다. 대개 초하루는 차례를 지낸 후, 이틀째부터 길게는 10일까지 세배를 다녔다. 황상복의 아버지가 마을 두레패의 부영좌였기 때문에 세배를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 그의 삼형제는 아버지에게 세배를 온 어른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이들에게 답례로 세배를 다녔다. 평균 15가구 정도는 항상 다녀갔다. 세배를 하면 덕담을 했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건강하십시오”라고 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 잘 해라”고 덕담을 했다. 덕담 이후 세뱃돈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은 금액을 주었다. 또 엿을 고아두었다가 주기도 했다. 어른들에게는 대개 차례를 지내며 준비했던 과일과 술을 대접했다.

김순희의 경우,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정월에 취떡을 만들어 먹었다. 단오 무렵 수리취를 뜯어 말려두었다가 수수와 쌀을 섞어서 수리취를 넣고 반죽을 만든다. 반죽을 떼어 속에는 통팥을 삶아 넣었다. 정월에도 취를 말려두었다가 떡을 빻아서 화로불에 구워먹기도 했다.

산에서 나물 할 적에 수리취도 많이 뜯어. 그걸 뜯어다가 말렸다가 수수 좀 넣고 쌀 쪄으면 나오는 싸래기랑 섞어서 수리취떡을 많이 했어. 친정에서 우린 정월달에 많이 했

어. 설날에 해서 정월달에 먹고 했지. 거피도 안하고 그냥. 송편 요렇게 크게 만들어. 길쭉하게. 속에 저기 빨간 팥 그냥 통팥 넣고 했어. 통팥 삶아서. 수리취는 집에서 절구에다가 그걸 찼어서 채로 쳐서 가루를 내야 하잖아. 그래 가지구서는 집에서 암반에다가 돌팽이로 다가 이렇게 쳐. 그리고 그걸 덩어리를 이렇게 다라에 그릇에 가지고 와서 방에 앉아서 이렇게 맨들었어. 그래서 맨들어서 이런 다라에다 이렇게 담아서 한데다가 놓으면 그냥 지그덕 지그덕. 그럼 인제 나중에 화로 불에 가져다가 이렇게 구워먹으면. 그 생각이 지금도 나.(황상복)

설날에는 설빔으로 옷을 새로 만들어 입었다. 형편이 넉넉할 때는 단추를 하나 끼우는 윗도리 조끼를 만들어 입히기도 한다. 옷은 황상복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다. 대개는 기존에 입던 광목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정월에는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사덕담을 한다. 농악으로 덕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황상복이 유일하다. 예전에 정월 무렵 마을에 남사당패 5~6명이 다니며 북, 장구, 팽과리를 치며 고사덕담을 해 주고 쌀 한 말씩을 받아갔다. 마을에서 농악을 하던 사람 중에 이들을 따라가면 생계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정월 새벽이나 밤에 외지의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집 대문 앞에 북조리를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 대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구입한다.

정월 대보름에도 농악을 치는데, 이것을 “산꼭대기에 가서 달마중을 치고 논다.”고 한다. 또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화를 만들어 주고 달맞이를 한다. 조를 수확하고 난 조대를 잘 말려서 한 움큼 정도에 마른 솔잎과 낙엽을 위쪽에 섞어 불이 잘 붙도록 한다. 이것을 다시 아이의 나이 수대로 짚으로 묶는다. 달이 막 떠오르면 불을 붙여서 달을 보고 절을 하면서 ‘대림질합니다’ 하며 소원을 비는데, 대개 뒤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김순희의 경우, 수수와 짚을 엮어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어, 여기에 불을 붙인 뒤 ‘아이들이 무탈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몸통을 길게 해서 짚으로 아이의 나이 수만큼 묶은 뒤, 대문 밖에서 태웠다. 대개 아버지가 자식들의 수만큼 허수아비를 만들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태웠다. 김순희도 시집오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으며, 시집와서는 자녀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서 빌었으며, 큰 아들이 15세가 되면서 그만두었다.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꼭 지어 먹었다. 좁쌀, 수수, 콩, 팥, 보리, 차좁쌀 등을 섞어 밥을 지었다. 묵은 나물도 준비했는데, 취나물, 시래기나물, 가지나물, 호박고다리, 고구마줄거리, 숙주나물 등으로 나물을 무쳤다. 이날 여러 집의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마을에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었다. 또 부럼을 깨고, 더위를 팔기도 했다.

보름날 조낭구 가지고 사람마냥 허수애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이대로 매듭을 묶어. 그래가지고 잘 건강하게 해주고 하라고 축원하면서 그걸 불을 냈어. 짚으로다가 나이대로 묶어. 허수애비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불을 놓으면서 이렇게 축원을 해줬어. 밖에 집 밖에 그냥 웬만한데서 해줬어. 아버지가 만들어주면 어머니가 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속으로 그냥 뭐라고 비는데 건강하고 잘해달라고 절하고 그러지.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그렇게 해줬어.

자기 나이대로 묶으니까 좀 길어 짚 허고 조나무하고 이렇게 맨드는 거야. 엮는 거는 짚으로 묶는 거야. 나이대로, 잘 타라고 이렇게. 애들마다 따로 만들어야지. 우리 애들도 내가 해줬어. 내가 직접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들딸 해서 3개 만들어야지. 애들 크면서는 안 했겠지. 한 여남은살, 열댓살 넘어서는 안 했지.

보름이면 밤하고 깨뜨려서 버려주기도 하고 그랬지. 부럼이라 그러지. 밤만 했어. 깨물어서 그냥 밖으로 버렸지. 귀밝이술 먹으라고 한 모금씩 이렇게 먹이기도 했지. 애들도. 그전에는 또 이름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이래 가지고 “내 더위 사가라”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새벽에 와서, 이래가지고 따구 맞는 사람도 있었어.(황상복)

음력 2월에는 나이 떡을 만들어 먹었다. 여자들끼리 재미로 했다. 2월의 중요한 행사는 간장과 된장을 담는 일이다. 김순희는 여유가 없어서 콩 3~4말 정도를 담갔는데, 담는 법은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다.

2월 초하루날 승편 같은 거 해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 해 먹었겠지. 그걸 그렇게 해먹었는데. 장은 가래비 장날이면 담갔어. 9일 4일. 5일마다 와. 나는 가래비 장날. 친정어머니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달력보고 담그는데, 나는 가래비 장날. 2월 달에 많이 담그지. 간장. 된장. 콩은 예전에 많이 심었지. 우리네는 한 3~4말씩 담갔지. 집에서 먹으니까. 새댁 때는 없어서 조금씩 담갔어. 친정엄마 따라서 했지. 시댁 따라 안 배우고. 형님 만동서하고 6년 같이 살 때는 그때는 만동서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쪽 따라하고.(황상복)

3-4월에는 나물을 캐러 백석 비암리까지 다녔다. 비암리의 오슴골이란 곳에서 주로 나물을 켜으며, 나물취와 미역취가 많았다. 4월까지 나물을 뜯어

서 연한 것은 바로 무쳐먹고, 나머지는 데친 다음에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듬해에 삶아서 보름날 밥을 해 먹기도 했다. 봄철에 수수가 나면 절구에 찼어 밥을 해먹었다.

산나물이 아주 많았지. 베보자기에다가 비암리, 기내미 치녀 적에 캐서 마루에다가 내던져 치면 그냥 나물이 김이 펴평 올라와. 떠가지고. 많이 뜯어서 잔뜩 쌓아놓았다가 이고 오니까. 10리도 넘는데서 이고오고. 백석에 사니까 비암리라고 그쪽이 산이 곁어. 3월 말경쯤이면 나물이 나오지. 여기 시집와서 오숨골 가서 조금씩 취 이런거 한 종지씩 해다가 말려서 먹고 했지. 취, 미역취, 고사리는 없었고. 드문드문 하나씩.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돼. 지금은 다 공장이 들어섰어.(황상복)

4월에는 봉숭아꽃을 따서 물을 들였다. 사기 꽃잎을 넣고 백반을 섞어 잘 으갠 뒤, 손톱위에 올린다. 치녀 때만 했으며, 시집와서는 하지 않았다. 4월 한식 때 황상복은 국립묘지에 있는 형의 산소를 찾는다. 주로 정월과 추석에 많이 간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치녀 때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매년 했으나, 시집을 오고 난 후에는 하지 않았다. 또 이때 수리취를 뜯었다.

농사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지었다. 논농사는 남자들이, 밭농사는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맡았다. 밭에는 주로 조, 보리, 콩의 잡곡을 심었다. 황상복 내외도 벼농사를 지었으나 소출은 많지 않았다. 거름이 부족했고, 물도 대기 어려워 수확이 많지 않았다. 당시 보리밥, 보리개떡을 많이 먹었다.

벼가 이삭이 누런 게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야하는데 새파란 게 이렇게 서있으니” 쌀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주식은 잡곡이었다. 보리는 맷돌에 타서 고운 가루는 떡을 찌서 먹고, 거친 것은 밥을 지어 먹었다. 보리개떡은 고운 보리 가루에 강낭콩과 7~8월에 수확한 하지 감자를 섞어 만들었다.

보리방아 찼려면 3번 4번 해야 밥을 해 먹어. 주식으로 속에 든 거 있어. 그것도 많이 먹고. 떡처럼 찌서. 그리고 보리쌀 절구질해서 지금 이 별에 가져다 너는 거야 7~8월에 그렇게 절구에 3번 내면 바짝 말려서 맷돌도 우리 집에 없으니 남의 집 가서 타다가 고운채로 하면 이렇게 가루가 나오잖아. 그럼 덩어리는 밥해 먹고 고운가루는 개떡 찌 먹었지. 강낭콩 넣고. 그거 이맘때 (7월)찌서 먹는 거야. 강낭콩 넣고 감자 넣고.(황상복)

마을의 농사짓는 집마다 두레 날짜의 순번을 정하는데, 이것은 두레 영좌가

정하게 된다. 마을주민들은 ‘영좌님’이라고 불렀으며, 대개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점잖은 사람이 맡았다. 당일이 되면, 논 주인은 새벽부터 마을 산꼭대기에 올라가 징을 쳐서 두레원들을 깨운다.

보통 하루에 두 집정도 김을 땀으며, 일은 새벽부터 시작해 오후 5시면 끝난다. 일이 끝나면 잘 사는 집에서는 ‘마당거리’를 준비해, 두레원들을 대접했다. 마당거리로는 땀돌에 보리를 갈아 만든 수제비국과 보리술, 콩나물 무침, 빈대떡을 준비했다. 이렇게 마당거리를 대접받으면, 술을 마시면서 밤 12시까지 농악을 치고 놀았다.

두레 나갈 때 모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집 주인이 징을 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쳐 오라고, 내일은 누구네 아니까 다 아니까. 벌써 짜 있어요. 두레에서 영좌님이 있어요. 영좌는 제일 나이 많고 점잖은 사람 뽑잖아요. 이 사람이 미리 날짜를 정해줘요.

한 5시 해 넘어가면 농악이 일찍 끝났어요. 저녁때가 되잖아요. 그럼 마당거리 라고 해요. 그 들어가면 수제비국 그거 먹고, 순 보리술 해 놓은 게 모가지 덕덕 걸러. 그거 먹고 그리고 그 전에 콩나물, 그리고 빈대떡. 그거 일을 하고도 그것도 좋다고 들어가서 좋아서 그걸 먹고 노는 거야.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웬만큼 사는 집이나. 일 땀기면 코피가 빨갛게 터져. 고단해서. 그전에는 팽과리 둘, 장구 하나, 북 하나, 저금 하나 이렇게야. 그럼 비가 오면 북이고 젖어서 평평평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두들기고. (소리) 안 나는 북을 치느라. 그 전에는. 그전에 그렇게 좋게 놀고.(황상복)

논김은 두 번 매는데, 초벌과 두벌 모두 농사일 대신 소리를 했으며, 주로 방아타령을 했다. 김매기는 복날 무렵 마무리 된다. 황상복은 어려서부터 소리를 잘 해서, 다른 두레 성원들이 김매기를 할 때도 일은 하지 않고 소리만 했다. 두레 악기는 팽과리, 징, 북, 제금이 각각 1개씩 있었다. 북도 지금처럼 잘 만든 것이 아니라, 비라도 오면 가죽이 다 젖어 ‘퍽퍽’ 소리만 났다. 두레원은 마을에 논이 있건 없건 모두 참여했으며, 두레일을 다니면서도 농사가 없는 집에서는 하루 품을 팔았다.

6월에는 천렵을 했다. 황상복은 주로 마산개울에서 형제들과 마을 친구들과 고기를 잡았다. 이곳은 마을 여성들이 빨래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고기는 거이(게), 뚜갈마지, 뱀장어, 날피리, 불거지, 메기, 싸리붕어 등이 주로 잡혔다. 잡은 고기로는 국수털래기를 해먹었다. 국수털래기는 잡은 물고기에 국수, 수제비를 넣고 양념으로 고추장,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의 양념을 넣

어 끓인 것을 말한다.

칠석인 음력 7월 7일에는 각 두레패 단위로 하루를 놀았다. 황상복이 섬말 농악에서 활동하던 17살 시절에는 이날 도요타 트럭을 빌려타고 광릉내(광릉천) 개울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나절까지 하루를 놀다가 돌아왔다. 여름철 밤에는 남자 아이들이 재미삼아 참외밭에 들어가 참외서리를 해서 나눠먹 기도 했다.

개울에 고기가 많았어. 이 앞에 개울. 마산개울.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랬어. 날피리, 불 거지, 메기, 두갈마지, 짜리붕어, 뱀장어도 있고. 거어도 있고. 몇 종류 있었어. 천렵도 가고 잡아가지고 국수털레기라고 해. 그거 해 먹지. 잡고기 넣어가지고 고추장 풀어서. 배를 따고 씻어서 전부 떼고 넣고 끓이다가 양념은 주로 고추장, 고춧가루, 파, 마늘 넣고 끓이면 수제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국수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가 완전히 다 퍼지지. 쪼끄마니깐. 근데 옛날엔 고기가 퍼지질 않아.

지금 저 광릉내 거길 갔어. 7월 칠석날. 도요타차 있었어. 그거 타고 먹을 거 실어가지고 가서 놀았어. 바쿠 안에 둘 달리고, 거기 그래도 사람이 한 몇 십 명 타잖아. 호미씻이 별개로 고생했으니까 하루 놀러 가는 거야. 그때 내가 한 17살 정도야.(황상복)

김순희의 경우, 시집오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칠석에는 항상 마을의 서낭당에서 고사를 지냈다. 귀너미 고개라는 곳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누름적과 술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자녀들이 무탈하길 기도하고 돌아왔다. 두벌매기까지 농사가 종료된 후에는 호미씻이를 한다. 호미씻이는 마을단위의 품앗이로 이루어졌으며, 농악 4패가 마을마다 날짜를 달리해서 2~3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놀았다.

호미씻이는 어떻게 하나면 칠석에 마을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때만해도 4패를 불렀어요. 4패. 죄 불르면 그날은. 이게 하루 놀려면 이게 품앗이예요. 4패면 나흘을 나가야 해요. 그러니 품앗이야 거진. 그쪽에서 불렀으니 하루 얻어먹었잖아. 우리 동네에서 며칠날 불르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하는 거야. 나흘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날을 잡아서 비슷한 시기인데 금방은 안하지. 저희도 2~3일 있어야 준비해야 하니까. 너는 술 한 통해라. 너는 밀가루를 대라.

그때만 해도 보리밥이야. 우리네 일 땡길 때는 보리밥에다 땃돌에 갈아가지고 체를 치지 않은 시꺼먼 보리 수제비. 그걸 먹고도 하루 종일 꺽충대고 춤을 추고, 하루에 두 집해요, 두 집. 새벽에 나가고. 초청을 하면 그날 주인은 하루 종일 심부름해야해. 멀어도 치고 오니까 농악을 그러니 멀어도 마중을 나가요. 그래 기 꼬랑지 붙잡고 춤추고. 하루는 4패가 오면 청일 심부름해야 해.(황상복)

대개 호미씻이는 복날 즈음이라 마을 단위로 개장을 먹기도 한다. 요즘도 마을 이장이 개장 100근, 떡, 수박, 참외 등을 준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강원도로 피서를 다녀온다. 그곳에서 농악을 치며 고사도 지내고, 밴드도 불러 하루 놀다가 온다.

7월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벌초를 하는 일이다. 하루 날을 잡아서 일요일에 자식들이 서울에서 찾아와 함께 벌초를 간다. 황상복의 부모 묘소는 현재 농악 전수회관 옆이며, 윗대 조부모부터는 납골당에 모셨다. 납골당도 농악 전수회관 옆에 800평 규모로 새로 지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가남리 가래비의 큰 논에서 만세를 부르는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의 유래는 1919년 3월 1일에 가남리 가래비의 만세배미(남양 홍씨 논)에서 마을 주민 5~6명이 만세를 부르다가 총살을 당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논이 있었는데 일본 정치 때 몇 명이 죽었어. 남양 홍씨라고, 홍씨네 논이 크게 있었어요. 거기서 만세 불르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간 분들 있잖아. 그래서 그게 ‘만세배미’야. 나도 거기 가서 일을 했거든. 가남리야 거기가. 가래비, 가래비. 큰 논 한배미가 있어서 홍병완씨라고 거기 논이야. 지금 비석을 크게 해 세웠어. 그래 해마다 만세 불르잖아. 한 천명도 더 오지, 시장도 다 와. 학생들도 총에 맞아 죽는 시늉도 다해.(황상복)

- 해방가 가사 -

일본징용 뽑아갈 때 징용 보급단 끌려갈 때
다시 못을줄 알았더니 일천구백사십오년
팔월십오일 해방되어 연락선에 몸을 싣고
부산 항구를 당도하니 문전 문전 태극기 달고
방방곡곡 만세소리 삼천만동포가 춤을 추네
남의 집 서방님은 다 살아왔는데 우리 집 서방님은 왜 못 오나.
원자폭탄을 맞았으니 왜 이다지 소식 없네
해방되어 좋다하더니 지긋지긋한 육이오가 웬말이나
어린자식 등에 얹고 자란 자식 손목잡고
늙은 부모 앞에 모시고 한강 철교를 건너가서
대구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이런 답답이 어디 있나
미아리 고개는 악마고개요 삼팔선 고개 원수고개
옛날 옛적 김신 장군은 삼국통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은 어느 시절에 통일되나

8월 추석에는 송편 차례를 지낸다. 김순희는 시집와서 현재까지 추석에 쌀 1말 정도를 준비해 송편을 빚는다. 시집을 와서 큰집에서 함께 살 때는 형편이 어려워 쌀 1말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먹을 사람이 없어서 1말의 송편을 정도를 찢다.

송편은 쭈송편과 흰송편 두 종류를 만들었다. 송편소로는 “콩 꺾어다가 헛거 넣고, 그리고 팔 같은 것도 열리면 까서 송편 속 넣고, 그렇게 해 먹었죠 주로. 그리고 묵은 팔 있으면 그거 넣어서도 해” 먹었다.

보통 추석 때 햅쌀이 익지 않아 대부분은 묵은쌀을 사용했다. 간혹 “벼가 누룽누룽 익을라하면 덜 익어서 그걸 몇 단 꺾어서 집게로 훑어다가 말려서 그걸로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했다. 차례상에는 나물은 무나물과 숙주나물 두 종류와 물김치를 올렸다. 물김치는 차례 지내기 2~3일 전에 담가 두었다.

탕은 무, 고기, 북어, 다시마로 맑게 끓인 뒤, 다시마를 마름모 형태로 잘라 모양을 내어 올린다. 적은 육적과 어적을 모두 준비하며, 육적은 소고기, 어적은 조기를 준비한다. 이외에 북어포, 사과, 배, 녹두누름적과 약주술을 올린다. 녹두누름적은 녹두를 직접 맷돌에 갈아 준비하고 그 위에 파, 다시마, 실고추 등을 펼쳐 올려서 부친다. 술은 직접 담지 않고 사서 썼으며, 장은 대부분 가남리의 가래비 장에서 봤다.

음력 9~10월에는 심었던 작물을 수확한다. 수수와 풋콩을 넣어 ‘수수푸래기’라 부르는 죽을 끓여먹는 것이 주식이었고, 수수를 반죽해 팔을 삶아 소를 넣어 ‘도가니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수수 잘라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떨어가지고서 콩을 까서 넣고 도가니 떡 해먹는 거야. 도가니 떡이라고 해 밀전병처럼 넓적하게 해서, 그때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되한 죽 마냥 쑤어, 떠서 수저로 떠먹으면 그게 수수푸래기야. 된죽 쑤듯이 거기다가 풋콩 까서 넣고, 그렇지 여름에 곡식나기 전에, 봄에 이렇게 수수가 나잖아. 그럼 가을에 쑤어 먹지. 가을에 콩도 나고 하니까.(김순희)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털어 짚단이 생기면 황상복은 초가집 이엉을 엮어 올렸다. 용구세³³⁾ 꼭대기 씌우는 것도 직접 만들었다. 또 새끼를 많이 꼬아

두었다가 일 년 내내 사용했다. 김순희도 시집오기 전에는 친정아버지를 도와 가마니를 짰다. 가마니는 겨울에 주로 짜서, 공출해서 나가기도 했고 가내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다.

이영을 이고 나면, 낙엽이 다 지는데, 남자들은 산에 가서 화목을 했다. 황상복 내외는 석우리 송충말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박다리로 이주해서 30년간 살다가 현재의 거주지로 세 번에 걸쳐 이사를 했다. 송충말에서는 나무를 떼서 생활을 했고, 박다리에서는 부엌 연료는 나무를 사용했고, 난방은 연탄을 사용했다. 지금 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화목을 떼지 않았다. 화목은 낙엽이 지면 노구산에서 해왔다.

처음에는 흙으로다 짚어서,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집을 짓고 송충말에서 살았어. 그래서 박다리로 이사 와서 세멘으로 스테이트 올려서 짓고 살다가. 거기도 방 한 칸, 마루한 칸, 부엌 한 칸, 연탄 때고 살다가. 나무 때고 산거는 송충말, 박다리에서는 방에는 연탄 놓고. 나무는 부엌에서만. 나무는 노고산이라고 해왔지, 영감님이. 그래서 원 없이 댔지. 나도 둘째 놈 뱃속에 넣고 옆에 사람이 가니까 가봤지.(김순희)

이 시기 여자들의 가장 큰 집안 일 중 하나는 김장이다. 김치는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담갔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알배기 배추가 아닌 잎이 파랗고 넓게 퍼지는 조선배추를 사용했다. 가래비 장에서 새우젓을 구입해서 사용했으며, 근래에는 생새우를 사서 넣기도 한다. 이외에 다른 젓갈이나 양념을 넣지 않고 소금과 고춧가루만으로 깔끔하게 담갔다. 소금도 가래비 장에서 구입했고, 고춧가루는 직접 농사지은 것을 사용했다. 배추김치 외에는 동치미, 달래김치(총각김치), 깍두기 등을 조금씩 담갔다. 동치미에는 대파만 함께 넣었다. 흔히 겉절이로 불리는 바로 무친 배추김치는 이곳에서는 ‘짠지’, ‘날짠지’라 부른다.

총각김치는 달래김치라 하는데, 달랭이무(달랑무)로 담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달래김치는 본격적인 김장보다 이른 초가을에 담그며, 쪽파, 고춧가루, 마늘 등의 양념을 사용한다. 깍두기는 대개 선달그믐에 새로 담가 먹는다.

33) 초가집 지붕에 이영 올릴 때에 용마루 부분에 올리는 이영 모양새를 말함.

김장은 음력 10월에 많이 하지 뭐. 할아버지(황상복) 생일이라 10월 달이라, 그 안에 많이 해 뒀. 배추김치 여기는 넣는 거 없어. 남쪽은 텔레비전 보면 엄청 많은데. 그냥 여기 경기도지방은 멸치젓도 김치가 꺼명다고 안 넣어. 고추 집에서 말린 거 발그스름한 거. 우리 그냥 여기는 새우젓 맛있는 거 그거 넣고, 젓갈 조금 사다가 이렇게 달여서 국물 조금 넣고 하지. 칼칼하게 하지. 생새우 좀 넣고. 마늘, 파 기본이고. 시집와서는 별러지가 이런 게 막 기어댕기는 거 시퍼런 거 그냥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막. 쓸어서 막김치를 담갔지. 예전에는 금방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면서 뒷걸에서 이렇게 조선배추가 이만큼씩 해.

그럼 그걸 이렇게 하나나 뽑나 뭐. 젓혀다가 씻어서 조금 뿌렸다가 엉성하게 무쳐서 먹고 살았지 뭐. 소금은 그냥 사다 쓰고. 젓갈은 새우젓하구 생새우만 넣어. 시집왔을 때는 생새우 없어. 새우가 어딴어? 지금은 생새우가 하얀 게 이렇게 간하지 않은 새우. 그 생새우 사다가 김장에 넣는 거지. 새우젓은 할아버지(황상복)랑 노랑진 시장에 가서 좀 좋은 걸로 사오지. 예전에는 그냥 있는 거 넣고, 가래비 장에서 사고.

동치미도 그냥 조금 넣고 그냥 위에다가 파 얹고. 무를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보재기를 깔고 그 위에 국물 맞춰서 가만히 이렇게 부어 놔. 그러면 누렇게 이렇게 소금은 가라서 내려앉고. 그러면 반짝 보재기를 들어내고 쪽파도 넣고 대파도 넣고, 마늘도 좀 넣고, 생강도 넣고 이렇게 뭐. 이 근년에는 어떤 사람은 배도 한 짹씩 갖다 넣고 담갔다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담가 먹었어.

짬지는 금방 무치는 게 날짬지. 그걸 짬지라고 해. 경기도 지방에선 금방 밭에다 뜯어다가 절렀잖아. 그걸 금방 무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날짬지라고 해 여기는. 다른데서는 겉절이, 겉절이 하는데. 여기서는 날짬지라고 해. (김순희)

총각김치. 여기는 달래김치라고 해. 담그는 건 여기도 그냥 똑같아요. 쪽파 넣고 새우젓 넣고, 젓갈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파 넣고. 달랑무를 넣는다고 해서 달래김치. 볼를 때는 달랭이 무 그러고. 백김치는 지금들은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어. 깍두기도 하고. 근데 달랭이 해놓으면 그만이지. 근데 정월에 새로 담가먹지. 정월에 먹을려고 선달그믐 때 무 사다가 요만큼 조금 담가먹어. 초가을에는 달랑무 서너 통해놓으면 먹고도 남지.(김순희)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칫독은 마당에 3~4개 정도를 묻었다. 그 위에 짚을 이어서 항아리가 겨우내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둘러서 움을 만들어 주었다. 김장은 집안 식구들끼리 주로 했으며, 세간을 나와서는 이웃들끼리 품앗이로도 했다. 배추는 200포기 정도를 담갔으며, 지금도 그 정도 분량을 담가 농악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10월은 상달로 농사를 다 마치면 집안고사를 지낸다. 김순희는 시집 와서 큰댁에 살 때는 대청마루에 ‘진동항아리’가 있었다. 항아리는 항상 마루 한 구석에 두었으며, 햇곡식이 나오는 대로 채워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없으면

독 안의 곡식을 꺼내 먹기도 했다.

추수한 쌀 중 일부는 빵아서 떡을 했다. 시루떡을 찌서 대들보, 방, 문턱, 우물, 대문, 장독, 부뚜막, 굴뚝, 뒷간 등 집안 곳곳에 떡을 놓아두었다. 마루에는 시루와 함께 막걸리도 같이 두었으며, 뒷간에는 꼬챙이에 떡을 끼운 뒤에 문 쪽에 꽂아두었다. 집안 다른 곳에 두었던 떡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으며, 뒷간에 두었던 떡은 조금씩 뜯어서 대문 밖에 뿌린다.

마루에 진동항아리가 있었어요. 큰집에. 독 이런 거. 거기 독에다가 헛 거를 부어놔. 헛 거. 햅쌀이고 뭐고 헛 거를 제일 먼저 가져다 부어. 그러고는 나중에는 그걸 차차 먹어. 쓰지는 않고 그냥 위해 놔요. 위해 놓고, 곡식들은 나중에 먹어요. 할튼 쌀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먹어. 마루 한 구렁이에 두는 거야. 애들 위해라고 했겠지 뭐. 몰라요.(김순희)

10월 달에 곡식 새 거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빵아다가 시루떡을 해. 그건 이제 만동서가 성할 적에 그렇게 했죠 많이. 떡을 다 갓다놔요 뒷간까지도. 우선 갓다 놓는 건 여기 성주에다가 갓다 놓고, 성주, 대들보, 방에도 놓고, 문턱에도 놓고, 대문에도 놓고, 우물에도 놓고, 장독간에도 놓고, 다 놔요. 굴뚝. 불 때는 굴뚝마다. 부뚜막에 밥하는데도 놓고, 연기 나가는 굴뚝마다. 대문턱에 뒷간에 갓다 놓고 그냥. 지금도 고사 하는 사람은 해. 지금도 기계나 차 같은 거 들어오면 하는 집 있어.(김순희)

그리고 고사떡은 한 조각씩 해서 다 놔요. 그리고 화장실에 한 거는 막대기에 꽂아 뒀어. 화장실도 이렇게 짚으로 지었잖아. 변소에 둔 것은 이리저리 떼어서 버리지 뭐.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부어 놓고.(황상복)

평해 황씨는 다른 성씨과 마찬가지로 10월에 시제를 지낸다. 황씨는 평해 황씨가 큰집이고, 장수 황씨와 창원 황씨가 각각 둘째와 셋째 집안 격이다.

- 10월 고사 축원덕담(똥그랑땡) -

똥그랑땡 똥그랑땡 어기여차 디어라 내 사랑아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길어 월천군수로 돌려라

똥그랑땡 똥그랑땡 어기여차 디어라 내 사랑아

까치란 놈은 허영고도 꺼머니 글방선생으로 돌려라

그게 한 새마다 다 있어.

딱따구리는 산나무 구녕도 잘 뚫으니 나막신쟁이로 돌려라.

까마구는 시커머니 굴뚝쟁이로 돌려라

참새란 놈 말을 잘하니 변호사로 돌려라

또 비둘기란 놈은 눈이 빨거니 술주정꾼으로 돌려라

모기란 놈은 쏘길 잘 쏘니 일자포수로 돌려라
또 개구리란 놈은 뽕박질을 잘하니 마라톤 선수로 돌려라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솜방망이로 햇불을 만들어 논 가운데 생긴 웅덩이에서 미꾸리(미꾸라지)를 잡았다. 또, 고구마서리와 콩서리를 해서 모닥불에 구워먹기도 했다. 음력 12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했는데, 그냥 알고만 있었지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서, 10월 고사떡 놓는 곳에 똑같이 팔죽을 놓았다. 팔죽은 그릇에 담아 놓았으며 대문 밖에는 숟가락으로 떠서 놓았다. 애동지, 중동지는 알고는 있으나, 특별한 차이는 없다. 팔죽에는 수수를 찧어 반죽을 만들어 작은 새알을 여러 개 빚어 넣었는데, 이를 수수 ‘웅수래미’라고 부른다.

동지팔죽 끓여 먹었죠. 동지에 대해 애동지, 노동지 그런 거 따지지는 않고 그냥 해 먹었죠. 팔죽을 끓여서 이렇게 놓죠. (10월에)고사떡 놓던 데 그렇게 냈어요. 조금씩 대문 앞에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떠 놓고 그랬어요. 숟갈로 떠냈어 옛날에. 이런 데는 집안에는 그릇에다 놓고, 바깥에는 숟갈로 떠 놓고. 팔죽에 새알도 넣지. 옛날엔 수수로 많이 했지 뭐.

chap쌀이 어딴어? 지금은 chap쌀로 하지. 수수 웅수래미. 수수 웅수래미라고. 여기서 웅수래미라고 해. 어떤 사람들은 새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경기 지방에서는 웅수래미라고 해. 예전에 엄청 얘기하던 대로 하는 거야. 요만 요만하게 조그맣게 여러 개 해서 넣는 거지.(황상복)

윤달에는 결혼을 피했고, 안 좋은 일을 해도 무탈하다고 해서 묘자리를 돌보는 일을 했다. 김순희는 친정어머니를 따라서 수의 재봉질을 많이 다녔다. 여자 상복은 광목, 남자는 거친 베로 했다. 시집와서도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가에 가서 수의 만드는 일을 도왔다. 대개 여성들은 수의, 상복을 짓는 바느질을 하거나 부침개를 만들고, 술안주를 내는 등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남자들은 산에서 묘자리를 파고 부고를 돌리는 일을 맡았다. 대개 부고는 누런 봉투에 담아 돌렸으며, 집안에까지 들이지 않는 것이 일종의 금기였기 때문에 대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요령껏 두는 것이 중요했다.

(4) 석우리의 놀이

석우리의 민속놀이는 햇불싸움과 돌싸움, 농악, 농기싸움, 윷놀이, 널뛰기, 단오놀이, 백중놀이, 화투 등이 있다. 특이한 민속놀이로 석우리에는 정월대보름에 인근 섬말과 햇불싸움과 돌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대략 1950년대 중반의 시기로 여겨진다. 한편 두레 때에는 동네 장정이 농기를 들고 춤을 추기도 했으며, 기싸움도 있어 상대 마을 농기 위의 꿩장목을 빼앗아 도망가기도 했다. 황상복과 김순희가 구술한 놀이는 다음과 같다.

정월에는 대보름 이전에 마을 전체가 윷놀이를 했다. 윷놀이를 할 때는 집집마다 명절 때 만든 떡을 가져오기도 한다. 윷놀이 규칙은 세 번씩 던져서 ‘모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등수를 가려서 상품을 준비하는데 주로 양은솔이나 플라스틱 그릇 등 생필품을 골고루 섞어서 15명 정도 줄 것을 준비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남자 어린아이들은 돌싸움과 불쌈(불싸움)을 했다. 정월대보름부터 보름간 놀았으며, 아이 싸움에서 시작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황상복도 섬말농악에 활동하기 전인 15세부터 16세까지 불쌈을 했다. 화를 만들어 불을 붙여 달을 향해 기도를 마치고 난 뒤, 불이 아직 남아 있는 햇대를 휘두르며 이웃 동네와 불쌈을 한다. 당시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불씨가 남은 화를 가지고 이웃 동네로 쳐들어 가서 잔디에 불을 놓고, 뛰어 도망오기도 했다. 잔디에 불이 타고, 달이 완전히 떠올라 주변이 밝아지면 돌싸움을 했다. 잡히는 대로 흙덩이를 던지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놀았다.

전쟁 후에는 섬말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깡통에 불을 넣어 돌리기도 했다. 간혹 휘발유가 바닥에 남은 드럼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름 날 밤에 솜방망이를 만들어 휘발유를 먹여서 이웃 마을을 향해 활을 쏘아 불을 놓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의 불쌈은 1960년대 들어 사라졌다. 정월에 여자들은 널뛰기를 한다. 어느 한 집의 마당에 널판을 놓고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널을 뛰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건너’(그네)를 뛰었다. 김순희의 고향인 개네미에

서도 여러 사람이 새끼를 꼬아서 굵은 동아줄을 만들어 그네를 매었다. 남녀 구분 없이 건너를 뛰었으며, 2명이 마주보고 함께 뛰기도 했다.

널도 많이 뛰었어요. 그거는 여기 시집와서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두꺼운 선반을 땀어요. 우리 부엌에다가요 시댁에. 그걸 해놓고 널을 뛰는데, 우리 지금 큰 놈. 지금 60이 다됐는데 그걸 뺏속에다 넣고 널을 그냥 막 뛰었어요. 그래도 떨어지긴 뭘 떨어져요. 그런 널은 아주 기가 맥히지. 널을 아주 좋아했어요. 널은 정월에 뛰지. 아무 때나 뭘 새가 어딴어? 밥 벌어 먹기도 힘든데.(김순희)

(그네도)뛰었어요. 우리 동네에다가. 고향에 백석, 거기가 개네미야. 어른들이 땀어요. 동아줄 굵게 해서 매웠어. 엄청 신나게 뛰었어요. 단오 때. 그냥 가서 놀면서 뛰었어요. 내가 즐거우니까. 건너(그네)도 좋아했어요. 혼자도 뛰고 둘이도 뛰고. 남자들도 뛰었죠.(김순희) 나도 뛰었지 그럼. 그게 저기 노고산 거기서 우리 동네 사람이 죄 갔어. 그래서 몰래 낙엽송이 비어가지고, 4월 초파일 안에 땀지. 그때만 해도 동네가 단결이 잘 되었어요.(황상복)

9-10월의 운동회 때에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황상복이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운동회 때에 줄다리기를 했으며, 마을 자체로는 이것을 한 적은 없다. 또, 예비군으로 군대에 있을 때 줄다리기를 했다.

마을 남자들은 겨울 농한기에는 화투를 많이 놀았다. 특히 법원리 용주골에 화투놀음이 많이 했다. 화투는 민화투, 짓구땡, 섰다. 쪼이(2장 뽑기)가 있었고, 고스톱은 늦게 들어왔다. 민화투는 여자들이 주로 놀았다. 겨울에는 남포에 기름을 넣고 신문지로 갓을 씌우면 아주 환해서, 이것을 밝히고 밤늦도록 화투를 쳤다.

나.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무태안

(1) 방성리 무태안의 마을개관

백석읍(白石邑)은 양주시 서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양주시 양주1동의 유양동과 어둔동, 서쪽은 파주시 광탄면, 남쪽은 양주시 장흥면, 북쪽은 양주시 광적면과 접한다. 현재는 오산리·방성리·홍죽리·연곡리·기산리·가업리·복지리의 7개 법정리와 36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11,160세대에 28,828명(남자 14,612명, 여자 14,216명)의 주민이 거주한다.³⁴⁾

조사가 이루어진 방성리(防城里)는 백석읍 관할의 8개리 가운데 하나이다. 방성리는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시, 백석면의 방축리(防築里)와 산성리(山城里) 전체, 고릉리 및 광석면의 일패리 일부를 병합하여 방성리라 하였다. 지명은 방축리의 ‘방’과 산성리의 ‘성’을 하나씩 차용해 지었다. 2001년 10월 1일 백석면이 백석읍으로 승격되면서 백석읍 방성리가 되었다가, 2003년 10월 19일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⁵⁾

지리적으로 방성리는 백석읍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양주시 회천2동의 덕계동 및 양주1동의 산북동·유양동·어둔동, 서쪽은 백석읍 오산리, 남쪽은 백석읍 복지리, 북쪽은 은현면 용암리 및 광적면 가납리와 접한다. 북에서 남으로 도락산이 펼쳐져 있고, 서쪽은 평야 지대이다. 도락산 자락에 광백저수지가 있으며, 방성천이 동에서 서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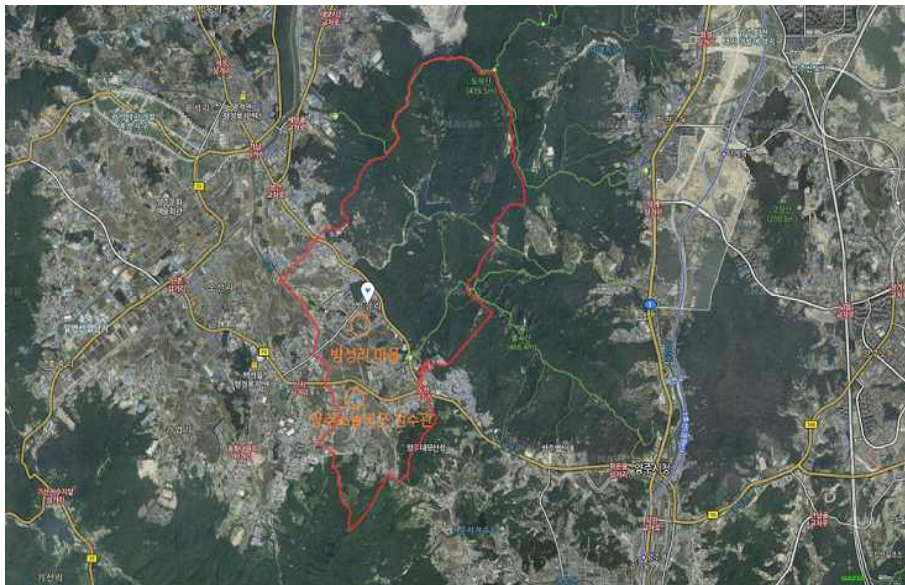
행정적으로는 방성1리부터 8리까지 8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마을로는 고릉말(古陵말)·고만이안·골말·골안바닥·능안(능내(陵內))·다랫말·모래말(사촌(沙村))·못태안(방축)·사단말·산성말·중간말 등이 있다. 못태안과 산성말에 아파트와 연립 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총 2,991가구에 7,322명(남자 3,832명, 여자 3,4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³⁶⁾

34) 디지털양주문화대전(www.yanju.grandculture.net 최종접속일 2018.8.23)

35) 앞의 각주와 동일.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는 양주소놀이굿이 전승하는 마을이며, 인근에 들판이 넓어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두레작업과 두레농악이 활성화된 곳이다.

(2) 방성리 무태안 토박이의 삶



〈그림 8〉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무태안

최승덕(남 1931년생)은 해주 최씨로, 14대에 걸쳐 백석읍에 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한학을 했으며, 시나 산문을 노래조로 읽는 송서율창에 뛰어나다. 그는 육이오 때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참전용사이며, 유공자이기도 하다. 또한 민요를 습득해서 조사 당일 송서와 함께 당기타령을 들려주었다. 이날 한학 학습 과정, 소리 습득과정, 두레 등을 들려주었다. 김재원(여, 1931년생)은 최승덕의 부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 길게 대화하지는 못 했다.

36) 앞의 각주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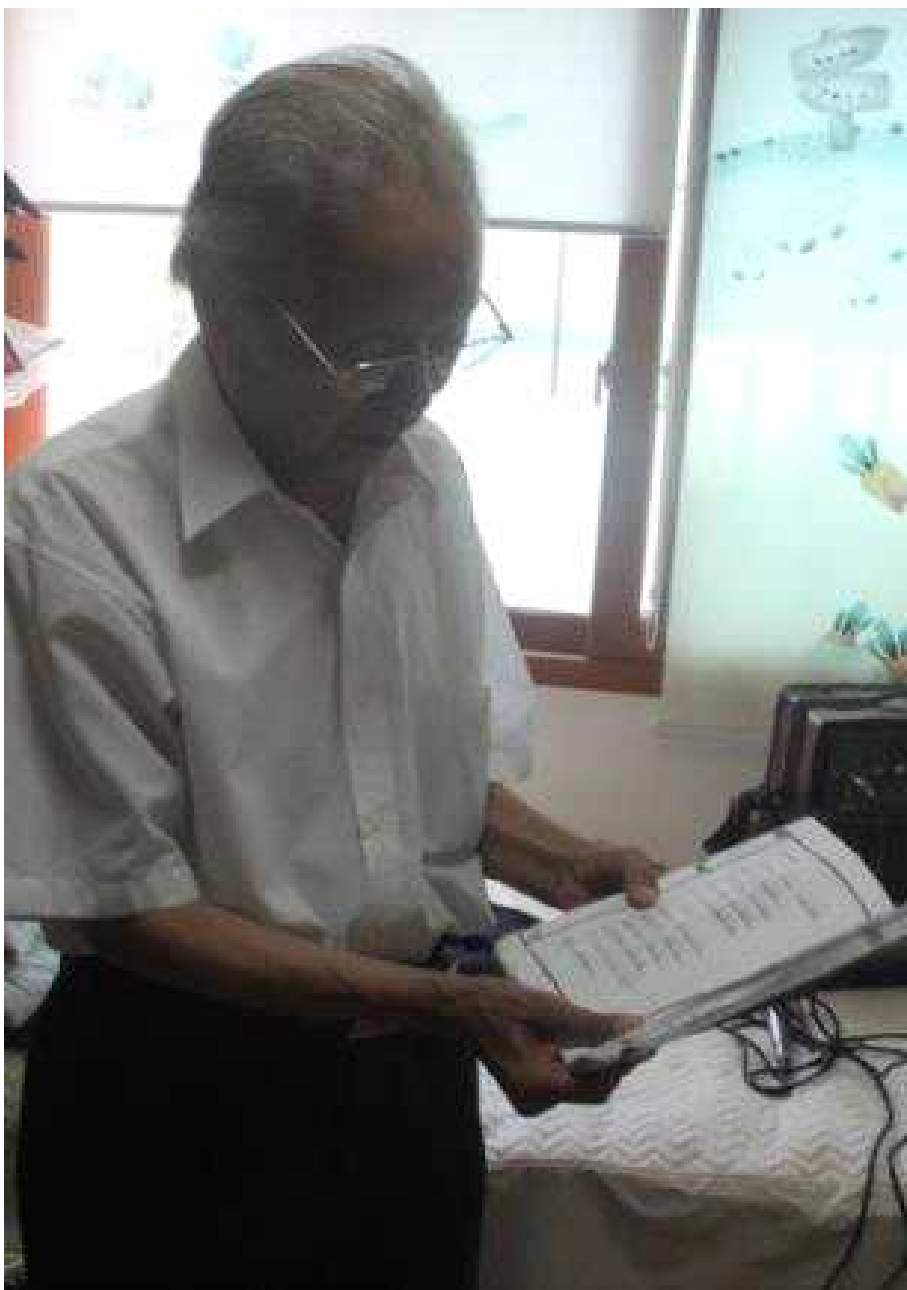
〈그림 9〉 최승덕(6.25 참전 유공자)



〈그림 10〉 참전유공자증



〈그림 11〉 그림 , 방성리 최승덕의 송서올창 발표회



〈그림 12〉 최승덕의 송서율창 시연

〈그림 13〉



〈그림 14〉 최승덕이 주도한 2004년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 창립총회 기념 촬영



〈그림 15〉 방성리 최승덕의 송서율창 교본

구술자인 최승덕과 김재원은 부부간이다. 최승덕은 1931년생으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가 고향이다. 해주 최씨로 양주목사, 길주목사, 공주목사를 역임한 최율해가 11대조이다. 양주에서는 14대째 거주하고 있다.

9세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군 입대 전인 19세까지 다녔다. 당시 그의 글 선생은 윤효정(파평 윤씨)의 증손인 윤태순과 윤승환이었다. 서당은 윤승환의 99칸 집이며, 최승덕의 집과는 10리가 못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최승덕은 매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에 서당에 나가 오후 3시까지 글을 읽고 귀가했다.

약 10여 년간 서당을 다니면서 최승덕은 사서삼경을 거의 다 읽었다. 글은 천자문부터 시작해, 계몽편, 동문선습,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순으로 익혔다. 그는 민요와 소리에 대한 관심이 서당을 다니며 익힌 송서 율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최승덕의 두 스승은 창은 좋은 편이 아니었으나, 최승덕의 조부가 창이 좋아 그들로부터 익혔다. 최승덕은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10여명의 ‘한문동창들’ 가운데 가장 창을 잘 하기도 했다. 귀가 후에도 항상 저녁 늦게까지 글을 읽었으며, 어릴 때 이미 목에서 피를 세 번 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이후 자신이 소리를 내는 데 능숙하게 된 훈련의 과정이라 설명한다.

제가 어려서 한문을 배웠는데 목에서 피가 3번이 나왔어요. 아침에 한 9시 반이나 10시 되어 가서 저녁때 한 3시정도에 옵니다. 집에 와서 또 읽고, 그걸 계속 읽으니까 목에 피가. 그러니까. 그 소리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중략) 제가 19살 적에 호국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해 뭘 겁니다. 그래 거기서 제가 기초교육을 받고 나니 남을 가리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구령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그것도 시험을 봤어요. “앞으로 갔. 뒤로 돌아 갔.” 제가 그때까지 한문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소리가 커야 되거든요.(최승덕)

최승덕은 19세 때인 1950년 2월 1일에 김재원과 결혼한다. 혼인 후, 6월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입대했으나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당시 사단장이 임시 제대증을 발급해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나갔다. 피난은 경기도 광주

시 오포면 매산리로 갔다. 매산리에서 검문에 잡혀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1년이 안 되어 은현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은현면은 군인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귀향한지 이틀날 집이 폭격을 맞아 화재로 전소하면서, 결국 집과 땅을 팔아 주내면 만송리 회만동으로 이주했다.

최승덕은 피난에서 돌아온 지 이듬해인 1952년에 재입대했다. 군 복무 중 철원군 서면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광덕산 지역에서 중공군 연대와 직접 항전을 벌였다. 당시 최승덕은 수색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사타구니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그는 6.25 참전용사이자, 국가유공자이다.

6.25에 참전을 했습니다. 직접 중공군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금하전투에서. 철원서들 들어갔습니다. 거기 산 이름이 서방산 두루봉 비루봉 그게 중국 사람들 46사단 147연대가 각각 1개 대대씩 있던 데가 두루봉, 비루봉입니다. 제가 그때 상사 때예요. 그때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넓적다리에 그 오줌 누는데 사이에 약간 당해서. 지금도 그 자리가 있는데, 파편이 박혀서. 며칠 입원 안 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때도 군대 생활을 하기 싫어했으면 후방으로 오든지 뭐가 뻤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바로 고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같은 거는 안 나가고 더군다나 대대 수색대에 있으면 수색대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전선에서 그래 수색대에 있었어요. 그때가 휴전되기 그 전해니까 52년도.(최승덕)

최승덕의 큰형은 최승환씨로 대한청년단에서 감찰계장으로 복무했으며, 6.25 때에 참전하여 8사단에서 전사했다. 최승덕은 휴전 이후에는 육군 21사단 대대정보과로 옮겨 7년여간 더 복무하다가 제대했다. 30대 초반에 군 상사로 예편해, 주내면 만송리 회만동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지역사회 및 마을의 크고 작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덕성초등학교의 육성회장으로 했고, 8대 국회 때 파주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최근까지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와서부터 소리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다. 본격적으로 동네에서 소리하는 사람들을 따라 경기민요 등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또 양주별산대와 소놀이 전수회관에서 염불, 덕담, 방아타령 등의 소리를 직접 강습하기도 했다.

실제 최승덕의 소리에 대한 관심은 커서, 양주에 사는 유유동, 김은산에게 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독학으로 불교의 범패와 반야심경을 읽고, 천수경은 본인이 독경한 것을 절에 가서 사사하기도 했다. 또, 양주시의 민요인 ‘당기타령(당기타령)’과 경기소리를 3절까지 발굴하여 완창하기도 한다.

원래 지역에 소리를 좀 하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냥 떠도는 소리 경기소리. 그땐 소리좀 하는 분들이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질 않고 그냥 떠도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잘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땐 소놀이곳에 소리꾼들이 많지는 않았습디다. 이쪽 지역에 옛날에 소리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디다.

양주서 500년 전에 난 소리 3절까지 되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어서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게 이름은 ‘당기타령’ 제가 그걸 찾아서 완창을 해가지고 유유동씨에게 그 양반에게, 마지막으로 양주시 산성동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배웠습디다. 소리를 많이 아셨어요. 대개 경기소리. 광적에 김은산씨도 소리를 잘 했습디다.(최승덕)

- 천수경 -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 개경계 -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 계청

계수관음대비주 원력홍심상호신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변관조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녀는 가가재라.

효자열녀는 집집마다 날 수가 있다. 가가재라.

화형제 낙처자하니, 형제간에 화합하고

처자 간에 낙(樂, 즐거울 락)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다.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성주라는 게 옛날의 그 성. 양주하면 양주 그 성이 되지요.)

최승덕의 부인인 김재원은 1931년생으로 인천 영종도가 고향이다. 일제 때에 학교를 잠시 다녔다. 위로 큰오빠 한 명과 언니 네 명이 있는 6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다. 언니들이 많고 새언니가 있어 시집오기 전

에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추석 때 송편도 시집와서 처음 빚어봤을 정도였다.

혼인은 양주시 덕정리에 처형과 형부가 최승덕과 친분이 있어 이들의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19세 되는 해인 1950년 2월 1일에 혼인을 했다. 초례는 영종도에서 지냈으며, 혼례를 치른 그날 배를 타고 양주로 들어왔다. 시집을 와서는 시댁에서 시부모, 시아주버니와 동서, 남편과 미혼인 시누이와 함께 살았다. 혼인한 지 4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경기도 광주 오폐면 매산리로 피난을 갔다.

원래 계속 영종도에 살다가. 일본시절 때 소학교 땡겼으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뭐 우리나라 학교 그냥 국민학교나 마치고, 19살에 시집왔지. 시집왔을 적에 19살에 많다고 했지. 시집오던 해에 6.25가 터졌잖아. 우리 1월인가 2월 달인가 1월초에 했나봐. 결혼하는 날 처음 봤지. 그 전엔 보지도 못했지.

언니가 덕정리로 시집와서 중매했지. 언니하고 형부하고 여기 할아버지를 잘 알고 해서 그래서 보냈지. 결혼은 그때는 결혼식장 이런 거 안 땡기고 그냥 집에서 결혼들. 영종도에서. 혼인하고 바로 시집으로 바로 갔지.

광주 오폐면이야. 매산리. 거기 가다가 포위가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임시 제대증 받아 가지고 광주 오폐면으로 간 거야. 하루 밤 자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포위가 돼가지고. 빈집서 자고 그러면서 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지.(김재원)

첫 아이는 피난지인 광주시 오폐면 매산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에서는 산파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하고 저 양반(최승덕)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때” 아이를 받았다. 현재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두 딸은 모두 1년 만에 피난지에서 은현면으로 돌아왔다가 주내면에 정착한 후에 태어났다.

주내면으로 이주는 “광주에서 피난 갔다 오다가 은현면 집에서 하루 밤 잤더니 집이 홀랑 타서 그냥 전쟁마당이 되니까”(김재원), “우리 아버님이 거기 집이 타니까 주내면에다가 그냥 집을 사서 임시 거처를 하게”(최승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주내면 만송리 회만동에서 58년을 거주했다. 은현면의 집과 농토를 팔아서 주내면에서 땅을 사서, 집을 새로 짓고 농사를 지었다. 최승덕의 아버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으나, 최승덕이 군 제대 후 마을로 돌아와서는 과수원을 시작했다. 경작지 규모는 논 7천 평, 과수원 3천 평 규모로 김재원에 따르면 마을에서 농사가 큰 편에 속했다.

아버님은 논농사 밭농사. 저희 아버지 농사지을 때는 특용작물이 없었어요. 저때 들어와서 배낭구를 3천평을 지어봤습니다. 그 배나무 직접 개간해가지고, 저 그 주내면 만송리에. 로얄 골프장 옆에 mbc문화동산. 그때가 제가 한창 활동할 때입니다. 한 50대. 딱 데 사람이 들어와서 심는걸 보고, 원래 배나무가 없었어요.

농사 크게 했어. 머슴도 일곱 여덟 명씩 두고, 머슴들은 방에 따로 살았지. 큰집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방을 따로 뒀어. 방이 사랑방이 크게 한 3개가 있었어. 그래 일꾼들 자고, 논이 한 그때는 7천 평 정도 있었어. 과수원도 3천 평 있고, 밭은 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안 컸지. 농사 컸지 우리 집이. 그래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집 와가지고 밥도 여다주고 밥도 무지 먹었어. 우리집 와서, 밥을 차로해서 끌고 나갔으니.(김재원)

(3) 방성리 무태안의 세시풍속

방성리의 세시풍속은 정월과 추석 세시, 10월 고사, 늦가을 김장과 여성 품앗이 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조사되었다. 백석을 방성리 무태안의 세시풍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월 설날에는 떡국을 마련해 차례를 지낸다. 떡국과 만두를 빳어 떡만두국을 끓이고, 나물은 무나물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의 삼색 나물을 갖추어 올린다. 적도 육적과 어적 모두 올리는데, 육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는 데로 번갈아가며 준비했다. 어적은 조기 한 가지만 올렸고, 북어포도 마련했다. 생선은 남쪽지방에서 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곳에서는 올리지 않았다. 또, 녹두를 갈아 누름적을 부치고, 두부도 부쳤다.

정월에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주로 친척 어른이 있는 집으로 세배를 다녔다. 세배를 오면 어른들에게는 술을 대접했다. 술은 직접 담기도 하고, 사서 쓰는 때도 있었다. 술안주로는 제수음식 중에 주로 누름적이나 고기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냈으며,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었다. 김재원도 설과 추석에는 영종도에 있는 친정에 다녀왔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준비한다. 오곡밥은 콩, 팥, 찹쌀 등으로 지었고, 묵은 나물은 호박고다리, 고사리나물, 녹두나물, 콩나물 등 7가지도 넘게 준비했다. 마을에 나물을 뜯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을 통해 구입하거나, 동두천이나 의정부 장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의정부 장에

갈 때는 주내면의 덕현국민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다.

음력 2월에는 장을 담근다. 정월달부터 3월까지 담는 경우도 많지만, 김재원은 늘 2월에 담갔다. 날짜는 달력을 봐서 정하는데, 손 없는 날로 좋은 날을 잡아,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갔다.

음력 3월에는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한다. 농사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품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마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품을 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품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랐는데 남자들은 벼농사 전반과 과수원의 전지와 과일 숙아주기 작업을 한다. 과수원은 배와 복숭아를 심었으며, 사과를 잘 되지 않았다. 여자들은 남자 일꾼들의 밥을 짓고 논이나 과수원으로 나르는 일을 맡았다.

과수원은 1년에 똑같이 한쪽에는 배, 한쪽에는 복숭아 이렇게 심어. 거르지 않아. 매년 심어. 거름 주고 나무 잘라버리고 꽃피면 속아버리고 열매나면 숙고 봉지 씌우고 해야지. 일이 많아. 나무 계속 전지를 해줘야 해. 일꾼들 밥은 내가 다 했지. 근데 그때만 해도 나이 먹은 (여자)노인네들이 많았어.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밥들 해 주고 밥 먹고 가고 그랬지. 아침, 점심, 저녁 다 밥으로 나갔지. 중간에 국수 이런 건 없어. 그건 가지고 나가려면 다 불고 그래서. 반찬은 여름 반찬 채소를 많이 하지. 생선도 사다가 하지. 찜은 그런 거 못해. 반찬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아무래도 김치가 제일 많지. 중간에 참이 아침나절에는 술하고 먹을 거, 점심, 저녁에도 있고. 음료수, 전도 나가고. 술은 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술은 그냥 막걸리 담가서 걸러서 가져다 줘.(김재원)

품삿은 남자들은 돈으로 받고, 여자들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방식으로 받았다. 논과 과수원 모두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름에 동두천으로 피서를 갔다. 주로 복날 무렵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갔으며 개를 잡고, 수박, 참외 등을 준비했다.

추석 무렵에는 과일과 햅쌀을 수확한다. 과일의 경우, 배와 복숭아를 모두 수확해서 의정부 도매상에 판매한다. 큰 차를 불러서 실어 내가며, 판매방식은 ‘밭떼기’(포전매매(圃田賣買)이다. 가격이 좋을 경우에는 서울까지 직접 올려서 판매하기도 한다. 첫 과일은 추석 차례 상에 올리는데, 배는 쓰지만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벼의 수확은 9월부터 11월까지 한다. 햅쌀이 익을 경우에는 햅쌀을 사용해 차례음식을 준비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묵은쌀을 썼다. 추석에 송편 차례를

지냈으며 직접 송편을 빚었다. 쌀은 집에서 찼고, 쑥 송편과 쌀 송편 두 가지를 준비했다. 소는 주로 팔을 넣었고, 풋콩과 깨를 넣기도 한다. 김재원에 따르면 “옛날에는 다 잡곡들 먹고, 여름엔 보리밥 해먹고”했지만, 그녀의 집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과수원과 벼농사가 많아 밭에 잡곡을 키울 여력이 없었고, 형편도 좋았기 때문에 쌀밥을 주로 먹었다.

10월에는 은현면의 큰집에서 시제를 지낸다. 김재원은 제사 하루 전날과 당일의 이틀간 가서 일손을 돕는다. 전날은 제수음식 준비를 하는데, 주로 누름적을 부치는 일을 했다. 당일은 남자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을 주로 한다. 시제를 준비하고 지내는 이틀 동안은 오전부터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10월은 상달로 집안 고사를 지낸다. 시루에 고사떡을 해서 대청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두었다. 고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시어머니가 주도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지내지 않았다.

성주향아리 그런 건 없었어. 제사나 지내고 했지. 고사 했어. 가끔 시루떡 같은 거. 대청마루 같은데 고사 지내고 마을 사람들 다 나눠 먹지. 시어머니가 집에 다 놓고. 나는 심부름만 했지. 고사 지낼 때는 사람들 안가. 부정 탄다고. 웬만하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지내고 나서 불러서 먹었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어.(김재원)

집안 고사 외에 10월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메주를 쑨는 일이다. 김재원의 경우, 양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구들끼리 담갔다. 큰 솥에다 아침부터 반나절 정도 콩을 삶아 절구에 찼어 모양을 빚는다. 새끼는 김재원이 직접 꼬아서 메주를 매고 방안에 달아 두었다.

여자들의 한해의 마지막 집안일은 김장을 담그는 것이다. 김재원의 집은 배추김치와 무김치를 담갔으며, 모든 재료는 직접 심었다. 항상 집에 와서 일을 하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농번기에는 김치를 주요 반찬으로 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갔다. 김장은 마을 이웃들과 품앗이로 했다. 절이는 작업은 주인이 하고, 품앗이 온 여자들은 절인 배추를 함께 씻고 속을 넣는 일을 도왔다.

겨울에 김장 많이 하지. 밭에 다 심어가지고. 김장도 우리 집 와서 밥하는 사람들이 갈

이 해주고. 나도 또 그 집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 한 5~6집. 절이는 거는 내가 다 하고 씻어서 속 넣는 거만.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그 정도하지. 김장은 젓갈은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 새우젓, 멸치액젓 이렇게 넣고. 새우젓은 의정부 가서 사다 넣는 게 많지. 젓갈 장수가 많았어.(김재원)

김치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남편이 마당 한 곳을 파서 큰 김칫독을 여러 개 묻어주었고, 그 위에 겨우내 김칫독이 얼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짚으로 김치광을 따로 지었다.

동지에는 팔죽을 끓이며, 찹쌀로 작은 응심을 만들어 넣기도 한다. 가족 들끼리 나누어 먹었고, 고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김재원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10월 상달 고사나 동지고사 등에 부정적인 편이다.

고사지내고 그런 건 안 했어. 아프고 나서 교회 다니라고 해서 한 1년 다니다가. 배도 수술하고 병원에서 살아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만 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큰딸이 이제 목사 돼. 마석교회에 내가 거기다 명단해 놔서. 큰딸 앞으로 교회 하나 지었어. 새 달에 신학대학 졸업해. 이제 목사 돼. 내가 아프니까 목사님들 가끔 와서 기도도 해주고. 최씨네(남편 최승덕)는 다 제사지내고 해서 교회 안 다녀.(김재원)

(4) 방성리 무태안의 놀이

김재원의 친정인 영종도에서는 여자들이 정월과 단오에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했다. 또 늦봄에는 봉숭아물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집오고 나서는 놀이와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지 않았다.

어려서는 봉숭아 했지. 꽃 따서 언니들이 해줬지. 근데 시집와서는 안 해. 그네 뛰는 것도 안 했어. 널뛰기도 안 하고. 영종도에 있을 때는 다 했지만. 촌에서나 했지 여기선 안 했어.

시댁인 양주 백석읍이 영종도에 비해 변화한 도시이고, 본인도 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연천군

7.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은 2개 읍(연천읍, 전곡읍), 8개 면(중면·신서면·군남면·왕징면·백학면·장남면·미산면·청산면), 96개리 61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⁷⁾ 이번 조사는 미산면 유촌리와 왕징면 무등리에서 이루어졌다.

가.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1) 유촌2리 마을개관

미산면은 연천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마전군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마전군 동면 지역이었던 백촌·분석·가정·유촌·우정 등 5개리와 마전군 서면의 송현·광동·석장·월곶 등 4개리를 병합하여 아미리에 있는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미산면이라 하고, 마전·동이·아미·백석·유촌·우정·광동·석장의 8개리로 개편하여 관할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미산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종전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되었고, 이후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14년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던 삼화리를 다시 편입하여 9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거 석장리가 백학면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8개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8개리 중 5개리가 임진강에 연접하며 주민의 60%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성씨별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³⁸⁾

조사가 이루어진 유촌리는 본래 마전군 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개의 행정리, 5개 반으로 이루어

37) 연천군청(www.yeoncheon.go.kr 최종접속일 2018.8.23)

38) 미산면사무소>연혁 및 유래(www.yeoncheon.go.kr 접속일 2018.8.23)

저 있으며, 마을 중앙에 큰 버드나무가 있어 ‘유촌리’라 하였다. 특산물로는
홍고추, 울무, 참깨(참기름), 인삼이 있다.³⁹⁾

남궁묵(남, 1946년생)이 구술한 유촌2리 마을은 농촌지역으로, 함열 남궁씨가 11대에 걸쳐 다수 살던 마을이고, 그 외에 구씨, 최씨, 심씨, 김씨가 공존하는 마을이다. 이곳은 아미산울어리, 쌍겨리소리가 한때 전승했던 마을이다. 이것은 현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의 부친인 이재순이 그 지역의 뛰어난 소리꾼이었으며, 1970~80년대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몇 회 출전한 것에 연유한다.

유촌리의 아미산울어리 회원들은 모두 이준영 연천문화원장의 부친인 이재순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이재순은 연천군 중면 출신으로 전문적으로 소리를 배우진 않았으나, 소리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다. 1979년에 인천 교대 김순재 교수가 전국 민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촌리에 방문하였는데, 이때 이재순이 김순재 교수와 함께 쌍겨리 소리와 울어리 소리를 발굴하였다. 아미산울어리를 발굴 해 1979년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다. 당시 대통령상을 받기로 했으나, 다음날 10.26 사건으로 수상이 폐지되었다. 이후, 1986년 경기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아미산울어리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아미산울어리는 본래 개성(80리 거리), 상녕(현 상령현), 연설(현 마전군) 지역에서 전승되던 노래이다. 산에 나무하러 가는 소리나 나무를 운반하면서 하는 소리들은 많지만, 나무작업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희소한 편이다. 아미산은 현재 미산면 유촌리의 아미산(我眉山)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래 중면(中面) 아미산(나무아미타불의 阿彌)이다. 중면은 현재 북방한계선 끝의 DMZ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선산이 있는 경우 참배 시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울어리 민요에는 1979년 최초 출연 때에 유촌리 마을 주민들 70~80명이 참가하였으며, 남궁묵도 이때 막내로 참가했다. 당시 주민 중에 보존회 회원으로 참여하던 노인들은 현재 모두 사망했다. 남궁묵에 따르면 울어리 농악에서 1937년생인 이병우씨가 상쇠를 보았다.

39) 미산면사무소>지명유래>유촌리(www.yeoncheon.go.kr 접속일 2018.8.23)

선소리 매김은 ‘이북’ 평강지방의 가락으로 최숙일 씨가 가르쳤으며, 늦은 가락에서 빠른 가락 다시 늦은 가락으로 진행되며 가락에 굴곡이 있는 것이 경기북부 가락의 특징이라고 한다. “여기 가락은 조용하면서도 순수하고 굽이굽이 넘어가는 가락이야. 양주 가락도 여기 가락이 아니야. 평택이나 가평이나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은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여기는 늦으면서 늦은 가락서부터 가다가 자진가락 들어가고 자진가락 들어가다 늦은 가락 들어가는데 내가 다른 데서 치는 거 보면 그 가락이 신이 나서 그것만 계속 치는 가락이야. 그러니까 굴곡이 없어. 굴곡이.

올어리 외에도 성주거리, 지경다지기를 복원했으나, 지경다지기는 올어리보다 전승이 먼저 끊어졌다. 그 이유는 소리 중에 강신무가 작두를 타는 부분이 있는데, 무당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무당과 공연하던 장면은 현재 연천문화원 향토사료관에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재순은 연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리를 가르쳤으며 현재 30~40대 청년들이 그 당시 소리를 배워 비교적 잘 하는 편이다. 그러나 모두 생업에 바쁜 나이로 정기적으로 연습이나 공연 참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소리를 하는데 60~7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마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6~7명에 불과하다. 농촌인구 노령화와 농촌기계화에 따른 영향으로 소리에 많은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전승이 중단되었다.



〈그림 1〉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2) 유촌2리 토박이의 삶

연천군의 제보자는 유촌2리의 남궁묵과 그곳 출신인 연천문화원장 이준용이다. 남궁묵(남, 1946년생)은 함열 남궁씨로, 유촌2리 전 노인회장으로, 농사를 지으며, 40년간에 걸쳐 인삼 재배를 했다. 젊은 시절에 연천행 기차 안에서 구두를 닦고, 물건을 판매하며 고생을 했고, 한때 전곡에서 모친과 과일 도매상도 했다.

그는 일찍이 인삼을 재배하면서 돈을 벌어 땅을 구입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는 인삼제시와 과거 민물게잡이, 농악과 두레 등을 상세히 구술했다.



〈그림 2〉 유촌 2리 남궁묵의 최근 모습

이준용(남, 1954년생)은 유촌리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연천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연천문화원장으로 있다. 유촌리 소리꾼인 부친에

대한 기억과 유촌리 배경의 쌍거리소리, 아미산울어리 등의 재현과 전승 과정을 구술해 주었다.

남궁목은 유촌리가 고향으로 11대조부터 거주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파주와 강화에 살았는데, 11대 때 강화에서 연천으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약 30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유촌리 전체에 남궁 씨가 20여 호 정도 거주했으나, 현재는 4가구만 남아 있다.

유촌리의 토박이 성씨는 남궁씨 외에 함평 이씨, 능성 구씨, 최씨, 청송 심씨, 광산 김씨, 예산 송씨, 그리고 신승겸의 후손인 평산 신씨가 각각 같이 살고 있다. 남궁목에 따르면,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는 별 갈등이 없었다.

유촌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3개 자연 부락은 두개모듬(현 1반), 두루가리(현 2반), 사거리(현 3반부터 5반까지)라 한다. 남궁목은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두개모듬은 두 개울 사이에 모래가 모인 모듬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두 개 모듬이야. 개울이 두 개 합쳐졌다고 해서. 모듬이 모래무덤이야. 두 개울 사이에 모래가 모여서 쌓이니까 무덤이 생겼어. 그 백석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노동리 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하천이 두 개가 모여서 내려오는 게 유촌리 하천이야. 여기 임진강이 거리로 3키로가 안 돼요.

1970년대까지 유촌리에 거주하는 200여 호는 모두 농사를 지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차이가 많아서 땅이 1천 평도 없는 집이 있는 반면에, 많은 집은 몇 만평까지 농사를 지었다. 벼농사가 중심이었으며, 밭농사는 보리, 밀을 주로 심었다. 소작은 마을 주민들 3분의 1가량이며, 6.25 전쟁 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개성으로 들어가면서, 수복 후에는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농지를 분배받아 자기 논에서 농사짓게 되었다.

남궁목은 5세 때 6.25 전쟁이 일어나 피난길에 올랐다. 마을에 미군이 들어와 트럭으로 민간인을 실어 날랐다. 그의 가족도 미군 트럭을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고, 곧 이어 다시 평택으로 보내졌다. 당시 연천군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 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과 오산 쪽으로 많이 보내졌다. 평택에서 다시 포천으로 옮겨 피난살이를 했고, 종전 후에도 한동안 그곳에 살았다.

따라서 그는 8세때 포천 송우리의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여기 지역이 옛날에 이북통치야. 그런데 6.25가 터지기 전에 이북 정치가 싫은 사람은 월남을 했어. 어디로 월남을 했냐면 임진강하고 한탄강하고 합치는 데가 파주군 적성면 이쪽이 건너면 이남이고 안 건너면 이북이야. 강이 경계야. 내가 여기가 고향인데 5살 때 6.25가 터져가지고 6살 때 나간 거야. 피난을. 왜 피난을 나갔냐면 유엔군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부락이 있으니까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가없잖아. 그래서 민간인을 실어 내갔어. 그때 골수분자들 빨갱이들은 이북으로 다 건너 간 거야. 대부분인제 의정부로 실어가서 거기서 기차로 아랫녘으로 가. 일부는 경상도로 간 사람도 있고 전라도로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 평택 그 지역으로 많이들 갔어. 그래서 내가 8살 때 포천 송우리로 갔어.

다시 전곡으로 옮겨 전학했으나, 6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학기부터는 다니지 못했고, 후에 졸업장만 받았다. 5남매의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피난 나서 저 평택으로 가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또 전곡으로 와서 저 전곡초등학교 졸업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밖에 못나왔어. 혼자 책사다가 한문을 공부해가지고 축문, 지방을 못 쓰던 거를 이제 축문, 지방을 다 써요. 인제. 그만큼 알면 됐지 뭐.

이때부터 남궁목은 장남으로서 홀로된 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1925년생으로, 38세에 과부가 되어 5남매를 키우기 위해 과일행상을 시작했다. 전곡장의 도매상에서 과일을 떼다가 머리에 이고 마을마다 다니며 과일을 팔아 5남매를 먹여 살렸다.

그는 16세에 전곡읍에서 청량리까지 다니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일을 했다. 구두를 닦거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었다. 구두는 구두통을 직접 만들어 구두솔, 구두약, 용으로 된 천을 담아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 닦는데 30환을 받았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50환도 벌고, 200환도 벌었다. 아이스케키 장사는 전곡읍에 있는 공장에서 아이스케키와 상자를 받아서 시작했다. 상자 하나에 막대 아이스케키 100개가 들어가며, 1개에 10환으로 모두 팔면 1,000환이었다. 2종류를 팔았는데, 팔을 삶아 갈아서 만든 것과

오렌지주스 가루를 탄 것이었다.

아이스케키 장사는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했다. 수익은 공장에서 60%를 받고 판매자가 40%를 가져간다. 벌이가 좋을 때는 기차를 타고 왕복하며 하루에 200개까지도 팔았다. 총 수입 2,000환 중에서 공장에 재료비를 제하고 800환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당시 쌀 1되가 50환이었으니 적은 벌이가 아니었다.

아이스케키 집에 가서 아이스케키를 받아. 그럼 통을 줘. 보통 100개. 그럼 기차를 타고. 기차도 그냥 타는 거야. 돈을 내긴 무슨 돈을 내. 돈이 어딴? 근데 차장들이 그걸 내쫓아 버리질 않아. 그때들 인심이 참 좋았어요. 내리라는 말도 안 해. 공장이 전곡읍에 있어 그럼 받아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바뀌 타면서 파는 거야. 어떨 때는 많이 팔 때는 200개까지 팔아. 그럼 다 팔면 또 가서 받아 오고. 그때는 하나가 10환이야. 아이스케키 하나. 그러니 다 팔면 천환. 그때 천환이면 무척 큰돈이야. 그런데 아이스케키 공장에 얼마를 주냐 하면은 60프로를 줘야 해. 40프로를 내가 얻어먹는 거야. 내가 400환을 버는 거야. 그때 쌀 한 되박이 얼마였는지 알아? 그때 쌀 한 되 박에 50환인가 그랬어. 적은 돈은 아니야. 근데 항상 그렇게 버는 게 아니잖우. 다 못 팔면 그 와루바시 젓가락 같은 거 있잖우. 거기에 (아이스케키를) 끼어서 팔잖아. 그걸 개수를 시어서 반품을 해. 몇 개 남은 거 그럼 60프로를 제해 주는 거야. 매고 다니면서 “아이스케키”, “얼음과자” 이렇게 하는 거지. 늦은 봄서부터 이른 가을까지는 해. 지금이야 하드나 아이스크림 이런 게 흔하지만 그때는 막대기 아이스케키 하나 밖에 없었어요. 팔빙수하고 오렌지주스. 그 주스 가루로 나온 거 그걸 아이스케키로 해서 두 종류 만들었어요. 팔빙수는 팔은 그걸 팔을 삶아가지고 아이스케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만했어.

1년 후인 1963년, 17세 되던 해에 다시 유촌리 고향마을로 들어왔다가 가족들만 고향에 남겨두고 다시 20세까지 객지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다. 처음 간 곳은 부산이었다. 당시 부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무작정 부산에 내려갔다. 처음에 용두산 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인근의 자갈치 시장에서 경매에 나온 생선을 한두 마리 훔쳐 생선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팔아 돈을 마련했다. 또 시장에서 리어카 짐을 뒤에서 밀어주고 대가로 200~300환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국수 툄래기 값이 10환이던 시절이었다.

생선 행상에서 생선 한 마리를 훔치면 그날 세끼를 국수툄래기를 사먹을 수가 있어. 그

때 국수털래기가 10환이야. 어부들이 고기 잡아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경매 붙이는 데가 없어. 그래 그냥 장사꾼들한테 교환하는데 그 적에 고기 큰 놈을 하나 훔쳐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 그거를 중간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광주리 하고 다니면서 파는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이 사는 거야. 그럼 그걸 팔어 가지고 국수털래기를 인제 한 끼 사먹고 잠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자는 거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부산 가면 돈을 번다니까 17살 때 무작정. 친구하고 둘이 그 친구가 인제 한번 갔다 왔다고. 거기 가면 굶는 것도 없고 나만 부지런하면 먹고 산다니까 간 거야. 그랬더니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 같애. 그냥 누가 밥 갖다 주는 데 없어. 자갈치 시장에서는 리아카들 어른들 밀고 가면 200~300환씩 줬어. 뒤에서 밀어주면. 그것도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만 주지. 다 안 주잖아. 노인들 가운데 물건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인제 품 파는 사람들이야. 물건 날라다 주는 사람들. 우리네가 밀어주면 고생했다 하고 200환도 주고 300환도 주고.

20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22세에 입대했다. 인천 월미도의 보안대에서 군 생활을 했고, 25세에 제대했다. 남궁목이 군 생활을 할 당시 허화평씨가 중령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 제대 후 마을로 돌아와서는 농사를 지었다.

그는 또래 가운데 가장 늦게 장가를 갔다. 형편이 어려워 혼인을 하지 못하다가, 29세의 늦은 나이로 21세인 염화순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다. 그의 부인은 파주 염씨로, 고향은 철원군 동성면인데, 당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남궁목과 동갑인 부인의 친언니는 결혼해서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궁목의 이모도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증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처가쪽에서 “아버지를 일찍 잃고 생활력이 강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매를 섰다고 한다. 처음 두 사람은 전곡읍에서 만났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했어요. 택시도 안 다니고 버스만 하루에 한 세 번 다니고 그랬어. 자전거를 타고, 지금 저 화이트다리를 거길 나가서 택시를 불러 타고 전곡을 나가서 선을 보니까 진짜 이쁘드라고. 그래서 “아, 저 여자면 됐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아내 염화순씨)는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내가(남궁목이) 생활력이 강하고, 혼자 객지 생활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술담배도 안 먹고 똑똑하니까, 너 하나 굶기지 않겠다. 그냥 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선을 본지 16일 만에 1월 6일에 결혼을 했다. 당시 남궁 목이 살던 집은 17세 때 전곡읍에서 유촌리에 들어와서 흙벽돌 1,500장을 찍

어 지은 집이었다. ㄱ자 집 5칸 짜리에 짜리문이 있는 집으로 유촌리 1반 방앗간 동네라는 곳이었으며,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기어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서 아내를 얻었다.

의정부에서 유촌리까지는 80리 거리로 의정부의 도시에서만 살았던 8살 연하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못 살겠다고 울면서 친정에 간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살림살이였다.

그래서 남궁목이 아내에게 “15년만 참고 기다려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은 비록 내가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나를 믿어라.”고 맹세한 뒤,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 결혼 후 1년 만에 목재로 16칸짜리 집을 지었다. 그는 평생 동안 네 번 집을 지었다.

그는 36세에 인삼농사를 시작했다. 원래 강화에서 인삼농사를 하던 사람들이 연천 땅이 좋다고 이곳에 들어왔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6년 기한으로 밭을 임대해 인삼농사를 지었다. 계약은 평당 6년 동안 임대비가 천 원이었다. 그도 30세에 인삼밭에서 품을 팔면서 인삼 재배법을 배웠다. 이후 동업으로 인삼밭을 경작하다가, 잘 되면서 30대 중후반에 단독으로 6년근 삼 재배를 시작해, 40년간 인삼농사를 지었다.

그는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인삼밭을 안 가 본 곳이 없을 만큼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인삼 농사를 시작해서 그는 “돈을 갈퀴로 긁었어”라고 표현할 만큼 큰 돈을 벌었다. 이때 번 돈으로 논 4,000평을 사서 논농사와 병행하다가, 계속 땅을 사서 논이 12,000평까지 되었다.



〈그림 3〉 유촌2리 남궁목이 담근 인삼주

그는 40년간 인삼을 재배해서 자식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으며, 집도 장만해 주었다. 이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그를 따라 인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연천은 인삼에 적절한 토양을 지니고 있으며, 철도가 있어 유리한 지역인데, 인근 포천이 인삼 특성화를 먼저 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어 건축했다. 1994년도에 지어, 현재 24년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이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기도 했다. 당시 연천군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크게 장례를 치뤘다. 어머니는 선산에 부친과 합장했다. 현재 그는 슬하에 3남매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다.

(3) 유촌2리의 세시풍속

유촌2리의 세시풍속으로, 설날 성묘, 사찰 불공, 정초 연날리기, 두레, 보수

리, 1.14 백가반, 정월대보름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3월 삼발 파종, 보수리, 4월 초파일 불공, 5월 초 인삼밭 김매기, 단오 그네, 양력 6월 김매기 두레, 6월10일 콩 파종, 여름철 참외서리, 8월 성묘, 9월말 인삼밭 김매기, 9월 인삼밭 소독, 9월-10월말의 가을 참게잡이, 9월-10월 초 아미산 땔감 준비와 올어리 재현, 10월 중순-11월말 인삼 수확, 10월 말-11월 중순 콩수확, 늦가을 아미산 땔감 두레품앗이, 동지의 사찰 불공, 겨울 썰매와 팽이치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이한 세시로 이곳에서 인삼세시가 집중 조사되었다. 3월 파종부터 5월과 9월 김매기, 초복의 갈잎 거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 수확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사되었다. 또한 농업 시기별 인삼의 재배 조건, 거름, 논매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논매기두레, 거름주기, 콩 재배 세시도 조사되었다. 또한 9-10월의 임진강 민물참게 잡이를 위한 냇가의 밭치기, 참게막 짓기 등, 박 재배로 3-4월 심어 8월(음력) 수확 과정과 여러 박의 용도가 조사되었다. 또한 10월의 메주쭈기와 정월 장담기, 정월대보름 세시풍속과 놀이, 5월 단오의 머슴 쉬는 날 등도 조사되었다. 남궁목(남, 1946년생)이 구술한 미산면 유촌2리의 세시풍속 정월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월과 추석에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가서 차례를 지낸다. 다만 이 마을에서는 한식에 조상 묘소에 가는 풍습은 없었다. 정월맞이로 선달에 엿을 많이 고는데, 대개 갱엿, 넓은 판엿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수엿, 찹쌀엿, 땅콩엿, 콩을 볶아 만든 콩엿을 만들었다.

정월 대보름에는 백석리 뒤쪽의 두리산에서 달맞이를 했다. 화를 길게 만들어 나이대로 묶는다. 쪽처럼 생긴 풀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화를 만드는 주재료로 사용했다. 이를 찌리가지와 섞어서 짚으로 묶는다. 길이는 1m~1m 20cm정도로 하고, 직경은 10~15cm 굵기로 만들었다. 대개 부모님들이나 집안의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다. 불을 붙이면, 10~20분 정도 타는데, 잘 타도록 계속해서 앞뒤로 흔들어 주었다. 달이 떠오르면 동쪽을 향해 “달님사려 달님사려”하며 빌었다. 기원하는 내용은 “올해도 아무 탈없이 무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완전히 탈 때까지 절을 하면서

흔들며 ‘달님 사려’를 반복한다. 유촌리 인근에서 화를 가지고 싸우는 화싸움은 없었다.

두리산에 올라가서 달맞이. 두리산이 여기서 백석리 뒤편에 있어요. 햇불 자손들 햇불을 나이대로 만들어. 쭉도 아니고 그 잘 타요. 싸리가지랑 그거랑 섞어서 맨들어서 나이대로 묶어서 길게 이렇게 화를 만드는데. 한 1~20분 정도 타. 그냥 두면 잘 안타니까. 자꾸 흔들어요. 그게 긴 거는 한 1메타 20까지도 돼. 직경으로 한 10센치 정도. 어른들이 아들 딸 다 맨들어 줘요.

달을 보고서 떠올라오면 ‘달님사려, 달님사려’ 하면서 올해도 무사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다 탈 때까지 계속 흔들어야지. 다른 동네는 다 있는데 여긴 화싸움 그런 게 없었어요.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해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마을 남자 아이들이 열나흘날 저녁에 집집마다 밥을 훔쳐 먹으러 다녔다.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 아홉 그릇을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하면 좋다’고 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훔쳐 먹었다. 좁쌀, 보리쌀 등을 넣은 오곡밥과 함께 고사리, 취나물, 콩나물은 길러서 준비했다. 남자아이들이 밥을 훔쳐 먹으러 다니는 것을 알고, 부녀자들이 집집마다 일부러 찬장이나 부뚜막위에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밥과 나물을 담아두었다. 이렇게 훔쳐온 밥과 나물은 화롯불에 솥을 올려 들기름, 참기름을 섞어 볶아 먹었다.

열나흘날 저녁에 밥을 훔쳐 먹으러 다녀. 그게 아주 유명했어. 집집마다 보름 때 먹을 밥을 많이 해놓잖아. 열나흘날 밥을 아홉 끼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한다고 했어. 옛날 전통이. 그때만 해도 어려운 때라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밥해 놓은 것을 밤에 살짝 훔쳐다가 여럿이 훔쳐다가 이집 밥도 훔쳐오고 저 집 밥도 훔쳐오고 거기다가 큰 솥 같은 데다 섞어. 그리고 겨울이니까 그걸 섞는 거야. 인제.

여긴 기름이 많으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먹고 놀고 그랬어. 겨울에. 여긴 고사리, 취나물이 흔해. 콩나물은 직접 키웠어. 너는 뭐 훔쳐와. 뭐 훔쳐와. 기름 담당도 있고. 병째 가져오는 거야. 너 밥 가져와. 그럼 둘이 가서 한 놈은 망보고 한 놈은 밥 훔쳐가지고 오는 거야. 일부러 가져가라고 해놔. 그전에 부뚜막 아니면 옛날엔 부엌에 이렇게 찬장처럼 짚어, 나무로.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하나의 오락이고 재미였어.

마을 단위로는 정월 보름에 고사굿을 했다. 농악이 있었는데 장구 둘, 썰과리 둘, 북 둘, 호적 하나, 징 둘로 구성되었다. 농기는 아미산 울어리에서 사용하는 큰 기 1개가 있고, 기수도 한 사람 있었다. 보름에 아미산 울어리

회원들의 집을 모두 돌며 고사굿을 하며, 액막이 타령을 했다. 미리 낱을 잡아서 술과 안주를 준비했으며, 남궁목에 따르면 고사 굿은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중단되었다.

이병우씨가 모아서 고사굿이라 하지. 일 년 열두 달 잘 살고 부자 되라고 아미산 올ери 회원 집은 다 다녔어. 미리 낱 잡아서 보름날. 그럼 안주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근데 그 맥 끓인 지가 오래 됐어. 한 40년 70년대까지 갔어. 그때 약기는 팽과리가 둘, 북이 둘, 장구가 둘, 호적 하나, 그리고 상쇠, 부쇠. 징 2개. 기수는 하나. 영기는 대회 나갈 때나 무신 영기를 했지. 마을에는 없어. 그냥 아미산 올ери 큰 기만 들고 다녔지. 그 전에는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농자천하지대본 마을 기는 없었어. 두레는 했어도 기는 없더라고.

음력 3월부터는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논 가운데에 있는 보는 3월에 작업을 한다. 보에서 물을 대는 집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산에서 나무를 잘라 단을 만들고 흙을 쌓아 물길을 막는다. 논에 물을 댄 다음에는 토랑을 친다.

마을 논은 대개 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1마지기 300평에 5~6가마 정도의 소출이 나는 정도였다. 봇도랑을 내고 물이 나가는 순서를 정했는데, 대개 경험이 가장 많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순서를 정해주었다. 그는 주로 논이 제일 많은 사람이며, ‘보지기’라 불렸다. 물을 대고 나서 백중쯤 지나서 보를 한번 더 손질한다. 보는 1970년대에 시멘트로 바뀌면서 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는 망종 때 내는 것을 ‘이른 내기’라 하며, 늦어도 하지 때까지도 모내기를 했다. 마을의 논밭은 논이 밭보다 컸으나, 당시 모든 논이 천수답이었다. 그래서 부잣집만 모를 낼 수 있었고, 대개는 건답을 지었다.

좁쌀, 보리쌀하고 쌀은 눈을 크게 떠야 보이고 그랬지. 논이 밭보다 많았지만. 소출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비료라도 있지만. 봄에 산에 가서 갈을 꺾어서 넣어서 그걸 갈아서 썩힌 다음에 최초로 이른 내기라고 해서 망종 때부터 모를 내서 하지 때까지 모를 냈어요. 물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천수답이라고 부잣집들만 농사짓는데 물이 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해먹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와야 모를 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월이 좋지만. 그래서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수답을 가진 사람들이고 못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해먹는 땅. 건답 있지. 그걸 해먹고 그랬어.

김매기 때에는 두레가 조직되었다. 대개 20명 정도가 모였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좌상을 맡았다. 김매기, 벼 베기, 타작은 항상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논매기는 두벌을 매는데 초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맨다. 양력 6월에 호미로 애논매기를 하고, 두벌매기는 손으로 굽는 방식이다. 논매기 할 때는 논매기 농요를 부른다. “휘나 휘나 모나기로다. 이모저모 내도 사방 줄모처럼 내라. 그다음에 여기 꽃고 저기 꽃아도 똑같이 꽃아라.” 이런 노래를 부르며 나가면 힘이 덜 들었다.

농악은 후에 사라지고, 연천 작목반이 생겼는데, 남궁목은 연천에 최초로 모내기 작목반을 조직했다. 그는 작목 반장을 하는 동안에는 작목반원들에게 정월에 논지의 평수를 따져 돼지고기 3-5근 가량, 돈 160만원씩을 직접 분배했다. 작목반은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식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조성해 천만 원까지 마을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유촌리 마을 모를 이쪽 골짜기부터 저쪽 골짜기까지 모조리 내는 거야.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그럼 한 집에 논 몇 마지기면 몇 마지기에 쌀 얼마. 고춧가루 얼마, 깨보숭이 얼마, 돈 인제 얼마씩. 전부 마지기를 따져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평수를 따져가지고, 분배를 하고서 밥을 공동적으로 해먹고. 모낼 때는 그다음에 일을 공동적으로 한 걸 그걸 내가 몇 년을 했냐하면 5년을 했어. 70년대 제대하고 그 이후에. 그때 한 해만 더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상을 받는 건데. 마을 노인네들이 너하고 같이 한해만 더 일하다가는 나 육십도 못살고 죽겠다. 파산하자 그래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그때 자금 모아둔 돈이 유촌리 1반에 약 한 천 만원가까이 자금이 나왔어. 큰돈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새마을 사업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약을 지원하잖아. 그러면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때워가지고 부딪혀서 다 맨들어 놓고. 나오면 팔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모래 같은 거는 강에 가서 전부 다 경운기로 퍼다가 쓰고. 그래가지고 반돈을 자꾸 조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반에 돈이 한 1200만원 됐드랬어. 그래가지고 1반만 정월달이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한집이 돼지고기 닷 근씩 똑같이 분배를 해주고 그걸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내가 안하는 바람에 깨지고. 한집이 그때 얼마씩 찾아갔냐면 백 한 60만원씩 찾아갔지. 모낼 때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막 걸리를 들고 왔어, 이 동네를요.

밭농사는 과거에는 잡곡을 주로 심었으나 최근에는 콩, 고추를 번갈아 경작한다. 콩은 백태, 메주콩을 전량 심는데, 이는 농협에서 권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확한 콩은 100% 수매된다. 콩은 6월 초에 파종하여 10월과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호미나 손으로는 3~4회 김을 땃지만, 요즘은 김매기가 번거로워, 모내기를 하고 바로 제초제를 뿌린다. 콩은 잘 되어서 1천평에 심으면 80kg포대 10가마 정도가 나온다. 고추도 5천포기를 심었는데, 20kg들이 56박스가 나왔고, 한 박스당 10만원씩을 받았다.

그는 논, 밭농사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었다. 인삼은 땅과 배수가 재배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특히 진땅이나 찰진 토질에서 잘 자라는데, 연천의 땅이 찰질에 자갈이 섞여 있어 배수가 잘 된다. 또 인삼은 비는 좋아하지 않지만, 땅에서 나오는 수분은 좋아한다. 곧 연천은 가뭄이 없고 북향 밭으로 수분이 있어 인삼의 생장에 유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인삼밭은 15년간의 휴경기간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인삼밭으로 쓰고 수확 후에 논으로 경작하다가, 다시 인삼을 심는 방식으로 한다. 인삼 경작 중 죽거나 병든 인삼이 나오는데, 이때 나온 바이러스가 벼를 심으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다. 인삼을 심었던 밭은 인삼만 안 되지, 다른 작물인 콩, 배추, 무, 고추 다 잘 자라서, 밭 임대를 선호했다.

인삼은 1년에 두 번 응달에 짚을 깔고 심는다. 파종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인삼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1년에 15번 갈아엎어야 한다. 인삼 재배에 가장 좋은 퇴비는 산풀, 특히 갈잎으로, 이것을 뜯어 말려서 거름으로 준다. 퇴비 작업은 8월 초순에서 말까지 작업을 한다.

연천군 땅은 개성인삼이라고 해서 개성 이북 땅으로 인삼에 다 좋아. 찰질이 있어요. 찰질. 질땅이라고 그러죠. 여기 자갈이 섞여있어 그래서 배수가 잘 되요. 그리고 가뭄 때는 가뭄을 안타. 인삼은 꼭 북향 밭에 심어. 북향에 물이 많으니까. 인삼이 물을 좋아하지만 또 물을 싫어해.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싫어하고, 바닥에서 물을 대주는 건 좋아해. 인삼의 바이러스 균이 밭에 한번 내리면 잠복이 15년이야. 인삼이 자라다보면 썩는 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썩는 균이 침투성 있는 게 15년이라고. 그래서 있다가 심어야해. 그래서 요즘엔 논에다 많이 심어요. 논은 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물을 집어넣고 모를 내 놓으면 그 균이 싹없어져. 그래서 캐고서 한 5년 (벼)농사짓고 다시 인삼을 짓는 거야

인삼밭은 열다섯 번을 갈아가지고 일광소독을 해서. 그래서 1년을 계속 갈고. 저기 산 초. 그리고 산에 나오는 초목 있죠? 갈잎이라 그러죠, 갈잎. 그걸 확 퍼졌을 때 꺾는 거야. 꺾어다가 살짝 말려요. 그냥 바로 밭에다 퍼서 밭에서 말리면 트랙타로 갈아. 갈아서 땅 속에 들어가면 벌써 땅 속에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썩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름이에요. 인삼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갈잎이에요.

양력 3월 말 경에 파종하고, 4월 초에 처음 싹이 올라오면 소독을 한다. 소독은 인삼잎이 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싹이 트는 양력 4월 초부터 9월까지 16번 내지 17번에 걸쳐 소독을 한다. 평균 한 달에 3~4번 정도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농약으로는 인삼에 남지 않는 잔류성이 없고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는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전매청에서 수매가 불가해서 폐기처분해야 한다.

김매기는 5월 초에 초벌을 매고, 9월 말경에 한 번 더 해서 일년에 두벌을 맨다. 인삼을 응달에 심고 짚을 깔기 때문에 풀은 많이 자라지 않는 편이다.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 사이에 이루어진다. 인삼은 종삼부터 1년으로 치며, 3년~4년생은 김을 매고 비료를 주는 등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이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초반의 비용은 6자 기준, 1평의 투자금액이 45,000원으로 6년을 잡으면 된다. 판매하면 6년근 삼이 90,000원으로 목돈을 만지게 된다. 6년 임대료는 평당 1,000원이다. 남궁목은 의정부, 동두천 등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으로 인삼밭 농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삼 농사에 실패를 본 일이 없었으나, 1996년 이례적으로 연천에 강이 넘치는 물난리가 나면서 5천 평의 인삼밭이 모두 썩었던 일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인삼은 썩으면 송장냄새보다 더 심하게 역한 냄새가 난다.

인삼은 심어놓고 1년을 딱 자라면 3년생이 돼. 종삼이 1년이니까. 그럼 3년, 4년 때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돼. 김도 매고 소독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야 돼. 근데 인제 땅이 받쳐줘서 잘 자라면 힘이 안 들어. 그럼 평당 가격이 그때는 뭐 한 평이 인제 6자. 6자, 6자가 한 평 아녘니까. 그러니까 땅 한 평에서 보통 한 6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 투자하는 금액이 한 4만 5천원 돼요. 그러면 6년 근에 나오는 거 한 9만원대 나와. 그러니까 푼돈을 저축해서 목돈 찾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96년도에 수해를 봐서 인삼밭이 다 잠겨가지고, 6년근짜리 달 반만 있으면 캐는 거를. 근데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줬어. 그냥 군에서 위로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나오드라고. 인삼은 물 한번 들어오면 끝이야. 다 썩어버려.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드러워.

논농사는 두벌 김매기까지 마무리되면, ‘어정 7월’(음력)이라 할 정도로 쉬는 달이다. 이 무렵의 주요한 부업은 퇴비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7월에 풀을 해서 소똥과 섞어 두엄을 해둔다. 한 달 반 정도 놔두면 썩는데 다음해

봄에 해토되면 바로 퍼서, 논에 군데군데 퍼놓고 논을 호리로 갈아엎는다. 논에 비료가 없는 집은 봄에 산의 갈잎을 꺾어다 넣거나, 화장실의 똥재를 넣었다. 가축은 키우지 않아 가축분뇨는 쓰지 않았다. 작목반이 생긴 뒤로도 백로와 백중에는 반별로 퇴비를 위해 풀을 깎았다. 품앗이로 공동퇴비를 만들며, 예전에 밀가루 포대가 지급된 적이 있다. 퇴비 만드는 일에 유촌리 마을이 1등을 해서 가마니 짜는 기계와 새끼 꼬는 기계를 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정부에서 퇴비를 권장했어. 그리고 정부에서 밀가루를 배급을 줬어요. 퇴비하러 가면 공동으로 퇴비를 하니까. 그걸 수제비로 해서 한 그릇씩 준거야. 점심에. 수제비 하나가 이만큼씩 해. 감자, 호박 찢어 넣고 가마솥에 펄펄 끓여서. 그렇게 해서 한 그릇씩 퍼서 먹고. 남자들은 풀을 베고, 여자들은 밥해주고, 또 풀 깎아놓으면 그거 한단씩 마차길 닿는 데까지 그걸 (산)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반별로. 그래서 유촌리 마을 전체에 공동퇴비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마니 짜는 기계, 새끼 꼬는 기계를 포상으로 받았어요. 70년대에 그래서 가마니 짜서 팔고해서 동네에서 얼마나 수입이 짹짹했는데요. 근데 이 근래에 화학비료가 나오면서부터 퇴비가 아예 없어졌어.

가을 추수 무렵에는 참게를 잡는다. 참게는 유촌리 1반의 두개모둠에서 잡았는데, 연천군이 막 수복되어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올 때부터 잡기 시작했다. 그에 의하면, 참게는 가을에 처서가 지나면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월동을 하고 올라오며, 갯고랑에서 겨울을 나게 된다.

마을에서는 참게가 여름에 알을 배서 바다에 산란하러 내려갈 때인 초가을이 참게잡이철이다. 종류는 민물참게이고, 암게가 알이 배어 맛이 더 좋았고 수캐는 한쪽 발이 큰 왕발에 털이 나 있다. 또 논바닥에 사는 게는 시커멓고 논둑 바위에 사는 게는 껍데기가 맑은 색을 띤다.

게를 잡는 방식은 먼저 좋은 자리에 말뚝을 박는다. 다른 사람이 이미 쳐놓은 보에서 3개 넘어가서 치는 것이 규칙이다. 이어 수수대로 발을 엮어 참게발을 박는데, 이를 ‘게막’이라 한다. 게막은 엄지손가락 굵기로 발을 엮는다. 족제비 싸리나무 1년생을 꺾어 발을 엮기도 한다. 발에는 미끼로 수수를 매달아 두었다.

참게가 봄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막 수복해서 들어왔을 때는. 민물게. 내버려 둡니다. 올라올 때는 여름내 이것저것 잡아먹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이제 알 까리 내려가는 거예요. 가을에. 산란을 하러. 바다 쪽으로. 초가을. 이제 농작물 들 막 익을 때쯤. 수수가 익을 때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놈(참게)이 수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게 잡는데다가 수수를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럼 요놈들이 그걸 먹으러 내려와요. 그래서 수수 익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민물게라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고. 아주 여러 가지예요. 숯게는 큰 거는 등딱지만 남자 손바닥 만해요. 그리고 털이 복실복실해요. 이 왕집게가 앞발 큰 거에. 시커먼 털이. 암게는 다리도 작고 털도 없고. 근데 맛은 암놈이 더 좋고. 근데 알이 통통하게 들어가지고.

규칙이 있는데 사실 좋은 자리에서 먼저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먼저 말뚝 박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럼 그 위예다가는 말뚝을 못 쳐요. 그래서 그 룰이 보를 세 개 넘어가요. 참게가 보를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보에서. 그래서 3개를 타 넘어가서 그 위에 짓는 건 상관없어요.

게막을 지어요. 참게를 잡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거기예다 발을 엮어서 가로로 쪽 막습니다. 그걸 참게밭이라고 해요. 족제비 싸리라고 있어요. 그게 1년생은 발 엮기가 참 좋습니다. 칠오로다 엮으면 이게 밭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각선으로 칩니다. 가로로 일자로 쪽 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놈이 물살 따라 흘러 내려와요.

게막을 치고 그 끝에는 아카시아나무 1년생을 꺾어 원두막을 만든다. 여기 들어가서 떠내려 온 게를 잡는다. 짙은 논농사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풀을 깎아서 이엉을 엮어두었다. 밤에는 이곳에 뱀이 들어오기도 했다. 게는 호롱불을 켜놓고 밤새 손으로 잡았다. 비 오는 날은 시간에 관계없이 게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잡을 수 있었다. 많이 잡을 때는 밤 12시 되기 전에 하루 반나절 만에 200마리까지 잡기도 했다.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 통발을 만들기도 했다. 비료포대 비닐을 통발 앞에 연결해 게들이 미끄러져 들어오게 했다. 통발 1개에 7~8마리씩 걸리는데, 통발을 10개쯤 쳤다가 새벽에 건졌다. 통발 안에는 고등어, 갈치 등을 미끼로 넣어두기도 한다.

참게 잡이는 남자들만 참여하며 양력 9월말 수수가 익을 때부터 시작해서 서리 오기 전까지 하는데, 특히 추석 때 많이 잡는다. 원두막은 동네 사람에게 하루 빌려주기도 하는데, 따로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럼 여기다 포랑을 내고 원두막을 짓고 호롱불을 켜놔요. (원두막은) 아카시아 나무 1년생을 죽죽 고른 거를 그걸 몇 바퀴 돌려요. 둥그렇게 돌려요. 움막 짓듯이. 그럼 그걸 풀로 깎아서 그때만 해도 짚이 안 나올 때니까. 벼 비기 전이니까. 풀들 깎아서 이엉을

엮어서 쪽 돌려요. 밤에 기분 나쁜 게 뱀이 기어 들어와요. (막 안에서) 밤에 호통불을 켜 놓으면 그럼 이게(참게가)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탁 잡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손으로. 이게 게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초저녁에 내려왔다 한밤중에 내려왔다 새벽에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날이 있어요. 비오는 날은 무지하게 막 내려와요. 정신없이. 내가 하루 밤 12시 안 될 때까지 잡았는데 하루저녁에 200마리 잡았어요. 그냥 정신없이 쏟아져 내려오니깐 계속 주워 담는 거야 이게. 근데 비가 점점 점점 오면서 이게 원두막이 뜨게 생긴 거야. 잡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찢혀요.

밤새도록 이렇게 지키다가 피를 쓴 게 이렇게 통발을 짝 맨들어서 끄트머리 묶어놓고 들어가는데 있죠. 거긴 이렇게 비료포대 있죠.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럼 게가 망설일 것도 없어 딱 올라가기만 하면 주루룩 내려가니까. 통발 설치해놓으면 밤새 지킬 필요도 없고 아침에 가서 거둬오기만 하면 되니까. 취약점은 나가기 전에 먼저 가서 탁 털어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서리 올 때까지 해요. 양력 9월시부터 10월말까지 잡는다 그럼 되겠네요. 수수 익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 때도 많이 잡았어요. 어쨌든 그제 내가 말뚝 박았으니 주인이잖아요. 그럼 옆집에 아저씨가 나 하루 빌려줘라 그럼 빌려줘요. 그날 잡는 건 그 사람 거야. 그냥 인정상 빌려 주는 거지. 받는 건 없고.

잡은 게는 예전에는 양이 많고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모두 매운탕을 끓이거나 계장을 담갔다. 주로 매운탕을 끓이는데 사용되었으며, 참게 가격은 당시 계란 1개 값 정도 가격이다. 먹거리가 귀한 시절이라 게는 좋은 식재료가 되었다. 이곳에서 매운탕은 참게, 메기, 잡고기를 한데 넣고 마늘, 고추장, 파 등을 양념으로 넣어 끓인다. 참게장은 많이 잡을 경우에 담는다. 토종간장과 외간장을 섞어서 30~40분간 끓여 참게에 붓는다. 마늘, 파만 사용하고, 간장에 감미를 조금해서 끓인 다음 식혀서 게에 붓는다. 보통 9~10월에 담가 1~2월에 먹는다. 국물에 살과 내장이 다 녹아나오는데, 그 계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이 별미이다.

매운탕은 참게, 메기, 잡고기 하고. 게가 들어가야 매운탕이 맛이나. 많이 잡으면 참게장. 토종간장하고 양조간장 외간장이라 그러지. 그걸 막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살아있는 게에다 붓는 거야. 그럼 며칠 있다가 간장만 거둬가지고 다시 끓여. 그땐 식혀서 붓지. 그리고 감미를 하지 인제, 가을에 가서 11월 달에 가서 참게를 한 마리 끄내서 뚜껑을 딱 떼면 아주 알이 노랗게 들었지. 거기다 해서 밥을 비벼먹어. 10월말까지는 잡혀. 게장은 1~2월 되면 맘대로 먹을 수 있지. 임진강에 참게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 마늘 파만 넣고. 그렇게 해서 밥을 비벼먹으면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맛있지. 계장을 하면 다리에 있는 살은 다 빠지고, 뚜껑만 먹게 돼. 밥 비벼서. 국물이 진짜야. 여기 토종적인 음식인데.

참게잡이는 1978년까지도 했으나, 논농사에 농약을 사용하면서부터 참게가 사라졌다. 이에 파주, 연천 어촌계에서 참게의 종계를 뿌렸다. 남궁 묵씨에 따르면, 예전에 군수를 했던 임귀배가 종계 몇 십만 마리를 16년 동안 방류를 했는데, 그때 자란 것들이 지금 올라온다. 따라서 조금씩 참게가 잡히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전곡장에 냉동을 해서 판매하는 음식점도 생겼다. 유촌리에서 전곡리까지 20~30리 정도 거리이다.

유촌리에서는 참게와 함께 고기도 많이 잡았다. 종류는 참마작, 빠가사리며, 매운탕을 끓일 뿐 어죽은 없었다. 특히 참마작은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로, 길쭉하고 입이 작으며, 살이 많은 대신에 뼈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장마 후에는 논에 고기가 많았으며 메기, 피라미 등이 주로 잡혔다. 보 아래 나무 밑에 메기가 많이 서식해, 겨울에 봇물이 좀 빠지면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11월말 농사 끝난 후에 좋은 회식거리가 되었다. 이 무렵까지도 참게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참게를 섞어 매운탕을 끓이면 맛이 훨씬 좋았다.

늦가을인 음력 9월경에는 보리와 밀을 파종했다. 벼 수확하기에 앞서, 별도의 밭에 보리와 밀을 각각 심는다. 보리밭에는 골에 콩을 추가로 심기도 했다.

여기는 전부 쌍거리로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는 인제 늦가을에 심어요. 9월달 즈음에. 밀도 심어놓고. 보리밭 골에다가 인제 콩을 심는 거야. 매주콩. 그때 거름이 뭐가 있수. 뒷간에 똥재. 그러니 콩이 뭐가 나와. 많이 나와 봐야 1,500평에 콩 3~4가마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밀 나오기 전에 호밀이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식량으로 해서 ‘호밀밭이’라고 했어. 근데 호밀은 못 먹어. 밀가루하고 달라. 그거 인제 갈아가지고 보리밥 할 적에 섞어서 같이 지어. 그거를 많이들 안 해먹었어. 여기는 주로 보리하고 밀. 근데 보리하고 밀이 70년대 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 쌍거리로 보리밭, 밀밭을 갈러 다녔어.

양력 9월 말~10월 초 중순에는 겨울나기를 위해 화목(火木)으로 쓸 나무를 한다. 이를 마을에서는 ‘푯나무 한다’고 말한다. 8월 중에 나무를 하면 썩기 때문에 9월말에 시작한다. 푯나무를 낮으로 깎아서 산에 쌓아두고 겨울내 마르도록 둔다. 나무할 때는 마을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품앗이를 했다. 이때는 하루에 한 집의 나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다. 산에 낮으로

쳐서 둔 나무는 대개 누가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산에 가서 이 나무를 거둬 들인다. 1못, 2못, 3못,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무데기로 쌓아둔다. 못은 모춤을 세는 단위로 1춤, 3못이 1단이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고 꽃나무라 그래요. 일반 나무는 겨울에 하거든요. 근데 이 꽃나무라는 거는 지금해도 안되고. 지금해서 비어놓으면 썩습니다. 벼가 막 익으려고 할 때, 가을에. 가을에 나무를 깎아두면 썩지 않고 고대로 말라고. 양력 9월 말에서 10월 초순 한 중순까지. 깎은 상태에서 미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 놔둡니다. 그럼 겨울쯤 되면 이게 바짝 말라서 가볍기도 하고 떨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 이파리가 다 붙어 있으니까.

깎는 집 있고 안 깎는 집 있는데 대개 겨울에 좀 들 바쁘려고 부지런을 떠는 집에서 꽃나무를 깎는다. 큰 나무를 깎는 게 아니고 큰 나무는 내버려두고 낮으로 그 옆에 잔가지. 무자라기 라고 하는데 그걸. 묶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말르면 그때 침을 끊어가지고 가서 침으로 묶습니다. 그냥 베어서 한 못, 두 못, 세 못 엮어놓거든요. 무데기씩 요만큼씩 쌓아 놓는 거예요. 모를 찢 때 딱 쥐는 게 한 못인데 이걸 세 못을 하나로 딱 묶는 거를 한 춤이라 그러는데 한 춤이 만들어지는 걸 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세 못 정도 모으면 딱 한 단이 되요. 나중에 그걸 이제 침으로 묶어서 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깎은 건 누구네 나무. 저쪽 산에 깎은 건 누구네 나무 이렇게. 추수 끝나면 가서 거둬서 내려오는 거죠.

이때 나무를 하면서 산에서 부르는 소리가 울어리 소리이다. 꽃나무를 깎고 그 자리에서 있는 나무들을 모아 ‘가마’ (‘나묘’ 라 함)를 측석에서 제작한 뒤, 일하는 사람 중 최연장자(영좌라 한다)를 태워서 내려온다. 내려올 때는 양반행세를 하면서 내려오며, 보통 20~30명이 참여한다. 이후 연탄이 보급되어 화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꽃나무 깎는 일도 중단되었다.

꽃나무는 연료용이니까. 그거 하러가는 걸 품앗이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은 누구네 집 꽃나무 깎으러 간다.” 그럼 글로 가서 깎고, 여럿이서 깎다가 놀이가 거기서 된 거죠. 그래서 가마를 거기서 만들어요. 이 가마를 ‘남여’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나무 큰 거를 잘라가지고 측석에서 가마를 만듭니다. 그 가마를 미고 그날 일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인제 ‘좌상이나 영좌’그러는데 그 사람을 태우고 내려오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산 것들인데 양반행세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음력 10월에는 함열 남궁씨 집안 시제를 지낸다. 남궁목에 따르면, 그의 31

대조는 백호 남궁역이다. 그는 이성계에게 무술을 지도한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이성계 대신 죽어 시신에 목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묘는 도봉구에 있으며, 현재도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시제를 지낸다.

(4) 유촌2리의 놀이

유촌2리 놀이로는 팽이치기, 자치기, 연날리기와 연싸움, 썰매타기, 달맞이, 윷놀이, 구슬치기, 그네뛰기, 게줄다리기(창작품), 농악, 닭싸움, 고누(곤지), 엿치기, 골패와 투전, 화투, 참외서리 등이 있다. 한편 연천리의 게줄다리기는 참계잡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 게줄다리기를 모방해서 창작한 것이다. 남궁목(남, 1946년생)이 구술한 유촌2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정월에 놀이로는 팽이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스케이트, 썰매타기가 있다. 팽이는 마른 소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 팽이에는 꼭지 뒤로 못을 박은 뒤, ‘야스리’로 갈았다. 특별히 팽이에 색은 칠하지 않았다. 팽이채는 짜리깍질로 된 총치로 만들었다. 이 총치를 30cm정도 나무에 매서 만들었다. 팽이싸움은 누가 팽이가 더 오래 살아있는가로 승부를 겨뤘으며, 벌칙은 딱밤을 맞는 정도였다.

자치기는 논바닥에서 주로 한다. 막대기 두 개를 만드는데, 긴 것은 30cm, 짧은 것은 15~20cm 정도로 나무를 깎았다. 자는 위, 아래 반대방향으로 사선으로 자른다. 땅에 원을 그리고 가운데 골을 내서 작은 길이의 나무를 걸치고 건져 올린다. 사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공중에 들리는 쪽을 긴 나무로 쳐서 때려 멀리 보낸다. 나무는 별도로 부르는 이름은 없고 그냥 막대기라 했다. 상대가 못 잡으면 계속 때리는데, 때려서 멀리 가면 이기게 된다.

팽이는 직접 깎았지. 소나무로 거기다 쪼그만 못을 가운데다 박아 그래야 났지를 얹으니까 또 잘 돌아. 말에서 위로 박았지. 소나무 마른 겉로 깎아야 잘 돌아. 팽이채는 여름에 짜리나무 잘라다가 짜리 깍데기를 벗겨. 그걸 총치라고 해서 그걸 째가지고 나무에 붙달아 매서. 그걸로 치니까. 팽이싸움 해봐야. 부딪치는 거.

편 갈라서 자치기도 하고. 긴 거는 꽤 길어 한 30센치, 짧은 거는 15센치 20센치 짧게 만들어. 그래서 편 갈라서. 양쪽을 비껴서 비스듬하게 잘리. 그럼 양쪽이 뜬단 말이야.

그럼 한쪽을 때리면 탁 튀잖아. 그럼 튀어 올라오면 그때 탁 때리고. 땅에다 구멍을 파. 이렇게 길게. 그리고 거기(구멍을 판 곳)다 자치기를 올려놓고. 여기서 때려 그럼 상대방 편이 그걸 못 잡으면 지는 거고. 이기면 그 구멍에다 올려놓고 때리는 거야 인제. 멀리 나가는 사람 편이 이기는 거야. 이제 때려가지고.

연은 정월대보름에만 띄우고 평소에는 띄우지 않았다. 연의 종류로는 방패 연, 가오리연을 만들었고, 종이가 없어 사료 포대를 사용했다. 꼬리는 신문지를 길게 오려 붙였다. 연살은 망가진 대나무 우산의 살을 재활용했다. 연싸움도 했는데, 연줄에 깨진 사기 밥그릇을 곱게 뺨아서 밥풀과 섞어, 종이에 대고 연줄에 먹인 뒤, 말려서 사용했다. 연싸움에서 연줄을 당기다가 손이 찢어져 상처가 나기도 했다.

여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데가 아니라서 정월대보름 날에나 연들을 맨들어 가지고 띄우지 일반에는 잘 안 띄웠어요. 연줄에다가 사기 갈아가지고 연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겨울에 손이 갈라져. 찢어져. 밥그릇 같은 사기 망가지고 깨진 거 있잖아. 그걸 뺨아가지고. 풀이 없으니까 그걸 밥풀을 이겨가지고 섞어가지고 쪽 종이에 대고 맥이고 그랬어요. 여기 방패연이랑 가오리연. 무신 거기다 태극기니 이런 거 그릴 줄도 모르고. 창호지보다 창호지 없으면 사료 푸대 있어요. 그걸로 많이들 만들었어. 무거워도 잘 날라요. 꼬랑지는 신문지 잘라 쪽. 옛날엔 대나무 우산 있잖아요. 그거를 망가진 살을 뺐다가 하고 그랬지.

겨울에는 강에서 스케이트와 한발 썰매를 탔다. 스케이트와 썰매는 모두 직접 만들어서 탔다. 산에서 나무를 구하고, 썰매의 날은 부대에서 버린 탄약통을 구해서 사용했다. 남궁목은 친구들과 주로 한발 썰매를 탔다. 이 썰매를 만드는 방식은 나무 각목을 바닥에 길게 놓고, 그 위에 나무 판을 올린 뒤, 각목 중간에 탄약통을 자른 철판을 박았다. 이 썰매는 세로로 긴 형태로, 판 위에 두발을 올려 선 뒤, 긴 막대기를 사타구니 사이에 두고 얼음을 찍으며 전진한다. 막대의 길이는 지게 작대기의 2배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다. 막대 끝에는 철사를 박아서 얼음을 잘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썰매는 일반 썰매보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가 옛날에 얼음이 잘 얼었어요. 한발짜리 스케이트를 막대기 길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랬어. 강이 같이 어니까. 한발짜리 썰매를 타는데. 막대기를 길게 해가지고 사타구니 밑으로 해가지고 찍고 나가는 거야. 그럼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렇게들 우리가

놀았어요. 날은 하나. 날은 여기 6.25 전쟁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실탄 탄통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맨드는 거야. 그거 진짜 잘르려면 애먹죠. 그래 날이 강하고 휘지 않고 좋으니까. 나무 각목에다가 톱으로 켜가지고 그걸 끼어가지고는 양쪽으로 휘지 않게 못으로 박는 거야. 그리고 위에 요만하게 발판을 맨들고 두발을 딱 올려놓고는 (막대기로)미는 거야. (막대기 길이는) 보통 지게 작대기 보다 두 배는 돼야지. 끝에다가 철사를 끼워. 강한 철사를 박아가지고 이 얼음을 잘 찌게끔 만드는 거지. 우린 앉아서 하는 거 없었어. 서서. 그제 얼마나 빠르니 몰라. 강에 나가서 타면 지금 스케이트만큼 나가 그제. 그걸로 시험도 하고. 그러니까 몸 균형을 잘 잡아야해. 잘 넘어지지. 무르팍 다 깨져. 근데 애들 적에 뭐 아픈니까.

그리고 짚을 크게 말아서 논바닥에서 축구를 했다. 구슬치기도 했는데, 당시 ‘다마’(구슬)는 잘 사는 아이는 쇠로 된 다마를 사용했고, 어려운 아이는 유리다마를 가지고 놀았다. 다마치기는 10여명이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리고, 가운데 구슬을 10개 정도 두고 2.5~3m 떨어진 거리에서 구슬을 던져 선 밖으로 나간 것을 따먹는 방식이다.

닭싸움은 주로 운동회 때 학교에서 했으며, 동네에선 하지 않았다. 줄다리기도 마을단위로 놀지 않고, 국민학교 운동회 때에 했다. 줄은 동아 밧줄로 만들었다.

척사대회는 유촌리에서 열렸다. 반별로 5개 반이 편을 먹고 시험을 하는데, 먼저 나가는 말을 잡는 방식이다. 골패, 화투, 짝치기 등이 있었으며, 이 동네에서는 재미로 할 뿐, 도박으로 하지는 않았다. 음력 5월 단오에 동네에서 씨름을 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군민의 날에 포천 장터에서 소를 걸고 씨름대회가 열렸다.

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1) 무등리 마을개관

왕징면은 16km의 휴전선과 연결한 최북단 접경지역으로서 전 지역이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다. 동쪽으로 군남면, 남쪽은 미산면과 백학면, 서쪽은 휴전선, 북쪽은 중면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 본래 마전군 북면(北面) 지역으로, 동막(東幕)·중동(中洞)·애동(艾洞)·징파(澄波)·노동(蘆洞)·무등(無等)의 6개리를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왕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종전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 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연천군 서남면(西南面) 지역이었던 귀존(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오탄(伍炭)·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屯)의 8개리와,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임강(臨江)·마성(馬城)·구화(九化)·자하(紫霞)·갈운(葛雲)·덕적(德積)의 6개리를 편입하여 25개리를 관할하게 된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 18개 법정리를 두고 있으며, 이중 무등·동중·노동·북삼 4개리에만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14개 법정리 중 강서·강내·작동 등 3개리는 민통선 출입영농지역으로 군(軍)통제에 의한 영농활동만 가능하다.⁴⁰⁾

조사가 이루어진 무등리는 본래 마전군 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유림장리(楡林場里)를 병합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개의 행정리, 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등실이란 골짜기가 있어 무등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명은 여우고개로 미산면 유촌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⁴¹⁾

40) 왕징면사무소>연혁 및 유래(www.yeoncheon.go.kr 접속일 2018.8.23)

41) 왕징면사무소>지명유래>무등리(www.yeoncheon.go.kr 접속일 2018.8.23)



〈그림 4〉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이완수(남, 1937년생)에 의하면,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는 12부락에 280호가 살던 마을이다. 임진강 포구의 스무스장과 술청거리가 있던 곳으로, 마포의 배가 소금, 고등어, 새우젓을 싣고 와서 콩, 좁쌀, 수수와 교환해 갔다. 그리고 사정동에 활터가 있었으며, 12부락이 품앗이를 하고, 일제 강점기에 단골무당이 있던 마을이다.

무등리는 자연마을이 12개 있었는데, 대개 한 마을이 3~4호 혹은 5~6호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6.25 동란 전에는 280호 가량이 거주했으며, 수복된 이후에 8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으나, 현재는 180호 가운데 50호가 빈집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40호 정도가 된다.

무등리의 무는 본래 ‘舞(춤 무)’자를 썼으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정리를 하면서 ‘無(없을 무)’로 바뀌었다. 이완수가 판단하기에 마을이건 사람이건 이름에 ‘없을 무’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 그는 과거 마을 지명에 관한 기록과 이전 족보들을 찾아 춤출 무자로 썼던 자료들을 찾았다. 따라서 마을 한자명을 바꾸고자 행정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현재 바뀌질 않고 있다.

마을에는 스무스 장터라는 곳이 있다. 왕징면은 임진강을 끼고 있어 그 수로를 이용해 배들이 드나들었다. 수로가 현재 다리 위쪽에 지서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봄과 가을에 마포에서부터 소금, 고등어, 새우젓 등을 싣고 들어오는 큰 배들이 나루에 정박하면서 장터로 발전하였다. 마을 포구에 큰 배가 정박해 물건을 내리고 작은 배로 옮겨 싣는다. 작은 배는 2~3명이 타는 노를 젓는 작은 배로, 물건을 싣고 이북 지방의 이천을 거쳐 평강까지 이동했다.

마포 뱃길은 이곳 마을부터 한강까지는 물이 잔잔하다. 서해바다로 완전히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북으로는 여울이 많았기 때문에 큰 배는 가지 못하고, 작은 배들만 올라갈 수 있었다. 여울에서는 배를 밀고 물살이 잔잔한 곳에서는 2~3명이 노를 저으며 북쪽으로 올라갔다.

마포에서 소금하고 고등어하고 새우젓을 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기 지금 지서있죠 삼거리 그 다리 위에 바로. 거기가 유림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 배가 하역을 해서 작은 배가 싣고 일로해서 이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까지 갔데요. 이천으로 해서. 소형배로다가. 이 위로 가면 여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배로다가 인계해서 실어가지고 이북으로 가서 외상으로 퍼가지고.

가을에는 콩 좁쌀 뭐 수수 뭐 이런 걸 잡곡을. 새우젓하고 고등어하고 소금하고는 외상으로 퍼가지고 가을에 가서 거둬가지고 그 소형 배에다가 싣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큰 배로다가 싣고 여기서 마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포구 이름이) 스무스예요. 그제 한 자로는 유림 시인데. 그전에는 여기가 돈이 엄청나게 끓었데요.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북으로 가는 물산은 전부 여기 와서 하역을 해가지고 소형배로다가 싣고 올라

가서 거기서 다 퍼니까.

저도 왜정시대 어릴 적엔 봤어요. 배들이 들어오는 거. 큰 배가 와가지고 작은 배로 옮겨 싣고. 그게 봄, 가을이 많아요. 여름엔 장마가 지나니까 땡기지요. 그러니까 봄에 와가지고 땡다가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싣고 마포까지 가는 거예요.

큰 배는 마포 상인들이고, 작은 배는 이쪽 사람들이고. 배가 얼마 크진 않죠. 소형이니까. 평강까지 아마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여울이 있어가지고 배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밀드라고요. 또 노를 저어가고 또 여울을 만나면 배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밀고 나가고. 그래서 큰 배가 여기까지만. 이천까지 여울이 한 닷 개 되요. 물살이 빠른 곳이죠 여울이. 소형 배는 둘이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세 명이 모두 노를 젓는 거죠. 두 명이 젓는 배가 있고.

봄에는 음력 3월 경에 장을 담글 때라 소금이 많이 필요했고, 가을에는 김장을 해서 또한 소금과 새우젓의 수요가 많았다. 이때의 거래는 물물교환이나 신용거래로 하는데, 곡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바꾸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건을 먼저 주고 가을에 콩, 좁쌀, 수수 등의 곡식을 받아 갔다. 봄, 가을로 며칠에 한 번씩 큰 배가 2~3척씩 들어왔다.

마을에 농사가 없는 사람들이 남녀 모두 새우젓, 소금, 고등어 등을 받아서, 남자는 등지계를 하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마을마다 다니며 행상을 했다. 스무스 장거리는 일제시대까지는 배가 들어오는 곳은 매우 번창했는데, 그 곳에 술청거리라고 상인들을 상대하는 술집이 많이 있었으며, 마포상인들이 숙박을 하고 갔다.

곡식을 주는 사람도 있으면 받고요. 없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갖고. 이전에는 다 신용거래죠. 저희 집에서도 새우젓 같은 거 소금 같은 거는 사서. 새우젓, 소금 살 때는 그전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저 곡식으로다가. 주로 콩, 팥, 조, 수수, 보리쌀로 바꾸고. 소금은 봄, 가을에. 봄에 인제 된장들 담그니까. 음력 한 삼월 달쯤 될 거예요. 가을에는 또 김장하니까. 음력 10월달 9월말이나 10월초에 김장들 해요.

마을에는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등짐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소금도 그렇고 새우젓도 그렇고. 마을에 농사도 없고 그런 분들이 대개 다녔죠. 마을에 등짐장수 하시던 분이 두 분이 여기서. 새우젓, 고등어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니시는 분. 또 안노인네들이 그런 거 받아가지고 땡기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머리에다 이고. 이 근방으로 촌으로다가 다 인제 다녔죠. 안노인네들은 머리에다 이고요. 남자들은 등지계에다 지고. 마포상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며칠 자고 또 나가고. 그래서 여기 술집이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무스 거리, 술청거리. 어릴 때도 몇 집이 있었는데 살림만 하고 살지. 술집은 안 했어요.

스무스장은 왜정 말기에 육로가 생겨나면서부터 사라졌다. 이후로는 마을 사람들은 30리 거리의 연천장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 당시에는 전곡이 38선이 가까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곡이 먼저 수복되어 전곡으로 옮겼다가, 다시 연천이 수복되면서 연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다.

왜정시대까지는 장이 여기 섰는데. 그 배 들어오는 곳, 그 전에는 여기가 돈이 엄청 풀렸는데요. 스무스 장거리라 그래요. 원채 상인들이 많고 돈들이 많으니까. 그게 아마 왜정 말기에 사라졌을 거예요. 연천장으로 다녔죠. 아유, 멀어요. 30리가 넘어요. 전곡보다 10리 이상 더 멀어요. 전곡은 연천하고 비슷했어요. 전곡은 38선이 있으면서 커지지를 않았어요. 한탄강 사이로 해서 한국군이 경계가 돼서. 지금은 전곡이 크죠. 56년도에 전곡이 수복됐는데, 이쪽 전망이 고향이니까. 전부 그쪽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연천) 또 수복이 되니까 또 고향을 찾아서 오고.

(2) 무등리 토박이의 삶

이완수(남, 1937년생)는 공주 이씨 집성촌인 무등리에서 12대에 걸쳐 살아 오고 있다. 그는 임진강 제방이 생기기 전에 수차례 홍수 피해를 입어 집안이 수몰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쟁 때에 동두천, 덕정리 미군수용소에서 몇 달간 지내다, 환경이 열악해서 수용소를 도망친 적도 있다. 잠시 동두천과 의정부에서 생활한 적도 있으나, 주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려 50대에 세상을 떠난 모친을 회생시키기 위해 직접 모친을 등에 업고 사찰에 가서 3주간 기도를 드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다. 이 지역의 포구와 장터, 홍수, 농사과정, 무당, 장님 경읽기 등에 관한 여러 전통지식을 구술한 호의적인 제보자이다.

공주 이씨는 이완수의 12대 조상이 송추에서 이곳 무등리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460년가량 거주하고 있다. 그의 18대 조상은 조선 초 개국공신인 흥원군 이부이다. 무등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흥원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이완수의 집에서 10리 거리이다.

공주이씨 집성촌은 왕정면의 무등리, 큰장제동, 작은장제동, 우정리 큰장골, 유천리 증평동, 서장제동, 북삼리 방아다리, 능곡동 사당을 중심으로 사방 10리에 걸쳐 있고, 선산은 송추에 있다. 이완수에 따르면 연천 군내에서는

공주 이씨가 가장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 그는 3남매의 막내로 형과 누이가 한 명씩 있다. 그의 부친은 이완수가 2세 때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50세, 곧 그가 21살이었을 때에 돌아가셨다.

이완수는 미산면 마전리의 마전국민학교를 다녔다. 학교는 일제시기에 소학교를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방 후에 처음 다녔다. 마을에 같은 학년인 동갑 친구 한 명과 둘이 다녔는데, 여우고개를 거쳐 등학교를 했다. 당시 미산면 유촌리와 왕징면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조성한 큰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이곳을 여우고개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있는 사람이나 자기네 산에 모셨지 없는 사람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거기다 갔다 매장을 했다”고 한다. 특히, 어린아이를 매장한 애장의 경우, 술가지를 꺾어 쪼아 놓고 돌로 쌓아놓는데, 어릴 때 거길 파는 여우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다. 여우 외에도 공동묘지 근방에는 대낮에도 ‘식리’(승냥이)라고 큰 개 같은 산짐승들의 자주 출몰했다.

그는 학교까지 10여리가 넘는 길이고, 또한 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무섭기 때문에, 둘 중에 한명이라도 아프면 다른 친구도 같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일년 뒤인 4학년 때에 당시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왕징면 노동리에 있는 노동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이복서는 그날 배운 것을 다 알아야 보내주지,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올 걱정을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아파가지고 혼자 갔는데, 늦도록 공부를 하는데, 영 불안해 가지고 집안을 안 가고 그냥 학교에 있었어요. 밤에 교실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그걸 어떻게 봤나 봐요. 교실을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그래서 “넌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 그래서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럼 너 우리 집으로 가자.” 마전학교 앞에 선생님 집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 선생님도 뭐 다 조밥이죠. 그때 뭐 쌀이 있어요? 그걸 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어려워 가지고 못 먹겠드라고. 잠도 안 오고. 아주 그냥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려워가지고. 그날 아침에 조밥을 먹고 이제 가자고.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날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전학을 해라.’ 그래서 전학을 해줬어요.

그는 3학년 때에 한번 제비뽑기에 당첨되어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있다.

당시 학교에서 고무신 배급이 나왔는데, 금강산표 검정 고무신이었다. 1개 반에 2개가 나와 제비뽑기를 해서 고무신을 탈 수 있었다.

노동국민학교로 전학해서 1년이 지난 5학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후에는 정식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고, 대신 연천향교를 다니거나, 서울의 선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여 연천군지에 마을 지명유래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완수는 전쟁 중에 가족들과 함께 북으로는 곡산까지, 남으로는 평택까지 피난을 갔다. 낮엔 미군 비행기의 폭격이 심해 숨어 있다가 밤에 주로 이동했다. 그는 동두천 수용소에 있다가 몇 달 뒤 도망쳐 밤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다시 미군에게 발각되어 미군 군용차량 트럭에 실려 이번에는 덕정리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는 기차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했다. 가족들 중 일부는 남쪽으로 피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북으로 이동했으며, 이로 인해 이완수의 5촌 친척들은 모두 이북에 있다.

이북으로 피난을 갈 때는 미군 폭격이 많아 골짜구니 가서 도랑 같은데 숨었다가 밤이면 갔어요. 이북서는, 인천상륙작전 9.28이라 그러든가. 그때예요. 평택으로는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다시 미군이 트럭으로 실어나갔어요. 봄이요. 세 번을 실려 갔어요. 처음에는 가서 동두천에 수용소 같은데 가져다가 넣드라고요. 도망을 나와서 밤에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숨어사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살다가 또 미군한테 들켰어요. 그때 또 덕정리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 수용소가서 또 갖다가 집어넣드라고요. 수용소에다가. 거기 있다가 또 나온 거예요. 나와 가지고 백학읍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군이 세 번째는 실어다가 기차에다 실려가지고 평택까지. 세 번째 평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실려 나갔으면 미군한테 실려 나갔으면 다 같이 만나는 건데 무서우니까 숨어가지고 그냥. 뒤진다니까 이 사람들이 숨었다가 그냥 다 들어갔어요. 이북으로들 올라가고 갔지. 그래가지고 같은 가족끼리도 형제간에도 동생은 나오고 형은 무섭다고 안 간다고 그러다 그냥 (위로)올라가고. 그런 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저희 오촌들도 다 이북으로 들어갔어요.

전쟁 후 38 이북으로 북한의 통치를 받던 때에 다시 학교에 입학했다. ‘이북통치’ 기간에는 어른들은 추석과 설에 인민회가 있었고,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따로 회에 참석해야 했다. 아론 회는 토요일에 주로 열렸으며 그는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자가비판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토요일 날 주로 회를 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나가서 자가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 그 거 무서웠어요. 전교생이 다 같이해가지고. 어느 한 학생이 아무개 동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를 그거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 나오라 해가지고 단상에 나가가지고 그걸 왜 했느냐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 답변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당하는 거죠, 뭐. 그냥 거기서. 참 그게 아주 이복서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이완수의 어머니는 그가 21살 때인 1958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홀몸으로 3남매를 키운 생활력이 매우 강한 분이다. 전쟁 후에 연천이 수복되기 전에는 양주 도화리라는 곳에서 소작을 하며 생활했다.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암소도 한 마리 키웠으며, 소가 새끼를 낳으며 금방 불어나서 피난민 부자 소리도 들었다.

이후 양주에서 전곡면 팔관리로 이주해 다시 땅을 사서 이주했다. 이어 1961년도에 다시 팔관리 땅을 팔아서 고향인 무등리로 들어왔다. 그런데 팔관리에서 어머니의 지인의 권유로 서울의 버스에 회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농사로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폐업하면서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화병을 얻어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을 얻었다. 떠났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피난 나가서 양주 도화리에서 살다가 남의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 소도 기르고 했어요. 소가 새끼 낳고 하니까 소가 금방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난민 부자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다 전곡이 수복 되서 고향이라고 들어와서. 거기서(도화리) 땅도 샀는데, 땅이고 소고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전곡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전곡에 영종여객이라고 여기서 서울로 다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차리는 사람이 피난을 같이 갔는데 그 양반이 옛날에 왜정시절에 면장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피난 나가서 우리 옆집 살았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새로 허가를 내야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새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땅이고 소고 다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곡에 그냥 집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어머니가 화병이 나신거야. 그래가지고 돈은 전혀 못 받았지.

병원에 가도 못 고치지, 뭐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해도 못 고치지 장님을 불러다 복치고 어머니 앞에 모시고 경을 막 읽어도 못 고치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전에 백석면 영장리에 도솔암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파주군 광탄면 영장리로다가 되있더라고요. 그 보광사 위에 도솔암이라고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이 우리 이종사촌 형이 중 스님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를 모셔다 여기다 기도를 드려보자.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버스가 의정부에서 장흥까지도 버스가 하루에 세 번인가 땡기고 안 땡기더라고요. 거기서 어머니를 업고 도솔암까지를 가는데, 업고서 한 4시간을 갔나봐요. 그래서 절에다가 모시고

그는 병원에도 가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장님의 경도 읽었다. 그래도 낫지 않자, 어머니를 업고 한번도 쉬지 않고 광탄면의 도솔암에 도착해서 21일간 치성을 드렸다. 쌀 한 가마와 초, 향을 각각 3곽씩 준비하고, 성냥을 한 통을 들고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인제 그 스님이 가서 쌀 1말하고 초 세갑, 또 성냥 세통, 향 세 통을 가져와서 정성을 드려보자. 신중단이라고 따로 있고 법당에 부처님 모신데 따로 있고 산신각이 따로 있어요. 세군데 드리니까 세 개씩 사오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전곡에 와서 모두 구해서 절로 돌아가려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절에서 정성을 드리려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절에 올라갈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손으로다가 들고 가서, 절에까지 가서 내려놔야 덕을 보지 그렇게 안 하면 덕이 없데드라.”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가니까, 이제 저녁때가 되서 법당에 가서 그걸 내려놓으려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약한 기도 날짜를 하루 남기고 꿈의 계시에 의해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지 스님의 권유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는 몇 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이제 기도를 하면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4시에 법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를 드리는데. 떡도 해서 올리고, 밥도 세 군데 갖다 올려놓고. 그 위에 약수터가 있는데 떠서 바로 올려놓고. 난 그냥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냥 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21일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가 음력 동짓달일 거예요.

내일이 아침에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저녁에 밤쯤 됐는데 꿈에 난 어머니 옆에서 자는데, 보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돛자리를 피고 상을 하나 놓고 무나물 7접시, 밥 7접시, 순갈 7개를 놔둬라.” 그러더니 하얀 닭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하고, 문창호지를 하고 가새를 가져오래요. 찾아서 가져다 줬더니 닭 모가지를 문창호지를 올려서 씌우더니 실로다가 모가지를 살살 감드라고요. “야 내가 이 닭을 상 너머로다가 던질 테니까 닭이 이걸 벗고 나가면 니 어머니가 사는 거고. 이거 쓴 채로 상 쪽으로 오는 거면 니 어머니는 힘들다.” 얘길해요.

그래 그게 벗고 나갈 줄 알았더니 퍼덕퍼덕하고 상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야, 이제 니 어머니는 힘들다”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 막 울다보니까 깨고

나니까 꿈이에요. 영 잠이 안 와요. 그래 그냥 어머니 옆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나보다 하는데. 근데 스님들이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법당 갈 사람들이 두 사람은 일어나서 갔는데, 한 사람이 산신각을 맡아서 기도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그냥 배낭에다가 옷하고 책하고 싸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 엿저녁에 산신각을 드리는데 호랑이가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길을 확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물 뜨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놀래서 까무라치고 “여기 나는 있을 곳이 못 되나보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우리 어머니가 스님한테는 이모지. “어머니 살기는 틀렸나보다. 이모님 모시고 집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업고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완수는 24세가 되던 1962년에 혼인했다. 부인은 3살 아래로, 백학면 노곡리 출신으로, 친척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다. 혼례는 노곡리에서 치렀는데, 무등리 헌병 보안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잘 알아서 도요타 쓰리쿼터를 빌려 타고 들어갔다. 당시 백학면은 무등리로부터 40리 이상 떨어져 있었고, 25사단 관할지로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차도 빌려 타고 통행허가도 받아 혼례를 치렀다.

그전에 여기 수복 돼가지고 버스도 여기 백학 댕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서 앞에 화이트고 다리 있을 때 그 헌병대하고 보안대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초소가지고 거기 검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안대 초소장을 잘 아니까. 또 백학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사단이 25사단이 관할이라 거긴 또 통과를 안 시켜줘요. 사단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안대 아니까 보안대 차타고 쓰리쿼터. 그거 타고가면 거기 사람들이 저기를 안 했다고. 백학에서 올 때는 민간 차. 그럼 보안대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요. 초소에다가 몇 월 며칠날 결혼식을 하니까 통과시켜주라고.

이완수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시 친구들 너댓명과 함께 혼례를 치르러 신부집에 갔다. 도착하니 대례상에는 배, 사과, 대추, 밤, 암탉과 수탉이 놓였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아내는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다. 족두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빌렸다. 그가 사는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사모관대가 있었으나 빌리지 않았다. 당시 마을에서는 공용의 상여, 족두리, 사모관대가 있었다.

대례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3번씩 맞절을 하고, 술을 서로 주고받았다. 당시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는 콩나물, 숙주나물, 술과 국수를

대접했으며, 잔치 후에 신랑다루기로 마을 청년들에 의해 거꾸로 메달려 발바닥을 맞았다.

심하드라고요. 발에다가 밧줄을 매고, 한사람이 어깨에다가 미고 두 사람이 방망이로다가 발바닥을 치는 거예요. 동네 총각들이. (신부 집에)술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거를 청을 하드라고요. 그럼 신부 집은 그걸 준비를 했다가. 술 먹기 전에 때리는 거예요. 왜 남의 동네 색시를 왜 데려가냐 하면서 때리는 거죠.

그는 무등리에서 홍수 피해를 크게 3번 당했다. 1965년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의 초가집들이 전부 쓸려 내려갔다. 연천은 대개 북한 쪽에서 홍수가 나면 마을이 침수된다. 수해를 입은 뒤, 당시 마을에 공병대가 있어 군인들의 막사와 학교에 임시로 머물렀다. 이곳은 1965년 홍수 이후에 모든 집은 이층집만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1979년에 지었다. 당시는 구들을 놓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이었으나, 이후 연탄으로 바꾸었다. 1996년과 1999년에 한 차례씩 홍수가 더 있었다. 1996년 홍수 때는 그의 벽에 시계를 걸어 둔 곳까지 물이 들어왔고, 1999년에는 창틀까지 찼다. 그래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 큰 홍수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집이 무너지거나, 쓸려 내려가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제방둑을 제대로 쌓아 이후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다.



〈그림 5〉 이완수의 집 홍수 피해 흔적과 복조리

이완수는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국제극장과 국제다방을 소유한 김법면과 친분이 있었다. 이완수가 안국동 선학원에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김씨의 효자동 집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씨의 고향은 황해도 개성이었으나 6.25때 어머니와 피난을 나와 살고 있었다. 이완수에 따르면, 전쟁 전에 어머니와 금강산 구경을 갈 때 스무스 나루를 거쳐 연천 보가산에 심원사라는 절을 들르기도 했는데, 이완수의 고향이 바로 연천이라는 것을 알고는 김씨가 이완수를 동향 조카로 잘 대해주었다. 이완수는 수락산 흥국사에서 김씨의 모친 제사를 모실 때에 남대문 시장 어물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서 삼륜차에 실어주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김씨가 이완수에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고향을 떠날 수 없어 거절하고 다시 연천으로 돌아왔다.

또 이완수는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적이 있었다. 강남이 한창 개발되던 때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완수의 친구 중에 송강원이 있는데, 서울대를 중퇴하고 인근 백학면의 고등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당시 백학면은 영국군 관할지라 영국군에서 설립한 학교였다. 그 친구가 천호동의 학교로 전근하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자고해 함께 구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인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답답해서 살수 없다고 해서, 처분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강남에 장미아파트를 샀었어요. 집 사람이 한번 가서 보더니 못 살겠다고. 그게 아마 80년도 초일 거예요. 이 집 짓기 전이죠. 강남 개발되면서 아파트 막 지을 때. 그래서 처분하고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강남 개발되면서 아파트를 한창 짓기 시작할 때. 마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송강원이라고 서울대학교 문리과 2년을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백학면에 고등국민학교라고 있어요.

수복되면서 백학이 영국군 관할이거든요.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줬어요. 거기 고등국민학교 거기서 친구가 교편을 잡았어요. 미군부대 통역관으로 있다가 부산 동아대 나온 사람이 하나있고, 또 여선생하나하고 제 친구 강원이라고 이렇게 셋이 거기서 애들을 가리킨 거예요. 나도 거기를 처갓집에 선을 보러갔는데, 갔는데 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드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가서 밤새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내가 이 장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장가를 가게 되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래도 가야지 안가면 어떡하냐. 그때 전혀 안 갈라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나갈라고 그랬는데. 아 이 친구 녀석이 그럼 가지 말고 여기 있자는 거예요. 학교에 같이. 그러더니 나보고 역사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편생활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 자고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천호동 거기 무슨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백학 노곡리가 고향인 사람이 있어요. 유씨라고 그 사람이 거기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개가 글루 가서 교편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그 친구 바람에 나도 농사 지어서 그때 돈도 있고.



〈그림 6〉 무등리 이완수의 연천향교 장의 임명장

그는 농사를 가장 많이 지었을 때 논 8,000평에 밭 3,000평을 지었고, 이완수는 농사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워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으로 동두천 중앙시장에 개성 떡방앗간을 인수해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일년도 채 못하고 장사를 접었다. 다시 의정부 가평동 경민중고등학교 가평 3동에 집을 사서 하숙을 쳤으나, 그것도 그만 두고 다시 전세를 주었다. 그러나 3~4가구가 살다보니, 나중에는 임대료보다 들어가는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마저도 그만 두고,

고향마을로 돌아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3) 무등리의 세시풍속

무등리 세시풍속으로, 정월대보름 돌싸움, 햇불싸움, 연날리기, 정월그믐날 장 담기, 봄철 스무스장 배포구의 젓갈배와 등짐장수, 3~4월 박 심기, 4월 초 논 파종, 음력 5월 모내기철의 호남 여자 모심기 작업, 5월 김매기, 단오(5.5)의 그네뛰기, 여름철 홍수, 8월 박 수확, 10월 20일 메주꾸기, 10월 시제, 10월 삼 삶기, 겨울철 놀이 등이다. 이완수(남, 1937년생)가 구연한 왕징면 무등리의 일년의 세시풍속을 1월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월에는 장을 담근다. 다 띄운 메주를 민물에 담가 짚으로 잘 닦은 다음에 장을 담근다. 고추장은 보리쌀을 갈아서 만들었다. 간장을 담은 항아리에는 숯과 고추를 띄웠으며, 숯은 살균 효과가 있어 사용했다.

농사를 시작할 무렵 초가지붕에 박을 올린다. 3월에 박을 심는데, 재거름을 주면 박이 크고 더 잘 자라고, 거름을 주지 못하면 박이 작았다. 덩굴 하나에 많이 열리면 3~4통까지 달리며, 다 익으면 음력 8월에 수확한다. 수확 후에는 반을 잘라서 속을 파내고 가마솥에 찐다. 이어 속을 완전히 굽어서 잘 말린 다음에 바가지로 사용했다. 파낸 박속은 먹지 않고 그냥 버렸다.

바가지는 씨앗을 담거나, 밥을 퍼 먹기도 했다. 부녀자들이 부엌에서 바가지에 밥을 퍼서 비벼 먹는 경우가 많았으며, 논에서 일을 할 때도 물그릇으로 사용했다.

바가지는 귀하기 때문에 깨지면, 예전 노인들은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어 쓰기도 했다. 초가지붕이 없어지고 박을 심지 못하면서, 바가지도 없어졌다. 1965년 홍수 이후 지붕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1970년대에 플라스틱 바가지도 들어왔다.

농사는 예전에는 밭농사였다가 전기가 들어오며 벼농사와 밭농사를 같이 짓게 되었다. 그러나 벼는 소출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수로가 갖춰지지 않아 논농사는 모두 샘플로 짓는 형편이었다.

과거에는 순 밭이지. 논이 없었어요. 수리 조합이 되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논들을 해먹죠 그 전에는 순 밭이에요. 밭. 물이 없었어요. 논농사는 저 골짜구니 샘물가지고 모를 낼 때는 그전서부터 있었구요. 그래가지고 인제 농지정리하면서 수리조합이 되가지고. 그러면서 농사들을 많이 짓죠. 수리조합이 생긴 지는 한 15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쌀이 귀했어요. 있는 집들은 저 골짜구니에 샘물 나는데 그걸로는 했지. 전부다 좁쌀, 수수, 콩 이런 것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이 마을에 머슴을 둔 집도 있었는데, 무등리에 두 집정도 머슴을 두었다. 머슴은 새경으로 1년에 쌀 2가마를 받았다. 어려운 사람이 많던 시절이라 마을 안에서 머슴을 구했으나, 없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머슴날도 있었는데, 5월 단오, 칠석날, 백중날은 머슴들이 하루 노는 날이었다.

마을 밭농사는 잡곡을 주로 심었다. 콩, 팥, 조, 보리, 수수, 귀리, 호밀, 울무 등을 심었다. 특히, 콩과 울무를 많이 지었다. 귀리는 땅이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기 식물이다. 가장 값이 좋은 곡식은 팥과 콩이었다. 콩은 백태를 심었고, 주로 메주를 담는 용도로 쓰였다.

당시 주식은 귀리, 좁쌀, 수수, 콩, 팥, 보리 등의 잡곡으로 했으며 귀리죽, 귀리밥, 조밥(좁쌀)을 지어 콩이나 팥을 섞어 먹었다. 그리고 수수는 갈아서 팔으로 소를 넣어 부꾸미로 부쳐 먹었다.

수수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걸 갈아서 전병이라 그러나. 팥을 삶아서 속을 찐서 부꾸미. 그걸 많이들 먹었죠. 주식은 좁쌀이죠 뭐. 그래서 팥을 섞어서 넣으면 좀 낫고. 귀리는 찼어서 갈아서 껍질을 까볼러서 갈아서 죽처럼 끓여먹고. 그냥 귀리죽이라고 그러고 또 귀리밥.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조밥. 팥도 섞고, 콩도 섞고 그렇죠. 팥이 값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팥들을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 콩을 제일 많이 심었어요. 콩은 백태. 저희는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로 집에서 먹고.

파종은 봄철의 망종 무렵인 4월 초순에 시작한다. 순서는 먼저 조, 콩, 팥 순으로 심는다. 김매기는 호미로 세벌까지 맨다. 조는 심은 뒤 20일이면 초벌을 매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두벌을 맨다. 대개 음력 4월말에서 5월 초순에 김매기가 시작된다.

밭일은 이웃끼리 5~6가구가 모여서 품앗이를 했다. 밭은 크기가 모두 달

라, 품을 사고 좁쌀 몇 되를 품값으로 받았다. 일이 모두 끝나고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제일 먼저 파종하는 것은 우선 조 심고, 콩 심고, 팔. 망종 때니까 4월 한 초순에 그때 들 파종들을 많이 하죠. 잡곡도 호미로 다 풀 뽑고 매죠. 세 번 정도 매야해요. 세 번 까지 매야 풀이 좀 들 나요. 전부 호미로. 음력 5월 달에 매죠. 5월 초순에는 4월 초순에 뿌리니까 한 20일만 되면 벌써 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일 즈음 매는 사람은 매고, 중순에 심는 사람은 5월 초에 매고, 두벌은 초벌매고 한 20일 가까이 돼요. 김매기는 품앗이들 하죠. 여기는 동네가 크지를 않았어요. 골짜기 마다 댕집 그 정도 살았지. 큰 동네라야 여 남은 집 되고, 대개 댕집 서너집 살았어요. 구석구석 무들리 여기가 12부락인데. 댕집 그렇게 살았어요. 밭이 집집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밭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러 품을 사죠. 없는 사람은 자기 꺼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매고. 품을 팔러 다니고. (품값은)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좁쌀 몇 되. 품값은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마을에서는 또 대마(삼베)를 많이 심었다. 집집마다 길쌈을 했으며 연천장에 가서 짠 베를 팔았다. 삼 농사는 6.25 전쟁 이후에 없어졌으며, 현재 85세 이상의 여성들은 모두 길쌈 경험이 있다. 김장은 대개 음력 9월 말에서 10월초에 했다.

메주는 음력 10월 대략 20일경 쏜다. 이완수 가족은 3~4말, 많이 쏘 때는 5말까지 쏘었다. 콩을 반나절 정도 삶아 절구에 찼어 메주를 빻은 뒤, 방에 불을 떼고 마르도록 둔다. 어느 정도 마르면 10일 정도 후에 꼬아두었던 새끼로 묶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달아맨다. 일주일 안에 매는 집들도 있다. 대개는 처마에 달아 매는데, 겉은 노랗고 속은 까맣게 뜬 것이 좋은 메주이다.

그전에 노인네들은 삶아서 그냥 절구에 찼었어요. 찼어서 꼬내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요. 토막같이 이렇게. 짚 가져다가 그 위에 널어서 좀 꾸덕꾸덕해지면 짚으로다 엮어가지고 달아냈죠. 메주 쭈고 한 열흘쯤 되면 달아매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달아떨 때도 있고. 처마에다 겨우내 띄워서 봄에 이제 닦아서. 겉은 노랗고 속은 까맣게 떠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썩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 잘못하면. 그전에 우리 방에다가 뜨듯한 데다가 불을 떼 가지고 짚 깔고, 한 두 서너 번 뒤집어 주면 되요. 통풍이 잘 돼야 통풍이 안 되면 메주가 안 떠오.

음력 10월에는 선산이 있는 송추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산이 예비군 사격

장 주변이라, 13대까지는 전국면 양요리로 이장했다. 양주 가남리에 공주 이씨 종산이 있는데, 선산을 팔고 묘만 남아서 이장을 했다.

(4) 무등리의 놀이

무등리 놀이로는 돌싸움, 햇불싸움, 썰매타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곤지, 윷놀이, 농악, 공차기(짚)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무등리는 강 건너 진상리와 돌싸움과 햇불싸움이 이루어졌지만, 유촌리는 반촌의 성격이 강해 이런 집단놀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골패와 투전, 화투 등의 노름성 놀이도 약화되어 있다. 팽이치기의 채는 닥나무 껍질을 사용했다. 이완수(남, 1937년생)가 구술한 무등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윷놀이는 정초에 친구들끼리 놀았다. 국민학교 때까지 윷을 놀았으며 전쟁 후 북한의 통치를 받던 때는 윷놀이대회는 없었다. 남쪽으로 수복되면서 여러 놀이들이 다시 생겨났는데,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엇치기가 있었다. 흰 엇을 잘라서 안에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을 보고 기원을 한다. 햇불은 대개 부모님이 만들어 주는데, 이완수는 아버지를 두 살에 일찍 여의었기에 오촌 당숙이 만들어 주었다. 햇불은 싸리나무 속에 풀을 넣어서 칩뿌리를 이용해 나이 수대로 묶었다. 달을 보고 뒷산에 올라가서 동쪽을 보고 기원을 했다. 달을 향해 절을 하면서 ‘달님 복 받게 해 주세요’ 라면서 빌었고, 공부를 잘 하게 해 달라거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달맛이가 끝나면 돌싸움과 햇불싸움을 이웃 진상리와 했다. 진상리는 군남면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돌싸움을 많이 했다. 당시 강이 얼음이 얼어 별판에 불을 놓았다. 진상리 쪽에서 나무를 하러 와야 하는 곳에 불을 놓아 싸움이 시작된다. 진상리 쪽에서 언 강을 건너오면 무등리 쪽에서는 산으로 피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쫓아오는 진상리 쪽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보름날 밤에 달이 오를 무렵에 싸움을 시작했으며, 달빛이 밝아서 놀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어른들이 와서 햇불을 만들어 주고, 산에 가서 싸리를 꺾어다가, 속에다가 풀 같은 거 넣고 잘 묶어요, 칩으로다가 이렇게 짜겨가지고 묶었어요. 자기 나이대로 묶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님한테다가 절하고,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달 떠오르는데, 화에 불을 붙이고 어른들이 시켜요, 절하라고, 아이들한테, 이 다음에 잘 살고 복 받게 해달라고, 건강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달님 복 받게 해달라고 건강하고, 애들 공부 잘 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다 탈 때까지 하나요. 그냥 몇 번 하다 내려오고.

여기서는 저 강 건너 진상리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월 음력 보름이면 강이 얼어가지고 덧물이 쳐가지고 얼어도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 여기서 건너가서 별판이니까 불을 놔버려요. 강 옆으로요. 그런데 거기 건너 사람들이 강가에 나무를 깎아가거든요. 근데 불을 놓으니까 자기네들 나무할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강둑이 있지만 그전에는 독이 없었어요. 그냥 평평한 별판이지.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풀이죠. 그러면 거기서 인제 쫓아 나온다고요. 그럼 도망을 와가지고 산으로 일로 넘어오고, 그걸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막 상대방한테, 내려던진 거예요.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강통에 불 넣어서 돌리는 건 그런 건 그냥 논두렁에서 애들 장난으로. 그래서 저쪽은 얼음 위에 있는 거고 쫓아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산에 있으니까 돌을 던지고, 보름날 밤에 달 올를 무렵에, 달이 밝으니까.

정월 대보름에 여자들은 널뛰기를 많이 했다. 또한 겨울철에 강이 얼면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을 했다. 썰매는 직접 만드는데 소나무를 잘라서 연결하고 밑에 날을 2개 단다. 날은 일본 사람들이 강에 돌을 쌓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철사를 그물처럼 엮어 씌워둔 것을 몰래 끊어다가 만들었다. 꼬챙이는 소나무를 30cm 정도로 잘라서 2개를 준비하고, 썰매 날을 만든 철사를 둘로 뿔족하게 해서, 잘 찍히게 만들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배서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 이렇게 해서, 철사가 없잖아요. 저기 개울 옆에 일본 사람들이 돌망테. 돌을 쌓고 철사로다가 이렇게 (돌이) 떠내려가지 않게 덮어 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몰래 끊어다가 썰매 날을 맨드는 거예요. 날은 2개죠. 앉아서 이렇게 타죠. 꼬챙이도 소나무를 30cm정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기 좋게, 꼬챙이에도 철사로다가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돌로다가 박죠. 뭐 그때 망치가 있어요. 그냥 돌로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팽이도 직접 깎았다. 소나무를 배어다가 낫으로 깎아서 뿔족하게 만들었고 못은 나중에 잘 돌아가도록 박았다. 끈은 닥채 꺾데기 끈, 문창호지 만드는 것이나 칩 꺾데기를 길게 연결해 나무 막대에 연결했다.

겨울에는 연도 날렸다. 대개 아버지가 만들어주었는데 제보자는 아버지가

없어 연을 놓지는 못했다. 스스로 만들어봤으나 기술이 부족해 만든 연이 날지 않았다.

팽이치기를 많이 했어요. 팽이도 만들죠.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잘라서 뽕족하게 깎아 가지고 그거 낮으로다가 이렇게 깎으면 되니까. 연필 깎듯이 이렇게 뽕족하게 해서. 나중에 못도 박았어요. 잘 돌아가라고. 팽이를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렇게 이만한 막대기에 끈을 달아서, 치는 거죠. 그전에 여기는 끈이 없어가지고, 저 닥채라고 있어요. 닥채 꺾데기로다가 이렇게 쪽 가느다랗게 파서. 닥채가 문창호지 만드는 거요. 찢 꺾데기도 있어요 찢 꺾데기로도 하고. 팽이싸움은 안 해봤어요. 연은 잘 맨드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아버지들이 만들어주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려서 돌아가서. 그래서 연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손으로 만드니까 그게 안 뜨지.

딱지는 일제 시기 말년에 있었다. 그림딱지는 만화식으로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문방구에서 팔았다. 이후에는 현책을 찢어 접어서 만들었다. 대개 내 딱지로 상대 딱지를 쳐서 뒤집어 먹는 방식이다. 제기차기는 대동보라는 엽전을 문창호지로 싸서 실로 묶어 만들었다.

왜정시기 왜정 말년에는 그 딱지를 팔았어요. 그림 그려진 딱지를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그림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만화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북에서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책 못 쓰는걸 접어가지고, 찢어서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면 따먹는. 그래서 딱지를 이만큼 가져야지. 그 예전에 대동보라고 있죠. 동그란 돈. 네 엽전. 그걸 문창호지로 싸매서 실로다가 묶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때는 모두 창호지 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 문창호지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짚신이에요. 그걸 차져요. 걸리지. 지금은 양말이나 있지 그때는 맨발은 또 잘 안 맞았어요. 이게 찰 때 받쳐줘야 되는데. 빠지기만 하지.

제기는 양발차기, 안쪽차기가 있었다. 당시는 대부분 짚신을 신었기 때문에 짚신에 자꾸 걸려서 몇 개 차지 못했다. 이완수는 오촌 당숙께서 짚신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느라 자갈돌이 있는 곳에서만 신고, 없는 데에는 그냥 벗어서 들고 다녔다.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는 고무놀이를 놀았으며 ‘곤지’라고도 한다. 대개 바닥에 그려놓고 세 개 가지고 놀며, 길이 막히면 끝나게 된다.

공놀이도 있었다. 공놀이는 겨울철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봄 사이에 논에서 놀았다. 공은 짚을 뭉치고 새끼로 둘둘 메서 만들어 짚신을 신고 찼다. 논

양쪽 끝에 1.5m 너비로 골대를 만들었다. 골대에는 ‘짚통배’(짚단)를 세워 두었다. 간혹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통에 바람을 불어서 이것을 공차기를 했다. 이것을 차면 퍽퍽 소리가 났는데, 짚보다 잘 굴러가긴 했으나 쉽게 터져서 오래 가는 못했다.

새끼를 파서 속에 짚을 넣고 짚으로 싸매는 거예요. (직경 15cm정도) 속에다 짚을 넣고 그걸 곁에 싸매가지고 짚신 신고 논에서 그걸 차는 거죠. 그런데 짚신들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안들 찾어요. 양쪽으로 편먹고, 짚이 있으면 ‘짚통배’에다가 이렇게 요만하게 묶어가지고 양쪽에다 세워놓고 (골대를 만든다). 1m 50정도의 너비로 양쪽에 만들어 놓고, 동네에 몇 되요? 한 서너 명도 되고 댕 명이. 축구요. 돼지 오줌통으로도 했어요. 에유, 얼마 못가요. 직경 15cm정도 되는데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얼마 못 가요. 터져가지고, 짚보다는 그게 나아요, 짚은 안 굴르잖아요. 그건 잘 굴러가요. 퍽퍽 소리 나고.

단오에는 여자들이 그네를 뛰었다. 오래 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에 매고 그네를 탔다. 그런데 그네를 매던 고목은 대부분 전쟁 중에 불에 탔다. 여름에는 개천에서 고기를 잡았다. 임진강 지류가 무등리 골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참게와 고기가 많았다. 손으로 고기를 잡을 정도였는데, 붕어, 메기, 뱀장어, 게가 많았다. 게를 잡는 방식은 밤에 발채라고 해서 싸리나무 가지를 칩으로 엮은 것으로 깔데기같이 만든다. 이것을 강에 세우고 양옆을 돌로 막아 두면 이튿날 아침에 발통에 들어가 있는 게를 손으로 건졌다. 이렇게 잡은 고기와 게는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여기 고기가 많았어요. 맨 고기였어요. 손으로 많이 잡죠. 물이 많았거든요. 강물도 많고, 여기가 무등리골. 임진강. 참 물이 많았어요. 거이 많고, 참거이. 붕어도 많고, 여기 뭐 도랑이 좁으니까 손으로. 그때는 끓여 먹을 줄 도 몰랐어요. 그냥 구워만 먹었지. 집에 가지고 가서 나이 먹으면 배 따가지고 찢쳐서 고추장 풀어가지고 먹는데. 그때는 그런 거도 모르고 그냥 모닥불을 놓고서 그냥 거기다 구워서 먹고 그랬지. 붕어, 메기 뱀장어. 많았어요. 밤에는요 이 개울에다가 발채를 놔요. 그러니까 싸리나무 꺾질을 쪽죽 엮어가지고 칩으로 엮어서 발통이라 그러죠. 발통. 내려요는 물에다 요렇게 대고서 글로 거이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게 맨들어 가지고. 그래 아침에 가 건지면 거이가 많이 걸렸죠. 강에는 못해요. 좁은 도랑에 이렇게 놓고 양쪽에 돌로다 막는 거예요. 게도 구워먹었어요.

또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두었다

가 봄에 놀았다. 잘 타는 사람은 높은 것을 타고, 못 타는 사람은 얇은 것을 탔다. 징검다리 는 주로 국민학교 남자아이들이 놀았는데, 누가 높은 것을 타는지, 누가 빨리 가는지를 겨뤘다.

징검다리라고 낭구 그거 가지 잘라가지구서 그것들을 많이 타고 다녔죠. 그거는 많이 했어요. 낭구 베어다가 가지 이만큼 잘라서 발만 이렇게 올라타고서 이렇게 짚고 땡겼죠. 발을 가지에다가 (디딤다). 가지를 고런 걸 베키지고. 그거 봄에 많이 하죠. 길이는 잘 타는 사람은 높이도 하고, 잘 못하면 낮게 하고. 그건 뭐 초등학교 때는 거의 다 했나봐요. 손은 뭐 이거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다리로다 걷는 거죠. 길이는 키보다 조금 짧아야죠. 남자들만 했어요. 집 근처에서 놀고,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고. 누가 더 높나 하는 거 있어요.

농악은 8월 15일에 해방된 날에 국민학교에서 쳤다. 학교 운동장에서 각 행정리의 농악 1패씩이 참가해서 다같이 놀았다. 당시 마을 단위로는 벼농사가 적고 인구가 적어서, 농악이 없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의정부시

8. 의정부시

가.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1) 만가대마을 개관

의정부시의 조사대상 마을은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과 녹양동 버들개마을이다.

용현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어룡리(魚龍里), 탑석리(塔石里), 양현리(陽峴里)와 둔야면(菴夜面) 둔야1리(菴夜1里)를 합하여 시둔면(柴菴面) 용현리(龍峴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용현동이 되었다.

현재 용현동은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 낙양동 등 5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동으로 통합해 송산동이 되었다. 송산동이라는 지명은 송산(松山) 조건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 하여 새 왕조의 부름을 여러 번 받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이 곳에서 한거해서,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동과 남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別內面), 북으로는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북서로는 자금동(自金洞), 서로는 장곡동(長谷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26.94㎢로 시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만가대는 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집을 더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많이 들어섰다고 하여 만가대(滿家垔)였는데, 지금은 만(滿)자가 바뀌어 만가대(萬家垔)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양주목 호구장 교지(楊洲牧 戶口帳 教旨)」에 의하면 박씨 일가가 누대에 걸쳐 살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둔야1리(菴夜1里)였음을 알 수 있다.⁴²⁾

지역민 토박이인 이수옥, 김종오, 김기문, 김기용에 의하면, 용현동 만가대마을은 수락산 밑에 위치하며, 인근에 미군부대와 미군 사격장, 의정부교도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길 건너 탑석을 비롯한 인근 지역이 모두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은 아직도 상당수 그린벨트로

42) 『의정부시 지명유래집』, 만가대마을.

묶여 있다.

만가대는 과거 대흥수 이전에 만호(萬戶)가 살았다고 하는데, 인근 들판은 넓으나 실제 1만호가 사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 만호(滿戶)에서 한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만호라는 벼슬과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다. 토박이들은 예전에 기와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곳 인근에는 탑석, 벌말, 고산동, 어룡동, 검은돌, 민락동, 뽕벌 등의 자연 부락에 수십호씩이 살고 있었다. 현재 용현동노인회관도 의정부시에서 지은 용현어린이집 1층에 있다. 이곳은 예전에 대략 20-30호 정도의 가옥이 있었던 작은 마을이다. 옆의 검은돌은 유씨 집성촌이었다. 길 건너 탑석은 예전에 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평 윤씨 7형제와 그 후손의 땅이 많았다고 한다. 이곳은 예전 별내면이었으나 지금은 의정부시로 편입되었다.

어룡골(어룡동)은 30호 미만에 청주 한씨 집성촌이며, 연못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예전에 소를 잡아 산제사를 지내던 마을이다. 소나무가 우거졌으며, 현재 롯데마트가 있는 지역으로, 경전철 어룡역이 옛 지명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은 모두 아파트촌으로 변모했다. 한편 고산동은 아래윗마을 합쳐 30-40호, 민락동도 30-40호 정도였으며, 뽕벌은 배나무 밭이 많아 생긴 명칭이다.



〈그림 1〉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전경



〈그림 2〉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세부도



〈그림 3〉 만가대마을 경노당이 있는 용현어린이집



〈그림 4〉 만가대마을 전경과 뒤의 수락산

만가대마을은 수락산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1964년 9월 28일에 홍수로 계곡물이 넘치며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물이 넘쳐 산사태가 나고, 바위가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30여명이 죽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 마을은 김씨, 박씨, 윤씨들이 많이 살았다. 원래 김씨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다가, 이어 박씨와 윤씨들이 들어왔다. 현재 김씨들이 많은 편이고, 박씨들은 몇 가구 남지 않았다. 김종오(남, 1943년생)에 의하면,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파평 윤씨의 처가를 두었는데, 처남이 잘 살지 못해서 만가대에 와서 살게끔 해서 그때부터 윤씨네가 이 마을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만가대마을에서는 밭을 갈면 옛날 기와장이 나왔다, 따라서 많은 가구가 있었으며, 이곳 들판은 매우 넓은 편이다.

만가대는 현재 용현동에 속해 있다. 용현동은 명칭이 용과 관련이 있다. 용현은 용의 허리에 해당되는데, 앞에 큰 도로가 나면서 용의 허리가 잘리게 되었다. 당시 도로를 만들면서 주민 사이에 말이 많았다.

검은돌은 수락산 아래쪽으로, 예전에는 별내면이었다가 지금은 의정부로 편입이 되었다. 원래 유씨들이 토박이로 많이 살았으며, 미군부대가 생기면서 기지촌이 되었다.

만가대 길 건너편이 탑석으로, 윤씨네 땅이 많았다. 이곳에서 윤씨네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고 전한다. 예전 노인들이 그곳에 탑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하고, 쌀자루가 터져서 탑석이란 말도 전하고 있다.

수락산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한발바위가 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바위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 형상을 하고 있다. 할머니 형상은 만가대 쪽으로 향해 있고, 할아버지 형상은 상계동 쪽을 향해 있다. 그리고 수락산 배골 쪽에 뱀대가리 형상을 한 바위도 있다.

만가대 마을은 전쟁 이후에 산과 임야가 대규모로 수용되어 미군 25사단이 주둔했다. 주민의 기억으로는 전쟁 이전에도 이곳에 일부 부대가 주둔한 적이 있다고 하며, 아마 철수했다가 다시 주둔한 것으로 말하는 이도 있다. 이 마을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지만, 일부 부업으로 미군부대에 노무자로 일을 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곳은 박정희 시절에 입산금지가 내리고 산림녹화를 하거나, 수락산 사방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축대를 쌓고 나무씨, 풀씨 등을 뿌리고 묘목을 심었다. 당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 1970년대에 일을 나가면 하루에 밀가루 3포 정도를 받았다. 여유가 없던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만가대 마을 옆에는 의정부교도소가 있다. 전쟁 전에 이 동네에는 교도관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들어와 교도소 문을 부수면서 수용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었다. 이때 동네에 살던 교도관들이 모두 도봉산 쪽으로 긴급 피신을 했다.

교도소 위쪽에는 일제시대부터 무명묘가 세워져 있다. 무명용사 애국지사 묘로, 매년 11월(2018년 11월 7일)에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모여, 합동위령제를 지낸다. 이곳은 6.25 때에 후퇴하던 북한군이 의정부 지역 민간인, 경찰관, 공직자들을 집단 학살해서 매장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은 논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자작농이 많았다. 이 마을에서 수락산 쪽 방향의 현 농촌지도소 자리에 큰 저수지가 있었다. 그리고 앞쪽 탑석마을에도 큰 저수지가 있어서 이 물로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물은 부족하지 않았다. 밭곡식으로는 예전에 콩과 팥을 많이 심었다.

1964년 9월에 만가대에 큰 홍수가 있었다. 수락산 계곡물이 넘쳐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다. 미 7사단 위쪽의 밤나무와 바위 등이 홍수로 굴러서 큰 산사태가 나서 마을의 집을 덮쳤다. 당시 마을 주민 30여명이 사망을 했다. 탑석의 저수지에는 아파트가 모두 들어섰으며, 농촌지도소 방향의 저수지도 없어졌다. 이곳 의정부시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시청의 농업 관련 부서도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축소되었다. 뺨벌을 배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부용천 냇가가 있으며, 이것은 민락동과 고산동 사이를 흐르고 있다.

이 마을의 인근에는 미군 사격장이 있다. 그리고 보충대와 인근 땅은 국방부 땅이다. 그리고 주위는 상당수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제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근

래 일부가 풀렸으나 여전히 많은 지역이 묶여 있어서 마을이 개발되지 않아 주민생활은 어려운 편이다.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군 부대가 이전을 해야 이곳이 발전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미군부대 자리에는 한때 서울 소재 대학의 분교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취소되었다. 다만 만가대 앞의 배밭과 독바위 지역은 이미 보상이 끝나서 대규모 아울렛 상가가 곧 들어올 예정이다.

(2) 만가대마을 토박이의 삶

이수옥(남, 1945년생)은 인근 고산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4대째 살았다. 어린 시절에 부친을 따라 만가대로 이주해서 현재 67년째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만가대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부시 노인회 관련 일을 맡고 있다.

김종오(남, 1943년생)와 김기문(남, 1944년생)은 김해 김씨로 4대째 만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기문은 현재 김해 김씨 만가대총친회장을 맡고 있다.

김기용(남, 1934년생)도 김해 김씨로 4대째 이곳에 살고 있으며, 85세의 고령이나, 고교 졸업 후에 타지 생활을 하다가 근래에 고향에 들어와서 부분적인 구슬을 했다.

(3) 만가대마을의 세시풍속

용현동 만가대와 인근 마을 세시로는 정월 14일 귀신날 신발 숨기기, 나무 9짐 하고 밥 9번 먹기, 정월대보름 조짚 햇불로 달맞이, 햇불싸움과 돌싸움, 척사대회, 더위팔기, 부럼깨기, 정월보름 아침 새쫓기, 귀밝기술, 봄과 가을 가재 잡기, 초파일 사찰 등 달기, 단오 씨름, 의정부시 단오체육대회, 모내기 품앗이, 두레 논매기와 선소리, 여름 천렵, 백중 호미씻이, 추석 차례, 10월 김해 김씨 시제, 10월 집안 고사, 10월 산제사(어룡동), 동지팔죽, 겨울 토끼잡이 등이 조사되었다.

특이한 세시로는, 만가대 옆의 흑석마을에서 예전에 부녀자들이 키를 까불

르면서 기우제를 지낸 것이다. 그리고 부용천 천렵과 수락산 계곡 가재잡기, 10월 김해 김씨 시제, 어룡동의 10월 소 잡아 산제사 지내기 등이 있다. 이수옥(남, 1945년생), 김종오(남, 1943년생), 김기문(남, 1944년생)이 구술한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음력으로 정월 14일을 귀신날이라고 한다. 이날 밤에는 신발을 감추는데, 귀신이 신어보고 간다는 말도 있고, 귀신이 신어보고 맞으면 거기에 귀신이 붙는다는 말도 있다. 윗대들이 하던 풍습으로 주로 1940년대 이전에 전승되던 세시풍속이다.

그리고 이날은 ‘나무를 9짐 하고, 밥을 9그릇을 먹는 날’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밥 흠쳐 먹는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몰래 각 집안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흠쳐온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각 집집마다 오곡밥과 여러 나물을 미리 부뚜막에 올려놓는다.

정월대보름에 갈대나 조짚으로 화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다. 화는 나이 수대로 새끼를 묶어서 논이나 들판에 나가서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이고 건강과 소원을 빌었다. 대개 7-8살 때에 했으며, 아이가 어리면 부모도 같이 나왔다. 만가대에서는 몇 년 전에도 손자들을 위해 이것을 해 준 적이 있다.

정월 대보름에는 밤이나 호두를 깨뜨려 버리는데, 이것을 하면 잡귀가 물러난다고 여겼다. 한편 보름날 아침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라며 더위를 판다. 친구가 미리 알고서 이름을 부르면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파는 것으로 여겼다.

정월보름날 아침에 새를 쫓는 풍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이나 들판에 나가 새가 없어도 ‘위위’ 소리를 지르며, 새를 쫓는 흥내를 낸다. 다른 대보름 풍습과 마찬가지로, 그 해에 새에 의한 곡식 피해를 피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보름날 아침에는 ‘맑은 술’이라고 해서 귀밝이술을 마신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술 한 잔을 마시게 하는데, 이것은 맑게 살라는 뜻이 있다.

4월 초파일에는 불교 신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현 만가대노인회

장인 이수옥(남, 1945년생)은 고산동 구성말 출신으로 이곳에 정착해서 봉선사 계열의 학교인 광동산림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다. 이 학교는 임업을 특성화한 학교로 조계종 계열인 봉선사에서 직영하며, 주지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봉선사 운호 스님, 월우 스님, 일면 스님 등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수옥이 퇴직 15년 전에 일면 스님이 이곳 주지로 계셨다.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곳 봉선사에 모시고 있다. 초파일에는 그곳을 다니다가 근래에는 가까이 있는 고산동 정자말의 미륵암에 다니고 있다. 그곳은 신숙주의 묘소가 있으며, 인근에 평산 신씨 후손들의 묘소가 있다. 그는 이곳이 고향으로,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덜 된 상태이다.

만가대 인근 흑석마을에서는 예전에 늦은 봄에 부녀자들이 키를 가지고 까불르면서 기우제를 지낸 적이 있다. 흑석에서 가뭄이 들면 부녀자들이 빈 키를 머리 위에 이고, 한 줄로 서서 골짜기의 연못 쪽으로 올라간다. 그곳에 가서 키로 물을 까부르는 흥내를 내며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김종오(1943년생)는 이것을 7-8살 적에 본 적이 있는데, 대략 전쟁 직전시기인 1949-1950년 늦봄 즈음으로 추정된다.

옛날 유래에 이 옆에 검은돌 골짜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가물어서 안노인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키를 가지고 물을 까불르고 그랬어요. 연못 같은 곳이 있는데, 키를 가지고 물을 까부르는 흥내를 낸 거지. 키를, 빈 키를 머리에 이고 줄을 서서 가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게 육이오 사변 전이니, 그때 7-8살 적일 거예요. 우리 또래는 8살 때에 전쟁을 겪었지요.(김종오)

단오 때에는 의정부시 단위로 시내 공설운동장에서 씨름대회, 그네뛰기, 제기차기대회가 열린다.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하고 있는데, 각 동네 대표들이 모여 시합을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인다. 씨름대회에는 황소 1마리를 상으로 걸며, 예전에는 광목 1필을 상으로 준 적도 있다.

이수옥 노인회장은 어린 시절에 씨름대회를 구경한 적이 있으며, 동네마다 유명한 씨름꾼들이 있었다고 한다. 시합은 이기는 사람끼리 계속 대결하는 방식이라 하루 종일 열렸다. ‘비교권’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표 많은 사람끼리 다시 붙는 방식이다. 이곳 만가대마을

은 단합이 잘 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행사가 있으며 적극 협조하고 모두 참여한다.

이 마을에서 논매기 두레 때에는 선소리꾼이 소리를 매겼다. 초벌매기와 두벌매기 때에 두레를 했으며,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악기를 치지만 농기는 없었다. 두레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1960-7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모내기 때에는 동네 품앗이로 했다.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은 호미씻이라고 하며, 김매기 세벌매기 끝나는 시기이다. 이때 두레패들이 따로 모여서 먹는 일은 없었다.

만가대에서는 여름에 천렵을 하고 수락산 계곡에서 가재잡이를 했다. 만가대 앞 냇가인 부용천에는 미꾸라지, 붕어, 메기, 뱀장어, 쏘가리 등이 있었다. 여름에 친구들끼리 이곳에 천렵을 가서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으면서 놀기도 했다. 이곳에는 참게는 없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봄가을의 밤에 수락산 계곡에 가서 횃불을 밝히고 가재를 잡은 적이 있다.

예전에는 추석 때에 햇곡식이 나오기 어려웠다. 올벼를 심으면 햇곡식을 수확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이곳에서 송편을 만들 때에는 주로 콩을 속에 넣었다.

어룡동에서는 30호 정도의 마을로, 10월에 산제사를 지냈다. 그 마을은 소나무가 많이 우거졌는데, 10월에 소를 잡아 산제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만가대 옛 노인들이 어룡동에 가서 산제사 고기를 얻어온 기억이 있다. 어룡동은 지금의 롯데마트 쪽이며,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으며, 경전철 어룡역만이 남아 있다.

10월에는 만가대의 주요 성씨인 김해 김씨가 모여 시제를 지낸다. 이곳은 김해 김씨가 4대에 걸쳐 살아오고 있다. 10월 첫째 주에 집단적으로 시제를 지내는데, 현재 전체 종친회원 300명 중에 시제에 120-130명이 참여한다. 부용산 기슭의 송산동 정자마을에 현재 납골당 4개 동을 조성했으며, 1개동마다 164기가 들어가는 납골동이 4개동이 있어 전체 600여기의 대규모 납골당을 조성했다.

원래 306보충대 근처에 있던 조상 묘를 집단 이장하여, 대규모 납골당을 만들었다. 원래 10월 15일에 시제를 지냈으나, 날씨가 추워 10월 초로 옮

졌다. 종친회에서는 당일 참가한 종원들에게 거마비를 주고 식당에서 점심 대접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김씨 집안이 번창했으며, 20세 이상 참가한 종친 회원에게 몇 만 원의 거마비를 줄 정도로 종친회 자산이 있다. 현재 80세 이상의 종친회원이 15명에 이른다. 시제는 제물을 진설하고 세대간 항렬별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곳 납골당은 후대에 후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조성했다.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풍습이 있으며, 10월에는 상달고사를 지낸다. 이웃집에 떡을 나누어 먹는데, 만가대의 한 제보자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동네에 떡배달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수락산 쪽에서 토끼잡이를 한 적도 있다. 미군부대 방향의 토끼가 잘 다니는 길목에 ‘옥문’(울무)을 설치한다.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목이 걸리게 된다.

(4) 만가대마을의 놀이

용현동 만가대와 인근 마을의 민속놀 이로 연날리기, 윷놀이와 척사대회, 씨름대회, 자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제기차기, 딱지치기, 돌치기, 집따먹기, 사방치기, 고누 등이 있다. 특이한 민속놀 이로 정월대보름에 햇불싸움과 돌싸움이 만가대와 벌말 사이에, 또한 고산동과 민락동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정월대보름에 동네 척사대회가 있었는데, 1-3등에게 금반지, 술단지, 냄비 등의 상품을 주었다. 1950년대 중반 시기 단오 때에는 의정부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으며, 1-2등의 상품이 황소와 광목 1필이었다. 이 행사는 지금도 이어져 매년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의정부체육진흥회 주최로 동네 대항 씨름대회, 그네뛰기, 제기차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월대보름에 돌싸움과 햇불싸움이 이웃 마을 사이에 있었다. 만가대와 벌말간, 고산동과 민락동간, 벌말과 탑석간에 서로 돌을 단지며 노는 돌싸움이 있었다. 낮에 돌싸움을 하고, 밤에는 햇불을 던지며 놀았다. 중간에 고개 길을 경계로 해서 싸웠으며, 햇불을 쓰다가 전쟁 후에는 깡통으로 바뀌었

다. 고산동은 아래위쪽에 30-40가구, 민락동도 30-40가구 정도 거주했으며, 현재 민락경노당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벌말과 탑석 동네 간에도 돌을 던지고 싸운 적이 있으며, 딱총까지 동원되었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민락동과 고산동 사이에 낮부터 돌을 던지고 소리 지르면서, 밤이 되면 횃불도 던지고 그랬지요. 산에서 횃불을 돌리고, 거기 작은 산이 있었어요. 거기 무슨 고개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저쪽에서 그때에는 막 소리지르고 그랬지요. 우리 어렸을 적인데, 우리 선배들이 하면 우리들은 쫓아다니고 그랬지요. 만가대에도 벌말 동네하고 탑석하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요. 딱총도 쓰고.

웃놀이와 척사대회가 정월대보름에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마을마다 척사대회는 다 있었다. 만가대에서 척사대회 상품으로는 1등은 금(금반지)으로 했으며, 그 외에 냄비와 솔단지를 상품으로 내걸었다. 마을기금이 있으며, 일부 찬조를 받아서 척사대회 비용으로 썼다.

연은 어린 시절에 많이 날렸다. 부친이 대나무로 연을 만들어 주었으며, 근래에는 손자에게 연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주로 네모연이나 쫀지연을 만들어 날렸다. 어릴 적에 연싸움도 했는데, 깨진 사기를 빵아서 풀에 먹이고 연줄에 입힌다. 연자새를 ‘연깡쟁이’라고 하는데, 대개 4각을 2개 합쳐서 만들었으며, 하나로 만들기도 한다. 연은 주로 논둑이나 벌판에서 많이 날렸으며, 정월대보름에는 연줄에 글씨로 소원을 써서 끊어서 하늘로 날려보냈다.

구슬치기는 다마치기라고 한다. 이것은 땅에 구멍을 여러개 뚫어서 차례로 넣는 방식이 있고, 구멍 속에 있는 상대방의 것을 까서 나오게 해서 따먹는 방식이 있다.

제기는 엽전에 문창호지로 만들었다. 대개 3가지 방법으로 제기를 차는데, 발을 대고 차기, 발을 안 대고 차기, 양발 차기 등이다. 발을 대고 한쪽 발을 땅에 벌갈아 대면서 차는 방식이고, 발을 안 대고 차기는 한쪽 발을 땅에 고정시키고, 다른 발의 안쪽으로 땅에 대지 않고 제기를 계속 차는 방식이다. 양발차기는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발의 안쪽으로 차는 방식이다.

고누는 보통 둘이서 땅에 말발을 그려놓고 노는 형태이다. 각자의 말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하거나 돌조각이나 나무조각으로 구분해서, 한 칸씩

움직이는데 가다가 길이 막히는 지게 된다. 만가대마을에서는 호박고누를 가장 많이 놀았다. 이것은 가운데 원을 그리고 열십자로 긋고 양쪽 끝에 다시 일자를 평행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우물 정자에 가운데 원이 그려진 상태로 그린다. 선이 닿는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집 따먹기는 땅바닥에 일정한 원을 그리고, 각자 작고 납작한 돌을 가지고 바닥에 놓고 손으로 튕기면서 상대방의 집을 따먹는 방식이다. 손가락으로 돌을 튕긴 거리만큼 상대방의 집을 따먹으면서 내 집을 넓히는 방식이다. 두 명이 놀기도 하고, 여러 명이 큰 원을 그리고 빙 둘러 앉아서 놀기도 한다.

딱지는 주로 신문지나 다 쓴 공책을 접어서 만들었다. 예전에는 종이가 귀한 편이었다. 주로 상대방의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넘겨먹는 방식을 많이 했다. 돌치기는 4-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 돌을 던져서 상대방의 돌을 맞춰 쓰러뜨리는 방식이다. 사방치기는 여자 아이들이 주로 놀던 놀이로, 남자들도 이 놀이를 한 적이 있다. 납작한 돌을 깨금발을 하면서 한 칸씩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 만가대에서는 예전에 자치기, 숨바꼭질 등의 놀이도 있었다.

나.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1) 버들개마을 마을개관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은 의정부 서북쪽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최근 인근이 급격히 개발되어 마을이 곧 소멸될 상황에 놓여있다. 녹양동은 버들개(30여가구), 번동(50-60가구, 아파트 개발중), 입석부락(선돌, 10가구 정도), 버들개(10가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버들개는 다시 아랫말(20여가구), 웃말(10여가구)로 나뉜다.

이곳은 10월(음력)에 산제사를 지내는 마을이지만, 몇 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버들개 마을의 주위의 어둔리마을은 행정구역은 양주시인데, 지금도 10월(음)에 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버들개마을은 현재 버들개농요보존회를 중심으로 농업노동요를 전승하고 있다.

유태진(남, 1939년생)에 의하면, 버들개마을은 원래 유현마을이라고 했는데, 버들고개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한자로 버들류(柳) 자에 고개 현(峴) 자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빙상경기장 쪽에 버들개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녹양동은 버들개마을, 번동, 입석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동은 아래쪽 동네로, 예전에 50-60가구에 이르는 가장 큰 동네였다. 버들개에서 시내의 사거리쪽 방향으로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다. 가구수가 많았으나, 토지개발 공사에 수용되어 인근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있다. 번동노인정이 있고, 아직은 옛 주민이 남아 있다.

입석(立石)부락은 고시원 방향으로, 어둔리 동쪽 방향이며, 선돌이라고 부른다. 원래 10가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변해서 몇 가구 안 남아 있다. 원래 녹양동은 아니고, 가능동 쪽으로 되어 있으며, 입석은 선돌이란 뜻이다. 녹양동쪽 아래는 신선선(仙) 자, 곧 선석(仙石)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유양리 쪽은 이곳에서는 어둔리라고 불렀다. 그곳은 양주와 의정부시의 경계에 해당된다.

버들개마을은 윗말은 10여가구이고, 버들개노인정이 있는 곳은 아랫말이며 20여가구 정도가 된다. 이곳은 주택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근래 풀어졌으며, 위의 산쪽에는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 버들개마을은 최씨가 가장 많지만, 원래 여러 성씨가 모여 살던 곳이다.

이곳은 농사를 주로 지었으며, 논밭이 반반씩 되었다. 예전에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던 천수답이 많았으나, 1970-80년대 이후에 지하수를 이용해 양수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력 5월 15일 전후로 모를 심고, 비가 안 오면 밭벼를 심는다. 엄기선(남, 1952년생)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안 와서 모내기를 못 하고 밭벼를 심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약 4km 거리의 양주국민학교⁴³⁾에 다녔지만, 원래 이 학교는 유양국민학교에서 분교가 되었다. 한편 양주국민학교도 나중에 분교로 나뉘었으며, 지금은 의정부중앙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곳은 유양국민학교가 양주국민학교의 본체예요. 양주국민학교가 유양국민학교에서 분교가 되었어요. 지금은 유양 몇 회, 양주 몇 회 그렇게 되지요. 본인(엄기선)은 44회지요. 어릴 적에 가능초등학교, 배영, 금오국민학교로 분교가 되었어요. 졸업 즈음 중앙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 1회가 되었어요.(엄기선)

버들개마을에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노인회관 앞의 지역은 예전에 상계동에 전철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던 사람들이 이곳의 땅을 분양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 마을은 토박이는 몇 집 남지 않았다. 어둔리로 넘어가는 길 건너편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두 수용해서 곧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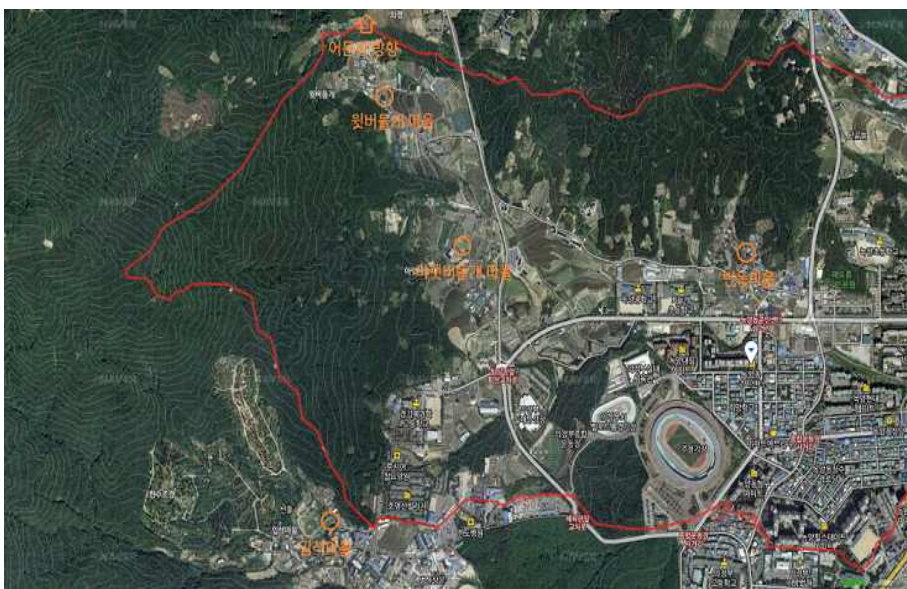
같은 녹양동에서 아래쪽 번동 마을에는 지금도 상여 도가가 있다. 예전에는 버들개마을에서도 그쪽 상여를 가져다 사용했다. 그런데 번동이 곧 개발되기 때문에 이 상여가 얼마나 갈 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마을에서는 버들개농요를 전승하고 있다. 이 농요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43) 이 학교는 원래 1896년에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양주공립소학교로 개교해서 1919년에 의정부로 이전하고 1941년에 양주국민학교로 개명한 다음에 1964년에 중앙국민학교로 개명하고 1996년에 의정부중앙초등학교로 개명했다.
www.joongang.es.kr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연혁)

제로 지정이 되었다. 현재 의정부 버들개농요보존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유태진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실제로 유태진이 소리를 지도하고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보존회에서는 이곳의 농요로 모찌는 소리, 모 내는 소리, 논매는 소리, 상여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논 맬 때에 애논(초벌) 맬 때에는 호미로 하고, 두벌 맬 때에는 손으로 하며, 각각의 소리가 다르다. 보존회에서는 상여소리도 전승하고 있는데, 연습은 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한다. 평소 병원의 위문공연을 자주 다니고 있다.

(2) 버들개마을 토박이의 삶



〈그림 5〉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최경수(남, 1928년생)는 녹양동 버들개마을에 13대째 살고 있다. 올해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간 귀가 어둡지만, 지역 사정에 밝고, 예전 습속을 잘 기억하고 있다.

경주 최씨는 아랫동네에 10여집 아직 살고 있다. 13대에 걸쳐 살고 있다.

인근에는 종중산이 많이 있으며, 최경수(남, 1928년생) 제보자의 산도 있다. 그런데 땅이 수용이 되어 2/3 정도 들어갔으며, 현재 일부 남았으나, 이번에 또 땅이 수용되었다.

그는 13대 이전의 조상은 경주에서 들어왔다.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 본인이 집안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다. 용자 항렬이 160명이며, 근래 여자들도 종친회원이 되었다. 종중산은 옮겨야 하는데, 농지는 대토가 어려워 임야, 가옥밖에 사지는 못하고 있다. 건물을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종친회원에게 나눠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유태진(남, 1938년생)은 연천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부친을 따라 이곳에 이주해 와서 73년째 거주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소리를 좋아해서 이곳 농요를 익혔으며, 현재 버들개농요보존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의 고향은 3.8 이북의 연천 지역이다. 해방 직후에 북한 치하에 살 수가 없어서 8살의 나이에 부친을 따라서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이곳 의정부 버들개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74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

유태진은 녹양동 버들개마을의 농요를 발굴해 전승하고 있다. 농업노동요로서 직접 동네에서 불린 소리라기 보다는 기존에 의정부 지역에서 발굴된 농요를 책을 통해 발굴을 해서 전승하고 있다. 원래 젊은 시절부터 흘러간 가요를 좋아했으며, 군대를 갔다온 이후에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상여 소리 선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 상요소리는 회심곡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버들개농요보존회는 11년 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기성(남, 1952년생)은 버들개마을 출신으로 현재 2대에 걸쳐 이곳에 살고 있는데, 초반에 간단히 마을에 대해 소개했다.

(3) 버들개마을의 세시풍속

녹양동 버들개마을의 세시로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햇불(조대) 달 기원, 돌싸움(어둔리), 척사대회, 초파일 유양리 탈춤 관람, 10월 산제사와 파지사, 겨울 눈싸움 등이 조사되었다.

정월대보름은 조대를 묶어 불을 붙여서 달에게 절을 하며 기원을 했다.

조대 그런거로다 잘라서, 띠로 묶어서, 산에 올라서 절 하고, 기도하고, 나이수대로 묶어서 했지요. 직접 만들기도 하고, 어른이 해 주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 했지요. 조대는 밑에 짚으로다가 묶어요. 달맞이는 등성이 같은 데에 올라가서 불을 붙이고. 달 드면 소원 빌고 했지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했지요. 이것을 보름맞이라고 하던가? 그때 어린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엄기선)

버들개마을 산제사는 10월 초에 엄격한 금기 속에 행해졌는데, 5년 전에 중단이 되었다. 주민들은 “산제사 지낸다”라고 했으며, 마을에서는 3일 전에 화주(선화주, 앓은 화주) 2인, 제관 1인, 축관 1인, 모두 4인을 미리 뽑는다.

두 화주가 장을 보며, 앓은 화주는 날을 잡고, 제당 아래에 조리술을 미리 담가서 묻어 놓는다. 제당은 언줄(금줄)을 치고, 또한 앞에 황토흙을 놓아 타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특히 여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예전부터 경비는 반장이나 선화주가 추렴했으며, 근래에는 외지인에게도 2만원씩 모두 걷었다. 산제당은 버들개노인정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이다. 최경수는 어린 시절인 일제 후반기에 마을에 쇠창계라는 것이 있어, 설날 그믐날에 소를 잡아 마을 주민들이 나누어서 설날 차례에 썼다고 한다.

산제사는 요즘은 안 지내요. 한 오년 전부터 안 지내지요. 그러는 내가 가운데 앞에 서서 노상 했거든요. 음력으로 꼭 시월 초에 지내야 돼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날을 잡아서 10월 초에 지내는데, 어려서는 엄청 엄격했어요. 보통 엄격히 4사람을 뽑는데, 거기서 제관, 축관, 앓은화주, 선화주, 그렇게 4사람이 선출이 되면, 주로 일 하는 건 앓은화주, 선화주가 일을 해요. 음식은 앓은 화주 집에서 차리거든요. (유태진)

남자들은 집안 여자가 달거리를 하거나, 아이를 임신해도 부정으로 여겨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산제사에 뽑히면, 집 앞에 금줄을 치며 부정을 막기 위해 외출을 삼가한다. 산제사날에 이들은 미리 낮에 올라가 준비를 하며, 밤에 제사를 지낸다.

엄격한 금기로 3일전 날짜가 잡히면 외지인이 마을에서 나가지도 못했다. 재물로는 근래에 소머리와 소족(우족)을 사용했으나, 예전에는 소를 잡았다고 한다.

얇은화주가 선출이 되면 인줄을 매고, 금줄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날을 잡아 선출되면 그 이튿날부터 부정탄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요. 내가 날 보는 사람이야. 생기복덕 가려서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생년월일시 다 봤요. 될 수 있으면 빠른 날짜로 잡는 거예요. 날을 잡으면 어디 나가서 자지도 못해요. 또 손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가지도 못해. 제사 지내고 가야돼. 그렇게 엄했어요. 그래서 빨리 잡아서 빨리 해야 돼요. 날을 잡을 일진이 있어요. 산신이 하강하는 일이 있거든요. 보통 사흘 안에 잡아요.(최경수)

제물을 선화주하고 얇은화주가 같이 준비해요. 장은 소머리하고, 족 4개, 우두와 우족이지요. 미리 며칠 전에 맞추지요. 그 나머지는 의정부 시장에 가서 봐오지요. 그냥 물건 값은 안 깎고 가격표대로 사오지요. 예전에는 떡도, 시루떡을 다 얇은화주 집에서 시루에다 빵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해달래서 해 오고 그러지요.

왜 안 지내게 되었냐면, --- 제사하는 물건이 콘테이너에 다 있어요. 거기는 멀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오늘이 제삿날이라면, 얇은화주, 선화주는 일꾼이에요. 나무 같은 것도 좀 치기도 하고, 낮에 얇은화주가 산제당 지내는 밑에 술을 담가요. 날 잡는 다음 날 새벽에 조리술부터 담가야 돼. 해 뜨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제사날 낮에 올라가서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소죽을 과야 된다. 두 족을 거기서 고지요. 아주 옛날에는 소를 잡았대요. - 최경수 : 소 잡아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우리 윗대에서 했지요. 설날 그믐날에 소를 잡아서 노뿔 먹어요. 쇠창게라고. 양정네 가서 잡아오지요. 거기 도살장이 있어요. 해마다 소를 잡지만 산신제에 소 잡는 것은 못 봤어요.

머리 하고, 두 족을 쓰는데, 이것은 소 한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 잡아도 두 족만 써요. 옛날에도 고기는 너뿔 먹고, 두 족만 쓰는 거예요. 네명 이외에는 참식을 못 하게 되요. 제관하고 축관은 저녁에 시간 되면 올라가요. 뒤편 거기에서 직접 지어요. 여자들은 절대 못 올라가요.(유태진)

사람 넷 뽕잡아요? 여자가 부정하면 아 돼요. 여자가 애기를 갖는다거나, 달거리를 한 다던가 그래도 안 돼요.(최경수)

우리 어렸을 때에는 철두철미했어요. 때문에 인줄을 매고, 황토흙을 파다가 앞에 놓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사 끝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엄했어요. 이걸 ‘산제사 지낸다’고 그러지요. 소 나무가 이런 게 있었어요. 먼저는 이렇게 큰 게 두 아름도 넣었어요. 5그릇가 있었는데, 육이오 나고 충알에 맞아서 그런 건지, 공해 때문에 그런 건지 죽었어요.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지요. 거기가 살짝 우묵스럼한데, 7-8전쯤에 돌을 깎아서 상을 만들었어요. 콘테이너 사다가 끌어올려서 다 넣어놨는데, 그게 한 해 빼딱하게 안 지내게 되면서 못 지내게 된 거예요. 지내는 분들이 어떤 양반이 술을 잡숫고는 참식을 못하니까, 여론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돈을 건잡아요. 집집이 다 걷어요. 날이 나면 바로 이튿날부터 걷는 거예요. 대부분 반장을 시키던지, 아니면 선화주가 걷어요. 원래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전부 돈 내려니 생각을 해요. 외지에서 온 분들도, 나간 분들도 그 분들도 내요. 내가 정성드리는 거니까, 내가 낸다. 금액은 일정하지요. 근래에 2만원씩 걷었지요. 모자란 것은 마저 채워야 되니까, 일정하게 걷어요. (유태진, 최경수)

이튿날 아침에는 ‘파지사’라 해서 동네 주민들이 화주네 집에 전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때 우족 4다리를 분배하는데, 앞은화주와 선화주가 우족 뒷다리를 하나씩 갖고, 제관과 축관이 우족 앞다리를 하나씩 갖는다. 마을 출신의 타지에서 온 분도 ‘반기’라 해서 한 몃씩 나눠 준다.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파지사를 지내요. 동네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다 모여서 노뽕 먹어요.(최경수)]

어저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화주네 집으로 다 물려가요. 파지사를 해야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소머리 고기 죄다 썰고, 그제 참 절차가, 소 다리가 네 개잖아요. 앞은화주와 선화주는 뒷다리를 주고, 제관, 축관은 앞다리를 줘요. 이 동네에 살다가 외지에 사는 사람이 돈을 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몃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것이 끝나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콘테이너에는 그릇과 술단지 같은 것을 넣어 두지요”(유태진)

(4) 버들개마을의 놀이

녹양동 버들개마을의 놀이로 돌싸움, 윷놀이, 척사대회, 눈싸움 등이 간단히 조사되었다. 특이한 놀이로 버들개마을은 인근 어둔마을(양주시 어둔동)과 정월대보름에 돌싸움도 이루어졌다. 돌팔매싸움이라고 하는데, 주로 남자 아이들이 10대 시절에 하던 놀이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싸움을 하다가 눈 안에 돌을 넣어 던지기도 했다.

어려서 어둔리 애들하고 돌싸움 많이 했지요. 어둔리하고 우리 동네하고 경계니까. 맨날 우리 동네하고 패싸움하고, 돌팔매질하고, 맨날 그렇게 했지요. 친구들끼리 장난도 하고. 처음에 눈싸움하다가, 눈 속에 돌맹이를 넣고 던지고. 이것은 낮에 저녁 때 쯤에 했지요.

보름 때 강통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 같은 거, 숯 같은 거 넣고, 불을 붙여서 돌리고, 들판에다가 불 지르고, 많이 했지요. 논두렁 태우기, 그런 거 다 했지요. 강통 돌리며 노는데, 강통은 던지거나, 화를 불을 붙여 던지지는 않았어요. 맨날 그냥 싸움박질 하고 그랬지요.

어둔리 애들도 이쪽으로 같은 학교 다녔지요. 백석도 다 이쪽으로 다녔지요. 친구들끼리 장난 논 거죠. 머리 터지고 한두번이에요. 약이 어디 있어요? 집에 와서 장독대에 된장 덩어리 바르고 말지요. 어른들한테 혼나고.(엄기선)

척사대회는 추석 지나고 청년회 주최로 해마다 열렸으며, 지금도 계속된다.

동네 기금으로 개최하고, 일부 찬조도 받는다. 상품은 가전제품을 주로 주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파주시

9.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坡州市)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이다. 서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및 장풍군과 접한다. 휴전 협정이 조인된 판문점이 있으며, 통일로·자유로 등의 도로가 있다.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가 있고, 남쪽으로는 고양시, 동쪽으로는 양주시, 동북쪽으로는 연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한국 전쟁 이후 의정부,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최전방의 군사도시로, 수도권 이북 지역의 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3월 파주군에서 도농복합시 형태의 파주시로 승격하여 금촌읍이 분동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운정신도시 개발로 시의 남부 지역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기존 경의선 선로를 활용한 수도권 전철 경의선이 개통되었다.

행정구역은 4읍(문산읍(文山邑), 조리읍(條里邑), 파주읍(坡州邑), 법원읍(法院邑)) 9면(탄현면(炭縣面), 광탄면(廣灘面), 월릉면(月籠面), 파평면(坡平面), 적성면(積城面), 군내면(郡內面), 장단면(長湍面), 진동면(津東面), 진서면(津西面)) 7동(금촌1동(金村1洞), 금촌2동(金村2洞), 금촌3동(金村3洞), 교하동(交河洞), 운정1동(雲井1洞), 운정2동(雲井2洞), 운정3동(雲井3洞))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이번 조사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파주시 웅담2리, 파주시 법원읍 직천2리,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등의 4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파주시(www.encykorea.aks.ac.kr 접속일 2018.11.17)

가.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1) 용미2리 마을개관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는 주로 농사를 짓던 마을인데, 1961년 서울시립묘지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이 동네 남자들의 1/3 정도가 농사를 지으며 묘지작업반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업반은 5인 1조로, 모두 6개조에 30명으로 편성되어, 묘지의 매장 일을 독점적으로 작업했다. 따라서 많은 수입을 올려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겨울철에는 언 땅을 녹이기 위해서 ‘매지묻기’를 한다. 하루 전에 벼 껍질에 불을 붙여 땅을 녹이고나서 매장을 한다. 이곳은 1998년 이후 묘지가 다 차면서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현재 합장과 이장만 하고 있다.

이종협(남, 1947년생)에 의하면, 용미3리 세류동은 잔버들이라고도 하며, 예전에는 대략 30-40호 정도였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서 150- 200호에 이른다.

용미3리는 세류동으로 잔버들, 또는 돌방구지라고 했으며, 용미2리는 석반동으로 돌이 많았다는 마을이다. 용미1리는 양지마을로 보통 양짓말이라 했으며, 용미4리는 진지동, 또는 진따배기라 했으며, 4개 자연부락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여성 장군의 진지가 있었다는 마을이다. 이곳은 지금 300-400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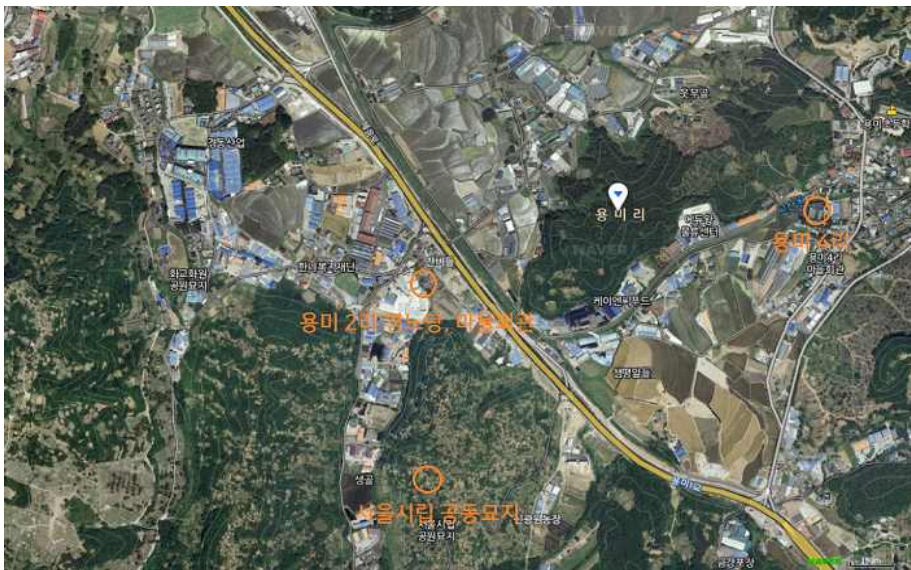
용미2리는 예전에 30호 정도였으며, 장수 황씨가 가장 많이 살며, 이들이 4대 이상 이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씨와 조씨가 몇 가구 있어, 이곳은 집성촌은 아니고, 각성들이 살던 마을이다.

용미리 시립묘지는 광탄과 용미의 경계에 위치하며, 1961년부터 조성되었다. 이곳은 87만 6천평에 이르는 큰 규모로 시립묘지 이외에 시립납골당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해 왔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매장작업에 부업으로 참여했다. 시립묘지작업반은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 동네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상여를 없어서,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요즘은 상여소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호상 매장일 경우에 젊은 사람이 소리를 매기기도 한다.



〈그림 1〉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전경



〈그림 2〉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세부도와 주변

이 마을은 원래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던 곳으로, 논은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에 와서 양수기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었다. 현재 논밭은 공장지로 많이 바뀌었다. 한편 전기는 1970년대에 들어왔는데, 초기에는 전기모터를 이용해 양수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었다. 전기 공사는 국가에서 해 주었으며, 이곳은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되지 않는 않았다.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앞에 길이 뚫렸다.

(2) 용미2리 토박이의 삶

이종협(남, 1947년생)은 용미 2리에서 4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다. 1961년 서울시립묘지가 조성되면서 매장 작업에 부업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시립묘지 작업장 회원들은 용미 1-4리 마을별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당시 주로 농사를 짓다가 부업으로 묘지 조성작업에 참여하면서 가계 수입이 많이 늘었다. 지금도 일부 주민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하루 1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시립묘지 조성할 때에 상주측은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자리를 보고 간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몇 구역 어느 쪽에 작업이 있다고 작업반에 미리 연락을 한다. 그러면 몇 조가 투입될 지를 결정한다. 당시 5명이 1개 조로 되어 있으며, 전부 6개조, 3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나이는 20-70대까지 다양하다. 마을 남자들의 1/3 정도가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간혹 외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 작업은 7-8기가 보통이며, 많으면 10기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1998년에 와서 이곳 묘지가 다 차면서 매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은 합장만 허용한다.

대체로 환절기에 묘지 작업이 많았다. 겨울에서 봄에 들어가는 시기,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이 시기가 가장 바쁘다. 서울 외곽의 서울시 관리 묘지 시설은 용미리가 가장 규모가 크며, 이외에 망우리, 양주 내곡리, 벽제 등이 있다. 근래에는 매장을 억제해서 납골당뿐만 아니라 자연장, 수목장, 평장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김태춘(남, 1943년생)은 본래 전남 장흥 출생인데, 1975년 시기에 서울시

립묘지 관리 직원으로 이곳 화장터 화부로 일한 적이 있다. 2002년에 종로구청에서 퇴직한 후에 과거 근무했던 이곳 용미리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는 용미리 시립묘지 조성과정과 매장과 관리방식에 대해 실무자로서 소상히 알고 있다.

(3) 용미2리의 세시풍속

용미2리의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 달님에게 햇불로 절하기, 햇불싸움, 돌싸움, 농악 걸립, 연날리기, 걸립농악, 모내기 전라도 부녀자 작업, 단오 그네뛰기, 여름 천렵, 말복 개장국, 6-7월 논매기 두레, 가을 민물게 잡기, 가을 느티나무 고사, 동지 팔죽, 10월 상달고사와 떡 돌리기 등이다. 특징적인 세시풍속을 보면, 용미2리 옆마을인 양천마을(용미3리)에는 가을고사로 오래된 느티나무에 마을고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종협(남, 1947년생)이 구술한 용미3리의 세시는 다음과 같다.

정월대보름에는 논두렁에 불을 붙이고, 짚으로 화를 만들어 달님에게 기원했다. 나이수대로 묶어서 화를 만들고 주로 논두렁에 나가서 달님에게 빌고 액운이 없이 평안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모내기를 할 때에 예전에 전라도의 여자들이 와서 품삯을 받고 모를 심은 적이 있다. 대략 1980년대로 30명 정도가 기차를 타고 단체로 오며, 일산에 하차를 해서 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사방에 흩어져 일을 했다. 인근 용주골이나 고양동으 부녀자들도 몇 십 명이 와서 모를 심은 적이 있다.

마을에서 혼인이 어려운 사람은 이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 5-6명 정도 호남의 여자를 신부로 얻었다. 이곳에서는 ‘싸데려 온다’는 표현을 쓴다. 중매장이가 별도로 있는데, 주로 호남 출신의 보따리 장사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고향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당시 이들이 머리에 건어물을 이고 다니며 팔았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다. 건어물로는 주로 북어, 멸치, 미역 등을 취급했다. 이곳 모내기는 외지 품앗이뿐만 아니라, 자체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모를 다 냈어. 팔십년대에 내가 보니까 전라도 아줌마들이 와서, 거기는 늦게 내는지, 먼저 여기서 모 내고 가서 모 내고. 어디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라도에서 왔어요. 일정기간 동안 와서 모를 내고 갔지. 다 연락망이 있어. 매년 와서 하니까. 거처를 정해 가지고 삼십명 정도 와서 진을 치고 어느 정도 내고. 처녀들 아줌마들인지, 과부인지를 모르지, 전라도 사람들은 잘 해요. 모 내는 일을 잘 해요.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자랐을 때에는, 지금도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렇죠? 내 우스운 소리지만. 지금은 국내서 못 구하면 국외에서 데려와 국제결혼을 오잖아, 옛날에는 전라도 색시들이 왔어, 그만큼 전라도가 어렵다는 얘기지. 거기서 장가간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싸데려온다’고 그래. 그거는 그냥 데리고 온다는 애긴가? 그러가지고 전라도 색시를 얻었어요. 여기서 장가 갈 때가 없으니까. 누구라고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몇 집 되지. 여기도 팔십된 사람들. 우리야 다 알지. 중매쟁이들이 있지. 루트가 있지. 보따리 장사들이 대개 하더라고. 자기가 고향이 그쪽이면 중개를 해서. 자꾸 해 버릇해서.

옛날에는 기차타고 왔을 거야. 역은 일산 쪽에서 많이 하차하겠지. 거기가 가차우니까. 일산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그 사람들도 오지만, 자체에서 품앗이해서 많이 했어요. 내가 사방에서 데려다 썼지. 요 넘어 거 용주골에서도 몇 십명 데려다 썼어. 고개 넘어 고양동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품값은 그때 시체가 있잖아. 얼마나 줬겠어? 그게 전화다 없는 세월에 다 연락망이 있지. 이 마을에서는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한 집이 대여섯 가구 될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건어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차로 와서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 건어물은 북어나, 멸치, 미역,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했지.

김매기를 할 때에는 농악을 앞세우고 두레와 품앗이를 했다. 농악대의 앞에는 기수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농깃대를 들고 갔다. 농악은 1960년대까지 있었으며 두레 때에는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쉼 때, 이동할 때에 악기를 쳤다. 이곳 농토는 가구당 많아야 1섬지기(20마지기) 정도였다.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논이 없으면 품앗이로 참여했다. 대개 모를 내고 20일 후부터 김을 매기 시작했다. 논매기할 때에 초벌매기는 호미로 하며, 대략 10-15일에 걸쳐 한다. 두벌매기는 손으로 흙치기를 한다. 이장이 주도했으며, 논매는 소리를 하는 선소리꾼이 있었다. 최흥진 노인이 생전에 소리를 잘 했는데, 살아 있다면 100살이 넘는다. 모심기는 두레로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했다. 일부 논이 많은 집은 품앗이를 사서 모를 심었다. 단 오 때에는 여자들이 그네를 뛰었으나,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습은 알지 못한다. 그네는 마을 앞 고산천 뚝 있는 곳의 나무에 매서 탔다.

김매기가 끝난 후에 여름에는 천렵을 갔다. 주로 미꾸라지, 송사리 등의 잡

고기를 잡아서 하루동안 놀았다. 두벌매기기 끝난 이후의 복날에는 개를 잡아서 함께 먹었는데, 대개 음력 6월에 중복과 말복이 든다. 가을 에는 참게 잡이도 했다. 예전에 개천은 좁은 도랑 정도였다. 망을 쳐서 족대로 잡았으며, 잡은 게는 잡고기와 국수를 넣어서 끓여 먹었다.

건너마을 양천말에서는 가을에 낱을 잡아 700년 된 느티나무에서 제사를 지내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크게 지냈으나 지금은 몇 명만이 참여한다. 예전에 인근 붓당골 쪽 연못 부근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며, 소나무 옆에 돌무데기가 있었다. 이것은 묘지가 조성되면서 없어졌다.

10월 상달에는 이 마을에서는 집안 고사를 지냈다. 집마다 시루떡을 하는데, 떡을 조금씩 나누어 방, 마루, 장독대, 부엌, 변소에 갖다 놓는다. 집안에 있는 여러 신을 위하는 것이다.

동지에는 액운을 때운다고 팔죽을 끓여 먹는다. 애동지를 초동지라고 하는데, 10일 이내에 동지가 드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 중에는 이날 절에 가는 사람도 있다.

(4) 용미2리의 놀이

용미2리의 놀이는 농악, 자치기, 돌싸움, 햇불싸움, 연날리기와 연싸움(사금파리 먹이기), 찢매타기, 팽이치기, 사방놀이, 줄다리기와 씨름(면, 학교체육대회), 그네뛰기 등이다. 특징적인 놀이로 용미2리는 1960년대까지 농악이 활성화되었으며, 정월대보름에 아래 윗동네 사이에 낮에는 돌싸움, 밤에는 햇불싸움이 있었다. 또한 연은 대나무가 없어 찌리가지로 대신 만들었으며, 4각과 6각의 연자새를 만들어 사용했다. 골패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는데, 소뿔다귀 뒤에 대나무를 붙였으며, 구멍을 파서 숫자를 표시했다. 이종협(남, 1947년)이 구술한 용미2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연은 네모난 형태의 방패연을 주로 날렸으며, 꼬리가 긴 가오리연도 날렸다. 대나무와 창호지로 만들었으며, 옆에 갈퀴발을 만들었다. 연자새의 실감는 것은 사각으로 돌리게 만들었으며, 가운데에 철사를 넣었다. 연싸움은

가끔 한 적이 있으며, 연싸움에 사기를 먹었다는 것은 듣기만 했지, 실제 한 적은 없다.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연은 날리지 않았으며, 정초에서부터 정월대보름까지만 연을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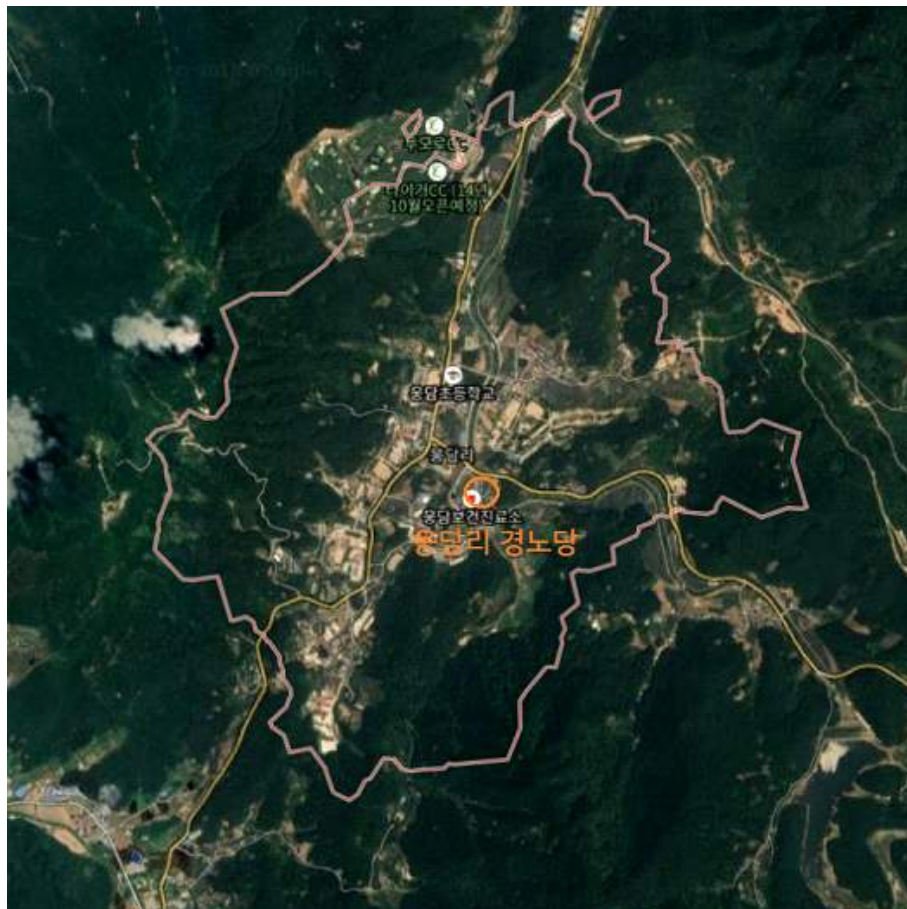
썰매는 스케이트라고 했으며, 주로 앉아서 타는 방식이다. 날은 철사를 끼웠으며, 바닥 밑에 깔았다. 그리고 꼬챙이는 못을 끼웠으며, 주로 얼음 위에서 탔다. 썰매를 서서 타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기술이 필요해서 주로 20대 이상이 탔으며, 아이들은 서서 타기가 힘들었다. 한편 어른들은 아이들 썰매를 밀어 주었으며, 가끔 어른이 타는 경우도 있다.

자치기는 남자들이 2-4명씩 한 편이 되어 놀이를 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많이 놀았으며, 주로 10대의 국민학생들이 놀았던 놀이이다. 팽이는 소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 목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낮으로 팽이를 깎았는데, 좌우 균형이 맞아야 팽이가 잘 돈다.

줄다리기는 원래 마을에서는 하지 않았으며, 다만 가을의 면 체육대회 때나 학교 운동회 때에 마을 단위로 줄다리기를 했다. 면 체육대회에는 씨름도 했다. 사방놀이는 여자들이 주로 놀았던 놀이로, 돌을 던져놓고 한 칸씩 움직이며 노는 놀이 형태이다.

정월 대보름에 집집마다 다니며 농악을 치고 걸립을 했다. 부유한 집 몇 집만 골라서 다녔으며, 이종협(남, 1947년생)이 초등학교 시절인 15살 때에 마지막으로 농악을 쳤다. 따라서 대략 1960년대 초반까지 농악이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때 농악이 번창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놀 것이 없어서 농악을 친 것 같다고 말한다.

(1) 용담2리 마을개관



파주시 법원읍 웅담2리는 전쟁 이후에 마을의 상당 부분이 미군부대에 수용되었다. 마을 앞에 1953년부터 1970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변이 기지촌으로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주로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갔다.

남찬우(남, 1938년생)에 의하면, 웅담리는 크게 3개 동으로 나뉜다. 웅담 1리는 ‘류산동(버들되)’이라 하여 의령 남씨가 주로 살았고, 웅담2리는 ‘곰소’라 해서 약 50호 정도였으며, 웅담 3리는 ‘너패(너파동)’라고 해서 윤관 장군 관련 전설이 전하는 동네이다.

웅담리는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160세대에 이른다. 미군부대가 있던 20-30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 남아서 예전보다 가구수가 더 많아졌다.

웅담리 옆의 파평산에는 평풍(병풍)바위가 있는데, 윤관장군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이곳은 군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바위가 잘렸다. 이곳에 옛날 기와장이 출토되기도 했으며, 돌로 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 이곳에서 윤씨네가 제사를 지내는데, 아직도 윤씨가 몇 가구 살고 있다.

여기는 곰소, 옛날 구 이름이 곰소라고 해요. 윤관 장군이 요 근처 파평산, 평풍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윤관 장군이 유래가 말 달렸다는 곳으로 훈련장이예요. 파주시에 서 등산로를 만들어서 팔각정을 만들었는데, 그 아래에서 옛날에 기와가 나왔어요. 고 밑에 가면 돌로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런 흔적이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여기 윤관 전적지예요. 실존 비가 있어요. 12인의 비석을 지어 났어요. 윤씨네가 가을이면 제를 지내고, 여기는 얼마 없어요. 외부에서 와서 견학하고, 제 지내고 가고. 여기 윤관 장군 유래가 깊습니다.

인근 곰소는 곰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윤관장군이 곰이란 기생과 가까웠는데, 낙화산의 낙화암에 떨어져 아래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은 곳이다. 예전에 일년에 한번씩 무당이 와서 굿을 한 적이 있다. 그곳은 웅담리 동네에서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 방향이다.

곰소라는 것은 곰이란 기생이, 물 소 자에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곰소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면 뭣하지만, 윤관 장군이 곰이란 기생하고 저기 하다가, 낙화산이라고 멋있는 바위가 있는데, 곰이란 기생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거기가 낙화암이예요. 거기 소가 있는데 명주 실 한꾸러미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깊었다고 그래요. 거기 조금망게 윤씨네가 비석을 세워났어요. 거기 표시로다가. 옛날에는 무당이 일년에 한번씩 굿을 해요. 곰이란 기생의 뉘이예요. 거기 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이예요.

포수바위는 부대 안에 위치하며, 예전에는 주민이 거주하던 곳인데 부대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이 마을 근처로 옮겼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포수가 사냥을 가서, 바위 옆에서 총을 들고 망을 보고 있다. 몰이꾼이 산 위에서 돼지를 몰아오고, 큰 돼지가 포수 앞으로 오자 총을 쏘자 돼지는 죽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새끼돼지들이 와서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포수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바위는 큰 주먹 형태로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여기 밑에 가면 포수바위가 있어요. 북쪽으로 북바위라고 있었어요,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전부 이쪽 편으로 와서 살지요. 거기 이름은 북바위라고 해요. 거기 어느 포수가 짐승을, 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포수는 바위 옆에서 총을 잡고 있고, 모는 사람은 저기 산꼭대기에서 몰았답니다. 큰 도야지가 포수 앞으로 오드래요. 포수가 돼지를 쫓대요. 그래 쓰러졌는데, 한참 있더니 새끼들이, 새끼들이 와 덤벼들면서 죽은 어미의 젖을 막 빨더래요. 그래 포수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저런 걸 죽였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자기가 뉘우치고서, 거기서 포수가 자살을 했답니다. 거기 바위가 큰 바위가 주먹같이 생긴 게, 큰 바위가 사람 몸뚱이처럼 생겼어요. 시방도 가보면 그제 보여요. 동네 유래가 그렇게 많은데, 전설로 내려오니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웃어른들께 전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원터골은 ‘원터벌’ 이라고도 불리는데, 구술자인 남찬우(남, 1938년생)는 원님이 살다가 간 터로 알고 있다. 부대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어릴 적에 본인의 일자 집이 좋은 목재로 잘 지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북바위마을에는 50호 정도 살았는데, 20호로 줄어다가, 지금은 10여호만 남아 있다. 그곳은 예전에 큰 마을이었으나, 전쟁 이후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현재 마을 쪽으로 옮겨오면서 가구수가 줄어들었다. 북바위는 웅담 2리에 속하며, 그곳 곱소는 ‘큰마을’ 이라고 했다. 특히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마을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마을에서 가까운 동산에 북바위 사구막굴이 있다. 군부대 옆에 있으며, 예전에 사기를 굽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사기를 굽던 흔적이 남아 있다. 북바위마을은 군부대가 생기면서 일부가 옮겨오고 마을 자체는 사라졌다.

마을 입구 도로 옆을 ‘능가시’ 또는 ‘능너머’ 라고도 한다. 이곳은 산에서

돌절구가 나왔으며, 예전에 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능을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으며, 그후 미군이 길을 닦아버려 없어졌다.

인근 돌산 개발을 했던 수리봉은 ‘부엉바위’라고 한다. 100년 전부터 부엉이가 살았다고 하는데, 10여년 전에 돌산을 개발하면서 바위를 깎았는데도, 지금까지 부엉이가 살고 있다. 당시 돌산을 TNT로 깨도 부엉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현재까지 집을 지키고 있다. 돌산의 진동으로 집이 균열이 가기도 하는데, 관에 진정서를 내서 돌산 개발이 중단되었다. ‘부엉바위’는 지금 반쪽 바위로 남아 있다. 남찬우는 큰 도로명인 ‘술이홀로길’이 수리봉의 수리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다.

옛날에 어려서 수리봉, 수리봉 했던 말야. 그 유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요기 근처에요, 시방은 미군이 다 닦아버렸어. 군부대가 들어서 시방은 못 찾지.

여기 또 한가지 있어, 여기가 부엉바위가 있는데, 시방 부엉이가 있어요. 100년 전에 있던 부엉이가 있어요. 옛날 지금 나이로 150세 되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부엉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10년 전에 돌산을 했어. 그 바위를 다 깨뜨렸거든. 그래서 바위가 반쪼가리가 됐어. 부엉이가 도망 안 가고 부엉이가 살고 있어요. 지금 밤이면 부엉이가 울어. 지금 거기서 티엔티 터트리고 막대한 돌을 깨뜨렸는데도 지금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부엉이는 지독한 거야. 그 밑에 티엔티로 돌을 깨뜨렸는데도 살았다는 게 말도 못하는 아니에요. 시방 부엉이가 살고 있지. 그냥 큰 바위에요. 왜 못다 했냐면, 여기서 계속 터트리니까, 저도 집이 금이 가고, 먼지가 나고, 그래서 마을에서 진정을 했어요. 못하게.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하니까 중단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보기 싫게 되었어, 깨다 말아서 반쪼가리가 되었어.

여기 지명에 ‘술이 홀로’는 파주시 전부야.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적성 가면은 가보시면 알거야. 사당이 하나 있는데, 지명하고 비슷한 사당이 하나 있어요. 옛날 유적과 관련이 있는가봐. 그래서 수리봉, 수리봉 한 게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야. 술이홀로가 옛날 노인들이 수리봉이, 능너머로 갔다라 했거든. 그래서 수리봉이 그거와 관련 있지 않나 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을 앞의 큰 산이 파평산으로 여기가 파평 윤씨의 종산이며, 윤관 장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산 이름은 ‘길마재’라 하고, 윤관 장군이 말을 달린 병풍바위가 지금도 있으며, 산꼭대기에는 미군 레이더 기지가 있다. ‘마늘봉’은 마을 오른쪽 위쪽에 있는데 마늘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로 인해 ‘마늘로’라는 길 이름이 생겼다.

이 마을은 전쟁 이후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기지촌으로 흥청거려, 한때 1000여 호까지 세대가 늘어난 적이 있다. 당시 주변 국민학교에서

3부재 수업까지 했을 정도이다. 단일부대로는 병력이 최대였으며, 한미일 합동훈련을 이곳에서 일주일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에 미군부대가 동두천으로 철수하면서 그 자리에 한국군이 들어와 주둔하고 있다.

당시 곰소에는 양색시가 매우 많았다. 한때 800명 정도였으며, 각종 홀이 많아서 미군들이 부적거렸으며, 밤만 되면 네온싸인이 휘황찬란했다.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이곳 법원리 곰소와 파주 용주골, 내리 등이 유명했다. 이곳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많이 했으며,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경기도 광주시로 이주했다.

미군부대는 육이오 사변 이후부터 있었어요. 전쟁서부터. 사변 나고부터 최초 미군이 있었어요. 미군이 있을 때는 1000여호나 있었어요, 초등학교는 삼부제를 했고,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마을이 조그맣게 되고, 다 그분들 탄 데로 가고, 미군이 철수한 게 칠십 몇 년대, 칠십년대 초반인가? 다 동두천으로 갔어요. 거기에 한국 군대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단일 부대로는 병력이 최고 많아요. 여기 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이곳이 군부대가 무지 많아요. 지금 한미합동훈련이잖아요. 일주일간 해요.

여기 이름이 미군 부대 있을 때 서울 종로에서도 곰소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색시들이 그만큼 많았어. 사변 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런데 파주에서 용주골, 주내하고, 이 법원리 곰소까지가 미군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요기는 민간인이 올 수 있고, 저기는 못 오고, 그래서 양색시들이 전부 여기로 모였어요. 그래서 양색시가 팔백명이라고 할 정도로 무지 많았어요. 홀도 있었고 없는 게 없었어요. 밤이면 말도 못하지요. 미군이 와글와글해가지고, 춤 추고, 말도 못하지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었지요. 여기서 장사하는 외지 사람들은 다 갔지요. 그 당시 돈 번 사람들은 가고, 돈 못 번 사람들은 못 간 거야. 여기서 대개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 미군 철수하면서 광주에 시가 생겼어요. 광주가 아무것도 없는 별판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갔어. 거기 가서 자리 많이 잡았으니까. 여기 미군 철수하면서 돈 번 사람들이 광주로 갔지요.

이 마을에 미군이 20여년간 주둔하면서 마을에 혜택은 별로 없었다. 외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으며, 깡패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다. 당시 미군이 들어오면서 주위에 하꼬방이 생기기 시작했다. 레이션박스과 루핑으로 임시로 집을 지어 살았다. 겨울철에는 매우 추웠으며, 그런 곳에서 7-8년간 살다가 다시 집을 짓게 되었다.

웅담리는 밭농사를 많이 하던 곳으로 주로 콩, 팥, 밀 등을 재배했다. 토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밀은 호미를 많이 재배했는데, 키가 크지만 맛

은 별로 없는 편이었다. 호밀은 잘 자랐으며, 수확을 해서 맷돌로 갈거나, 절구질을 해서, 또는 물방앗간에서 찼어서 칼국수를 해 먹었다. 그런데 끈기가 부족한 편이라 맛이 별로 없었으며, 지금은 호밀대신 참밀을 주로 재배한다.

과주 적성면 지역은 일제시대에 개성의 부자인 한명식이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었다. 한명식은 개성의 상인으로 큰 부자였다고 하며, 개성은 이곳에서 80리가 넘는 거리이다. 따라서 이 마을은 일제시대에는 소작농이 많았으며, 자작농은 얼마 없었다. 당시 소작은 '3분 타작'이라 해서 3중에 2를 주고, 1을 먹는 방식이다. 곧 2/3는 지주에게 주고, 1/3만 소작인이 갖는다. 따라서 살기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쌀을 다 공출해 가기도 했다. 이곳은 토지개혁이 되면서 자작농이 많아졌다.

미군기지가 있을 때에는 미군 기지촌 주민들이 주변의 나무를 마구 베어서, 산 주인이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막았다. 내 것을 남이 못 건들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소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연탄 보급이 되지 않은 시기이며, 하루에 나무 2짐을 하는데, 인근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산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나무를 하고, 심지어 산 정상(현 레이다기지) 넘어까지 가서 나무를 해온 적이 있다. 이후 박정희 시대에 산에 나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아가시나무를 많이 심었다. 땔나무가 없어 몰래 아가시나무까지 베어다 때기도 했다.

근래 마을 노인회에서는 가끔 노인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관광을 다녀오는데, 올해에는 어버이날에 독도 관광을 다녀왔으며, 다행히 날씨가 좋아 제대로 구경할 수 있었다.

(2) 웅담2리 토박이의 삶

남찬우(1938년생)는 웅담 2리에서 18대에 걸쳐 살고 있다. 전쟁 중에 부친은 행방불명이 되면서 모친이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 나중에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 제사일에 부친을 합쳐 합동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의 부친은 전쟁 중에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군에 끌려가서 아직도 소식을 모르고 있다. 전쟁 중에 내무서(치안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

했을 때에 부친은 30대 후반이었다.

집에서 숨어 있던 때에 갑자기 지방 빨갱이들이 중심이 되어 새벽에 총을 쏘면서 집안에 들이닥쳤다. 이때 부친은 급히 변소로 피신을 했는데, 치안대는 모친을 위협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린 남찬우는 모친의 치마를 잡고 두려움에 현장을 목격했다. 치안대는 총에 긴 칼을 꼽고 여기저기 쏘시고, 숨어 있던 잣데미 위에 인분을 뿌서서 결국 부친은 잡히고 말았다.



〈그림 4〉 웅담2리의 남찬우 제보자

이렇게 부친은 반동분자로 몰려 끌려가게 되었다. 모친은 그들을 붙잡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으며, 사방에 연락을 해서 생사를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이웃 사람이 내무소에 끌려간 곳을 알려주었다. 보초를 포섭해 면회 신청을 했는데, 3일만에 굴속에서 기어나오는데, 매우 굶주린 상태였다. 변도(도시락)를 전달하고, 1주일간 밥을 해서 날랐다. 당시 모친은 산달이 다가와서, 백모가 대신 면회를 갔는데, 갑자기 부친이 사라지고 없었다. 나중에 같이 붙잡혀 간 집안 친척에 의하면, 저녁에 모이라고 해서 트

력을 탔는데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했다고 한다.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면서 서로 헤어졌는데, 이후 부친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집안 친척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친은 끝내 돌아오질 못했다. 모친은 94살로 돌아가셨는데, 모친이 돌아가신 날에 두 분 부모의 제사를 같이 모시고 있다. 모친은 행방불명된 남편 때문에 한을 품고 사시다 돌아가셨다.

(3) 웅담2리의 세시풍속

웅담2리의 세시풍속은 정초 농악패 걸립, 정월대보름 햇불로 달님 절하기, 햇불 싸움, 기싸움(웅담2와 1리), 김매기 두레와 선소리, 봄철 보릿고개, 하지 기우제(부군나무), 논매기의 두벌매기 농상기 싸움, 10월 상달 부군나무 무당굿 등이다. 이곳의 특징적인 세시풍속에는 10월 상달에 무당을 불러 부군나무에 앞에서 굿을 했는데, 이 나무는 전쟁 중에 중공군이 베어버렸다. 한편 봄철 보릿고개 때에 식량이 떨어지면, 덜 익은 보리를 미리 베어서 가마솥에 넣고 노랑게 볶아서 절구에 찧어 밥을 해 먹었다. 남찬우(남, 1938년생)가 구술한 웅담2리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초에는 농악의 걸립이 있었다. 전쟁 때까지 이 마을에는 농악이 있었다. 두레 농상기라 해서 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여 있었으며, 옆에는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논매러 갈 때에는 이 농상기를 들고 가며, 대략 15명 정도가 참여했다. 당시 웅담리의 농악대는 먼 대항 농악경연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 상쇠가 지도를 했으며, 고깔을 쓰고 버꾸도 있었다.

정초에는 농악패가 집집마다 다니며 걸립을 했는데, 대보름 이전에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돌았다. 각 집에서는 마루에 상을 차리고 쌀을 놓고, 술과 안주를 내놓았다. 쌀은 몇 말씩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으며, 돈도 놓기도 한다. 농악패는 각 집에서 한바탕 놀고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

한편 마을에 돈이 필요하면 농상기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거출한 적도 있다. 4가지 악기 이외에 호적이 있었으며, 김매기 두레 때에는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6.25 전쟁이 나고 모든 집과 악기가 불타면서, 농악이 없어졌다. 농상기는 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었으며, 두레는 몇 년간 더 계속

되었다. 농악은 자식들이 타지로 나가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1981년에 노인들이 잠시 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여기에 농악 있었어요. 농악을 아주 잘 했지요. 전쟁 이전부터 농악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면 깃대를 크게 해서 농상기라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크게 쓰지요. 한자로 크게 쓰고, 옆에 마을 이름도 쓰죠. 아주 굉장했지요. 그거 치면서 논매러 가는 거지요. 그때 한 열댓명 정도 모였어요. 악기도 두드려 가며 갔지요. 그때 먼 대회에도 나갔더랬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경쟁을 해요. 아랫말, 윗말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팽과 리 치는 거 다 갈켜, 고갈 쓰고 법구 춤추는 거, 아 그거 시방 텔레비 나오기는 거 그 이상으로 했어요. 정초에 걸립도 했어요. 동네 다 다니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는 게 겁나잖아. 술대접하고, 쌀 몇 말 내고, 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집은 잘 차리지. 그러면 먹고 잘 놀지. 많이 다녔어, 그때는 농악이 심했어. 마루에 상을 차려서 놓고, 쌀을 철철 넘겨 담아놓지. 한 말 정도. 옆에 술과 안주 있지. 하루 정도 했지요. 대보름날도 댕기고, 그 이전에도 댕기고 그랬지요.

그리고 동네에서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상기를 다니면 그런 식으로 거출도 하고. 그게 농상기를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얻는 거지. 그 당시에는 십시일반으로 내는 거지. 좋은 거지.

논 매러 갈 때 농기 쏘아 놓고 선소리 매기고, 호작 부는 사람이 다 있었지요. 다 돌아가셨지요. 주로 논매는 소리를 했는데, 다 잊어 버렸어. 앞에서 매기면 다 따라서 하고, 김매면 김매는 소리하고. 이게 육이오 나고 없어졌지요, 동네가 다 불에 타고, 여거 동네가 한 집도 없이 다 탔어요. 미국 제트기가 와 가지고 죄 불났어요. 폭격 때문에 다 피난 나갔지요. 악기와 농상기도 다 타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없어졌지요. 경노당에 악기가 있던 있는데, 농상기도 만들어 놔는데, 할 줄 몰라요. 해 보다가 잘 안 맞아. 할려고도 안 하고. 저는 가락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삼채가락 전부 했지요. 전쟁 이후로도 농상기가 있었어. 몇 년 안 하다가 중단되었어. 그 전에는 부락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았던 말이에요.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고 부모만 살다보니 농상기도 없어지는 거지. 할 수가 없지. 우리도 했었어요. 창고에 농상기가 있어. 1981년에 경노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노인네들이 쳤지. 시방은 도시로 다 나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정월대보름에 밤에는 짚불을 만들어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 짚으로 화를 만들어 나이 수대로 묶은 다음에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인다. 그리고 짚불을 흔들면서 ‘달님, 달님’하면서 소원을 빌었다. 대개 부모가 짚불을 만들어주며, 겨우 걸음마를 하는 어린 아이부터 참여한다. 남찬우는 아들에게 짚불을 만들어주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도록 시켰다.

정월대보름날 짚불놀이 했지요. 짚을 갖다가 불을 놓고 햇불이라고 해서, 나이만큼 묶어 가지고 달이 떠오르면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달님 달님’ 하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지. 그 전에 그런 놀이를 했지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만들어 줬지요, 아장아

장 걸어갈 때에 부모님이 만들어 손에다 쥐어주고 불을 댔어서 달을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어. 저도 우리 자식한테 부모님이 한 데로 똑같이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방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봄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예전에는 보리가 익기 전에 미리 베었다. 그리고 보리를 큰 가마솥에 넣어서 불을 지피고 볶는다. 노란색의 보리를 절구에 찼어서 밥을 해 먹으며 보릿고개를 넘겼다.

그러니까 보릿고개지 그때, 제가 생각해도 어릴 적에 보면, 보리가 익기 무서워요. 보리밭에 돌아다녀가지고 약간 노리끼가 있으며, 그걸 비어. 보릿고개라고 하잖아. 먹을 게 없으면 그걸 비어. 베다가 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덜 익은 놈의 보리를 거기다 주물러서 볶아. 그러면 그게 노란데 맛은 있어요. 그걸 절구에다가 막 으깨어 보리쌀을 내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하지 때에 기우제를 지냈다. 논농사는 예전에는 주로 천수답이었으며,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까지 모를 내지 못하면 동네 주민들이 삼색과일과 북어, 돼지머리를 놓고 부군나무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부군나무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곳은 농지가 많지 않으며, 대개 논농사와 밭농사가 절반씩이었다. 그런데 적성면 식현리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이 많은 그 쪽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던 시기에 농조와 수리조합이 생기면서 이곳에도 농수로가 개설되었다.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고, 산을 뚫으면서 농수로가 개설되어 이제는 농사짓는 데에 물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논매기 두레할 때에 농상기를 치고 나가면서 이웃 웅담 1리와 마주치면 농상기 싸움이 일어난다. 대략 전쟁 이전의 시기까지 두레가 있었으며, 당시 논두렁에서 서로 마주치면 서로 어른마을이라고 우기며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라하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농상기 싸움이 일어나는데, 기를 직접 부딪치는 않았으며, 대형기를 흔들며 기세 싸움을 벌였다.

10월에는 부군나무 앞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 예전에 아름답리 참나무로 된 부군나무가 있었다. 이곳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매년 일년 농사를 다 짓고 10월 상달에 날을 잡아 무당이 굿을 했다. 날짜는 동네 어른들과 만신이 상의를 해서 잡았다.

동네에서 돈을 거출해 비용으로 쓰고, 제물로는 쌀로 떡을 하고, 돼지를 잡았다. 이 부군나무는 한 아름 이상 되는 큰 참나무였으나 육이오 때에 중공군이 와서 베어갔다. 중공군은 나무를 베어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미수가루를 타서 마셨다. 그들은 미수가루 자루를 어깨에 메고 컵에 끓인 물을 넣고 미수가루를 타서 마시면서 전쟁을 했다. 남찬우(남, 1938년생)는 13살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식구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중간에 도로 돌아왔다. 따라서 전쟁 난 해에는 피난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여기에 부군나무라고 있어요. 뭐냐면 무당이 동네에서 굿을 하고, 소원성취를 빌고, 일년에 한번씩 굿을 하지요. 그 시기가 농사 다 짓고 가을 10월 상달에 날을 잡지요. 동네 어른이 만신하고 타협을 해서 날을 잡아서 동네 분들이 돈을 거출해 가지고, 쌀을 내고, 떡 이런 것을 해서, 부군나무 앞에서 굿을 했지요. 그 나무가 아름들이 돼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컸지요. 나무는 참나무예요. 크지요. 한 아름 이상 돼지요. 몇 백년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육이오 사변에 중공군이 그 나무를 베어갔어요. 중국 사람들은 동네 들어오면 우선 나무부터 잘라가지고 나무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물을 한 솥 끓여놔요. 그 사람들은 군량미가, 게 미수가루 한 봉다리예다가 냉수 끓여서 마시는 게 군량미야. 참,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인해전술을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밥을 해 먹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전투해 가면서 군량미가 얼마 안 들어. 자루예다가 미수가루 넣어. 그리고 어깨예다가 미어. 그리고 컵 하나 차고 다녀. 컵예다가 미수가루 타 마시면 한끼 때우는 거예요. 전술을 못 당해. 저는 38년생인데 전쟁 때가 16살이에요. 다 기억하지요. 저는 피난을 못 갔어요. 한강 끊어져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군나무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인다. 제관은 동네에서 유식한 사람이 맡았으며, 제관이 축문을 작성해서 축을 읽는데, 내용은 마을이 편안하라고 의미이다. 제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동네에 일이 있으면 다 모여요. 동네가 잘 되게 하라고. 돼지를 잡았지요. 그게 동네 어른이 있으며, 지식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 가지고, 그 분이 지관이지. 그 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분이 축을 써 가지고, 축을 읽고. 동네 사람들은 따라서 하지요. 통으로 소지를 해요. 이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라 다 오죠. 돈은 동네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내는데,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은 조금 내고 그러죠.

(4) 웅담2리의 놀이

웅담2리의 놀이는 기싸움놀이, 농악 등이 간단히 조사되었다. 이 마을에는 두레 시기에 기싸움이 있었다.

농상기싸움은 두레 논매기할 때에 이웃 웅담1리와 맞붙었다. 마을에서 농상기를 치고 나가면 웅담 1리 동네와 마주치는데, 이때 자기 마을이 서로 어른이라고 하면서 기싸움이 일어난다. 당시 남찬우(남, 1938년생)가 7~9살 시절이었으며, 대략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이다. 대개 논매기를 두 번 메고 나서 이런 싸움을 했다. 당시 농악에 고깔을 쓰고 옷을 갖추어 입었다.

농상기에는 깃대가 있었고, 그 꼭대기의 깃봉에는 장끼의 꿩털을 달았으며, 나무로 깎은 항아리 모양의 장식도 있었다. 깃대는 약 15m 정도의 긴 나무로 만들었다.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농상기를 들었는데, 멜빵을 해서 몸의 앞에 끼었다.

농상기 싸움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논매기 끝나고 날을 잡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마을이 논 가운데에서 만나면 서로 길을 비켜 달라고 하면서 기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논매고 나서 할 때에는 두 마을이 서로 날짜를 잡는데, 두벌매고 나서 한가한 시기를 잡는다. 그리고 논 가운데의 외길에서 만날 때에는 서로 자기 마을이 어른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길을 비키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농상기를 앞세우고 서로 음악 소리를 높이면서 기싸움을 한다. 곧 팽쇠(팽과리)를 치면서 서로 기(氣)를 겨루는 정도이고 직접 큰 농상기를 맞부닥치지는 않았다. 양쪽에서 악기를 두드리며 기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서로 이겼다고 우기며 끝을 맺는다.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고 일을 힘들게 하던 시절이라 이것도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다.

햇불싸움은 없었고, 농상기 싸움은 있었어. 막 치고 가면 이웃 마을도 치고 오는 거야. 그게 왜냐면 누가 먼저냐, 내가 어른이야, 아니다 기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육이오 사변 전에, 농기 철에 한 거야. 두레 모집하면서 논매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은 농상기 시합을 하지. 농사 안 질 때, 다시 고깔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 입고, 7-9월 사이에 벼 안 벨 때에, 그 때에는 농한기가 한이 없었어. 제초제가 없어서 수시로 풀을 뽑고, 농민

들이 고생 많이 했지. 농상기싸움은 이웃마을하고 했지. 웅담1리하고, 웅담2리하고 기싸움을 하는 거지. 거기다 농상기가 있었지.

기가 정말 크지. 무엇이냐면(찾아보다가) 깃봉이 없네. 쟁기 꼬리 긴 거. 그거 이만큼 모아가지고, 꼭대기다가 그거 끼고, 그 다음에 나무로 깎은 거, 거기 향아리처럼 생긴 거 끼고, 거기다 깃대 만드는 거야. 깃대가 무지 커요, 깃대는 산에서 베어 오지. 깊은 산에 나무가 뽕뽕이 있는 곳에서 베어 오지. 그게 무지무지 길어야. 그게 한 15미터, 그거 장정이나 메지. 동네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아니면 못 메여. 바람이 막 날리잖아 그러면 그거 뿔뿔에 메어가지고, 여기다 끼어 가지고, 어깨에다가 그거 지는 거지. 아주 장사지. 다른 사람은 들지도 못해. 기싸움은 쟁쇠 가지고 음악을 높이는 거야. 내가 어른이다. 깃대끼리는 안 부닥치고, 워낙 크니까 넘어가면 안 되지. 사람의 기싸움이지. 누가 졌다고 하나? 서로 이겼다고 하지. 그제 놀이지 뭐. 그제 왜 그러냐면 농사 지러 가면 여기 사람 일로 가야 되고, 저기도 이리 가야 되고, 그제 맞닥칠단 말야. 그러면 서로 길을 비켜라, 내가 어른이니까, 하면서 싸우는 거지.

농한기 때에도 놀이하면서 하고, 외길 갈 때에 만나면 또 하고. 서로 안 비키고 기싸움을 하는 거지, 길을 안 비켜 주거든. 사람이 많이 가거든.

다.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1) 직천리 마을개관



〈그림 5〉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와 인근 저수지

직천리는 파주군 천현면 지역 마을이다. 천현면의 천현(泉峴)은 샘재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갈곡리와 삼성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지하를

흘러가다가 가야리 황새말 앞에서 다시 솟아 흐르는 데에서 유래했다.
 천현면은 1895년(고종 32)에 천현내패와 천현외패 2개 면으로 분할되었다.
 1914년에 군면 통폐합때 천현내패면·천현외패면과 과평면의 지천리 일부를
 병합하여 천현면이라 하였다. 1989년에 군 조례 제 1280호로 법원읍으로
 승격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법원읍은 법원리에서 그 명칭을 딴 것인데, 법의리(法儀里)의 '법(法)'자와
 원기리(院基里)의 '원(院)'자를 따서 지었다. 울곡 이이(李珥)의 묘소도 이
 곳에 취치한다. 법원읍 사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
 으로 적성면(積城面), 동쪽으로 양주시 광적면(廣積面), 남쪽으로 광탄면
 (廣灘面), 서쪽으로 문산읍·과평면(坡平面)에 접한다.⁴⁵⁾

직천리는 오현리 수레너미 고개에서 내려가는 산골짜기 냇물이 곧바로 이
 곳을 통과하여 늘노천으로 흐르는 데에서 이름 지어졌다. 1914년에 설원
 동·한터·먼내·벌말·삼박골·상산골·부작동 지역을 직천리라 하였다. 법원읍
 의 10개 법정리인 가야리, 갈곡리, 금곡리, 대능리, 동문리, 법원리, 삼방리,
 오현리, 웅담리, 직천리 중에 하나로, 직천1리와 2리의 두 개 행정리로 되
 어 있다.⁴⁶⁾

마을 주민 유동필(남, 1938년생), 김태화(1944년생)에 의하면, 법원읍 직천
 리는 웅담2리 안쪽에 있는 산촌마을로, 주로 밭농사와 일부 논농사를 짓던
 곳이다. 과거 논이 없어 임진강변의 자장리까지 원정농사를 지었다. 인근에
 1979년에 조성된 마지저수지가 있으며, 이곳은 법원읍 지역 농사에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옆동네인 웅담2리에 미군부대가 주둔(1953-1968년)하던 때에는 기지촌에
 딸감, 야채, 두부, 떡 등을 팔아 생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은 노
 인들이 여가로 짚풀공예를 응용한 종이실 바구니공예를 하면서 시간을 보
 내고, 마을을 특성화하고 있다.

직천리는 양짓말, 벌말, 웅달말로 이루어져 있다. 직천(直川)이란 말은 곧

45) 법원읍행정복지센터>기본현황(www.dong.paju.go.kr 접속일 2018.11.17)

46) 『과주지명유래와 전설』, 과주문화원, 1997, 76~77쪽.

은 내라는 뜻이며, 벌말은 가운데 벌판이란 뜻이다. 직천리는 전체 70호 정도이며, 3곳의 주민 수가 비슷했다. 현재는 50호 정도로 줄었는데, 그 중에 2/3은 외지인이다.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웅담2리를 거치게 되며, 위쪽으로는 마지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산촌이라 논농사는 별로 없고 주로 밭농사를 짓던 곳이다. 논이 적어 주로 자장리로 가서 모내기를 하고 벼 수확하는 일을 거들기도 했다. 1960년대까지 임차료를 주고 그쪽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장파리 마을에도 일부 주민이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장작 땔감을 해서 웅담리의 미군부대 주위 기지촌에 팔아서 생활을 했다. 당시 미군부대가 있던 웅담리에는 장이 별도로 서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가을보리를 심었다. 그리고 콩과 조도 많이 심었다. 술은 호밀로 담았으며, 1주일 정도 담가서 술을 띄웠다. 1960년대에는 세무소에서 밀주 단속하러 나오는 일도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6.25 이전에는 문산장을 주로 이용했다. 그곳까지는 약 20km 정도이다. 그리고 양주의 갯바위장(남면 신암리 인근)에도 다녔는데, 약 20km, 40리 길이며, 그곳에는 우시장도 있었다. 이곳에서 감악산은 약 10km 정도이다.

예전에 이 마을의 장례는 주로 5일장을 지냈다. 4년 전까지 이 마을에 동네 상여가 있었으며, 5일장을 지내기 위해 문상객들은 화투를 하며 밤을 세웠다. 호상일 경우에는 상여 나갈 때에 ‘돈 내라’며 상주를 다루는 일도 있었으며, 상여 조립 후에 상주를 다루거나 상여메기 예행연습인 상여놀이는 없었다.

옆 마을인 웅담리에는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양색시와 각종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섰으며, 주변 경제가 갑자기 활발해졌다. 직천리 주민들은 땔감을 해다 웅담리에 팔거나 야채, 두부, 떡 등을 팔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미군 상대의 장사보다는 인근 기지촌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곳은 휴전 직후인 1953년부터 미 24사단이 주둔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가고, 대신 1965년에 미 2사단이 대신 들어왔다가 1968년에 동두천으로 옮겨갔다. 다만 웅담리에 1개 여단이 판문점

회담 때문에 남아 있다가, 지금은 한국군으로 교체되었다. 이 마을에 사는 최교순씨는 1965년에 미 2사단 카츄사로 있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마을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군들이 들어오니깐, 돈 빼먹을려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죠. 양색시들이 드글드글했고, 하루 저녁에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술집이 많았죠. 미군 때문에 경제는 좀 좋아졌지요. 여기서는 야채 심어가지고 야채 갔다 팔고, 딸감도 팔고, 두부, 떡장사 별거 다 했지요, 나무장사. 미군 상대 장사한 사람은 없었어요. 1953년 휴전되면서 24사단이 여기에 미군들이 상주했어요. 휴전 후에 미군들이 파주 일대에 24사단이 여기에 배치되 되가지고, 웅담리서 부터 디엠제트, 동두천 캠프하우스라고 사단 본부가 있었고. 여기서 동두천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1968년도일거요. 24사단 1965년 10월경인가? 미 24사단이 본국으로 들어오고, 미 2사단이 여기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들이 1968년도에 동두천 쪽으로 갔지요. 제가 미군부대에서 카츄사로 6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1965년도에, 그래서 동두천 캠프하우스 미 2사단에 들어오니깐, 부대 표시가 말 대가리 모양이죠. 그후 웅담리에 일개 여단만 남은 거예요. 판문점 회담 때문에 여단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경제 상황이 점차 쪼그라들은 거예요.(최교순)

(2) 직천리 토박이의 삶

유동필(남, 1938년생)은 창원 유씨로 직천리에서 5대에 걸쳐 살고 있다. 손재주가 뛰어나 젊은 시절부터 각종 생활도구를 직접 만들었으며, 지금도 지(紙)끈으로 각종 도구를 만들어 파주문화원 주최 전시회에 해마다 출품하고 있다. 짚풀공예 작품은 2018년 2월초에 파주문화원 주최의 공예품 전시회에 출품했다. 같은 마을의 김태화(남, 74세)는 안동 김씨로 8대에 걸쳐 이 마을에 살고 있다.



〈그림 6〉 유동화, 김태화의 아들 첫돌 사진



〈그림 7〉 직천리 유동필이 지끈을 이용해 바구니를 제작하는 모습



〈그림 8〉 유동필, 김태화 결혼 사진

예전에 싸리나무로 광주리, 삼태기, 다래키(큰 광주리) 등을 만들었다. 싸리는 응달에 많이 자라는데, 1년생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고 키가 작은 편이다. 주로 1년생을 쓰며, 2년생은 가닥지가 뻗뻗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산에 나무가 많아서 싸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1년생이 1m 이상 자라는데, 이것으로 여러 생활도구를 만들었다.

요즘에는 종이끈인 지끈을 이용해 생활도구 모형을 공예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짚공예도 하는데 짚과 나이롱끈을 이용해 뗏방석도 만들고, 나무를 이용해 각종 목각공예도 만들고 있다. 달래 켈 때에 여자들이 쓰는 ‘종덩이’를 만든 지는 30년 정도 된다. 예전에는 싸리로 삼태기를 만들었는데, 대체로 호남 지역에서는 짚으로 삼태기를 만든다. 유동필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고, 남이 만든 물건을 보고 스스로 만드는 법을 익혔다. 농기구와 생활용구인 썰래, 쟁기, 질마(소 등에 얹는 것), 그리고 멩에, 절구통, 경(소 여물통), 여물 바가지, 여물 주걱 등을 모두 만들고 있다.

지끈은 방산시장에서 구입하며, 그에게 나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배우지만, 젊은 사람들은 없다. 시끈은 색깔 없는 것은 400m에 1만 5천원, 색깔 있는 지끈은 1만 8천원에 구입한다. 지끈으로 소형 짚신을 만들기도 한다. 10월 울곡축제에는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한다.

유동필은 한옥을 짓는 일에도 종사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형님이 한옥을 짓는 대목장이었기 때문에 형님과 함께 한옥을 짓는 편수로 많이 참여했다. 형제가 고양에서 한옥을 지었으며, 목조집도 지었다. 농사를 지으며 집을 짓고, 또한 정미소도 운영했다. 그는 재능이 많은 편이며, 트롯트 노래도 잘 불러, 인근에서 가수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동필은 동네에 초상이 나면 직접 엮을 했으며, 60세에 직천리 이장을 4년간 맡았다.

김태화는 74세로 안동 김씨이다. 이 마을에 8대에 걸쳐 살고 있다. 예전에 안동 김씨가 13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4가구만 남아 있다. 설날에는 명절 차례를 지내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녔다.

곽옥희(여, 1941년생)는 유동필의 부인으로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곤줄에

서 태어났다. 5자매 가운데 넷째 딸이었으며 집안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다. 광옥희는 9세 때 6.25 전쟁이 나면서, 부모님과 셋째 언니, 여동생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모두 시집을 가서 함께 피난을 내려가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수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전라도까지 기차로 이동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주의 수용소로 옮겨서 3년 정도 지내며 학교도 다녔다. 당시 선생님들이 수용소 마당에 거적을 깔고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많았고, 학교는 6학년까지 있어 나중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주었다.

큰언니 둘째 언니는 시집이 있고 셋째 언니하고 나하고 막내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피난은 1.4후퇴 때 비행기가 폭격 떨어져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우리가 뒤란이 커요. 구덩이 이렇게 크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파가지고 농사진거 다 거기다 넣고 나갔어. 하나도 못 먹고. 처음에는 수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전라도로 기차를 또 타라고 해서 태워줬어. 기차에서 밥도 주고 또 그렇게 잘해 주드라고. 기차타고 그냥 가가지고 전라도 수용소인데 단독주택인데 몇 집이 사는 대로 처음에는 갔어. 나 9살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 도시 또 수용소로 우릴 보내드라고. 그래 그 수용소에 가서 학교를. 그래 나 9살에 들어갔어 학교를 가니 선생님이 다 이렇게 수용소에 가마니 깔고 가르쳐서 마당에서. 물난리나면 학교에 이렇게 사는 거 마냥 그렇게 살았어.(광옥희)

광옥희는 3학년 올라가던 12살 때부터 성냥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같은 수용소에 공장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그 친구에게 부탁해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는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다니다가 나 12살 때. 우리 친구가 어디 공장을 댕긴데 그래서 께 보고 ‘나도 너 댕기는데 좀 해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개가 금방 해 주지 뭐야. 그래서 학교도 못 나오고 거기 댕겼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 9살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공장을 간 거지. 성냥공장. 그전에 이렇게 조금 크고 넓고 그 성냥갑. 이거 붙였지. 불 부치는 거. 이렇게 책상에 짹 펼쳐 놔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여서 해놓으면 사장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 나는 일 잘 한다고. 사장도 잘 해주고 언니들도 그렇게 잘 해주고 그랬어.(광옥희)

공장은 3년 정도 다녔는데, 일을 잘해 사장도 인정을 해 주었고, 언니들도 잘 대해주었다. 전주에서 돈도 벌고 잘 지내고 있는데, 큰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세 동생들이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왔다. 그래서 큰언니를 따라 엄마, 언니, 동생과 함께 충청도로 옮겼다. 충청도에 도착하니 일자로 지은 기와집에 피난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족도 그곳에서 생활했다. 충청도에서도 약 3년 가량 살다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외삼촌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다시 덕천리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곤줄이 아닌 샘말에 정착했다.

그런데 15살 때 언니가 데리러 와서 고향으로 간다니까 사장이 돈을 쥐어줬어 차비하라고 주고, 우리 큰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우리가 거기서 산다는 걸 알고, 언니는 충청도로 피난 나가 살았어. 근데 우리가 거기 산다는 걸 알고 거기로 데리러 나왔어. 그래가지고 충청도에 와서 또 살다가. 근데 충청도로 언니가 와서 데려갔는데 오니까 허허벌판에 기와집으로 일자집이 있는데 피난민들 사는데. 내가 막 언니한테 지랄했어. “왜 남 거기서 사는걸. 재밋게 잘 사는걸. 친구도 많고 그런걸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싸웠다니까. 그냥 놀았지 밭에 일만하고 거기서 한 2~3년 살았을걸. 그랬는데 외삼촌이 우리 엄마를 데려가야 한다고 고향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18살에 그때 압튼 또 샘내로. 외삼촌이 와서 데리고 갔어. 곤줄에서 살다가 피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는 샘내서 살다가 여기로 시집 들어왔으니까. 어려서 난건 곤줄이고, 피난 갔다와서는 샘내. 곤줄은 샘내서 고개들어가고 샘내는 이 길로. 적성서 이 길께.(곽옥희)

마을로 돌아와서 18세 때에 미군부대에 취업했다. 외삼촌 올케가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받았다. 당시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마을에도 몇 사람 있었다. 대개 남자들은 세탁일을 하고, 여자들은 다림질을 했다. 그녀는 손빨리 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부대에 다니며 일을 하던 중 22세 되던 해에 친척분의 소개로 결혼을 했다. 이전부터 혼인 얘기는 있었는데, 남편이 제대하고 와서 제대로 선을 보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약혼을 한 뒤, 1년 만에 혼례를 치렀다.

여기 와서 아마 18살에 샘내 와서 또 부대를 땡졌어. 미군부대. 대림질하고 그전에 그랬잖아. 부대는 우리 외삼촌 올케가 애길해 줘서 땡졌어. 그때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 많았어. 우리 동네에서는 나하고 넷인가 다섯이 땡기고. 또 각처에서 왔지 나는 저 카보 있잖아 미군들 요만한 거 그거 빨래 손빨래했어. 미군부대가 컸지 대림질 하는 사람은 대림질 하고 남자들. 또 빨래 개는 사람은 빨래도 개고. 여자들은.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게 재밋게 사는데 시집을 온 거야 또. 더 땡기고 싶은데. 신랑이

군인 갔다왔다고 선보라고. 나는 돈 더 벌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제대하고 선보러 온다 그래. 그래서 시키는대로 했지. 우리 사촌시누. 사촌 시누가 광서방네로 여기 시집을 와 있었어. 그래 만난거지. 집으로 와서 보고는 1년 있다가 결혼했어. 내가 부대땡기니까 일요일이면 놀러오고. 22살에 시집왔어.(곽옥희)

결혼은 법원읍내의 서울예식장에서 했다.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손님들을 대접했다. 음식은 멸치로 육수를 낸 잔치국수를 대접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부부 두 사람만 택시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다. 혼수로는 의장, 이부자리 등을 했는데, 곽옥희가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혼수를 해서,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해 왔다.

시집와서 직천리는 지금처럼 분할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2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다. 자연부락은 직천2리의 날파위, 설원동과 직천1리의 삼밭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60호 가량이 거주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남편의 형과 누나는 혼인을 분가한 상태이고, 막내 남동생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시부모님, 셋째와 넷째 시동생, 동갑인 시누이. 이렇게 7식구가 함께 살았다.

법원리에서 면사포 쓰고 왔어. 시집을 적에. 서울 예식장에서. 신식혼례했어. 면사포 쓰고 택시타고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때는 부주 국수도 하고 감주도 해가지고 오고 돈은 못 받았지. 돈은 없으니까. 예식장서 잔치하고 손님들 다 거기서 먹고 가고 우리는 인제 여기 들어왔지. 내가 돈 벌어 왔으니까. 의장 화장대 끼고 요 의장이랑 이불장 그런 거 해가지고 왔지. 그전에는 없으니까 못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나는 벌었으니까. 해 가지고 왔어. 이부자리하고.

시집오니까 여긴 한 60호 됐어. 큰 마을이었어. 날파위도 여기랑 한 부락이야. 여긴 설원이고. 1리는 저 윗동네 여기 큰 다리를 건너가면 그 너머. 산밭골. 여기가 더 크지. 동네가 1리는 좁지. 시집와서는 시댁식구들이랑 다 같이 살았지. 큰 시누 시집가고 또 큰 아주버님도 만동서 데리고 있고 막내 나랑 동갑내기 시누하나, 셋째 시동생, 넷째 시동생 이들은 다 있었지. 막내 시동생은 공부하느라고 서울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인 갔어.(곽옥희)

약 3년간 시집살이를 하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분가를 했다. 출산은 당시 마을에 산파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받았다. 출산 후 산모에게 쌀밥과 미역국을 주었다. 산모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었으나, 깍두기 같

은 무김치는 치아가 상한다고 먹지 못하게 했다.

큰딸은 스물다섯에 낳았지. 시어머니가 받았어. 쌀밥해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그래. 난 조그만 냄비에 이렇게 해주더라고. 처음에 시집오니까 그때만 깡보리밥 먹었지. 국은 그 전에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미역 넣고 간장 넣고 끓이는 거지. 미역도 법원에서 사오지. 마을에 생선장사하는 사람들은 들어왔어도 고등어랑 이런 거 팔고. 미역은 나가서 사와야 해. 법원을 사람이야.(곽옥희)

세간을 나올 때(분가) 논 두 마지기를 받아서 나왔다. 자기 살림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공장을 다니고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25살에 처음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봄이면 나물을 캐서 팔기도 하고, 인삼밭에 품일을 다니면서 김을 매고, 파종을 하기도 했다. 또 직천리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 기간에는 품삯을 받고 돌을 나르는 일도 했다. 남편도 함께 농사를 짓고 방앗간일과 목수일을 병행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

큰집서 살 때는 일을 얼마 안하고 세간 나와서. 내가 22살에 시집와서 한 3년 살다가 세간 나왔어. 큰딸 낳고 우리 5남매거든 딸 둘 낳고, 그리고 아들 낳고, 아들 하나 외롭다고 또 딸 둘 낳고. 큰 딸 낳고 두 달인가 있다가 나왔어. 나올 때 논 2마지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제 먹고 살면서 우리 아저씨가 방아도 찧고 또 목수일도 땡기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우리 애들 돌보면서 나물도 땡기고 저수지 일도하고. 나는 또 시집 와가지고 집에서 하지도 않던 일을 호미도 안 들어봤지 나도 부대 땡기고 했는데 엄마가 밥해주면 그거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땡기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다 배운 거지. 나물도 땡기고 그냥 저수지 막을 때 노가다도 땡기고. 삼포일 땡기고. 저 전방까지 땡기고. 삼포일은 (인)삼 심잖아? 밭도 매잖아요? 그거 인삼밭이 많았어. 외지에서 들어와서 많이 하지. 강화사람도 하고 김포에서도 들어와서 하고 그랬어. 밭 땡때 가서 풀 뽑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고. 이렇게 쭉 심어. 삼씨, 이렇게 쪼그만 거 이렇게. 삼씨가 요만하잖아? 가늘고, 그거 이렇게 땅 파가지고 쭉 심어. 저수지 일은 돌 날르는 거야. 이렇게 쭉 서가지고 한 명씩 옆으로 주는 거지. 돈 벌고 싶은 사람만 땡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땡겼지. 그런데 그것도 일 잘 해야 뽑히는 거지 일 못하면 쓰지도 않아.(곽옥희)

(3) 직천리의 세시풍속

유동필(남, 1938년생)과 김태화(남, 1944년생)가 구술한 직천리의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 달맞이, 농악 걸립, 햇불싸움, 돌싸움, 윷놀이, 9월9일 산제사, 초가을 참게잡기, 10월 고사와 고사떡 돌리기, 겨울철 짚풀공예 등이다. 특징적인 세시는 음력 9월 9일의 산제사가 있다. 특이하게 이곳은 제당에 무쇠로 만든 말(馬) 형상이 여러 개를 놓여 있었다. 한편 이곳 산제사의 특징은 가구당 각자 제물을 준비해 지계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개인 치성을 올린다는 것이다.

곽옥희(여, 1941년생)가 구술한 주요 세시로는 정월 차례상 상차림, 정월대보름 오곡밥, 3-4월 각종 나물 채취, 5월 말 모내기 품앗이와 곁두리 식사, 추석 송편과 차례상, 10월 고사 등이다.

(가) 유동필 구술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에 조짚으로 해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다. 나이 수대로 짚을 묶어 1m 정도의 해를 만든다.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여 소원을 비는데, 주로 마을 뒤의 산등성이에서 달맞이를 한다.

직천리의 산제사는 음력 9월 9일에 올렸다. 산제당은 마을 뒤편의 산에 위치하며, 주민들은 터를 닦고, 나무 단을 만들어 제물을 진설했다. 그곳에는 말(馬) 모양의 무쇠가 여러 개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말이 없어졌다. 산제사는 밤에 지내는데, 저녁에 산에 올라간다. 각 개인이 지계에 떡시루와 적, 북어, 과일 등의 제물을 준비해서 각자 제사를 지낸다. 이런 점에서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산제사는 없다. 술은 며칠 전에 미리 올라가서 직접 땅속에 담근다.

산제사를 지내는 날은 수십 명이 행렬을 지어 지계를 지고 산에 올라간다. 여자들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여자가 월경을 하면 올라갈 수 없다. 앞 사람이 산제사를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연이어 제사를 지낸다. 진설을 하고, 절을 2번 한 다음에 축원의 말을 하는데, 대개 식구들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으라고 빈다. 직천리의 응달말과 별말이 같이 산제사를 올리며, 다른 마을은 별도로 산제사를 지냈다.

산제사 올릴 때에는 벼를 미리 훑어 햇곡식으로 떡을 한다. 떡은 시루떡이며, 팔, 녹두로 고물을 만든다. 산제사를 지내는 음력 9월 9일은 예전부터 제비가 강남으로 가고, 뱀이 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직천리 산제사는 20년 전쯤에 중단되었다. 가정에서는 예전에 장독대 옆에 터주がり도 만들었다.

예전에는 9월 9일날 매년 산제사를 지냈지요. 건축물 같은 건 없고, 그전 노인네들이 말로 쇠로다가 만들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집이 없고, 흙 터를 닦고, 그 위에 나무 위에 진열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시방은 산지사도 안 지내요. 산제사는 거의 다 했어요. 밤에 7시쯤 올라가지요. 떡시루 끓어지고 올라가서. 개개인이 다 했어. 개개인이 다 지게지고 올라가지요. 여자들은 올라가는데, 멘스 같은 걸 하면 못 올라가요. 부정탄다고 그러지요. 혹가다 적 하나, 복어 있지, 과일 하고, 술도 가지고 가지요. 술은 거기다 미리 해 놓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는지는 몰라도 미리 올라가고, 음달말하고 별말은 여기서 같이 하지요. 저 건너는 따로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저기 서낭당이 있잖아. 거기 서낭당에도 떡시루 갖다 놔지요.

각자 지게 지고 올라가고, 각자 제사를 지내지요. 수십명이 지게 지고 올라가지요. 먼저 가는 사람 내려오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르고 절을 2번 하고, 축은 없지만 자기 입으로 축원을 하지요. 우리 식구 탈 없이 잘 살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남자도 올라가고, 여자도 올라가고 하지요. 부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고 음복을 하고 내려오지요. 돼지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산제사가 없어진지는 한 20년 되었지.

햇곡식 있지요. 처음 훑어서 그걸로 떡을 해서 올리지요. 떡을 시루떡이지요. 팔을 넣고, 녹두도 넣고. 음력 9월 9일에는 벼 수확하기 힘들어요. 9월 9일 그날은 제비가 강남에 가고, 뱀도 땅으로 들어가고, 그런 날이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터주がり도 장독대에 해 놓고 그랬는데, 집안에 해 놓고.

처서가 지나면 냇가에서 참게를 잡았다. 이곳 임진강에는 참게가 많이 올라왔으며, 가을에 내려가는 것을 잡아서 계장을 담았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드문 편이며, 현재 적성면 임진강변 두지리의 어느 음식점에서 그때의 계장 맛을 내고 있다.

예전에 10월에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온 동네가 다 나누어 먹었다. 떡 고사를 할 때에는 떡을 헛간, 대문, 광, 부엌, 대청에 나누어 놓았으며, 변소에는 조금 갖다 놓았지만, 이 떡을 먹지는 않았다.

(나) 관옥희 구술의 세시풍속

정월에는 떡국을 끓여 차례를 지낸다. 정월 차례상에는 두부, 나물, 떡, 부침개 등을 올렸다. 두부는 집에서 콩을 갈아 만들었고, 나물은 무나물과 산에서 캐어 말려둔 나물을 삶아서 볶아 놓았다. 정월에 세배를 다녔는데, 당시 세뱃돈을 주지는 않았고 대신 음식을 대접했다. 손님 음식으로 술, 감주, 엿 등을 내놨다. 엿은 보통 수수, 쌀, 찌라기와 옥수수로 만들었다. 감주도 질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리 담근다. 술도 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직접 담는데, 마을로 다니며 밀주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지는 못했다. 명절 장은 적성장과 법원읍장을 보았다. 지금은 적성장이 크지만, 당시엔 법원읍 장이 더 컸기 때문에 주로 법원장을 다녔다.

세배하러 오면 옛날에는 세뱃돈 안 줘. 그냥 먹을 거, 엿 과서 놓은 거, 떡한 거 주고 그랬지. 엿은 수수로도 고고 쌀로도 고고. 엿은 저 옥수수 먹다가 남잖아. 그거하고 찌라기하고 섞어서. 갈아가지고 하는데. 엿은 추울 때 만들어야 좋아. 찌라기하고 옥수수 갈아가지고 질금가루 해서 솥에다가 풀어가지고 물 좀 넣고 췌. 췌가지고 인제 그걸 찌. 그걸 색혀(삭혀)가지고 해야 돼. 췌서 한 두 서너시간 색혀야 돼. 그걸 인제 찌가지고 찐 걸 대리면 이렇게 달아. 건더기는 동물 주고. 불 때서 자꾸 데리는 거야. 한 며칠 해야 한다니까. 하루 종일 한 이들은 가야돼. 이렇게 죽 해서 조금 떠서 한데다 놔 그럼 탄탄하면 된거야. 안되면 더 대려야 돼. 그릇에 퍼놓고. 밖에 내 두면 겨울이라 괜찮아. 먹을 때 조금씩 떠서 두면 굳잖아 그럼 거기에 콩가루 이렇게 묻혀서 애들 주고. 감주 많이 담가 먹지. 질금에 걸러 그래서 꼭 짜서 그럼 물이 가라앉잖아. 그럼 밥해서 밥통에다 밥해. 그래서 (질금) 물을 쭉 따라 부어 그 찌개기는 놔두고. 그럼 감주가 인제 몇 시간 있으면 밥알이 이렇게 동동 떠 그럼 밥알 따로 건졌다가 물은 끓이고 찌꺼기는 물 좀더 부어서 났다가 가라앉으면 그거 끓일 때 같이 끓여.(곽옥희)

정월 대보름에는 좁쌀, 수수, 쌀, 찹쌀, 차좁쌀을 넣고 오곡밥을 했다. 나물로는 취나물이나 시래기를 무쳐 먹었다. 음력 2월에는 장을 담근다. 손 없는 날을 잡아 장을 담그며, 한 달에 걸쳐 고추장을 먼저 담근 뒤, 간장과 된장을 담는다. 고추 농사가 잘되지 않아 고추장은 장에서 사다가 먹기도 했다. 질금도 장에서 보리를 사다가 미리 만들어 두고, 고추장과 감주를 만드는데 두고서 사용한다.

메주를 물에 담야. 솔로 옛날엔 짚으로도 담고. 덩어리 메주 5덩어리 맨들면 거기서 (장을) 한 동이 두 동이 맨든다. 그러면 소금을 한 동이에 4양재기씩 소금을 4양재기씩 넣는 거야. 간장이 맛있다고들 그래. 소금물에 메주 담가서 그 다음에 인제 넣어놔. 한

한 달은 담가야지. 넣어 놔다가 장물 물 푸고 이제 간장독이 있잖아. 그럼 인제 거기다 가져다 부어. 그리고 인제 메주 건져서 된장 맨들고. 간장은 또 대려야 돼. 가마솥에 한번 끓이면 되지. 팍팍 데려야지. 된장은 인제 고추씨 넣고 그렇지 않으면 풋고추 빵아서 넣고. 고추장은 빨간 고춧가루로 담그지. 된장 사다가 집에서 푸래기 썰가지고 담가. 고추장은 다른 장보다 먼저 담가. 고춧가루 많지 않으니까 조금 해야지 집에서 빵아가지고. 우리는 찹쌀로는 안 해보고, 저 된장 사다가 밀가루로 푸래기 썰어가지고. 질금은 보리사다가 담갔다가 구멍 송송 뚫어진 그릇에다가 건져 놓으면 가끔 물 줘야 돼. 그럼 인제 자라면 다 가져다 건져서 햇볕에 널어. 이제 그거 가져다가 빵아 놓으면 돼. 고추장 해먹고 감주 해먹고.(곽옥희)

농사는 음력 3월에 시작한다. 감자를 제일 먼저 심는다. 논과 밭은 소로 갈았고, 곽옥희의 집에서는 3~4마리의 소를 키웠다. 소는 당시 큰 부업이었는데, 그녀 부부도 소를 길러서 땅을 살 수 있었다. 소죽은 주로 짬, 소풀, 콩깍지를 끓여서 주었으며, 이 일은 집안에서 남녀 가리지 않았다.

소 많이들 키웠지. 우리도 3마리 4마리도 키우고 그랬어. 이거도 소 한 마리 크게 길러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좀 벌고 해가지고 이 집터 산거야. 소 죽 끓여주지, 짬 끓여서 멕이고, 풀 버다가 끓여가지고 멕이고, 콩깍지 끓여 멕였어 이전에는 여자 남자 다 하는 거야.(곽옥희)

음력 3~4월에 여성들의 주요 생업은 산나물을 캐는 것이다. 곽옥희도 나물을 많이 캐으며 마을 야산과 멀리 무그니 고개까지 가서 캐다. 나물은 취나물, 메타리가 많았으며 집에서 일부 반찬으로 쓰고, 주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마을 내에 나물을 받아서 서울에 파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가 마을 여자들 가운데 나물을 가장 많이 캐서 팔았다. 또 남는 경우에는 집에서 반찬으로 먹거나, 말려 저장해 두었다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 차례에 사용하기도 했다. 나물 양념은 조선간장, 파, 마늘, 깨, 들기름이 쓰였으며, 주로 무치거나 볶아 먹었다.

여기 나물 많았어. 취나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지. 3~4월이면 하지. 산에 여기 앞산, 뒷산 다 하고 또 그전에는 무그니 고개도 가고 거기 산에. 거기까지 가서 해오고 그랬어. 취나물, 메타리, 또 별난 나물 많아. 먹는 거는 다했어. 그래 나물 장사가 있어. 마을 사람이야.

지금 마을 올라오는 길에 거기 지금 소 키우는 축사 있는데 원래 그 자리였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싸가지고 가져다주면 다 받아 줬어. 받아서 서울 가져다 팔지. 캐다가 요렇게 삶아서 요렇게 요렇게 쥐어서 똥그랗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다 받았어. 이렇게 지금 시래기 재져서 파는 것 마냥. 그냥 삶아서 짜서 가져가 말리지 않고. 서울 가서 금방 팔지. 우리가 저녁에 가져가면 그이는 아침에 가져가지. 우리가 아침에서 가서 나물 해 와서 가져가면 식전에 가서 팔고. 값이 뭐 있나. 한 요거에 얼마씩. 마을에서 나물하는 사람 나하고 지금 돌아갔어. 아줌마 하나하고 아가씨도 하나 했었어. 근데 내가 제일 많이 했어. 팔고 먹고 볶아도 먹고 무쳐도 먹고. 우리는 조선간장이니까 지금도 그래. 파, 마늘, 깨부생이, 들기름 그렇게 볶으면 맛있어 나물도.(곽옥희)

마을은 60호가 모두 농사를 지었다. 밭농사와 논농사를 함께 지었으나, 벼의 소출은 많지 않았다. 주식은 잡곡으로 조밥과 보리밥을 많이 먹었다. 밀도 많이 심어서, 가루를 내서 국수와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3월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 감자를 가장 먼저 심고, 잡곡을 중심으로 밭작물들을 심었다. 대개 집에서 먹을 것을 먼저 재배하고, 남을 경우에는 장에 내다 팔았다.

여긴 논이 별로 좋은 게 없잖아. 쌀은 별로 안 났어. 쌀밥을 못 먹었어. 시집와서 난 집에서 쌀밥만 먹고 왔는데. 깡조밥하고 깡 보리밥만 먹었어. 응 조, 수수 그러거 많이 심었어. 보리, 밀도 좀 심고. 밀은 인제 쪼여가지고 빵아서 우리 애들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빵을 찌워. 들며날며 먹으라고 내가 매번 그렇게 해줬어. 빵은 인제 저기 베킹과 우다 넣고 반죽해가지고 팔 삶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나 찌놓으면 나중에 학교도 가져가고 호빵도 해주고. 이렇게 부치는 거. 기름에 이렇게 길에서 겨울에 호빵 팔잖아. 속에는 팔 넣고. 농사 음력 3월부터는 감자도 심고 뭐 하지. 집에서 먹지 많은 사람은 팔기도 하지만. 팔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남으면 적성장에 팔아. 적성장 커. 새덕 일 때는 법원장이 더 컸지. 그때는 버스타고 곰소서 내려서 한 30분 걸어 들어와.(곽옥희)

모내기 5월 말에 가까운 집끼리 품앗이로 했다. 곽옥희 내외도 처음에는 논 두마지기로 시작했으나, 부부가 착실히 돈을 모아 나중에 논을 더 사면서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다. 후에 부부가 나이 들면서 농사일이 힘들고, 다른 부업이 더 수입이 좋아지면서 농토를 처분해서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다.

모심는 날은 7시부터 모내는 집에 모인다. 여자들은 품앗이를 하고, 자기 집에서 모를 내는 날은 음식을 준비한다. 아침 결두리, 점심, 저녁 결두리로 3끼를

낸다. 결두리는 국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나, 곽옥희는 팔죽, 콩죽을 준비했다. 팔죽에는 찹쌀로 웅심이라도 빻어 넣기도 했으며 점심은 쌀밥을 대접한다. 반찬은 여름 농사지은 채소와 김치, 그리고 두부를 만들었다. 또, 마을에 법원리 사는 생선장사가 들어오면 고등어를 사다가 내놓는 경우도 있다. 여자들은 하루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음식을 집에서 논까지 나르는 일을 했다. 따라서 모를 내는 날에는 설새 없이 바빴다. 결두리와 식사를 낼 때 반드시 술을 함께 내는데, 주로 막걸리이고, 약주를 내기도 했다. 곽옥희도 법원장에서 누룩과 술약을 사다가 술을 담가서, 광에 보관했다가 찼다.

아유, 그전에는 모 많이 내려 댕졌지. 우리도 농사 지니까 나도 많이 다녔지. 시어머니가 세간나올 때 2마지기 준거에다 우리가 또 한 서너 마지기 더 샀어. 그렇게 해서 깃다가 이 양반이 노가다 댕긴다고 팔았어. 목수일. 지금은 하우스도 지러 댕겨. 모내는 날은 그 집에서 저녁 결두리까지 해놔. 우리도 우리 집에서 하면 결두리까지 하면 그거 먹고 다들 저녁들은 안 먹어. 한 아침 7시부터 할걸. 아침 일찍부터 음식 해야지. 아침결두리, 점심, 저녁 결두리 세끼 나가지. 팔죽도 쭉고 콩죽도 쭉고 그랬어. 결두리는, 콩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걸러 걸러가지고 죽을 쑤. 비지는 이렇게 짐승주고, 팔죽도 그래 팔도 삶아가지고 걸러, 쌀 넣고 인제 쭉면 찹쌀 웅수래미 이렇게 넣으면 맛있죠. 점심은 밥, 쌀밥이지. 저녁 결두리도 죽, 밥하는 사람은 밥하고, 못줄 이렇게 죽 치고 심으면 재밌었어. 우리 끼 심는 날은 나는 일은 안하지 종일 밥하지. 가서 얻어먹는 날은 그냥 일만하고 얻어먹고, 반찬은 내 집에 농사지으니까 두부도 해서 넣고 한 말씩 해서 넣고 나물도 넣고 김치 담그고 해서 냈지. 해서 다 내가야 해. 혼자는 못 하지. 둘이서. 다 사기그릇으로 하지. 스댕 양재기 나오면서 좀 낫지.

술 참은 많이 나가지. 남자들은 많이 잡숫지. 우리(여자)들은 끼니만 먹지. 술도 많이 담갔지. 농주 이렇게 해가지고, 쌀로 약주술로 만들었지. 누룩은 사다가 하고 술약 그걸로 피는 거야. 찹쌀을 시루에 찌서, 찌서 이렇게 농잖아. 그럼 이제 술약을 버물버물해서 폭 덮어서 아랫목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쌀이 하얗게 피잖아. 그럼 이제 물 부어서 제일 밑에 거는 막걸리 짜먹고 위에 거는 약주술 노랗게 되잖아. 약주술은 따로 먹고, 술은 쌀로다.(곽옥희)

모내기는 주로 이웃 간에 품앗이로 하기 때문에, 모를 다 낼 때까지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 물은 저수지가 있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논매기는 모내기와 마찬가지로 품앗이로 하며, 농사가 많은 경우에 품을 사서도 김을 댔다. 김매기가 끝나고 여름에는 남자들은 풀을 베서 퇴비를 만들었다.

이 무렵의 중요한 일은 보리를 타작하는 일이었다. 보리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심는 양이 많아서 타작도 힘든 일이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보리타작을

했다. 마을에서는 보리타작을 ‘보리마당질’이라고 불렀으며, 여름철 작업을 하고나면 땀이 많이 나고 겨가 붙어 지저분했다. 그러면 마을의 개천에 가서 목욕하고, 아이들은 수영하며 놀았다. 보리 털고 난 겨는 모아두었다가, 부엌에서 밥하는데 땀감으로 사용했다.

추석의 송편으로는 흰 송편 한 가지를 빚는다. 속은 팔이나 풋콩을 찐다. 탕은 무국을 끓이는데, 다시마와 두부를 엮었다. 음식 준비하는 것은 설날 차례상과 거의 비슷하다.

여름에는 보리 털지. 남자 여자 같이. 도리깨질도 같이하고 나도 많이 해봤는데 같이. 보리마당질 하면 드러워지니까 개천가서 목욕도 많이들 하고 그랬지. 털고 나서 겨는 밥불 넣고. 보리 찢으면 밥 먹는 거지. 깡보리밥 여름내. 보리밥만 다른 건 없어. 추석에는 송편하지. 쭉 들은 건 안했어. 그 전에는 하얀 거만 하지. 속은 팔, 깨도 넣고 콩도 풋콩 저거 넣고. 송편 차례지내고 탕은 무국 끓이다가 다시마 넣고 끓이다가 무랑 다시마는 건져서 제사상에는 무 올려놓고 다시마 올리고 두부 한 덩어리 올려서 제사상에 올리지. 다시마도 국물 내는데 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찢라서 위에 이렇게 올리고. 모양내는 거로.(곽옥희)

9월 9일은 ‘중구’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고사를 지낸다. 10월에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서는 중구에 집안 고사를 지내고, 이날 마을 제사도 지낸다. 그래서 중구는 ‘떡 해먹는 날’로 알려져 있다.

집안 고사는 시루떡을 찌서 집안 곳곳에 두고 가신을 위한다. 곽옥희의 경우에는 성주, 장독대, 대청, 소외양간에도 두었다. 고사 때에 시루떡과 북어, 사과와 배를 차리고, 막걸리를 올린다. 세간을 나와(분가)서는 향아리나 바가지에 곡식을 담아두는 성주를 하지 않았다. 마을 제사는 산제사로 지냈는데, 여자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남자들이 그것을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9월 9일이면 이 동네가 다 했어. 고사. 9월 9일 날 떡 해먹는 날이야. 가서 산에다 산제사도 지내고. 마을제사도 지내고 집집마다도 지내고. 산제사는 여자들이 해서 주면 남자들이 가지고 올라왔지. 집안 고사할 때 시루떡 해야지. 팔, 이렇게 해서. 집안에 성주 있는 데다가 상 놓고 시루 놓고. 북어 하나 놓고 또 과일 사과, 배 놓고 막걸리 한잔 따라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성주 따로 모시는 건 없고 그냥 집안에 상만 놓고. 외양간에도 하나 놓고. 장독대에도 놓고. 떡은 이제 노파 줘야지. 나뉘먹지.(곽옥희)

김장은 음력 10월 말에 담근다. 주로 달랑무 김치(총각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세 종류를 담는다. 세간을 나와서는 식구가 부부와 어린 아이들뿐이라 큰 항아리로 1독만을 담갔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고, 짚으로 움을 지어 겨우내 얼지 않게 했다.

배추도 지금과 같이 알찬 배추가 아니라 잎이 퍼지는 조선배추를 썼고, 고추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인 좋지 않아 지금처럼 넉넉하게 고춧가루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추와 재료를 마을의 우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씻어왔다. 젓갈은 새우젓국을 조금 넣었다. 그래서 김치는 소금을 가장 많이 넣고 담갔다. 새우젓은 마을로 들어오는 장사꾼에게 사거나, 시장 나가서 구입해 두었는데, 값이 비싸서 많은 양을 쓰지는 못했다.

여자들이 일년에 가장 마지막 일은 메주를 담는 일이다. 메주는 콩 1말 정도를 쭈었고, 겨우내 띄운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쭈었으며, 음력 1-2월에 날을 받아 장을 담근다.

김장은 김치 달랑무하고 배추김치하고 동치미. 그거 했지. 지금도 그래. 항아리 묻었지.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세간 나와서는 큰 거 한동이 묻었지. 식구가 둘에 애들 어리니까. 짚으로 움지어서 얼지 말라고. 심어서 해먹지. 어떻게 사. 고추가 잘 안됐지. 그래도 심어서 먹었지. 그래서 (김치를)지금처럼은 못해먹었지. 물도 없어서 우물에 가서 씻고. 배추도 안 좋지. 소금으로 절이고 젓갈은 새우젓. 마을로 젓갈 장사가 땡겼어. 시장 나가서도 사고 땡기는 거 사서도 쓰고. 비싸서 많이는 못 넣고.(곽옥희)

김장하고 메주 썰야지. 혼자 하지, 금방. 찌서 썰서 맨들어 놔다가 정월에 장 담가야지. 콩은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서 인제 저녁 되면 인제 짤아야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맨들어. 틀은 없고. 그래서 방에다 말려야지 인제. 불 때니까. 그럼 저절로 말라. 그래가지고 인제 매달아놔. 매달아 놔다가 바짝 마르면 선달그름 깨썬 내려서 인제 뜨듯한데다가 놔야 띄우지. 그럼 인제 3월에 장 담그지. 음력으로 2월. 좋은 날이 있지. 손 없는 날.(곽옥희)

땡나무를 하는 것은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이다. 나무는 마을 야산에서 주로 했으며, 이때 여자들이 함께 가서 도토리를 땀다. 이렇게 따온 도토리는 가루를 만들어 목을 쭈어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나무는 남자들이 해왔지. 이 산에서 다 했지. 나무하면서 그전에는 도토리도 많이 땀어. 그때 따면 한 바구니씩 했어.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양금해서 깎아가지고 담갔다 물 부어가지고 가서 갈아다가 걸러 얹히면 이렇게 물 쪽 따라버리고 양금만 건져가지고 널면 가루가 돼. 그걸로 묵. 다른 건 못해.(곽옥희)

동지는 특별히 챙기지 않았다. 애동지, 노동지가 따로 있으며, 팔죽은 노동지에 쭈어 먹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 그러나 곽옥희는 남편 생일이 동지와 겹치기 때문에 팔죽을 쭈고 고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

(4) 직천리의 놀이

직천리에서 남찬우(남, 1938년생)가 구술한 놀이에는 햇불싸움, 돌싸움, 윷놀이, 농악, 팽이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짚공차기, 땅따먹기, 고누, 참외서리, 화투, 골패, 찢매타기 등이 있다. 곽옥희(여, 1941년생)가 구술한 놀이로는 윷놀이, 널뛰기, 공기놀이, 사방치기, 술래잡기가 있다.

(가) 남찬우 구술의 놀이

윷놀이대회는 정월대보름 전후에 마을에서 상품을 내걸고 했다. 상은 주로 농기구로 팽이, 삽, 호미 등을 준비하거나, 주방용품으로 밥그릇, 전기밥솥을 준비했다. 근래에 윷놀이대회는 마을기금에서 1년에 약 3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마을기금은 예전에 마을장례 때에 상가집의 기금을 주로 받았으나 요즘은 장례식장이 일반적이라 마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직천리는 통신안테나 임대료가 마을 기금의 주요한 수입이 되고 있다.

팽이는 좌우 균형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잘 깎는 것이 중요하다. 장구팽이는 위아래가 길쭉한 것으로 다른 팽이보다 비교적 잘 도는 편이다. 논두렁 주위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 베어놓은 소나무가 팽이 만들기에 좋다. 이것은 물기가 적당히 있어서, 팽이를 깎으면 ‘웅웅’ 소리가 나면서 잘 돈다. 마른 나무로 깎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팽이 밑에 다마(구슬)을 박으면 얼음 위에서도 잘 돈다.

팽이는 그거는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야 잘 돌지, 균형이 안 맞으면 잘 안 돌아. 긴 게

장구팽이라는 게 있지. 그전에 논두렁에 박은 거, 물길을 만드는데 산에서 소나무 베다가 논두렁 만들잖아요. 소나무는 물에서 생전 가도 안 썩어요. 그 소나무로 팽이를 깎으면, ‘웅웅’ 소리가 나는 게 잘 돌아요. 일반 마른 나무로 깎으면 웅웅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치면은 ‘윙윙’ 소리가 나요. 다마를 박으면 잘 돌고, 얼음 위가 좋지.

썰매는 4각형 모양에 바닥에 살을 양쪽에 철사를 붙인다. 가운데에 철사 한 가닥을 하는 것을 ‘발썰매’라고 하는데, 뒤뚱거리지만 균형을 잡으면 오히려 더 잘 나간다. 얼음 깨진 사이로 썰매를 타고 건너간 적도 있다. 썰매는 앉아서 타는 방식이 있고, 서서 타는 방식도 있다. 예전에는 철사가 귀한 편이었다.

썰매도 많이 만들었지요. 그러기에 살 두 개에 타는 거, 살은 철사로 했지요. 철사 구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양쪽에 철사를 놓지요. 철사가 하나 있는 거를 발썰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썰매는 뒤뚱대며 잘 나가고, 이게 회전을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전에 얼음 깨놓고 그 위로 썰매 타고 건너가고, 재미로다가.

연은 문창호지와 짜리나무로 만든다. 이곳은 대나무가 없어서 짜리나무 가지를 대신 사용하지만, 대나무가 짜리보다 강한 편이다. 나중에는 대갈퀴의 대나무를 뽑아서 만들어 썼으나, 갈퀴도 이전에는 산에 있는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다. 연자세는 4각과 6각으로 직접 만들었다. 연자세가 잘 돌아야 연이 자동으로 잘 풀어진단다. 실이 귀해 바느질하는 실을 몰래 훔쳐서 연을 날렸다. 그리고 연싸움도 했는데, 사금파리를 깨서 여기에 밀가루 풀을 쑤어 먹이면, 상대방 연이 꺾꺾 나간다. 정월 대보름날에 연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연은 문창호지로 했지요. 모양은 방패연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방패연은 대나무 대신에 여기서는 짜리나무로 했지요. 여기서는 대나무가 없으니깐. 칼로 짜리나무를 얇게 깎아서 쓰지요. 아무래도 대나무가 더 강하지요. 힘이 더 세지요. 구부리는데 잘 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꺾여지지요. 대갈퀴는 나중에는 좀 썼지요. 옛날에는 갈퀴를 산에서 물푸레나무라는 것으로 말려서 만들어서 썼어요.

연자세는 가운데 철사 넣고, 사각이 있고, 육각이 있고 그러지요. 육각도 만들어 봤어요. 연줄 그냥 올라가면 그냥 주르르 지가 저절로 올라가지요. 그 전에 엄마 바느질하는 실을 몰래 훔쳐다가 했지요. 별 거 다 했어요. 사기 밥사발 깨진 거 곱게 빻아서 풀을 쑤어서 사기가루를 거기다 매긴다고, 밀가루 풀을 쑤어서 사기를 묻히면 실이 꺾꺾 나

가고 그래요. 그 전에 광목이라는 것 있었어요. 수건으로다 싸매고 했지요. 직접 손에 닿으면 살이 펍펍 나가지요.

비석치기는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세운 돌을 맞추며 논다. 이것은 손으로 쳐서 맞추는 방식이 있고, 발로 쳐서 맞추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치기는 남자들이 일대일로 편을 나누어 노는 놀이로 100자 나기를 많이 했다. 여러 명이 편을 나누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짚으로 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다. 새끼로 둥그렇게 만들어서 발로 차며 노는 방식이다.

여름철에 참외서리도 많이 했다. 예전에 아이들은 여름 저녁에 남의 참외밭에 몰래 가서 서리를 했다. 동네 참외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참외도 서리를 했다. 대략 15-16세 정도의 나이에 했는데, 미리 약속하기를 들키면 무조건 뛰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뛰자, 놀래서 멍모르고 덩달아 뛰었던 기억이 있다.

화투는 이곳에서 농한기에 많이 하는데, 노름성이 강했다. ‘도리짓고땡’ 주로 했으며, ‘쪼이’와 ‘섯다’도 했다. 노름하는 사람은 땅문서를 잡히는 일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점당 100원 고스톱을 하며 논다.

골패는 마작보다 크기가 작다. 숫자로 1-12까지로 되어 있으며, 패는 삼십 여개로 이루어졌다. 직접 해 보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소뼈다귀 뒤에 대나무를 붙였으며, 구멍을 파서 숫자를 표시한다. 오락으로 즐기는 방식이다. 디마지, 5포, 이로구가 있는데, 이로구가 가장 비싸다.

땅따먹기는 둥글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작은 돌을 튕기며 상대방의 땅을 따 먹는 방식이다. 고누는 돌이서 놀았는데, 한칸씩 움직이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 지게 된다. 호박고누를 많이 하고 놀았다. 씨름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했으며, 장터에서는 모래 가마니 들기 시합도 했다

(나) 광옥회 구술의 놀이

정월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서 다함께 윷놀이를 한다. 광옥회는 최근에 윷놀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시집을 와서는 정월에 윷놀이나 널뛰기 등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

스러웠기 때문이다.

정월에는 윷놀이들 해. 이장이 저거 해가지고 면에서들 해. 같이 해. 직천2리 1리 같이 해. 상품은 여러 가지 이장이 사다놔. 밥해먹고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땡겼어. 지금이나 땡기지. 어디 시집은 이가 못가. 흥이 많아서. 못 땡겼어 시골에선 말이 많아서. 새댁이라 어딜 나가? (곽옥희)

어린 시절에 놀이를 그나마 많이 할 수 있었다. 기억하는 놀이는 모두가 피난지인 전주에서 놀던 것으로, 수용소에 또래 친구들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놀 때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어울려 놀았는데, 여자 아이들은 주로 공기놀이, 사방치기, 술래잡기 등을 했다.

놀이는 피난 가서 많이 했어. 피난은 전라도 전주. 친구들이랑 공기랑 고무줄 그런 거 했지. 전라도가 친구가 제일 많고 좋았어. 그리고 예전에 이거 껏껏 발 짚고 땅바닥에 그림 그려가지고 돌 이렇게 여기서 던져가지고 사방치기. 그거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애들 많았지. 6학년 졸업반까지 있으니까.(곽옥희)

라.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1) 자장리 마을개관



〈그림 9〉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적성면은 본래 적성현 지역으로, 적성 읍내였이므로 현내면이라 하였으며, 읍내·관동·가월·검상·주월·설마 등 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동면(東面)의 객현·백운·장평·송현·산덕·율포·어유지·적암·늘목의 9개 동리와 서면(西面)의 두지·마지·식현·도장·무건·답곡·자장·현석·장파의 9개 동리 또, 마전군 군내면의 삼화리와 장단군 고남면의 장좌리, 양주군 영근면의 하원리 일부와 파주군 파평면의 천천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적성면이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 당시의 적성면은 구읍·가월·주월·설마·객현·율포·늘목·장현·어유지·적암·두지·마지·무건·식현·장파·답곡·자장·삼화·장좌 등 19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45년에는 파주군 관할이 되었으며, 1946년에 남면이 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63년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늘목리와 삼화리를 연천

군 전곡면과 미산면에 넘겨주면서 17개 법정리가 되었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장파리를 파평면에 넘겨주고 현재는 16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⁴⁷⁾

마을주민 장형섭(남, 1936년생)에 의하면,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는 휴전선 8km 남쪽의 최북단 마을로, 임진강을 끼고 있다. 강 건너에 고랑포, 경순왕릉,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 등이 있다. 예전에 강 건너 고랑포에서 장을 봤으며, 옆의 장파리(미수복 군용지)에 출입농을 했다. 자장은 붉은 황토란 뜻으로, 옆에 임진강이 있어 토질이 끈기가 있고 기름진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농업이 성행한 곳이다.

예전에 마포까지 늘배가 드나들었으며, 과거 모내기 시절에 전북 부안에서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20여일간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 장례 풍속으로 3일장 직후에 무당이 망자의 영혼을 달래는 ‘자리걷이’가 성행하던 마을이다.

(2) 자장리 토박이의 삶

장형섭(남, 1936년생)은 인동 장씨로 자장리에서 6대에 걸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이 마을은 3.8선 근처라 6.25가 갑자기 터지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고초를 겪었다. 1.4후퇴와 중공군 3월 대공세 때에는 2번에 걸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며, 전후에 인근 장파리에 가서 출입농을 하기도 했다.

한편 1950년대 중반에 2년간 미군부대 주변에 가서 물건을 팔아 그 수입으로 소를 구매했다. 당시 미군 상대로 모자를 팔면 하루 쌀 3말(4일치 품삯), 아사히맥주를 팔면 쌀 1말, 위스키를 팔면 쌀 5말을 벌었다고 한다. 2년간 장사하다가 나중에 단속이 심해지면서 그만 두었다.

47) 적성면행정복지센터>기본현황(www.dong.paju.go.kr 접속일 2018.11.17)



〈그림 10〉 파주시 자장리 장형섭 제보자

한편 그는 적서국민학교(1회) 4학년 때에 30명의 학생이 도요타 트럭을 타고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선죽교와 만월대를 둘러보았으며, 5학년 봄철 수학여행에는 서울의 창경원 벚꽃 구경을 한 기억이 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매우 협조적이며, 마을 유래와 배경, 전쟁 경험, 농사와 각종 놀이 등을 차분히 잘 구술해 주었다.

자장리는 현재 자장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으나, 전쟁 전까지 자장리는 1구와 2구로 나뉘어 있었다. 자장리 전체는 80여 호가 거주했으며, 자장리의 지명은 붉은 자(紫)에, 긴 장(長)을 쓴다. 마을 주민들은 붉은 진흙, 황토가 많아 붉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다.

자장리 1구와 2구는 각각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구는 큰말(20호 거주)과 영청이(20호 이상), 2구는 대추나무골과 샘말로 되어 있다. 이 두 마을 사이에는 독가촌이 있다. 영청이에는 현재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자장리가 볶을 자 긴장 자니까 여기 저쪽으로 내려가서 빨간흙이 많았어요. 진흙. 요즘 황토라 그러죠. 예전엔 자장리 1구 2구 그랬죠. 여기가 2구예요. 자연부락 따로 있죠 너머는 배추나무골. 한 4집 살았고. 샘말이라고, 이 옆에 또 있어요. 서남쪽으로. 배추나무골이 동북쪽. 여기가 큰말이라고. 소위 양반님들 살던 저쪽으로 영칭이라고. 마을명이야. 여기서 남서쪽 큰말이 영칭이라 비슷했는데 전체가 한 80여호. 2구가. 큰말이 기와집이 있고 한 20호 정도. 영칭이가 조금 많았을 거예요. 또 사이사이 독립가옥들이 몇 집 있었어요. 지금 영칭이에는 외지사람들이 집짓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사람은 없고.

장형섭은 인동 장씨로 연천에서 6대조 조상께서 자장리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장형섭은 적서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학교의 1기 졸업생이기도 하다. 현재 학교는 새로 지은 것이고, 장형섭은 장파리의 간이학교를 다니며 거기서 졸업을 했다.

사변 전에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개성과 서울에 다녀온 기억이 있다. 당시 수학여행은 4~6학년 학생만 갔는데, 4학년 때에는 개성으로, 5학년 때에는 서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개성으로 갈 때는 바퀴 6개 달린 도요타 차 트럭을 타고 갔다. 개성은 마을에서 80리 거리로 선죽교, 만월대 등을 구경했다. 서울로는 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봄 소풍이었으며, 서울의 창경원, 중앙박물관 등을 구경했다.

나는 적서국민학교죠. 졸업반 1회 졸업생이에요. 적성의 서쪽에 있다 해서 적서. 옛날엔 학교를 저 장파리 산골에 간이학교라고 있었어요. 조그맣게 교실 2개. 근데 인제 학교 새로 짓고. 그때 학교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일로 와서 거기서 첫 회 졸업생을 내고 거기. 인제 그 다음 학생들 6학년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와서 한 2,3개월 다니다가 사변이 딱 난거죠. 6학년 졸업을 하고 한 4개월 있다가 전쟁이 났죠.

졸업하기 전에 수학여행을 땡길 때도 열차 타고 땡겼어요. 여기 문산역이 있었어요. 여기 종착역이에요. 예전에는 역도 문산, 금천, 일산, 능곡, 수색, 신촌, 서울의 7개 역 밖에 없었어요. 사변 전에 그때 수학여행 갈 때 곳간차 타고 땡겼어요. 그때 창경원하고 박물관 가고 몇 군데 땡겼는데. 봄소풍으로 알고 있어요. 당일치기죠. 개성 한번 갔었고. 개성 갈 적에는 도요타 차. 바퀴 6개 달린 거 큰 차타고 갔죠. 앞부분이 이렇게 길고 그 차에 한 30명 이래 타죠. 개성은 선죽교 만월대 몇 군데 다 땡겼어요. 피 흘린 자죽도 보고. 수학여행은 4,5,6학년만 갔으니까 우리가 제일 선배니까. 개성은 여기서 한 80리 밖에 안 돼요.

6.25 전쟁은 장형섭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4개월 뒤에 일어났다. 마을은 남방한계선인 휴전선으로부터 7km 정도, 38선으로부터는 2~3km 떨어져

있다. 사변 당일 새벽부터 포탄이 떨어지고, 오전에는 이미 인민군이 마을에 밀어닥쳤다.

장형섭의 삼촌이 6.25사변 일어나기 2년 전 입대 해, 13연대 임진 현진부대에서 근무했다. 최전방에서 6개월 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에 외박을 나와서 제보자와 함께 머물다가 일요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곧장 부대로 복귀했다.

전쟁을 우리는 여기서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6.25때는 피난 갈 여유가 없이. 포탄이 터지니까 여기서 그냥 한 3키로 정도 나갔다가 끝나가지고 들어오고.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벌써 포탄이 강 건너 산으로 떨어지더니 또 강으로 떨어지더니 이제 우리 머리위로 정신없이 떨어지니까. 한 10시 되니까 인민군이 꼬리를 물고 내려오드라고. 그러니 밥도 못 먹고. 그때 우리 삼촌이 군인을 지원해서 나갔거든요. 사변나기 2년 전에. 그 삼촌도 여기 외박을 나갔다가 포 소리 나고 총소리 나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다급하니까 그냥 삼촌은 그냥 부대로 복귀한다고 뛰고 우리는 우리대로 뛰고. 그래서 그걸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외박을 나와서. 요기 임진 현진부대라고 가까워요. 13연대 전방에 나갔다가 한 6개월씩 교대를 하니까.

이에 자장리의 마을 주민들은 6.25 전쟁과 1.4후퇴, 3월 후퇴까지 총 세 번에 걸쳐 피난을 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총 6번에 걸쳐 이주를 했다. 그러나 장형섭의 가족은 증조부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다. 증조부가 70대였기 때문에 그들 가족은 멀리 피난을 가지는 못했다. 1.4후퇴 때는 법원을 직천리에서 20일간 머물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고향에 돌아오니 다행히 집이 폭격을 당하지는 않았다. 3월 후퇴 시기까지 지내다가 다시 피난을 나갔다.

장형섭의 가족은 수복 후에도 무그니 적성면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본인과 형, 남동생 2명, 부모님, 총 6식구가 배급으로 생활했다. 배급은 하루 분량이 겉보리(또는 밀, 수수) 두 홉을 주어서, 생활이 대단히 어려웠다.

당시 배급받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 나물을 뜯어서 죽을 끓여먹는 정도여서, 영양실조에 많이 걸렸다. 적성면수용소에서 3개월 정도 지냈는데, 수용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부를 재이주시켰는데, 장형섭의 가족도 이때 다시 옮겼다.

나는 여기서 6.25 전쟁 1.4후퇴 3월 후퇴 세 번을 여기서 전쟁을 겪었어요. 1.4후퇴하고 또 한 번 요 수색까지 갔다가 3월 후퇴 때 중공군이 또 한 번 밀고 들어와서. 세 번째 나온거지. 증조부님, 조부님이 다 생존해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버리고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 인제 내 쫓는 거예요. 휴전되기 전에. 그때 아마 70 80 넘으셨어요, 6.25때는 비 오니까 바로 들어왔고. 1.4후퇴 때는 법원을 직천리라고 한 20일 동안 있는데 공격으로 나오니까 거기 아주 산골인데 밤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만 이불보따리 하고 쌀 한말씩 해서 다 나갔고. 난 그때 15살인데 내 밑에 아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집에 다시 들어왔죠. 그때까지 온전히 집이 다 있어서 3월 후퇴까지 다 살았죠.

무그니 적성면 수용소에 피난 나갔는데 배급으로 처음에 주는 게 하루 주는 양식이 겔보리 2홉, 아니면 밀, 수수. 쌀은 아예 없고 보리쌀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 하루에 겔보리 2홉씩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식구가 내 아우들, 넷, 다섯, 여섯 식구인가. 하는 수 없으니 돌에다 갈아가지고 나물들 해서 죽. 그러니 다 영양실조야. 거기서 3개월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염병 생기니까 일부를 또 후퇴를 시키드라고요.

다시 법원을 달곡리 간이수용소로 옮겼는데, 배급은 이전의 수용소와 같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이곳에서 장형섭의 형제들은 나무장사를 시작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갓바위장에 팔았는데 수용소에서 20리 거리를 걸어 다녔다. 장형섭이 2단, 동생이 1단, 형이 3단씩을 해서 나뭇단을 팔았다.

나무장사가 힘이 들고, 체력도 좋지 않아, 그는 이후에 과자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과자공장의 월급은 2천원으로 이는 쌀 1말 정도, 또는 작업복 1벌 값으로, 일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곧 그만두었다.

우리는 법원을 달곡리라는데 지금 생각하니 간이수용소야. 일부를 글로 내보내더라고 거길 처음 나가니까 또 살기가 막막하지. 배급은 똑같고. 그래서 첨에 나무장사를 했어요. 산골이라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해지고서 갓바위라고 거기서 20리에요. 나는 2단 지고, 내 아우 1단 지고, 우리 형이 3단 지고, 그래서 2짐을 판 거예요. 첨엔 그렇게 하다가 남의 소개로 지금 말하면 과자공장이야. 갔더니 새벽부터 해 깜깜할 때부터 일을 하는데 한달 일을 하는데 돈 2천원을 줘요. 2천원이면 그때 따져보니까 작업복 한 벌밖에 안 돼. 1달라가 300원이 안 되니까 쌀로 따지면 쌀 1말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달 살고, “이렇게 살고 이거 받고는 내 안 한다”고 집에 온다 하고 나왔죠.

일을 그만두고는 수용소에서 몇몇 사람들이 미군부대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한 사람을 쫓아나갔는데, 첫날 물건 세 가지를 팔고 쌀 서

말 값을 벌었다. 과자 공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면서 쌀 1말 값을 벌었던 것에 비하면 큰돈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밀수품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법원읍과 적성면에 미군 24개 사단이 주둔해 있을 정도로 군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2년 가량 밀수품 장사를 시작했다. 전문적으로 일본의 밀수품을 떼어와 파는 장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물건을 사서 미군들에게 위스키와 아사히 맥주를 팔았다. 맥주 1병을 팔면 술값을 빼고, 쌀 1말이 떨어졌고, ‘새건비어’ 위스키가 당시 900원이었는데, 한 병을 팔면 쌀 5말이 떨어졌다. 당시 1달러가 300원이 안 되었는데, 하루 수입이 쌀 3말 값으로, 당시 3일 품값이 쌀 1말이었으니, 바로 큰 돈을 벌었다. 미군부대 철조망 앞에서 판매를 했고, 당시 철조망 주변에는 이러한 밀수장사들이 많았다. 당시 장형섭은 17살이었는데, 이때 번 돈으로 고향에 들어와 소를 1마리 사고, 농사지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나와서 수용소 사람들이 미군부대 쪽을 나가드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그래 배운 건 없지만 영어로다가 얼마다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첫날은 가서 물건을 세 가지 팔았어요. 모자, 여러 가지 해서 하루 수입이 적어도 쌀 서말을 번 거예요. 품을 팔면 그 당시 나흘을 해야 쌀 1말을 줬어요. 열흘을 해야할 것을 그때 당시 하루에 해가지고 온 거지. 그때가 17살 됐을 거야. 철장을 치고 있는데 미군들한테 파는 거죠. 그 물건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팔고 못 판 거 가져다 놓고 그 다음날 또 가져다 팔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맥주. 당시에 아사히 맥주라고 있어요. 그래 옛날에 수입을 해다가 몰래 판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가게에서 또 팔아요. 일본서 건너온 거죠. 한국 맥주가 없었어요. 그 당시. 맥주 한 병을 팔면 술값 빼고 쌀 한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 값어치가 그만큼 좋았죠. 쟈거미어(쟈건비어)라고 위스키가 있어요. 그때 돈으로 9백원이야. 그거 한 병을 팔면 쌀 5말 나왔어. 그냥 물건 값만 주면 돼. 1달러를 받으면 물건 값을 주고도 쌀 몇 말 남으니까. 근데 인제 점점 단속도 심하고 하니까. 한 2년 한 걸로 번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서 키우다가 땅은 못 샀어요. 그래서 수복 되서 들어와서 농사짓는 거 까지는 거기서 다 충당해가지고.

종전 후 피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장파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까지 자장리가 수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파리서 살면서 출입농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지었다. 폭격으로 집이 다 타서 제대로 된 집도 없었기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대충 엮어 만든 집에서 생활했다.

피난 나갔다가 들어와서 장파리서 출입농을 처음에 했었어요. 옛 이름은 장마루예요. 거기가 등어리라 땅이 아주 먼지만 풀풀 나고 형편없었어요. 그러니 피난 나갔다가와서 다 폭격 맞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무가 많았어요. 아카시 나무 한 몇 년 동안 묵으니까 잡목들 막 비어다가 엉터리 때려 박아 지었죠. 장파리 초창기에 다 막 지은 집이에요. 제대로 된 집은 없었고.

장형섭은 27세에 혼인을 했다. 그의 형은 부산의 건설공병단에 입대해서 2년간 근무했고, 본인은 부산의 통신기지창에서 근무했다. 장형섭은 23세에 입대해 26세에 제대했으며, 그 이듬해에 바로 혼인을 했다. 당시 장파리에 함께 거주하던 집안 아주머니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장파 2리에 살고, 아내는 1리에 살고 있어서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결혼은 1톤짜리 트럭을 타고 아내의 고향으로 가서 대례를 치렀다.

나는 27살에 결혼했어요. 피난 나갔다가 벌어먹고 사느라고 군인도 늦게 갔어요. 23에. 그래서 제대하고 바로 그 이듬해에 결혼한 거죠. 집사람은 고향이 장파리에요. 소개로 우리 집안에 아주머니가 고 위에 사는데, 다 아니까 서로 1월달에 했어요. 음력으로 1월 27일에. 양력 한 3월달 될 거예요. 그래도 추웠죠 좀. 나 결혼식 할 때는 마을에 아주 오래된, 지금 말하면 1톤짜리 차, 그것도 깨끗하지 못한 거, 그 차 이용해서, 아주 고물차예요. 가까스로 시동 걸리는 거. 나도 장파리 살았으니까 여기서 한 4키로 뒤통에서 아랫동네로 장파 1리, 2리인데, 1리에서 2리로 온 거죠.

이후 고향이 수복되면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외지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략 10가구 정도만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 돌아온 사람들은 사변 전에 그나마 살만한 집들이었고, 대개 마을에 땅이 없는 집들은 외지에 자리를 잡았다.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토지분배를 받아 나갔고, 농토가 있어도 농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주해서 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대개 수복된 이후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거주 인구의 80%가 외지인이다.

외지 사람이 80% 고향사람들은 수복되면서 많이 안 왔어요. 나가서 자리를 잡고 여기 안 들어왔죠. 피난 가서. 안 갈 수 없고 다 나가야 되니까. 피난 갔다 들어온 사람이 몇

집 안 되니까. 고향 사람들은 한 10집 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각처로 분산됐어요. 서울 경기도 쪽이죠. 그 아래로는 간 사람 없어요.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토지 분배돼가지고 가까스로 인제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또 농토도 좋지가 못한 사람들 들어와 봤자 별거 없을 거 같으니까. 토지가 조금 좋은 거 가진 사람들 대부분 들어왔고.

이 마을에서 장례 때에는 부조를 술로 했다. 술은 수수나 보리를 섞어서 빻았으며, 누룩은 밀로 만들었다. 쌀은 귀해서 술로 담지 못하고, 대신 쌀싸래기를 섞어서 동동주를 담갔다.

결혼식 부주는 떡이나 국수가 많았다. 음식은 떡, 골무떡, 증편, 국수, 부침개를 대접했다. 잔치국수를 대접했는데, 1974년도에 대멸치, 다시마로 끓인 장국에 국수를 말아서 대접했다. 건어물은 사변 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명태가 들어왔고,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들어왔다.

장례식 때 여기는 술로 부주하고 결혼식 때는 떡. 초창기에는 다 떡들 했어요. 골무떡 두 있고 증편이라고 술 넣어서. 국수도 있고 그때도 막걸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잔치 할 적에는 보통 하루 전날 음식을 해줘요. 부침개 부치고 그래서 그날 하루들 또 먼저 먹고 국수 삶아 먹고 이를 먹는 거예요. 예전엔.

(3) 자장리의 세시풍속

자장리의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싸움, 봄철 수학여행, 망종(6.6)의 호남 부녀자 모내기, 중복 늦모내기, 단오 창포머리 감기와 그네뛰기, 6월 하순-7월 초 논매기, 추석 수수와 보리싸래기로 술 담기, 초가을 고랑포 씨름대회(전쟁 이전), 동지 팔죽, 늦가을 김장, 면단위 체육대회, 10월 양성이씨 시제, 10월 성황당 대동굿 등이다. 장형섭(남, 1936년생)이 구술한 자장리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정월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했다. 짚으로 화를 만들어서 나이 수대로 새끼를 꼬아 묶고 ‘달님, 달님’하고 말하며, 소원을 빌었다. 화는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스스로 만들었다.

정월대보름 논두렁에 가서 저거 맨들어가지고 그냥. 햇불 어릴 적에 짚으로 그냥 다 만 들어요. 나이 순으로 새끼 짜서 묶고. 어른들이 맨들어 주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저희들이 맨들어서 장난하고 그러죠. 달을 보고 그냥 놀면서 있다 들어오는 거죠. 불을 붙여 가지고 달을 향해서 ‘달님 달님’ 하면서 자기 소원 얘기하고 그래요.

단오에는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장형섭의 어머니도 창포를 삶아서 머리를 감았다. 마을에 두 군데 정도 그네를 매서 그네를 뛰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뛰었다.

마을의 대부분 가구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땅은 토심이 깊어 농사가 잘 되었다. 농사는 논과 밭의 비율이 1:1이었으나, 논은 대개 천수답이었고,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 소출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골논과 샘논 골, 수렁에 가까운 논과 주변의 논은 농사가 가능했다.

다 농사지었죠. 논농사 밭농사 여기는 균형이 잡혀있어서. 그래도 식량걱정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하고 살았어요. 논밭이 반반 밭에는 다 보리심고 잡곡이지만 생계는 어려움 없이 살았죠. 물은 귀했죠. 골논하고 샘논이라고 있는데 수렁이라고 있어요. 샘논은 주변으론 그래도 벼를 좀 심고 그렇지 못한 천수답들은 힘들었죠. 비가 와서 소서 떠나 지나서. 예전에 소서 지나면 비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심는 사람들은 다수확은 못 내고. 그래 힘들죠.

마을은 물이 귀해 큰 빨래는 강에 가서 했으며, 식수는 마을 전체가 2개의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곧 대추나무 골에 바가지 우물이 하나있고, 샘말에 두레박 우물이 있었다. 샘말의 우물은 장마 때 물이 많이 들면, 황토가 들어와 마실 수 없었다. 따라서 전쟁 전에는 여자들이 물동이로 물을 지어 날랐으며, 사변 후에 물지게가 나왔다.

수리시설로는 1978년에 직천리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콩, 조, 보리 등의 밭작물을 주로 심었다.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토질이 좋아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장형섭은 논 4천 평, 곧 10마지기(1마지기는 300평)에, 밭은 5천 평 농사를 지었다. 당시 마을에서 농사가 많은 편에 속했다.

여기 옛날엔 물이 귀했어요. 이불빨래 같이 큰 빨래 할 때는 강에 가서 빨래하고. 순우물이죠. 저 너머 대추나무골 우물 하나예요. 바가지 우물인데 아주 가물 때는 샘말은

두레박 우물이 아주 깊어요. 근데 그게 장마에는 건수가 들어가지고 좋지가 않고 가물 때는 괜찮은데 거기가 샘말이 흙이 황토가 되가지고 장마에는 물이 들어가서 좋지가 않아요. 전부 여자들이 물동이지 물지게는 사변 후에 물지게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동네에서 물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농사짓는데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일단 끈기가 있으니까 토심이 깊고, 모든 작물이 잘 뻤어요. 순 벼농사 콩, 조, 보리 심고 그런 거 심었죠. 순수하게, 수리시설이 78년도에 땀어요. 그해부터 아주 쌀밥들 마음대로 먹었어요. 저기 법원읍에 저수지. 직천리라고 저수지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농사짓는 데는 아주 걱정 없이 잘 지었어요. 우리가 논으로 한 4천평 여기 한 마지기가 3백평. 밭은 한 6천평 땀어요. 그때는 식구도 많고, 일꾼들이 많았잖아요. 장정들이 많았으니까. 농사 지어도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해도 다 품을 사서 했죠. 많아 봤자 우리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다 그 정도 아래로 지었죠.

장좌리에 미 수복 군용지가 있어, 미군의 허가를 받아 이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출입농’이라 한다. 출입농은 마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임대는 국방부에서 하며, 평당 얼마씩 도지를 냈다. 이 수복 군용지는 땅이 좋아 작물이 잘 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장좌리가 적성면 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말한다. 이밖에 마을에는 묵은 땅이 많아 도지를 싸게 해서 소작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았다. 도지는 곡식으로 냈으며 쌀이나 벼를 5:5로 나누고, 이후 1:3으로 하다가, 지금은 1단보에 쌀 1가마로 책정한다.

장좌리라고 있는데 마을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진 못해요 아직 수복이 들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가서 농사짓고 해요 근데 군용지가 돼서 허가를 받아야지. 여기서 가서 농사짓는 사람 많죠. 거기가 여기 연천군에선 아주 옥토예요. 국방부에서 인제 먼저 돈을 내고서 평당 얼마씩 해서 나와요. 수복되고 나서는 일손이 모자라죠. 사람은 적고 농사는 많으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소작을 많이 했죠. 여기 도지가 싸고 묵은 땅이 많으니까. 그땐 다 곡식으로 냈죠. 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쌀도 있고. 처음에는 5대5로 하다가 나중에는 1/3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1단보에 쌀 1가마 정도 이렇게들 하죠.

농사의 시작은 못자리를 하는 것이다. 대개 양력 5월에 모를 키운다. 1990년대까지는 물모를 내다가, 90년대 후반에 비닐이 나오면서 비닐 모자리인 온상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다 씨레 가지고 논에 물을 대가지고 논을 골라가지고서 물을 빼요. 그리고 다

시 물을 대요. 그다음에 물에다 범씨 뿌려가지고 길러야 되니까. 일찍 낼래도 모를 낼 수 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평모자 내고. 이렇게 네모나게 모판을 해가지고 그냥 비닐을 쪽 덮는 거예요. 위에 (모가) 요만큼 나오면 인제 비닐 벗기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그냥 퇴비 나오니까. 퇴비 깔고 모판에다 비닐하우스 속에다 이렇게 두면 아주 그냥 모도 잘 자라고 좋지요. 90년대 후반서부터는 비닐 못자리 시작하니까 늦게까지 물모 낸 거죠.

6월에 모내기를 한다. 양력 6월 6일 망종 때 내면 일찍 내는 모이며, ‘조앙’이라 한다. 이후에는 하지, 심지어 소서, 초복 때까지 모를 냈으며 비가 안 오면 중복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기도 했다. 장형섭은 중복까지 모를 심었던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80여년을 살아오면서 그 해가 수확이 가장 좋았다.

모내는 시기가 망종 때 내는 사람은 제일 일찍 내는 모예요. 조앙. 그 나중에는 하지, 초복 때까지도 냈으니까. 소서까지는 중복 때까지도 벼를 심었어요. 그때 내가 중복날 저녁까지 모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사람 미쳤지 벌써 벼이삭이 생겼는데 모를 내면 그랬는데 그런데 그해는 특별하게 잘 먹었어요. 아주 잘 됐고. 내가 농사짓던 중에 중복 때내서 그렇게 잘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양력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논매기를 한다. 이때는 20~3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 노동을 했다. 두레와 농악이 있었으며 농상기를 들고 악기를 쳤다. 대나무로 큰 대를 만들어 10m 정도가 되는 농기를 걸었다. 두레에는 20명 정도가 참가했으며, 논매기 때의 농기싸움은 전쟁 전에는 깃대를 넘어뜨리는 방식인데, 적성면에서 이 동네가 가장 썰다.

농악 있었죠. 여기 아주 자장리 분들이 유명했어요. 농상기 대나무 큰데가 이걸 깃발을 달아가지고 약한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한 10메타 이상 들어가죠. 이 동네 장정이 그거 드는 양반이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모낼 때는 안하고 대개 그게 논 땀 적에 해요. 김땀 적에 돌아 땀기면서 한 2,30명이 되니까 논 하나는 순식간에. 사변나기 전까지는 다 했으니까요. 사변 후에는 못 했어요 보통 6월달 되죠. 양력으로 6월 하순에서 7월. 옛날에 기싸움 했어요. 전쟁 전에. 깃대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전엔 적성면에서 여기 당할 데가 없었어요.

예전에 여름철에는 임진강에 배가 다녔고, 김장 무와 향아리를 마포까지 실

어 날랐다. 두지리에서는 황토가 좋아 항아리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했다. 당시 다니던 배를 ‘늘배’라 하는데, 길고 바닥이 넓직한 배로 노를 젓는 것이었다. 대개 5~6명 정도가 승선하며, 나루터는 마을 건너편 연천군 원당리에 있었다.

여기가 조금 고지대예요. 해발은 50메타 넘어요. 여름엔 좀 시원하죠 산이 있고 해서 시내랑은 다르죠. 지금 황포 뚝대라고 하죠. 그 배가 김장무를 실어가지고 마포까지 싣고 다니고 그랬어요. 늘배라고 그러죠. 이렇게 큰 배. 넓적하게 길고, 그걸 저 독 지금 항아리 여기 두지리라고 거기 항아리 맨들어 팔았어요. 그런 거도 맨들어하고, 여기 나루터라고 한 양반이 조금만 배가지고 건너왔다 건너갔다. 건너는 원당리. 연천군. 한 5,6명 타는 노 젓는 배.

추석에는 모내기가 늦어 햅쌀이 나지 않았다. 장형섭의 기억에 그나마 윤달이 드는 해에 유일하게 익는 벼가 ‘육우’(육오도)였다. 이때 훗치게로 낱알을 훑어서 가마솥에 볶은 다음에 찜어서 차례를 지냈다.

추석이 아주 늦는 윤달이 드는 해는. 옛날에 육우라고 조생종 벼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일쁜 벼예요. 그때는 기계도 없으니까 훗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훑는 거 있잖아요. 훑어서 조금 덜 여무니까 이 가마솥에다 불을 넣어가지고 좀 말리죠 그래야 쌀이 찜어지니까. 그걸로 그냥 술은 수수로, 보리도 좀 섞으고. 쌀은 귀하니까 술로 담그기는 어려웠어요. 누룩은 밀로 만드느라니까. 술은 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담그죠. 그때 막걸리도 귀했어요.

명절의 장은 고랑포장에서 보았다. 이곳 마을로부터 2km거리였다 고랑포에는 화신백화점이 있어, 예전에는 드물게 서울에서 고랑포까지 버스가 운행했다.

시장은 고랑포라고 있어요. 한2키로 남짓하죠. 가까워요. 거기 가서 장보고. 거기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배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예전에도 버스가 다녔어요. 그래도 그때 다리가 없으니까 늘배로 올라가서 버스 타고. 서울서 오는 버스죠. 고랑포까지는 다녔어요.

수확은 모내기를 제때에 하고, 입동 이후에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 늦게까지 벼를 베지 않을 때도 있었다. 따라서 모내기가 늦고, 10월 8-9일 한로

때에 된서리가 내리면 반쪽정이 상태로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농사의 수확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통 한로면 10월 한 8일경 되는데 서리가 일찍 올 때도 있어요. 내가 농사짓던 중에 10월 8일날 9일날 연속해서 된서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해는 그냥 늦게 낸 거는 전부 반쪽정이기 됐어요. 어떨 때는 입동 때까지도 벼를 안 뻗어요. 입동 때까지 서리가 안 내려서.

추수가 끝나면 10월에 농악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당과 집안에서 농악을 쳤다. 각 가정에서는 마루에 쌀과 돈을 놓고 두레패를 맞을 준비를 했다.

농악도 하죠. 농악 없어진지가 한 10년? 한 4,5년 됐어요. 장구, 징, 팽과리가 다 있어요. 가을에 한번 동네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 잘 되라고, 인제 추수 끝나고요. 음력으로 10월달이죠. 대부분 좋은 행사는 10월에 하니까. 집집마다 다 다녀요. 날을 잡아서. 정초엔 그런 행사 없었어요. 그 집에 잘 되게 해달라고. 마당에서 놀고 집안에 들어가서 한번 인사하고. 마루에 쌀도 놓고 돈도 조금씩 놓는 사람도 있고.

음력 10월에는 마을 제사와 집안 고사가 있었다. 마을 제사는 전쟁 전에 있었고 수복 후에도 한 두번 지내다가 없어졌다. 마을에서 이를 ‘대동굿한대’고 했으며, 집집마다 추렴을 했다. 집안 형편에 따라 내는데, 잘 사는 집은 대개 쌀을 1말 냈다. 무당을 불러서 했으며, 당시 샘말 동네의 만신을 불러 굿을 했다. 이곳의 만신은 샘말과 원당면 관수리에 1명씩 있었다. 굿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했으며, 만신이 공수도 주었다. 제물로는 돼지를 1마리를 잡고, 떡 1시루와 막걸리를 준비했다.

마을 제사 옛날엔 지냈어요. 전쟁 전에. 그때 보통 가을이죠 10월달 쯤. 수복되고 와서도 한번인가 두 번 지냈어요. 동네 굿이라 그래가지고. 무당이오죠. 여기 동네 샘말부락에 만신이라고 한분 있고 또 원당에 관수리라고 거기에 무당이 또 하나있고. 제물은 돼지 한 마리 잡아다 놓고 떡시루 크게 하나 찌서 놓고. 많이들 참여해요. 돈은 동네서 거둬서 옛날엔 추렴한다고 했죠. 대동굿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쌀이죠. 형편에 맞게 내요. 강제성은 없으니까. 그때 한 쌀 1말 정도 씩은 냈어요. 그때 쌀 1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하쵸.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 하루가 다 가요. 무당들 공수도 주고. 아주머니들이 공수 주는 걸 좋아하쵸. 막걸리도 푸짐하게 해놓고. 그 당시는 먹거리가 귀하니까 자장리 2구는 다같이 와서.

겨울의 농한기에 남자들의 주된 작업은 화목을 하는 것이다. 그때는 모두 화목을 땃기 때문에, 산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서 화목을 해 와야 해서 힘들었다. 또 이 무렵 여자들은 김장을 한다. 장형섭의 가족도 원래는 3~400포기 까지 담갔으나, 현재 김치는 130포기로 줄었다.

소금을 주로 사용했고, 새우젓은 마을로 다니는 새우젓 장사가 있었으나, 값이 비싸 많이 넣지는 못했다. 또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 먹는다. 동지를 구분해서 보통 애동지 때는 끓이지 않고 노동지 때는 많이 끓였다.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장사를 지낸 후에 자리걸이를 했다. 찢겨 보낸다고 하는데, 무당이 징을 치면서 2~3사람이 했다. 여자 무당이 집과 죽은 사람의 방에서 자리걸이를 하는데 마을사람들은 거의 했다. 장시 지낼 때 땅파기 전에 산제사를 지냈다.

샘말 만신이 아주 청승맞게 잘 해요. 예전에 사람 죽으면 자리걸이라고 사흘만에 자리걸이라고 해요. 아주 그걸 청승맞게 하면 눈물이 펄펄나요. 장사지내고 나서 자리걸이라고 있던 자리가 좀 저기하니까 찢겨 보낸다고 인제. 징 치면서 한 두 세사람 와요. 여자 무당이라. 영을 달래서 보내는거죠. 집에서 돌아가신 양반 사는 집에서 방에서 거둬내는거죠. 거의 다 했죠, 여기서는.

이곳은 북쪽 지역이라 겨울철에는 추운 편이다. 서울과 기온이 4~5도 가량 차이가 난다.

(4) 자장리의 놀이

자장리의 놀이는 농악, 기싸움,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연싸움, 딱지치기, 화투, 윷놀이, 씨름대회 등이다. 이곳의 특징적인 놀이로는 두레 패의 농상기싸움이며, 초가을에 고랑포에서 씨름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전쟁 이후에 사라졌다. 장형섭(남, 1936년생)이 구술한 자장리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정월에는 쥐불놀이를 했다. 전쟁 전에는 화를 가지고 하다가, 미군이 들어오면서 깡통이 많아져 그때부터 깡통 돌리기를 했다. 겨울 철 남자아이들의

주된 놀이는 팽이치기, 연날리기, 제기차기이다. 장형섭 역시 국민학교 때 주로 이러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런 놀이의 장소는 대개 한 논에 물을 받아 얼려서 그 위에서 놀았다. 팽이는 직접 깎기도 했고, 사기도 했다. 팽이싸움도 많이 했는데, 먼저 넘어지면 지게 된다. 팽이채는 헌옷을 풀어서 나무막대에 달아서 사용했다.

팽이는 깎기도 하고 파는 것도 있고, 더 맵시가 좋고, 거기 또 이렇게 밑에다 다마를 박은 게 있어요. 그건 더 잘 돌죠. 얼음판에서 치면 아주 재밌어요. 팽이채라고 있어요. 거기다 헌옷 그 옷 찢어서 그거 올을 풀어가지고 팽이채 나무에다 감아가지고 그걸 치는 거예요. 아주 잘 돌아요 그걸. 겨울에 얼음판에서. 마당에서도 했어요. 지금은 마당이 포장되고 좋지만, 그때 다 흙 아니에요? 얼마 안 돌죠. 팽이싸움도 해요. 딱 쳐서 먼저 넘어지면.

연날리기도 많이 했다. 연은 ‘네모연’이라 부르는 방패연을 만들었다. 연감개는 주로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는데, 장형섭은 증조부가 연감개를 만들어 주었다. 증조부는 씨아, 물레도 직접 만들만큼 손재주가 좋았다. 연감개는 귀가 2개, 4개, 6개 짜리가 있다. 6개짜리 연감개를 ‘육모연감개’라 한다. 귀가 많을수록 연이 덜커거리지 않고 잘 난다.

놀이한 거는 연날리기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가 팽이치기, 제기차기. 제기는 만들기 쉬워요. 옛날 동전에다 창호지 넣어서 이렇게 쪽 빼면. 연은 나는 못 만들고 만들어 준거 네모연이었고 방패연이라고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가운데 줄 매가지고 날리면 아주 잘 날라요. 그리고 우리 증조부님이 연감개. 실 감는 감개. 네 귀를 귀가 넷이지 아주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실감개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네 개 해서 가운데 긴 거를 끼우는 거. 자루를 박아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아주 잘 감겨지고 풀 때도 아주 곱게나가고. 귀가 두 개인거도 인거요. 그거는 덜커덜커 거리면서 감기니까 그러면 연이 출렁출렁하죠. 네 개에서 여섯 개까지 있어요. 아주 육모는 아주 그림같이 나가죠. 육모 연감개. 많을수록 좋죠. 6개 이상은 맨들 수가 없고. 우리 증조부님이 아주 손재주가 좋으세요. 옛날에 다식판이다 목화씨 빼는 씨아 실 감는 물레도 아주 그냥 반들반들했어요.

연싸움도 할 때에는 연줄에 사기를 먹이기도 했다. 먼저 야교를 물에 불리고, 여기에 사금파리를 섞어서 연줄에 먹였다. 이외에 딱지치기기도 있었다. 노는 방식은 상대 딱지를 쳐서 뒤집는 것인데, 직접 접는 딱지만 뒤집기

를 했고, 삼국지 만화가 그려진 파는 딱지는 넘기며 놀지는 않았다.

연싸움도 많이 하죠. 사기 맥여야 끊어지죠. 애교라고 있어요. 애교라고. 그게 무슨 가족을 곤거라고 해요. 그게 끈적끈적한데 그때 그래도 있었어요. 사금파리 사기그릇. 지금처럼 유리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걸 깨서 아교에다 묻혀서. 그걸 실에 묻히면 아주 깔깔하죠. 손대면 손이 싹싹 비어져요. 딱지치기 좀 하고. 그럼 직접 접죠. 종이가 뭐 있어요. 그냥 오래 묵은 책 찢어다가. 딱지 팔기도 했었어요. 보기도 좋게 만들고 했죠. 그건 딱지치기해서 넘어간 거. 딱 쳐서 넘어간 거 그걸. 시장에서 파는 건 내기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걸로. 만화 비슷하게 그려져서. 삼국지 만화 그런 거도 있었어요.

정월에는 2년 주기로 마을에서 척사대회를 하는데, 지금도 계속한다. 상품으로 냉장고와 텔레비전이다. 대개 상품구입 비용은 동네 주민 중에서 찬조를 한다.

단오에는 마을에 그네를 매서 그네를 탔다. 두 군데에 땀는데, 하나는 향나무 서낭당이 있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 야산의 두 그루의 미루나무에 땀다. 그네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뛰었다. 마을에서 남자 어른들은 사변전에 노름성 화투를 많이 쳤다. 종류는 도리땡, 섰다. 짓구땡이 있었는데, 수복 후에는 사라졌다.

그네는 많이 뛰었죠. 저기 서낭당에 향나무, 아주 좋은 게 오래된 게 있어요. 거기다 그네 줄 매가지고 뛰고, 여 너머에 또 미루나무 큰 게 두 개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걸쳐서 매고 한 두어군데. 남자들이 좀 뛰고. 옛날 분들 화투 많이 했어요. 여기 들어와서는 화투 많이 해서 사고 낸 사람이 없어요. 주로 도리땡이라고 하고, 섰다라고 하고, 그거 했어요. 놀음이죠. 돈 많이 낸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짓구땡이라고 있어요. 그것들 좀.

씨름대회는 고랑포와 양주의 갯바위장에 있었다. 대개 시장이 있는 곳에서 했으며, 씨름대회 상품은 송아지를 걸었다. 해방 전에는 칠석에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추석 전 초가을에 몇 차례 하다가, 6.25 전쟁 후에는 없어졌다. 이후 가을에 군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씨름을 했다.

씨름대회도 많이 했었죠. 고랑포라는 데서 주로 했었고. 초가을쯤 추석 전에. 갯바위라고 하는데 거기서 두 군데서 많이 했었죠. 갯바위도 시장이에요 저기 양주. 소를 내걸

고. 고랑포 한 번 갔더랬고 갯바위도 갔었어요. 고랑포는 한 두 서너 번 갔던 거 같애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해방 전이죠. 해방 전. 해방이후에도 하고 전쟁이후에는 여기서 씨름대회 없어요. 근데 군민 체육대회 그때 있었죠. 가을에. 면단위 체육대회 1년에 한번씩 하고.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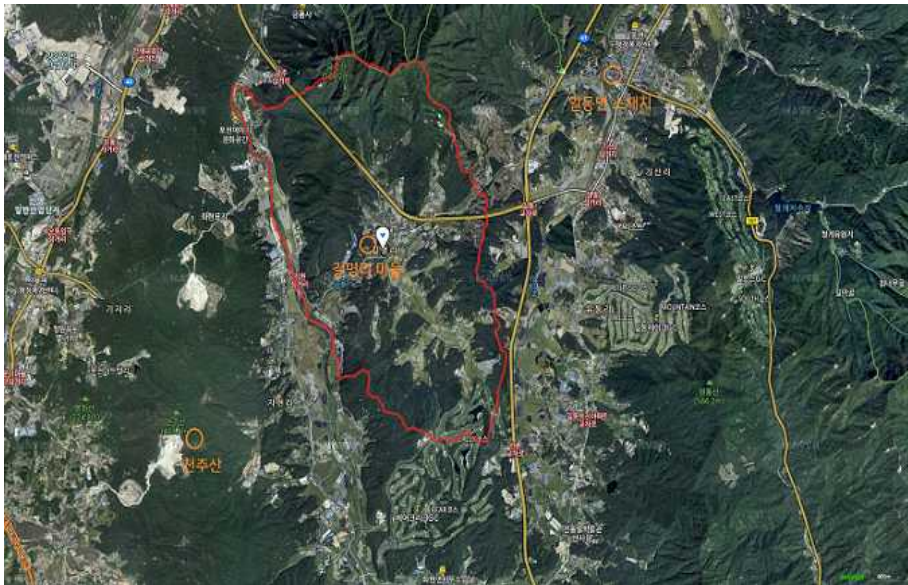
포천시

10.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는 1개 읍(소흘읍), 11개 면(군내면·내촌면·가산면·신북면·창수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2개 동(포천동·선단동)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⁸⁾ 이번 조사는 신북면 기지1리 틀뫓이마을과 일동면 길명2리에서 이루어졌다.

가.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1) 길명2리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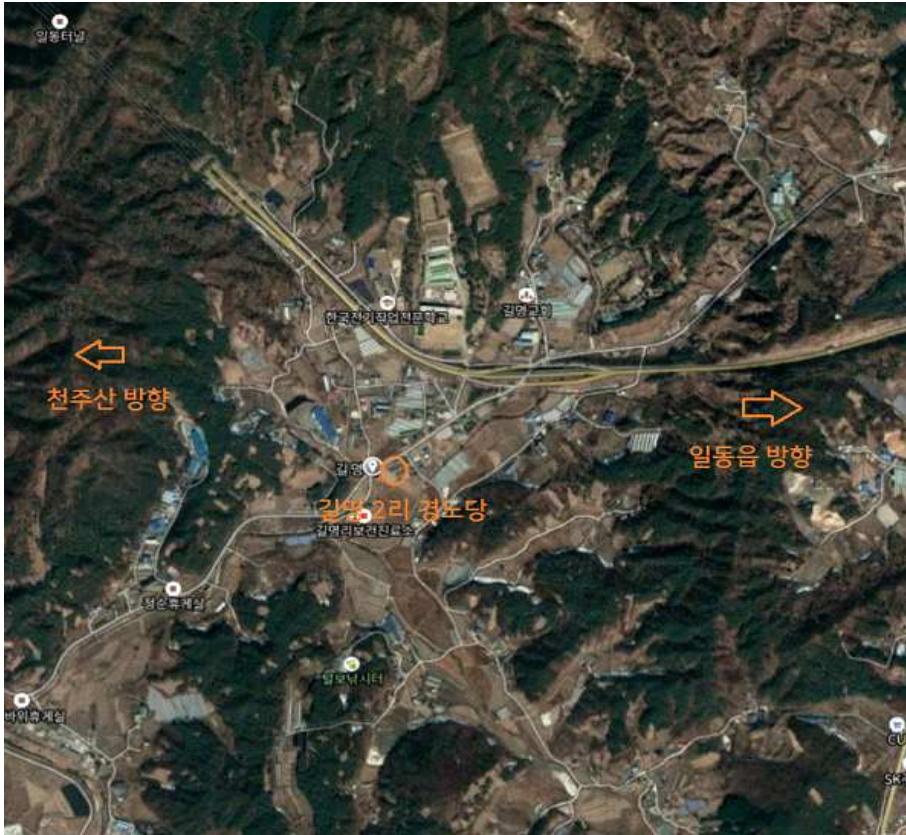


〈그림 1〉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전경(인근 천주산, 일동면소재지)

일동면은 조선시대 영평현에 소속되어 동면(東面)으로 불리어 오다가 1895년(고종 32) 영평현이 포천군에 병합되면서 동면을 둘로 나누어 포천군 일동면으로 되었다. 총 면적은 83.36㎢이며 6개 법정리(동), 24개 행정리

48) 포천시청(www.pocheon.go.kr 최종접속일 2018.9.13)

(통), 1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명리(吉明里)는 기산리(機山里), 사직리(社稷里), 유동리(柳洞里), 화대리(禾垈里), 수입리(水入里)와 함께 일동면의 6개 행정리 중 하나이다.



〈그림 2〉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세부도

일동면은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가평군과 경계를 이루며 강씨봉(830m), 청계산(840m)의 연봉이 솟아 있고 서쪽의 영중면과 신북면과의 경계에는 관모산(589m), 금주산(569m)이 남쪽 화현면과의 경계에는 원통산(567m)이 솟아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이고, 그 여맥(餘脈)이 면내로 뻗어 내려

오면서 동서로 길고 좁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김기용(남, 1942년생)에 의하면,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는 양사언의 후손인 청주 양씨 집성촌으로, 예전에는 100호 가까이 되었으나, 지금은 120호로 오히려 늘었다.

곧 예전에 청주 양씨(양사언 후손)가 주민의 2/3를 차지했으며, 청송 심씨가 일부 살았다. 이 마을은 지금도 소를 잡아 8월 초에 산치성을 올린다. 매년 마을 주민에게 일정액을 걷어 소값을 충당하고, 모자란 것은 소뼈, 우족, 소머리 등을 경매로 팔아 충당한다. 인근 신북면 가차리, 기지2리 곱섬 마을도 소를 잡아 산치성을 올리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인근 금주산은 일제 강점기에 금광이 개발되어 주변 금주리 지역이 흥청거렸으며, 길명리 마을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

이 마을은 주로 벼농사를 주로 하며, 고추농사도 많이 짓고 있다. 벼는 만생종보다는 주로 조생종, 중생종을 심었다. 밭농사는 콩, 조, 좁쌀, 깨(참깨, 들깨) 등을 주로 심는다.

(2) 길명2리 토박이의 삶

김기용(남, 1942년생)은 5대에 걸쳐 길명2리에 살고 있으며, 노인회장을 역임했다. 부친이 6대 독자이며, 본인은 형제가 있었으나 큰형과 둘째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독자나 다름없이 되었다. 그의 부인은 포천읍 인근 화현면 출신인데, 무남독녀로 자랐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은 손이 귀한 집안간의 인연이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20년간 전기공사를 하러 다녔지만, 마을의 두레와 품앗이, 산치성, 햇불싸움, 각종 놀이와 세시 등에 소상히 알고 있다. 그의 부인 이용숙(남 1943년생)도 여성 놀이와 세시에 대해 구술했다.

양재호(남, 1945년생)는 청주 양씨로 양사언의 13대 손이며, 현재 길명2리의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중간에 외지에 나가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지역 민속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구술을 해주었다.



〈그림 3〉 양재호 길명 2리 노인회장



〈그림 4〉 길명2리 김기용, 이용숙 부부의 최근 모습



〈그림 5〉 길명2리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1963년)



〈그림 6〉 길명 2리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 후 가족과 친지(1963년)



〈그림 7〉 김기용, 이용숙 혼례식 후의 신랑 친구들



〈그림 8〉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 후 가족사진(1963년)

김기용(남, 1942년생)은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6대 독자로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 성격이 활달하며, 젊은이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였다. 김기용은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으나, 큰형과 둘째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독신이 되었다. 본인은 1남 4녀의 자식을 두어 아들도 독자인 셈이다.

아버님이 6대 독자요, 우리 형님은 아들 둘. 큰형님은 자손을 못 보고 돌아갔어요. 결혼은 중매로 했지요. 신부 얼굴은 미리 봤죠. 그때만 해도 일동에 다방에서 만났었죠.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중매인 모시고, 그냥 얼굴만 보는 거죠. 우리 둘이 직접 이야기한 건 없고, 노인네들끼리 이야기 하신 건 길게 안 났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60년대니까. 우리 큰딸이 선여섯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선보고, 점심 먹고. 그랬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만족하셨고, 그리고 본인들도 맘에 들어 했고.

결혼은 1963년 음력 2월에 했으며, 당시 본인은 22살, 신부는 20살이었다. 그는 중매로 결혼을 했으며, 혼인 전에 일동의 다방에서 양가 부모가 함께

인사를 했다. 사전에 사주가 잘 맞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 신부는 무남독녀 외동딸이다.

혼인은 구식으로, 신부집에서 했지요. 신부 집에 갈 때는 인제 합승이라고, 봉고차. 지금 봉고차인데 그 전엔 합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대절해서 타고 와서, 친구하고 같이 갔죠. 혼례 당일날, 부모님은 안 가고, 친구는 한 대 여섯명 정도 갔죠. 사주단자 오고가고 그렇지요. 사주는 보고 갔죠. 부모님이 보더니 괜찮데요. 장인영감님이 그걸 보셨어요. 재 뿌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혼례식은 신부집에서 구식으로 했다. 신부집에는 당일 봉고차를 대절해서 친구 5-6명과 함께 갔다. 혼례복은 이 동네에 갖추어져 있어 한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빌렸으며, 신부는 한복에 연지곤지를 찍었다. 함은 친구가 졌으며, 함을 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함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초례상에는 과일과 살아있는 수탉이 놓여 있었는데, 수탉의 입에는 대추와 밤이 박힌 용떡을 물고 있었다. 당시 신부는 집 안쪽 방향으로 서고, 신랑은 집 바깥 방향으로 서고, 절은 남자가 먼저 1번을 했다. 혼례 치른 날 당일엔 신랑집에 갔으며, 혼례 치른 지 3일 만에 다시 처갓집에 갔는데, 이것을 ‘삼일도배기’라고 한다.

혼례복은 옛날에는 사모관대라고, 마을에 있었죠. 한복을 속에다 입고, 그땐 색은 관계 없었죠. 신부는 한복 입고 사모관대 똑 같아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초례상에는 과일 놓고, 용떡 놓고, 수탉 잡아 들고 있고, 대추나 밤을 물리지. 입에 다가요. 끝나면은 날려보내죠. 신부가 집안 쪽으로 서고, 신랑이 집 바깥 쪽으로 서죠. 맞절은 남자가 먼저 한번 하고, 나머진 모르겠네. 합방은 초례 치르고, 신랑은 안 다뤘고요, 결혼하고 3일날 처갓집 가죠. 그걸 3일 도배기라고 하죠. 시댁에선 당일날 보죠. 합승을 타고 오는 거죠. 가마 안 타요. 우리 때에는 가마 없었어요.

처가는 화현면으로 직선거리는 4km, 돌아가면 10km 정도이다. 신랑다루기는 없었으며, 신부 동네의 청년들과 조용히 얘기만 하고 음식을 먹었다. 김기용은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와서 다시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차가까지 가까워요. 화현면이라고, 일동에서 한 6킬로 정도 갔지. 돌아가면은 한 10킬로 정도 되요.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한 4-5킬로 되는데. 돌아가니까 10킬로정도. 노인들 가마타면은 멀미해요. 함은 친구가 졌으며, 함을 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함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신랑 다루는데, 저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3일 후에 가면은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걸 하고, 심한 동네는 신랑을 막 매달고 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건 없었고,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다가 음식 나오는 거 먹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발바닥 때리고 그런 건 저는 안 그랬어요.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처남도 없고 하나까, 무남독녀 외동딸이에요. 처남들도 없고, 노인들도 많기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받은 모양이에요. 혼례 치르고 잔치를 했지요. 양쪽 집에서 잔치를 거하게 하죠. 그러고 점심 먹고 노는 거죠. 해 높아서 오죠. 신랑집에서도 잔치 하죠. 일가친척 다 모이죠. 그날은 신부가 절 안하죠.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는 20년간 포천의 전기회사에 다니며 전기공사를 했으며, 당시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회사를 그만 둔 다음에 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요즘 논농사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고추는 노지가 아니어서 비가 많이 와도 탄저병에는 걸리지 않으며, 다만 벌레가 생겨서 농약을 치고 있다. 그는 올해 고추 3000대를 심었으며, 고추밭에 검은 비닐을 씌워서 잡풀은 나지 않는다.

(3) 길명2리의 세시풍속

길명2리 김기용(남, 1942년생)이 구술한 세시풍속에는 설날 세배와 복조리, 정초 윷놀이와 지신밟기, 동네농악 걸립, 정월대보름 달맞이, 햇불기원, 햇불싸움, 쥐불놀이, 더위팔기, 귀밝이술, 부럼깨기, 근래의 달집태우기, 3-4월 지붕이گی, 4월 20일 밭농사 시작, 5월 초까지 서리, 5월 초 모내기, 6월 초(25일후) 논매기 시작(두벌매기), 8월 초 산치성, 10월 시제, 12월-1월 새잡기가 조사되었다. 이 마을의 특징적인 세시로는, 정월보름에 인근 지연리와 지연천을 사이에 두고 햇불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깡통이용한 쥐불놀이로 바뀌었다.

이용숙(여, 1943년생)이 구술한 세시풍속은 1월 14일 오곡밥, 정월대보름 김밥 먹기, 달맞이, 잣불 점치기, 널뛰기와 종지놀이, 윷놀이 등이다.

김기용이 구술한 세시를 보면, 정초에 마을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녔다. 집안 어른들뿐만 아니라 성씨가 다른 60-70대 노인들에게 다니며 세배를 했다. 복조리는 설날 새벽부터 다니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조리 사시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데, 장사가 이것을 문 위에 걸어놓고 간다. 정월대보름에는 대북이란 풀을 가지고 화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다. 대북은 들판에 나는 쭉 종류로 대략 1m 정도 자란다. 낮으로 베어 화를 만들고, 짚으로 나이수 대로 묶는다. 그리고 논두렁에 가서 달이 뜨면 불을 밝힌다. 당시에 돼박성냥이 나와서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부모들은 아이의 머리 위에서 화를 돌리고 잡귀를 쫓으며 달님에게 절을 했다.

아이들 햇불은 대북으로 만들어요. 그 풀인데, 쭉종류라고 해야 되나? 좀 틀린데. 대북 풀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많지 않은데. 높이는 꽤 컸었죠. 1미터정도 자라는 게 있었죠. 그걸 베어다가 나이대로 묶죠. 풀을. 애들 때니까. 10살이면 10번 묶고, 8살이면 8번 묶고 그랬죠. 짚으로 묶었고요. 불은 보통 거의 논두렁. 논 같은 데서. 불을 붙여가지고 달이 떠오를 때. 떠오르는 장소는 일정하죠. 우리 때만 해도 성냥이 있었죠. 그땐 뒷박 성냥이라고, 큰 거 들통씩 있었죠. 달을 향해서 불을 붙이고, 어린애는 부모님들이 붙여줘서 머리예다가 돌려주죠. 돌려주는 건 잡귀 땡기지 말라고 인제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돌리는 방향은 일정한데, 말하는 건 기억이 잘 안나요. 불은 다 탈 때까지. 두 손 잡고 계속 달에게 절을 하죠. 그것도 한참 타죠.

보름날에는 달집태우기도 했다. 나무와 솔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이것은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것이다. 정월대보름에 농악패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걸립을 했다. 지신밟기라고 하는데, 살만한 집을 다녔다. 각 가정에서는 막걸리와 음식을 내놓는데, 이런 풍습은 20년 쯤부터 새로 시작되었다. 이장과 청년회장이 중심이 되어 이 행사를 했다.

정초 달집태우기도 새로 만들었으며 이때에 농악을 친다. 기존 조사에 면소재지에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와 비슷한 황덕발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런 놀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정월대보름 풍속으로 윷대 어른들이 예전에 더위를 팔았다고 하며, 본인은 더위팔기를 한 적이 없다. 보름날 아침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귀밝이술이라고 술을 먹여 준다. 이 마을에서 부럼은 보통 호두, 밤을 깨물었으며, 땅콩은 나중에 나왔다. 여러 집을 다니며 밥을 몰래 훔쳐 먹는 일은 이 마을

에 없었다. 정초에는 예전에 토정비결을 보아서 한 해의 운수를 미리 점치기도 한다. 사월초파일에는 신도들만 절에 다녔다.

모내기는 근래에는 4월 말에 하며, 노지는 5월 초에 한다. 품앗이는 농토에 따라 달랐는데, 부친이 있을 때에는 30-40명이 2일간에 걸쳐 모를 심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평 정도의 모를 내며, 당시 4000-5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 모내기 때의 식사는 아침은 본인이 집에서 먹고 오고, 오전차는 국수(물이나 비빔국수), 점심은 밥, 오후차는 밥과 국수를 내왔으며, 술은 계속 나왔다. 모내기는 일한 날짜와 논에 따라 품값을 계산했다. 논매기는 3번을 매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내기를 하고, 25일 후부터 호미로 애논을 맨다. 그리고 약 1주일 후에 손으로 두벌을 맨다. 또한 1주일 후에 다시 세벌매기를 한다. 이곳에서는 두벌매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품앗이로요. 품앗이는 농토에 따라서 달라요. 농토가 많은 사람은 많이 붙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붙이죠. 아버님 계실 때에는 농사가 많아가지고, 많을 때에는 30~40명씩. 이걸로도 하루에 모를 못다 낸 적이 있죠. 한 이틀 냈죠. 한 사람이 옛날에 한 100평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만해도 한 4천평~5천평이니까 하루에는 못다 했죠.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었죠. 품앗이는 아침은 본인들이 먹고 오고. 참, 점심, 오후차, 이렇게 먹죠. 주인분이 차려서. 참은 그 전엔 국수같은 걸 많이 했죠. 물국수도 하고 비빔도 하고요. 점심에는 밥이고, 오후차에도 밥 먹었죠. 술은 계속 나오죠.

농토가 적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당으로 주죠. 일당으로 안 줄 때에는 1:1로 하죠. 농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선생님 댁에 가서 하루 해주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하루 오잖아요? 근데 농토도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했는데, 내가 혼자 하지를 못하죠. 그럴 때에는 농사 지어놓은 사람은 돈으로 주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일로 해주고. 서로 안 맞을 때, 고거는 일손이 적은 사람은 사람을 적게 얻으니까, 일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 10시간 한다고 하면 사람을 적게 얻으니까 10시간 정도 하죠. 당연히 따지니까 돈을 줬죠. 김장 같은 건 안 따지죠.

농사일 같은 건 정확히 따지죠. 거의 시간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모내기 한다면, 농사 적은 사람도 하루 해야 되고, 많은 사람도 하루 줘야요? 그럼 농사 적은 사람은. 내가 사람 여럿 얻었다고 하면은, 농사 적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안 가면은 하루 품값을 주고, 내가 가게 되면은 안 주고요. 경우가 밝죠. 여기에는 큰 보 같은 건 없었어요. 수로도. 이제 하천이죠. 하천은 담을 쌓으면 디디 파는 거죠. 파서 물 좀 더 나오라고. 지금은 전부 관정이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요. 김매기는 세 번 했죠. 그래서 인제 모낸 논은 5월초에들 내니까, 모내고 한 25일정도 있으면 옛날에는 옛논이라고 호미로 이렇게 땀죠. 그걸 파 엮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두벌을 메고, 두 번으론 손으로다가 풀만 뽑는 거죠. 풀이 많으면 세벌도 메죠. 두벌인 경우가 많죠.

여름철에 천렵을 간 적도 있다. 김기용이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지연리 큰 개울에 가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은 적이 있다. 송사리, 모래무지, 피리, 민물게 등을 잡아 고추장을 넣고 매운탕을 끓여서 먹으며 하루동안 논다. 백중 때에는 논농사가 끝나는 시기이며, 복날은 몇 사람끼리 어울려 개를 잡아서 먹기도 한다.

8월 초에 길명 2리에서는 산치성을 올렸다. 음력 8월 초(8.1-8.3)에 날을 잡아 산지터에 올라가서 오전 10시 경에 직접 소를 잡아서 산치성을 올린다. 윗대부터 “산치성을 드린다”고 말을 했다. 소는 황소를 잡는데, 곁에 흠집이나 검은 점이 없는 소를 고르는데, 대개 다른 동네의 소를 사다가 쓴다.

황소는 산치성 올리기 5일-1주일 전에 사며, 산지사 임박해서 2-3일 전에 마을로 싣고 온다. 이어 신북면 도살장에 가서 도살을 하는데, 다리, 갈비, 머리, 4족 등의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한다. 그리고 소 전체를 쓰지 않고, 반 마리만 산으로 가져간다. 예전에는 산에 지계를 지고 운반했으나 지금은 트랙터를 이용해 운반한다. 산지터는 소나무가 있으며, 특별히 제단은 없지만, 판넬로 진설하기 좋게 만들었다.

산치성은 옛날부터 내려왔죠. 글썄 우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안 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산치성 지내는걸 알았으니까, 예전부터 산치성. 산치성 들인다고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주욱 뭐 중단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 때에는 피난 나갔다가 돌아왔고, 전쟁 때에는 중단이 됐고요.

소를 잡는 것도 이제 지저분한 소로 안 잡고, 거먼 점 하나 있는 것도 안 썼어요. 노란 황두. 조그만 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건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널 모레가 제사죠. 동네에서 마땅한 소가 없으면, 소 많이 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죠. 몇 명이 가서 아주 잡티 하나 없는거, 좋은 걸로 골라서. 우시장이 아니고, 딱 데 소 기르는 사람들에게요. 목장. 소는 황소예요. 옛날부터 황소를 썼어요. 보통 산치성 드리기 한 일주일 전이나. 한 5일전에 가지요.

일단 소를 사놓고 이제 임박해서 한 2-3일 앞두고 싣고 나와서 잡아오죠. 도살장에 가서. 포천 좀 못 가고 신북면이죠. 가면 도살장이 있어요. 소는 부위별로 나누죠. 다리, 갈비. 뭐 큰 부위대로. 네 족은 족대로. 그렇게 해두고 내장은 내장대로. 그러니까 반마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죠. 특정 부위가 아니라 소 반쪽. 다 가지고 올라가기 힘들니까, 산쪽이라고 해서 우측을 산이라고 하죠. 그니까 반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전에는 지고 멩겼죠. 지계로 옛날에는. 지금은 차가 있고, 트랙터가 있으니까. 트랙터로 싣고 올라오죠. 산제당까지 트랙터는 올라가요. 트랙터는 거 웬만한텐 다 올라가니까요.

여기서 그 제사지내는 곳을 산지터라고 그러죠. 거긴 뭐가 있는건 아니고요, 나무가 있죠. 오래된 나무집. 소나무요. 제단 같은 거는 고게 조그맣게 판넬로다가 제사대를 지어 놓았죠. 거길 찍은 사진은 없네요. 제물을 싣고 올라가는 건 이제 동네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 반장이든. 반장님이 3개반이 있는데, 반장님들이 그 트럭에다가 싣고 올라가죠. 부위별로 반쪽만을 올라가죠. 소는 생으로 써요. 주위에 다른 것도 놓습니까? 재물로? 다른 거는 과일 놓고, 삼색과일. 그리고 인제. 밥 짓고, 그거 술을 직접 맨들죠. 금방 해서 돼요. 제사 지내러 올라온 사람들이 새벽에 올라가죠. 한 5시쯤이나 4시쯤? 그때 올라가서 인제 밥을 짓고, 술도 해 담그고, 그러고 인제 산치성 지내는 옆으로 골짜기 옆에 물이 흘러요. (김기용)

산치성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화주와 제관이 있다. 화주는 날을 봐서 그 해 나이가 맞는 사람 중에 선정하는데, 김기용 본인도 화주를 한 적이 있다. 화주로 뽑히면 5일 전에 이장이 미리 얘기를 해 주며, 보통 3일간 목욕제계를 하고, 부정이 타지 않도록 근신을 한다. 이 때에는 비린 음식이나 생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살생도 해서는 안 된다. 화주가 하는 일은 제물을 준비하는 일인데, 장에서 삼색과일을 사고, 집에서 백설기를 준비한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여자가 산지터에 올라가지 못한다.

여기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화주라고 하죠. 화주. 화주하고 제관이 있어요. 제관이에요. 근데 고거는 인제 날 받는 분들, 옛날부터 보던 분들이요. 그분들한테서 봐 가지고, 몇 살 먹은 사람이 적당하지 해마다 다 틀려요 그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아니라, 나이에 맞는 사람. 그 해에. 그 해에 나이가 맞는 사람이 하죠. 저도 한번 화주를 했어요. 화주는 평상시에 품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으면 집에서 3일간 잘 안 나가요. 화주하고 제관은 한 1주일 전에, 한 5일 전에 이야기 해주시죠. 5일 전에. 이장이 이야길 해야죠. 날 받는데 가서 이장이 받아오면은, 고 나이에 맞는 사람한테 이 이야길 해주죠. 그 사람이 이제 3일전부터는 목욕제계하고, 소위 부정이 없어야 되지요. 또 비린거라던가. 생선이죠. 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먹어요. 살생하는 거는 절대 안 먹고. 화주가 하는 일은 이제 옛날에는 화주가 장에 가서 삼색실과 고르고, 이런 거 주관하고, 떡하고, 백설기.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 화주하고 제관하고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두 사람이 올라가 준비해 놓고요, 고기가 오면은 각 반장들이나 동네 일 보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때 이제 화주와 제주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부인의 도움도 받죠.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가기도 하고 그렇죠. 산지터는 못 올라가죠. (김기용)

산에는 새벽 4시 경에 화주와 제관 2인이 우선 올라가서 밥을 짓고 술을 담근다. 술은 밥과 누룩을 버무려서 몇 시간 만에 담그는데, 제법 술맛이 난다. 이어 동네일을 보는 사람과 반장이 제물을 갖고 올라간다. 산지터는

금주산 아래에 있지만, 올라가는데 한 시간은 걸린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잡은 소를 놓고, 촛불, 향, 제물을 갖춘다. 제물은 앞쪽에 과일을 놓고, 포를 쓰지만, 전은 쓰지 않는다. 제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양복을 제외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제사는 오전 10시경에 지낸다. 화주가 먼저 술을 올리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술을 세 바퀴 돌리고, 절은 3번에 걸쳐 재배한다. 우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술을 올리며, 나중에 끝마칠 때에 다시 절을 하고 철상을 한다. 축문은 제관이 읽으며, 다 읽고 나서 소지를 한다.

새벽에 올라가요. 한 새벽 4시쯤. 그때쯤 올라가죠. 제사는 이제 고기가 도착하면 지내니까, 한 오전 10시쯤 지낸다고 봐야 되죠. 술 담그는 것도 화주하고 제관이 같이 하는 거죠. 술은 밥에다가 누룩해 가지고 버무려서 그저 놔두면은 그게 몇 시간이면은 우려나 가지고, 술맛이 나더라고요. 옛날부터 거기 가서 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빚어서 놔둘 수도 없고, 거기가 큰산 중턱도 안 돼요. 큰 산 밑으로 하단으로 봐야죠. 올라가면 중턱쯤 못 올라가죠. 금주산이죠. 고기는 판넬이니까 그냥 놓죠. 비닐을 깔고. 돼지는 반마리를 올리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무겁죠. 그래도 여럿이 하니까. 참가는 화주 집안이 있고 각 반장 있고 이장 있고 하니까, 한 6~7명 되죠.

제사에는 촛불을 키죠. 향을 피우고. 향은 요즘엔 요즘 나오는 것도 쓰는데, 예전엔 향나무로 썼죠. 옛날엔 흰옷도 입었는데, 지금은 그냥 입는 대로. 그 대신 깔끔하게 하죠. 양복은 안 입고요. 과일은 앞쪽에 놓죠. 오징어 같은 건 안 쓰고, 포는 쓰죠. 전은 전혀 안 부치고요.

술은 화주가 제일 먼저 올려야죠. 술잔을 돌리죠.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한 세바퀴 정도로 돌리죠. 절은 두 번씩 하는데, 두 번씩 세 번을 하나? 다른 사람은 술 안 올려요. 첨에 술 올리기 전에 절을 하고요. 향을 피우고 절을 하죠. 그 뒤에 술 올리고 절을 하고, 글고 좀 이따가 끝마칠 때 절을 하고. 철상을 하는 거죠. 축문은 있죠. 제관이 축문을 하죠. 축문은 여기엔 없고요. 내용이 글씨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축문은 한문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글로도 쓰긴 쓰죠. 내용을 풀진 않고요. 축문을 읽고 나서 소지를 하죠. 잘 타야 좋지요. 거기까지 하면 철상을 하고, 거기 전부 가지고 내려와서요.(김기용)

고기는 호수대로 균등하게 나누는데, 대략 살코기로 2-3근씩 돌아간다. 그리고 뼈다귀, 족, 갈비는 경매를 한다. 따라서 소 한 마리 값이 거의 나오게 된다. 대략 고기는 시중보다 싼 가격이며, 1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이 고기는 제사에 쓴 것이기 때문에 추석날 집안 제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제시대에는 산제당에 금줄을 쳤으나 지금은 치지 않는다. 지금 마을에서

는 화주와 제관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고기를 가져가지 않고, 남에게 대신 양보한다. 산치성은 산신령에게 동네에 부정이 없게 해 달라는 뜻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산치성을 계속하는데 동네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동네에서 이제 이 동네의 호수가 100호면은, 고기를 100분의 일로 잘라요. 그렇게 해서 나눠먹죠. 뼈다귀, 족, 갈비 이런 건 경매에 붙여요. 살코기는 똑같이 나누지요. 식구가 많다고 더 주는게 아니고, 셋이 사나 둘이 사나 똑같이. 한두 근 정도에서 세근 정도. 고기 값은 대는 거죠. 소 한 마리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샀으면은요, 경매 부른 나머지. 갈비하고 뼈다귀 속등 부속품요. 고거를 팔면은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100분의 일이라던가 그걸로 하죠. 채워 넣는 걸로. 그래서 고기값은 시중에서 사는 거보다 많이 싸죠. 한근에 돈 만원정도 될러는지 모르겠네. 추석 차례에는 그걸로는 안 쓰고요. 그건 산치성을 지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조상님을 모실순 없죠. 이 시기가 8월 초하루에서 초삼일 안에 지내죠. 음력이요. 옛날 방식이 그대로 내려오죠. 경매도 어려웠 때도 했어요. 옛날에는 집앞에 금줄같은 걸 쳤었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고요. 이야기만 들었지. 요즘엔 그거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허허.

화주나 제관이 되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들. 바쁘다고 바쁘다고 뭐 해서 잘 안 할려고 해요. 소를 제물로 쓰는 것에 대해 아직 마을에서 별 다른 말은 없어요. 교회 댕기는 분들은 고기를 잘 안 잡수더라고요. 그 고기를. 안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 주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사는 거지. 교회댕기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산치성을 왜 지내는 지는 고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튼 산신령에게 공을 들일려는 거니까, 동네에 부정 좀 없게 해달라고. 올리는 거죠. 경매할 때는 마을사람들이 참여하죠. 동네사람이죠. 외부사람은 별로 없고요.

경매가 비싸게 나가면은, 고기값이 좀 짠 거고요. 경매거리가 좀 싸게 나가면 고기값이 좀 비싸고 하는데. 소가 100만원인데, 뼈에서 30만원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은 고기값으로 세고. 만약에 5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고기값으로 세고. 제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날 팔아가지고 전체에서 경매가가 얼마, 나머지 고기가 얼마니까 100허면은 100분의 1로 나오면은 금액이 나오는 거죠.(김기용)

인근 길명 3리는 40호 정도 되는데, 별도로 돼지를 잡아서 산치성을 지낸다. 길명 1리의 꼭두바위마을은 길명2리 산치성에 참여하고, 사기점마을은 별도로 산제당에서 산치성을 올린다. 개울 옆의 동네 입구에 잘 생긴 꼭두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훼손된 상태이다.

예전엔 가구수가 100호가 못 됐는데요. 지금은 세대주 수로는 한 백이십세대 되요. 길명 2리 전체죠. 길명 1-3리가 다 하면, 한 백 칠팔십호 정도 돼요. 옛날부터 길명 3리는 돼지 잡아서 했고요. 산치성인데, 지금도 돼지 가지고 하죠. 거기는 한 40호정도 되

쥬. 길명 1,2도 꼭두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꼭두바위, 사귀정. 두 동네로 나뉘어져 있는데, 꼭두바위는 같이 산치성을 지냈고. 사귀정은 별도로 지냈쥬. 거기도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사귀정은 몇 가구 안 돼요. 옛날에도 많지 않았는데. 20가구 정도 되나?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은 뭘 했나봐요. 뭘 하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려가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걸 꼭두바위라고 하는데, 바위가 잘 생겼쥬. 잘생겼다고 봐야 되나? 동네 입구 겨울 옆에. 우뚝 거기에 올려놓은 게요. 지금은 그걸 뒤에 하나를 까고 바위 하나만 서 있쥬. 어느 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뭘 지을려고 했는지 뒤를 허물었어요.(김기용)

11월 말 겨울 땡감 채취에는 5-6명이 하루에 2번씩 인근 금주산에 갈가서 나무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17-18살 적부터 지계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

가을에 월동준비 한다고 집단으로 지계 지고 가서 해 오는 거쥬. 여럿이 같이 올라가서. 그건 11월말쯤 되면 허쥬. 우리가 이 앞산. 금주산. 하루에 2번씩 땡겼어요. 산 너머 가서 해왔어요. 많이도 갈 수도 있고 적게도 갈 수도 있는데, 한 대여섯 명. 한 집에 몰아주는 건 아니고, 각자 하는 거지요. 큰일을 당한 집을 특별히 몰아 준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중학교 졸업 말고 바로 농사지었으니까, 18살 때부터 지계 진 게, 오래 했쥬.

겨울철에는 초가집 시절에 새를 잡았다. 11-1월 사이에 통발로 새를 잡는데, 가벼운 삼대로 엮는 등근 통발을 초가집 처마의 새집 구멍에 설치해 놓고, 흔들면 새가 나오며 걸리게 된다.

이용숙(여, 1943년생, 김기용의 부인)이 구술한 세시를 보면, 정월 열나흘 날에는 오곡밥을 해먹고, 정월 대보름에는 김밥을 먹는다. 김밥은 주먹밥보다 작은 크기로 밥을 뭉쳐서 구운 김에 찐 뒤, 개울에 띄워 버린다. 정월대보름에는 ‘달님맛이’를 하는데, 들에 대북이라는 풀을 한단 뜯어, 나이대로 묶어서 열나흘날 태운다. 이것을 일부 남겨놨다가 다시 정월보름에 태운다.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를 만들어주며, 달맛이를 마치고 집안으로 들어와 달떡을 나누어 먹는다.

아이들에게 잣불보기를 해서 한해의 운수와 건강을 점치기도 했다. 잣불은 잣을 솔잎이나 이쭉시개 같은 것에 끼워 불을 붙여서, 잣이 잘 타면 운수가 좋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꺼지거나 불이 잘 붙지 않으면 한해 운수가 나쁘다고 여겼다.

(4) 길명2리의 놀이

길명2리의 놀이로 햇불싸움, 쥐불놀이, 윷놀이대회, 연날리기, 장기, 말타기, 닭싸움, 자치기, 물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널뛰기, 술래잡기, 운동회, 썰매타기, 농악, 장터씨름대회, 장기, 참외서리 등이 조사되었다. 톨못이마을의 놀이로 농악, 자치기, 연날리기, 돈치기, 장치기(부친 세대), 팽이치기, 썰매, 돼지오줌통 축구, 제기차기, 구슬치기, 씨름, 윷놀이 등이 조사되었다.

길명2리의 특징적인 놀이는 1950년대 중후반에 인근 길명 3리와 정월대보름에 햇불을 던지면서 햇불싸움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연을 만들 때에 대나무가 없어 싸리나무로 만들었으며, 사기를 먹여 연싸움을 했고, 대보름날에 연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농악패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걸립을 했다. 널뛰기를 1950년대까지 정초에 놀았는데 이후 소멸되었다. 김기용(남, 1942년생)이 구술한 놀이는 다음과 같다.

윷놀이대회는 정월대보름에 동네 돈으로 행사를 했다. 놀이 방식은 1만원에 표 4장을 구입해서, 4인이 윷놀이를 한 다음, 이긴 사람이 상대의 표를 따서 다시 올라가는 방식이다. 부녀회와 청년회가 주최하고, 상품으로 금반지, 이불, 그릇이 주어졌다.

햇불싸움은 전쟁 이후인 1950년대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김기용(남, 1942년생)은 10-15살 시절에 몇 년간 길명 3리와 햇불싸움을 한 적이 있다. 햇불을 던지고 ‘와’ 소리를 질러가면서 밀고 당기고 했는데,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가끔 불을 던지기도 했으나, 불이 나지 않게 주로 논두렁에서 했다.

이웃 동네끼리 불로 싸우는 게 옛날에는 거진 좀 있었는데, 별거 아녜요. 길명3리라고. 옛날에 아주 쪼그맣을 때 하고 안 했어요. 한 열 한살. 열 몇살 하고 말았어요. 햇불을 던지기도 하고, 와~하고 물러갔다 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죠. 돌은 안 던지죠, 위험하니까. 밤이니까. 장난 비슷한 거죠. 불을 던지기도 하죠. 거의 다 타면은 던지는 거죠. 집 옆에선 안 하고 논두렁에서 그렇게 하면서.

웃놀이대회는 길명 2리에서 정월대보름에 해마다 열린다. 동네 기금과 동네 유지의 회사로 행사를 치른다. 놀이 방식은 1만원에 비교권 표 4장을 구입해서, 4인이 웃놀이를 한 다음 이긴 사람이 상대의 표를 따서 2차전에 올라가는 방식이다. 나중에 비교권이 많은 동점자들이 나오면, 서로 웃을 5번 던져서 점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최고점수가 1등을 하고, 2등이 동물이면 다시 던져 2등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탈락을 한다. 부녀회와 청년회가 주최하고, 상품으로 금반지, 이불, 그릇이 주어졌다.

웃놀이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즐기고 노는 거죠. 상품같은 거는, 1등이면 금반지. 이불같은 거, 그릇같은 거. 여러 가지. 이장이 준비하죠. 동네에서. 동네돈으로 하되, 근데 그게 장사가 돼요. 가는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표도 팔죠. 만원에 낙장. 표가 있어야지 시험에 참여하죠. 동네서쪽들이 있고, 부녀회서쪽들이 있고, 청년회서쪽들이 있고 그래요. 나이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이제 네명이 표 하나씩 내고, 이기는 사람한테 비교권을 하나 주죠. 비교권은 네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이. 비교권이 수십장 되겠지만, 그거 가진 사람들끼리 다시 놀아요. 이제 줄을 딱 끼워놓고, 등져가지고 거기서 점수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1등이죠. 2등부터도 점수대로 가리는거죠. 최종 두사람이 아니고 1등 하나, 2등 둘, 3등 셋, 5등 다섯. 이런 식으로.

음. 그런데 이긴 사람들끼리 동점 나왔을 때. 동점 나왔을 때만 다시 놀죠. 열명이 이렇게 놀았는데, 한사람이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나오면은, 20점 나온 사람이 없으면 그사람이 1등이고. 15점짜리가 세명이면 그 사람들끼리 놀아서 한 사람을 뽑는 거죠. 3등으로 밀려나는게 아니고. 비교권 가진 사람들이 다섯 번 던져가지고. 첨에는 네명은 말판으로 하고. 만약 2등이 두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끼리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2등이고 한사람이 탈락이에요. 3등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동점이 많이 나와요.

이용숙(여, 1943년생)이 구술한 여성들의 놀이를 보면, 정월에 여자들은 널뛰기와 종지놀음을 한다. 종지놀음은 여자들 여럿이 동그랗게 뽕 둘러앉는데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 무릎 뒤로 손수건 같은 것을 푹푹 말아서 동그랗게 뭉쳐서 돌린다. 가운데 술래가 앉아 있다가 수건이 어느 쪽으로 도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뺏으면, 들켜서 뺏긴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여자들끼리만 노는 놀이다. 보통 10여명이 모인다. 술래는 찾을 때까지 돈다. 수건이 도는 것과 함께 술래도 찾으려고 함께 돈다.

시집오기 전에는 웃놀이를 많이 했다. 편을 짜서 ‘둘러잡기’라는 것을 가장

많이 놀았다. 윳을 찌리가지를 손가락 보다 굵게 깎아서 만든다. 4개를 한 가락도 떨어뜨리지 않고 잡는 것인데 5명씩 편을 먹고 마주보고 일자로 앉는다. 맨 앞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중간에 손으로 넘기다가 윳을 떨어뜨리면 두 번째 앉은 사람이 이어 받아 한다. 혼자서 한 사람이 오래 하는 편이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끝나는 팀이 진 것이다.

나.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1) 틀뭇이마을 개관

신북면은 조선시대에는 포천현 내북면(內北面)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외북면(外北面)을 통합하여 신북면이라 개칭하였다. 가채리(加採里), 기지리(機池里), 신평리(新坪里), 만세교리(萬世橋里), 심곡리(深谷里), 계류리(溪流里) 고일리(古日里), 삼성당리(三星堂里) 등 8개리를 관할하다가,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027호로 청산면의 삼정리(三政里), 금동리(琴洞里), 덕둔리(德屯里), 갈월리(葛月里) 등 4개리를 병합하여 현재 12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총 면적은 95.89㎢로 12개 법정리(동), 30개 행정리(통), 9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리(機池里)는 가채리(加採里), 신평리(新坪里), 심곡리(深谷里), 고일리(古日里), 삼성당리(三星堂里), 삼정리(三政里), 만세교리(萬歲橋里), 계류리(溪流里), 갈월리(葛月里), 덕둔리(德屯里), 금동리(琴洞里)와 함께 신북면의 12개 행정리 중 하나이다.

신북면은 지리적으로 포천시에서 두 번째로 넓으며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한편, 덕령산과 칠월리고개로 인하여 크게 3개 권역 곧, 내북, 외북, 남청산으로 구분된다. 동쪽으로는 화현면, 군내면과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연천군, 동두천시, 남쪽으로는 신읍동, 북쪽으로는 창수면, 영증면과 경계를 면하고 있다. 서쪽에 종현산(鐘懸山), 왕방산(王方山), 국사봉의 연봉이 뻗어있고 그 여맥이 면내로 내려와 구릉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부 저지대에는 포천천이 흐르고 서부저지대에는 영평천의 지류인 외북천이 흐른다.⁴⁹⁾

류건영(남, 1928년생)에 의하면,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은 문화류씨가 8대에 걸쳐 사는 집성촌이다. 9월 초순에 천주산의 산제당에 산지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정월 16일에 마을 단위로 여전히 동화를 세우는 마을이다. 이곳의 동화는 수수깡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며, 근래에는 수수깡에 나무를 섞어 사용한다. 그리고 다복을 껴어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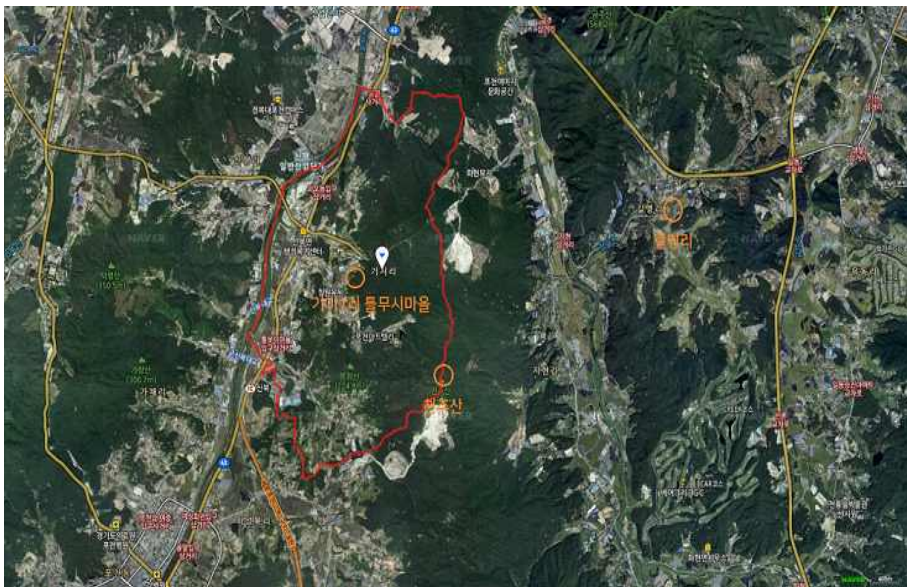
49) 신북면행정복지센터>연혁 및 유래(www.pocheon.go.kr 접속일 2018.9.13)

수대로 묶어 개인 화를 만들어 달맞이를 했던 마을이다.

틀못이는 기지(機池)라고 쓰며, 틀기 자에 못지 자를 쓴다. 예전에는 마을에 못이 있었다고 하며, 앞쪽에서 베 짜는 벼를 형국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60가구 중에 90%가 문화 류씨이며, 류건영은 이곳에서 8대에 걸쳐 살고 있다. 8대 이전 할아버지는 군내면에서 살았다.

이 마을은 예전에 80호 정도였는데, 동네 뒤에 석산이 개발되고, 주위에 작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100호 정도로 늘어났다. 예전에 80호 중에 유촌마을은 문화 유씨가 80% 정도였으며, 양촌은 양씨가 25호 정도였다.

류건영이 이장을 할 때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잘 나가던 김계원에게 직접 청원을 해서 동네 들어오는 길을 닦았다. 류건영은 틀무시마을에서 이장을 20년간 했으며, 노인회장도 20년 동안 했다.



〈그림 9〉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전경(인근 천주산, 길명리)



〈그림 10〉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세부도

(2) 틀뭇이마을 토박이의 삶



〈그림 11〉 기지1리 류건영, 조난호 부부

류건영(남, 1928년생)은 90세의 고령으로, 문화 류씨 집성촌인 기지1리 틀뭇이마을에서 8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전쟁 중에 조모, 부모, 누이동생 다섯, 모두 8식구가 사망했으며, 혼자만 생존해서, 전쟁의 고통스런 피해자이다. 아직도 60여년 전에 본인이 직접 지은 전통 한옥에 살고 있으며, 대들보에 성주가 있다. 그리고 각종 동화와 산제사의 제문을 직접 작성하며, 아직도 예전에 작성한 일부 제문을 보관하고 있다.

류건영은 전쟁의 큰 피해자이다. 전쟁 중에 8식구가 세상을 떠나서 가족 중에 혼자만 살아남았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 5명 모두 8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떻게 8식구가 세상을 떠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워낙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라 더 질문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전쟁 직전인 1949년에 결혼을 하고 공주로 피난을 갈 때에는 부인과 같이 갔

다.

피난은 충청도 공주요. 공주시 신평면쪽으로 갔지요. 잊지 않아요. 3년쯤 있었어요. 신평면 조평리. 식구하고 갔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집도 제가 지었죠. 서른두살에. 고 몇 년도에 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니까 그때 나이에 어떻게 됐냐면 인천 상륙했을 때. 50년이죠. 고때 난리에 공주로 갔고. 저는 한번 피난가고 말았어요. 집 지을 때 목재는 사왔죠. 포천읍에서요.

돌아와서 허망했죠. 그럼요. 결혼도 했죠. 애들도 있었죠. 내가 이 얘기를 하자면 기가 막혀요. 난리에 식구가 9식구였어요. 근데 6.25때 다 돌아갔어요. 사변때. 나 혼자만 남았죠. 돌아가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누이동생이 다섯. 그렇게 남겨드요. 그렇게 살다가 나만 남았죠. 나만 어떻게... 남아가지고서... 여덟 분이 돌아가구, 나는 어떻게 참 구사일생 했죠. 막 장가를 처음 들고 나서 공주로 피난을 갔죠. 혼인은 1950년 11월 달인가? 그리고 바로 전쟁이 났죠.(류건영)

류건영은 피난 직후인 60년 전에 집을 새로 지었다. 전쟁 때에 충청남도 공주의 신평면 조평리로 피난을 갔다 왔는데, 와보니 집이 불에 타 버렸다. 그래서 본인이 집을 새로 지었다. 원래 기와집이었는데, 나중에 양철집으로 바꾸었다가 지금은 다시 기와로 바꾸었다. 집을 지을 때가 32세였으며, 10-20대 시절에 조부와 부친이 집을 짓는 것을 유심히 보아서 이것을 참고로 집을 직접 지었다. 전쟁 때에 불에 탄 이전 집은 지금 집보다 더 좋았다. 행랑채가 별도로 있었으며 바깥채가 매우 컸다.

현재 사는 집에는 집을 지을 때 설치한 성주가 그대로 있으며, 바깥 부엌에는 부뚜막 왼쪽 위에 정화수를 떠놓는 선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그 자리에 정화수 그릇이 놓여 있다. 한편 대청 대들보 위에는 집을 지었던 시기가 그대로 적혀 있다. 대청 입구에는 제비집이 있으나, 요즘에는 제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12〉 기지1리 류건영이 60여년 전에 지은 한옥



〈그림 13〉 기지1리 류건영이 60여년 지은 집의 대들보



〈그림 14〉 류건영 집의 바깥 부엌의 아궁이의 솔과 장작



〈그림 15〉 기지1리 류건영의 대들보 상량문



〈그림 16〉 기지리 류건영이 60여년 전에 지은 집의 성주신



〈그림 17〉 기지리 류건영 집 바깥 부엌의 정화수

(3) 틀뭇이마을의 세시풍속

기지리 틀뭇이마을의 류건영(남, 1928년생)이 구술한 세시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용 햇불 기원, 1.16 동해세우기, 9월 초 산지사, 겨울철 토끼잡기 등이다. 윤의리(여, 1934년생)가 구술한 세시는 정초 널뛰기, 설날 떡국차레, 차례음식, 설빔, 추석 송편과 떡, 10월 시에좌 집안고사 등이다. 조난호(여, 1930년생)가 구술한 세시는 설날 떡만두굿, 차례음식, 추석 밀떡, 10월 시제와 집안고사 등이다.

류건영(남, 1928년생)이 구술한 틀뭇이마을의 세시풍속을 보면, 정월대보름에 아이들은 다복죽으로 햇불을 만들어 달님에게 절을 했다.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다복을 꺾어 1-1.5m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짚으로 나이 수대로 묶어서 불을 밝힌다. 대개 10살 미만의 남녀 어린이들이 화를 만들어 달님에게 절을 하며 소원을 빌었다. 나이에 맞게 어린 아이는 더 작게 만들었다.

정월대보름 햇불은 집 문앞에서 불을 붙였다. 화에 불을 붙이고 달을 향해 절을 한다. 부모는 아이의 머리 위에 몇 바퀴를 돌리며 아이가 잘 되라고 기원을 한다. 이것은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은 하는 집이 몇 집 안 남았다. 대개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서 햇불을 만든다.

개개인도 햇불을 조그맣게. 그 다복이라고. 쭉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산에 가서 꺾다가 동해를 만들곤 했죠. 길이는 한 1미터 반. 근데 나이대로 하기 때문에, 나이 적은 애들은 작게 하고, 큰 애들은 크게. 끈을 묶는 거 나이대로. 짚으로 묶어서. 전부 열 살 미만이지요. 작은건 일 미터정도. 다른 건 보통 햇불이라고 하죠. 동해는 남자여자 관계없이 16일날 해요. 음력으로. 햇불은 15일날 하고. 거의 같이 하죠.

동해는 정월 16일에 세우는데,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동해 세운다’라고 말을 했다. 수수깡을 모아서 세우며, 높이는 7-8m에 아래는 3아름 정도의 크기이다. 예전부터 불을 붙이면 약 30분정도에 걸쳐 탔다. 동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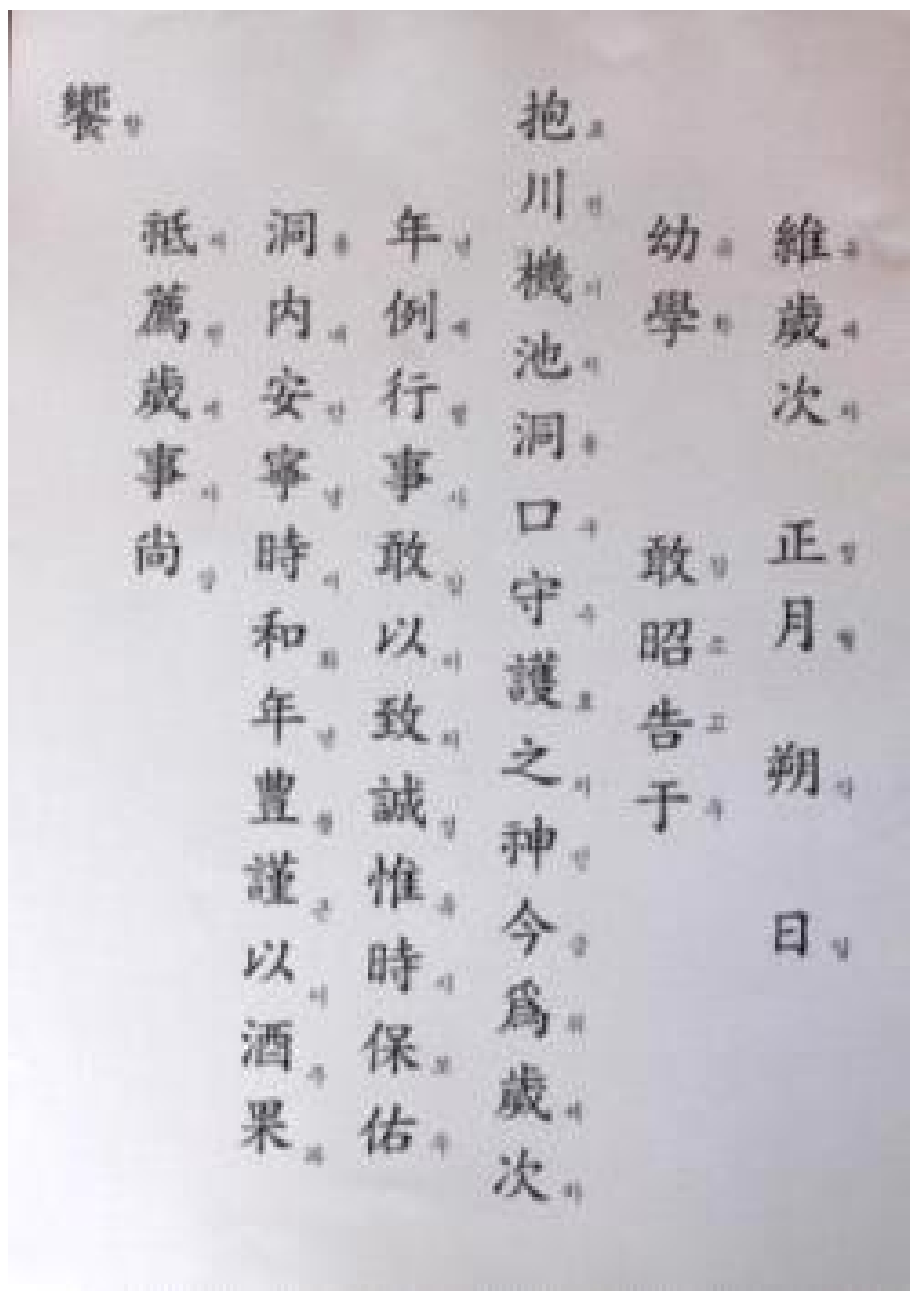
세우던 자리는 예전에는 제보자 류건영의 집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리 옆에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웠다.

동해 세우는 거요? 옛날서부터 동해라고 그랬죠. 옛날에 수수깡으로 모았죠. 그걸로다가 동해를 세웠죠. 높이가 높았어요. 옛날엔 한 7~8미터 높이로, 수수깡을 묶어서 일자로 세우죠. 세 아름 정도. 불 붙이면 시간은 잠깐 가요. 거의 한 30분. 동해는 마을 입구에서요. 마을회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다리 있는데 깨. 거기서 했죠. 거기서 달이 잘 보여요. 그리고 동해라는 건 포천에서 아는데. 그렇죠. 그 불화 자가 맞을 거예요. 동화. 동해라는 건 동화로 생겼어요. 원래는 동화가 맞아요. 나는 동화라고 생각해요. 어른 분들은 동해라고 하죠. 동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선 동해라 그래요. (류건영)

동해의 제물은 간단히 차린다. 삼색과일과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며, 나이드든 깨끗한 사람이 술을 3번 올린다. 이어 빙 둘러서서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동해의 축문은 산제축문이 있고, 동해축문이 있다. 옛날 임인년 축문이 현재 류건영이 보관하고 있는데, 시기는 1962년 임인년으로 여겨진다. 예전 축문은 복잡한데, 1975년에 신음리의 김문진이 현재의 상태로 축약해서 고쳐주었다.



〈그림 18〉 류건영이 보관하고 있는 톨미마을 산제사 축문(1962년 9월 2일)



〈그림 19〉 류건영이 작성한 동해놀이 축문

동화의 접화는 축관 주위에 빙 둘러서서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다음에 성냥으로 불을 붙인다. 불은 수수깥 위쪽으로 붙이지만, 지금은 10m 떨어진 곳의 철사줄에 불을 붙여 이것이 옮겨 붙게 한다. 동화 세우기는 도 경연대회에 출전했다. 지금은 동화세우기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약 7-8년 전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으며, 도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다.

동화 불 붙이기 전에 고사 지냈죠. 고사는 동화를 앞에 붙이고, 상 간단히 차려요. 떡도 해놓고, 과일은 삼색으로 놓고요. 잔을 붓고, 첫 잔은 나이 좀 든 사람. 마을에서 누굴 추천했죠. 깨끗한 사람으로. 화주라고 그랬어요. 한 잔 부었죠. 그 화주가 산에 가서 일 년에 한 번씩 제사 지냈죠. 절은 두 번씩요. 그니까 제관이 세 사람이 해요. 한 사람씩 술을 붓고 절을 두 번씩하고, 저도 화주 했죠. 여러 번 했죠. 요즘도 축을 하죠. 동화 제관 세 사람 중, 화주, 축관. 또 한 분은 아헌이라고. 초헌, 아헌, 종헌해서, 세 사람만 이죠. 절 다 하고 축문 읽고 끝내는데, 동네 사람들은 옆에서 빙 둘러서 쪽 서 있죠. 불은 위에 붙이죠. 옛날에는 성냥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한 10미터 떨어진 데에서 줄을 철사로 매가지고 불을 붙여서 옮겨 붙게 해요. 행사가 커진 게 경연대회 나갔을 때 부터인데, 한 7~8년 전에. 경기도에서 할 때 대회 저도 한 번 갔죠. 그리고 상을 줬어요. 가서 3등 했나?

동화의 수수깥은 요즘은 점차 나무로 바뀌고 있다. 근래에는 수수깥을 구하기 쉽지 않아, 수수깥은 조금만 사용하고 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예전에 제보자가 어릴 적에는 동화세우기 할 때에 수수깥을 걷으러 동네를 다닌 적도 있다. 걷은 수수깥은 햇빛에 말려서 전날 저녁에 미리 다발로 묶어 놓는다. 이것은 미리 말려야 잘 타게 한다. 예전에는 수수를 밭에 심었으며, 주요 밭작물이었다.

요즘에도 다른 동네 가서 수수깥을 구해와요. 여기는 수수깥이 없어서요. 나무도 하고 수수깥과 섞더라고요. 화는 옛날에는 조그맣게 했어요. 불 붙이면 사람들은 구경하죠. 비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소원 비는 거죠. 끝나면 술들 들고. 동화가 역사가 길어요. 저도 잘 몰라요. 어른분들은 옛날부터 했다 하시고. 어릴 때쯤에 수수깥을 거들어 땡겼죠. 그래서 아침에 걷어가지고 그걸 쪽 널었어요. 말라서 잘 타라고. 그리고 저녁때 묶었죠. 해질 때에, 작은 묶음을 묶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걸 크게 묶어요. 옛날엔 수수깥이 많았죠. 수수가. 밭에다 못 심고 드문드문 수수를 심었죠.

9월 초 소를 잡아 산제사를 지낸다. 산지사(산제사)는 음력 9월 초순에 지내며 낱은 류건영 제보자가 생기복덕을 가려 직접 잡는다. 제관이 3명인데, 5일 전에 미리 뽑는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 누가 좋다고 추천하면, 그 중에 선출한다. 우선 나이가 많아야 하며,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식이 없거나 홀아비도 안 된다. 측관에 뽑히면 옛날에는 3-5일간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화주는 음식을 준비하고 제물을 차리는 사람이다. 화주의 집은 대문 양쪽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놓아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표시를 한다.

산지사가 9월 초승께, 좋은 날 잡아서. 내가 여지껏 날 잡았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생기, 복덕. 복덕날 봐야죠. 제관 세 사람은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뽑아야죠. 회의는 안 하고 제가 정하죠. 정할 때 생기복덕, 그리고 나이를 봐야죠. 나이가 맞아야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죠.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게, 집에 상을 당하지를 않고, 상가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요. 요즘엔 이런 얘기 안 되는데, 옛날엔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또 홀아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보죠.

제사 전에 제관은 3일에서 닷새 정도는 외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욕제계하고, 그래도 집에 금줄은 안 쳐요. 예전엔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화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네 집은 못 들어갔죠. 대문 양쪽에다가 소나무 꺾고, 원새끼 꼬아서 놓고, 금줄은 안 쳤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안 해요 (류건영)

경비는 동네 돈을 사용한다. 화주가 시장을 보는데, 주로 포천장(5, 10일 장)을 보며, 화주가 혼자서 장을 본다. 제물을 흥정할 때는 물건값을 깎지는 않는다. 삼색과일과 복어 1마리를 사며, 백시루에 흰떡을 준비한다. 그리고 술은 화주가 산제당에 가서 2일 전에 담그는데, 땅에 묻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정종을 사서 제사에 쓴다.

산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제관 3인, 짐 지는 사람 2인, 이장 등을 합쳐 10명 가까이 가는데 여자는 절대 못 올라간다. 산제당의 위치는 800m 되는 천주산의 중턱에 있으며, 대략 1시간 가까이 올라가야 한다. 해 넘어 갈 때에 올라가서 2시간 정도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동네 소리를 다 올려 주는데, 소지를 하면서 ‘ 년 생 아무개 하는 일 잘 되게 해 주십시

오'라고 기원을 한다. 이장이 불러주면 제관 3인이 번갈아가며 동네 가구당 대주를 대상으로 전체 소지를 다 해 준다. 이장은 특별소지를 해 준다.

동네 경비를 화주한테 줘요. 그 돈 가지고 장을 포천장에서 봐요. 포천장이 5일장이죠. 5일, 12일. 부인은 안 가요. 화주 혼자 가요. 흥정 안 하는 게, 많이 사는 게 없어요. 삼색과일, 백시루라고 가래떡. 그리고 북어포가 있죠. 한 마리. 또 술. 옛날엔 담갔는데 요즘엔 안 담가요. 정종을 사다 쓰죠. 예전에 술은 화주가 제단 가서 담가요. 한 이틀 전에. 땅에 묻지는 않았어요. 올라갈 때 제관 세 사람 하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두 사람 더 가요. 또 일 보는 사람, 이장이라던지 몇 사람 가죠. 여자는 안 올라가요. 못 가게 하는 거죠.

한 해 넘어갈 때 지내죠. 해 넘어가고 한 참 있다가. 제단은 한참을 올라가야죠. 거기가 천주산이죠. 천주산 높이가 800미터였나. 올라가면 한 시간 미만으로 갈 꺼예요. 그러니까 해 넘어갈 때 쯤에 올라가서 지내죠. 제사 지내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소지를 다 올리니까.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죠. 할 땐 이장이 소지를 불러주고, 제관 셋이 소지를 올리죠. 특별한 일 있을 때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특별히 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이름 부르고 소지를 하고.

이곳도 산제사에 10년 전까지 소를 잡았다. 100kg 정도의 황소 작은 것을 잡았으며, 소값은 동네 기금으로 지불하며, 집집마다 소를 일정 부분씩 나누어 주었다. 소는 우시장에서 상태가 좋은 것으로 고르며, 제사 지내기 3일 전에 마을에 끌고 온다. 그리고 제사 당일에 산제당 아래에서 소를 잡는다. 제당에서 약 500m 정도의 아래에 물이 있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소를 잡는다. 소는 망치로 머리를 쳐서 잡으며, 소의 각 부위를 각을 떠서 동네에 나눠주며, 부위별로 쓰며, 갈비도 한 짹을 제사에 사용한다. 동네에서 사갈 사람은 사가며, 나머지는 동네에 3-4근씩 나누어 준다. 대개 시중의 소 가격의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이다. 요즘에는 소의 양지머리를 구입해 제사를 지낸다.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을의 호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고기는 소고기를 쓰죠. 여기는 소를 잡았어요. 한 수십년 전까진 잡았죠. 조그만 소 하나 잡았는데, 황소로. 소값은 동네 사람들의 기금으로 쓰죠. 다 지내고 소를 집집마다 나눠주죠. 소는 한 마리 통째로 올려요. 그러기에 족도 많죠. 작은 소가 지금 기준으로 한 100킬로짜리. 소는 우시장가서 사죠. 소 고를 때 암수 고르지 않아요. 황소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걸로. 그리고 살아 있는 걸 끌고 와요. 한 3일 전쯤에. 잡는 건 당일날 산

밑에서 잡아요. 산제당 밑쪽에. 조금 올라가면 물도 있는데 있어요. 제단에서 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소 잡는 건 젊은 사람들이 때려 잡아요. 망치로 대가리를. 잡는 걸 직접 보진 못했어요. 때리고 각을 떠야죠. 머리 같은 건 그냥 두고. 제사 지낼 거 부위로 각을 뜨죠. 갈비 같은 부위를 한 짝씩 놓지. 끝나고 가져와서 동네 가서 나눠주고요. 소는 처음에는 사갈 사람 사가고, 나머지 나눠 가지고 그랬죠. 뼈 같은 일부는 팔고, 보통 고기값을 조금씩 나눠 내요. 나머지 나눌 때엔 세근이고 네근이고 나누죠. 시장보단 싸죠. 한근으로 시장보다 절반 가격 좀 넘게. 소값은 다 나와요.

근데 소 잡은 지가 오래 됐어요. 30년 지났죠. 더 될 거예요 아마. 소 안 잡으면 양지 머리 조금 사다가 제사 지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소 잡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 면 소재지도 잡을걸요. 신북면이죠. 요 가차리도 잡을 거예요. 고 다리 있는 데. 신북면 쪽에 동네는 곰소리라고 하죠. 기지 2리. 가차리도 같은 면이에요. 포천시 말고 신북면. 소를 안 잡는 건 호수가 그 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하는데 그 일들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없어졌죠.

특히 제사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이장을 할 때인 1960년대에 상석을 얇게 설치하고, 그 앞에 ‘천주산 신위’라고 비를 세웠으며, 상석은 1980년쯤에 세웠다. 산제당은 천주산(天柱山)의 중턱에 있으며, 작은 바위가 있는 곳에 물이 났다.

제사 시간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특히 호당 소지를 올리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산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인근 신북면 가차리와 신북면 기지2리 곰섬에서도 소를 잡아 산제사를 올린다.

산지사 지내는 것도 다른 곳과 조금 다르죠. 재물을 차리고 산에 올라가서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거든. 제단은 그 전에 제사를 지고 갔었어요. 제사를 펴지 않고 접고 놓았었죠. 그래서 내가 이장 볼 때, 저 가는걸 힘들겠다 싶어서, 상석을 얇게 해 가지고 제사 지내게 했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비 하나 세우고. 한자로 ‘천주산 신위’라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장 할 때가 80년도. 맨 처음 시작한 건 60년도에 했어요. 비 세운 건 80년도고, 제단 뒤에 큰 나무나 바위는 없죠. 조그만 바위는 있고요. 그리고 물도 나요. 거기가 천주산의 중턱 되죠. 천주라는 게 하늘에 가까운 산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명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천자가 들어가니까, 제사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저녁 6시부터 2시간 지낼 거예요. 소지를 올리기 때문에 더디거든요. 호당 빼놓지 않고 올리니까. 여기가 호수는 많아요.

윤의리(여, 1934년생)가 구술한 세시를 보면, 설날은 떡국차례를 지낸다. 차례 상에는 녹두부침개, 녹두 나물과 고사리로 나물 두 종류, 소고기 산적, 어적으로는 조기를 준비하고, 포는 북어포를 쓴다. 설에는 새 옷을 지어 입

는데 어른들의 옷은 광복으로 아이들은 색동저고리를 만들어준다. 추석에는 송편차례를 지낸다. 차례 상에 올리기 때문에 흰 송편 한 가지만 빚는다. 송편과 함께 인절미, 찰떡을 같이 마련한다. 음력 10월에는 시제를 지내고, 집안 고사를 지냈다. 집안고사 때는 시루떡을 해서 터주, 장독대, 마루, 부엌에 두고, 대청마루에는 시루 채 놓았다.

조난호(여, 1930년생)가 구술한 주요 세시를 보면, 정월 차례는 떡만둣국을 끓인다. 적은 큰 제사에는 산적을 쓴다. 소고기, 복어, 닭고기를 순서대로 층층이 쌓는다. 두부를 가장 밑에 깔고, 그 위에 적을 소고기, 복어, 닭고기 순서로 올린다. 총 세 접시를 준비하는데 한번 지내고 갈고 해서 총 3번을 올리기 때문이다.

음력 7월 칠석에는 밀떡을 부쳐서 집안 곳곳에 갖다 놓았다가 나중에 식구 들끼리 나누어먹었다. 밀가루를 풀어 반죽을 만들고 애호박을 넣어 부쳤다. 음력 10월에는 시제를 지내고, 집안 고사를 지냈다. 대문 밖에 상을 놓고 막걸리 한 사발과 떡을 놓았으며, 밖에 갖다 놓은 것은 잡귀 먹으라고 뜯어서 버렸다.

(4) 틀뭇이마을의 놀이

기지1리 틀뭇이마을에서 류건영(남, 1928년생)이 구술한 놀이로는 농악, 자치기, 연날리기, 돈치기, 장치기(부친 세대), 팽이치기, 썰매, 돼지오줌통 축구, 제기차기, 구슬치기, 씨름. 윷놀이 등이 조사되었다. 특이한 놀이로 정월 16일 동해세우기가 있으며, 수수깡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한편 윤의리(여, 1934년생)와 조난호(여, 1930년생)가 구술한 여성놀이로는 널뛰기, 그네뛰기, 공기놀이, 줄넘기가 있다.

류건영이 구술한 놀이를 보면, 정월대보름에는 매년 마을에서 윷놀이대회가 열린다. 예전에는 쌀을 상품으로 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데, 한번 지면 떨어지게 된다. 대회를 할 때에 전표를 나누어 주는데, 서로 조를 짜주어 상대방과 붙게 한다. 이긴 사람끼리 또 시합을 하게 된다. 윷놀이대

회는 동해를 세우고 5일 후쯤에 한다. 따라서 대략 정월 20일쯤 전후로 이루어진다.

농악은 일제시대에 있었지만, 이후 없어졌다가 근래에 동해놀이가 알려지면서 새로 생겼다. 예전에 두레가 있던 때에는 일하면서 장구, 징, 북, 팽과리 등을 쳤다. 류건영(남, 1928년생)의 나이 15살 시절에 두레를 봤다는 점에서 대충 1940년대 초반으로, 일제시대 말기이다.

당시 농상기가 있었으며, 15명 정도 품앗이 두레를 해서 동네 전체의 논매기를 다 했다. 당시 이곳 마을에는 논이 많지는 않았으며, 그의 집은 논 10마지기에 밭 3000평 정도였다. 그리고 모내기는 자작으로 하거나 품을 사서 했다. 대체로 논이 크기 않기 때문에 자작농이 많은 편이었다.

마을에 농상기가 있었는데, 깃발에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15살 시절에, 두레가 끝나고 저녁에 농상기를 들고 악기를 치면서 마을에 들어왔으며, 마을에 들어와 한바탕 놀았다. 그런데 농악과 두레는 해방 이후에 소멸되었다.

동해 할 때는 농악도 같이 해요. 옛날엔 안 했는데 근래는 해요. 아주 옛날에는 농악이 없었죠. 일제 강점기에. 돌러가면서 농상기라고. 그 때에는 두레. 이 사람 저 사람 돌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다 하면, 그 걸 치고 들어오죠. 장구하고, 징하고, 북하고, 팽과리도 있어요. 그 때가 열다섯살 때죠. 두레는 한 열댓 명이 나가죠. 그게 품앗이예요.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품앗이 하는 거죠. 우린 밭이 되게 많았죠. 논은 열 마지기. 밭은 한 삼천 평. 일하는 일꾼은 안 두었죠. 품도 별로 안 샀어요. 자작했죠. 품앗이도 하고 그랬죠. 남의 일을 하면 계산을 하죠. 품값을 줘야죠. 근데 이 동네는 대개 품사는 거 없어요. 자작했죠. 논이 많지 않으니깐.

농상기라는 기가 있어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써 있어요. 그니깐 일 다 하고요. 저녁 때 농상기 치면서 들어오죠. 깃발 앞세워서 악기 쳐가면서 오죠. 그리고 한바탕 놀기도 해요. 내 쪼그마할 때 봤어요. 거의 열댓살 때. 그 이후는 없어졌죠. 그 때가 일제시대인데, 해방 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자치기에 쓰는 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2가지가 있다. 우선 땅에 구멍을 뚫고 작은 자를 비스듬히 높은 다음에 큰 자로 이것을 쳐서 공중으로 띄운다. 이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큰 자로 쳐서 멀리 날려보낸다. 작은 자가 간 거리만큼 큰 자로 재서 몇 자인지를 확인하며 승부를 겨룬다.

연은 정초에 높은 언덕에서 많이 날렸다. 밤 따는 대장대로 연대를 만들었다. 창호지를 써서 직접 만들었으며,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방패연을 만든다. 동네에 김계원 5군단장의 집안 산소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을 많이 날렸다.

돼지오줌통으로 축구를 한 적도 있다. 돼지를 잡으면 돼지의 오줌통으로 축구를 했다. 오줌통에 입으로 바람을 넣으면 어른 주먹만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며칠간 축구를 했는데, 며칠 지나면 터지게 된다. 류건영이 15살 때 쯤 이런 놀이를 한 기억이 있다.

장치기는 류건영 부친 시대에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했다. 지게 작대기로 나무공을 만들어 쳤는데, 주로 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 이 놀이를 했다. 썰매는 앉아서 타는 썰매를 주로 탔다. 어렸을 때에 직접 만들었으며 날을 철사로 했는데, 당시 철사가 귀한 시절이다.

돌치기는 본인은 한 적은 없고, 윗대 어른들이 했다는 말만 들었다. 일정한 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상대방이 세운 돌을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제기는 엽전에 얇은 종이로 만들어서 찼으나 본인은 소질이 없어 잘 차지 못했다. 엽전이 없으면 깨진 질그릇을 동그랗게 갈아서 가운데에 못을 돌려서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다. 이것으로 제기를 차기도 했다. 질그릇이 의외로 무겁지 않아 제기로 차는 데에 불편하지 않았다.

씨름은 이 동네에서는 김계원의 집안 산소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끼리 한 적이 있다. 이곳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을 했다. 이 마을과 인근에서 별도의 씨름대회는 없었다.

그 외에 이 마을의 아이들의 놀이로 팽이치기, 구슬치기 등도 있었다. 팽이는 주로 겨울철에 놀았으며, 구슬치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놀았다.

윤의리가 구술한 여성놀이를 보면, 널뛰기는 여성들만 했으며, 내개 정월 한달 동안 집마당에서 뛰었다. 마을의 젊은 여자들이 정월 한달간 모여서 함께 널을 뛰며 놀았다. 정월대보름이 지나서도 널을 뛰었다. 한편 시집오기 전에는 친정에서 단오날에 그네를 뛴 적이 있으며, 시집을 와서는 그네를 뛰지 않았다.

조난호가 구술한 여성놀이를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자아이들끼리 공

기놀이와 줄넘기를 하며 놀았다. 줄넘기는 혼자서 줄을 돌리며 놀았고, 공기놀이는 손등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긴다.



<그림 20> 류건영의 손때 묻은 삼태기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3장

놀이 지
이 역
에 별
나 생
타 애
난 사
특 와
징 세
시
및

3장. 지역별 생애사와 세시 및 놀이에 나타난 특징

(1) 조사 대상 마을의 특징

조사된 마을은 양주시의 광적면 석우리, 백석읍 방성리, 연천군의 미산면 유촌2리, 왕징면 무등리, 포천시의 일동면 길명2리,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 가평군의 조종면 마일리, 가평읍 금대리, 가평읍 승안2리,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뵈, 파주시의 광탄면 용미2리, 법원읍 웅담2리, 법원읍 직천리, 적성면 자장리, 의정부시의 녹양동 버들개마을, 용현동 만가대마을, 동두천시의 지행동 사당골, 상봉암동 봉동마을, 남양주시의 조안면 시우리, 와부읍 월문4리, 구리시 교문1동 백교리 한다리마을이다. 10개 시군의 22개 마을에 55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째, 대상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적 마을을 찾다보니 집성촌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조사된 마을 중에 집성촌은 파주시 법원읍 웅담2리 버들뵈의 의령 남씨(18대), 가평군 금대리 비룡대의 인동 장씨(17대), 고양시 강매1리 매화정의 보성 선씨(16대),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의 고령 박씨(470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뵈마을의 안산 피씨(350-400년),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의 청주 양씨(13대),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의 경주 최씨(13대),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의 공주 이씨(12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의 광주 이씨(12대),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의 함열 남궁씨(11대),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의 연안 김씨(9대),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의 김해 김씨(9대),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의 문화 류씨(8대) 등 모두 13개 마을로 나타난다.

따라서 22개 마을 중에 60% 정도가 특정 성씨가 모여사는 집성촌이며, 주요 제보자도 8-18대까지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런 집성촌은 대개 반촌, 곧 양반마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두레

가 발달한 지역이 많다. 특히 고양시 거구포, 강매1리는 일산의 넓은 들을 배경으로 대규모 논농사 이루어진 곳이다. 그리고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연천군 유촌2리, 의정부시 버들개마을과 만가대마을, 동두천시 사당골 등이 비교적 논농사 중심 지역이며, 대부분 농악과 마을두레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한편 산촌 지역은 연인산 아래의 가평군 승안 1리, 파주시 직천리, 남양주시 시우리, 봉동마을 등은 산골에 둘러싸여 있고 논농사가 그리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특히 승안1리는 위쪽에 대규모 산판작업과 이들의 화전민촌이 형성되었으며, 땔나무 베어 운반, 숯무지 작업, 화전방식에 관한 민속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파주시 직천리는 멀리 임진강 주변마을로 원정농을 가기도 했다.

강촌마을은 고양시 강매1리와 가평군 금대리 마을, 연천군 무등리,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이다. 한강변인 고양시 강매1리는 서울로 가는 마을 돌다리 옆에 주막이 있는데, 웅어 요리를 잘 해서 조참봉의 벼슬이 하사되었으며, 현재 그 주막 자리에 허름한 강변 음식점이 있다. 가평의 금대리 마을은 강의 직접적 혜택은 주로 한지의 수로 수송과 강 건너 논외의 관리 정도에 그친다.

연천군 무등리는 임진강변으로 비가 와서 물이 불면 마포의 상선이 이곳 스무스장까지 드나들었으며, 위로는 북한 지역까지 배가 갔으며, 등짐장수가 발달했다.

구리시 교문1동의 한다리마을은 아차산 북쪽 한강변 마을로 예전에 농사를 짓던 마을로 장자못전설이 전하는 마을이고 한강 수해를 많이 입은 마을이며, 인근 토평리의 토막리, 돌섬, 본말 등을 중심으로 한강수로를 이용한 수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특히 토막리 마을에는 배를 이용해 땔감이나 목재를 용산이나 뚝섬으로 운반했으며, 전쟁 전에는 영월에서 내려온 뗏목의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서 뗏목이 서울의 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셋째, 경기도 북부 지역은 휴전선에서 멀지 않고, 군부대가 많아서 군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파주시 웅담2리, 파주시 직천리, 파주시 자장리, 동두천시 사당골, 의정부시 만가대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웅담 2리는 미군

주둔 지역이었다가 한국군 주둔지역으로 현재에 이르며, 마을 토지 많은 부분이 군에 수용되었다. 파주시 직천리 주민은 미군부대 부근에서 생활용품을 팔았으며, 파주시 자장리 장형섭도 인근 미군부대 주위에서 한때 장사를 했다. 동두천시 사당골은 토지가 미군부대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최근 공시지가로 되돌려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의정부시 만가대는 옆의 미군부대와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개발이 제한되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들 지역은 군 주둔지이기에 미군부대 주위에서 물건을 팔거나, 미군부대에 노무자로 근무하며 혜택도 받고, 또한 기지촌에 의한 피해도 받았다.

넷째, 경기도 북부 지역의 논농사 지역에는 과거 호남 지역에서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모내기 원정을 와서 품삯을 받고 보름 정도에 걸쳐 일을 했으며, 이로 인해 총각들이 호남 지역 처녀와 혼인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는 고양시 강매 1리, 고양시 거구피, 파주시 용미2리, 파주시 자장리, 연천군 무등리 동두천 사당골 등이 해당된다. 고양시 거구피는 1960년대에 부안 처녀 수십명이 와서 5월 중순에 이 동네와 인근 일산 지역에서 집단 모내기를 하고 돌아가고, 6월 초에 자기 고장의 모내기를 했다고 한다.

고양시 강매1리는 강진의 부녀자들이 와서 모내기를 했으며, 파주의 자장리는 부안의 여자들, 파주시 용미 2리는 전라도 부녀자 30여명이 기차로 일산역에 내려 이곳과 용추골 등에 와서 모내기를 했으며, 혼인이 어려운 마을 총각이 5-6인이 전라도 여자를 신부로 얻었다. 연천군 무등리 마을에는 호남지역에서 30- 40명이 이 마을에 시집을 왔다.

다섯째, 마을고사로 고목이 마을 수호신이 되기도 한다. 사당골은 천년된 은행나무 앞에서 10월 초(음)에 향단제를 올리며, 용미3리는 느티나무 고목에 가을 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웅담 2리는 10월에 참나무 고목에 마을 제사를 지냈는데, 전쟁 중에 중공군에 의해 베어졌다. 구리시 한다리마을의 대동고사는 마을 입구 수백년 된 향나무 앞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도로가 나면서 향나무는 팔리고 대동고사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마을은 제물에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고양시 강매1리는 오래된 향나무 앞에서 강매도당굿이 무당 주도로 열렸는데, 1990년 초에 중단되고,

나무는 그 즈음해서 외지인이 몰래 베어갔다. 가평의 신하리 신목마을에는 수백년 된 방수나무가 있어서 마을명칭이 되었으나 오래 되어 고사했다.

여섯째, 생업의 변화가 마을 수입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파주시 용미2리는 농촌 마을 뒷산에 1961년에 갑자기 서울시립묘지가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매장 작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사에서 얻지 못하는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장이 완료되면서 1990년대 말에 크게 약화되었다.

한편 남양주시 시우리는 마을에서 산뽕을 이용해 양잠이 197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으나 마을에 축사가 하나둘 생기면서 양잠은 급격히 사라졌다. 환경에 민감한 누에가 소똥에 견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생업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가평군 금대리 마을은 한지 생산을 통해 마을의 수입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주위에 닥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업이 힘들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기타 특이한 마을 민속으로는 가평군 신목마을은 아직도 화채집 안에 상여가 보관되어 있으며, 의정부 버들개마을은 예전에 선달 그믐날에 소를 사서 공동 분배하는 쇠창계가 있었다.

(2) 생애사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

조사대상자 50인의 구술을 통해 여러 인물의 간이생애사가 정리되면서 이들의 삶에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농사를 지으며 농악과 소리에 전문화를 이룬 부류가 있다. 양주 석우리의 황상복(남, 80세)은 양주농악의 상쇠로서 농악대를 이끌고 소리를 맵이며, 양주 방성리의 최승덕(남, 87세)도 농사를 지으며 틈틈히 한학과 송서 율창과 전문적이 소리를 읽혔다.

그리고 연천문화원장 이준용(남, 65세)은 연천군 유촌2리 출신으로 부친인 이재순이 과거 지역의 뛰어난 소리꾼으로 쌍거리소리와 아미산울어리 소리를 주도했다. 이런 연유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고 문화원을 주

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동두천시 사당골의 이경훈(남, 70세)은 노인회장으로 그의 부친 이채빈(1988년 사망)은 마을 두레의 선소리꾼이며, 그의 숙부 이채혁(2017년 사망)은 동두천민요의 보유자이다. 따라서 이경훈은 소리와 농악을 하지는 않지만, 사당골 노인회장으로서 향단제와 백중놀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둘째 접경지대이기에 피난에 따른 고초를 겪은 것은 매우 많이 나타나며,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포천의 틀뫼이마을 류건영은 1928년생으로 전쟁 중에 8식구 사망하고 혼자만 살아남아 고아로 살아왔다. 한편 가평의 승안2리 하길용(남, 1931년생)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 중에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를 거쳐 극적으로 생환했다.

한편 파주 웅담2리의 남찬우(남, 81세)는 부친이 전쟁 중에 내무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이북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양주 석우리의 황상복(남, 80세)도 전쟁 중에 형님이 전사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하다가 근래에 전산을 통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힌 형님의 묘소를 찾아냈다.

셋째, 농사를 지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다각도의 수입원을 얻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10대 초기부터 지계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 따라서 땀감채취가 이들의 10대에 중요한 일의 하나였다. 하루 2짐이 기본이며, 산이 멀면 하루에 1짐을 하며, 경우에 따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2짐 반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남양주 월문4리의 김동수(남, 89세)는 말의 먹이인 마초를 베어 말려서 장에 내다 팔며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미군부대 주변에서는 미군 상대의 물건을 팔거나 미군 기지촌 주위에 땀감이나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 또한 연줄이 되면 미군부대에 출퇴근 노무자로 들어가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과거에 기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연천군 유촌2리 남궁묵(남, 72세)은 인삼 재배, 남양주시 시우리의 이석운(남, 81세)은 육우 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넷째, 전통을 중요시해서 이를 생활화하거나 농사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평 신목리의 김종일(남, 85세)은 토종과 종자를 15살 때부터 7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쓰는 홀파가 추위에 약하지만, 기존 파는 추위에 강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토종파 종자를 채취해 가기도 했다.

한편 파주 직천리의 유동필(남, 81세)은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는데, 지금도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만들어서 사용하며, 최근에는 공예 품화해서 지끈을 이용해 다양한 모형 생활용품을 만들어 지역 문화원 전시회에 출품하며, 마을 노인들에게 소일로 가르치고 있다. 동두천시 사당골도 민속공예품을 노인들이 만들어 노인회관에 진열하고 있다.

다섯째, 뛰어난 구술자들이 일부 발견되어 추가적인 집중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동두천시 정병순(여, 89세)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출생으로 10리 거리의 동두천시 봉동마을에 시집을 와서 71년간 살아왔다. 뛰어난 제보능력을 지녀 혼례, 상례(상례과정, 동상계), 세시음식(단오 상추물 분 개어 열굴), 바느질(수의와 상복짓기), 여성놀이인 종자놀이(춘향이놀이), 꼭두각시놀이, 그 외에 반가의 풍습 등에 대해 많은 전통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 파주 자장리의 장형섭(남, 83세)은 해방 직전 소학교 시절에 개성의 선죽교와 만월대로의 수학여행, 서울 창경원 벚꽃놀이 수학여행의 기억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기억력이 좋고 매우 호의적이라 뛰어난 제보자이다. 그리고 구리시 한다리마을의 홍천만(남, 1924년생)은 95세의 최고령자인데, 기억력이 좋고 건강도 양호해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 그 외에 이완수(연천 무등리), 김기용(포천 길명2리), 류건영(포천 틀못이), 장석만(가평 금대리), 유태진(의정부 버들개), 안정훈(동두천 사당골) 등도 전통지식에 지식을 갖고 있으며, 기억력이 좋고 호의적이다.

(3) 세시풍속의 전반적 특징

경기 북부지에서 조사된 정월 초하루부터 선달 그믐날까지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월대보름 햇불로 달에게 기원하는 세시는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새해의 첫 만월의 시기인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위해 화를 만들어 달에게 기원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개인 화를 만드는 도구로 다북(포천시 틀못이, 가평군 신목마을), 조대(양주시 석우리, 의정부시 버들개), 쭉대(포천시 길명2리), 짚단(고양시 거구피) 등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한편 정월대보름 세시로 더위팔기, 부럼깨기, 귀밝이술과 이날 아침에 일어나 들판에 나가 소리를 지르며 새를 쫓는 풍습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둘째, 산치성이 광범위하게 전승하고 있다. 소를 잡는 마을이 많으며, 그 중에 일부 마을은 지금도 소를 잡고 있고, 나머지는 소의 머리와 소다리(우족) 등의 일부를 아직도 제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산치성이 점차 소멸되는 곳도 있다.

파주 직천리는 무쇠마 신상이 얼마 전까지 있었으며, 개인이 지게로 재물 운반해서 산제당에 모든 가구가 개별적으로 치성을 올린다는 것이 특이하다.

포천 길명2리(8월 초, 황소 재물), 포천 기지1리 틀못이(9월 초, 소 재물), 파주 직천리(9월 9일, 제당 무쇠 馬. 집단적 개인 제사), 의정부 버들개마을(음력 10월 초, 과거 소 잡음, 5년전 중단), 의정부 어둔리마을(음력 10월), 의정부 어룡동(10월, 과거 소 잡음), 남양주 시우리(음 8월 1일) 등의 양상을 보인다. 제보에 의해 현재 신북면 가차리, 기지2리 곰섬도 소를 잡아 산치성 전승 중이다. 제의시기를 보면, 8월 초순이 2곳, 9월 초중순이 2곳, 나머지는 10월로 나타난다.

셋째, 마을의 고목이 마을의 수호신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다. 이곳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제, 부군나무 등이 주요 신체로 나타난다. 곤동두천 사당골 은행나무 중심의 향단제, 파주시 용미3리의 느티나무 중심의 마을고사는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다만 구리시 한다리마을의 향나무 앞의 마을 대동고사는 도로 확충으로 향나무가 팔리면서 신목이 소멸되었으나 대동고사는 지속되고 있다. 고양시 강매1리 향나무는 도당굿 중단 이후에 외부인에 의해 베어졌으며, 파주시 웅담2리 부군나무는 전쟁 때에 소실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무당굿도 소멸되었다. 그리고 파주시 자장리의 10월

성황당 대동굿도 소멸했다. 상당수 마을 고목을 중심으로 한 도당굿이나 서낭당굿은 소멸한 곳이 많이 나타난다.

넷째, 집성촌에서는 대부분 시제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고양시 강매1리는 보성 선씨(16대)의 집성촌으로 이곳에서 선씨 사당이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불천위 제사도 모시고 있으며, 10월에 선씨들이 모여 시제를 올린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구 거구뢰의 경우에도 뒷산에 안산 피씨(350-400년)의 집안 묘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시제와 집단 벌초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포천 길명 2리의 청주 양씨(13대), 가평군 금대리 인동 장씨(17대) 시제, 파주시 자장리의 양성 이씨 시제, 의정부 경주 최씨(13대), 의정부 만가대의 김해 김씨 시제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섯째, 단오세시는 여성 중심의 그네뛰기와 창포물 머리감기 위주로 나타나서. 여성들의 세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들에게 단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봉동마을의 정병순은 단오날 아침에 상추물(새벽 상추 잎 이슬)에 분을 개어 얼굴을 바르면 마른버짐을 예방한다는 독특한 풍습을 구술했다. 전통적 세시에만 나타나는 단오 상추물 관련 세시가 유일하게 조사되었다.

여섯째, 대상 지역에 농촌이 많아서, 김매기 두레 관련 세시가 많이 나타났다. 두레는 논매기가 일반적이고 품앗이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농약이 활성화되고, 놀이도 많이 나타난다. 다만 산촌인 남양주시 시우리같은 곳은 두레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보 수리 두레에 해당 논 주인들이 참여한다. 두레가 있고 농약이 있는 곳에는 김매기두레 때에 기싸움이 나타난다. 대형기를 가지고 서로 힘 자랑하며, 심지어 농상기를 맞부딪치며 기싸움을 하는 마을도 나타난다.

일곱째, 백중세시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일부 농약 중심의 호미씻이가 나타나고, 읍내의 씨름대회가 일부 나타난다. 양주시 석우리의 칠석의 호미씻이, 백중 때의 마당걸이, 동두천 사당골의 백중놀이(현존)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 만가대의 백중 시기 호미씻이가 나타난다. 대체로 논매기 세별매기가 끝나면서 호미씻이나 두레먹이는 시기와 겹쳐 나타난다. 한편 백중 씨름대회는 과거 가평읍내 씨름대회, 현리읍내 씨름대회, 포천읍내 씨름대

회 정도 있고, 백중은 아니지만 초가을 고랑포씨름대회 정도만 나타난다. 여덟째, 귀신날이 지역마다 약간 다른 양상이다. 곧 의정부시 만가대, 동두천시 사당골은 1월 14일이 귀신날이며, 가평군 승안2리는 1월 15일을 귀신날, 남양주시 월문 4리는 귀신닭날이라 하며, 남양주시 석우리는 1월 16일이 귀신날이다. 이 날은 대부분 귀신을 막기 위해 신발을 안에 숨겨 놓는다. 그런데 가평군 승안2리는 귀신날에 체를 걸어놓고 콩을 볶아 먹는 게 특이하며, 남양주시 월문4리는 양력 1월 1일의 양력설에 일본을 비판하는 뜻에서 이날 검은콩을 볶아 먹는 게 특이하다.

아홉째, 8월 말에 벼가 패면서 참게들이 많이 올라와서 참게를 잡는데, 10월까지 이어진다. 대개 강을 낀 인근 냇가에 많이 서식하는데, 연천 유촌2리, 연천 길명2리, 가평 금대리, 파주 직천리, 파주 용미3리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이 때 냇가에 대각선 의 밭을 치고, 한쪽 수로로 몰아서 옆에 임시 계막을 짓고 밤새 계를 손으로 잡아올린다. 참게잡이는 1960-70년대에 와서 점차 소멸되었다가 근래 조금씩 다시 나타나고 있다.

열째, 봄철 나물 채취와 정월대보름 나물 무쳐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다양한 나물이 등장한다. **가평지역에는** 취나물, 참나물, 고사리, 숙주나물, 잔대썩, 삼주, 두릅이, 고양시 강매1리에는 산나물, 명아주나물, 취나물, 더덕순, 두릅, 황새냉이, 고비, 달래가, 남양주시 월문4리에는 고사리, 고비, 취나물, 둥글레썩, 산초썩이, 양주시에는 취나물, 시래기나물, 가지나물, 호박고다리, 고구마줄거리, 숙주나물이 나온다. 파주시 직천리에는 취나물과 함께 메타리라는 나물이 나타난다.

기타 세시로는 의정부 만가대마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옆마을인 흑석리에서 전쟁 직전에 부녀자들의 기우제가 있었다. 곧 늦봄에 가뭄 심하면 부녀자들이 키를 머리에 쓰고 행렬을 지어 수락산 쪽으로 올라가서 키를 까부르면서 비 오기를 기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가평 승안리에서는 부녀자들이 1월 14일에 개울에 밥을 띄우는 세시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용왕제라는 말 안 쓰나 이 유형으로 보인다.

한편 예전 보릿고개에는 파주 용담2리에서는 덜 익은 보리 볶아 먹었다고 하며, 동두천 사당골에서는 수수를 대신 주식으로 하고, 급하면 장래쌀을

었으며, 고양 강매1리에서는 가뭄이 심하면 피를 대용작으로 심기도 했다. 또한 가평 신하리에는 정월대보름에 ‘섬만두’라 해서 돼지고기, 숙주, 김치, 두부를 넣어 작은 송편 크기로 빚어 만둣국을 끓인다, 구리시 한다리마을에서는 겨울철 땅을 파서 지붕을 이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움이 조사되었다. 과거 서울 조사에서 나타난 움이 구리의 한강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남양주시 시우리에서는 운길산 뒤의 청정지역이란 지역을 살려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반딧불축제를 새롭게 만들었다. 연천 유천1리에서는 소 2마리로 밭을 가는 쌍겨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세시를 특성화해서 인삼재배 과정에 의한 인삼세기, 박재배와 수확, 용도에 의한 박(박) 세시, 대량 축산을 위한 소(牛)사육 세시 등이 특성화되어 조사되었다.

(4) 놀이의 전반적 특징

경기북부지역에서 이번에 조사된 놀이를 크게 집단놀이와 개인상대놀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집단놀이 : 농악(두레놀이), 농기(농상기)싸움, 햇불싸움, 돌(돌팔매)싸움, 동해놀이, 종지놀이(미혼여성, 춘향이놀이), 백중놀이(농악) 등.

② 개인□상대놀이 : 윷놀이와 척사대회, 연날리기와 연싸움, 썰매타기, 구슬(다마)치기, 딱지치기, 술래잡기(숨바꼭질), 그네뛰기(그네타기), 널뛰기, 쥐불놀이, 팽이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화투, 말타기, 골패(찍찍이), 투전(기나리), 곤지(꾼지, 고누), 물놀이, 새잡기, 장기, 닭싸움, 돼지오줌통차기, 씨름과 씨름대회, 팔씨름과 팔씨름대회, 토끼잡기, 돈치기, 엿치기, 강통차기놀이, 사방치기, 눈싸움, 낚치기(낚 던져 꽃혀먹기), 엿치기, 종경도놀이, 비석치기, 땅따먹기(집따먹기), 새끼공(짚공) 차기, 돼지오줌통 축구, 찜뽕(고무공 야구), 간첩잡기놀이, 꼭두각시놀음, 수제 스케이트타기, 서리(참외), 장치기(윗세대), 들돌들기 등이 있다.

한편 게줄다리기는 다른 지역 것을 보고 모방한 창작품이며, 운동회에 다양한 놀이가 삽입되었다. 이를 토대로 경기북부지역 놀이와 여가의 전반적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햇불싸움과 돌싸움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정월대보름에 남성 10대들이 이웃동네 아이들과 돌이나 햇불을 가지고 싸우는 방식이다. 이것은 남자 10대 중심이지만 간혹 20대로 참여하는 매우 격렬한 남성의 놀이 형태이다.

전승지역을 보면, 양주 석우리(섬말과 햇불싸움□돌싸움), 연천 무등리(전상리와 돌싸움), 포천 길명2리(길명3리와 햇불싸움), 포천 기지1리 틀뭇이(지연리와 햇불싸움), 가평 신목마을(섬말과 햇불싸움), 가평 승안2리(점말과 햇불싸움), 파주 용미2리(웅담1리와 햇불싸움□돌싸움), 고양 거구되(향정1리 탑굴과 돌싸움□햇불싸움), 의정부 만가대(벌말과 햇불싸움□돌싸움, 딱총 사용), 의정부 고산동(민락동과 햇불싸움□돌싸움), 의정부 버들개마을(어둔리와 돌싸움), 동두천 사당골(안골과 돌팔매싸움)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 농악을 중심으로 한 기싸움 형태가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상기싸움이라고도 한다. 주로 논매기 시기에 논에서 두 마을의 농기가 서로 맞부딪치면서 대형 농상기를 서로 휘두르며 다투거나, 상대 깃봉을 빼앗는 방식이다.

고양시 거구되는 인근 탑골, 파주시 자장리(기싸움), 파주 웅담2리(웅담1리와 농상기싸움), 동두천 사당골(안골과 기싸움), 양주시 석우리(신사래마을과 농기싸움)과 이루어졌다. 특히 고양 강매1리는 인근 행주산성 쪽의 잣골과 기싸움을 할 때에는 깃봉 빼앗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반촌과 상민촌 사이에 놀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반촌에서는 돌싸움, 햇불싸움 또는 노름성이 강한 골패, 투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안산 피씨가 400년 가까이 사는 고양시 거구되마을과 인동 장씨가 17대에 걸쳐 사는 가평군 금대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반촌에서는 골패와 투전과 같은 것도 억제된다. 이런 집성촌은 반촌의 성격이 강해서 이웃마을과 거친 돌이나 불을 이용한 위험한 편놀이나 노름성이 강한 골패와 투전을 마을 어른들이 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경기북부에서는 정월대보름에 개인 회를 이용한 달님에게 기원하는

것은 많이 나타나지만,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형태는 드문 양상을 보인다. 오직 포천시 기지1리 틀무시마을에서만 1월 16일 동화놀이가 오래 전부터 전승된다. 특이한 것은 이 마을은 수수깁을 사용한다는 점이지만, 근래 수수깁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점차 나무단으로 바뀌고 있다.

대체로 전국적 명칭을 보면, 남부지방은 벗짚 중심의 달집태우기, 충청남도의 청양과 부여의 나무단 중심의 동화제, 경기도 용인과 광주의 동화놀이(해동화놀이)가 조사되었다. 포천의 기집1리는 경기 남부와 명칭은 같으나 수수깁이란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파주시 길명2리나 동두천시 사당골에서는 근래 정월대보름에 과거에는 없던 달집태우기를 마을 단위로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정월대보름의 척사대회가 매우 광범위하게 전승되며, 현재도 지속되는 곳이 많다. 예전의 상품을 보면, 의정부시 버들개마을과 만가대마을은 금반지를 주었으며, 가평군 승안2리는 광목 1통을 주었다. 그런데 고양시 강매1리와 가평군 승안2리에서는 송아지를 주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승안2리는 송아지와 광목이 시기를 달리해서 같이 나타난다. 동두천 사당골에서는 낫화루를 1등 상품으로 주었으며, 그 외에 지역에 따라 신하리에서는 농약 뿌리는 기계, 삽과 팽이 같은 각종 농기구, 주방용품인 냄비와 솔단지가 주어졌다. 근래에는 각종 가전제품이 상품으로 주로 주어진다.

여섯째,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단오가 아닌 백중의 씨름대회가 나타난다. 가평군 승안2리의 조사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는 백중에 가평읍내에서 씨름판이 벌어졌다. 한편 가평군 신목마을에 의하면 백중에 인근 현리에서 씨름판이 벌어졌다. 그리고 파주시 자장리의 조사에 의하면 초가을에 고량포오에서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이곳은 임진강변으로 과거에 5일장이 섰으며, 꽤 번성하던 곳인데, 지금은 휴전선 접경이라 쇠락한 동네가 되었다. 그리고 양주의 갯바위장에서도 가을에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모두 전쟁 이전이다.

의정부시 만가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의정부에서는 예전부터 단오에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이 때에 씨름대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 행사는 지금도 단오에 의정부운동장에서 동 대항 체육대회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씨름

대회는 아니지만,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체육대회가 있다. 고양시 지도면에서는 광복절에 지도국민학교에서 26개 마을 대항 체육대회와 농악대회가 열리는데, 지금은 인근이 도시화가 되면서 과거의 축제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한편 줄다리기는 경기 북부지역의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지역 행사인 학교 운동회나 체육대회에만 일부 나타날 뿐이다.

일곱째, 미혼여성의 놀이인 종지놀이가 동두천시 봉동마을과 포천시 길명2리에서 조사되었다. 이것은 겨울철 미혼 여성들이 빙 둘러앉아 종지를 돌리며 술래에게 찾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건돌리기 비슷한 놀이 형태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종지를 못 찾은 술래에게 춘향이 관련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다. 곧 미혼여성들의 놀이를 통해 춘향의 영혼을 이입시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병순(여, 1930년생)에게는 동두천시 봉동마을과 전곡읍 양원리 지역, 그리고 길명2리의 이용숙(여, 1943년생)에게만 조사되었다. 이 놀이는 전국적으로 ‘춘향이놀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놀이 양상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미지에 것에 대한 예언이나 집단 최면의 방식, 손 벌리는 주술적 행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기도 용인지역에서도 ‘춘향이놀이’로 조사되었다.

기타 놀이로, 곤지(고누)는 가평 신목마을(우물밭 곤지리, 지금도 놀이), 연천군 무등리, 유촌2리, 고양시 거구뵈, 포천시 길명2리, 가평군 승안2리, 파주시 직천리, 의정부시 만가대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지역도 꽤 있다. 한편 남양주 시우리에서는 50대 초반 이장으로부터 남자 어린이의 ‘간첩잡기놀이’가 조사되었는데, 분단과 남북 대립적 구도 속에서 1970년대의 시대상황이 놀이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차례

가평군

<그림 1>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25
<그림 2>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마을 김종일 부부	27
<그림 3>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세부도	47
<그림 4>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마을 전경	47
<그림 5> 금대리 장성만 제보자(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1
<그림 6> 승안2리 마을회관과 경노당	74
<그림 7>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세부도	81
<그림 8>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전경	81
<그림 9> 승안2리 김장춘, 하길용, 이해춘	82
<그림 10> 가평군 승안2리, 이길순, 김성태 외	91

고양시

<그림 1> 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의 매화정과 강매2리의 강고산	111
<그림 2> 강매1리 선호육 제보자(자택)	115
<그림 3> 선호육 혼례(1957년)	115
<그림 4> 선호육의 혼례의 신랑(1957년 수지면 임의리 신부집)	116
<그림 5> 선호육의 혼례 때의 신부(1957년 수지면 임의리 신부집)	117
<그림 6> 선호육 혼례 때의 평복 부부(1957년)	118
<그림 7> 선호육의 군대시절	119
<그림 8> 강매1리 마을 뒷산의 보성 선씨 선영	120
<그림 9> 강매1리 보성 선씨 사당인 오충사(불천위 제사)	120
<그림 10>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거구되마을	139
<그림 11> 피상곤 제보자의 모습(자택)	141
<그림 12> 피상곤 부부의 칠순 잔치	142
<그림 13> 피상곤거구되 피상곤 아들딸의 어린 시절	143

구리시

<그림 1>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 세부도	165
---------------------------	-----

<그림 2> 구리시 교문1동 한다리마을 전경	165
<그림 1>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전경	178
<그림 2>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세부도	178
<그림 3> 시우리 운영설 이장 집의 김장 모습	181
<그림 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전경	189
<그림 5>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 세부도	189
동두천시	
<그림 1>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세부도	197
<그림 2>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전경	197
<그림 3> 사당골 은행나무 고목의 주민들(1973년)	198
<그림 4> 사당골 은행나무 고목의 마을주민(1973년)	198
<그림 5> 사당골 은행나무와 아파트	199
<그림 6> 사당골 유래 관련 비문(은행나무 앞)	202
<그림 7> 사당골 이경훈 노인회장	203
<그림 8> 사당골 마을 행단제 현수막(2018.11.8 행사)	206
<그림 9> 사당골 송아지 단체 구입(1973년 5월 18일)	207
<그림 10> 백종날 사용된 들돌(은행나무 앞)	212
<그림 11>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세부도	220
<그림 12> 동두천시 상봉암동 봉동마을 전경	220
<그림 13> 봉동마을 정병순 제보자의 최근 모습	221
양주시	
<그림 1> 황상복 젊은 시절(양주농악 상쇠)	240
<그림 2> 황상복의 장구 시연	241
<그림 3> 황상복의 젊은 시절	242
<그림 4> 황상복의 모친	243
<그림 5> 근래 국립묘지에서 확인한 황상복의 형님 묘소	244
<그림 6> 황상복의 팽과리 연습(양주농악 상쇠)	245
<그림 7> 양주농악 1914년 농기	246
<그림 8>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무태안	270

<그림 9> 최승덕(6.25 참전 유공자)	271
<그림 10> 참전유공자증	272
<그림 11> 그림 , 방성리 최승덕의 송서율창 발표회	272
<그림 12> 최승덕의 송서율창 시연	273
<그림 14> 최승덕이 주도한 2004년 한국국악협회 양주시부 창립총회 기념 촬영	274
<그림 15> 방성리 최승덕의 송서율창 교본	274

연천군

<그림 1> 연천군 미산면 유촌2리	289
<그림 2> 유촌 2리 남궁목의 최근 모습	290
<그림 3> 유촌2리 남궁목이 담긴 인삼주	296
<그림 4>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312
<그림 5> 이완수의 집 홍수 피해 흔적과 복조리	322
<그림 6> 무등리 이완수의 연천향교 장의 임명장	324

의정부시

<그림 1>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전경	338
<그림 2>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마을 세부도	338
<그림 3> 만가대마을 경노당이 있는 용현어린이집	339
<그림 4> 만가대마을 전경과 뒤의 수락산	339
<그림 5>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351

파주시

<그림 1>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전경	362
<그림 2> 파주시 광탄면 용미2리 세부도와 주변	362
<그림 3>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68
<그림 4> 웅담2리의 남찬우 제보자	374
<그림 5>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와 인근 저수지	381
<그림 6> 유동화, 김태화의 아들 첫돌 사진	385
<그림 7> 직천리 유동필이 지끈을 이용해 바구니를 제작하는 모습	385
<그림 8> 유동필, 김태화 결혼 사진	386

〈그림 9〉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404
〈그림 10〉 파주시 자장리 장형섭 제보자	406
포천시	
〈그림 1〉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전경(인근 천주산, 일동면소재지)	424
〈그림 2〉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세부도	425
〈그림 3〉 양재호 길명 2리 노인회장	427
〈그림 4〉 길명2리 김기용, 이용숙 부부의 최근 모습	427
〈그림 5〉 길명2리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1963년)	428
〈그림 6〉 길명 2리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 후 가족과 친지(1963년)	429
〈그림 7〉 김기용, 이용숙 혼례식 후의 신랑 친구들	429
〈그림 8〉 김기용, 이용숙의 혼례 후 가족사진(1963년)	430
〈그림 9〉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전경(인근 천주산, 길명리)	445
〈그림 10〉 포천시 신북면 기지1리 틀뭇이마을 세부도	445
〈그림 11〉 기지1리 류건영, 조난호 부부	446
〈그림 12〉 기지1리 류건영이 60여년 전에 지은 한옥	448
〈그림 13〉 기지1리 류건영이 60여년 지은 집의 대들보	448
〈그림 14〉 류건영 집의 바깥 부엌의 아궁이의 솔과 장작	449
〈그림 15〉 기지1리 류건영의 대들보 상량문	449
〈그림 16〉 기지1리 류건영이 60여년 전에 지은 집의 성주신	450
〈그림 17〉 기지1리 류건영 집 바깥 부엌의 정화수	450
〈그림 18〉 류건영이 보관하고 있는 틀뭇이마을 산제사 축문(1962년 9월 2일)	452
〈그림 19〉 류건영이 작성한 동해놀이 축문	453
〈그림 20〉 류건영의 손때 묻은 삼태기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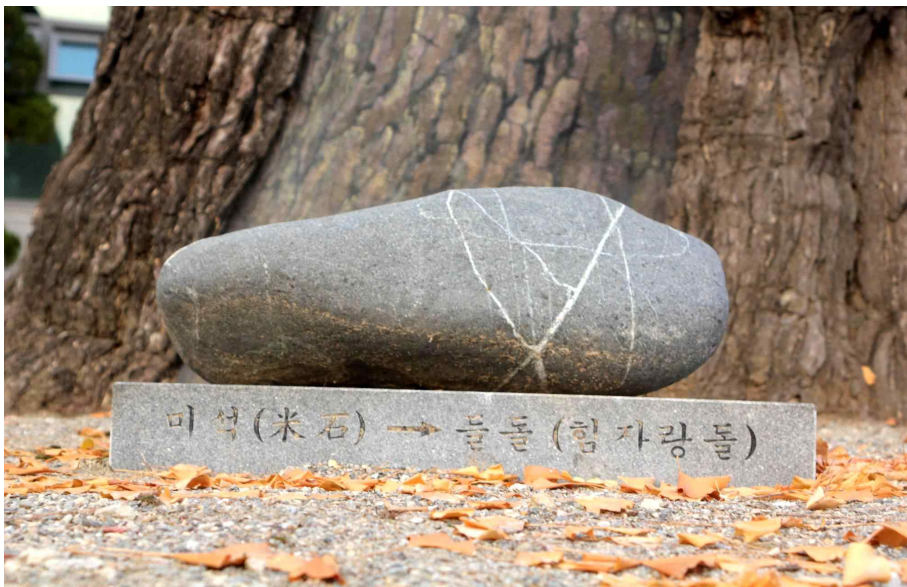


그림 1 동두천시 사당골 들돌(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그림 2 파주시 직천리, 유동필 생활도구 공예품 제작과정, 지곤 바구니 제작(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그림 3 양주시 석우리, 양주농악 농기1(1914, 음력 6월, 석우리 박달동)



그림 4 양주시 석우리, 황상복 형님 묘소, 전쟁시 전사, 국립묘지



그림 5 양주시 방성리, 최승덕의 송서율창 발표(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거주)



그림 6 동두천시 사당골 행단제 안내문



그림 8 양주시 석우리, 황상복 젊은 시절, 농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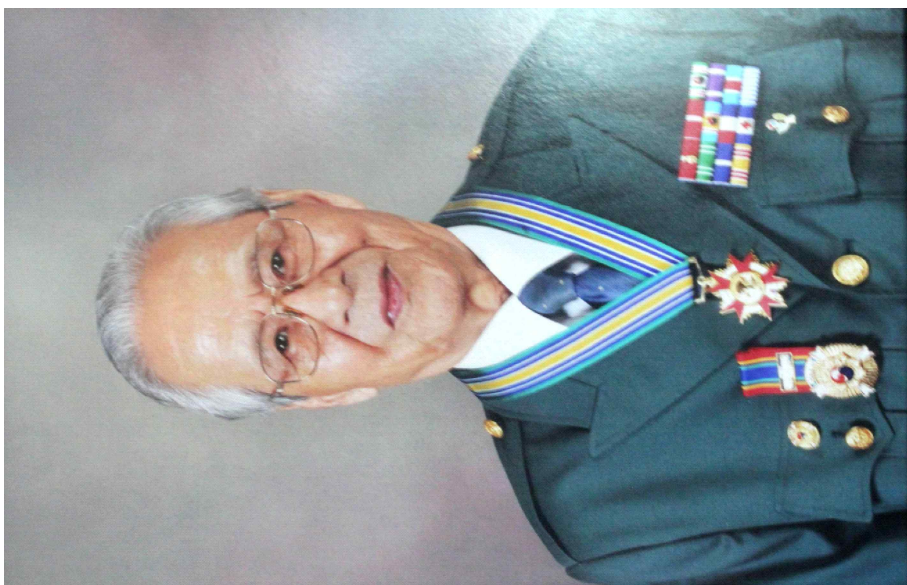


그림 7 양주시 방성리, 최승덕 전쟁 참전 훈장



그림 9 동두천시 사당골 은행나무 앞 기념사진(1973년,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그림 10 고양시 강매1리, 선호육 1957년 수지면 임의리 혼인 때의 신랑, 신부(고양시 덕양구 강매1리)

경기북부 지역은 전쟁으로 인한 마을 파괴, 원주민 강제 소개, 수복에 따른 이주, 군인들의 증가, 사회주의 통치 경험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서울과 유사할 정도로 여러 지역과 외국의 민속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 민속에 대한 고찰은 다음 과제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세시와 놀이

ISBN 979-11-86929-32-2



9 4380



9 791186 929322